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제 7 호(53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0돐에 즈음하여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발표하시였다. 로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일찌기 《ㅌ.ㄷ》로부터 시작된 우리 당 건설위업의 력사적승리와 그 길에서 이룩된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경험들을 깊이있게 총화하고 혁명적당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심오하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서만 이룩될수 있었으며 그것은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구현한 빛나는 결실이다.

로작은 로동계급의 당창건의 합법칙성과 새형의 당의 성격과 사명, 당건설원리와 원칙,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와 대중적지반의 강화, 당의 령도적역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서의 당의 전망적건설 등 당창건으로부터 그 장래발전에 이르는 모든 단계,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이르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심오히 분석하고 폭넓고 깊이있는 백과전서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로작은 그 전체계와 내용의 완벽성과 풍부성에 있어서, 거기에 담겨진 사상과 리론의 진리성과 심오성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문헌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로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총화한 당건설의 기념비적고전을 내놓으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사상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킨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깊이 학습함으로써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며 사업과 생활에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경험과 합법칙성을 리론적으로 개괄하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성격과 사명, 당건설의 원리와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불멸의 총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어떤 립장에서 어떠한 로정을 거쳐 어떻게 창건하며 창건된 당의 성격과 사명, 당건설의 원리와 원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존망, 그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수령이 제시한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간다. 우리 당 건설경험의 독창성과 풍부성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결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을 세우는것을 혁명의 승패와 인민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으며 당을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당창건의 로정, 새형의 혁명적당의 성격, 당건설 원리와 원칙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롭고 독창적인 길이 개척되게

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 창건될수 있었다. 로작에는 이 영광스러운 력사적로정이 전면적으로 총화되고 그 로정에서 이룩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당건설 경험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다.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로작의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가 있는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로작은 그처럼 위대하고 빛나는것이다.

로작은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에서 당을 창건한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하려면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령도해야 한다는것, 그렇게 하면 자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수 있고 동정도 받을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었으며 이러한 신념밑에 투쟁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페지)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위업은 처음부터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면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진행되였으며 그것은 오직 자주적인 길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었다.

1920년대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대신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권력싸움만 하였으며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이며 진짜 《맑스주의파》라고 하면서 국제당의 승인이나 받으려 돌아다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공산주의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태를 가장 정확히 분석하시고 혁명을 하려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하며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당을 건설할데 대한 주체적인 혁명적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확고한 사상리론적기초를 마련하시였으며 당의 력사적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업으로부터 당을 창건하고 건설하며 강화발전시키는 모든 사업을 오직 자주적립장에서 진행하도록 이끄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먼저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밑에 튼튼한 기초를 닦고 그에 토대하여 당을 창건하는것이다.

당창건의 튼튼한 기초를 닦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이다. 튼튼한 기초를 마련함이 없이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으며 설사 당을 창건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당중앙을 내오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으로 알려져있는 기성의 경험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시고 충분한 준비밑에 당의 기층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방침에 따라 1930년에 카륜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으로 된 첫 당조직이 결성된 이후 그것을 모체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로작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면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데서 당조직들을 내오고 당조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공산주의핵심들을 키워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

적통일을 강화하는 문제, 당창건의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꾸리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론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로정과 경험을 개괄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주체적인 당창건 방침을 제시하고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그것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실수 있었으며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그리고 튼튼한 기초우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실수 있었다.

로작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 창건의 력사적경험과 합법칙성을 총화하고있을뿐아니라 창건된 우리 당의 성격과 사명, 당건설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도 리론적으로 심오하게 전개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을 밝히는것은 당건설, 당활동의 총적방향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당의 성격과 사명은 사회계급적기초와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은 그 사회계급적기초에서 볼 때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며 사상적기초에서 볼 때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이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 사명의 견지에서 보면 주체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로작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은 한마디로 특징지으면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특히 당의 지도사상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당의 모든 면모를 특징짓는 기본요인이다.

로작은 우리 당의 성격과 사명을 과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새형의 당의 면모를 뚜렷이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고있다.

로작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당건설에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원리와 원칙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혁명적당이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자기의 본성과 특성에 맞는 고유한 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할수 있도록 당건설 원리와 원칙들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고유한 당건설 원리와 원칙이 정확히 밝혀져야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당을 옳게 건설할수 있으며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다.

로작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라는것을 정식화하고있으며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 당이 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이루는것 그리고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건설원칙이라는데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펼쳐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은 바로 주체적인 당건설의 원리와 원칙들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갈 때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또한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적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여야만 당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당앞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당건설에서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 언제나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로작은 우리 당이 창건 첫날부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온 력사적경험을 개괄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꽉 들어차야 하며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야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거나 사상의지 및 행동상 통일단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로작에 천명된바와 같이 지난날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단결을 실현하였으며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조직적단결을 이룩하였으며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한 가장 고귀한 력사적경험을 마련할수 있었다.

로작에서 천명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대렬을 정예화하는 문제, 당안에서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혁명적규률을 세우는 문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한 독창적인 당건설리론들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로작은 또한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전면적으로 개괄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은 당의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이다. 군중을 떠난 당이란 있을수 없으며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위력할수 없다. 우리 당의 힘의 원천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강화발전시켜온 전로정은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으로 장성발전시켜온 력사적투쟁과정이였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당자체를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우리 당 발전의 절실한 요구로부터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근로대중의 분렬을 막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동맹을 튼튼히 하고 우리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로작에서는 대중적당건설로선은 해방직후 우리 나라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도 맞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사회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가 더욱 일치되고 그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날을 따라 강화되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도 맞는 독창적인 당건설로선이라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고있다.

로작은 이밖에도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인 경험, 통일전선경험,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이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주체의 당건설원칙을 확고히 실현하며 당이 력사에 없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에서 전면적으로 밝혀진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또한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리론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는 위대한 문헌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건설, 당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혀야 당이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정치조직, 그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고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당의 령도의 본질을 과학리론적으로 정확히 밝히는것이다. 당의 령도의 본질을 어떻게 밝히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성격과 방향, 방법문제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당의 령도의 본질을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기능에 맞게 규정하여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편향없이 올바로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로작에서는 당의 령도의 본질에 대하여 정치적령도이라는 고전적인 정식화를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기술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교양하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는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고있다.

로작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주권문제를 로동계급의 당이 옳게 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과 이를 구현한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개괄하고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문제를 옳바로 해결하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로작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여실히 검증된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주권문제의 옳바른 해결과 그것을 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고있다.

이밖에도 로작에서는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고 각급 당위원회들의 키잡이역할을 높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문제, 당이 혁명무력건설에 대한 지도와 나라의 대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 등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리론실천적해답을 주고있다.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령도예술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수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가져야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로작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여 창조된 당의 령도예술에 관한 리론을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당의 령도예술에서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사업방법, 혁명가적기풍과 고상한 공산주의적품성을 담은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이다.

로작은 령도예술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요구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들을 우리 당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가지고 대중에 대한 령도를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참으로 로작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당의 령도예술에 관한 리론을 완전무결하게 담고있는 위대한 문헌이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진로를 밝힌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위업이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옳게 계승해나간다는것은 결국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혁명의 운명, 그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특히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대가 출현한 이래 이미 한세기이상이 흘러갔고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에 와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창건한 혁명적당건설위업계승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것으로 제기되고있다. 로작의 전반 체계와 내용에 관통되고있는 기본정신은 결국 〈ㅌ. ㄷ〉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당 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려는데 있다.

로작은 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이 기본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것과 함께 그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제시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로작은 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문제,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등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히고있다. 이것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 길을 명시하고 공산주의사회에서의 당건설의 합법칙성에 관한 독창적 사상과 리론을 새롭게 밝힌것으로서 로작이 이룩한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로작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

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성과이며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여 전당주체사상화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당주체사상화에 관한 위대한 방침은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며 수령의 당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총적방향을 밝혀준 탁월한 방침이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화시킨 불멸의 력사적공헌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우리 시대 새형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는 문제로부터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당으로서의 본질적특징과 징표를 갖추도록 하며 나아가서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히고있는 혁명적당건설리론의 백과전서이며 불멸의 총서이며 혁명승리의 전투적기치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6～117페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하여 주체의 혁명적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깊이 체득함으로써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철저히 구현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당과 혁명의 밝은 전도와 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전적으로 달려있으며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빛내여나가는데서 기본고리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건설과 당사업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 성과를 더욱 빛내여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투쟁하자.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적책동과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평화와 통일위업이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계속 둥지를 틀고앉아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새 전쟁 준비를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는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이 가장 날카롭게 대치하고있는 지역으로, 새 전쟁의 위험한 가열장으로 되였다.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긴장격화와 새 전쟁 도발책동은 그들이 추구하고있는 대조선, 대아세아 전략의 중요한 산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을 사회주의력량과의 중요한 군사적대결마당으로 보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이 대결정책의 초점으로 삼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사회주의나라들에 대처하는 《전방제선》체계의 중요한 거점으로, 저들의 대륙침략의 《타격교두보》로 삼고 그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우두머리들은 남조선이 《미국전략의 제1선》이며 그곳을 군사적지탱점으로 장악하는것이 《미국의 대아세아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된다는것을 공공연히 말하고있다. 미제는 사실상 남조선을 아세아전략의 운명을 걸고있는 관건적지역으로 보고있다.

더우기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에 기초한 《강한 미국의 재현》이라는 구호가 세계도처에서 계속 좌절당하고있는 조건에서 수세와 피동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만회하며 아세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를 조선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흔들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있는 사정은 미국지배층의 불안을 증대시키고있다.

자주의 물결이 온 세계에 세차게 굽이치고있는 오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이 투쟁의 파도는 온 남조선땅을 휩쓸고있다.

이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체계의 위기를 수습하며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집결시키고있으며 새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국무장관 슐쯔가 얼마전에 미국회에서 현재 남조선의 《안보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요하다.》고 력설한 것은 남조선을 영구히 거머쥐고 새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해나가려는 저들의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과 괴뢰군무력을 급격히 증강하고있다. 남조선에 각종 살인무기로 장비한 4만여명의 침략군대를 배비한 미제는 최신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추가공급함으로써 미륙해공군의 전투력을 엄청나게 증강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에서 미국식으로 무장한 거의 100만이나 되는 방대한 수의 괴뢰군과 무려 1,000만명이 넘는 준군사인원을 유지하고있으며 각종 명목으로 남조선에 군사원조를 퍼붓고 현대적인 살인장비들을 끌어들여 남조선괴뢰군을 무장시키고있다. 미국정부는 1987회계년도에 그 전해보다 40%나 더 많은 2억 3,200만딸라의 군사원조를 남조선에 주려 하고있으며 1986～1990년사이에

80억딸라분의 각종 무기를 제공할것이라고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남조선을 핵전쟁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열핵전쟁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은 조선반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남조선처럼 각종 핵무기가 조밀하게 배비되여 있는곳은 없습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13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말그대로 커다란 전쟁화약고로, 핵전쟁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이미 남조선에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을 배비하고 《에프 16》전투폭격기를 비롯한 핵운반수단들과 악명높은 중성자폭탄까지 끌어들이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조밀하게 배비되여있는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전변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것도 부족하여 앞으로 《비 52》전략폭격기와 《퍼싱 2》중거리미싸일, 순항미싸일 그리고 신형화학무기들을 끌어들일 흉계를 꾸미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열핵전쟁 도발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의 일환으로서 미제 7함대무력이 최신형 핵항공모함들과 핵잠수함들로 더욱 증강되고 새로운 핵순항미싸일들로 보강되고있다.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미제의 책동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올해에 벌린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6》 전쟁연습을 통해서도 여실히 알수 있다.

미제가 년례행사처럼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며 조선에서 정세를 격화시켜 세계적인 열핵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는 흉악한 책동의 일환이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그것이 거듭될수록 그 도발적성격과 위험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고있다. 사태발전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핵전략은 사실상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행동화에로 넘어가고있다.

올해에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에는 핵무기를 장비한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미 제7함대의 주력과 핵무기를 적재하는 각종 최신형 전략, 전투폭격기들과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미싸일과 장거리포 등 핵타격수단들이 동원되였으며 악명높은 《푸른 베레모》부대까지 투입되였다. 이것은 미제의 대아세아, 대조선전략의 산물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단순한 군사연습이 아니라 립체적인 핵공격태세를 완비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한 전면적인 핵공격연습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의 막이 내리기도전에 수백만의 괴뢰군,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들을 동원하여 《땅별 86》이요, 《비호 86》이요 하는 광란적인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열기띤 책동은 급속히 추진되고있는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음모와 관련하여 더욱 엄중해지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적극 추진되고있는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아세아판의 《나토》를 만들며 일본《자위대》무력을 조선반도의 《유사시》에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십자군원정》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이른바 3각군사동맹체제는 무력으로 조선의 인공적인 분렬을 영구화하며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의 체제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의하여 미일남조선사이에는 이른바 《운명공동체》가 형성되고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과의 군사적결탁이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3각군사동맹은 비록 조약으로서 조인되지 않았을뿐 집단적군사활력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가고있으며 현실

적으로 움직이고있다.

미제의 이 모든 전쟁준비책동은 놈들이야말로 새 전쟁, 열핵전쟁 도발책동의 장본인이며 조선반도가 전쟁의 위험한 발원지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미제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고 전두환과 같은 파쑈무리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한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이 가셔질수 없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진정한 평화도 담보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소동은 이른바 《남침위협》이라는 있지도 않는 허구밑에 감행되고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인민들을 기만하고 세계여론을 오도할 목적밑에 《남침위협》소동을 벌리는데 모든 어용수단들을 다 동원하고있으며 매일과같이 관제행사를 벌려놓고 사람들속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있다. 《남침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의 파렴치한 강도적수법이다. 조선반도에는 《남침위협》이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조선반도에는 《남침위협》이 아니라 오직 북침위협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공정한 여론들이 일치하게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드는것은 그 목적이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저들의 발광적인 무력증강책동과 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려는것이며 남조선사회에 극도의 위기감을 조성시킴으로써 고조되고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말살하려는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극도로 격화되고있는 첨예한 정세는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책동을 제때에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으며 평화와 인류의 안전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민족이 외세에 의한 전쟁의 희생물로 되고 조국강토가 또다시 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적리익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숭고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한 정세를 해소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발기들과 방도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모든 새로운 발기들과 제안들은 격화된 정세를 해소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도들을 밝힌것으로서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만일 우리의 이 정당한 제안들이 응당한 호응을 받고 실현되였더라면 오늘 조선반도에는 공고한 평화가 정착되게 되고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함께 전진하는 새로운 기상이 차넘치게 되였을것이다. 그러나 침략에 눈이 어둡고 분렬만을 추구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정당한 발기들과 방안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면서 정세를 계단식으로 더욱 격화시키고 대결과 전쟁로선만을 추구하였으며 그것은 오늘 더욱더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

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6페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신성한 과업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없으며 인류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주체적력량을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지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전, 반미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전쟁은 불가피한것이 아니며 평화는 능히 담보될수 있다. 오늘 반제평화력량은 전쟁세력보다 비할바없이 위력하다. 우리의 주체적력량을 더욱더 철벽으로 다지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전, 반미 투쟁을 세차게 벌려나간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깊이 몰아넣을수 있으며 놈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를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을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특히 모든 승리의 근본요인인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정치사상적힘은 혁명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적에 비한 혁명군대의 근본적우월성도 바로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

정치사상적준비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우리는 지난날 혁명의 수뇌를 보위하기 위하여 날아오는 적탄도 가슴으로 막아나선 항일혁명선렬들의 그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철벽으로 굳게 다져야 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반석같이 뭉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도 타승할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단결과 통일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굳게 지키며 당의 영광스러운 위업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민일치의 전통적인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인민군대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것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사업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의 불집을 또다시 일으키면 한사람같이 일떠나 놈들을 일격에 쳐부실 각오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우리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력은 나라의 모든 위력의 물질적 기초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정치적 위력, 군사적위력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기치를 높이 들고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지도일군들은 주인다운 사업기풍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경제건설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함으로써 당의 의도대로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의 단합된 진출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합된 력량으로 진출한다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다.

오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독재 타도하자》, 《미제는 물러가라》, 《핵무기를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미제의 전쟁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그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로부터 흔들어놓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이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괴뢰들의 군사파쑈독재를 매장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이 투쟁은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그것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주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은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안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과 긴장을 가시며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주동적인 성의있는 노력에 적극 합류하며 그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을 합쳐 과감히 진출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전, 평화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반전, 반미 투쟁은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시키고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과 전쟁세력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 나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그에 확고한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정당한 위업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기대한다.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광범한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된 조국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40여년동안이나 인공적인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운을 안고 항시적인 긴장과 대결의 분위기속에서 살아왔다.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절박한 문제이다.

미제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낡아빠진 《힘의 정책》을 버려야 하며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그만두고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장비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군사적위협이나 전쟁의 방법으로써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으며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미국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당 호응해나서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대결과 전쟁로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정세를 긴장시켜 불집을 일으킨다면 지난 조선전쟁때보다 더 수치스러운 참패를 맛보게 될것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미제의 전쟁로선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며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성실현의 합법칙성

원 화 식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을 밝히는것은 사회발전, 혁명발전에 대한 옳은 리해를 확립하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리론을 전개하고 체계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모든 혁명투쟁은 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이 밝혀져야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정확히 인식할수 있으며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옳게 전개하고 체계화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실현된다는것을 밝히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21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통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이 자연과 사회에도 있으며 사람들자신에게도 있기때문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이러한 자주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 존재, 자주적인 존재임으로 하여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리익에 맞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주위세계인 자연과 사회는 주어진 상태에서는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이루어져있지 못하다.

사회를 놓고보아도 그러하다. 사회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이다. 사람들의 집단생활, 사회생활은 일정한 사회적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자면 사회적관계가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관계들, 적대적성격을 띠고있는 사회적관계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짓밟기 위한것으로 되여있었다.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연에는 사람의 리익에 맞는것도 있고 맞지 않는것도 있으며 가물이 들고 큰물이 나는것과 같이 사람의 리익을 침해하는것도 있다. 또한 광석이나 원유처럼 사람의 리익에 맞는것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대로 쓸수 없는것이다. 이러한것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저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사상과 문화에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이 있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나가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낡은 사회가 멸망한 다음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지난날의 사상문화도 그 대부분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에 어긋나는것으로서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고있다.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은 자연과 사회에도 있으며 사람이 가지고있는 사상과 문화에도 있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계급적 및 민족적 착취와 억압의 사회적관계들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억누르며 자연의 맹목적인 힘과 불리한 조건은 물질생활분야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며 낡은 사상과 문화는 사상정신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마비시킨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 물질적 및 사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통하여 마련된다.

사회개조를 통하여 낡은 사회제도가 청산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선진적인 사회제도가 세워지며 모든 사회적관계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더욱더 합리적인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개조를 통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로동을 헐하게 하면서도 유족하게 살수 있는 물질적부를 만들어내며 문화위생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인간개조를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은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지니게 되며 자주적인 존재로서 살며 활동할수 있게 된다. 자연과 사회와 사람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여있는것처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도 밀접한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정치생활과 물질생활, 사상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 과업은 력사적순차성을 가지고 해결되여나간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선차적으로 실현되고 뒤이어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이 전면에 제기되고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여야 사람들은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에서 벗어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며 사람답게 살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는것은 또한 사람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데서나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열쇠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여야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수 없고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반동 사상과 문화에 얽매여 사상문화적

발전도 이룩해나갈수 없다.

이 모든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한번의 사회혁명으로써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지나온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렬된 이래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제도가 여러번 교체되여왔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서기전까지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인류사회는 노예제도로부터 봉건제도로, 다시 자본주의제도로 교체되여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취계급사회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되여온 사회교체과정이였으며 따라서 이 과정에 착취자들이 바뀌여지고 사회적예속의 형태가 바뀌여졌을뿐 계급적 지배와 압박 자체는 없애지 못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가장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자본주의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곧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나갈 때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지만 아직은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민대중은 인류사회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사상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은 극도로 억제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착취사회의 조건에서는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은 전사회적범위에서 예견할수도 없었다. 착취계급들은 자연개조사업을 저들의 리익을 추구하는데 복종시켰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낡은 사상과 문화를 퍼뜨렸다. 이러한 후과로 인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구속당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더욱 힘있는 존재로, 혁명적인 사상과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 력사적과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여나갈 때 빛나게 해결된다. 이것은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력사적 과제가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다음에 전면에 제기되고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가는것이 합법칙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또한 국제적으로 련합된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고 온 세계를 자주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성격을 띠고있습니다.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는것만큼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역시 국제적인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3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

대하고 온 세계를 자주화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전세계적범위에서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국제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우선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강도적본성으로부터 심각한 모순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서로 련합하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략탈을 일삼고있다.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를 가지며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국제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에 의하여 독립과 자주권이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어제날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은 력사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여있다. 오늘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불공평한 국제질서가 마사지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가 점차 서가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제국주의련합세력은 격파될것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것이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 앞에는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인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에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근로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침해하려고 책동하는 조건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국주의 련합세력을 격파하고 온 세계를 자주화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야 한다. 그래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되는 합법칙성을 밝히였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종국적목적은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을 전면적으로 마련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류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내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운 자주성을 위한 투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또한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

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그 종국적목적을 실현하게 되는것이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통하여 실현된다는것을 밝히고 그 실현의 순차적단계와 력사적로정, 자주성이 세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준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이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혀지고 체계화된것은 인류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사회력사관과 혁명리론을 발전완성시키는데 위대한 공헌을 한데 있다. 인류력사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여나가는 합법칙성을 밝히는것은 곧 인류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는것으로 되며 사회력사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세우기 위한 담보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이 밝혀짐으로써 인류력사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로 보는 견해와 관점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고히 서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이 밝혀짐으로써 혁명운동발전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는 과학리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자연과 사회, 인간 개조를 다 포괄하는 혁명리론으로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이 밝혀진것은 또한 자주성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이 명확한 투쟁목표와 과학적인 방도를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은 그 과학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성실현의 합법칙성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인민들을 사회적예속에서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인민들을 자연의 구속과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은 세계혁명발전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하였다. 오늘 세계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어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얽매여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수억만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섰으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과 그를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사업과 일군들의 혁명적기풍

박 남 기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경제지도관리사업을 어떻게 전개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이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제지도사업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의 발현형태로서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의 기본임무로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맡은바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지휘와 경제조직사업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혁명적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경제지도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는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에게 있는 낡은 사업작풍들을 빨리 고치기만 한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무엇보다도먼저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66페지)

경제일군들은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그들이 어떠한 사업태도, 사업기풍을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것은 경제지도사업에 결정적영향을 미친다.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지닌 일군만이 경제지도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혁명적기풍이 경제지도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이 사업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경제지도사업은 계획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기술발전, 자재보장, 로동조직, 재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경영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며 생산에 대한 통일적지휘를 하는 책임적인 사업이다. 정확한 경제지도사업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여나갈수 없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대규모경제이며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와 로력을 비롯한 모든 생산요소들을 제때에 보장하고 인민경제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진행되는 조건은 수시로 변동되고 끊임없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변동되는 구체적 조건과 환경에 맞게 조직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지 않으면 복잡하게 제기되는 경제건설과업에 맞게 생산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수 없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하고 로력과 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요구도 실현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업을 옳게 지도하자면 그 담당자들인 경제지도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일하는 문제는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더욱더 개선하여야 할 현 실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경제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제기될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련합기업소들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는 현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실정에 맞게 더욱 능숙하게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경제지도사업을 더욱더 완성해나가자면 경제일군들의 사업태도, 사업기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경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경제사업도 전후시기나 사회주의공업화시기와는 다른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경제건설과업은 그 규모가 방대할뿐아니라 새로운 질적비약을 예견하고있는 매우 높은 목표이다.

우리 당은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는것을 중요과업으로 제기하고있으며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빨리 해제낄데 대한 구상을 펼치였다. 여기에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발휘시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우리 인민의 식의주문제를 더 잘 해결하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우리 일군들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나 전후복구건설시기의 간고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혁명승리를 마련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정신으로 당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최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실무지도과정에 높은 평가를 받은 평천구역당 일군들은 전군중적운동으로 경공업혁명,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며 직매점을 통한 상업봉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데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이곳 구역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일에 헌신하겠다는 높은 자각과 당정책을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책임적으로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지고 일해온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실천적경험은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바로 경제지도일군들의 높은 자각과 혁명가적사업기풍에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시기 경제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혁명가적기풍은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마력을 내서 일하는것이다.

사업기풍은 실천투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사상, 그들의 사업 태도와 방법의 종합적표현이다. 그것은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한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실천활동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작풍, 사업기풍이 나오게 된다. 책임적으로 일하는 립장과 태도가 서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방식을 견지할 때에만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확립될수 있다.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마력을 내서 일하는 혁명적기풍은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 립장과 태도를

구현한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일군들의 활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기수이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은 무엇보다도 당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당경제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높이 받드는 혁명적 립장과 태도가 확고한 일군만이 경제지도에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하나하나 실제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 그리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혁명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는 일군이라야 복잡한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최대한의 마력을 낼수 있다. 말로만 당경제정책을 관철한다고 하면서 실지사업에서는 우물쭈물하기나 이구실저구실 붙이면서 당정책집행을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지 않는 사업태도를 지닌 일군들에게서는 혁명가적기풍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말은 적게 하면서도 당경제정책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하여 늘 생각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사람이 참다운 주체형의 경제지도일군이라고 할수 있다.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마력을 내서 일하자면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헌신분투하는 대범정신을 지녀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늘이는 문제,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분야에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 어느 하나도 경제지도일군들이 공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것이란 없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는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그리고 경제지도일군들은 자신이 직접 씨를 뿌리고 가꾸며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식으로 일할 때에만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불굴의 투지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혁명과업을 기어이 수행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혁명적사업기풍이다.

지도일군들은 강의한 의지를 가진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사업기풍에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야마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이 구현되여있다. 어렵다고 하여 주저하거나 과업이 방대하다고 하여 중도에서 물러서는것과 같은 그릇된 사업기풍을 가지고서는 경제사업을 바로 지도할수 없다.

경제건설과정에는 일정한 애로가 생길수도 있다. 경제사업은 사람과 자원, 기술수단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매우 복잡한 사업이며 그 단위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더우기 사회주의경제는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지 않으면 계획경제로서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경제사업의 어느 한 측면도 저절로 해결될수 있는것이란 없으며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주동적으로 극복해나가는 완강한 투쟁을 벌려야만 훌륭한 건설을 볼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난관앞에 동요하면서 당이 맡겨준 자기 초소에서 자리지김이나 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면 본체만체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뒤걸음질치고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도일군의 참모습은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용기를 내며 충천하는 기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제기되는 모든 일의 앞장에 서서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등 사업과정에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해결해나가려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니고 부닥친 난관과 애로를 맞받아뚫고나가며 사업을 인내성있게 밀고나간다. 강의한 의지를 지닌 지도일군이라야 또한 모든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일본새로 일할수 있다.

현시기 경제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은 또한 대담하게 작전하고 치밀하게 조직하며 능숙하게 지휘하는것이다.

혁명적사업기풍은 혁명적인 일본새로 일하는 일군들만이 지닐수 있으며 그것은 옳바른 사업방법에 확고히 의거할때 훌륭히 확립될수 있다.

대담한 작전, 세밀한 조직사업, 능숙한 지휘는 경제관리와 생산지도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게 하는 참다운 일본새이다. 경제건설투쟁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며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는데 맞게 경제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면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설계하며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여야 옳은 방향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어려운 경제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잘하여 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자면 계획화사업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오늘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인민경제적수요가 다양해지는 조건에서 그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는것은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여야 모든 생산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련이어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한 경제건설과업을 능숙하게 처리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수 있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고 로력과 자재를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치밀하게 조직하며 능숙하게 지휘하는 일본새로 혁명적으로 사업하자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태를 손금보듯이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있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경제정책집행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해결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늘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더욱더 주인답게 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담당하고 당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이 높은 신임에 반드시 빛나는 사업성과로,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혁명의 중요한 초소를 맡겨주시였는데 수령님의 전사답게 한몫을 맡아 책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튼튼한 각오를 가지

고 일해야 합니다.》

일군들이 혁명적기풍을 지니고 경제지도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담당자인 일군들이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는것이다. 사상적각오가 높고 결심이 확고하여야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수 있다.

경제일군들은 특히 자기가 맡은 부문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관점을 튼튼히 세우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조직사업을 깐지게 할수 있으며 책임을 우에 밀고 아래에 미는 요령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맡은바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적기풍으로 경제지도사업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는 혁명적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요구이다. 더우기 오늘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당의 이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일군들은 옳바른 지도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울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고 자신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현실을 똑똑히 료해하여야 하며 아래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또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서는 당원들과 군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일군들이 실력을 키우는것은 경제지도사업에서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일군들이 지닌 충실성은 경제지도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의 충실성이 반드시 높은 실력에 의하여 확고히 안받침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혁명이 높은 단계에 이르고 일군들에게 지워진 임무가 매우 무거운 조건에서 실력이 높지 않고서는 혁명적으로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갈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피타는 노력으로 당정책에 정통하고 경제관리지식과 선진과학기술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적기풍을 지니고 경제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경제건설에서의 성과는 이 사업을 당적으로 어떻게 떠밀어주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경제지도사업을 해나가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일군들이 경제지도사업을 짜고들고 능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경제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혁명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환경보호법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법전

안 천 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는 자연과 생활 환경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된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환경보호법을 채택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는 환경보호법은 당과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며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조국강산과 풍부한 재부를 물려줄수 있게 담보해주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전이다.

주체의 환경보호법을 가지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서 또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되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과 자랑으로 된다.

우리는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생활환경면모를 더 잘 갖추어나가야 한다.

* *

환경보호문제는 사람이 자기의 운명과 생활을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환경을 보호한다는것은 인간생활의 물질적원천인 자연과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연과 생활 환경은 인간의 존재와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조건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이면서 동시에 생물학적존재인것만큼 그들의 생존과 활동은 일정한 사회적조건과 자연적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은 자연과 생활 환경을 떠나서는 생명유기체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순간도 유지해나갈수 없으며 그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람은 자연을 대상으로 창조적활동을 힘있게 벌려야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으며 자연과 생활 환경을 목적의식적으로 꾸리고 보호하여 자기의 운명과 생활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는 특히 현시기 공업발전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공업의 발전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사람의 생존과 건강에 해를 주는 여러가지 공업배설물과 유해가스, 배기가스와 방사성물질, 각종 소음과 진동, 땅이 꺼져내려가는것과 같은 현상들을 발생시킬수 있다. 이러한 오염과 파괴의 위험은 공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짙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공업이 발전한다고 하여 반드시 있게 되는것은 아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는 단순한 자연적인 문제인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이다.

오늘 세계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연과 생활 환경의 혹심한 파괴와 오염 현상이 날로 증대되고있으며 그로부터 사람들의 생존과 활동에서는 엄중한 후과가 빚어지고있다. 이것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 착취계급들의 손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있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에게 자연과 생활 환경을 참답게 보장하여주는 문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해결될수 있는 문

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환경보호사업의 중요성과 그 실현의 사회정치적조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당과 국가의 주체적인 환경보호정책을 내놓으시고 그것이 빛나게 관철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에도 그랬고 정전직후에 공업을 복구건설할 때에도 공장들이 인민들에게 유해롭지 않도록 하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441페지)

공해를 미리 막는것은 인민들에게 훌륭한 환경을 보장해주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해를 미리 막는것을 공업건설과 기업관리에서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공업을 분산배치하고 공업지구로부터 주민지구를 분리시키며 공장건설과 광산개발에서 공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 실현을 위한 제반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공해를 미리 막는것과 함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잘 보존하고 인간생활에 리롭게 꾸리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환경을 인민들의 생활에 더욱 리롭게 개조하고 보존하는것을 당과 국가가 자기 활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책으로 제시하고 지난날 일제와 미제에 의하여 파괴된 환경을 복구할데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동시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구를 설정하여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며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나의 공장을 짓고 광산을 개발하는데서도 자연환경을 손상시키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주며 인민생활에 불편을 줄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경제적리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장과 광산의 건설과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톤의 강철이 그처럼 귀중했던 해방후에 로동자들의 원한이 서린 성진제강소의 원철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게 하시였으며 몇해전에는 남포제련소의 대규모소결로를 폭파하도록 하는 단호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중공업부문의 일군들이 묘향산에서 금광을 개발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도 금 몇톤때문에 풍치아름다운 명산을 파괴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인민의 문화휴양지를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인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불편을 주는 광산들은 폐갱하게 하시였다.

공화국의 환경보호법은 이렇듯 근로자들의 건강과 리익,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하여서라면 억만재부도 하늘로 날려보내며 수만금도 땅속에 묻어두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환경보호사상과 그에 기초한 당과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의 법적공고화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혁명적법전이다.

이번에 채택된 공화국환경보호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환경보호의 기본법이다.

환경보호법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법전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규제하고있는 기본 원칙과 내용들이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는 것과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3폐지)

환경보호문제를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환경보호사업의 혁명성과 반동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며 그것은 중요하게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경을 대하는 근본관점은 자본가들의 최대한의 리윤, 생산적리익을 중심으로 환경을 보는것이다. 리윤만 얻을수 있다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일을 꺼리낌없이 하며 공해산업도 마구 건설하고 핵무기의 생산과 시험을 중단없이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경의 파괴와 오염은 결국 자연적재해인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리윤획득을 위한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가져온 결과에 빚어신 사회적재난인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대하는것을 근본관점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자연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철저히 복종되여 진행되고있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은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환경보호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비롯한 전반내용들을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맞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는 환경보호법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할데 대한 원칙과 내용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이것은 공화국환경보호법이 자연과 생활 환경을 인민들의 리익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규제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환경보호법은 특히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막는것이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라는것을 밝히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러한 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투쟁할것이라는것을 천명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책동을 막고 인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표명하고있다.

환경보호법이 규제하고있는 기본 원칙과 내용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회의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법전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인 법전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 전반내용에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의 보장과 관련된것이 종합적으로 깊이있게 반영되여있는데 있다.

환경보호의 폭과 심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그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기준의 하나이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그 면모를 보존하며 더 훌륭하게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담보해주고있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은 조국땅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풍치를 손상파괴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자연과 생활 환경이 해로운 물질과 가스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등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음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자연환경의 구속에서 벗어나 문화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살며 일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환경보호법은 환경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폭넓게 규제하고있을뿐아니라 리상적인 환경보호수준을 보장할수 있는것들을 깊이있게 규제하고있다.

사람들에게 과학적이며 리상적인 환경보호수준을 보장해주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기와 물, 토양의 정결도를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것이다. 공기와 물, 토양은 유기체존재의 필수적인 3대구성요소로서 그것들의 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발육, 생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은 공기와 물, 토양의 오염과 손상을 방지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 구체적인 과업들을 깊이있게 규제함으로써 그 신성도와 정결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은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가스와 먼지 잡이장치를 하고 탕크와 배관을 비롯한 오염방지시설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가스와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륜전기재들을 운전할수 없게 규제함으로써 대기의 오염을 막고 과학적으로 정해진 공기의 순결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가지 버림물을 정화하며 오물과 페설물의 처리장을 바다와 강하천, 호소와 저수지, 먹는물원천지 가까운곳에 정하지 않도록 규제해놓았다. 그리하여 물의 오염을 막고 그 수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환경보호법은 이와 함께 농약과 유독성화학물질에 의한 토양의 오염을 막으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방사선농도를 배출기준아래로 떨구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에 의한 토양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있다.

환경보호법에 규제된 이 모든 내용들은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연과 생활환경의 신선도수준과 위생학적기준수치를 유지할뿐아니라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것으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인 법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마을의 대기순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하천과 바다의 수질은 세계적인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고있을뿐아니라 토질상태도 인간생활과 동식물의 서식에 적합한 리상적수준을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해라는 말을 모르고있으며 근로자들의 평균수명은 74살에 이르고있다.

우리 인민이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면서 아름다운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오늘 남조선에서는 환경이 오염되여 사람들이 참을수 없는 불행을 겪는 참상이 빚어지고있다. 미제와 력대 괴뢰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공해지대로 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주민들은 오염된 공기로 하여 호흡기질환과 피부병, 눈병과 같은 《공해병》에 걸려 신음하고있으며 지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고있다. 물과 토양의 오염에 의해서도 수많은 암환자를 발생시키는것을 비롯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토와 기름진 옥토가 황페화되고있다.

현실은 인민들이 맑은 공기와 물, 아름다운 강토에서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실증해주며 그것을 구현한 환경보호법은 가장 혁명적인 법전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인 법전으로 되는것은 또한 환경보호사업이 국가의 통일적이며 책임적인 지도밑에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전개됨으로써 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것과 관련된다.

아무리 내용이 좋은 훌륭한 법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담보가 마련되여있지 않는 법은 빈 종

이장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모든 경영활동이 개인의 주관적욕망에 따라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른바 《환경보호》사업은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영리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한것으로서 그것은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될수 없으며 자연발생성을 면할수 없는것이다. 비생산적지출이라고 말할수 있는 공해방지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에 자본가들은 자기의 돈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자금과 설비를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 여론과 압력에 못이겨 채택하는 《공해법》과 《생활보호법》은 그 실현담보가 없는 한갖 선언과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 개인의 리익이 일치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환경보호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며 인민대중은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국가가 환경보호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로력과 설비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보장해주며 그 집행을 지도통제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투자가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자립적인 공업과 주체적인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환경오염방지수단들과 환경보호시설들, 자연개조설비들이 생산되여 적극 리용되고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물질기술수단들의 보장에 의하여 공화국환경보호법은 그 실현이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은 모든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의하여서도 그 실현이 튼튼히 담보되고있다.

국가사회제도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환경과 그 개조에서도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그런것만큼 모든 근로자들은 환경보호사업이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한다. 언제나 국가사회제도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살며 일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 마을과 직장, 일터를 비롯하여 조국땅우에 솟아난 모든 귀중한 창조물들과 자기 향토에 있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다루며 관리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환경보호법이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의하여 그 실현이 확고히 담보되여있는 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공화국환경보호법은 그 목적과 규제원칙, 내용과 실현담보에 있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법전이다.

공화국환경보호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는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자연과 생활 환경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욱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높은 자각성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살며 일하는것은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환경보호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 그 내용과 요구들을 널리 해설침투하여 그들이 환경보호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며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향토를 꾸리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고있는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생활환경을 적극 개조하고 보호해나가야 할 것이다.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

최 문 선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당의 뿌리가 내린지 반세기가 넘는 오랜 력사에서 오늘처럼 당사업이 째이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당의 면모가 일신되고 당의 위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것은 혁명적당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행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력사와 인류 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다. 이것은 당의 령도를 받들고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으로 된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 ✽

당건설위업을 끊임없이 완성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당건설위업의 완성에 관한 문제는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정이란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 과정이다.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야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결국 당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간다는것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만들고 수령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당의 사명을 다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당건설위업을 완성하는 것을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전당주체사상화는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어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의 요구대로 벌려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혁명적당건설의 완성된 강령이다. 전당주체사상화는 우리 당 건설의 총적목표이며 여기에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기 위한 전략적과업과 임무가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혁명적당건설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여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당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입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당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이 철저히 확립되였습니다.》

당중앙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은 우선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워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린것이다.

당의 면모와 그 위력은 당을 구성하고있는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달려있다. 우리 당은 전당을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전투대오로 만들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정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워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이 제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들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중앙의 혁명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특질과 기본품성, 그 요구가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져있으며 이와 함께 당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당안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서게 되였다.

우리 당은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확히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각급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었다. 전당간부화방침은 모든 간부들을 한등급이상 간부의 수준에 끌어올리게 하며 모든 당원들을 간부의 수준에 끌어올리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전당간부화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전체 당원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군중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정치사상수준을 높이고 조직적으로 단련되며 혁명적으로 수양된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내세우고 모든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령도하였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모든 당원들이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조직사상생활을 전전

하게 해나가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그 내용과 방법을 독창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함으로써 전체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키워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교양, 충실성교양을 비롯한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훌륭히 키우도록 하였다. 모든 사상사업을 철두철미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우리 식대로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당사상사업을 통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의 지도밑에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결과 당안에는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말그대로 주체사상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뭉친 위력한 전투대오로 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길로만 가는 충실성을 간직한 수백만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기에 우리 당이 강하며 백전백승하는것이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대렬이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따르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진것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바로 여기에 혁명적당건설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크나큰 업적의 하나가 있다.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은 또한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한것이다.

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통일단결된 당만이 불패의 힘을 가질수 있고 사회의 심장,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당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면 전대오의 공고한 통일과 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적단결과 사상의지적통일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당이 조직된 부대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수령과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바탕을 두고 주체사상에 기초하는 공고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하도록 령도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리고 해방후 수십년동안 튼튼히 수호된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전면적으로 꽃펴나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지난날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위한 그 정신은 오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심장속에 고동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있다.

우리는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통일단결을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불패의것으로 다져놓은데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기에 우리 당은 수령이 개척한 길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혁명적전위부대로 되고있는것이다.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은 또한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을 철저히 확립한것이다.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원칙적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조직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적특성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사업체계와 규률성을 지닌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조직된 전위부대로 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적력량으로 된다. 당이 정연한 사업체계에 따라 활동하고 중앙집권적규률에 의하여 움직이지 못할 때에는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력사가 남긴 귀중한 경험이다. 력사적경험은 당안에 자유주의와 무규률이 지배하게 되면 그러한 당은 혁명적당이 아니라 《토론구락부》에 지나지 않으며 무기력한 존재로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확립한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마련하는것을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고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당안에 세워진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 장악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하부지도체계, 당안의 부서들간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강화하는 사업체계 등은 우리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마련된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이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위력한 당사업체계이다.

당사업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적인 질서와 제도이다. 조선로동당의 사업체계와 규률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전당의 모든 활동을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의도대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우리 당 사업체계와 규률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다. 당이 세워준 이러한 사업체계는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우와 아래가 기맥이 통하고 모든 일군들이 합심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어김없이 관철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다.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가 서고 그것이 당사업과 당활동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매개 당원들은 당조직에, 아래당조직은 웃당조직에 철저히 복종하며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다. 우리 당안에 선 사업체계와 규률은 당중앙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에 대한 그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규률은 무궁무진한 힘과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에 의한 새로운 당사업체계의

확립과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의 철저한 구현, 이것은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업적으로 되며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새로운 당사업체계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당사업과 당활동은 사업방법을 통하여 실현되며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당사업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업체계의 위력은 사업방법을 통하여 나타나며 아무리 훌륭한 사업체계를 세웠다 해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바로서지 않으면 사업체계가 은을 나타낼수 없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당의 고유한 사업방법으로,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 견지함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었으며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우리 당은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립된 결과 당안에는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늘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제기된 과업실현을 위한 옳은 방법론을 찾고 그들과 함께 풀어나가며 통이 크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확립되였다.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는 일군들속에 남아있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 사업방법 등 온갖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마스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 사업방법과 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 빛나게 구현된 고귀한 결실이다.

이처럼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당건설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계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전당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이룩된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특히 우리 당에서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것은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된 가장 커다란 성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11페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

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불패의 령도력과 절대적인 위신을 지닌 가장 권위있는 위대한 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실천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현명성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당원들은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영원히 당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할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게 하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오늘과 같은 당을 가지려고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온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념원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혁명의 양양한 전도가 확고히 담보되게 되였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령도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는 과정에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업적은 주체형의 당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이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재부이다. 우리는 이 업적을 공고발전시켜나감으로써만 우리 당의 혁명적 본성과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창건자, 령도자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사업이다. 우리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귀착시킬데 대한 당중앙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대오를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는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며 당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규률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당으로 굽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과 고귀한 투쟁업적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이 일편단심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지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고있다. 모든 당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길을 더욱 높여 굽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감으로써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과 영예를 남김없이 시위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은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있다. 우리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조선혁명의 향도자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일군은 실력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최 룡 수

오늘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은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다.

당과 혁명 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모든 당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실력을 가지고 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실력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갖추고있는 힘이나 능력이다. 실력이 있다는것은 지식이 깊고 실무수준이 높으며 전개력과 활동력이 강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력있는 일군이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 당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할수 있는 조직적수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당일군은 언제나 직권을 가지고 일하여서는 안되며 실력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실력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무리 수령님과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능력이 없으면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벌려나갈수 없습니다.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려면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날 평범한 로동자, 농민이였거나 그 아들딸들이였던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 키워주시였으며 주체형의 당의 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다.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혁명가로 빛이 나고있으며 나라의 중요한 단위들을 책임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났다. 당일군들이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성과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혁명전사의 마땅한 도리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당일군들이 자기 수령과 자기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보답하자면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충실성은 우리 당일군들의 첫째가는 표징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가장 고상한 품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 있으면 뚫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능히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이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충실성과 함께 높은 실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충실성과 실력은 당과 수령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실제적인 담보이다. 보답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와 타산도 없이 구령만 웨치거나 혁명적인 말은 많이 하면서도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도 이룩하지 못하는 일군은 충실한 사람이 아니다. 당일군들에게 실력이 없으면 허풍과 파장이 나오게 되며 웃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아래사람에게는 관료주의를 부리는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이며 투쟁하는 당이다.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당일군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할줄 아는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아무리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려고 하여도 아는것이 적고 실력이 딸리면 주관적욕망뿐이지 일을 잘해나갈수 없고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할

수 없다. 물론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충실성이다. 그러나 충실성 하나만 가지고는 일을 잘해나갈수 없다. 충실성에 높은 실력이 안받침되여야 그 충실성이 빛이 날수 있다.

혁명가를 특징짓는 표징의 하나는 충실성이며 다른 하나는 실력이다. 정치적표징으로서의 충실성과 실무적표징으로서의 실력은 혁명가의 자질과 풍모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충실성과 실력을 다같이 겸비하여야 모든 사업을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전개해나갈수 있고 언제나 당정책관철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만점으로 수행할수 있다. 결국 아는것이 많고 실력이 높아야 당과 수령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으며 실천적성과로써 당과 수령의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는것이다.

당일군들이 실력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대중의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당일군들의 활동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일군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이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데서 당일군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는 당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전달침투되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이 조직되고 포치되며 장악되고 집행된다. 그러므로 당의 결정과 지시가 해당 지역, 해당 단위에서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일군들의 실력에 달려있다.

당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자면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지도를 하여야 하며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실력있는 일군이 되여야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원만히 실현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현실을 알고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는것은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지도를 보장하며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현실은 매우 복잡하며 사업대상도 또한 다양하다.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능동적인 사유과정이므로 그것은 사람들의 준비된 한계를 넘어설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다. 아는것이 적고 지식의 축적이 없으면 그만큼 식견이 좁아질수밖에 없으며 현실을 보는데서도 제한을 받지 않을수 없다. 때문에 당일군들이 현실을 정확히 료해분석하고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바로 타산하며 구체적실정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옳바른 대책과 방도를 세워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려면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박식가가 되여야 하며 실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당일군들이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도 능숙한 조직력과 선전력을 가져야 하며 높은 실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실력을 가지고 일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일군들이 실력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에 일군들의 지도

수준과 능력을 따라세워야 하며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었으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당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도 대단히 높아졌으며 부문간의 생산적련계도 매우 복잡해졌다.

우리 강서구역의 경우에도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강력한 기계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당일군들이 충실성과 실력을 다같이 겸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험이나 열성 하나만을 가지고 일하던 때는 지나갔다.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심화되는 당사업을 제대로 해나갈수 없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옳바로 지도할수 없으며 모든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전개할수 없다. 당일군들은 높은 정치적열의에 다방면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만능가가 되여야 하며 맡겨진 사업을 두몫세몫씩 감당할수 있는 실력을 가진 능수가 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업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고 권위를 세울수 있으며 어떤 과업이든지 거침없이 해제낄수 있다.

당일군들이 아는것이 적고 머리에 든것이 없으면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되여도 아무런 방안도 없이 계단식으로 되받아넘기거나 전달이나 하는것으로 조직사업을 대치하게 되며 아래일군들을 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만 하게 된다. 또한 당일군들이 실력이 딸리면 자연히 직위나 간판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 하고 직권을 람용하여 내리먹이려 하며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게 된다. 당일군들의 방법이 서툴고 작풍이 거칠며 사업을 옳게 설계하고 전개하지 못하는것은 그들의 실력이 낮은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당일군들이 수준이 낮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식한 소리를 하게 되며 아무런 근거와 주장도 없는 빈말을 하게 된다. 당일군들이 무식한 소리를 하고 빈말을 하게 되면 사업에서 씨가 먹지 않고 날이 서지 않아 종당에는 피동에 빠져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당일군들이 자질이 낮고 실력이 딸리면 무슨 사업이든지 신심을 가지고 내밀수 없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확고한 주견을 가질수 없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것은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 당일군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든지 막히는데 없이 능숙하게 처리해나갈수 있는 실력을 가졌을 때 확고한 주견이 생기게 된다.

당일군들이 정치적안목과 실력을 가지고 일해나가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과 대중의 앙양된 기세는 당일군들이 누구보다도 높은 충성심과 실력을 겸비한 일군으로 더 잘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

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단행본,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령도예술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면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을 따라배우는것은 당일군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창조하신 령도예술에는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혁명적령도예술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령도예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숭고한 모범, 위대한 업적을 적극 따라배움으로써 실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나갈수 있는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당일군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경제사업에서 걸린 고리를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릴수 있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을 소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활동방법을 체득하는것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활동방법이 집대성되여있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과 요구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령도예술과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활동방법으로 무장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우리 당의 문헌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정책으로 무장하여야 당이 바라는 실력있는 일군으로 될수 있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투쟁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당일군들이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없다.

당일군들은 과학과 기술의 기초적인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기, 기계, 화학에 대한 기초기술지식을 체득하여야 하며 최신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생산기술공정과 기술수단들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치적식견과 실무적자질이 높지 못하면 모든 사업을 앞질러 포치할수 없고 새것을 볼수 없으며 일감을 찾을수 없다. 당일군들은 하나를 보고 둘을 생각하며 두가지를 생각하면서

세가지 일감을 찾을줄 아는 실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기의 사업과정을 통하여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식료공업에 많이 쓰는 탄산소다를 구역자체로 만들어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었다. 그 해결방도를 찾기 위하여 애를 쓰던 어느날 우리는 강서약수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를 리용하여 소화제를 만들어쓰고있다는 한 로동자의 이야기에서 탄산소다를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였다. 알아보니 강서약수에는 순도가 90%나 되는 탄산가스가 포함되여있었다. 이것만 잘 리용하면 구역자체로 얼마든지 탄산소다를 생산할수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 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에서는 자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 한두번의 포치사업만 해가지고서는 기술자들을 납득시킬수 없었으며 새것의 창조를 기대할수 없었다.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는것이 중요하였으며 성공을 앞당길수 있는 기술적담보를 마련해주는것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하자니 책임일군들자신이 탄산소다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에 대하여 알아야 하였으며 그 생산공정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어야 하였다. 결국 책임일군들이 해당분야의 과학기술적문제에 대하여 알아야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기하고 기술적담보가 있는 실천적대책을 세워줄수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화학의 기초원리로부터 시작하여 탄산소다생산과 관련한 책도 읽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실험실적방법으로 탄산소다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다음에야 우리는 해당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들에게 실천적방도와 기술적담보를 안겨주면서 공업적방법으로 생산을 본격화한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강서약수에서 나오는 천연탄산가스를 가지고 자체로 탄산소다를 생산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강냉이오사리에서 섬유를 뽑아 마대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자체로 석고를 만들어 지방세멘트공장의 생산도 정상화하고있다.

실천적경험은 당일군들이 무슨 문제든지 해당 부문의 전문가 못지않게 과학기술적으로 깊이 알고있어야 사업권위를 세울수 있고 남을 지도할수 있으며 사업을 주동적으로 설계하고 앞질러 포치하면서 확신성있게 내밀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일군들의 자질과 실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학습을 정력적으로 하는데 있다.

최근 우리 당은 전당이 학습할데 대한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일군들이 열심히 배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지식은 열정의 산물이며 피타는 노력의 열매이다. 일군들의 자질과 능력은 저절로 높아질수 없으며 그것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학습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가도 없다. 당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자만과 답보를 모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가답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리고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꾸준히 배우고 탐구하여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실력있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학습은 목표와 단계를 명백히 세워놓고 하나씩하나씩 어김없이 집행하여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재미도 있고 성과도 거둘수 있다. 당일군들은 학습을 당면한 혁명과업에 맞게 진행하면서도 다방면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실력있는 일군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달성하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실력을 높이는것은 단순히 기술을 소유하고 지식을 넓히는것과 같은 행정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며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사업성과로써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는 충실성과 실력을 다같이 겸비한 당일군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감으로써 정치하는 당,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의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나가야 할것이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의 중심방향

강 창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을 밝히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심방향에 따라 기술혁명을 적극 벌려나가는 여기에 인민경제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 *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거창한 혁명위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은 여러 단계의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해결되게 되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제시되는 경제건설과업들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쳐야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기술혁명을 벌려 해결하여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은 많지만 그가운데서도 중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힘을 넣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해당 시기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제시되는 경제건설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의 주어진 물질기술적조건과 그 가능성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을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을 잘 규정하여야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해당 시기 제시되는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나아가서 기술혁명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최종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잘 복무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기술혁명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입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6페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원료, 연료, 동력의 개발과 리용 기술을 혁신하며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이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것을 현시기 기술혁명의 중요임무로 삼고 거기에 힘을 집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기술혁명은 낡고 뒤떨어진 기술을 새롭고 선진적인 기술로 바꾸며 현대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할 방대한 과업이다. 이러한 복잡성과 장기성으로 하여 기술혁명은 단꺼번에 완수할수 없으며 일정한 순차적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나라의 경제형편과 기술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순수 기술경제적문제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일제가 남겨놓은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과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순차적으로 제기된 3대기술혁명과업 수행에서도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는 나라의 경제를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기술개조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단계의 과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선을 틀어쥐고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갈데 대한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은 우리 나라 기술혁명발전의 이와 같은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기술발전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한다.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은 또한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잘 리용하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정책적요구이며 현시기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기 위하여 큰 힘을 넣고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생산잠재력은 마련된 경제적밑천으로 생산을 늘일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으로서 그 리용수준은 중요하게 원료, 연료, 자재의 보장정형,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가동상태, 부문구조의 완비정도 그리고 경제관리의 개선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그 매개 물질기술적요인들이 생산잠재력의 리용정도에 주는 영향은 같지 않으며 같은 요인인 경우에도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하게 된다.

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보다 큰 역할을 하는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그것은 생산잠재력의 효과적인 리용에 영향을 주는 물질기술적요인들이 경제발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기때문이다.

오늘 생산잠재력을 완전히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원료, 연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며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것이다. 기술혁명을 그 중심방향에 따라 힘있게 벌리면 이미 주어진 로동대상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것은 물론 새로운 원료, 연료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원료, 연료, 자재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없거나 약한 생산공정들을 더 꾸리고 보강하여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보다 완비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의 위력은 기술수단의 개조와 생산전반의 과학화수준을 높일 때 더 크게 발양된다. 뒤떨어진 기술을 발전된 기술로 개조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다그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하는 문제는 기술혁명을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함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중심을 두고 밀고나가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이처럼 현시기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에 따라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그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을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두어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심을 두고 기술혁명을 벌려나가야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에서의 자주성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위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당이 제시한 중심방향에 따라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리용하고 인민경제를 보다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또한 공업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로보트화를 실현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토대우에 굳건없이 올려세울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전환시키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며 나아가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까지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게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중심방향으로 하여 기술혁명을 벌리면 물질문화생활령역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해주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을 실현하면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을 마련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낼수 있으며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하여 생산을 굽임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건설의 높은 속도와 로동생산능률의 장성, 물질적부의 증대는 국민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여 축적을 빨리 장성시키면서도 소비를 계통적으로 높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이렇듯 현시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정책에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

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우리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당이 제시한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술혁명을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125만명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와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근로인민대중이 있다.또한 나라의 경제를 오늘과 같은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튼튼히 올려세운 귀중한 경험과 기술혁명의 물질기술적담보인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기술혁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당이 제시한 중심방향에 따라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과학연구사업은 기술적진보와 나라의 륭성발전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갈수 있다. 특히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나라의 전반적인 기술적면모를 일신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인것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기술적으로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게 된다.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없으며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 당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과제수행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키워낸 과학기술일군대렬은 대단한 력량이며 그들모두가 맡겨진 과학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더욱 튼튼히 준비될 때 과학기술사업에서 훨씬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전공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며 시야를 넓히고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를 제때에 알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중심방향에 따라 기술혁명을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생산자대중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기술의 주인이다. 기술혁명에 대하여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생산자대중이며 기술수단을 직접 다루는것도 그들자신이다. 기술혁신에 광범한 대중을 널리 인입하고 그들의 집체적지혜를 적극 발동하면 기술혁명수행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한가지이상의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제기하고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을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속에서 청년발명가, 청년창의고안명수들이 많이 나오게 하며 근로단체들과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과학기

술축전, 기술혁신현상모집, 기술혁신경기, 기술혁신전시회 등 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학기술활동을 널리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자대중을 기술혁신운동에 광범히 참가시키고 과학기술활동을 잘 조직하는 한편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4.15기술혁신돌격대》를 비롯한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중심방향에 따라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과 기술의 연구분야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한가지 기술을 연구하는데도 많은 시일과 여러가지 조건이 요구되며 과학자들의 정력이 소비되게 된다. 그러므로 인류가 이룩한 선진과학기술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과학자들이 새로운것을 많이 발명하는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는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공장들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기술발전을 위한 합작을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며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수행에 대한 행정적지도를 잘하는것은 당이 제시한 중심방향에 따라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담보의 하나이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이룩된 과학연구성과의 효과성을 여러 단계에 걸쳐 검토확증하며 나아가서 생산에 받아들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되여있다.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장악하고 잘 지도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로력, 자재를 소비하면서도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기술혁명수행에 대한 행정적지도에서 선차적인것은 과학기술발전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기술발전계획화 체계와 방법론을 옳게 세우고 경제발전전망과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작성하며 이에 기초하여 해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일단 작성된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인민경제계획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법적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기술혁명수행에 대한 행정적지도에서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과학연구성과를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데 언제나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오늘의 현실은 당조직들이 기술혁명수행에 대한 당적지도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은 기술혁명을 당의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기술혁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오늘 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과업은 매우 방대하고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자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그 성과여부가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술혁명의 중심방향대로 기술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과 련합기업소

리 상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실태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련합기업소를 널리 조직하도록 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여주신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기업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 잘 관철할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무엇보다도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 우월한 기업소조직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현대적인 공업기업소들을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적방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군중의 지혜를 동원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6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기본핵으로 하는 혁명적인 경제관리형태이다.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성과 과학성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한다는것은 광범한 군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그 기관 전체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모든 문제를 심의처리하며 모든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는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하여 사업이 독단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적극 추진되여 생산단위들의 규모가 커지고 경영활동이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갈수 없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업관리에서 집체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이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것은 우선 련합기업소를 거점으로 행정적지도와 당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킨다는데 있다.

행정경제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당정치사업과 기술실무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경제사업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잘 결합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기술적련계가 밀접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로 련합기업소를 새롭게 조직하고 련합기업소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도록 하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적인 공업생산과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에 따라 산하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움직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련합기업소의 참모부서들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한다. 그리하여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당적지도와 행정적지도가 련합기업소를 거점으로 더욱더 밀접히 결합되여 실속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이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것은 다음으로 련합기업소의 당사업이 경제사업과 더욱 밀착되게 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당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철저히 복종시키는것은 당사업자체의 본성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경제사업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기업소의 당사업은 철저히 기업소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로 지향되여야 하며 그에 복종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것을 집중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합기업소를 조직하시면서 련합기업소의 당위원회가 당사업을 경제과업수행과 밀착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인 사회적생산의 기본전투단위에 조직된 당조직으로서 기업소앞에 맡겨진 경제과업 수행을 당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적인 생산계획을 비롯한 모든 국가계획과제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게 된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당의 경제정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분공을 주며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는 방법으로 련합기업소전반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경제과업수행을 적극 보장하게 된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힘을 경제과업수행에 집중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경제과업수행과 밀착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적인 경제과업수행에 힘을 집중할뿐아니라 산하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에 대한 하부지도를 강화하여 매개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집행기능과 지도기능을 다같이 가지고있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당경제정책집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련합기업소적인 범위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데 기초하여 매개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업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며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문제들을 산하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가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이처럼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산하기업소들의 당위원회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련합기업소의 모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확고히 실현해나간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우리 식의 기업소조직형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또한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기업소조직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과 방법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움직이고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여나가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47페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확고한 원칙으로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근본요구이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한다는것은 경제관리를 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고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생산과 관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근로자들의 창발적지혜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나감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성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특히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사이, 기업소들사이의 생산기술적련계가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면서도 지방과 공장, 기업소, 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우월한 기업소조직형태이다.

련합기업소가 조직되고 그것이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로 됨에 따라 국가가 련합기업소를 직접적으로 대상하여 계획을 작성하고 생산과정을 통제하게 되며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고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련합기업소가 생산지도, 현행계획작성, 협동생산조직, 자재공급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경영상 독자성을 실현함으로써 대중의 민주주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게 되였다. 더우기 정무원 위원회, 부는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전망적지도, 기술적지도를 중심적으로 틀어쥐고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게 한다. 이것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제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여 기업소와 생산집단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지도는 대중의 활동에 자각성,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며 대중을 집단적활동, 조직적운동에로 이끌어나가는 확고한 담보이다. 생산자대중은 옳은 지도를 받아야 자기 힘을 자각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옳은 지도를 받는 생산자대중만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관리에서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생산자대중이 생산의 주인, 관리의 주인으로

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적인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킨다는것은 지도력량을 생산현장에 접근시키며 현지에서 생산지도를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련합기업소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체계에서는 중앙의 경제관리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거기에 있던 유능한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현장에 내려보내여 련합기업소의 지도력량을 강화하게 하며 위원회, 부가 맡고있던 경제지도기능의 많은 몫을 련합기업소가 직접 맡아 수행하게 된다. 능력있는 지도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서 사업하게 됨에 따라 당의 사상과 의도가 대중속에 제때에 침투되고 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 아래의 구체적실태를 옳게 파악하고 걸린 문제들을 실속있게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경제지도 환절과 단위들을 훨씬 줄이게 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지도와 대중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게 한다. 경제지도 환절과 단위들을 줄이는것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경제지도 환절과 단위를 줄여야 지도를 대중속에 더욱 접근시키고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적생산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련합기업소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체계에서는 생산기술적으로 긴밀히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의 통일적인 기업체로 만들고 그것을 직접 중앙에서 지도함으로써 경제지도관리환절들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게 되였다.

경제관리에서 중간다리를 줄이고 중앙에서 직접 지도함으로써 당정책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결정이 신속정확히 아래에 침투되고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장악하며 지도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지도일군들이 생산현장에 직접 내려가 아래의 실태를 늘 파악하고 생산자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여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련합기업소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체계가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또한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기업소조직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받아들여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24페지)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대로 생산의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조직동원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생산자원을 집약적으로 리용하여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경제관리원칙에 기초하여 정확한 대책을 세우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관리대책을 세우는것이다. 이와 함께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생산장성을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로동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해야 한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경제 지도와 관리를 아래에 접근시켜 생산실정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합기업소가 경제관리의 기본기능과 계획작성, 생산지도, 생산조직, 자재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련합기업소 범위에서 로력과 기계설비, 원료, 자재의 조절과 현행생산계획의 조절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련합기업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획작성, 생산지도, 생산조직, 자재공급사업 등을 직접 진행하게 되는 조건에서 자체의 실정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모든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신속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련합기업소의 범위에서 생산의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요소들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련합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언제나 국가의 요구와 생산자대중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며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과의 계약을 책임적으로 맺게 된다. 비준된 계획을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 시달하는 경우에도 아래단위의 생산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내려보내게 된다.

련합기업소는 또한 그에 망라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다. 련합기업소에 망라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권한은 련합기업소만이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련합기업소는 설비, 원료, 연료, 자재의 준비, 수송조직을 비롯한 생산준비를 앞세워 빈틈없이 하게 된다. 특히 련합기업소 내부 단위들사이의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여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이다. 련합기업소는 설비의 구입과 등록, 조절, 페기할수 있는 권한을 가짐에 따라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옳게 세워나가게 된다. 련합기업소는 아래 공장, 기업소들사이 그리고 공장, 기업소안의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능력상 균형, 기종간의 균형들을 합리적으로 맞추며 이빠진 공정을 제때에 보충완비하고 낡거나 뒤떨어진 설비들을 갱신함으로써 전반적인 기계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능력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한다. 련합기업소는 아래 공장, 기업소들이 작성하는 기술규정과 중요한 공정의 표준조작법을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 부의 승인을 받아 내려보내고 그밖의 표준조작법은 기업소자체가 검토승인하여주어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그것을 부단히 개선완성해나갈 권한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생산조건이 변화되는데 맞게 제때에 기술경제적대책을 세워 생산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련합기업소는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자체로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기본적으로 련합기업소내부에서 자체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필요한 자재를 보장하게 된다. 특히 련합기업소가 자체로 계약을 맺게 됨에 따라 기업소의 모든 생산기술적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계약을 책임적으로, 과학적으로 맺게 된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현대적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보다 강화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과학화할수 있게 한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적경제관리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자면 일정한 지도력량과 수단들을 가지고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를 실현하여야 한다.

련합기업소가 조직됨에 따라 정무원 위원회, 부들은 복잡한 경제실무사업에서 벗어나 강력한 기술력량과 수단들을 가지고 자기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지금에 와서 정무원 위원회, 부들은 장래발전전망을 예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다시말하여 정무원 위원회, 부들은 자기 부문의 전면적인 기술발전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련합기업소들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새로운 기술을 생산과 관리에 적용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현지에 나가 풀어줄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련합기업소의 생산과 관리를 현대적인 과학기술적공정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할수 있게 한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더 잘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게 되였다.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철저한 구현, 이것은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의 경영활동상 본질적특성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며 련합기업소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련합기업소와 같은 대규모기업체창설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여주신 련합기업소를 더 잘 관리운영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사업전반을 튼튼히 장악하고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하는데 집체적인 힘과 지혜를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모두가 자기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일군들은 당정책적요구대로 자기 맡은 부문의 경제기술지식에 정통하며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기관본위주의,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만 앞세우려는 자그마한 그릇된 경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며 언제나 전당적, 전국가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생산 조직과 지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는 련합기업소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적극 개선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사회주의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협동생산규률의 강화와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

박 영 일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생산규률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켜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으로써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다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136페지)

협동생산은 일정한 제품생산에 함께 참가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사이에 계획적으로 맺어지는 직접적인 생산적련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생산은 생산적련계전반을 포괄하지만 많은 경우에 복잡한 구조와 여러가지 부분품들로 이루어지는 공업제품이나 대상설비 생산을 위하여 조직하게 된다. 협동생산에서는 많은 기업소들의 참가밑에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게 됨으로써 공업제품이나 대상설비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생산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중요건설대상들의 조업기일을 앞당겨 사회적생산을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된다.

협동생산은 거기에 참가하는 부문들과 단위들이 계획된 제품을 제정된 질서와 규범에 따라 제때에 생산보장할것을 요구한다. 만일 제정된 협동생산의 규률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분업과 협업의 우월성을 옳게 리용할수 없으며 사회적규모에서 생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된다. 협동생산은 오직 련관된 생산단위들이 제정된 규률을 철저히 지킬 때에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며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적요구의 하나이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한다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에 맞물려진 협동품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협동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계획과 계약에 규정된 제품의 품종과 수량, 기술적조건과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무조건 보장하는 규률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된 통일체를 이루고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며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에 의하여 치차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계획경제이다.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객관적법칙이며 본질적우월성이다.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단위라도 계획과 계약에 의하여 맞물려진 과제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곧 련쇄반응을 일으켜 련관된 부문들과 단위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서 전반적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특히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협동생산이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기술적요구가 높고 구조가 복잡한 공업제품이나 대상설비 생산을 목적으로 조직되는것만큼 협동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규률을 세워야 경제의 계획적인 조화로운 발전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할수록 생산 부문들과 단위들, 경제적거래대상, 생산물의 품종과 수량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며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련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오늘 기계공장들은 한가지 기계제품을 생산하는데서만도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련계를 맺고 수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공급받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생산의 정상화와 경제의 계획적발전 문제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며 생산부문들사이, 부문내부사이의 련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실정에서는 협동생산규률을 어기여 보내주어야 할 협동품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하여 생기는 후과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심각하게 미치게 되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도 훨씬 어렵고 복잡해지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다그쳐질수록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 더 깊은 관심을 돌리고 거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할 영예롭고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여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과 농업, 건설과 수송을 비롯한 경제건설의 여러 분야에 련이어 새로운 과업들을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켜 광물과 석탄, 철강재와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이 제시한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훨씬 늘이고 농업생산과 수산업발전을 다그쳐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앞에는 당의 의도대로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같은 대규모의 기본건설을 다그쳐야 하며 남포갑문을 일떠세운 식으로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사업도 빨리 해제껴야 할 아름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이 무겁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현대적인 기계제품들과 대상설비들을 보내주어야 하며 그러자면 그 어느때보다도 협동생산조직을 짜고들고 계획된 협동품을 무조건 제 기일에 보장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협동생산규률을 잘 지켜 협동생산품들을 충분히 보장할 때 복잡한 구조와 여러가지 부분품들로 이루어지는 기계, 설비들의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생산수단과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자금의 회전속도를 높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생산

의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고 방대한 건설공사들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된다.

참으로 오늘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나라의 경제를 더욱 조화롭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풀어야 할 관건적문제로 되며 당이 밝혀준 웅대한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고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에 맞물린 협동생산품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기한을 앞당겨생산하여 보장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4권, 25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생산계획은 해도 좋고 안해도 되는 도의적계획이 아니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법적과제이다. 협동생산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는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단위, 모든 생산자들이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굳게 단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은 바로 이러한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적생산조직의 한 형태이다.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의 성격으로부터 집단주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이 발양해야 할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로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보다도 언제나 인민경제의 전반적리익, 전사회적리익을 먼저 내세우며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해나가는데서 주되는 장애물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본위주의적경향이다. 본위주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리기주의의 변종으로서 집단주의와는 결코 량립될수 없다. 사람들이 본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이야 계획을 하든말든,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기업소, 자기 지방의 리익만을 내세우면서 협동생산품에 관심을 덜 돌리게 되며 계획된 제품의 량과 질, 규격, 생산기일을 보장하지 못하여 련관된 기업소의 생산에 지장을 주게 된다. 본위주의는 주체형의 일군들의 사상정신적풍모, 일본새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본위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협동품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먼저 생산보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특히 련합기업소들사이의 동지적협조와 호상방조의 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협동품의 생산을 자기 단위의 리익과만 결부시켜 조직하거나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면서 계획규률을 드티는것과 같은 그릇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협동품을 보장하기 위한 생

산조직을 잘 짜고드는것이다.

생산조직을 잘하는것은 협동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협동품은 다른 제품보다 먼저 생산보장해야 하는것만큼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제 기일에 질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다.

협동생산조직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관철해야 할 원칙적요구는 매 시기 당과 수령의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품과 대상설비생산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필요한 협동품들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이다. 협동생산조직에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혁명의 근본리익, 전반적인민경제의 리익에 맞게 진행해나갈수 있으며 경제토대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전망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일군들이 협동생산조직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경제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협동생산조직을 짜고드는데서는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협동생산계획을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생산적련계의 모든 측면들을 치차와 같이 맞물릴수 없으며 완제품생산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제품의 종류, 규격, 재질, 생산기일과 협동품생산기업소의 내부 전문화수준, 생산능력의 리용수준, 기술장비상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계획과제를 옳게 규정하는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동기, 감속기, 베아링을 비롯하여 기계설비와 중요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분품과 부속품들을 계획에 맞물리는 사업을 잘하여야 주제품생산기업소들에서 반제품을 쌓아놓고 묵여두는 현상을 없애고 생산을 빨리 다그칠수 있다.

자재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은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자재공급사업은 협동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사업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아무리 협동생산계획을 잘 수행하고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여도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대주지 않으면 협동생산을 계획대로 보장할수 없게 된다. 생산의 기본요소의 하나인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계획규률을 세울수 있으며 협동생산규률도 강화할수 있다.

자재보장사업을 잘하는데서는 협동생산용 자재에 대한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먼저 보장해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협동품생산에 쓸 자재들이 류용랑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 자재일군들은 협동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있는 중소규모의 공장들에 깊은 관심을 돌려 여기에도 자재를 우선적으로 대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제품생산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생산을 정상화해나갈수 있다.

협동생산지휘를 개선하는것은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협동생산지휘를 개선하여야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고 여러가지 과업이 겹치는 속에서도 계획된 협동품을 제 기일에 보장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갈수 있으며 맡겨진 계획과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협동생산지휘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일군들은 주인다운 기풍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협동생산계획을 무조건 실행할수 있도록 생산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

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바로 여기에 생산지휘에서 과학성과 기동성을 보장하여 협동생산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있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계획실행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잘하는것이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계획실행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계획실행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잘할 때 전반적경제계획수행과 함께 협동생산계획수행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을 높일수 있다.

계획실행총화는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계기로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일군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생산품을 주고받은 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계획실행총화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때 협동생산계획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우결함을 옳게 찾을수 있으며 협동생산규률을 어기게 된 원인을 밝히고 정확한 해결대책을 세울수 있다.

계획실행에 대한 총화와 함께 그 평가를 잘하는것은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된다.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여야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협동생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기된 협동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더 잘 떠밀수 있다.

계획실행평가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협동생산지표를 제대로 보장했을 때에만 계획을 수행한것으로 인정하고 평가해주는것이다. 이것은 협동품생산에서 어느 한가지 지표라도 보장되지 않으면 주제품생산을 완성할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와 함께 협동품생산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제품생산기업소들에 계획된 량대로 제때에 보냈을 경우에만 계획을 수행한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협동생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협동생산규률을 세우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발동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통제를 적절히 배합하여야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해당 기관들에서는 협동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경제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협동생산계약을 위반하였거나 협동생산지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단위들이 법적추궁을 받고 위약금과 벌금을 내며 해당한 행정적통제를 받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조직들의 역할이 높은 단위들에서는 협동생산규률을 어기는 현상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협동품은 제기일에 무조건 생산보장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있다. 이것은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자면 당조직들이 협동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여 협동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은 현시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방대한 규모의 건설공사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

한 중 모

오늘 전면적으로 찬란히 꽃펴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는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시위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새로운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문학예술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그리하여 이 땅우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치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의 길을 따라 확고한 발전을 이룩하고 주체문학예술의 면모를 훌륭히 갖춤으로써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 활짝 꽃펴났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그 본성으로부터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 인민성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구현한 문학예술로 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서 민족적인 문학예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예술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예술입니다. 우리는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예술형식에 담아야 합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고 있는것은 주체의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이다. 주체의 문학예술의 사회주의적 내용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으며 그 민족적형식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구미에 맞는것이다. 이로부터 주체의 문학예술은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풍부한 인민성을 구현한 문학예술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새로운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하는 사업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을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생활과 문학예술에서의 아름다운것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작품의 사상성이 인민성과 관련될뿐아니라 예술성도 인민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천명한것을 비롯하여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문학예술은 그 내용과 형식, 형상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 비위와 정서에 맞는 가장 인민적인 새형의 문학예술로 발전하게 되였다.

주체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서의 면모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문학예술의 성격과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사상적내용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사상적내용이 의의있고 심오하여야 가치있는것으로 되며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문학예술이 인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도 우선 그 사상적내용에 달려있다. 문학예술은 그 내용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옳게 반영하여야 인민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그런데 문학예술이 얼마나 의의있고 심오한 내용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어떤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의의있는 문제를 풀며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고유한 특성이다.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서의 주체의 문학예술은 어느 시기의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취급하고 해명하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하고 그들의 심장을 틀어잡는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고수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근본문제이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존엄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려면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해서만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며 따라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참답고 보람있게 살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에서 나서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은 결국 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이는 문제와 결부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해명하는것은 참다운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적기초로 삼고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고유한 본성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구현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밝혀내는데 모든 형상을 집중함으로써 자기 운명의 주인,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값있고 보람있게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심도있게 반영한 참다운 인민적 문학예술로 되고있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데 문학예술을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 만드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영화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갖은 불행과 고통을 겪어오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비로소 광산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해나가는 오랜 광부인 광록일가의 생활을 형상하였다. 영화는 광록일가의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로동계급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안다고 해도 자신을 계속 혁명화하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된다는 사상적알맹이를 감명깊게 밝힘으로써 자주성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또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그리면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성격을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인민성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구현한 문학예술, 참다운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형상하는가 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인민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진실하게 형상할수록 인민성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게 된다.

물론 문학예술이 인민적인것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생활을 그리는가 안그리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는것은 아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그리지 않은 작품이라도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풀면 그 작품은 인민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지만 문학예술작품은 인민대중을 예술적화폭의 중심에 세우고 그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할 때 인민적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인민대중의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그들의 근본리익과 관련되는 문제,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에서 의의있는 중요한 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인민대중의 형상은 일찍부터 문학예술에 등장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과 운명을 그린 작품들은 지난날에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진보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에서는 인민의 형상이 인물계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이 예술적으로 옳게 밝혀지지 못하였다. 지난날의 문학예술에서 근로인민의 생활을 형상한 작품들은 대부분 직접 인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민창작들이였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형상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과 창작가들의 세계관의 제한성으로부터 나온것이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력사적시대의 현실과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창작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인민대중은 비로소 인물계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력사의 창조자로 형상되게 되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의 장엄한 현실과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문학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 그들속에서 나온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예술적화폭의 중심에 확고히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성격,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과 거대한 창조적힘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고있는 사실은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고결한 삶》과 장편소설 《새봄》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고결한 삶》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간고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시기 무비의 영웅주의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맨주먹으로 수류탄과 대형양수기, 대형굴착기를 생산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전쟁승리와 건설사업에 이바지한 주인공 정순이를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투쟁을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새봄》은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 지주를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토지개혁을 수행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주인공 최명진을 비롯한 양지말청년들의 투쟁을 형상하였다.

이 작품들은 각이한 생활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다같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속에서 나온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을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들의 성격성장과정과 보람찬 생활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이렇듯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인민대중, 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리상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

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근로인민출신의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힘찬 모습과 아름답고 고상한 성격을 진실하고 심도있게 그려냄으로써 근로자들의 친근한 벗으로, 생활의 거울로 되고있다.

주체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서의 면모는 민족적형식을 새로운 시대적미감에 맞게 살려쓰고있는데서도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문학예술에서 참말로 민족적인것은 인민적인것과 련결되여있으며 민족적형식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인민성을 구현하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민족의 모든 우수한것이 민족성원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이 참으로 인민적인것으로 되려면 그 내용이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심오하게 표현하는것과 함께 형식이 또한 광범한 대중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며 그들에게 리해되기 쉬워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내용은 형식을 떠나서 있을수 없고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것만큼 인민들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형식을 리용하는것은 문학예술을 인민적인것으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민족적형식은 매개 나라 문학예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형성된것으로서 거기에는 그 민족에게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인 감정, 그 나라 인민의 우수한 예술적재능이 반영되여있다. 따라서 민족적형식을 옳바로 살려쓰는것은 문학예술을 자기 인민의 생활감정과 구미에 맞으며 그들에게 친숙한것으로 만들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대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경향과 복고주의적경향을 다같이 배격하고 선조들이 이룩하여놓은 예술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리용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어 류창하고 듣기 좋으며 표현력이 풍부한 조선말,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우아하고 점잖은것으로 특징적인 민족적 선률과 률동, 조선화의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필치와 선명하고 간결하고 섬세한 화법을 비롯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인 형식과 묘사표현수단들을 옳바로 살려쓰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 꽃펴나고있다.

주체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인민적면모는 또한 문학예술형태들이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미학적기호에 맞고 광범한 대중에게 쉽게 리해되도록 개조발전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정서에 맞게 만드는 문제는 그 형태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현실에 대한 예술적재현은 일정한 문학예술형태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면 형태상 특성을 옳게 살리고 그 형상적기능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예술형태의 특성을 옳게 살려 생동하고 감명깊은 형상속에서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형태를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혁하고 발전시키는것은 곧 문학예술을 인민의 비위와 기호에 맞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그 형태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미감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인민성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광범한 근로자들이 쉽게 리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통속적인 문학예술로 되였다.

우리 문학예술을 모든 사람들이 리해

하고 사랑하는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문학예술로 만드는데서 예술형태의 개조와 혁신적발전이 가지는 의의는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 주체적인 관현악의 출현만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남음이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 노래를 절가화하고 방창을 도입하였으며 무용을 극의 흐름과 적절하게 맞물려 리용하고 립체적흐름식무대미술을 받아들이였다. 또한 《성황당》식혁명연극에서는 배우연기, 무대미술, 음악 등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흐름식무대전환법을 창안도입하였다. 무대예술분야에서 일어난 이러한 근본적인 전변은 종래 가극과 연극의 낡은 틀을 깨뜨려버리고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을 립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가극과 연극을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정서에 맞게 만들며 광범한 대중이 쉽게 리해하고 받아들일수 있게 만들었다. 《피바다》식가극형식과 《성황당》식연극형식이 탄생함으로써 낡은 사회에서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게 만들어진 까다로운 종래의 가극형식이 타파되고 시대로부터 뒤떨어져 기울어져가던 연극의 운명이 구원되게 되였으며 참다운 인민적인 가극예술과 연극예술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관현악을 비롯한 기악음악을 주체적으로 새롭게 창조발전시킨것은 우리 음악예술의 인민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관현악은 한때 주체적인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환영을 받지 못한 예술형태의 하나였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관현악도 참다운 인민적인 예술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주체적인 관현악은 종래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깨뜨리고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명곡과 민족의 재부인 민요를 소재로 삼고 그것을 통속적으로 편곡하여 창작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에게 쉽게 리해되며 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다. 이와 함께 주체적인 관현악은 민족악기를 기본으로 하여 그 아름답고 우아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성을 살리면서 양악기가 가지고있는 특성을 거기에 복종시킨 우리 식의 악기편성에 의거함으로써 음색에 있어서 독특하고 표현력에 있어서 비상히 풍부한 독창적인 배합관현악으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완전히 부합되는 새형의 관현악으로 되였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가극과 연극, 관현악만이 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살리면서 다른 나라 문학예술의 성과와 경험 가운데서도 가치있는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소화함으로써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문학예술형태들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서의 주체문학예술의 특성, 그 인민성은 이밖에도 내용과 형식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있다.

인민성을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여기에 주체문학예술이 지닌 높은 사상예술적가치와 커다란 미학정서적감화력의 기본담보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나라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참다운 향유물로 되고있으며 주체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데 당경제정책관철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

김 병 률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기본요구
이며 현시기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
양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당의 경제정책에는 경제건설의 발전 방
향과 방도뿐만아니라 부문별 과업과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전면적
으로 밝혀져있다.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우리 당이 의도하는대로 경제건설을 곧
바른 길로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생산자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
력량이며 당경제정책관철의 직접적담당
자이다.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는 무
궁무진하며 세상에 그들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당경
제정책을 관철하려면 지도일군들이 생
산자대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현실에 들
어가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
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아래
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바로 여기
에 당경제정책관철의 중요한 열쇠가 있
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
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지도일군들
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
로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
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은 사무실에 앉아 쓸
데없는 문서놀음과 전화질만 하지 말고
대담하게 아래에 내려가야 합니다. 특
히 당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야 합
니다. 당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야
문제를 정확히 보고 바로 처리할수 있
습니다.》(《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
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29페지)

우리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시를 반
들고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을 사회
주의건설에 조직동원하는데 커다란 힘
을 돌렸다.

도당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태천발전
소 건설장, 락원기계련합기업소, 4월
3일공장,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선
천군 인암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
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와 협
동농장에 내려간 도당책임일군들은 정
치사업을 앞세우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
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
러일으켰다. 이 과정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불패의 위력과 무
궁무진한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
게 되였으며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
로 발동하는데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원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한 단위에 며칠씩 묵으면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 그들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발동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일군들이 아래에, 생산현장에 내려가야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옳바른 지도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지난 시기에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되고있으며 수많은 복잡한 과업들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도일군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독촉하고 강조나 할것이 아니라 한개 단위에라도 며칠씩 있으면서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당과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중요한 단위나 걸린 단위들에 내려가 며칠씩 묵으면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올해초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도의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고 그 관철에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도당일군들을 데리고 선천군 인암협동농장에 내려갔다.

농장에 나간 우리는 리당이나 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머무른것이 아니라 직접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한주일동안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생활하였다.

우리는 포전에서 농장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지난해의 농사형편을 알아보고 새해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방도를 의논하였으며 쉴참에는 그들에게 우리 도의 농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알려주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숨은 공로자와 전사자, 피살자 가족을 비롯한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풀어줄것은 성의껏 풀어주면서 농사문제를 놓고 그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더욱 높여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많은 로력예비를 얻어냈으며 알곡면적을 늘이고 거름원천을 더 많이 확보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막대한 알곡을 증산할수 있는 예비를 찾아냈다.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서는 해당 단위에서 당경제정책관철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생산자대중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해결해주어야 하며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날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지난 2월중순 수출품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4월3일공장에 내려간 우리는 로동자, 기술자들을 수출품생산계획수행에로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우리는 여러명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만나 그들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이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하여주었다. 또한 기술자들과 여러차례에 걸치는 협의회를 가지고 수출품생산에서 걸린 기술적문제를 풀었으며 해당 부문 일군들을 발동하여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긴요한 자재에 걸려 수출품생산에서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에는 직접 도안의 다른 공장에 가서 그것을 해결해다 주었다. 그리하여 어렵다고 하던 2월 수출품생산계획을 넘쳐할수 있었으며 1.4분기 수출품생산계획도 제대로 수행

할수 있었다.

물론 도당의 책임일군들이 도안의 전반사업을 돌보면서 한 단위에서 며칠씩 일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책임일군들이 한 단위에 며칠씩 묵으면서 대중속에 들어가면 빠른 시일안에 아래의 실정을 환히 꿰뚫수 있고 편향도 제때에 바로 잡아줄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옳바른 방도도 세울수 있게 되여 해당 단위의 사업뿐만아니라 도의 전반사업을 개선하는데서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발동하는데서 또한 지도일군들이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정치사업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의 높은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대중의 열의와 창조성은 결코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그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 정치사업을 통해서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그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사상을 움직일수 있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그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경제정책에 담겨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려주고 당경제정책관철에서 그들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 당과 수령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절절한 념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경제정책에 담겨있는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때 그 관철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도당위원회에 태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도와 빨리 끝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원래 래년까지 끝내기로 계획된 방대한 태천발전소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끝낸다는것은 실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전투적과업을 받은 우리는 그길로 태천발전소 건설장으로 내려갔다.

발전소건설장에 나간 우리는 작업반장과 세포비서, 핵심로동자들과의 협의회를 가지고 태천발전소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도를 알려주고 태천발전소 건설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해설하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건설되는 태천발전소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태천발전소 건설을 다그쳐야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전력고지를 앞당겨점령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고 우리 도에 새로 개간되는 간석지의 물문제를 풀어 쌀공급에서부터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앞당겨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전소 건설을 빨리 추진시킬데 대하여 여러차례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태천발전소 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하여 주신 과업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동무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지금 온 나라와 도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무들을 지켜보고있다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정치사업은 건설자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그들은 발전소건설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자기들의 한몸이 그대로 언제가 되더라도 발전소건설을 기어이 제 기일안에 끝내겠다고 결의하여나섰다.

우리는 또한 도안의 시, 군 및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태천발전소 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해설해주는 한편 발전소건설현장을 견학시키고 그들이 태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을 믿고 태천발전소건설을 맡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발전소건설을 앞당기는것으로써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돌격대가 조직되고 수많은 설비와 자재 예비가 탐구되였다. 대중의 사상이 발동되니 많은 예비가 쏟아져나오고 발전소건설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은 지도일군들의 이신작칙과 결합될 때 더욱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이신작칙은 그자체가 하나의 힘있는 정치사업이며 그것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호소력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발동함에 있어서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었다.

올해초 우리는 석탄생산에서 걸린 갱목문제를 풀기 위하여 도림업관리국일군들과 같이 대관림산사업소 청계작업소에 내려갔다. 벌목장에 나간 우리는 벌목공들에게 갱목생산을 늘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해설해주면서 그들과 같이 직접 도끼를 잡고 나무를 찍었고 찍은 나무를 하선장까지 끌어내리는 힘든 작업도 하였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산판의 우등불가에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으며 저녁에는 작업소합숙에서 그들과 같이 잠도 잤다. 도의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면서 자기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는데 감동된 벌목공들은 더 많은 갱목을 생산하여 탄광에 보내주었다.

긍정감화교양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사업방법이다. 이 교양사업의 위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인 숨은 영웅들을 내세우고 본받도록 할 때 높이 발휘된다.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그들을 혁신과 위훈에로 고무하여준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나가서는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숨은 공로자와 숨은 노력가를 찾아내고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단 한명의 기능공도, 한토막의 배무도 받지 않고 자체로 간접공들로 채탄소대를 무어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채탄소대장을 찾아내였으며 선천군 인암협동농장에서는 21년동안이나 매해 분조의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있는 분조장을 찾아내였다. 또한 4월3일공장에서는 28년동안 공작기계생산계획을 매해 몇달씩 앞당겨수행하고있는 교정공을 찾아내였으며 태천발전소 건설장에서는 어린 처녀시절부터 많은 기능공들을 키워내면서 자기의 청춘을 발전소건설에 고스란히 바쳐나가는 처녀계량공을 찾아내였다.

숨은 공로자들과 숨은 노력가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통하여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다 바쳐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발동하는데서 또한 지도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였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과학과 기술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명의 주인이며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기술혁명과 과학기술발전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우리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내려가서는 누구보다 먼저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기사장, 부기사장, 현장기술자들을 만나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알려주고 그 집행방도를 의논하면서 생산과 기술혁신사업에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대담하게 맡기고 적극 떠밀어주는것은 생산과 기술혁신사업에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태천발전소 건설장에 내려가 마평언제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술자들과 협의회를 가졌을 때 있은 일이다.

발전소언제를 제 기일에 쌓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혼합기의 능력을 높이는것이였다. 협의회에서 우리는 기술자들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제기받고 그것을 집체적으로 토의한 다음 개별적인 기술자들에게 분공을 주었다. 한 기술자가 혼합기를 쓰지 않고 모래와 자갈, 세멘트를 수송하는 과정에 혼합하는 방법을 연구도입할데 대한 창발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방법을 도입한다면 새로 혼합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혼합능력을 2배이상으로 높일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행정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하는 실례가 없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며 혼합기를 더 설치할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혼합기를 설치하면 혼합능력을 그만큼 더 높일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 많은 혼합기를 당장 가져올데가 없었다. 태천발전소 건설장에서와 같이 혼합물을 먼거리에 수송하는데 맞게 수송관에 여러가지 장치를 설치한다면 혼합기를 쓰지 않고도 모래와 자갈, 세멘트를 얼마든지 혼합할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우리는 그 기술자가 내놓은 기술혁신안을 적극 지지해주고 그에게 이 방법을 연구완성하여 받아들이는 사업을 책임지고 할데 대한 중요한 분공을 맡기였다. 실천적믿음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지고 그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당조직이 자기를 믿고 중요한 과제를 맡겨주는데서 신심과 용기를 얻은 그는 정력적인 탐구와 고심어린 노력으로 새 방법을 연구완성하여 발전소언제건설에 받아들였다.

과학과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는 실패가 뒤따르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선다. 새로운 과학적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혁신하려면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난관앞에도 굴할줄 모르는 완강성과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 기술자들의 이러한 완강성과 대담성은 당조직과 일군들이 기술혁신사업에 대하여 그들과 같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줄 때 높이 발양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자와 기술자들이 대형산소분리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한번 체험하게 되였다.

락원의 로동자와 기술자들이 설계도면도 없고 필요한 설비도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종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식의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산소분리기의 중요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거기에다가 제작에서 실패할 때마다 일부 사람들의 반대까지 받게 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요설비를 우리자체로는 아직 만들수 없다고 하면서 외국에서 사와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만들지도 못할것을 가지고 괜히 그런다고 하면서 종전의 방식대로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실패가 거듭되고 난관이 앞을 막아나설 때 당책임일군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

는가 하는것이 기술혁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기업소에 내려간 도당의 책임일군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도당위원회가 지겠다고 하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을 고무하여주었으며 그들이 산소분리기를 우리 식대로 만들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 당조직이 자기들과 같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자 락원의 로동자와 기술자들은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완강한 기백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끝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를 가지고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드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기술자들의 연구성과는 장기간의 탐구와 피타는 노력의 산물이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기술적성과로 보답하려는 그들의 충성심의 발현이다. 기술자들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주어야 그들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정책관철에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게 된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4월3일공장과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보여주신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 기술자들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는 아래에 내려가서는 기술자들을 자주 만나 계속 혁신하도록 고무하여주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숨은 공로자, 숨은 노력가로 적극 내세워주었다. 그리고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에 관계없이 당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는 기술자들을 당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우리 도당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발동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당조직들에 일반화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여주시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발동하는데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중령도의 위력한 무기인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있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언제나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해나가도록 우리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있다.

우리 도당위원회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군을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

리 룡 운

군을 잘 꾸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군당위원회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군당위원회는 농촌경리를 비롯하여 군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며 집행하는 말단기관이다. 그리고 군당위원회는 군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군당위원회들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군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 잘 보장해줄수 있다. 나라의 200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맡고있는 군당위원회들이 군사업을 잘 지도하는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맹산군당위원회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을 완강하고도 꾸준히 벌려왔으며 특히 최근 몇해동안 군을 농촌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급기지로, 농촌에서의 사상문화혁명의 중심지로 튼튼히 꾸리고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보다 큰 힘을 넣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건재기지에 의거하여 군소재지를 꾸리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무질서하게 널려있던 상점들과 편의봉사시설들,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건설하였고 살림집도 지대적환경에 어울리게 다층과 단층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지었으며 소재지의 구획을 규모있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소재지를 끼고 흐르는 맹산강기슭의 넓은 진펄을 메우고 거기에는 각종 유희시설과 운동기구를 갖춘 공원과 소동물원을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꾸리였다.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는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공장들을 군내 수요에 맞게 개건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일용품과 가정용품, 식료품과 청량음료들을 주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고있다.

우리는 농촌살림집을 산기슭에 새 문화주택으로 옮겨짓고 도로도 비경지로 뽑아 많은 부침땅을 얻어냈으며 군안을 흐르는 모든 강하천에 제방을 튼튼히 쌓아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알곡생산이 늘어나 식량을 실어들이던 우리 군이 이제는 자급자족하고도 남아 많은 량곡을 실어내게 되였다.

우리는 집짐승기르기를 군중적으로 하여 해마다 고기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으며 협동농장마다에 지어놓은 온실에서는 겨울철에도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있다. 양어장도 건설하여 칠색송어를 수십톤씩 잡아내고있다. 이것은 군내 주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풍족하게 해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을 벌린 결과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뒤떨어진 산골군으로 알려지고있던 우리 군이 오늘은 도시부럽지 않게 꾸려지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되였다.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이 전변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진두에서 오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산간지대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시고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군을 잘 꾸리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오는 과정에 군의 일이 잘되고 못되는것은 전적으로 군당위원회에 달려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진수를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였으며 당의 원대한 구상대로 군사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도 얻게 되였다.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당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에서 주선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것입니다. 당사업은 철두철미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당사업은 당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이며 당활동은 곧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활동은 수령의 사상을 구현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당활동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사업에서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는가 아니면 다른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는가 하는것은 해당 단위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참모부인 당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나서게 된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사업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정책적선에서 정확히 가려보아야 하며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관시켜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군당위원회가 실지 사업과정에 그 정당성을 체험한 문제이며 우리가 거둔 성과의 비결이 바로 당이 밝혀준 당사업원리대로 일한데 있다.

최근 우리 군당위원회가 주선으로 틀어쥐고 사업을 밀고나간것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논밭가운데 있는 집들을 비경지로 옮길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우리 군적으로 수천세대의 농촌살림집과 백수십동의 공공건물과 생산건물을 옮겨지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였다. 그러나 군면적의 대부분이 경사가 급한 산악지대이므로 부침땅이 제한되여있고 또 그것이 거의 평지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군의 조건에서 농촌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비경지로 옮기는것은 경지면적을 늘여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절실한 문제였다. 발전하는 나라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현실에 맞게 리소재지들을 꾸리며 농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도 시급히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하였다.

여기로부터 군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단순한 실무적문제로 보지 않고 당의 의도대로 농촌의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제기하게 되였으며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게 되였다.

당사업에서 주선을 틀어쥐는 목적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주선을 틀어쥔 다음에는 당

조직들을 움직이고 군중을 발동하여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것이다.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비경지로 옮길데 대한 군당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처음에는 매우 굼뜨게 진척되였다.

일부 일군들은 군당의 결정을 긍정하고 접수하기는 하였으나 소요되는 많은 로력과 방대한 자재를 타산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을 직접 조직지휘하여야 할 농촌리의 일군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 일부 농민들이 또한 자기가 살던 집을 옮기려 하지 않는 현상도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자그마한 난관앞에서 흔들리는것은 당정책을 홍정하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당정책을 대하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벌리였다.

군당위원회의 사업도 우리는 랭정하게 분석검토하였다.

그 어떤 사업에서든지 호소만 하여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인 당사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조직을 움직이고 군중을 해설설복하여 적극 발동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방법론을 바로세워야 한다.

우리는 대홍리를 비롯하여 몇개 리에 내려가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군당위원회가 순수 수자적타산에 기초하여 협동농장의 매 분조들이 농한기마다 살림집 한동씩 맡아 옮겨짓도록 과업을 주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이 사업을 벌린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였다.

우리는 새로 지울 살림집설계와 산기슭에 형성할 마을의 전경도를 만들어가지고 군당의 책임일군들과 조직부, 선전부의 일군들이 일제히 농민들속에 들어가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광범한 건설적인 의견에 기초하여 방법론도 진지하게 탐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농민들을 군당위원회의 결정 집행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었다. 그리고 살림집을 옮겨짓는 사업을 농장의 분조들에 맡기면 로력, 기술, 자재 문제들이 걸린다는것도 알게 되였으며 분조단위로보다는 모든 조건이 유리한 작업반단위로 로력을 무어 봄과 가을의 농한기에 농장적으로 한개 마을씩 집중적으로 와닥닥 옮길데 대한 합리적인 방도도 찾아내게 되였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실물을 통하여 일군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대흥협동농장 3작업반에 내려가 그곳 일군들과 농민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밭가운데 있던 6동의 낡은 집을 단 보름사이에 양지바른 산기슭으로 옮겨지은 다음 군당집행위원들과 군급기관 책임일군들, 군안의 리당비서, 관리위원장들을 데리고나가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기만 하면 단번에 한개 마을씩 비경지로 옮길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당조직들을 움직이고 일군들과 군중을 발동하여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민 결과 우리 군에서는 최근 2~3년사이에 밭가운데 널려있던 낡은 살림집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였으며 양지바른 산기슭마다에 아담한 문화주택마을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였다.

여기에서 경험과 신심을 얻은 우리는 리내의 공공건물과 생산건물을 집중적으로 모두 비경지로 옮기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만도 수백정보의 비옥한 부침땅을 얻어내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였으며 군내의 모든 리소재지들, 농촌마을들의 낡은 옛모습도 새롭게 일신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이상의 사업을 통하여 군당위원회가 당사업의 주선을 틀어쥐고 그것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옳바른 대책과 방도를 세운다음 혁명적으로 사업을 밀고나간다면 아무리 불리

한 조건에서도 농촌의 경제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였다.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섬멸전을 벌리는것은 주체의 당사업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군당위원회들은 이 사업방법을 옳게 구현하여야 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군을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반드시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문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237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수많이 제기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이 여러가지 과업가운데서도 사업전반에 결정적영향을 주는 보다 긴요한 과업이 있으며 또한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해도 될 일이 있다. 물론 여러가지 혁명과업들은 어느것이나 다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다. 그러나 력량이 제한되여있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있지 못한 조건에서 제기된 사업들을 동시에 다 수행할수는 없다. 제기된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할 일과 후에 할 일을 가려내고 중심고리를 찾아낸 다음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씩하나씩 먹어들어가는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사업에서나 지켜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다.

군당위원회들은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이 사업전개원칙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농촌사업은 다른 부문의 사업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매개 군들의 자연지리적, 경제적 조건도 각이하다. 이러한 형편에서 군당위원회들은 자기의 실정에 맞게 군사업을 지도하여야 하며 반드시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군의 전반적인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모든 조건이 불리한 우리의 실정에서 군을 꾸린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만 확고하면 극복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못해낼 일이란 없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걸린 문제를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갔다.

우리가 군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면서 중심고리로 틀어쥔것은 석탄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석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군을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열쇠였다. 석회석이 흔한 우리 군에서 석탄만 있으면 세멘트를 자체로 생산하여 군소재지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건설은 물론 협동농장의 생산건설도 다그칠수 있었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도 풀수 있었다. 린접군에서 나는 석탄만 바라보고서는 군을 꾸리는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격적으로 벌려나갈수 없었다.

여기로부터 군당위원회는 탄광개발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석탄문제를 푸는데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탄광개발지점이 확정된 다음 우리는 탄맥을 찾아내기 위한 굴진을 다그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수백메터를 뚫고 들어갔으나 탄맥이 잡히지 않았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이러저러한 말들이 오고갔다. 그것은 숱한 로력과 자재만 랑비했지 헛수고라는것이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 책임이 두려워 일시적인 실패에 뒤걸음질을 친다면 아무 일도 해낼수 없고 그러한 일군은 혁명의 지휘성원이 될수 없다.

우리는 린접군들이 모두 석탄을 캐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에도 반드시 석

탄이 깔려있을것이라는 확신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며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동요하지 않고 일단 시작한 일을 끝까지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탄광개발현장에 내려간 우리는 일군들이 신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고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한편 로동자들속에서 석탄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절절히 호소하면서 굴진속도를 더욱 높이게 하였다. 고심어린 투쟁을 벌리던 그들은 끝내 800메터 계선에서 탄맥을 찾아냈다.

석탄문제를 푼것은 우리 군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석탄이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체로 건재기지를 꾸릴수 있게 되였으며 군소재지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지방산업공장들에도 석탄을 넉넉히 대주어 생산을 부쩍 올릴수 있게 되였다. 농촌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옮겨짓는 사업도 더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주체의 당사업방법의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고 그것을 옳게 구현할 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력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저절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해서는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당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은 중요하다. 당일군들은 군중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앞장에서 당이 내놓은 정치적과업수행에로 이끌어나가는 정치일군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이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군중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적 품성과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에서는 늘 당일군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의 이 가르침에는 바로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가지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책임적으로 해결해주는 인민의 참된 일군이 될데 대한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우리 당일군들은 마땅히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그래야 군중이 당에 속을 주게 되고 당일군들을 따르게 되며 그들의 조직되고 단결된 힘으로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해제낄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한 또하나의 귀중한 경험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벌리든지 군중의 의견을 광범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설계하고 포치하는것을 하나의 철칙으로 삼고 사업하였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장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놓고도 군당위원회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것뿐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맛내기간장과 육고추장 생산을 더 늘일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풀었다.

우리는 아래에 내려가서도 늘 군중과 허물없이 접촉하면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였다. 인민들의 생활에서 보고 듣게 되는 평범한 것들도 우리는 결코 그저 스쳐지내보내지 않았다. 군소재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맹산강에 큰물이 질 때마다 먼길을 에돌아다니는 인민들의 불편해하는 광경을 보고 우리는 여러곳에 구름다리를 놓아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었다. 우리가 양어장을 건설하게 된것도 물고기를 그리워하는 한 농장원의 말에서 그것이 산간군에 사는 우리 군 주민들모두의 절절한 소망으로 여겼기때문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아래에 내려가면 먼저 그들의 생활부터 알아보았으며 인민들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풀어주게 하였다. 농촌살림집을 옮겨지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로력과 자재 타산을 앞세우면서 낡은 집을 헐어다 그대로 짓자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군들에게 농촌살림집을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문명하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설계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그들의 광범한 의견에 기초하여 완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설계대로 집을 옮겨짓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높아질수록 그들의 생활을 더 극진히 보살피는것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우리 당의 일군들의 본분이다. 자식들에게 하나를 주면 둘을 주고싶어하는 어머니들처럼 당일군들은 군중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여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늘 마음써야 한다.

군내 인민들이 새로 지은 문화주택으로 살림을 옮긴후 우리는 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있다는것을 포착하고 가구공장의 능력을 확장하는것과 함께 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개조하여 가구의 량과 가지수를 늘일 대책을 세웠다. 오늘 우리 군내의 모든 주민세대들에는 여러가지 가구가 일식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도 큰 힘을 넣어 군적으로 먹는 기름과 고기 문제도 원만히 풀었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풀어주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은 군내 인민들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이 자기들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해주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굳게 확신하고 그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군중이 떨쳐나서면 실로 무궁무진한 힘을 낳는다.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우리 군을 오늘과 같이 꾸릴수 있은것은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당정책관철에 일떠선 군내 인민들의 창조적힘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두리에 한결같이 뭉쳐있는 그들의 힘은 우리 군을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농촌으로 건설하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도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성과는 당의 의도와 요구에 비추어볼 때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것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군을 더 잘 꾸리고 그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겠다.

第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야 한다

김 득 준

오늘 第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그 개최지가 남조선의 서울로 정해진것으로 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있다. 그리하여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과 많은 체육인들 속에서는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원래 올림픽운동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세계의 여러 민족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며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리념으로 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올림픽경기대회장소는 마땅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여있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있으며 평화가 담보된곳으로 설정되여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은 올림픽의 리념에 비추어볼 때 국제적인 체육축전을 벌릴만한 장소로 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은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정세가 긴장하고 전쟁위협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매우 불안정한곳이다.

미제의 군사적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은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100만명의 괴뢰군무력이 항시적인 전쟁태세를 갖추고있으며 1,000여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이 가장 높은 밀도로 집결되여있는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되여있다. 이곳에서는 반공대결과 군사적도발소동이 어느 하루도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다.

남조선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곳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애국과 매국, 민주와 파쑈간의 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다. 군사독재의 타도와 파쑈헌법의 철페를 요구하며 독재자를 지지하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앞에 당황망조한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파쑈폭압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써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현행《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인민들과 민주세력의 청원운동마저 무참히 짓밟고있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은 살인과 강도, 사기와 협잡 등 온갖 치떨리는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비롯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들이 만연되여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은 어느모로 보든지 국제적인 올림픽경기대회장소로는 적합치 못한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第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남조선에서 진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第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남조선에서 진행하려고 하는것은 우선 그것을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100여년의 올림픽운동력사에 식민지에서 괴뢰들의 주관하에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된적은 그 어느 한때도 없었다. 지금까지 올림픽경기대회는 주권국가에서 그 나라 정부의 주관하에 진행하는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관례로 되여왔다.

그러나 전두환괴뢰도당은 가소롭게도 올림픽운동의 이러한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第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남조선의 서울에서 진행함으로써 남조선을 《주권국가》로, 저들의 《정권》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공인시켜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해보려 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서울올림픽《유치》는 남조선의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사회에서 북을 고립시키는 축제》로 되며 《남조선이 유엔에 가입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것으로 된다》고 떠들면서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이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세계 여러 민족들간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육축전으로 되게 하려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나라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세계인민들에게 남조선을 그 무슨 《독립국가》로 보이게 하려는 수단으로 리용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신성한 국제체육축전인 올림픽경기를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리용물로 삼으려는것은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모독이며 올림픽운동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제24차 올림픽경기를 남조선에서 하려는것은 또한 그것을 악용하여 저들의 파쑈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리용하여 저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는것은 식민지주구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은 저들의 통치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을 조작하여 인민들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고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였다.

오늘 전두환괴뢰도당이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남조선의 서울에서 진행하려는것도 사실은 국제적인 체육축전을 남조선에서 한번 해보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여 전례없이 심각해진 저들의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강화하고 전쟁정책을 합리화하며 제놈의 장기집권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자는데 그 진짜속심이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제반 사실들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남조선괴뢰들은 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그 무슨 《사회안정》이요, 《질서유지》요 하면서 파쑈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것을 발동하여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전쟁정책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파쑈독일의 히틀러가 1936년 베를린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벌려놓고 그것을 제놈의 파쑈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제2차세계대전을 준비하는 미끼로 리용하였던것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올림픽의 리념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과 체육인들은 신성한 올림픽운동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전두환괴뢰도당의 교활한 책동을 반대배격하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서울올림픽을 《전두환은 살리고 국민은 죽이려는 올림픽》이라고 규탄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고있으며 그들은 《올림픽보다 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웨치며 반미반독재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체육인들은 하결같이 《서울에서 올림픽경기가 진행된다면 올림픽운동력사에서 가장 엄중한 오점을 남기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친선, 단결, 평화의 리념에 맞게 올림픽을 운영하자면 제24차 올림픽경기를 서울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를 서울에서만 한다면 여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는 올림픽운동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여있다.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심각한 위기에서 구원하는것은 올림픽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더는 뒤로 미룰수 없는 매우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내외인민들

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올림픽운동을 발전시키고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북과 남이 올림픽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림픽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의 순조로운 개최를 보장하며 동시에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조선인민과 뀨바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단행본, 11폐지)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은 올림픽의 숭고한 리념과 정신을 존중하고 올림픽경기대회를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평화와 친선의 체육축전으로 되게 하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립장을 반영하고있다.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은 무엇보다도 올림픽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다.

지금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식민지인 남조선에서 진행하기로 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있다.

남조선《정권》은 자주독립국가의 징표를 찾아볼수 없는 미제의 식민지괴뢰정권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남조선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남조선은 올림픽의 리념과 원칙에 맞게 국제적인 체육축전을 벌릴만한곳이 못된다. 때문에 남조선의 서울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벌리게 된다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결국 올림픽운동력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기고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분렬과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이 실현되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와 위신,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있으며 올림픽경기대회를 성대한 축전으로 주최할수 있는 충분한 힘과 조건을 가지고있다. 북과 남이 올림픽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위기에서 구원될것이다.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은 또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목과 단합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정책과 분렬책동에 의하여 매우 긴장해지고있으며 민족적 반목과 대결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라의 한쪽에서만 올림픽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평화와 친선, 단결을 위한 올림픽운동이 결국은 우리 나라의 정세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조선의 분렬을 꾀하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어렵게 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이 실현되여 조선의 북과 남에서 체육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북남체육인들과 인민들, 각국의 체육인들과 관광객들이 북과 남으로 자유로이 오가게 됨으로써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우리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사업에서는 매우 유리한 국면이 열려지게 될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이 위기에 처한 올림픽운동을 구원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수 있게 하

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체육인들은 우리가 내놓은 올림픽공동주최안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은 물론 일본, 서부독일, 이딸리아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민족올림픽위원회 인사들속에서까지 지지를 받고있다.

최근 꾸바와 에티오피아, 마다가스까르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이 실현되지 않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끝내 서울에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강행한다면 여기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이 실현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올림픽공동주최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서울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저들의 부당한 립장을 합리화해보려고 우리의 공동주최안이 올림픽의 리념과 헌장에 위반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사실을 외곡하고 현실을 오도하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올림픽의 리념과 헌장에 일관되여있는 기본정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올림픽운동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체육축전을 통하여 세계 여러 민족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강화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데 있는것이다.

북과 남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데도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이 올림픽의 리념과 헌장에 전적으로 부합될뿐아니라 그것을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구현한 가장 정당한 제안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정한 세계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조성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올림픽공동주최안이 올림픽의 리념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자들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주최하자는 립장이 아니라 그것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려 하고있는데 있다. 올림픽을 공동으로 주최하는것은 곧 나라의 분렬을 막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자는것이며 그것을 반대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민족적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리치에 맞지도 않는것을 들고 생떼를 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립장과 올림픽헌장의 요구를 지키기 위한 립장에 서서 우리가 제기한 올림픽공동주최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한다.

동시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신성한 올림픽운동을 도용하여 저들의 파쑈정책을 합리화하고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약 남조선괴뢰들이 《올림픽서울유치》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정면에 내걸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떨쳐나선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추구하며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는데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더 큰 증오와 저주를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가 내놓은 공명정대한 올림픽공동주최안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적개최를 위한 공동주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적 단결과 협조의 강화를 위한 중요원칙

길 재 경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련합회의에서 토의된 원칙적문제들은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들을 고수하고 이 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이 반제자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의 전통을 고수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단결과 협조는 반제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무기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단결과 협조를 요구하며 그것은 인민들이 단합된 력량으로 진출할 때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한다. 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생명이며 위력의 원천이다. 인민들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이다. 단결된 인민들의 힘은 한 나라의 범위에서는 물론 세계적범위에서도 불패의 위력을 가진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배한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는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 그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나라들과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단결과 협조는 그것이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만이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평등하고 공고한 기초우에서 발전시킬수 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679페지)

자주성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처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의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고 그에 기초하여야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될수 있으며 공고한 단결과 협조가 이룩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반제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의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제국주의 예속과 억압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시대적추세를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얼마나 심오히 반영하고있는가 하는것은 그 리념이 시대를 대표하는것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인민들을 투쟁에로 고무하고 결속시키는 무기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온갖 민족적예속과 억압을 반대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며 자유로운 발전을 담보하는 자주의 리념은 오늘 시대적사조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투쟁과 단결의 기치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이다.

자주성의 숭고한 리념은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새생활창조의 참다운 진로를 밝혀주고있으며 온갖 민족적 예속과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들이 공통된 목적과 지향을 안고 진출할수 있게 하고있다.

자주성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기본전제로, 기초로 되기때문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은 다 자주성을 가지고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는 자주성에 있으며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참다운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만일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면 남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되고 남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며 결국 자기 나라 혁명과 민족의 리익을 지켜낼수 없고 존엄과 영예도 빛내일수 없게 된다.

자주성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실제적기초로 된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때만이 국제무대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완전히 평등하고 호상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참다운 단결과 협조가 실현될수 있다. 자주성이 침해되는곳에는 언제나 지배와 종속, 예속과 의존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견지하여야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것도 허용하지 않게 되며 다른 나라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도 존중하고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단결과 협조를 이룩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단결과 협조를 보장하는 전제로 된다.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라야 자원적이고 평등하며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그와의 유기적련관속에서 발전한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해야 하며 그러자면 매개 나라가 자기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민족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고리를 강화하고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는것으로 된다.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다른 나라 혁명을 보다 실속있게 지원하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국제적 단결과 협조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이며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과 협조를 이룩할수 없으며 혁명의 민족적임무는 물론 국제적임무에도 충실할수 없다. 오직 자주성을 견지하여야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매개 나라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가장 옳바른 립장으로 된다.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 자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전개되는 현실은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립장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나라들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독립을 쟁취한지 오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도 있고 뒤떨어진 나라도 있다. 그러나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들은 다같이 국제관계에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문명국》과 《문명한 민족》, 《렬등국》과 《렬등한 민족》을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제멋대로 유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누구도 자주성이 유린되고 지배와 예속, 불평등이 강요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국가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자면 매개 나라가 자기의 자주성을 고수할뿐아니라 남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짓밟고 독립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는데서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공동으로 벌리는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오만무례한 내정간섭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현시기 민족국가들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주되는 침략세력은 미제국주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반제자주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무력간섭과 함께 분렬, 리간 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그레네이더에 대한 무력침공, 레바논에 대한 폭격, 니까라과에 대한 선전포고없는 전쟁, 리비아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만행 등은 미제의 횡포한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무력간섭과 분렬, 리간 책동을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피로써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놈들의 각개격파전략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기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세계에는 사회주의나라도 있고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도 있으며 그밖의 나라들도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가운데도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권을 옹호하는데서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그들을 반제공동전선에 하나로 련결시키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모든 반제력량은 굳게 손잡고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제국주의지배세력을 타승하고

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것을 면할수 없으며 민족들사이의 불평등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으며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여야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들사이에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평등한 기초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배와 예속화정책에 맞서 싸울수 있다. 그러므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자주성을 견지하며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이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제경제정세가 발전도상나라들에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남남협조를 실현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이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대항력과 협상력을 키워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도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를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이 나라들은 광활한 령토와 풍부한 원료자원, 새생활창조과정에 이룩한 여러가지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체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한다면 발전된 나라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얼마든지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식량 및 농업분야와 보건분야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며 이미 마련된 경제협조행동강령에 따라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사업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흥세력나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매달려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연부원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를 헐값으로 략탈해가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이 나라들은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저애를 받고있다.

현실은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의 공간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력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적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무역, 금융, 통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온갖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경제관계들을 개편하며 국제적 착취의 근원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현시기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며 단결과 협조를 실현하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리념으로 되고있으며 이 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신흥세력나라들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과 협조관

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면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매장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려는 오늘의 지향의 공통성으로 하여 튼튼히 단결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그것은 이 운동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세력과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을 이루고있기때문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립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국제적으로 단결하고 협조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삼고있다. 따라서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관계분야에서 령토와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고 쁠럭불가담원칙을 준수하며 그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그에 기초하여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수행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우리 당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자주성의 원칙에서 신흥세력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일관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자주권에 대한 존중, 완전한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특히 이 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다. 미제는 40년이상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구분렬시키려 하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우리 당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이러한 자주적립장,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존엄과 권위는 비상히 높아졌고 그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단결,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적극 다그칠것이다.

벌가리아공산당 제13차대회에서 한 연설

또도르 쉽꼬브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도르 쉽꼬브동지는 1986년 4월 2일에 열린 벌가리아공산당 제13차대회에서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벌가리아공산당 제13차대회는 우리의 격동적이며 위대한 20세기 마지막시기인 앞으로의 15년동안에 이룩하여야 할 나라의 발전문제를 중심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그 문제란 어떤것들인가?

국내 생활의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전면적진보를 이룩하며 경제와 정치, 문화와 생활양식, 관리를 비롯한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첨예하고 절실한 문제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되는것은 과학기술혁명을 실현하는것이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인민들의 물질적, 사회적 및 정신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다.

국제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지구상에서 평화와 생존을 유지하며 인류문명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계층들이 다그치고있는 군비경쟁은 20세기말에 이르러 인류로 하여금 살아남느냐 아니면 핵전쟁의 불길속에서 죽어버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하고있다.

지난 5년동안에 대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가 해결한 문제들의 복잡성때문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한 오유와 결함때문에 비록 난관이 있었으나 지난 기간은 보람있는 시기였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벌가리아공산당이 채택한 발전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들은 당 제12차대회가 내놓은 과업들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발전된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것은 토대와 상부구조,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등이 성숙되여가는 단계로 된다.

우리가 당의 강령을 준비하고있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 나라에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백한 표상이 없었다. 때문에 강령에는 기간이 설정되여있지 않았다. 생활은 이 단계가 우리가 상상했던것보다 더 오래 걸리리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주되는것은 무엇인가?

주되는것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과정에 생산관계는 더욱더 완성되며 공산주의사회경제구성태의 첫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에 고유한 우월성은 더욱더 힘있게 발양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 벌써 사회주의하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의 건설과 완성 과정에 공산주의의 새싹이 자라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조성된다.

사회발전은 객관적법칙의 요구에 복종된다. 우리는 법칙을 위반한 때마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법칙들의 요구를 연구하고 타산하는데 있어서나 그것들을 더욱 충분히 구현시키며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과 주관적요인이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우리 당의 리론실천적활동은 바로 여기에로 돌려졌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 당은 주관적요인의 역할을 높이며 개별적사람들과 로동집단들, 인민대중의 창발성과 창조력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철저

히 진행하고있다.

30년전의 오늘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1956년)가 열리였다. 이 전원회의는 우리 인민이 4월정치로선으로 부르는 벌가리아공산당 총정치로선의 시발점으로 되였다. 총결기간은 이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며 그것을 발전풍부화시키는 기간이였다.

4월전원회의는 나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발전, 과학과 문화의 앙양을 새롭게 추동하였으며 근로자들의 힘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4월로선, 이것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한 로선이며 생산과 정치사회생활의 관리에서, 사회적과정의 발전에서 개인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로선이다.

벌가리아는 물질분야에서와 정신분야에서도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벗들도, 적의를 품은 사람들도 인정하고있다.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높고 안정된 경제 및 공업 장성속도를 이룩하였다. 4월전원회의이후 1956~1985년기간에 고정폰드의 가치는 10배,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은 8.4배, 국민소득은 8배로 늘어났다. 공업구조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인민경제의 중요부문들인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과 동력공업이 우선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자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보트제작공업, 전기지게차생산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것이 특징적이다. 제8차5개년계획기간에 년평균알곡생산량은 1953~1957년에 비하여 2배나 늘어났다. 30년동안에 나라의 대외무역류통량은 29배로 늘어났으며 수출은 33배로 늘어났다. 대외경제관계에서 벌가리아는 주로 공업품무역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사회적전취물은 대단한것이다. 년평균로임은 3.3배로 늘어나고 사회적소비폰드는 12배 장성하였다.

인민들의 교육문화수준이 급속히 높아졌다.

우리 당과 국가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있다. 오늘 과학기술혁명은 사회주의사회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다같이 합법칙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있다. 과학기술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또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은 과학기술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과 국가 생활에서 1985년 2월전원회의와 1986년 1월전원회의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우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작성하였으며 그 실현 방법과 수단들을 규정하였다.

우리가 예견한 개전은 규모가 크고 복잡할뿐아니라 힘든것이다. 우리는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야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것들과 부딪치게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개전을 완성할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그에 착수하였다.

력사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짧은 기간만을 준다는것을 우리는 잘 리해하고 있다. 바로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나라를 선진적인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문제는 이미 현대적과학기술진보의 의의를 리해하는데 있지 않다. 심각한 변혁이 필요한것이다. 우리 민족과 국가는 형상적으로 표현한다면 과학기술혁명에 《말안장을 올려놓고》 그 내재적 합법칙성에 의거하여야 하며 과학기술혁명을 전개하기 위한 주객관적요인들에 무한히 넓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발전속도를 높이고 거기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으며 집약적장성의 모든 요인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더 빨리 발전할수 있게 하며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하며

인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추동력과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과학이다.

과학은 이미 사회주의벌가리아의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발전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와 함께 우리가 처해있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똑똑히 알아야 할것은 우리의 사고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과학이 노는 역할을 리해하는데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우리가 과학발전을 위해 진행하고있는 사업에 새로운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이다.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과학전선을 전적으로 다시 개편하여야 한다. 그 조직구조, 물질기술적장비, 핵심골간육성, 특히 연구내용을 제9차5개년계획기간과 2000년까지의 벌가리아의 기술공정의 재정비와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유일적국가전략에 결정적으로 적응시켜야 한다.

과학일군들과 기술자들, 설계가들, 숙련공들에 대한 로임지불 및 자극체계와 그들의 직업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형태들과 규범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창조일군들과 과학기술적진보의 담당자들의 위신은 결정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다음으로 그것은 생산기술공정을 개편하며 인민경제구조를 완성하는것이다.

현대과학기술혁명, 이것은 우선 기술공학혁명이다.

선행시킬 분야를 정확히 선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단계를 제정하며 갱신의 과도적기간문제와 이 분야에서 총적전망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전자공학, 생물공학, 새로운 재료들의 생산도입과 관련된 공학에 힘을 돌려야 한다.

새로운 전망기간에 현대과학기술진보의 기본담당자로서의 기계제작공업의 역할이 더욱더 장성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자공학발전에 중심을 둘것이며 무엇보다도 원격조종체계의 생산과 도입에 중심을 둘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경제에서 기관본위주의적태도를 극복하고 관료주의를 청산하며 새로운 계획화체계와 관리체계에로 이행하는것이다.

우리앞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발전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관한 레닌적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발전시키며 계획적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초하여 인민경제관리를 완성하여야 할 심중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생산적 및 사회적 호상관계는 매우 복잡해져서 관리에서 그 어떤 형식적인 태도 즉 즉흥적인 태도는 허용될수 없다. 모든 급의 관리간부들의 활동에서 높은 직업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되고 있다.

작풍과 방법을 부단히 완성하는것이 필요하다. 관리실천에서 현대적인 전자계산기와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통보기술을 도입하고 소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성숙되였다.

나는 여기에서 경제통보체계를 결정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 강조하는바이다.

경제발전, 과학기술적진보, 조직구조와 관리기구의 완성분야에서 우리가 규정한 방향들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들은 사람들, 그들의 행복과 안녕이 그 중심에 놓여있는 우리의 사회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것이다.

우리의 전략에서 사회시책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사상의 인도주의적성격, 우리 제도의 인도주의적본성과 관련되여있다. 바로 거기에 사회주의사회의 기본원칙인 사회적공정성의 원칙이 구현되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원칙을 위하여 사회주의사회가 생겨났고 또 이 원칙을

위하여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고있는것이다.

당 제12차대회결정에는 근로자들의 구매력장성에 맞게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는것이 우리 사회시책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되여있다.

당중앙위원회 테제와 사업총화보고에서 강조되고있는바와 같이 당은 앞으로도 인민의 복리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인민의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업할것이다.

사회정책의 새로운 방법들과 과업들은 우리 생활에서 부정적인 현상들과의 투쟁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있다. 우리 생활에서 일부 부정적인 현상들이 사회적기형성을 띠고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에 대한 인민들의 표상을 심히 훼손시키고있으며 우리 리념의 힘과 견인력을 약화시키고있다. 우리 인민,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인테리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제도의 본성과는 인연이 없는 변태적이며 기형적인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담보해줄것을 주권기관에 요구하는것은 응당하다.

우리 당의 4월총로선은 주관적요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로선이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확대심화시킬데 대한 로선이다.

당은 제12차대회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리론실천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결과 새로운 로동법이 채택되고 비준되였다. 우리는 모든것이 다 잘되고 사업이 평탄하게 문제성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량심적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지금 사회주의벌가리아에서는 로동집단과 근로하는 사람이 우리 력사의 전기간에 누구도 가지지 못했으며 현 세계의 일부 인민들만이 소유하고있는 그런 권리와 가능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당과 인민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이며 성과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발양시키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이 새로운 단계의 본질적이며 고유한 특징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분야에서 인간의 사회적, 로력적 및 개인적 적극성을 높일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로동집단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실현할 길을 찾았다. 우리는 옳았다. 왜냐하면 경제적기초가 없이는 민주주의적과정이 효과적인것으로 될수 없기때문이다.

책임성과 규률과 질서에 대한 근로자들, 집단들, 매개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져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잊어버리고있다.

지금은 권리와 의무를 서로 떼여놓을수 없으며 질서와 규률이 념원과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만 할 때가 아니다. 모든 사회단체, 국가기관, 모든 사회력량, 모든 당기관들과 당조직들, 모든 공산당원들의 의무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질서를 세우는것이다.

책임성, 질서, 규률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기초의 하나이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벌가리아의 참다운 공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주의, 그 어떤 특권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룩해야 할 전환은 당의 통일과 전투력, 당의 령도적역할의 수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우리 당은 갱신과정을 령도하고 보장하며 새로운 경제, 정치, 사상적 환경을 마련하고 과학기술혁명의 수행과 사회주의적사회관계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이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것들을 가지고있다.

현 단계에 있어서 당의 조직사상사업에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며 새로운 조건에 맞게 사업 형식과 방법, 작풍들이 개선되여야 한다.

이 개편의 기본요소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을 지령적방법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견에 귀를 주의깊게 기울이면서 당중앙기관들의 사업의 과학적이며 전략적인 성격을 강화하며 당기관들과 당조직들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장할것이다.

우리모두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 주로 공장, 기업소, 교육 및 과학 기관, 주민지역과 기타 모든 분야의 아래당조직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

오늘의 조건에서 지방당위원회들의 역할이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현지에서 일이 어떻게 되며 근로자들의 미룰수 없는 정치, 사회적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것이 우선 이들에게 달려있다.

오늘 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힘과 능력에 따라 나라의 과학기술전략을 실현하는데 참가하여야 한다. 여기에 참가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사업결과에 따라 그들의 활동이 평가될것이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적진보에 대한 협소한 기술실무주의적태도를 반대하여 언제나 투쟁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쟁하리라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학기술혁명에 참가하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치적문제이며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호상관계와 리해관계, 높은 요구성, 개성의 발전, 새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우리 사회의 진보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사람들의 창발성과 창조성을 억제하는 우로부터의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동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로동집단들과 초급당조직들에서 그릇되게 리해하고있는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아래단위에서의 관료주의와의 투쟁도 벌려야 한다.

간부들과의 사업을 심중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조건에서 능력있고 실무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며 선발해야 하는가? 그러한 사람들은 벌가리아의 곳곳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실지 사업과정에서 찾아낼수 있으며 초급당조직들이나 로동집단들에 의거하여 선발할수 있다. 우리모두는 집단이 매개인의 능력을 잘 알고있으며 그의 우점과 결함도 잘 알고있다는것을 리해하고있다. 중요한것은 간부들의 사업을 개별적인 결함이나 성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결과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일군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에 심중히 대하여야 하며 직위나 과거의 공로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매개 경우에 맞게 원칙적인 결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룩한 성과나 범한 과오에 대하여 광범히 공개할 때가 되였다.

당조직사업의 개편은 당의 구성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당이 자기의 구성을 옳게 조절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로동계급적성분을 계속 강화하고 당원들을 사회활동의 모든 분야에 더욱 광범히 참가시킨것이며 더 많은 청년들을 당에 받아들일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수준 높은 전문가들 속에서 견실한 당핵심을 키우는것이 지금 특별히 중요하다.

토대와 상부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투쟁과 자기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당은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벌어지는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사상사업에 기대를 걸고있다.

현 단계에서 사상전선의 주요과제는 우리 발전에서 노는 인간적요인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은 사상사업이 현시대의 과학기술적 및 사회적 진보가 매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며 사회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평가하며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데 대한 생동한 표상을 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사상사업은 당과 사회가 매 사람들의 질과 공로를

평가할수 있는 높은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질과 공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시도들에 즉시적이며 공개적인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우리의 맑스-레닌주의사상의 발전은 당의 의도와 사회과학의 혁신적탐구와 발을 맞추어나가야 하며 맑스-레닌주의학설의 창조적정신을 발양시키고 이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 사상과 리념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부르죠아 사상과 선전의 온갖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 벌려야 한다.

나는 우리의 정치로선들을 규정하고 관철하는데서 날로 커가는 사회과학의 의의를 특별히 강조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발전의 합법칙성이 과학기술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들을 깊이있게 밝혀낼것을 기대하고있으며 객관적조건과 사람들의 의식적활동의 관계에 관한 변증법, 물질정신적부의 창조자, 정치와 관리의 주체, 끊임없이 장성하는 수요와 리해관계의 담당자, 표현자로서의 사람의 장성에 관한 변증법을 연구할것을 기대하고있다.

이상의것이 제9차5개년계획기간과 2000년까지의 기간에 이룩하여야 할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의 발전을 위한 기본로정과 거기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이다.우리의 전망은 평화와 사회주의의 전반적전망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전반적사회적 진보와 더 훌륭하고 정의로운 생활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공산주의리념의 승리를 확신하며 앞날에 대한 오늘의 예견과 계획들이 벌가리아인민이 다음 세기를 맞이할 때에는 현실로 될것이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오늘의 세계정세는 자기 위안을 할 근거를 주지 않는다. 미국행정부는 호소들과 제안들 그리고 자원적인 일방적양보들을 무시하고 군비경쟁을 계속 강화하고있으며 새로운 핵시험을 하고있고 평화로운 우주를 전쟁터로 전변시킬 준비를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세계의 실태를 아랑곳하지 않으면서《신세계주의》전략을 실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최근의 사변들이 증명한바와 같이 이 전략은 전반적인 세계정세를 혼란시키고있다. 여기로부터 한걸음만 더 나가면 핵충돌이 일어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평화와 전쟁 문제는 오늘 모든 문제들가운데서도 기본문제로 되는것이다. 여기에 사회주의나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인종적, 민족적, 정치적 및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는 핵과괴위험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며 이 위험을 제거하고 문명을 유지하여야 할 공동의 과제가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핵참화를 방지하고 전반적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최상의 목적이며 우리 사상, 우리 제도의 인도주의적, 도덕적 성격의 표현으로 된다.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할것이다. 우리는 핵위험을 청산하며 구라파 및 세계 문제를 호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현시대 세계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국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하여 와르샤와조약국들이 쏘피아에서 채택한 강령을 실현하도록 사업할것이다.

국제주의원칙에 끝없이 충실한 벌가리아공산당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오늘의 긴장한 세계정세하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련계는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

벌가리아공산당은 우리 당도 그 한 부분으로 되여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과의 련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은 현 조건에서 우리의 운동에는 인류문명

을 구원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이 없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는 로동운동의 여러 조류들과 사회당들, 사회민주당들, 혁명적민주주의정당들과 민족해방운동, 국제기구들과 농민당들, 로조단체들과 청년 및 녀성조직들, 반전반핵운동과의 호상협조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인종주의와 인종격리를 반대하는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우리는 국제관계를 민주주의적이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재편성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할데 대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가지며 평화적공존의 원칙에 맞게 차별이 없이 정치적대화와 경제적, 과학기술적 및 문화적 협조를 진행할것을 주장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은 발칸지역나라들과의 관계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발칸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원칙적이고 건설적이며 현실적이다. 이 정책은 평화, 선린, 협조를 보장하고 호혜적인 쌍무 및 다무적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발칸지역을 핵무기와 화학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발기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다. 우리는 발칸지역나라들이 이 반도의 생태학적보호에 관한 조약을 작성하고 체결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라파대륙의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할 때가 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창조적로동을 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것은 긴장완화와 평화, 선린관계와 신뢰, 호상리해라는것을 다시금 선언하는바이다.

력사는 우리에게 사회주의건설자로 투쟁할 행복을 주었다. 력사는 우리에게, 근로하는 인류에게 공산주의사회에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인민들속에 있을 책임을 부과하였다. 벌가리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외롭지 않다. 우리 인민은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과 어깨겯고 나가고있으며 그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있다. 그리고 우리자신이 그들의 발전에 기여하고있다.

사회주의벌가리아는 무엇보다도먼저 우리의 로동과 창조의 활무대이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들과 우리의 충실한 동맹자들인 농일농업근로자들과 조국전선성원들, 공청원들과 모든 벌가리아애국자들이 자기의 힘, 재능, 지식과 로동을 새시대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이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그러한 높이에로 우리 조국을 올려세우기 위하여 다 바치리라는데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애국주의적이며 국제주의적인 의무가 있다.

벌가리아공산당 제13차대회에서 채택하게 될 결정이 실현되면 우리앞에는 21세기에 들어서는 벌가리아, 세계인민들의 선두대오에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벌가리아가 나타날것이다.

독일사회통일당 제11차대회보고

1986년 4월 17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독일사회통일당 제11차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당 제10차대회결정은 수행되였다

최근 5년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과 모든 근로자들의 창조력에 의하여 계속 발전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가 모든 면에서 완성된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지 않게 전진하였다.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은 농민, 인테리들, 모든 근로자들과 동맹하여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회를 창건하였다는것을 당당히 말할수 있다. 이것은 당과 인민들사이의 굳은 신뢰의 결과이며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의 근면성, 규률성, 숙련과 지칠줄 모르는 정력의 결과이다. 지난 40년동안에 우리 당과 로동계급은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우리 나라의 생활에서 일어난 변혁이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총화가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총화기간 국민소득은 1조 870억마르크에 달하였고 그것도 90%이상은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오늘까지 190만명이 대학과 중등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완전한 취업, 인민들의 복리증진, 사회적공정성, 진정한 자유에 기초한 완전한 민주주의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실현되고있다.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창조된 모든것은 당 제11차대회에서 심의하게 될 1990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0년까지의 전망과업을 수행하는데 자신있게, 락관에 넘쳐 착수할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굳게 하여준다.

2. 국제정세와 독일사회통일당의 대외정치활동

독일사회통일당 제10차대회가 있은 이후시기에 국제무대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과 나토의 지배층이 추구하는 군비경쟁의 강화와 대결로선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는 첨예화되였다.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이러한 사태발전과 관련하여 우리 당은 전쟁의 위험을 줄이도록 작용하는것을 최우선적과업으로 여기고있다.

세계정치문제에 대한 쏘련의 창발적인 태도와 2000년까지 세계에서 모든 형태의 핵무기를 없애며 국제안전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쏘련의 포괄적인 제안은 우리의 평화정책실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고있다. 우리는 미하일 고르바쵸브동지가 내놓은 제안들과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에서 채택된 제안들을 전적으로 찬동하며 이것들을 실천에 옮기는데서 우리자신의 몫을 다할것이다. 제안들은 무기와 폭행이 없는 세계에 대한 그리고 매개 나라들이 자기 발전의 길과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결정할데 대한 우리의 리상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자기 인민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공간을 살륙무기로 가득 채우려는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여 지구상 이르는 곳마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선진적인 기술공학을 창설하는데서 전략방위구상은 그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다. 평화적인 연구와 우주공간의 정복, 이것은 유익한 사업을 위한 연구분야이다. 우리들은 우주와 지구상에서 평화를 주장한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앞으로도 국제정세를 건전하게 하고 완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대화와 협조의 정책을 실시할것이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 및 과학기술적 협조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와 문화, 교육, 보건 및 기타 분야들에서의 협조를 위한 새로운 형태들을 모색할 용의를 가지고있다.

현 세계의 특징은 진보적력량에 유리하게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서로 대립되는 경향들과 각이한 모순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이다.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경제와 튼튼한 과학적토대 및 믿음직한 군사잠재력에 의거하여 부단히 강화되였다.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운동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사회주의는 평화를 유지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복잡한 과학기술혁명문제들을 해결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생활은 제국주의의 가장 침략적인 계층들이 모험적인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획책하면서 사회발전을 저애하고있다는것을 더욱더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와 구라파 및 그밖의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는 이미 체결된 여러가지 조약들에 기초하여 계속 발전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압력과 공갈을 굽힘없이 받고있는 꾸바에 변함없는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과 형제적협조관계는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협조의 발전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

우리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평화공존의 원칙에 맞게 비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협조도 확대해나가고있다.

우리 당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관계와 민족해방운동 및 그 당들과의 협조관계를 확대하였다. 이 지역나라들과의 협조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있는것은 특히 1981～1985년사이에 이 나라들과 350건이상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우리는 현재 101개의 나라를 망라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그 활동은 평화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 더욱더 새로운 영향을 주고있다.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대표하고있는 이 운동은 군비경쟁과 그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 힘에 의한 위협과 힘의 사용 그리고 그 어떠한 형태의 팽창주의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맞서나가고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군비를 철폐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에 얻어지는 자금을 집단적인 노력으로 공해, 기아, 후진성 및 전염병과 같은 세계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쓰자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인민들은 신식민주의적착취와 힘의 정책에 굴복하려 하지 않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발전의 길을 선택한 앙골라, 모잠비끄, 에티오피아와 오래전부터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우리는 니까라과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난호히 규탄하며 싼디노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우리의 변함없는 련대성을 다시한번 확언한다. 중미주문제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정치적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에서 기울이는 모든 노력들을 환영한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원천은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인도주의적성격에 있다. 우리의 대외정책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유리한 대외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3. 경제와 사회 정책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

독일사회통일당 제10차대회 이후 우리 공화국은 고도로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주의국가로서 계속 성과적으로 발전하였다. 1981—1985년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과 생산력, 생산관계, 과학, 교육,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관계와 나라의 국방력이 더욱 완비되였다.

1981～1985년기간에 생산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국민소득은 1조 870억마르크에 달하였으며 년장성률은 끊임없이 높아졌다. 지난해 6개월동안에 생산된 국민소득은 1970년 옹근 한해동안에 생산된 량과 맞먹는것이다. 당 제8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15년동안에 우리는 2조 7천억마르크, 즉 1949년부터 1970년까지의 22년동안에 생산한것보다 1.7배나 더 많은 국민소득을 생산하였다. 국민소득의 장성은 90%이상이 로동생산능률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진것이다.

우리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고도로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요구에 부합된다. 최근 5년동안 고정폰드를 현대화하고 개건확장하며 사회정치적강령을 실현하는데 3,190억마르크가 지출되였으며 당 제8차대회때부터 본다면 8,900억마르크라는 막대한 자금이 여기에 지출되였다. 1985년말에 우리의 경제는 1조 3천억마르크에 달하는 고정폰드를 보유하게 되였다. 1980년에 비해 그 액수는 21%이상 장성하였으며 공업부문에서 자동화설비가 차지하는 몫은 53%까지 늘어났다. 지난 5개년계획기간 국민소득장성의 4분의 3을 차지한 공업부문에서는 로동생산능률이 총체적으로 38%나 증대되였다.

농업, 림업, 식료공업 부문들에서도 지난 5개년계획기간에 이룩된것보다 더 큰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농작물재배분야에서 년평균 알곡수확고는 헥타르당 45.4데치톤에 이르렀다. 여기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중요작물수확고가 높아졌다.

지난 15년동안에 주민들의 실질수입은 두배로 늘어났다. 주민들의 순 현금수입은 78% 늘어났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정책분야에서 15년이상이나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사회주의의 현실적가능성에 대한 력사적증거로 된다고 이야기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계점에 이른것이 아니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투쟁의 기본과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이다. 우리는 이 로선을 견지할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제발전속도를 규정하는 분야에 주의를 집중시킬것이다. 무엇보다도 과학과 생산, 생산과 과학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주의를 강화발전시키는데 부합되게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도록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계속 확립할것이다.

공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경제의 잠재력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있다.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기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들을 받아들이는것이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공업은 과학연구성과, 풍부한 기술공학적경험, 특히는 극소형전자공학기지를 가지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극소형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조종되는 기계들과 로보트들의 적극적인 도입은 사람을 생산의 가장 관건적인 요소로, 기술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었다. 로동의 사회주의적성격은 더욱더 발전하고있다. 앞으로 수행하게 될 5개년계획에는 보다 유리한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120만~130만개의 작업장들에서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44만~45만명을 중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있다.

최상의 질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에서 화학공업의 현대화를 계속 철저히 다그쳐나갈것이다.

화학공업부문의 생산종합체들에서는 벌써 최상의 세계적수준에 이른 고도의 효과성을 가진 자동화된 기술공정들과 생산공정들이 도입되고있다. 앞으로 2000년까지의 발전추세는 이러한 선진적인 기술공정을 완전히 자동화된 생산복합체로, 때로는 기업소전반을 합리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자동화된 공장으로 만드는데 있다.

생물공학부문앞에는 거대한 전망이 펼쳐져있다. 이 분야에서의 연구사업과 생산은 생물공학제품생산을 1985년에 비하여 1990년에는 3배로 늘일 목표를 가지고 1980년대의 중엽부터 다그쳐졌다.

우리의 금속공업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질좋은 금속제품을 생산하는데로 넘어가는 단계에 놓여있다.

인민소비품생산은 인민경제의 면모를 날을 따라 더욱 변모시키고있다. 우리의 계획은 1990년에 가서 인민소비품생산량을 30~32%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해마다 제품의 30~40%를 갱신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상품은 70%까지 갱신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우리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는것은 우리의 방대한 살림집건설계획을 실현하는 사업에 참가하고있는 건설자들이다. 우리는 1990년경에 이르러 건설량을 30~32% 늘일것을 예견하였다.

농업정책에서는 우리의 농촌경리를 효과성이 높은 경제부문으로 더욱 발전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도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과의 확고한 동맹에 의거할것이다. 농촌경리의 번영발전은 더 많은 알곡을 수확하며 축산물생산량을 더욱더 높이는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1986~1990년기간의 5개년계획에는 년평균 알곡수확고는 1.7%, 축산물생산량은 1.4% 더 높일것이 예견되여있다.

1990년에 이르면 인구 한사람당 실질수입은 1985년 수준에 비하여 20~23% 늘어날것이다.

나는 우리 당의 경제전략의 본질과 내용을 몇개 체계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로,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200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들과 더욱더 실질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것이다.

둘째로, 우리 경제전략의 본질은 로동생산능률을 급속히 장성시키는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선진기술공학을 도입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로동생산능률의 년장성률이 10% 또는 그이상이나 되는 생산종합체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셋째로, 우리의 경제전략은 원료, 자재, 동력 지출의 비중을 더욱더 줄이면서 생산을 높이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넷째로, 우리의 경제전략은 높은 세계적수준에 맞는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고있다. 오늘 질을 규정하는 척도로는 제품의 과학기술적수준, 그 사용용도, 제품의 견고성과 아름다움들을 들수 있다.

다섯째로,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경제의 사회주의적합리화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있다. 이 사업은 오늘 여러 부문에서 널리 진행되고있는데 주로는 최신기술수단들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진

행된다.

여섯째로, 우리의 경제전략은 로동의 높은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호상 작용하고있다. 로동시간의 절약은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자재소비량을 줄일것을 요구한다.

일곱째로, 우리의 경제전략은 기본투자령역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기본투자의 압도적부분은 현존 건물들과 시설들에 기초한 고정폰드의 현대화에 돌려질것이다.

여덟째로, 우리의 경제전략은 대중소비품의 량을 훨씬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수요가 높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충분히 생산하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분야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아홉째로, 우리의 경제전략은 나라의 경제력을 끊임없이 계속 장성시키기 위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정치적목적을 달성하고 사람들의 물질문화수준을 높이려면 경제를 계속 힘있게, 안정하게 장성시켜야 한다.

열째로, 2000년을 예견한 우리의 경제전략은 집약적인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그것을 튼튼한 토대우에 올려놓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발전의 객관적법칙으로부터 제기되는것이다.

4. 과학의 과업, 정신 및 문화생활의 가일층의 발전

우리 나라 학자들은 자기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인민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나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과학분야앞에는 새로운 과업들이 제기되고있다. 그것은 매 과학자들이 수준을 높이고 이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수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분야에서는 통보를 처리하고 통보기술을 확립하며 효과성이 높은 기계관리수단들과 정연한 자동화체계를 창설하는것과 같은 기본방향에 과학연구사업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효과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물공학과 여러가지 생물학적과정, 그가운데서도 유전자공학방법을 적용하는데서 과학연구사업의 긍정적성과들을 기대하고있다.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일치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이 사회과학과의 협력을 넓혀나가야 한다.

앞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토대를 창설하는것은 종합대학, 대학, 기술전문학교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온갖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필요로 한다는것, 또 전면적인 교육과 풍부한 능력, 다방면적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고있다는것을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학교학생들이 과학기술발전성과들을 소유하기 위한 과업은 교육과 교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때에만 해결될수 있다.

5. 사회주의국가, 그 발전의 기본방향

우리 로동자, 농민의 국가는 계속 발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국가정권의 위신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국가주권발전의 주요방향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더욱 발양시키고 완성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방주권기관들과 공민 및 인민대표기관들이 호상 협력하는것이 적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당은 일관하게 직업동맹에 커다란 주의를 돌려왔다. 자기 대렬에 950만명을 망라한 자유독일직업동맹은 로동계급의 광범한 계급적 및 대중적 조직으로 되였다.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 당의 변함없는 방침이 가져온

결과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전체 인민의 복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있는 전투적동맹자인 독일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독일자유민주당, 독일민족민주당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하고있다고 굳게 확신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할수 있는 믿음직한 국방체계를 창설하였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평화를 수호하며 전쟁을 방지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하에서 전투준비태세의 본질이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군인들은 평화와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독일사회통일당의 정책을 관철하는데 참가하고있다.

나토의 침략무력이 침략준비를 다그치고 무장력이 높은 속도로 질적으로 변화되고있는것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민족인민군과 국경경비대 군인들앞에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완성할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군인들은 어떠한 정세하에서도 계급적요구를 수행할 태세에 있어야 한다. 정치적견결성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교양과 전투훈련의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야 한다.

6. 독일사회통일당은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당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국가의 형성발전과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들은 독일사회통일당의 활동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생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독일사회통일당은 우리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 언제나 자기에게 높은 책임성을 부과하고있다.

독일사회통일당은 로동계급의 당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전체 인민의 당이다. 당은 인민속에서 나왔고 인민의 구성부분이며 전적으로 인민에게 복무한다. 당은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자각적이며 조직적인 선봉대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로동의 열매를 그들자신이 향유하도록 하는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에로 대중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조직동원하고있다.

독일사회통일당 제10차대회이후시기에 우리 당은 더욱더 단련된 당으로 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호상신뢰에 기초하여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할수 있었고 사업작풍에서 생활과 보다 밀접한 련계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더욱더 효과적이며 조직적인것으로 되게 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있으며 이것은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로부터 기층당조직에 이르기까지의 집단적노력으로 모든 공산당원들의 력량을 강화하며 온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새로운 성원들을 개별적으로 선발하여 입당시킬데 대한 레닌적원칙에 충실한 우리는 앞으로도 당대렬을 량적으로 많이 장성시키지 않으면서 당장성의 질적요인들을 보장하는데 기본적인 힘을 넣을것이다. 가장 자각적인 생산부문 로동자들과 협동농민들을 우선적으로 입당시킬것이다.

당간부들을 배치할 때 우리는 인민경제구조의 근본적변화를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로동계급과 대규모의 사회주의적생산이 집중된 중심지들에서 사회의 모든 령역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보장되여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당의 대중정치사업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회적실천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투쟁,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조건에서 효과적인것이다.

우리 당의 대중정치사업의 효과성은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성과들에 반영되게 된다. 또한 매 공산당원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더 잘 감당해내고 그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여 《공산당원이 있는곳에 당이 있다》는 우리의 구호에 충실할수록 그 효과성은 더 높아진다.

공산주의리념을 확신한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어깨겯고 나가고있다. 그들은 독일인민의 훌륭한 아들딸들,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싸운 투사들의 념원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사회주의혁명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당의 붉은 기발과 함께 항상 자유독일청년동맹의 푸른 기발이 나붓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젊은 세대와의 공고한 전투적동맹을 결코 허물지 못할것이다.

제11차 당대회연단에서 우리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모든 자유독일청년동맹원들인 당신들에게 호소한다. 활짝 꽃핀 젊은 세대들인 당신들이 독일땅에서의 사회주의전취물의 기발을 들고 2000년대에로 나아가라고.

우리는 모든 공산당과 로동당들, 세계의 모든 평화와 진보적 력량과 우리를 련결시키고있는 깊은 국제주의적련대성의 감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인류의 휘황한 리념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에게 지지를 준 세계의 여러 지역의 공산당원들과 우리의 계급적형제들, 모든 전우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의 투쟁에서도 계속 우리를 믿어주기 바란다.

근 로 자 1986년 제7호(루계 531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6년 7월 1일 발 행 • 1986년 7월 3일

ㄱ—6506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8 호(532)

차 례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자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사상교양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고 전당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혁명적당으로, 주체의 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주체사상교양사업에 언제나 선차적힘을 넣고 그것을 긇임없이 강화하도록 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긇임없이 강화하여야 할 항구적인 사업이며 이것은 특히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고 정세가 복잡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혁명은 지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80년대의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고있다. 오늘 국제국내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긴장해지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면서 나라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짓밟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침략행위를 빈번히 벌리고있으며 썩어빠진 서방문화와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무기로 하여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예속과 사상문화적침투를 실현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현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이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지배와 예속을 강요하는 온갖 반동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앞으로 미제를 비롯한 반동세력들의 음모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으며 혁명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들과 지도적원칙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사상리론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무장시키며 주체사

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들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 사상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로 된다.

당사상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공산주의자가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사람들을 이러한 높이에 이른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은 하루이틀에 완성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진행되여야 하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깊이 인식시켜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철저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모든 사물과 현상을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저절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혁명사상을 소유하고 그 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며 모든 사고와 실천에서 철저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을 밝히고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시켜 그들에게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호상관계문제에 대한 올바른 철학적견해를 세워줄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세계관적기초를 마련해줄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게 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정확한 관점과 태도, 립장과 방법을 가지게 할뿐아니라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탁월한 혁명리론을 밝혀준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 그들이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참된 혁명가로 준비되게 되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방법,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소유하게 하는 문제도 주체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킬 때 해결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것은 또한 우리 당의 의도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며 당면하게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되고 부강한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어렵고 보람찬 혁명과업을 안팎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켜 그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자체의 힘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서해 20리 날바다우에 갑문건설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만년대계의 세계적인 갑문을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워 80년대건설속도, 《남포갑문 건설속도》를 창조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온갖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인민생활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는 맹산군과 피현군, 평천구역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의 실천적인 투쟁경험은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곳에서는 언제나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현실은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을 당의 의도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밀고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을 심화시키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 단행본, 6페지)

주체사상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사상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주체사상원리교양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심원한 진리들을 깊이 인식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시키고 그 정당성과 위대성, 독창성을 전면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오직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그들속에서 주체사상학습을 잘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당이 학습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은 누구나 다 하여야 하지만 특히 지도일군들이 많이 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며 대중의 교양자들이다. 지도일군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똑똑히 알아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과 방침의 본질과 정당성을 옳게 파악하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사업할수 있으며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역할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주체사상학습에서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깊이 연구체득하는데 보다 큰 힘을 넣고 학습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의 기본교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이다. 여기에는 주체사상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주체의 심원한 원리들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열렬한 탐구심과 진지한 학습태도를 가지고 《김일성저작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력사적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등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여러 문헌들을 정력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들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당면하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확고히 인식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은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중요한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단순히 지식수준을 높여주기 위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혁명실천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혁명실천을 떠난 교양사업은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의 무기로 창시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심화시켜야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것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혁명업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주체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킬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더 잘 해결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언제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자재와 원료를 적게 받고 생산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겠는가 하는데 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쓰게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모든 내용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제시된것이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 완성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혁명사상이다.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모든 사상교

양의 내용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고있으며 따라서 주체사상을 떠나서 그 어떤 교양사업도 원만히 진행될수 없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비롯한 모든 당사상교양사업들이 주체사상교양과 항시적으로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는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것을 주체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내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으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대상의 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은 원래 천편일률식으로 될수 없으며 고정불변할수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매개 사람들의 사업조건과 임무도 다르고 수준도 각이한 실정에서 주체사상교양을 한가지 틀에 매여 할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대상의 수준에 따라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강의를 하여도 들이먹이는 방법으로 할것이 아니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습교재나 해설담화자료, 도서들도 대상의 수준에 맞게 통속성과 과학성이 옳게 보장되게 써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강의한 내용을 쉽게 리해하고 머리를 쓰게 되며 책을 하나 읽어도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파악할수 있다.

우리는 토론과 문제의 방법도 광범히 적용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내용을 폭넓고 심도있게 리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지 자기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방도까지 옳게 체득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학습을 통제하고 평가하며 총화하는 방법도 개선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수준과 사업상 특성에 맞게 학습계획을 바로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학습담화 혹은 글을 쓰우거나 대중앞에 출연시키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의 학습정형을 료해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 공인된 시대적사조로 되고있으며 력사의 전진과 더불어 그 견인력과 변혁적의의는 더욱더 커가고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선전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

리 봉 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발표하시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키는 방향과 방도로부터 수령의 당으로서의 성격을 고수하고 그 면모를 완성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건설의 원리들과 원칙들, 당사업과 당활동의 지침으로 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특히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여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발전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는 로작에 명시되여있는 심오한 당건설 사상과 리론,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풍부한 경험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 *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26페지)

당건설위업의 계승완성에 관한 문제는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이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그 면모를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당건설의 전행정에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항구적으로 관철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당건설위업은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고 력사적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완성되게 된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혁명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당건설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하며 혁명의 세대교체와 함께 줄기차게 이어져나가야 한다. 이로부터 혁명의 피줄을 이어가면서 수령의 당건설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자기 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정확히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당건설위업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할수 없으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할수 없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당건설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단계에 와서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이것은 당건설위업수행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되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된다. 당발전의 이러한 높은 단계의 요구는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건설위업이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서고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당건설위업이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에 의하여 관철되여온 당건설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항구적으로 실현하여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그 면모를 완성할수 있다. 이것은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이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수령의 혁명위업, 당건설위업을 계승하는 문제는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직면하고있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고 로동계급의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한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력사가 흘러갔다. 이 기간에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대가 바뀌우고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당건설위업이 멀리 전진한 오늘에 와서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이 보편적인 요구로 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것으로 되였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이 력사적과제가 바로 우리 당에 의하여 가장 빛나게, 가장 만족스럽게 해결되였다.

우리 당은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한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며 위대한 승리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1페지)

당건설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이다.

수령의 혁명위업, 당건설위업을 계승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당건설위업을 누가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수령의 후계자에 관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후계자문제는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이다.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후계자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져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당이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나간다.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수령의 위업이 계승되고 완성되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이 고수되고 그 면모가 완성되여나간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세련된 령도자, 탁월한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당건설위업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빛나는 모범과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였으며 당과 혁명 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시여 빛나는 업적을 쌓으시는 행정에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뛰어난 자질과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천투쟁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만이 수령의 혁명위업,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게 되였다. 투쟁속에서 찾고 력사적으로 형성된 이 불변의 신념으로부터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려는 숭고한 지향과 절절한 념원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숭고한 지향과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 그리고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전당의 조직적의사에 의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시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로 되며 당건설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모범으로 된다.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를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위업을 옳게 계승하기 위한 원칙적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는 일정한 령도지반과 령도체계에 의하여 보장된다. 때문에 정치적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자면 반드시 확고한 조직사상적지반이 있어야 하며 정연한 조직기구와 혁명적 규률과 질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업체계가 확립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바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상적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이며 후계자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후계자를 옳게 추대한 다음 반드시 그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워야 수령의 후계자가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자기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 수령이 개척한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이처럼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는 바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당건설위업수행에서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로서의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고 수령의 절대적권위와 결정적역할을 철저히 이어나갈수 있게 하여 당건설위업의 계승성을 확고히 담보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었으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혁명은 1970년대에 이르러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것은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우리 당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간부대렬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꾸려지고 그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였다. 이와 함께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섰으며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중앙집권적규률과 질서가 확립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 기초가 마련되고 령도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철저히 섰다.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탁월한 당건설사상과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한 우리 당의 실천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을 혁명의 종국적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투쟁의 기치로 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계승하는것은 당건설위업계승의 기본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기본은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계승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7페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순결하게 이어나가야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할수 있다.

한편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그것이 개척되는 때로부터 그 발전과 완성의 전과정이 정치적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오직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당건설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종국적으로 완성되여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완성의 합법칙적과정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본성에 맞게 건설되고 활동하려면 당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당건설위업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계승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건설위업의 계승은 곧 사상의 계승이며 령도의 계승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당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계승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바뀔 때 당의 혁명적성격과 투쟁업적을 고수할수 없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결국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게 된다. 오직 당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계승되여야만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할수 있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계승해나가는것은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결정적담보로 된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굽임없이 심화시켜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며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야 할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제반 원칙과 방도들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였다.

오늘 우리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철저히 당중앙의 사상의지에 따라 진행되고있으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였다는 뚜렷한 증시로 된다.

참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기본로선이였으며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곧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온 로정이였다. 우리 당의 력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가장 큰 긍지를 가지게 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일관하게 관철하여온것이다.

우리 당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참된 길이 있으며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위업수행에서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전통과 계승은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전통이 없이는 계승이 있을수 없고 계승이 없이는 당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이 있을수 없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완성되는 당건설위업이 확고한 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해나가자면 그 전과정을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주는 력사적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력사적단계가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여도 그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 이러한 력사적뿌리, 이러한 혈통이 바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당의 혁명전통이다.

혁명전통에는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당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이 밝혀져있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총적방향과 목표가 명시되여있다. 혁명전통에는 이와 함께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당건설과 당활동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이것은 혁명전통이야말로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뿌리로 되며 혁명투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피줄기로 된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당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전과정을 하나의 혈통으로 련결시키고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의 력사는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고 순결하게 계승되여온 력사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전도도 혁명전통을 어떻게 계승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에 대한 립장과 태도 문제를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신념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의지와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을 수령과 혁명을 보위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혁명전통의 모든 내용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투쟁업적만으로 일관되게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항일의 혁명전통이 가장 순결하게 옹호고수되고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그것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혁명의 승리와 당건설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만년초석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성과 그 옳바른 실현방도를 밝힌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이 위대한 당건설사상에 의하여 당건설위업계승의 내용과 당건설위업계승에서 후계자의 결정적역할,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고 그 면모를 완성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할데 대한 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의 계승완성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빛나게 해결한데 있다.

우리 당은 대를 이어 오래동안 계속되는 당건설위업수행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그리고 공산주의운동과정에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현실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건설리론을 전개함으로써 당건설위업의 계승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빛나게 해결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당건설위업계승에 관한 우리 당의 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의 계승완성에 관한 문제를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문제로 제기하고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 리론을 전개한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수행에서 당을 창건한 수령이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당건설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우리 당은 당건설위업계승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노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문제를 중심에 놓고 당건설위업계승완성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전개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고 빛나게 실현하여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계승하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끝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

김 형 원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당의 령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히신 당의 령도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임무이며 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건설, 당활동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로작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합법칙성이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히신 당의 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당의 령도적역할, 당의 령도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밝혀진 과학적인 사상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73~74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혁명의 향도자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다.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이며 그 결정적담보로 된다.

당의 령도는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력량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추진되여나간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저절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각성되여야 하며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비록 혁명과 전

설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할 때에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혁명적으로 각성되면 될수록, 조직적으로 굳게 뭉치면 뭉칠수록 더욱더 힘있는 력량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의하여 실현되게 된다. 인민대중은 옳바른 지도를 받아야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계급적으로 각성될수 있으며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될수 있다. 결국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대중에 대한 옳은 지도를 보장하는것이다.

대중에 대한 지도문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산주의운동에서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운동에서 대중에 대한 지도는 바로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보장되게 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당과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수령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최고대표자로서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체현하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유일적으로 지휘하는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인민대중을 전일적인 통일체로 결합시켜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만드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최고령도자의 역할을 한다.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조직으로서 혁명의 최고령도자인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한다. 당은 사회의 심장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수령의 혁명사상의 영양소를 불어주어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간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며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휘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의식화, 조직화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위력한 력량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은 수령의 령도, 당의 령도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여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활동하게 하며 전당, 전국, 전군이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혁명적령도체계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수령의 명령, 지시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침투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것이 어김없이 관철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수령의 령도체계

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온 사회가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통일되여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이렇듯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의 령도는 바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그것은 수령의 령도체계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수령은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기 위하여 당, 인민정권, 근로단체 등 여러 정치조직들을 창건하며 이 정치조직들은 수령의 령도체계를 이룬다. 수령의 령도체계를 이루는 이 모든 조직들가운데서 당은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한다.

수령은 당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 전반을 령도하며 당은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당은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여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을 움직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활동하는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국가, 경제기관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전반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함으로써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해나간다.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가 보장되여야 혁명과 건설의 전반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이처럼 당은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수령의 령도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당의 령도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으로 되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령도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옳게 령도하여왔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언제나 큰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을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였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적지도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민정권은 가장 포괄적인 당의 인전대이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어렵고 복잡한 두단계의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며 집권당의 당사업은 경제건설을 옳게 령도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그 위력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무력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강화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가 짧은 력사적기간에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유력한 자위력,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온데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합법칙성, 당의 령도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으로 된다는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이렇듯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과학적인 사상리론이다. 이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활동에서 로동계급적이며 혁명적인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당적령도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약화시킨다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는것은 물론 그것을 망쳐먹게 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본성을 잃고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계급의 전위조직인 당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은 그 위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당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의 령도리론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책임적인 사업입니다.》(《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단행본, 23페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며 당중앙의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

으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당의 령도체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당이 전투력있는 조직적부대로 될수 없으며 당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없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시종일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이 서게 되였다.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우리 당의 조직적의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당의 령도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목적도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당조직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접수하면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며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함으로써 그것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감으로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담보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자면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중앙이 당사업전반을 장악하고 작전을 바로할수 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대한 당적령도를 바로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전당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워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같은 걸음을 걷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 당위원회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이다. 당조직들이 언제나 전투적패기에 넘쳐 생기발랄하게 움직여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여나가게 할수 있으며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당위원회들이 키잡이를 잘하게 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위원회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은 결정을 채택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위원회들의 키잡이역할을 높여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정치적, 정책적 지도로 되게 하며 당사업이 경제사업과 밀착되게 함으로써 당위원회들이 해당 단위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 최고지도기관,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원만히 수

행하도록 할수 있다.

당위원회의 키잡이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는 집체적지도기관이며 집체적지도가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이므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것은 당위원회의 키잡이역할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당위원회들은 개별적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모든 위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도록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옳바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당위원회의 키잡이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당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다. 당일군들이 늘 군중속에서 생활하며 활동하여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과 방도를 찾아낼수 있으며 군중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도, 당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장악통제사업도 실속있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사무실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서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소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수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가질 때에만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옳바른 령도예술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옳은 령도예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에는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집대성되여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워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와 함께 인민적사업작풍, 혁명가적기풍과 인민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옳은 령도예술을 소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는 일군들의 수준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당일군들이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자면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며 과학기술도 알아야 하며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정책적안목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사명이다.

우리 당에서는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으로,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의 정치 실현의 기본방식

리 상 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을 건설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사상리론적으로 총화하고 주체의 혁명적당건설강령을 집대성한 불멸의 당건설총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로작은 주체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수행과 당건설리론발전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로작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밝히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천명하시였으며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이 고전적정식화는 주체사상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을 구현하여 당의 활동방식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한 위대한 사상리론적공적으로 되며 당을 그 특성에 맞는 고유한 원리에 기초하여 건설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준 력사적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에 관한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이며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담보이다.

* *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정치를 실현하는 조직체이다.

일반적으로 당은 일정한 계급과 사회적집단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조직체이다. 일정한 계급과 사회적집단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은 당의 정치를 통하여 실현되고 고수된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따라서 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이며 당의 모든 활동은 곧 정치활동이다.

다른 정당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로동계급의 당의 근본특성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라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철두철미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적조직체로 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는 다름아닌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기본기능을 이룬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고 정치적력량을 꾸리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사회적력량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등 사회의 정치생활전반을 포괄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인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의 참다운 계급적성격과 인민적성격이 있으며 그 본질적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이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자기의 고유한 방식을 통하여 실현된다.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대변하여 투쟁하는 당의 정치실현방식은 그 당의 성격과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것만큼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의 정치실현방식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로동계급의 당에는 자기의 고유한 정치실현방식이 있다.

정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기능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실현의 여러 방식들가운데서 무엇을 기본방식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가 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리론적으로는 당의 활동방식에 관한 문제가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관련되여있는 원칙적문제이며 실천적으로는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령도적기능과 력사적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에 관한 문제는 력사적으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여왔으며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인 투쟁경험을 총화하신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에 관한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방식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22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것을 자기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삼고 투쟁한다.

사람과의 사업이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의 본질과 그 근본요구와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그 근본요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의사는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고수하고 실현하며 그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할데 대한 의사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바로 인민대중의 이러한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할데 대한 의사는 그들자신이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이 그들자신에 의해서만 개척되기때문이다.

자기 운명의 지배자, 개척자로서의 인민대중의 립장과 역할은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 조직적단결의 힘과 자각성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된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

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고수하고 실현할수 없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명백한 진리이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이 근본요구는 오직 사람과의 사업을 통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우선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그들을 의식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며 혁명은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의식화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당의 정치실현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으며 그들을 의식화된 정치적력량으로 만들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사업인 동시에 그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워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위력은 조직적단결에 있다. 단결과 협력은 원래 사람의 생존방식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처음부터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여왔다.

단결은 곧 혁명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조직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조직화된 혁명력량으로 만들수 있으며 당의 정치실현의 지반을 강화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각성을 높여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스스로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람은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이며 혁명은 인민대중이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 자각성이 없는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당이 자기의 정치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자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이처럼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이며 결정적담보이다. 여기에 사람과의 사업이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정치사업이라고 하는 리유가 있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이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자체의 본성적기능과 관련되여있다.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치적교양자이며 조직자이다.

당이란 원래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신봉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각오를 가진 선진분자들의 자각적인 부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권력이 아니라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에 의거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며 명령과 호령이 아니라 설복과 교양으로 사람들을 타이르고 깨우쳐주며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손잡아이끌어주는 방법으로 대중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깨우쳐주는 정치적교양자이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단련시키고 동원하는 정치적조직자이다.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적특성의 하나가 있으며 국가권력기관과 구별되는 당의 기본기능이 있다.

정치적 교양자, 조직자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기본기능으로부터 당사업의 대상과 당의 임무가 규정된다.

당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다. 기계나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고 다루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하는 사업이 다름아닌 당사업이다.

물론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의 령도, 당의 관심밖에 있는 사회생활령역이나 혁명과 건설의 어떤 분야도 있을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생산수단이나 생활자료와 같은것까지도 당사업의 대상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사업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서 활동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당은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이다. 따라서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된다. 사람을 자기의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는 당은 본래의 의미에서 로동계급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당사업의 대상이 사람인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당의 기본임무로 된다. 이것은 결국 당의 임무가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하며 동원하는 사람과의 사업에 귀착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사업의 기본내용으로,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며 당사업과 당활동은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자기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하게 되는것은 이처럼 당의 정치의 본질과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인 동시에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교양자, 조직자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기능에 의하여 규정되는 합법칙적현상이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방식으로 하여 자기의 정치를 실현해나가지 않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당을 행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권력기관화하는데로 나가게 되며 결국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해나갈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당 건설과 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람과의 사업을 자기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활동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

체사상의 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할데 대한 요구이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사람의 근본요구이다. 이로부터 세계를 보고 대하는데서는 마땅히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의 견지에 서야 한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세계에는 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오직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이러한 요구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기계나 물건을 보기전에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하며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여도 그것이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세계와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자기의 모든 활동을 과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의 참다운 대표자, 철저한 관철자로 될수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다음으로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다.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개조자이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는 사람이며 사람만이 세계를 개조할수 있다. 세계의 개조를 요구하며 세계의 개조를 실현하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사람은 객관적법칙을 리용하여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조하여나간다. 세계는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사람을 위한것으로 개조되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의 변화발전을 반드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대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요구로부터 세계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로동계급의 당은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람과의 사업을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사람과의 사업을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를 천명하고 당사업리론의 초석을 마련한것으로서 당건설리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사상이다.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에 관한 사상에 의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정치적령도를 실현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고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내용으로,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규정한 당사업리론의 초석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당사업리론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주체의 당건설리론

으로 완성되고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원리와 내용이 사람중심의 사상과 원리로 일관되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시대의 요구와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한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을 전개하고 체계화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며 사람중심의 당건설리론을 마련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을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향도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힘으로써 당건설실천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을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만들고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담보하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또한 로동계급의 당을 명실공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정치적교양자, 조직자로 건설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을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조직하고 발동하여 그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향도력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 여기에 사람과의 사업을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한 사상의 위대성이 있으며 당건설실천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람과의 사업을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철두철미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길을 밝힌것으로서 당건설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적원칙을 고수할수 있게 한 위대한 사상이다.

이 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을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 *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과의 사업을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자기의 정치를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조직되고 세련된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과의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그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당의 령도에 모든것을 다 바쳐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참답게 옹호하고 실현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자기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한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는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살며 일하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

김 시 중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보도 전진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적역할과 관련하여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유일하게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력사적인 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체계정연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계속되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고전적명제를 내놓으시고 그 근거를 깊이 해명하시였다.

* *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이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계속되며 공산주의사회에서도 당의 향도적역할이 필수적이라는것은 공산주의사회자체의 본성적요구와 직접 관련된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옳게 전개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공산주의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게 됩니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인간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완전히 실현되지만 그때에 가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집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13페지)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그 내용과 성격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낡은 사회관계와 사상, 기술,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진행된다면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없어지고 인간해방이 이루어진 토대우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람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 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게 사람들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하며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더욱 대대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이 모든 투쟁은 그 어느 하나도 저절로 이루어질수는 없으며 오직 당과 같은 령도적정치조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서만 옳게 전개될수 있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전사회적인 공동투쟁

이며 따라서 통일적인 조직지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되여 사회적구성이 단일화되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지만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적령도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수 없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정치기관들 특히 당과 같은 령도적정치조직이 있게 될것은 필연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정치는 계급사회에서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와 지향을 표현하지만 무계급사회,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정치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표현하며 전사회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는 언제나 정치조직, 정치기관들을 통하여 실시된다. 공산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된 사회이며 그 사회에서의 령도적정치조직은 응당 로동계급의 당만이 될수 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유일한 향도적력량으로 남아있게 된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령도가 요구되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도 이에 맞게 가장 발전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령도가 요구되는것은 우선 그 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은 원래 단결과 협력에 기초하여 사회를 이룬다. 따라서 단결과 협력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들의 생존방식으로 된다. 사람들의 단결과 협력관계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며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는 철저한 집단주의가 온 사회를 관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모든 사회적관계와 사회성원들의 활동은 고도로 조직화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가장 발전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되여야만 공산주의사회전반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면서 그들의 공동활동을 원만히 조직지도해나갈수 있다.

발전된 정치조직에 의하여서만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이룩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견고한 조직적결속과 공동활동을 원만히 조직지휘해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령도가 요구되는것은 또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사람들은 완전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가지고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리게 되기때문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가지고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리는 사회이다.

값높은 삶이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지닌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말한다. 사람들이 값높은 삶을 누리려면 사회정치조직의 성원으로서 정치생활을 하여야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값높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지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높아진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정치생활을 하며 사회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최대의 행복과 보람으로 여기게 된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회공동의 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발전된 정치조직이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린다는것은 결국 그들의 정치사상적 및 문화적 수준이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른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들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가장 발전된 정치조직의 령도가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는 가장 발전된 로동계급의 당만이 될수 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령도가 요구되는것은 또한 공산주의사회에서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1페지)

공산주의이전시기와 공산주의시기에서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은 여러 면에서 서로 구별되며 투쟁의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된다.

공산주의이전시기에 있어서 낡은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낡은 사회관계와 그에 기초한 사상과 문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들이다. 이와는 달리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들이 청산되였기때문에 이러한 낡은것들은 없으며 오직 공산주의사회자체의 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되는 것들이 낡은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공산주의이전시기와 공산주의시기에 있어서 사회생활에서의 낡은것은 근본성격에서 완전히 구별되며 따라서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수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른 한편 공산주의이전시기에는 낡은것을 옹호하는 낡은 세력과 그 잔재세력들이 있게 되나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낡은 경향이 생겨도 낡은 사회세력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이전시기와 공산주의시기에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의 형식과 방법, 투쟁과정이 전면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듯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이 그 성격과 수준, 양상에서 이전시기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에서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정치적령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잘 보장되여야 한다. 따라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도 이에 상응하게 가장 높이 발전되여야 한다.

* *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를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향도자로 되게 된다는것은 당발전, 사회발전의 하나의 움직일수 없는 합법칙성이다. 그런것만큼 당을 이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정치조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15페지)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한다는것은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확고한 향도적력량으로 될수 있는 모든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나가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기 위한 기본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곧 사람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발전시키는 과정이며 공산주의사회란 결국 사회의 모든 분야,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 물질문화생활 전반에서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과정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이며 사회의 심장인 당자체의 주체사상화가 선행되여야만 제대로 추진될수 있으며 또한 당이 주체사상화된 기초우에서만 그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힘있게 발전해나갈수 있게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주체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창조하고 발전풍부화시킨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당을 강화하고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을 꾸려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이로부터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관철해나가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시고 발전시켜오신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건설해나가는데서 가장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즉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당건설 사상과 리론으로 발전할수 있다.

오직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발전시키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만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확고부동한 향도자로 꾸려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사업은 당건설에서의 계승성문제와 떼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는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를 이어 진행되는 사업인것만큼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잘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면서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계승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기본은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계승하는것입니다.

당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계승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바뀔 때 당의 혁명적성격과 투쟁업적을 고수할수 없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결국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없게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27페지)

당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지 않고서는 당건설에서 일관성을 유지할수 없고 좌왕우왕하게 되며 결국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갈수 없게 된다.

당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의 혁명적령도의 모든 사업 특히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이끌고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필수적인것만큼 당의 최고령도자인 수령의 유일적령도는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을 공산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전망성있게 꾸려나가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더욱 철저히 세워져야 하며 그것은 당건설과 사회발전에서 계속 제1차적요구로 나서게 된다.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사업은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사업인것만큼 후계자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이 또한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체계가 튼튼히 서야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데서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계승해나갈수 있으며 당의 혁명전통, 당의 혈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전망성있게 꾸리는 사업을 대를 이어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요구로 나선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이며 위대한 승리이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은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로선으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기초우에서만 전당의 주체사상화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으며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꾸리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위대한 리론은 우선 공산주의사회의 전반적면모에 대한 리해를 일신시켜주었다. 종래에 사람들은 앞으로 실현될 공산주의사회란 정치라는것이 없어지고 당과 수령도 없게 되는 그러한 사회이라는 막연한 표상만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된다는 새로운 주체의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리해와 표상이 훨씬 뚜렷해졌다. 다시말하여 앞으로 실현될 공산주의사회는 그 어떤 무정형적인 사회인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령도가 있고 여러가지 정치사업, 정치활동이 있으며 사회가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로 될것이라는 인식을 깊이 하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발전한다는 독창적리론은 특히 로동계급의 당건설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참으로 이 위대한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전행정에 작용하는 하나의 중요한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힌 그러한 독창적리론인것이다.

지금까지 당건설리론에서는 당건설사업을 주로 당과 혁명 발전의 당면한 요구, 기껏해서 가까운 장래의 요구를 고려하여 진행하면 다되는것으로 인정하여왔다.

그러나 주체의 당건설리론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건설되여야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미래의 요구까지도 전망성있게 고려하면서 건설해나가야 한다는것이 명백히 되였다.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전행정에서 반드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할 합법칙적인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요구를 정확히 결합시키면서 당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있으며 주체의 당건설의 전형적인 길을 힘차게 개척해나가고 있다.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보람찬 삶과 행복의 요람

백 정 원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룡성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참된 삶의 보금자리이다.

사회주의조국이 귀중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왔으며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향토를 살기 좋은 락원으로 알뜰히 꾸려왔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발전시키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강화하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다그치며 보다 휘황찬란할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통일독립된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람찬 삶을 안겨주는 행복의 요람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납니다.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기의 참다운 조국을 가지는것이다.

조국은 인민의 운명을 빛내여주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위대한 품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잇닿아있다. 땅과 떨어진 나무를 생각할수 없듯이 조국과 떨어진 인민의 삶과 행복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은 인민대중의 운명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의 존엄,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준다. 인간의 존엄, 민족의 존엄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떳떳하게 살아나가는데서 표현되는 인민과 민족의 권위이다. 그것은 원한다고 하여 저절로 생기는것도 아니며 돈을 주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인간의 존엄, 민족의 존엄은 자기의 진정한 조국을 가진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것이다. 조선속담에 있는것처럼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보다 못하다. 자기 조국을 빼앗긴 인민은 자기의 강토와 언어, 력사와 문화를 비롯한 민족적인 모든것을 유린당하고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 묶여 외래침략자들에게 천대와 멸시, 압박과 착취만을 강요당하다가 생죽음을 하여도 어데 하소할곳이 없다. 유구한 세월에 걸치는 인류력사와 우리 인민의 쓰라린 과거는 나라를 잃고 민족의 존엄을 짓밟힌 인민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산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이 자기의 조국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을 민족의 생사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싸워

린 투쟁을 벌려온것은 력사가 확증해준 이러한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였기때문이다.

인민들이 목숨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조국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생을 받아왔고 앞으로 후대들도 자자손손 살아갈 강산이며 삶의 대지이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선조들이 땀흘려가꾸어오고 외적의 침습으로부터 지켜온 강토는 조국의 불가분적인 요소로 된다. 조국은 또한 자기의 강토에서 살아왔으며 지금 살고있는 부모형제자매들, 고향사람들과 친지들 나아가서는 자기 인민과 민족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다시말하여 인민과 민족은 국토와 함께 조국의 기본요소를 이룬다.

조국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국가주권이다.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것은 다름아니라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빼앗겼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에게 국가주권을 빼앗긴 조건에서는 인민도 민족도 죽은 목숨과 같다. 국가주권은 인민과 민족의 생사존망을 가늠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국토와 인민, 민족의 운명은 결국 주권문제에 귀결된다.

그러나 조국은 곧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오직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조건에서만 조국의 핵심적부분으로 된다.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국가주권은 인민대중의 증오의 대상으로 될뿐이다. 근로대중을 수탈하고 압박하는 나라가 인민들의 참된 조국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인민대중의 진정한 조국은 그들이 주권을 비롯한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조국이다. 사회주의조국만이 인민대중에게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영예를 빛내일수 있게 한다. 또한 여기에서만 나라의 강토와 자연부원,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물질정신적재부를 비롯한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된다.

우리 인민의 조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이 생사기로에서 모대기고있던 준엄한 시기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으며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 실현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조국땅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교양하시였으며 불길 만리, 눈보라 수십만리의 험난한 혁명의 길을 진두에서 헤치시여 마침내 우리 인민에게 광복된 조국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무기로 하여 두 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거창한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조국,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거연히 솟아나고 우리 인민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투쟁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은 모두가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련결되여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조국의 품은 곧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의 품은 곧 조국의 품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

여주신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에게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어머니이다. 우리 인민의 참된 삶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였으며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행복이 계속 꽃펴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을 지켜주고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위대한 품이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행복은 민족적존엄이 보장되는곳에서 꽃펴난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민족적존엄을 지켜나가는 인민이라야 인간다운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높은 민족적존엄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사회주의조국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 고상한 도덕을 비롯한 민족적인 아름다운 모든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민족의 슬기와 영예를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한없이 높다.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한 재부를 비롯한 이 땅우의 모든것을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튼튼히 지켜주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보람찬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은 또한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참된 삶의 터전이다.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은 인민들의 보람찬 삶과 행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람들은 물질문화생활분야에서 온갖 근심걱정이 없어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며 인생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은 오늘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이 땅우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까지 없앴으며 전체 인민에게 누구나 다 일하고 배우며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으며 모두가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도록 보살펴주고있다. 지난날 인간생존의 초보적인 조건마저 모조리 빼앗기고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다못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헤매기까지 하던 우리 인민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살 걱정을 모르면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 당이 령도하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겼기때문이다. 사회주의조국이 우리 인민의 보람찬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뿐아니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해주는 위대한 품이다.

인민대중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도 귀중하지만 미래가 더욱 귀중하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뿐아니라 민족의 밝은 미래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미래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바로 인민대중의 이러한 고상한 풍모를 표현하는것이다. 오늘의 행복뿐아니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담보될 때 인민들은 삶의 참다운 보람을 느끼게 된다.

우리 인민의 밝은 미래는 민족의 피줄을 이어주는 사회주의조국땅에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과 후대들을 영원히 한품에 안

아주며 민족의 영예와 행복, 희망과 포부를 꽃피워준다.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현실과 여기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새로운 인민적시책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휘황찬란하며 후대들이 더욱 보람찬 삶을 누릴것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이며 후대들까지 영원히 보살펴주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회주의조국이 귀중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은 조국을 지키며 그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조선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혁명전쟁이였다. 해방을 맞이한지 5년도 채 안되는 청소한 우리 조국을 반대하여 미제는 15개 추종국가를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현대적인 전투기술기재들을 총동원하였으며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하여 온갖 야수적인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나마 조국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는 과정을 통하여 조국이 더없이 귀중함을 심장으로 느낀 우리 인민은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면서 조국의 촌토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조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전후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만 남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연히 떨쳐나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한결같이 참가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변혁과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킨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모두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혁명적재부들이다.

우리 원산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십차례에 걸쳐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남기신 력사의 땅이며 사회주의조국을 부강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수많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도시이다. 이것으로 하여 원산시 인민들의 향토애는 불보다 뜨거우며 사회주의조국에 바치는 충성의 열정도 대단히 높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국의 품속에서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원산시의 인민들은 준엄한 전쟁시기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향토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사랑하는 고향을 영웅도시로 청사에 아로새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속에는 생명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원쑤들을 쓸어눕힌 조군실영웅과 같이 나라의 동쪽관문인 원산에서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용약 떨쳐나선 조국의 충직한 아들딸들도 굳건히 서있다.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조국을 부강발전시키기 위한 원산시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세월과 더불어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원산을 현대적인 항구문화도시로 꾸리기 위한 거창한 건설사업에 시안의 전체 인민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선 결과 오늘 도시는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였다. 시안의 모든 거리들이 알뜰하고 규모있게 건설된데 이어 최근에는 북망산동을 비롯한 곳곳에 현대적인 고층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서 도시는 볼수록 아름답게 변모되고있으며 송도원에는 동방식공원과 해수욕장을 비롯한 문화휴식시설들이

그른하게 갖추어져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도시안의 거리와 문화시설뿐아니라 공장, 기업소들과 농천리를 비롯한 모든 농촌마을들도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며져 원산은 말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문화도시로 전변되였다.

하기에 오늘 항로를 따라 원산에 들어서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과 세계의 수많은 나라 손님들은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첫 모습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하고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원산시 주민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며 조국을 부강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로동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조국을 부강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하며 여기에서 새로운 위훈의 창조자로 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로력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속에서 조국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그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은 조국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실천에서 높이 발양되게 된다. 조국에 대한 교양은 특히 나라잃었던 설음을 체험하지 못한 새세대들속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조국이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해방후에 나서자란 새세대들이 약동하는 조국을 떠메고나가는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바로 이 새세대들이 지난날 망국의 비운속에서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않고 오늘의 행복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마련되였는가를 가슴깊이 알도록 하려면 그들속에서 조국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국에 대한 교양에서 기본은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며 조국에 이바지한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어머니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할수 없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빛내여나가려면 우리 조국, 조선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조선사람들은 조선에서 살며 혁명하는것만큼 조선을 잘 알아야 이 땅우에 끝없이 번영하는 조국을 더 잘 건설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유구한 력사가 있고 귀중한 문화유산이 많다. 우리 조국은 경치도 아름답고 자원도 풍부하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는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으며 조국땅은 이르는곳마다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

며서 보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지상락원으로 전변되고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 긍지높은 조국에 대하여서와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잘 알도록 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그것을 빛내여나가려는 헌신성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은 자기의것에 대하여 잘 알뿐아니라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우려는 자각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 이런 자각이 높은 사람이라야 덮어놓고 자기의것이 남만 못하다고 여기지 않게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기의것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울줄 알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모두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성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조국에 대한 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조국에 대한 교양은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소개선전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 당이 찾아내고 내세워준 숨은 공로자들은 그 누가 보건말건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조국땅우에 꽃피우기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오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이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실천적모범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국을 사랑하고 빛내이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면서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들은 숨은 공로자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평가해주며 그들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면서 조국의 부강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숨은 공로자, 참다운 애국자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교양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은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들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최근년간 우리 당의 지도밑에 수많이 창작된 조국에 대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려는 각오를 더욱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고향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된다. 향토를 잘 꾸리고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애국자이며 이런 애국자의 대렬이 늘어날수록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발전하게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공장과 마을, 일터를 사랑하고 잘 꾸리며 나라살림살이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애국주의정신이 매일매일의 사업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의 높은 자각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을 계속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조국을 부강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지닌 참된 애국자로 키우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고상한 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다.

새것을 지향하는것은 공산주의 혁명가의 중요풍모

진 철 종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커다란 포부와 승리의 신심에 넘쳐 전진의 발걸음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보람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적성과들이 창조되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더욱더 새로와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변혁들과 창조적위훈들은 언제나 새것을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풍모와 기풍을 그대로 과시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새것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의 높은 열정과 기상을 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당이 펼쳐준 사회주의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낡은것을 변혁하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낡은것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요구에 맞게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은 승리하며 전진한다.

새것이란 사물현상의 발전과정에 합법칙적으로 발생하고 미래를 대표하는것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 유익한것이다. 새것은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를 대표하며 앞으로 전진할수 있는 힘을 가진다. 새것이 발생발전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낡은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며 그것은 혁명투쟁의 내용을 이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은 낡고 침체한것을 때려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속에서 전진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혁명은 곧 온갖 낡은것을 때려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다. 낡고 뒤떨어진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없이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

새것은 사물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오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다. 이로부터 새것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미약한것이라 하여도 낡은것과의 투쟁에서 결국은 승리하며 지배적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것을 지향하며 그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니는 중요한 풍모이며 기풍이다.

새것을 지향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풍모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세력, 낡은 요소들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새것을 열렬히 지향하며 그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투쟁과정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낡은 세력, 낡은 요소들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하여 투쟁하는데서 삶의 참다운 보람과 영예를 느끼고있다. 새것의 지향과 그 승리를 위한 투쟁을 떠난 혁명이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새것을 지향하지 않는 혁명가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새것을 지향하는것이 공산주의혁명가의 풍모로 되는것은 또한 그들이 미래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싸워나가는것을 생활의 신념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혁명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혁명가의 한생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있다.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 실현을 확신하고 투쟁하는것은 혁명가의 고귀한 풍모이며 생활의 신념이다. 혁명가들의 이러한 풍모는 사물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새것에 대한 지향과 그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에 기초하고있다.

미래를 위한 투쟁은 곧 새것을 위한 투쟁이다. 미래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에서 새것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표현한다. 새것을 지향하고 그 승리를 굳게 확신하고있음으로 하여 혁명가들은 새것의 표현인 미래를 사랑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새것을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적인민이다.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열렬히 지향하며 남보다 빨리 전진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기질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의 압제밑에서 오래동안 어렵게 살아왔으며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락후한 상태에 있었다. 거기에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3년간의 엄혹한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재더미로 화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부강한 자주독립국가에서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것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대담하게 혁신하고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 거창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오직 새것을 지향하여 전진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전통적기풍으로 되였다.

새것을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풍모는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의 끝없는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혁명의 지도적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새것에 대한 우리 인민의 모든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자체가 새것을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창조하기 위한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있으며 자기들의 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드팀없는 신조로 삼고있다. 그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심장으로 체득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자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변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지향하고 그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새것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풍모는 또한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전진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혁신하고 전진하는 과정은 곧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지향하며 그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전진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인 투쟁기풍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투쟁기풍을 지닐 때만이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전진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었다.

수십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영웅적위훈을 세운 남포갑문 건설자들과 험산준령을 뚫고 억세게 전진하는 북부철길건설자들의 로력적성과,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1만톤프레스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내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형산소분리기를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생산한것과 같은 기적적인 성과들은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새것을 지향하여 대담하게 혁신하고 전진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기개를 그대로 과시하고있다.

비약과 혁신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것을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조국땅우에 이룩된 세기적인 위대한 전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결과에 마련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데 뒤이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진군을 빛나게 이끄심으로써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조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진두에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불러일으키시여 천리마진군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시였다. 온 나라에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이 간고하고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은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 새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영웅적기개를 온 누리에 높이 떨치였다.

새것을 지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되는 계속혁명의 내용이며 이 혁명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게 된다.

3대혁명의 불길속에서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의 위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비롯한 대중적 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들이 성과적으로 청산되고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인것, 공산주의적인것이 끊임없이 확대발전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사회의 면모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날을 따라 더욱더 새로와지고있다.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심화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지향은 끝이 없으며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자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부단히 앞으로 전진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완수될 때까지 혁명은 계속된다. 혁명은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요구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을 더 전진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닦는데 지나지 않는다.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지향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새것을 지향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새것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업에서나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것은 그 성과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무엇이 새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식별하여야 혁명실천에서 새것을 옳게 내세울수 있다.

새것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인식을 가질 때 사람들은 실천활동에서 낡은것에 매달리지 않고 새것을 조장발전시키며 그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새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것의 승리를 위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

처음 생겨난것이라고 하여 다 새것으로 되는것이 아니며 또 누가 새것이라고 하여 새것으로 되는것도 아니다. 새것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사회발전과 인민의 지향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따라서 새것으로 되자면 반드시 사회발전과 인민의 지향에 맞는것이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것은 당의 로선과 방침, 우리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것이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우리 사회의 심장이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우리 사회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위력한 무기로,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기치로 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언제나 새것을 똑똑히 식별하고 그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또한 새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조장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새것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는것은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의 승리를 보장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낡은것이 사멸하고 새것이 승리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새것은 처음부터 낡은것에 비하여 우세한것이 아니며 그 승리도 스스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것은 처음에 작고 미약한것으로 하여 낡은것과의 투쟁에서 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다. 때문에 새것을 제때에 찾아내고 귀중히 여기며 특히 그것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새것의 승리를 촉진시킬수 있다. 사람들이 새것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조장발전시켜야 새것은 낡은것을 짓부시고 승리할수 있는것이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마다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발기와 안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발기와 안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지지해주고 실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군들은 새것이 실현되였을 때에는 정당하게 평가해주고 내세워주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새것의 발전을 옳게 추동하고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당원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것의 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새것은 낡은 사회의 유물과 온갖 뒤떨어진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한다. 그러므로 새것의 승리를 촉진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낡고 뒤떨어진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기풍을 가지며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것을 반대하고 새것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전위적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새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자기의것을 적극 발전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만이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키우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남의것을 받아들이는것을 배제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더 빨리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남의것을 옳게 받아들이고 리용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문제는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남의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있다.

남의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아무것이나 망탕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한다면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난관과 혼란을 조성하는 결과를 빚어낼수 있다. 남의것을 받아들이는데서 반드시 주체적립장과 계급적원칙을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혁명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남의것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우리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줄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새것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새것을 지향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하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

리 봉 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중요산업의 국유화가 실시된 때로부터 40돐이 된다.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실시된 중요산업국유화는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우리 인민의 사회경제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혁명적사변이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가 성과적으로 실시된 결과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착취와 예속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되고 자주독립국가의 경제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보다 밝은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중요산업국유화에 의하여 조성된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과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화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웠으며 오늘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제기되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 *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옳게 실시하는 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선차적인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혁명적인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은 다음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중요산업의 국유화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 경제의 기본명맥을 장악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물질적토대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서는 나라들에서 더욱더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업국유화는 식민지적예속의 경제적지반을 허물고 자주적민족경제건설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개혁입니다. 산업을 국유화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도 이룩할수 없으며 부강한 민주조선도 건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57∼358페지)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에서 실시하게 되는 중요산업국유화는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몰수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소유로 만드는 사회경제적개혁이다.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는 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산업의 대부분이 외래제국주의독점체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그것은 식민지적통치와 략탈의 주되는 경제적지반으로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에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문제는 외래식민지통치자들의 착취와 압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정치적권력뿐아니라 경제의 기본명맥을 완전히 틀어쥐고 민족경제

의 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근 반세기동안이나 중세기적방법으로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 친일주구들이 가지고있던 산업, 운수, 체신, 은행을 국유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야 일제와 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그들의 정치적영향력까지도 철저히 분쇄할수 있었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의 경제적기초를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에서 중요산업국유화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서 실시한 민주개혁의 경험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천명한 산업국유화사상을 해방후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여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를 위한 몰수대상을 일제와 예속자본가, 친일파들의 소유로 규정하고 그것을 단꺼번에 무상으로 몰수하도록 하시였으며 몰수범위를 공업시설은 물론 운수, 체신, 은행, 대외무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1,034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 체신, 은행 등이 몰수되여 제국주의적 착취와 략탈의 근원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게 되였으며 자본주의적착취관계도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되였다.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소유를 일거에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그 범위를 공업뿐아니라 경제의 전반적부문에로 넓힌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의 요구를 옳게 분석한데 기초한 혁명적인 정책이였으며 경제생활에서 나타날수 있는 혼란과 침체를 미리 막고 생산력의 급속한 복구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실시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변혁이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특히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기본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여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기초를 마련하였다.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기본생산수단을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이다. 공장, 광산, 발전소를 비롯한 중요산업은 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며 경제발전에서 주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본생산수단이 누구의 소유로 되여있는가에 따라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가 발전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기업소들을 국가의 소유, 전체 인민의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기본생산수단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최대한으로 개발리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민족경제를 확고히 자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중요산업국유화가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가지는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또한 로동계급이 산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경제건설에서 주되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로동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이다.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계급투쟁에서나 새 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투쟁에서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야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특히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로동계급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실시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제국주의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을 력사상 처음으로 중요 공장, 기업소들의 주인으로, 산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열성을 무한히 높여 공업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으며 민주조국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주동적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을 이루는 공업분야에서 로동계급의 창조적역할이 높아지고 토지개혁의 결과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대중의 열의가 옳게 결합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정은 더욱 다그쳐지게 되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의 새 력사를 개척하는데서도 커다란 사변으로 되였다.

경제의 계획적발전은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계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제는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을 면할수 없으며 그러한 경제는 자주적으로 발전할수 없다.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만이 여러 부문들과 생산요소들, 재생산고리들사이의 호상련계를 합목적적으로 보장하여 자주적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요구에 맞게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은 중요산업의 국유화가 실시됨으로써 빛나게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것이 어김없이 실현될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할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과 분배, 류통과 소비를 포함한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의 개인경리들이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의 영향을 받아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실시된 중요산업국유화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면서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던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주되는 성과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의 근원을 청산하고 민족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은 것입니다.》(《유고슬라비아신문 〈오슬로보쩨니에〉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3페지)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그 구조에서 자주적이고 다방면적이며 기술적토대에서 현대적인 위력한 경제로 되였다.

일제통치시기 주로 원료채취에 국한되여있던 우리 공업은 오늘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모든 공업부문들 그리고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완전히 갖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

인 경제로 발전하였다.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정밀기계와 대형채취설비, 중량자동차, 대형뜨락또르, 전기기관차, 대형선박, 1만톤프레스, 대형산소분리기 같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있으며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일식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20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남포갑문 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할수 있었으며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위력한 공업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고 화학화, 종합적기계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오늘은 농업을 현대화, 공업화하여 농촌테제를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됨에 따라 우리 인민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보장받고있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중요산업국유화가 실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40년동안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에서 이룩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때에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개건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도록 하시였으며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는 승리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고 전후경제발전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시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로선, 3대기술혁명로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 등 경제의 자주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독창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에 의하여 현명하게 령도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매 시기 제시하시는 사회주의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였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 체계와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당사업이 명실공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산 당사업으로 되게 하였다. 특히 우리 당이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를 비롯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모든 일을 통이 크게, 패기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끎으로써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를 자랑하는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경제적밑천들이 마련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제시

한 중요대상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실태와 그 발전전망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태천발전소 건설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간석지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물은 오늘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내세우고있는 매우 중요한 건설대상이며 하루빨리 완성해야 할 투쟁목표들이다.

모든 일군들은 현시기 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대상들에 건설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집중적으로 대주며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중요대상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에 있다. 기술혁명을 적극 벌려야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없을뿐아니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하는 세계경제발전추세를 따라갈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여기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족적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과학기술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이 기술혁신운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기술발전계획화와 보장사업을 비롯한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과 정책이며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으며 민족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이룩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과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받아들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높은 조직적수완과 능숙한 지휘로 대중을 적극 이끌어나가며 그들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주 용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지난 기간 금속공업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시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금속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는 새 전망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금속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금속공업은 여러가지 기술수단들과 생활수단들을 만드는데 널리 쓰이는 금속자재를 생산보장하는 기간공업부문이다. 금속공업을 발전시켜 각종 금속자재를 많이 생산하여야 사람들의 로동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수단들과 생활수단을 만들어 그들에게 자주적인 로동생활과 풍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높아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날로 높아가는 금속자재에 대한 수요는 금속공업의 빠른 발전에 의해서만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서 금속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금속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시기부터 현대적인 금속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정확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심으로써 자체의 튼튼한 생산기지에 의거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금속공업이 창설되게 되였다.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금속공업의 창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금속공업건설방침의 자랑찬 승리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야금공업발전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자동화의 본보기로 꾸리고 그에 기초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의 중요생산공정들에서 산업텔레비죤화와 원격조종화를 실현함으로써 금속공업과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일대 기술적진보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전면적자동화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

재력은 매우 크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금속생산을 더욱 빨리 늘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나라의 자립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것이 금속자재라는것과 관련되여 있다.

금속공업은 자립경제의 기둥이며 철강재생산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고리이다.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공업의 자립성과 나라의 전반적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긇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며 공작기계공업, 자동차공업, 선박공업을 비롯한 중공업과 경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해서는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더우기 당이 제시한 기술혁명방침을 관철하여 과학과 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구체적현실은 금속공업의 빠른 장성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그 발전 수준과 속도에서 전례없이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으며 과학과 기술, 생산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과학과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 발전속도가 빠를수록 현대기술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여러가지 금속에 대한 질량적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여러가지 질좋은 금속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내야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쳐 전기화,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금속생산을 빨리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제철소와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야금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는 공사를 빨리 끝내고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현대적대야금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615페지)

금속생산기지는 금속생산과정을 직접 실현하는 기업소들의 총체이며 그것을 튼튼히 꾸린다는것은 야금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확대강화하고 완비하는것을 말한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무엇보다 이미 마련된 금속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금속생산을 빨리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이미 마련된 금속생산토대를 완비하여 자기 능력을 다 내도록 하는것은 적은 투자로 짧은 기간에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이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금속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온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금속생산토대는 커다란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이미 마련된 금속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금속공장들에서 생산공정들사이의 능력상 균형을 더 잘 맞추고 생산부문과 단위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며 생산보장조건들을 개선하는것이다.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금속공업의 부문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한다면 압연강재에 대한 재질별, 규격별 수요와 2차금속가공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금속생산기지를 강화하는 사업을 긇임없이 벌려나가야만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들을 추켜세워 야금공업의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할수 있으며 금속제품에 대한 인민경제

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또한 금속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것은 금속생산발전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품종과 질은 생산물의 규모와 함께 그 유용성을 반영하고있으며 품종확대와 질개선은 본질상 생산물의 량적증대와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여야만 생산된 금속을 분한있게 쓸수 있으며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는 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금속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금속제품의 품종확대와 질제고는 생산의 기술수준과 생산공정의 완비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제철소, 제강소들과 제련소들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고 앞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생산공정을 완비하여야만 질이 높은 여러가지 금속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경제발전과 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치게 할수 있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여 금속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이미 있는 금속공장들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는것은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다른 하나의 측면이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야금기지를 질적으로 새로운 높이에서 확대강화함으로써 금속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품종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빨리 늘여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지금 있는 제철소, 제강소들을 개건확장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철소, 제강소들에서 낡은 기술을 개조하고 자동화와 반자동화, 산업텔레비죤화와 원격조종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광석의 예비처리로부터 제철, 제강, 압연 그리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에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일것이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550페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이미 있던 고정재산을 갱신하고 새 기술에 기초하여 현대화하는것은 생산토대를 강화해나가는 합법칙적과정이다. 지금 있는 금속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현대화하는 방법으로 금속생산기지를 강화한다면 적은 자금으로 금속공업의 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이며 금속생산을 급임없이 다그칠수 있다.

금속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현대화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신설하는데 비하여 매우 효과적이다.

지금 있는 제철소, 제강소들을 개건확장하고 현대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미 시작한 개건확장공사를 빨리 끝내며 새로운 건설대상과 개건대상을 바로 규정하고 선후차를 옳게 가려가며 한 대상씩 제때에 끝내는것이다. 그래야 개건확장과 현대화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다.

제철소, 제강소들을 개건확장하고 현대화하는데서는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적극 실현하며 제철, 제강, 압연과 같은 기본생산공정부터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를 세우고 개별적작업공정들에 공업로보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금속공업의 부문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하여 여러가지 금속가공제품들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베아링강, 규소강판, 불수강을 비롯한 합금강 및 특수강과 석도

금판, 아연도금판, 쇠바줄, 고압관을 비롯한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여러가지 품종의 압연강재를 재질, 규격별로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강철생산이 늘어나고 강종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합금철과 파철이다. 금속공업부문에서 합금철생산기지와 파철가공기지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 합금원소를 가지고 여러가지 합금철을 더 많이 생산하며 질좋은 파철을 넉넉히 대주어야 강철생산을 늘일수 있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금속기지를 일층 강화하는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공업과 기본건설, 인민생활분야에서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경금속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알루미니움생산량은 세계적으로 이미 1960년대에 동생산량을 앞섰으며 금속들가운데서 철 다음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오늘 경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현대공업과 세계공업 발전추세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이다.

우리는 지금 있는 경금속생산기지를 강화하는 한편 경금속원료를 적극 개발하고 유망한 지구들에 새로운 경금속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려야 경금속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다. 그리고 경금속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 부원료생산기지를 예견성있게 건설하며 경금속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경금속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자체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금속공업을 발전시켜야 늘어나는 금속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금속생산기지는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우리의 현실적조건에 맞는 금속생산기지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주체화된 금속생산기지만이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다.

금속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체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철생산기지와 경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야금법을 적극 발전시켜 완성하며 하석의 종합적처리에 기초한 알루미니움공업을 창설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이미 있는 철생산기지들에서는 국내탄사용비률을 높이고 합금철생산기지를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개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있는 제철소, 제강소들과 제련소들에서 일부 생산공정들을 보충완비하여 기본생산단계들사이의 균형을 더 잘 맞추고 흑색금속생산과 유색금속생산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야금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강철생산구조를 개선하여 강종을 확대하고 합금강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유색야금공업부문에서는 유색금속과 희유금속의 종류를 더욱 늘이고 2차, 3차 가공제품을 많이 생산할수 있게 금속생산기지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나가는

사업은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확대할뿐아니라 그것을 보다 현대적기술로, 질적으로 강화해나가는 사업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금속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금속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려나갈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하며 금속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인 금속생산방법을 완성하고 우리 나라 원료, 연료에 의거하여 합금철, 합금강, 내화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금속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빨리 풀며 야금공정에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금속 톤당 연료소비량과 에네르기소비를 낮추는것과 같은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며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이다.

금속생산기지를 개건확장하기 위한 사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며 거기에는 많은 기계설비들과 로력, 자재와 자금이 든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설비와 자재, 자금, 로력의 보장과 리용 대책을 바로세우고 생산 조직과 지휘에서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금속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내밀수 있다. 그러므로 금속공업부문 일군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며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금속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은 방대한 경제건설사업인것만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힘있는 지원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기계, 화학, 전력, 채취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금속생산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며 그것을 빨리 운반해주는것이 중요하다.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금속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금속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기술혁명은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의 중요방도

김 철 제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요구의 하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농촌건설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 문화 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놓은 농촌기술혁명의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26페지)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농촌기술혁명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으며 농업생산의 전과정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농촌기술혁명은 무엇보다도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생산력발전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점차 없앨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것을 기본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력발전수준과 물질기술적면에서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공업에 비한 농업의 물질기술적락후성이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규정하는 중요조건으로, 그 직접적표현으로 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공업에 비한 농업의 물질기술적락후성은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공업에 비한 농업의 물질기술적락후성은 농촌경리의 기술장비수준과 농업생산기술에서의 락후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은 높고 안전한 수확을 담보해주는 관개수리체계와 능률적인 전기동력체계를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기계수단과 화학수단에 의거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농민들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고 그 과학기술적기초를 강화함으로써 수공업적로동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농촌기술혁명이 공업에 비한 농업의 물질기술적락후성, 공업과 농업의 생산력발전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농촌기술혁명은 또한 로동자와 농민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그들에게 사회적평등을 보장하여줄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농촌문제는 로동자와 농민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보장하여줄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로동자와 농민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는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로동강도와 로동시간, 수입과 생활수준 같은것들은 경제생활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차이를 보여주는 주되는 내용으로 된다. 경제생활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사회적평등을 실현하자면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농촌기술혁명은 농업의 기술적락후성을 극복하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농업에서의 로동강도를 낮추고 농민들도 로동계급과 같은 시간의 로동을 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을 공업적방법으로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생산물을 창조하여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로동계급의 생활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한다.

농촌기술혁명은 공업과 농업의 소유형태에서의 차이를 없애는데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소유관계에서 공업과 농업의 차이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남게 되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따라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는 공업과는 달리 농업에서 협동적소유가 지배하게 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로동계급보다 낮은것과 함께 농업의 생산력이 공업에 비해 뒤떨어져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농촌기술혁명은 생산력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길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조성한다. 농업이 다 공업화, 현대화되여 농업로동을 전반적으로 전기와 기계, 화학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할수 있을 정도로 농업생산력이 발전하면 전인민적소유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농업생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업협동경리의 생산에서 사회화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길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확고히 갖추어지게 된다.

이 모든것은 농촌기술혁명이야말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농촌기술혁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사상, 문화 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기술혁명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온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확대강화되고 농업생산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되였으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비롯한 로동계급과 농민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농촌기술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며 농촌테제가 제시한 기술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나갈 때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 농촌경리부문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며 농업생산을 빨리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일정에 오르고있는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접근과정을 다그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무겁고 방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사상, 문화 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틀어쥐고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벌려나가는 여기에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가 있으며 현시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며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치고 그들의 열의를 높이는 중요한 고리가 있다.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힌 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을 떠나서는 농촌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없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없다.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확한 길은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농촌테제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농촌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계속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여 모든 농사일을 기계의 힘으로, 화학적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7페지)

오늘 농촌기술혁명에서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는것이다. 농촌기술혁명에서 이미 자랑찬 성과가 이룩된 오늘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야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더 빨리 늘일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앞당겨수행할수 있다.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에 대한 투자를 견정적으로 늘이는 것이다.

농촌기술혁명은 농업의 자연지리적, 기후적 특성과 생산기술적특성으로 하여 인민경제 다른 부문의 기술혁명보다 비교적 어렵고 복잡하다. 농촌경리에서 대부분의 기계수단들은 어느 한 영농공정에만 쓰이며 그 리용률이 공업에 비하여 높지 못하다. 그러므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만 실현하자고 하여도 많은 농기계들이 요구되며 그만큼 투자를 늘여야 한다. 더우기 오늘 농업생산의 규모와 기술수단의 적용범위가 커진 조건에서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지 않고서는 날로 높아가는 현대적인 농기계와 효능높은 화학비료, 선진영농기술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투자를 늘여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마련할수 있으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빨리 다그칠수 있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데서 선차적인것은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다. 뜨락또르는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수단이며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농업의 기계화수준을 평가하는 기본척도의 하나로 된다.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많이 대주면 밭갈이와 씨뿌리기, 김매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에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우리 당이 내세운대로 부침땅 100정보당 그 대수가 적어도 10~12대에 이르게 하며 모뜨는 기계와 모내는 기계, 벼베는 기계, 낟알터는 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능률높은 중소농기계와 련결농기계들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기계의 수리능력을 높여 모든 농기계들이 영농공정에 따라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항상 만가동하게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현대적인 농기계와 함께 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화학수단들도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 중요하다. 개간력사가 오랜 우리 나라의 부침땅은 비료를 많이 치지 않으면 생산성을 높일수 없다. 또한 농약과 같은 화학수단도 충분히 생산공급하지 않으면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수 없으며 농업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줄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화학수단들을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농촌기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 주인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농촌기술혁명에서의 성과여부는 그 주인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 오늘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정책학습과 함께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며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농업생산과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기술혁명시대의 근로자답게 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현대적인 농기계와 기술수단을 능숙하게 다루어 농업생산에서 분공된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더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지어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잘 꾸리고 운영하며 기계화가정창조운동을 널리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농민들에게 농업과학지식과 선진영농기술을 빨리 습득시킬수 있다. 모든 협동농장들과 작업반들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 농업과학기술 도서와 잡지를 비롯한 영농기술자료들, 과학통보자료와 직관자료들을 많이 갖추어놓고 그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계화가정창조운동은 농업근로자들을 현대적기술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는데서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이 운동을 심화시켜 농업근로자들을 뜨락또르운전기술뿐아니라 선진영농기술을 튼튼히 소유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지을줄 아는 근로자로 키우며 가정으로부터 분조로, 분조로부터 작업반, 농장으로 그 범위를 확

대하여야 한다.

현시기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농촌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특히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직접 맡아 수행하고있는것만큼 그들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수 없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질을 높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공정과 영농방법, 농업경영활동을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한다.

농업과학연구사업은 동식물을 대상하는 어려운 과정이며 우리 나라 농업생산과 자연기후적특성에 맞는 기계기술수단과 영농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농업에서는 1년에 여러번 시험을 할수 없으므로 연구기간이 비교적 길고 연구성과를 빨리 도입하는데 불리한 특성도 가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농업지도기관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농업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필요한 실험설비들과 기구들을 비롯한 연구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며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농업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 생물체를 다루는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계와 여러가지 기술수단들을 자체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농업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기술수단은 주로 공업에서 생산하며 따라서 농촌기술혁명은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힘있는 물질기술적지원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농촌기술혁명수행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과 련관된 단위들에서는 농촌에 보내주기로 한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중소농기구들과 물자들을 더 많이 농촌에 보내주고 예비부속품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기계들을 수리해주는 사업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현시기 농촌기술혁명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농촌경리발전의 기본고리를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찾고 거기에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촌경리부문과 농촌경리와 련관된 부문의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모두를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굽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우리 당에 의한 수령형상창조문제의 빛나는 해결

윤 기 덕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되는 위업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위업에 복무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마땅히 수령의 형상창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예술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깊이있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오랜 력사적로정을 거쳐 발전하여왔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령형상창조문제는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한 혁명적인 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이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다하는데서 수령형상작품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리고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에 기초하여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숭고한 사업을 주체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주인이다. 문학예술이 자기의 혁명적사명과 본성에 맞게 수령형상창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려면 그 직접적담당자인 작가, 예술인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주체적문예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한편 높은 창작기량을 소유한 유능한 작가, 예술인으로 키우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독창적인 수령형상창조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다. 수령의 혁명력사에서 실재한 력사적사건과 생활에 철저히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리론, 수령을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속에서 형상할데 대한 리론,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리론을 비롯한 수령형상창조리론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할

수 있게 하는 리론실천적무기로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4.15문학창작단》, 《백두산창작단》, 《만수대창작사》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기관들을 창설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수령형상창조에서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현명한 령도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앞에 어려운 과제로 나섰던 수령형상창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수령형상창조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성스러운 사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문학의 총서 《불멸의 력사》에 포괄되는 수많은 장편소설들과 다부작혁명영화 《조선의 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그리고 《만수대기념비》, 《삼지연대기념비》, 《왕재산대기념비》, 《주체사상탑》, 《개선문》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문학, 영화,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사진 작품들이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하는데서 이룩된 이 빛나는 성과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 공헌하신 영원불멸할 업적의 하나이며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는 실재한 력사적사실과 사적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령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으로서 감명깊게 형상하여 수령형상창조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데 있다.

수령의 형상창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맞게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수령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정치적령도자로서의 풍모와 인간으로서의 풍모를 다같이 겸비한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령도자로서의 수령의 풍모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치적수령을 의미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령도적역할을 떠나서는 결코 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창조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수령으로서의 령도풍모를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사상리론의 영재, 걸출한 령도자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잘 보여줄수 있다. 여기에서 수령형상이 그 어떤 개별적인 혁명가나 영웅의 형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수령을 옳게 그리자면 형상의 대를 바로세워야 한다. 수령형상창조에서 형상의 대를 바로세우지 못하여 령도자로서의 풍모를 잘 그리지 못하면 수령형상이 아무리 인간학적으로 잘 그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령형상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수령형상창조에서 대를 바로세움으로써 수령형상을 새로운 경지에서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정치적령도자로서의 형상의 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선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를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력사적사건을 기본으로 하여 꾸리고있다.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력사적사건을 기본줄거리로 하는것은 수령형상

창조에서 나서는 본질적요구의 하나이다.

력사적사건이란 혁명발전의 한 시기를 반영하고 특징짓는 전형적인 사회적사건이며 혁명투쟁을 전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사변이다. 력사적사건은 혁명투쟁을 령도하는 수령의 혁명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력사적사건을 작품의 기본줄거리로 하여야 수령을 형상체계의 중심에서 그리며 인물관계를 사실적이면서도 전형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또한 수령의 령도밑에 발전하는 력사적사건을 기본줄거리로 하여야 작품에 묘사되는 생활환경을 당시 혁명발전의 기본문제해결을 위한 전형적인 환경으로 꾸릴수 있을뿐아니라 작품의 줄거리자체도 혁명의 중심문제를 타고 발전해나가게 할수 있다. 또한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력사적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려야 수령의 혁명력사에 철저히 기초한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공산주의운동은 수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완수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공산주의운동을 정당하게 반영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수령이 조직령도하는 혁명투쟁을 그리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수령이 령도하는 력사적사건을 이야기줄거리의 중심에 놓는것이 수령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에서는 이러한 형상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운데의 모든 장편소설들이나 다부작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매 작품들은 이에 대하여 잘 말하여주고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사건과 사적들을 기본줄거리로 함으로써 혁명발전의 중요한 시기들을 반영하고 특징지울수 있게 하였으며 조선혁명전반을 계속 앙양에로 이끄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전면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은 또한 형상체계의 전반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수령형상의 대를 세우고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설정하는것은 수령의 령도풍모를 진실하게 그리기 위한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형상체계의 전반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설정한다는것은 수령을 작품의 중심적위치에서 형상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로 일관되여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설정은 우리 시대의 본질과 우리 혁명의 추동력을 예술적으로 천명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가장 정치적의의가 있고 진실하게 밝힐수 있는 생활적기초를 주고있다.

이처럼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은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고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수령님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의 대를 바로세우고있으며 따라서 위대한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력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령도풍모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수령형상은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풍모와 함께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풍모를 밀접히 결합하여 그릴 때 비로소 완성된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령도자일뿐아니라 위대한 인간이기때문이다.

수령의 인간적풍모를 잘 그려야 수령형상작품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수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흠모하며 일편단심 대를 이어 수령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을 다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깊이있게 심어줄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풍모를 령도적

풍모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림으로써 수령형상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제2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혁이 활동하고있는 새마을 오두막을 찾으시는 장면이 감동적으로 펼쳐지고있다. 만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이 장면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한몸의 위험과 피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과정에 펼쳐지는 숭고한 인간적풍모이다. 우리 문학예술에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풍모는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풍모와 밀접히 결합되여 형상되고있으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의 정화로 그려지고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수령형상작품들에서는 또한 인간성을 그려도 그를 세속적이며 세태적인것으로 그린것이 아니라 철저히 위대한 인간으로 그리였다.

로동계급의 참다운 수령은 인간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배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혁명적의리, 대해같은 포용력과 넓은 도량, 고결한 인민적성품으로 특징지어지는 인간적풍모를 지니고있다. 수령의 이러한 인간적풍모는 근로인민대중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적풍모를 계급과 민족의 리익의 견지에서 승화시켜 한몸에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의 풍모이다. 수령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풍모를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가일반과 구별되며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공산주의적 풍모를 형상한 혁명적인 작품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1932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반석어머님과 마지막리별을 하시는 소사하집장면의 묘사나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소금사건장면의 묘사 등은 모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위대한 생활에 대한 재현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형상이다.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생활을 탐구하는것이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에서 위대한 인간을 그리자면 위대한 생활을 탐구하고 그것을 형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사실 작품에 아무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워도 그것을 생활로써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술적감화력을 가질수 없다. 그리고 감동적인 력사적사실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술작품으로서는 큰 의의가 없게 된다. 감동적인 사실자체도 거기에서 생활을 찾고 인간학적으로 그려야 예술적감흥을 주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대한 인간을 그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위대한 생활을 찾고 그것을 세부화하여 깊이 파고들어 그려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생활을 탐구하고 그것을 세부화하여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풍모를 빛나게 형상할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이 그처럼 감동을 주는 인간적매력과 고상한 인격의 화신으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위대성에 대한 불멸의 송가로 창조될수 있은 비결이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수령형상의 빛나는 창조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령형상작품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수령관 확립을 위한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는데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견해에 기초하여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수령형상작품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공산주의적풍모를 생활적으로 그리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옳게 인식시키게 할뿐아니라 그것을 력사적으로, 생활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수령형상작품들은 또한 인민들에게 수령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키워줄뿐아니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바로 가지게 한다. 그것은 수령형상작품들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는 혁명전사들의 빛나는 모범들이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그려져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작품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확고한 신념으로 공고히 해나가게 하는 생활의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수령형상작품들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오늘 우리 인민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생활로, 사실 그대로 되살려주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나 공산주의적풍모와 관련되는것이라면 그것은 다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것들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리시는 혁명활동의 걸음마다 쌓으시는 그 하나하나의 업적들은 보통사람들로서는 한생을 바친다고 하여도 이룩할수 없는 거창한 내용으로 충만되여있으며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들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의 생활로 재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간직하고 향유할수 있게 하여준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기쁨이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지난 시기 당의 령도밑에 수령형상창조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하는 사업은 그 내용의 방대성과 풍부성에 비추어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여 우리앞에 어렵고도 방대한 혁명임무를 제기하고있는 현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민족적긍지를 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사정은 수령형상작품을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수령형상창조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으로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영광이며 행복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시키기 위한 당위원회의 사업

윤 선 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시기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이 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 인간개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빨리 실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구성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의 의도를 받들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심화시켜나갔다. 이 과정에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업기풍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 숨은 공로자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났으며 온 공장이 청춘의 기백과 혁명적정열로 들끓고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이 운동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일련의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우리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조직화, 적극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혁명적본질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하고있는데 있으며 이 운동의 위력도 긍정적모범이 가지는 거대한 감화력에 의거하여 대중을 혁신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것이든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대중운동이란 있을수 없는것만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도 조직적으로 짜고들어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지 않고서는 그 위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벌어지던 초기에 당원들과 로동자들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호소와 강조는 많이 하였으나 이 운동을 조직화, 적극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지 못하였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더욱 깊이 학습하면서 이 운동을 조직화, 적극화하기 위한 방법과 방도를 탐구하여나갔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무엇보다먼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지상토론을 벌리는것을 통하여 이 운동을 조직화, 적극화하기로 하였다.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공장의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는 그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지향과 열의에 맞게 매 직장들에 《모두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라는 표제밑에 결의토론판을 만들어놓고 모든 종업원들이 지상토론의 형식으로 숨은 영웅들처럼 살며 싸워나갈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이것은 종업원들속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려는 자각을 높여주었으며 생산과 기술혁신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라도 풀어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그들의 의욕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지상토론형식의 결의토론방법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가지는 거대한 견인력에 의거하여 광범한 대중을 이 운동에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조직화, 적극화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지상토론이 활발히 벌어짐에 따라 종업원들속에서는 훌륭한 결의들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수많이 제기되게 되였다. 그가운데는 그것을 제기한 로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것들도 있었으며 또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몇달 지어는 몇년이 걸려야 할 복잡한것들도 있었다. 앙양된 대중의 기세를 계속 높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운동에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종업원들이 다진 결의들이 어김없이 실천에 옮겨지게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안들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작업반과 직장의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지상토론에서 다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의를 다시 그들에게 당적 또는 근로단체조직의 분공으로 주어 그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여주며 그것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게 하였다. 이와 함께 작업반과 직장들에서 종업원들이 제기한 기술혁신안들가운데서 자체의 힘으로 완성할수 있는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것은 공장적인 방조를 받아 완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종업원들이 제기한 기술혁신안들이 제때에 생산에 도입되여 은을 내게 되자 오랜 기능공들과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갓 공장에 들어온 직포공처녀들과 나이많은 로동자들까지도 기술혁신안을 대담하게 내놓고 그 실천에 달라붙게 되였으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생산혁신자로, 기술혁신의 능수로 되게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모범들을 적극 찾아내여 내세워주는것은 이 운동을 조직화, 적극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모범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소개선전하고 평가하여주는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기념일을 계기로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여 내세워주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우리 구성방직공장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30돐을 맞이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표창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있은 일이였다. 그때 일부 일군들은 공장의 간부들과 이름난 로력혁신자, 기술자들을 위주로 하여 표창하자고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간부들과 이름난 로력혁신자, 기술자들도 표창하여야 하지만 소문없이 한생을 바쳐가며 묵묵히 일하여오는 오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더 많이 표창하는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우리는 일군들을 직장들에 내려보내여 오랜 로동

자, 기술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게 하였다. 료해한데 의하면 그들속에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공장이 창설될 때부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며 어려운 전후복구건설때부터 공장의 개건확장과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이야말로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20년, 30년 세월을 고스란히 바쳐 성실하게 일하여온 숨은 공로자들이며 애국자들인것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30돐을 맞으면서 오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많이 표창하기로 토의하고 그들을 추천하여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게 하였다. 이것은 종업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우리는 모든 종업원들이 해방후 오늘까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였으며 무슨 공로를 세웠는가 하는것을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중요한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에 기초하여 숨은 공로자들을 내세워주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여기에 고무되여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그 어떤 명예나 공명을 바라지 않고 자기 초소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하게 되였고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으며 온 공장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조직화, 적극화할 때만이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의 경험은 또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자기 단위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중요한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더 빨리 하자는데 있다.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본질적요구이며 이 운동의 위력도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공장앞에 나선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려나갔으며 여기에서 특히 기술혁신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공장앞에 나선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우리 공장 방적설비의 절대다수는 면방적용설비들이며 이 설비들은 면섬유만 먹게 되였지 화학섬유를 먹지 못하게 되여있었다. 공장의 방적설비들을 각이한 규격의 화학섬유를 다 먹을수 있게 개조하여야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는 목화보다 화학섬유로 천을 짜는것이 더 좋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할수 있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공장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가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섬유를 먹을수 있게 방적설비를 개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일부 기술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적설비는 섬유의 성질과 길이에 맞게 설계되고 제작된것이여서 지금 설비를 가지고서는 면섬유나 먹었지 화학섬유는 먹을수 없다는것이였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의 표현이였으며 기술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 문제를 풀어 경애하는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충성심이 부족한데서 나온것이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근본열쇠이다. 기술자들이 불타는 심장으로 당과 수령

께 충성다할 때 무서울것이 없으며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방적설비를 개조하기 위한 기본고리를 기술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데서 찾고 당과 수령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배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는 기술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것을 자기의 최대의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10년, 20년을 하루와 같이 끗끗이 싸워 그것을 기어이 해결해낸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위훈에 대해서 해설해주면서 우리도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따라배워 화학섬유를 먹을수 있게 방적설비를 개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안겨주려는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앞당겨실현하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위훈을 단순한 감동적인 사실로 알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사상개조의 거울로, 행동의 본보기로 삼고 그대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기술자들을 적극 이끌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기술자들속에서는 숨은 영웅들처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며 일하려는 각오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방적설비를 각이한 규격의 화학섬유를 다 먹을수 있게 개조하는데서 우리가 부닥친 난관의 하나는 정방기의 견신장치를 개조하는것이였다. 정방기의 고무굴개를 홈굴개로 개조하는데서 실패가 거듭 되고 기술협의회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인부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괜히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는가고 하면서 국가계획에 물려 견신장치를 일식으로 생산해다가 설치하자고 제기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는데서 나온것이였다. 우리는 이때에도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하여 숨은 영웅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폭넓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상사업을 통하여 자기 힘을 믿고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정방기의 견신장치를 얼마든지 개조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우리 식의 새로운 견신장치를 훌륭히 만들어내였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이처럼 대중적기술혁신에 모를 박고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국가의 투자없이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공장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그 어떤 화학섬유도 다 먹을수 있게 전반적으로 개조하였으며 목화와 화학섬유의 배합비률을 종전의 8대2로부터 2대8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의 경험은 또한 당일군들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고 누구나 다 혁신자가 되고 영웅이 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교양자이며 혁명의 기수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사업방법, 사업작풍에 크게 달려있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리면서 당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으며 당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하나의 힘있는 정치사업이다. 당일군들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서 이신작칙하면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이 운동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게 된다. 초급당위원회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리익이 되는 기술혁신안과 발기라면 누가 제기하든지 당일군들이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돕고 떠밀어주며 그 실현에서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공장의 한 설계원이 열설비를 전면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기술혁신안을 제기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주었고 그 실현에서 애로가 제기되면 같이 의논해주고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보이라개조에 쓸 대형강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날 강물속에서 폭격에 파괴된 철다리를 끌어내는 작업의 앞장에도 섰으며 그가 기술혁신에서 실패하여 고민할 때에는 그를 고무해주면서 숨진 보이라앞에서 같이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당일군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서 성의껏 도와주고 이끌어주는데서 신심과 용기를 얻은 그 기술자는 수동식보이라를 완전히 기계화된 보이라로 개조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더욱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영웅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것도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따뜻이 돌봐주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공장의 한 오랜 기술자가 자신의 입당문제를 놓고 적지 않게 머리를 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20여년간 공장에서 일하여오는 그가 50이 다되도록 당에 들지 못하였으니 당원의 영예를 지니려는 그의 념원이 얼마나 절절하겠는가, 지난날 그의 사업과 생활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은것은 우리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을 지니지 못한데 있었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뜻이 대하여야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고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그를 만나 어떤 사람이 당원이 될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그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극복할 방도에 대해서도 일깨워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교양사업을 달을 이어가면서 계속하는 한편 그가 기술혁신사업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을 발휘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 그는 당원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되였으며 방적설비개조에서 큰일을 한 숨은 공로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우리의 경험은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고 사람들을 따뜻이 교양하고 이끌어줄 때 온 공장이 들끓고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며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장 초급당위원회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서 이룩한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당의 요구에 비해볼 때 거리가 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공장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당일군에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

김 경 준

오늘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는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혈연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권위와 위신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현실은 당일군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작풍이 좋고 능력이 있는 일군이 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광범한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그들을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당일군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군중을 대하며 어떤 풍모와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가 하는것은 군중이 따르는 당일군,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당일군이 되는가 못되는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향기로운 꽃이 여러가지 벌과 나비를 모여들게 하듯이 당일군에게는 자기의 인간적향기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당일군에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고상한 정신적향기를 가져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 대중의 신망과 높은 사업권위로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따르게 한다는것이다.

당일군들에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하는것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은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공고성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사람들속에서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신념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 령도의 현명성과 업적을 깊이 체득한데로부터 생겨나고 공고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그것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당일군들이 어떤 풍모와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당일군들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당일군들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민들은 바로 우리 당일군들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받아안게 되고 당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된다. 인민들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을 거쳐 당중앙과 련결되여

있다. 당일군들의 일거일동은 곧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당의 높은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사업과 직접 잇닿아있다.

일상 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군중과 련결되여있는 당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거나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면 당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며 나아가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주며 대중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군중의 친근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당일군의 풍모와 작풍에서 당의 손길을 뜨겁게 느끼게 되고 당의 숨결이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미치게 되며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 삼석구역의 경우도 당일군들이 고상한 풍모와 옳바른 작풍을 가지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단위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대한 열렬한 신뢰심을 가지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있으며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수행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고있다. 반면에 품성이 좋지 못하고 작풍이 거친 일군들이 사업하는 단위들에서는 사람들이 당일군들에게 속을 잘 주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참답게 이끌어주는 당일군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따라오게 할수 있으며 이러한 당일군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만이 사람을 끄는 힘이 될수 있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끄는 힘을 지니는 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은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은 혁명의 향도적력량이며 혁명대오는 혁명의 담당자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여야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은 당일군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할 임무가 바로 당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당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책임적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옳바른 작풍을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풍모와 작풍 문제는 단순한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이며 군중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당일군들이 고상한 풍모와 원만한 작풍을 가져야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닐수 있다.

만일 당일군들에게 사람을 끄는 힘이 없으면 군중이 속을 주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며 이렇게 되면 당일군들이 사람을 알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이 사람의 사상상태와 준비정도, 지향과 요구를 모르게 되면 그들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할수 없고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이 사람을 끄는 힘을 지녀야 사람들을 정확히 료해파악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광범한 군중이 진심으로 당을 믿고 따르게 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만들고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업하고 활동하는 당일군들이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수령과 인민, 당과 대중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는 불패의 것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중요한 요

구로 된다.

당일군들이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는것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세워지며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돌려지고있다.

당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대중을 대하는데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하며 고상한 정신적향기와 원만한 작풍으로 사람을 끄는 힘을 가져야 한다. 자식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 어머니가 제구실을 할수 없듯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 당일군이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당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이 당을 어머니품처럼 믿고 따르도록 사업하고 행동하며 처신하여야 한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펴주고 손잡아이끌어주는 어머니를 배척하는 자식이 없듯이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고 빛내여주기 위하여 애를 태우고 심혈을 기울이는 당일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란 있을수 없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고상한 정신적향기로 대중을 끄는 힘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해나갈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영원히 당을 따르게 할수 있으며 당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당의 령도적권위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는 오늘 당일군들앞에는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가는것은 대중이 믿고 따르는 일군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높이는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일군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여야 자기의 고상한 정신적향기로 사람을 끌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당일군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였다.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을줄만 알고 거기에 보답할줄 모르는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인간이 아름답고 고상한것은 바로 의리를 알고 의리를 지킬줄 알기때문이다. 향기없는 꽃을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할수 없는것처럼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정신적향기가 없는 인간, 혁명적의리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주체형의 당의 참된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일군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령도자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며 비록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기를 안아키워준 령도자에 대한 의리를 절대로 버릴수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여야 한다. 충실한 사람들의 한생은 그 어떤 높은 직위나 명예로 빛나는것이 아니라 일생을 혁명에 바치고 령도자에게 충실한 혁명전사의 이름으로 빛나게 된다. 가장 깨끗한 의리와 량심으로, 불굴의

의지와 철석의 신념으로 령도자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령도자의 은덕을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헌신하는 당일군만이 당과 수령께 충실한 혁명전사라고 말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자기의 숭고한 모범으로 혁명전사들은 철석같은 신념과 고결한 혁명적의리로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녀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어야 하며 혁명의 령도자에게 바치는 충성심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여기에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닌 당일군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일군들이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겸손하고 소탈하며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을 지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을 가져야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릴수 있고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09폐지)

겸손성과 소박성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일군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이다. 인간의 미덕인 겸손성과 소박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할 품성이지만 특히 사람과의 사업을 본분으로 하는 당일군들에게 있어서는 떼여놓을수 없는 필수적인 성품으로 된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앞에서 쓸데없이 틀을 차리거나 건방지고 경박하게 행동하여 자기의 품위를 낮추고 체면이 깎이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앉을 자리 설자리를 옳게 가려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항상 겸손하고 소탈하여야 대중이 찾아와 속을 털어놓을수 있고 군중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품위와 위신도 높아질수 있다. 꽃이 향기로우면 그 어디에 피여있어도 여러가지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되듯이 당일군들의 경우에도 작풍이 좋고 겸손하고 소탈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된다. 당일군들은 광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하는것만큼 누구보다도 사람을 끄는 힘, 인간적향기가 있어야 한다. 겸손성과 소박성, 소탈한 품성이 바로 대중이 당일군을 어머니처럼 믿고 따르게 하는 인간적향기, 인정미를 낳게 한다고 말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무한히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님으로써 사람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당일군은 또한 사업과 생활에서 가식이 없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솔직하여야 하며 명예와 공명을 바라지 말고 청렴하고 결백하여야 한다. 아무리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하여도 진실성이 없을 때에는 군중이 믿지 않으며 따르지 않는다.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않고 당과 혁명의 리익,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량심적으로, 진실하게 일하는것은 당일군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풍모이다. 당일군들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대가를 바라거나 리해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대가를 바라거나 리해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는것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혁명전사의 자세가 아니다.

그시그시 눈에 띄지는 않아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나가는 숨은 혁명가, 남이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을 때 그속에 자신의 노력도 깃들어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남모르는 기쁨을 느낄줄 아는 일군이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따르는 우리 당의 참된 일군인것이다.

당일군들이 공산주의적 인간성과 문

화성을 소유하는것은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람을 끄는 정신적향기는 인간성과 인정미로 하여 더욱 풍기게 되며 문화정서생활에서 생겨나게 된다. 때문에 당일군들이 인간성과 문화성을 가지는것은 사람을 끄는 인간적향기를 체현하기 위한 필수적요인으로 된다.

당일군들은 무엇보다도 고상한 인간성을 지니고 사람들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본신임무로 하고있는 당일군들은 인간성문제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성과 인간성은 서로 인연이 없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떼수 없이 련결되여있는 당일군의 자질과 풍모의 두 측면이다. 당성이 없는 당일군이 인간성을 가질수 없고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지 못한 당일군에게서 당성의 발현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당일군에게 인간성이 있어야 당성도 높이 발현될수 있으며 군중이 당일군을 따를수 있다.

때문에 당일군들은 높은 당성과 함께 풍부한 인간성을 가져야 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엄격하면서도 인정미가 흘러넘쳐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은 실무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성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는 사상정신적으로 존엄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사람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할줄 아는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고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사람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참된 인간이 되여야 하며 사람들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대중과 인간적으로 친숙하고 허물없이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또한 높은 문화성과 풍부한 정서를 가져야 한다.

높은 문화성과 풍만한 정서는 당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인간생활에서 정서가 없다면 그런 생활은 꽃이 없는 화단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문화수준이 낮고 정서가 없는 사람의 생활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다. 문화적소양이 높고 정서가 풍부하여야 심장도 더 뜨거워질수 있으며 왕성한 사업의욕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도 가질수 있다.

풍만한 정서가 없는 사람에게서 창조적인 사색이 나올수 없으며 정열적인 실천이 있을수 없다. 감정과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라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질수 있으며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기도 하고 흔들어놓기도 하며 때로는 불타오르게도 하고 어루만져주기도 하는 지성적이며 감성적인 인간, 뜨거운 열정과 풍만한 정서를 가진 인간이 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일군의 인품도 올라가고 사업권위도 서게 되며 사람을 끄는 힘도 지닐수 있다.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이 믿고 따르는 일군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당일군들이 무슨 일에서나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가르치고 이끌어나가야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사람들이 믿고 따를수 있다.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당일군의 이신작칙은 그 어떤 일시적인 충동이나 공명, 영웅심에 의한것이 되여서는 안되며 그것은 오직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려는 뜨거운 마음의 발현으로, 사업과 생활에 일관된 지도작풍으로 되여야 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앞장에서 나가는 당일군의 이신작칙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는 견인력을 가지고 대중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남보다 덜 쉬고 새벽공기도 먼저 마시며 이슬찬 두렁길도 앞서 걷는 그러한 당일군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옛날부터 일이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 이신작칙하여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수 있으며 당일군의 호소에 광범한 대중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설수 있다.

지난해 가루비료생산과정에서 우리 삼석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보여준 실천적모범이 이것을 말해주고있으며 올해에 자체로 카리비료를 많이 생산할데 대한 당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지난해 알곡소출을 높이는데서 가루비료생산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 한두번의 포치나 조직사업만 하여서는 가루비료생산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였으며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이 필요하였다. 책임일군들자신이 직접 팔소매를 걷고 나섰으며 온 가족이 동원되여 가루비료생산을 다그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며칠사이에 여러톤의 가루비료를 생산하여 성문협동농장의 강냉이포전에 반출하였다.

구역당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였다.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에 고무되여 구역당일군들모두가 따라나섰고 구역급기관일군전체가 떨쳐나섰다. 사로청원들이 궐기하였고 농장원들이 호응해나섰으며 가두인민반원들이 분발해나섰다.

실로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사람들이 당일군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호소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그것은 여러번의 조직사업보다 더 큰 은을 나타낸 힘있는 선동이였으며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실효를 나타낸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경험은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되고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당일군들이 투쟁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여기에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니기 위한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중의 신망과 높은 실력을 가지는것은 당일군들이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니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끄는 힘은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며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높은 실력과 신망으로 대중속에서 확고한 사업권위를 획득한 일군만이 지닐수 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정통, 조직적수완과 전개력, 다방면적인 지식 등은 간부의 실력을 특징짓는 실무적표징이다. 예리한 정치적식견과 다방면적이고 깊은 지식,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을 겸비하여야 실력있는 일군이 될수 있으며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수 있다.

실력이 딸려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느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앉아뭉개면서 자리지킴이나 하는 일군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으며 그런 일군을 따를 사람은 더욱 없다. 오직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고 맡겨진 사업을 두몫세몫씩 감당할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일군만이 모든 사업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고 권위를 세울수 있으며 대중이 따르는 신망있는 일군이 될수 있다.

당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자만과 답보를 모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가답게 꾸준히 배우고 끊임없이 수양을 쌓아나감으로써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실력있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참으로 당일군들이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니는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일군들은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계속 진공적으로 벌려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장본인

한 웅 식

최근 남조선에서 급속히 높아가고있는 인민들의 반미투쟁기운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으며 놈들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남조선을 《보호》하고 《원조》해왔으며 남조선의 《벗》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현실은 미제침략자놈들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과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하루속히 끝장나야 하며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과 인민들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 *

미제는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40년에 걸치는 미제의 강점과 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은 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된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재난과 참화를 강요당하고있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29～30페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자주적발전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것은 미제국주의의 떼여놓을수 없는 본성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인민들의 자주적발전과 민주주의를 말살함으로써 그들을 저들의 지배하에 두려 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책동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총칼로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과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그곳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군정》을 설치하고 남조선에서 사소한 진보적요소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였다. 미제는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자주적인 정권인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자유와 독립을 주장해나선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 애국적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민주주의적인 신문들과 출판물들을 강제로 폐간시켰다. 그리하여 해방직후 남조선에 조성되였던 사회의 자주적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은 사라지고 온 남조선사회가 극도로 반동화되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주주의의 흔적도 찾아볼수 없는 암흑사회에서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왔다.

미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우선 남조선사회의 정치생활을 극도로 파쑈화하기 위한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왔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현지 괴뢰정권에 의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미제가 조작하는 괴뢰정권의 기능은 놈들의 침략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미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식

민지파쑈통치의 하수인으로서의 리승만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강화하여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았으며 1960년대에는 박정희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남조선사회를 극도로 파쑈화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악독하고 야수적인 성격을 띠고 감행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박정희역도가 죽은후 사회의 자주적발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압살하고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을 조작해냄으로써 남조선사회를 더욱더 파쑈의 도가니로 전변시키였다.

전두환역도로 말하면 미제에 의하여 길들여진 극악한 파쑈광신자이며 남조선사회의 진보를 총칼로 가로막는 미제의 둘도 없는 충견이다.

음흉하고 교활한 미제는 극악무도한 군사깡패를 괴뢰대통령자리에 올려놓고 그놈에게 남조선의 립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놓았으며 괴뢰정부의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들과 경찰, 정보 등 폭압기관들을 모두 군사깡패들로 꾸려놓았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파쑈살인광 전두환괴뢰정권을 남조선에서 뒤흔들리고있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수습하고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또한 남조선경제의 자립적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여왔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주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경제생활의 자립적발전이 없이는 사회생활의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경제의 주요명맥을 틀어쥐고 그의 자립적발전을 가로막고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식민지예속경제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우선 일제가 패망한후 남조선경제의 주요부문들을 《적산》이라는 명목하에 강도적방법으로 강탈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적산》이라는 명목밑에 강탈한 모든 재산은 조선인민의 고혈로 이루어진것으로서 그것들은 응당 조선의 해방과 함께 우리 인민의 소유로 되는것은 물론 민족의 번영을 위한 밑천으로 되였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른바 《미군정포고령 제2호》를 발동하여 남조선경제의 주요명맥들을 하루밤사이에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에서 매판자본을 육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억제하였다. 이 방법은 미제가 정면에 나서지 않고 미국잉여상품처리의 중개자, 사자본침투의 안내자, 자원략탈과 군수품의 현지조달자의 역할을 담당케 한 토착매판자본가들을 내세워 경제를 지배하는 음페된 방법이다. 미제는 매판자본가들을 키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귀속재산》불하, 《원조》물자의 구입과 그에 대한 배분권한을 주었으며 가공, 류통, 금융 분야에서의 혜택, 대외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매판자본가들은 남조선경제의 주요명맥들인 강철, 화학, 조선, 기계, 전자, 전력 공업들과 운수, 체신, 상품류통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미제의 조종대로 움직이고있다.

미제는 《원조》를 통해서도 남조선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억제하여왔다.

미제는 무상경제《원조》의 간판밑에 과잉상품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그것을 국제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그 자금을 《대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괴뢰정부의 예산에 편입시켜 그중 80%는 군사비로 쓰게 하고 나머지는 이른바 《경제보충특별계획》에 넣어 남조선의 재정금융을 지배하였다. 결과 1956년과 1957년에만도 남조선산업에 대한 자금융자에서 《대충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8.4%에 달하였다.

미제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상

경제《원조》를 줄이고 유상《원조》의 형식으로 직접적인 자본수출을 늘이면서 남조선경제를 더욱 철저히 장악하는데로 나갔다. 특히 미제는 대부자본의 형태인 상업차관을 늘여 《관영》기업을 신설확대하고 매판자본을 더 많이 육성하였으며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였다.

1962년에 10만딸라에 불과했던 상업차관이 1981년에는 무려 11억 7,160만딸라로 늘어난것은 놈들이 남조선에 상업차관침투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미제는 직접투자형태로도 남조선경제를 지배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에 침투한 자본주의나라들의 직접투자에서 미국자본의 투자비률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전체업체의 76%에 달하고있다. 이 기업체들의 경영권은 의심할바없이 미국투자가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실례로 미국석유회사들인 《칼프》, 《칼텍스》, 《유니온》 등과 합작하고있는 남조선의 《석유공사》, 《호남정유》, 《경인에네르기》 등을 모두 미국자본가들이 틀어쥐고있으며 통제하고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미국은 총 600억딸라가 넘는 자본과 1,000여개의 기업체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지배하고 통제하고있다.

결과 오늘 남조선경제는 그 자립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은 물론 자금으로부터 원료, 판로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모든 부문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완전히 예속되고 수출을 하지 못하면 단 며칠도 견딜수 없는 《수출주도형》의 기형적인 경제로 전락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경제적파국은 심화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령락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또한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어야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남조선도처에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침투하기 위한 기구들을 세워놓고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공미사상을 불어넣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는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풍습을 말살하고 청소년들을 패륜과 패덕에로 이끌어가는 마약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이 심히 억제당하고있으며 숭미사대주의와 반공 사상이 판을 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속에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킴으로써 남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성을 가려보지 못하게 하고 미국을 《우방》으로, 《벗》으로 여기도록하며 미국에 아부굴종하게 만들려 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말살하고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있으며 남조선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억제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남조선인민들의 《보호자》, 《벗》이 아니라 원쑤이며 40여년동안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이며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방해하고있는 원흉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장본인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전두환군사파쑈도

당의 폭압과 야수적만행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지없이 말살되고 사회의 정치적불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은 남조선에 집중되고 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전두환파쑈도당은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내몰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일떠섰던 광주의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대량학살하고 검거투옥함으로써 남조선을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도살장으로 전변시켰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군사파쑈분자들에 의하여 계속 검거투옥당하고있으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던 사람들이 《용공분자》, 《위험분자》로 몰리워 무참하게 탄압당하고 처형되고 있다.

최근에만도 군사파쑈분자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남조선도처에서 반미, 반독재 투쟁에 떨쳐나섰던 남조선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 민주인사들 1만 5천여명을 악명높은 파쑈악법들에 걸어 형벌에 처하였다.

또한 군사파쑈도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의 사회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를 모조리 말살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사실상 파쑈적폭압과 인간학살이 공공연하게 감행되고있는 무법천지로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마저 유린당하고있는 문자 그대로의 인간생지옥으로 되고말았다.

남조선에서 전두환군사파쑈악당이 감행하고있는 폭압만행은 모두다 남조선의 실제적통치자인 미제의 배후조종과 비호밑에 감행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68페지)

지난날 남조선의 광주에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으로 학살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살인만행을 배후조종한것도 미제이며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을 탄압투옥하도록 부추긴자도 바로 미제이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와 전두환악당이 군사쿠테타를 일으키고 정권의 자리를 강탈하여 파쑈적악행을 감행하도록 조종한것도 다름아닌 미제이다.

미제는 그 어떤 감언리설로써도,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 인권을 유린말살하였으며 치떨리는 광주의 대학살만행을 직접적으로 배후조종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요즘 미국당국자들이 남조선청년학생운동에 대한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폭압만행에 대하여 그 무슨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장려해야 한다》느니, 남조선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고무》해야 한다느니 하는 요사스러운 말공부를 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의 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어리석은 술책이다.

미제가 군사파쑈분자들을 사촉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계속 강화하고있는 기본목적은 앙양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기운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고 기어코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대아세아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유지하려는데 있다.

특히 최근에 미제는 필리핀의 마르코스독재정권의 붕괴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청년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도록 괴뢰들을 사촉하

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폭압만행은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으며 그 횡포성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반민족적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를수 있는 파쑈적인 폭압체제를 구러놓고 야수적인 인간도살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치안유지법》과 《사상범예방구금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고 그에 걸어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수행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였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가 메여달리고있는 식민지파쑈통치는 일제통치때의 그것을 훨씬 릉가하는 가장 악랄하고 야만적인 파쑈폭압체제이다.

지금 남조선에는 《국가보안법》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10여개의 반공적인 파쑈악법들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정치활동과 언론, 출판, 집회 등을 탄압하기 위한 파쑈악법들을 모두 합하면 무려 500여개나 있으며 이 모든 악법들은 례외없이 가장 횡포하고 잔악한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력사에 드문 이와 같은 파쑈통치체제를 남조선에 꾸며놓고도 이것을 《반공》을 구실로 삼아 정당화하고있으며 가소롭게도 거기에 《민주주의》외피까지 씌워놓고있다. 놈들이 떠드는 《반공》은 인민들의 애국적인 진출을 가로막고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는데 이르기까지 저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에서 력사상 류례없는 군사파쑈체제를 세워놓고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탄압말살하고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제아무리 발악해도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력사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무시하고 사회의 발전을 억제하는 반동들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40여년간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며 새 사회,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과 참다운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승리할것이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로선

배 종 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자주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매개 나라와 민족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효과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유리한 국제적환경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전세계에서의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어느 한 개별적 나라의 혁명력량만이 아니라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망라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온갖 형태의 착취와 예속이 없는 새 세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자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개별적나라들의 혁명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면서 발전한다. 물론 매개 나라에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개 나라 혁명은 국제혁명력량이 강화되고 그 지지와 성원을 받을 때만이 더욱 힘있게 촉진될수 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91페지)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국제적범위에서 벌어지는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자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다지는것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 인민의 조국통

일위업은 조선의 북과 남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더욱 튼튼히 하여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특히 우리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분렬과 전쟁 로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위업을 미친듯이 가로막아나서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들의 전쟁과 분렬 책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기본장애로 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국제적환경을 조선의 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시켜야 한다. 이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 때만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나라 로동계급과 세계반제혁명력량의 공동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을 통하여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결코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가 지닌 의무를 다하는것으로 될수 없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세계의 다른 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의 뉴대를 강화하며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위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 혁명력량은 국제적지원이 있을 때 더욱 위력해지며 혁명의 승리도 빨리 이룩될수 있다.

혁명하는 나라들사이의 전투적련대성은 혁명적단결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혁명력량의 위력은 단결과 협조에 있다. 혁명하는 나라들사이의 굳은 지지와 긴밀한 련대성은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를 격화시키며 그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불패의 힘으로 된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된 력량으로 국제자본과 맞서 싸운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단결된 힘은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련합된 반혁명세력을 성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제국주의는 력사무대에서 점차 밀려나고있지만 옛 지위를 회복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세력은 그 반동적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서로 결탁되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결탁된 세력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의 혁명투쟁에 도전하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의 반제자주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혁명하는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정치경제적으로 봉쇄하며 각개격파하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결탁된 제국주의반동세력에는 단합된 혁명력량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래야만 반혁명세력의 각개격파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다.

혁명하는 나라들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면 자체의 고립성을 피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물론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뉴대를 맺고 그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공동위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매개 나라의 혁명력량은 자기 나라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국제주의적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피착취 민족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다그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반제자주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할데 대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유리한 정세를 마련하시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의 전투적뉴대를 이룩하고 국제적인 반제통일전선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데서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해방후에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조선혁명의 객관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을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으로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 구현을 위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혀주시였으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두에서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해주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다른 나라의 수반들과 대표단들을 만나시여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제반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4년에만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나라 대표단들을 친히 만나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한편 근 50일간에 걸쳐 쏘련 및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아세아와 구라파의 광대한 지역에 친선의 뉴대를 다져가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은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강화발전시킨 력사적인 리정표로 되였으며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보다 튼튼히 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꽃피워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외활동의 방향과 방도를 새롭게 밝히고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전례없이 높아지고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국가관계와 친선협조관계를 맺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고 우리 나라와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의 100여개의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있으며 수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자기의 벗들을 가지고있다. 날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존엄있는 사회주의 자주독립국가로 인정하며 우리 나라와 국가관계와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나라들은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 나라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오늘 조선통일지지운동은 날을 따라 끊임없이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운동으로 되고있다. 지금 조선의 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많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300여개의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창설되여 활발히 움직이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정부들과 정당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당이 제기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3자회담제안을 비롯한 조국통일방안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많은 나라 정계와 사회계,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에서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올해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만 하여도 세계의 많은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무조건적이고 즉시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주의적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외연히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조선에서 새 전쟁,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할데 대한 혁명로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와 전투적단결을 보다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형제들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다같이 공통된 정치경제적기초우에 서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동일한 목적과 리상으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고있다.

공동위업수행의 길에서 계급적뉴대로 튼튼히 이어져있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지지와 협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믿음직한 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좋게 발전하고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식민지멍에를 벗어던지고 새 생활을 지향하고있으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제국주의반동들을 쇠퇴몰락에로 몰아넣고있다.

조선인민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천대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반제자주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친선의 뉴대를 튼튼히 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면 할수록 반혁명세력은 더욱더 약화되게 될것이며 반면에 혁명력량은 더욱 강화되여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앞당겨나가게 될것이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과의 뉴대를 긴밀히 하고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며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다. 세계의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벌어지건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운동은 다 혁명의 편에 결속될수 있으며 그것은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된다. 세계 모든 형태의 혁명력량과의 뉴대를 발전시키고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광범한 혁명세력을 결속하여야 할 우리 시대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세계혁명위업수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것이다.

영웅적꾸바는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현 용 철

오늘 영웅적꾸바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서반구초소인 자기 조국을 굳건히 지키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고있다. 이것은 용감하고 근면한 꾸바인민의 강의한 혁명성과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꾸바에서 혁명정권이 수립되여 오늘에 이르는 기간 꾸바인민은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로 승리로 빛나는 보람찬 투쟁의 로정을 걸어왔다. 이 기간에 꾸바인민은 내외원쑤들의 온갖 침략과 파괴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꾸바는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였으며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꾸바혁명은 피델 까스뜨로동지에 의하여 개척되고 령도되여왔으며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꾸바인민이 낳은 위대한 혁명가인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개척하고 령도한 꾸바혁명은 지구의 서반구에서 첫 사회주의국가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꾸바땅을 인민들의 세기적숙망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자유의 섬〉으로 전변시켰습니다.》(《조선인민과 꾸바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단행본, 3페지)

꾸바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1948년부터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도밑에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리였다. 미제의 코앞에서 진행된 투쟁은 준엄하고 간고하였으나 그들은 순간의 동요와 주저도 모르고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켰다.

꾸바혁명은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꾸바의 혁명가들이 범선 《그란마》호로 꾸바땅에 상륙한 때로부터 급속히 심화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열두명의 인원과 일곱자루의 총밖에 없었던 무장대오는 짧은 기간에 6,000여명으로 확대되였으며 드디여 1959년 1월 1일에는 수도 아바나로 진격하여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꾸바인민의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꾸바땅에 사회주의 새기원을 열어놓았다. 바로 이때부터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침략과 봉쇄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꾸바에서는 혁명승리후 곧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정부는 혁명적변혁과정을 힘차게 추진시켰다.

혁명전 꾸바의 경제명맥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장악하고있었다. 이것을 철저히 개혁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었으며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공고히 할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정권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꾸바에서는 1959년 5월과 1963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60년 8월과 10월에는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소유하고있던 토지와 800여개의 공장, 기업소, 은행들이 인민의 소유로 되였다.

꾸바에서 제반 민주개혁이 실시되고 혁명이 날로 더욱 심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제는 꾸바혁명을 요람기에 말살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경제봉쇄》, 《외교관계단절》등으로 꾸바를 질식시켜보려고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을 긁어모아 1960년 8월 이른바 《싼 호세선언》이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이에 대하여 꾸바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라틴아메리카혁명을 계속 전진시킬데 대한 견결한 립장을 표명한 《제1아바나선언》으로 대답하였다. 《경제봉쇄》, 《외교관계단절》로써도 꾸바인민을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미제는 수만명의 침략군을 관따나모해군기지에 파견하여 침략책동을 강화하였으며 1961년 4월에는 2,000여명의 반혁명분자들을 히라야히론에 상륙시켜 혁명정부를 전복해보려고 시도하였다. 반혁명무장침입자들은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72시간만에 완전히 소탕되였다.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 10월에 또다시 100여척의 군함과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이른바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그 어떠한 책동도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구호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일떠선 꾸바인민의 혁명적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이와 같이 꾸바인민은 미제의 끊임없는 무력간섭과 파괴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왔으며 여러 단계의 경제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꾸바를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오늘 사회주의꾸바에서는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최근년간 꾸바에서는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지난 제2차5개년계획기간에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엇보다도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꾸바에서는 지난 제2차5개년계획기간(1980—1985)에 사회총생산량이 년평균 7.3%씩 장성하였으며 특히 공업생산은 년평균 8.8%의 속도로 늘어났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부문인 공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꾸바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꾸바공업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탕공업이다. 사탕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많은 사탕공장들이 개건확장되였거나 신설되였으며 그 기계화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1960년에 586만 2,000톤이였던 사탕생산량은 1984년에는 820만톤으로 늘어났다.

수송부문 사업에서도 새로운 발전이 이룩되였다. 꾸바에서는 수송이 해마다 6.5%의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상선대의 능력이 빨리 늘어났다. 상선대는 제2차5개년계획기간에 21%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그 총능력은 116만톤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혁명이 승리한 당시보다 20배나 늘어난것으로 된다.

공업의 다른 부문들도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꾸바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매우 미약하였거나 없었던 공업부문들이 보강확대되거나 창실되여 경제발전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지난 5년간 해마다 기계제작공업은 16%, 건설은 9.5%, 원유채취공업은 33%, 경공업은 8.8%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전자공업이 새로 창설되여 공업발전에 기여하고있다.

이처럼 공업의 여러 부문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경제적토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지지고 나라의 전반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꾸바인민이 거둔 다른 하나의 성과는 농업의 빠른 발전이다.

꾸바 당과 정부는 식량생산을 늘이고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큰 힘을 돌려왔다. 그리하여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1984년에 벼는 혁명전 최고수확년도의 3배를 훨씬 넘는 48만 5,000톤을 생산하였으며 닭알은 23억개, 우유는 9억리터, 닭고기는 10만톤, 돼지고기는 7만톤을 생산하였다.

농업생산의 장성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유족하게 하여주고있으며 경공업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꾸바에서는 교육과 보건 사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다.

꾸바 당과 정부는 교육사업을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커다란 주목을 돌려왔다.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각급 학교들이 건설되였다. 꾸바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324만명에 달하고있는데 이것은 인구 3명당 1명이 공부하고있는것으로 된다.

꾸바의 보건제도는 무상치료제이며 기본정책은 예방치료제이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인 시책과 노력에 의하여 보건부문의 기술장비가 최신의학과학기술로 장비되고있으며 보건일군들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1960년에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1명이였다면 1985년에는 그것이 433명당 1명으로 늘어났다. 의사수가 늘어남에 따라 꾸바에서는 최근 의사가정담당제를 실시하고있다. 보건사업의 발전으로 하여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74.2살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주의제도가 가져다준 커다란 성과로 된다.

그리하여 오늘 꾸바땅은 인민들의 세기적인 숙망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자유의 섬》으로 전변되였다.

이 모든 성과는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의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꾸바인민의 창조적로동과 헌신적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은 꾸바공산당 제3차대회를 전환점으로 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올해 2월에 진행된 꾸바공산당 제3차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꾸바인민이 달성한 성과들을 빛나게 총화하고 제3차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관철에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지금 꾸바인민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신심에 넘쳐 당 제3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하고있다.

오늘 꾸바공화국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꾸바 당과 정부는 옳바른 대외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계의 120여개의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330여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

특히 꾸바공화국은 제6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국으로서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로 하여 꾸바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꾸바에서 혁명이 승리한 직후 우리

나라와 꾸바는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오늘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불패의것으로 굳게 다져졌으며 날을 따라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우리 인민과 꾸바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올해 3월 평양에서 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꾸바인민의 존경하는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사이의 력사적인 상봉을 계기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두터워지고있으며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로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고있다.

조선과 꾸바는 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꾸바의 당과 정부와 인민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제기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3자회담제안, 올림픽공동주최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지난 2월에 진행된 꾸바공산당 제3차대회에서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다시금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에 대하여 원칙적이며 단호한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힘있는 고무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꾸바 당과 정부가 까리브지역과 중미주지역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꾸바의 령토인 관따나모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영웅적꾸바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형제적꾸바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반제반미투쟁의 한전선에서 영원히 함께 싸워나갈것이다.

몽골인민혁명당 제19차대회보고

잠빈 바뜨멍흐

잠빈 바뜨멍흐동지는 몽골인민혁명당 제19차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와 금후과업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몽골인민은 사회주의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여왔으며 제7차5개년계획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또다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당 제18차대회결정과 당이 내세운 대내외정책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과정에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몽골인민혁명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단결되였으며 당과 인민의 통일이 더욱 강화되였다. 사상조직적으로 더욱 단련된 당은 몽골인민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선봉대, 그들의 정치적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당 제19차대회앞에는 총결기간에 진행한 당과 인민의 사업을 총화하고 가까운 몇년간의 대내외정책을 작성하며 나라의 사회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규정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1. 국제정세와 몽골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

중앙위원회는 총결기간 국제관계분야에서 진행한 당과 국가의 실천활동이 몽골인민혁명당 제18차대회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대외정책적과업들을 실현하는데로 돌려졌다는것을 대회앞에 보고한다.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일치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방침은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보장하며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평화와 국제적안전 위업에 백방으로 협력하는데로 지향되였다. 이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현저하게 확대되였으며 나라의 대외활동이 눈에 띄우게 적극화되였다.

몽골인민혁명당과 우리의 인민적국가는 대외정치활동에서 항상 위대한 쏘련과의 형제적친선과 국제주의적동맹관계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우리는 커다란 만족감을 가지고 벌가리아, 웽그리아, 웰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꾸바, 뽈스까, 로므니아, 체스꼬슬로벤스꼬와의 우리의 호상관계의 진보적이며 효과적인 성격을 지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오스, 유고슬라비아와의 우리의 관계도 가일층 발전하였다.

당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사회주의적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형제적친선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방침을 변함없이 견지할것이다.

몽골인민공화국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운동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유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고있다.

몽골인민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과의 평화적공존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이런 원칙에서 공화국은 많은 자본주의나라들과 정상적관계를 맺고있다.

현시기 몽골은 세계 99개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으며 그들중 많은 나

라들과 정치, 무역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기타 분야들에서 적극 협조하고있다. 이것은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이 가일층 강화되고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아세아대륙에서 안전을 강화하며 이 지역 국가들사이의 호상 리해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는것은 당과 국가의 대외정치활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몽골인민공화국은 대륙을 긴장성과 충돌의 발원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건설적인 제의들과 발기들은 전반적 아세아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당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의 기본문제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늘이고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이며 생산의 질과 효과성을 개선해나가는데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와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에서 변함없는 목적으로 삼고있다.

제7차5개년계획의 기본총화

제7차5개년계획기간 몽골인민혁명당 제18차대회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당의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과 우리 인민의 헌신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또한 사회주의나라들, 우선 쏘련의 형제적 원조와 지지, 그들과의 전면적인 협조로 하여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제7차5개년계획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장성하였다는것을 지적한다. 사회적생산의 장성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생산이 증대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와 문화수준이 높아졌다.

인민경제의 고정폰드는 1.7배로 장성하였다. 국민소득은 37%나 늘어났다. 국민소득장성의 약 5분의 4 정도를 로동생산능률의 제고로 보장할데 대한 과제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였다.

총결기간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당경제정책에서 중심적인 문제였다. 당과 정부가 취한 시책들에 의하여 농산물의 년평균생산은 지난 5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18%나 장성하였다. 알곡과 감자, 남새 생산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제7차5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의 고정폰드는 2배로 장성하였으며 총생산액의 년평균장성은 당 제18차대회결정에 지적된 속도를 보장하였다.

공업의 부문구조에서 질적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인민경제의 연료동력과 원료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원천을 확대하며 식량과 대중소비품을 주민들에게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생산능력이 결정적으로 장성하였다. 농산물원료를 가공하는 수준도 장성하였다.

제7차5개년계획기간에 기본건설규모가 현저하게 증대되였고 그 생산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몽골과 쏘련 건설자들은 많은 살림집들, 공업 및 농촌경리 종합체들, 사회 및 대중문화 시설들을 건설하였다.

운수 및 체신에서는 능력을 늘이고 모든 운수형태들의 기술수단들을 계단식으로 갱신하며 수리와 기술봉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일부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분야에서 당 제18차대회에서 제시된 기본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였다. 주민 한사람당 실질소득은 12% 장성하였으며 이것은 당 제18차대회에서 내세운 과업에 상응한것이다. 소매상품류통은 24%나 장성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봉사량도 장성하였다.

제7차5개년계획기간에 이전 5개년계획기간보다 주택이 현저히 더 많이 건설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주택조건이 개선되고있다.

고등 및 중등전문 교육기관들에서 4만 8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양성되였으며 직업기술전문학교들에서는 5만 4천명의 숙련로동자들이 양성되였다.

최근년간에 현대적인 치료진단설비를 갖춘 일련의 큰 종합병원들이 건설되고있다. 그가운데서 일부는 벌써 조업을 시작하였다. 농촌에서 의료망이 늘어났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1만명당 24명의 의사와 111개의 병원침대가 있다.

과학, 문화, 예술, 문학이 성과적으로 발전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당 제18차대회가 제시한 경제 및 사회적 과업전체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1986—1990년기간의 경제사회발전의 기본과업

나라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사회적생산품과 인구 1인당 국민소득생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기타 기본경제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중앙위원회는 나라의 발전과정에서 나서는 이 요구를 제8차5개년계획의 경제 및 사회적 과업들을 규정할 때에 고려하였다.

농촌경리의 발전은 주민들의 식량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조건

당농업정책의 본질은 가까운 앞날에 인구장성속도가 매우 높은데 비하여 농산물생산이 뒤떨어지고있는 부정적현상을 극복하며 식료품생산과 그에 대한 수요사이에 불균형을 퇴치하고 주민들의 식량공급을 개선하는데 있다.

농업생산을 안정하게 증대시키며 1990년에 예견된 고기, 알곡, 우유, 감자, 남새, 가루, 계란, 기타 식료품 1인당 생산수준을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

질과 효과성은 중요한 과업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현단계에서 사회적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천은 기본투자와 생산적잠재력, 현존하는 물자 및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있다.

새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물자자원을 절약하고 고정폰드와 류동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원가를 낮추고 리윤과 축적을 더 높이며 제품과 작업, 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거대한 예비와 가능성을 실지로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당경제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고 당중앙위원회는 나라의 경제에서 조성된 실정을 고려하였다.

첫째로, 최근 몇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기본투자액이 많이 증대되였고 새로운 많은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그 결과 인민경제의 기본생산폰드가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다.

둘째로, 우리의 사회적생산에서는 비교적 물자용량이 높다. 물질적자원들의 절약에 의거하여 생산을 높이고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가능성이 전혀 불충분하게 리용되고있다.

셋째로, 나라의 로력자원은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것이다. 그러나 그 배치와 리용은 많은 면에서 불합리하다.

넷째로, 생산의 효과성은 제품의 질, 작업과 봉사의 질에 직접 달려있다. 질이 높지 못한것으로 하여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보장하는데서 장애를 주고 수출품확대를 억제하며 결국은 나라의 전반적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주고있다. 때문에 우리는 질을 높이는것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품을 높이는 가장 큰 원천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령역의 성숙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과학이 노는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있다.

우리는 어느 하나의 생산적 또는 사회적 과제도 과학기술적성과의 리용을 떠나서는 해결할수 없는 그러한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제8차5개년계획에서 당이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대상은 여전히 연료동력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지방의 수요자들 특히 농촌경리의 전기화를 위하여 연료동력을 믿음성있게 공급할데 대한 대책들을 무조건 실시하여야 한다. 연료동력자원을 절약하는것으로 늘어나는 소비의 일정한 몫을 보장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확대강화하고 생산의 규모를 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뒤떨어진 금속가공공업과 수리생산이 우리 인민경제에서 매우 적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때문에 이 부문의 가장 합리적인 생산형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실시할것이 예견되고있다.

경공업 및 식료공업에서는 축산물원료의 완전한 공업적가공과 완제품생산을 지향하여 능력을 확장하며 식료품과 대중용품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과 포장을 개선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경제의 다각적발전은 기본건설에서의 사업상태에 직접 달려있다. 이번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발전에 대한 기본투자가 늘어나는데 따라 국내 건설기관들이 사용하게 될 수단들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것이다.

체신 및 운수의 모든 부문들에서는 화물려객수송과 기타 봉사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더 원만히 보장해야 할 과업이 선차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민들의 복리향상과 사회적발전을 위한 과업

당의 경제사회정책의 종국적목적은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와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제8차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적소비폰드는 20～25%, 주민들의 화폐수입은 20～30% 장성할것이다.

5년동안에 약 120만평방메터의 주택면적이 사용되게 될것이다.

3. 당

당의 지도작풍과 방법의 완성, 그 효과성의 제고

우리 당은 산 유기체로서 부단히 장성강화되고있다.

총결기간 당대렬이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그 질적구성이 개선되였다. 오늘 당대렬에는 8만 8,15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망라되여있으며 이것은 지난 당대회전야보다 15.6% 장성한것이다.

사회생활에 대한 당적지도의 복잡한 과업들이 제기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당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우선 당내부관계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간부들과의 사업, 대중과의 련계문제와 관련된다.

당내부측면에서 당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주되는 방향은 도식과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비속화, 당생활기준과 량립할수 없는 현상들을 극복하는데 있다. 당조직들에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주며 당지도기관들이 기본로선과 결정을 자립적으로, 실무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지도록 가능성을 주는것이 중요하다.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는 당조직들의 첫째가는 과업이다. 당조직들은 정치적지도자로서 사람과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 책임적인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당조직들은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대리하며 대행하는 그릇된 현상을 없애야 한다. 당조직들의 활동은 경제기관들과 문화기관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지지하고 고무해주며 계획수행과 당의 사회경제정책관철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주고 사업결

과에 대하여 통제하며 결함들과 뒤떨어진 원인을 제때에 밝혀내고 퇴치하도록 하는데로 돌려져야 한다.

당통보의 의의가 커가고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사업에서 공개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당의 대내외정책과 그 활동의 본질적문제들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통보하는것을 중요한것으로 간주하고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강화와 국가사회기관들의 역할의 제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이 사회, 국가 및 경제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선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총결기간 몽골인민혁명당은 국가사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부단히 관심을 돌려왔으며 그리하여 사회의 정치체계가 강화되였다. 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방침을 견지할것이다.

당사상정치교양사업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하자

몽골인민혁명당의 경제 및 사회 정책 실현에서와 근로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동원하는데서 당의 사상사업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당은 당사상사업의 과학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근로자들 특히 청년들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사회주의사상과 당과 인민의 위업에 충실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심적인 고리로 된다고 간주한다.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우리 인민의 훌륭한 혁명적, 로력적, 문화도덕적인 전통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매개 공민은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그 혁명적전취물에 대한 긍지감을 가지고 몽골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적성과를 더 확대하며 그 위신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야 한다. 몽골인민혁명당은 쏘련과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공고한 친선의 정신으로 우리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부단히 관심을 돌려왔으며 또 돌릴것이다.

당사상사업의 중심은 로동교양문제에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태도를 확고히 키워주며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들이 명백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다. 생활은 사회성원들에게 모든 물질적문화적재부와 인민들의 재산과 사회적소유에 대한 주인답고 근면한 태도를 가지며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고 규률과 질서, 조직성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요구한다.

사상사업은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들의 원인을 밝혀내고 뿌리빼기 위한 비타협적이며 적극적인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성과를 총화하면서 락관에 넘쳐 80년대의 후반기에 들어선다. 우리는 우리앞에 무엇을 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는가를 똑똑히 보고있으며 알고있다. 제기된 모든 과업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법과 완강한 창조력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어머니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뭉쳐 당 제19차대회에서 채택하게 될 결정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과 몽골땅에서 사회주의건설위업에 높은 열성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식, 로동을 바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높은 기상을 안고 전진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현 명 준

우리가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리론잡지 《노바 믜슬》사의 초청으로 이 나라의 수도 쁘라하에 도착한것은 지난 2월하순이였다.

봄이라기는 아직 이른 늦은 겨울이여서 산야에는 흰눈이 덮여있었다. 하여 록음이 우거지고 백화가 만발하는 계절의 풍치는 볼수 없었으나 쁘라하는 자기의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볼따바강을 가운데 끼고 구릉지대에 펼쳐져있는 쁘라하, 1,000여년의 오랜 력사와 고대의 수많은 유적들을 가지고 있는 쁘라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화폭과도 같았다.

쁘라하에 도착한 우리는 하루의 일정이 끝난 저녁무렵 이 도시의 아름다운 인상을 깊이 새기고 산책도 할겸 거리에 나섰다. 석양이 비낀 거리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과 질주하는 자동차행렬로 몹시 붐비였다. 전진의 기상과 활기가 차넘치고있었다.

우리가 받은 깊은 인상은 도시의 아름다움에만 있지 않았다.

우리는 쁘라하가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의 반파쑈투쟁의 자랑스러운 사적을 간직하고있는데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쁘라하의 로동계급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지난날 나치스트무리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침략자들은 1941년 9월 이후부터 야수적만행을 더욱 감행하였다. 놈들은 인민들의 대중적항거를 탄압할 목적밑에 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수백명의 애국자들이 처형되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집중수용소에 끌려갔다. 이 시기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의 첫 지하중앙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이 피살당하였다. 폭압과 살인만행은 1942년 5월이후 더욱 잔인하게 감행되였다. 게스타포들은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하였으며 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살인만행으로써도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쁘라하 로동계급과 애국자들의 용감한 투쟁을 말살할수 없었다.

1945년 5월 쁘라하에서는 나치스트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적봉기가 일어났다. 로동자들은 거의 맨주먹으로 대렬의 선두에서 중무장한 강점자들을 맞받아 희생적으로 용감히 진출하였다. 도시에는 1,600여개의 바리케트가 쌓아졌고 4일간의 치렬한 전투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 영웅적인 투쟁에서 1,400여명의 애국자들이 생명을 잃었다.

나치즘이 피멸되고 근로자들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후 쁘라하의 발전에서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였다. 수도주민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전쟁의 상처는 빨리 가셔지고 도시의 공업과 수송체계는 정비복구되고 현대화되였다. 넓은 지역에 현대적주택들과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이 일떠섰다.

쁘라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사적을 간직하고있을뿐아니라 나라의 공업중심지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쁘라하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업의 10% 이상이 집중되여있다. 기계제작공업과 함께 전기, 화학, 목재가공, 식료, 인쇄, 피복 공업 등이 발전되였으며 최근 10년동안 쁘라하의 공업제품생산은 70%나 늘어났다.

이처럼 쁘라하는 사회주의의 길에서 현대적인 인민의 도시로 빨리 자라나 자기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우리가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체류하는 기간은 바로 이 나라에서 당 제17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사업이 마지막단계에

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시기였다. 이것은 우리가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성과를 더 잘 료해할수 있는 조건으로도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희망과 열정에 넘쳐 헌신적으로 일하고있으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단행본, 66폐지)

공산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기간에 거보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의 총로선을 관철하는 최근 15년동안 이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이 이룩되였다.

지난 15년동안 사회적부의 결정적징표로 되는 국민소득은 81%, 공업생산은 97%, 건설액은 84% 각각 높아났다. 농업생산은 같은 기간에 3분의 1이나 장성하였다. 제7차5개년계획기간에 농업부문에서 계획을 4.2% 넘쳐수행한 결과 식료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넉넉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이 기간에 거의 180만세대분의 살림집이 건설되였으며 대외무역총액은 근 2배나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공업생산구조가 더욱 완비되였다. 오늘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공업은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과거 부르죠아공화국이 1년동안 생산한것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우리를 만난 자리에서 제16차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과업이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당은 제7차5개년계획을 완수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제8차5개년계획과 2000년까지의 전망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난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훌륭히 완수할 확신에 넘쳐있습니다.》

2000년까지 국민소득을 지금보다 3분의 2이상 높이고 제8차5개년계획기간에 그것을 18~19% 장성시킬것을 예견하는 인민경제발전계획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높은 효과성을 요구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동지들의 말에 의하면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집약화를 추진시키는데 모든 힘을 집중시킨다는것이였다. 집약화, 기술발전의 실현, 관리와 계획화사업의 본질적개선을 위한 사업을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만난 모든 관리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당대회에서 제시될 휘황한 전망과제들이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또 반드시 성과적으로 완수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근면하고 재능있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인테리들이 당의 령도따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훌륭히 실현할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한 전망을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의 불꽃튀는 투쟁모습과 그들의 굳은 신념에서 볼수 있었고 확신할수 있었다. 당대회에서 제시될 휘황한 전투적강령이 실현될 때 사회주의체스꼬슬로벤스꼬의 위력은 얼마나 더 강화되고 또 인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높은 경지에 뛰여오르게 되겠는가 하는것을 그려보면서 그들의 앞날을 마음속으로부터 축원하였다.

쁘라하에 있는 《아비아》자동차공장 참관은 우리에게 높은 기상을 안고 전진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였다.

《아비아》자동차공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4년 6월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시였을 때 친히 찾아주시고 력사적인 사적을 남기신 공장이다.

우리는 공장에서 당위원회의 부비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바 있는 공장의 부문당비서와 사회주의로동작업반장 그리고 공장신문주필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이 공장은 초창기에는 군용 비행기와 체육용 비행기를 생산하였는데 자동차생산을 시작한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한다. 당시에는 주로 군용차를 수리하는 한편 비행기도 일부 제작하였다. 《아비아》라는 공장명칭도 바로 그로부터 유래한것이라고 생각되였다. 나라의 공업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큰 규모의 전문화물자동차공장으로 전변되였다.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한 공장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공장을 친히 찾아주신 그날의 감격적인 사변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직접 뵈옵고 고무의 말씀에 접하게 된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영광으로 간직하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날에 있었던 력사적사변을 취급한 신문들과 사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공장의 사회주의로동작업반장은 자기들이 소중히 보관하고 관리하여온 넓은 규격의 두툼한 책을 우리에게 펼쳐보이며 《이것이 바로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작업반에 남기신 고무의 필적입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모범을 보이고있는 사회주의로동작업반원들을 축하합니다.

김 일 성
1984. 6. 6》

우리는 이 공장 로동계급이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그 책을 주의깊게 보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들의 경모의 정이 얼마나 깊고 고결한것인가 하는것을 뜨겁게 느끼였다.

로동자들과 기술집단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공장은 해마다 생산계획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1985년에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으나 계획을 102%로 초과완수하였으며 올해 1.4분기계획도 성과적으로 완수될것이라고 하였다.

새로운 제8차5개년계획과 2000년까지의 전망계획기간 공장앞에는 과학기술혁명을 다그치고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로동집단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고 생산의 집약화를 힘있게 추진시키며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의 효과성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를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제기된 모든 과제를 반드시 훌륭히 수행할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공장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공장을 찾으시여 걸으신 로정을 따라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았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던 조립직장에도 들리였다. 로동계급의 신심에 넘치는 결의와 불꽃튀는 생산투쟁모습에서 그들의 방대한 전망과업이 훌륭히 수행될것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비아》자동차공장 참관을 통하여 우리는 특히 이곳 로동계급이 조선인민에 대하여 품고있는 뜨거운 친선의 감정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대표단을 계급적전우로, 친형제로 뜨겁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미제에 의하여 국토가 분렬되고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무겁게 떠돌고있는 극도로 긴장한 정세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특별한 관심과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적극적인 련대성을 보낸다고 하였다.

우리는 고급당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동지적이며 혁명적인 우정과 친선의 정을 뜨겁게 느끼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체스꼬슬로벤스꼬 인민의 이러한 친선의 감정을 우리는 특히 남부 모라비아지방에 있는 체스꼬슬로벤스꼬—조선친선농장 방문에서 더욱 깊이 체험하였다.

우리는 《노바 믜슬》사동지들이 세밀하게 짠 일정계획에 따라 체스꼬슬로벤스꼬—조선친선농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였다.

친선농장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는 한해 사업을 총화하고 경축하는 모임이 진행되고있었다. 우리는 경축행사와 연회에 초대되여 농장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농장의 관리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우리를 친근한 전우의 나라에서 온 친선의 사절로 환대하였으며 구면의 옛친우를 만난 심정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따뜻이 대하였다.

몸집이 우람지고 장대한 혈기에 넘치는 젊은 관리위원장은 우리들에게 체스꼬슬로벤스꼬 농업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할뿐아니라 어떻게 생활을 즐기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장원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기들의 성실한 로동의 성과를 축하하는것이였다.

관리위원장은 조선을 방문하였던 나날에 받았던 깊은 인상에 대하여 실감있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두 나라 인민들, 협동농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꽃피워나갈 자기의 의향을 열렬히 토로하였다.

형제의 나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 머무르는동안 우리는 계급적형제들의 각별한 환대와 우정 속에서 참으로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였다. 우리의 방문이 최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노바 믜슬》사 동지들과 우리가 만난 체스꼬슬로벤스꼬동지들을 잊을수 없다.

우리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자기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부터 축원한다.

근 로 자 1986년 제8호(루계 532호)

편 집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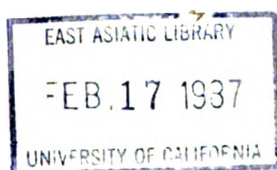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6년 8월 1일 발 행•1986년 8월 3일

ㄱ—6507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9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제 9 호(53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우리 조국은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튼튼히 의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친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륭성번영은 이 땅에 마련된 사회주의제도의 끊임없는 공고발전에 달려있다.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조국의 사회정치적기초를 이룬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조국애와 튼튼히 이어져있다.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며 그 우월성을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만이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할수 있으며 만사람의 존경을 받을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한데 기초하여 이 제도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인류력사가 시작된 이래 사회제도의 교체과정이 거듭되여왔으나 사회주의제도처럼 그토록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제도는 일찌기 없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모두가 자유롭게 살수 있는 리상사회에 대한 인류의 동경은 훌륭히 실현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비로소 근로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었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37페지)

사회제도는 사회관계의 담당자인 사람을 주체로 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사람을 떠난 사회제도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사회제도의 성격과 류형을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할 때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질서로서의 사회제도의 본질적특징을 올바로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성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사회제도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이 있으며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되는 근본특징이 있다.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담보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그들의 자주적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

정치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는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될 때에만 참답게 보장되게 된다. 존엄있고 권위있는 공화국정권과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우리 인민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떳떳이 행사하고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먹을 권리, 입을 권리, 일할 권리,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평등하게 담보해준다. 전체 인민이 배우며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무료로 전반적11년제의 무교육을 받는 《교육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담당의사를 가지고 건강보호를 받으며 치료도 료양도 휴양도 다 무료로 하는 《무병장수의 나라》, 세금이 없고 실업이 없으며 단 한사람의 거지도 없는 기쁨과 희망에 넘친 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다.

경제와 문화, 기술을 비롯한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사회성원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나고있으며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다. 바로 이것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으로 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인민들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사회관계가 근로대중에게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사회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이 하나로 통일단결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기초로 하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온 사회가 철통같이 뭉쳐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바탕으로 굳게 단합된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하고 생활력있는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되여있다. 이러한 통일단결에 의거하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으로 숨쉬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사상의지적통일체로 되고있으며 여기에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의 원천이 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준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투쟁하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각오를 더욱더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것은 이 제도를 더욱더 빛내야 할 우리 혁명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의 심화발전과 사회제도의 공고발전은 유기적인 련관관계를 가진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요인은 인민대중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야 할 직접적담당자는 바로 인민대중이다. 오직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때 비로소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은 남김없이 발양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것은 또한 우리 혁명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조건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의 세대교체는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필연성이다. 우리의 혁명대렬에는 이미 새세대들이 들어왔으며 그들이 점차 혁명의 주역으로서 활동하고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별로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자면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혁명의 새세대들이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하여야 할 당과 수령의 혁명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굽임없이 빛내여온 고귀한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을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선진적인 사회제도로 공고발전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의 모든 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시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펼쳐놓으시였다.

당과 수령이 쌓아올린 이 위대한 업적들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킬 때 그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빛나는 오늘과 휘황한 래일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그 위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은 특히 제국주의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사회주의의 견인력의 기본원천으로 된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의 화살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말살하려는데 돌려지고있다.

오늘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반공책동에 발맞추어 반사회주의책동을 반공화국책동과 결부시켜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적자각을 높이며 그들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사상과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양식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오늘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힘있게 벌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

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들과 직결되여있는 사상개조사업이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주체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며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나가도록 교양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그것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인민들속에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키며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물론 매일매일의 실생활을 통하여서도 인식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공고화하는 밑천으로 되게 하자면 그것이 어디까지나 원리교양에 의해서 마련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제도라는것을 똑똑히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근본바탕을 옳게 인식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성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로 되는것이다. 이 사실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모든 우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자면 또한 이 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잘 알게 함으로써 이 제도의 우월성을 비속화하려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근본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반동적인 자본주의제도와의 대비속에서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다른 사회제도와의 대비를 통하여 뚜렷이 나타난다. 오늘 자본주의제도는 부패할대로 부패해졌으며 그 취약성은 더욱더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대비를 통하여 인식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선의 북과 남의 판이한 현실을 가지고 교양하는것이다.

남조선의 반동적사회제도는 근로대중에게 노예적인 굴종과 멸시, 참을수 없는 빈궁만을 강요하고있는 반면에 한줌도 못되는 관료배들과 특권층에게는 온갖 권력과 부귀영화를 독차지하게 한다. 남조선에서는 착취와 억압,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근로자들의 인격적가치가 무시당하고있으며 패륜패덕과 온갖 사회악이 지배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북과 남의 판이한 사회제도를 서로 대비하는 교양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남조선의 사회제도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극도로 증오하는 동시에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떠나서는 살수도 혁명할수도 없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제도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도

록 교양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이 제도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추동력으로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보람찬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마련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애착을 가질수 있으며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자면 이 제도의 위력을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은 사람들에게 신심과 확신을 안겨준다.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생길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하며 그들이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더 빛내여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산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추상적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것이다. 벅찬 현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확증하는 산 자료로 된다. 수난의 그 나날 헤아릴수 없는 설움과 고통을 당하였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찾았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것이 산 체험을 통하여 느낄수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인것이다.

당조직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산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고마움과 행복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떨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언제나 적극적으로 실속있게 전개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곧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싸워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심화시켜나갈 때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수 있다.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인 남포갑문을 매우 짧은 기간에 건설해놓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속에는 바로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우리 조국의 영예를 영원토록 빛내이려는 그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이 구현되여있다. 이러한 혁명정신은 오늘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들에서도 남김없이 발양되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 조국의 영예를 더욱더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는 당건설의 기본내용

현 철 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발표하시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당건설위업수행의 모든 단계와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으며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경험들이 풍부히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는 당건설의 기본내용이며 당사업의 중심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은 당건설의 기본내용이며 당사업의 중심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28페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정은 당을 창건하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다.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맞게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당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따라서 당건설의 기본내용과 당사업의 중심과업은 반드시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내용으로,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이리하여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이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밝혀지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당건설원칙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였다.

우리 당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을 언제나 당건설의 기본내용으로,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수령의 사상만이 있을수 있으며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는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전당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조직적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당대렬의 조직적단결은 종파주의

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요소와 반당적조류를 제때에 극복청산하고 당대렬의 조직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1970년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그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심오한 과학적통찰력으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새롭게 밝히고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어길수 없는 행동준칙으로 삼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사상리론적내용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심화되게 되였으며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대를 이어 심화시키는 여기에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는 재부로 되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실천적본보기로 된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다음으로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간것이다.

당은 당원들이 뭉친 조직적부대이다.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리고 전당을 하나의 공고한 조직적통일체로 만들 때에만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 참다운 정치조직으로 될수 있다.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간부는 당의 골간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은 간부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직되며 간부들의 역할에 의하여 당의 모든 활동이 보장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대렬을 조직사

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전대적표징으로 하고 능력과 자질이 겸비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꾸리도록 하였다. 또한 로동계급출신간부의 비중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간부대렬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꾸리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옳게 배합하여 간부대렬을 꾸렸으며 간부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끊임없이 단련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이 더욱 개선되고 당과 운명을 영원히 같이하며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골간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이와 같이 우리 당에 의하여 간부사업의 방향과 원칙,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철저히 실현됨으로써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당대렬을 정예화하여야 한다.

당대렬을 정예화한다는것은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을 말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이다.

모든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이러한 높이에 끌어올려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전일적인 대오로 만들어야 당이 그 구성에서 완전무결한 수령의 당으로 될수 있으며 당대렬의 정예화가 실현될수 있다.

특히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당건설의 총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것은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대렬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우리 당을 혁명의 정수분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일적인 대오로 꾸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당대렬의 정예화가 철저히 실현되고 있으며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사상은 당원들이 도달하여야 할 정치사상수준과 사상정신적높이,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과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위대한 당건설사상이다. 이 위대한 당건설사상에 의하여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고 로동계급의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또한 당사상사업을 강화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46페지)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건설은 당조직사업과 함께 당사상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당사상사업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은 당의 공고발전과 당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당사상사업의 본질과 기본임무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사상사업을 성과적

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사상사업의 본질과 기본임무를 바로 규정하여야 사상사업의 내용과 원칙, 형식과 방법을 비롯하여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당사상사업이 당의 최고강령과 당건설의 기본내용을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본질과 기본임무, 사명과 목적으로부터 사상교양사업의 구체적내용, 형식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고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데 복종시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일색화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을 당사상사업의 본질로 정식화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규정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당사상사업의 본질과 기본임무가 새롭게 정식화되고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당건설의 기본내용과 당사업의 중심과업,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기본사명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옳바로 조직진행할수 있는 길이 명시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사업의 목적과 그 근본방향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은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당사업이 심화발전하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그 내용과 함께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여야 한다.

사상사업 방향과 내용이 옳바로 설정되고 사상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옳바른 형식과 방법이 적용되지 못할 때에는 사상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사상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야 그것들이 노는 기능상 특성과 우월성을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리용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사상사업의 실효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였으며 사상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였다.

당사상사업에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사상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당사상사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하나의 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의 사상으로 관통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모든 사상사업이 철저히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은 반드시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기풍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사상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위력한 선전선동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여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형식주의가 철저히 극복되고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사상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언제나 여기에 큰 힘을 넣어온 우리 당의 령도가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참으로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사상사업방침들에는 모든 사상사업을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전환시켜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 주어져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사상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참다운 방식이 집대성되여있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

책과 경험은 또한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것이다.

당은 당조직들의 유기적결합체이다. 당을 이루고있는 각급 당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체계를 이룰 때에만 조직된 부대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도록 각급 당조직을 행정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 단위들에 합리적으로 조직하였으며 특히 기층당조직을 옳게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당조직개편사업을 기동적으로 하였으며 각급 당위원회를 준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였다.

당의 모든 사업은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도 당조직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의 활동을 강화하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리였으며 당세포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도록 하였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이며 당원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는 혁명적지도방법이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광범한 대중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지도를 과학적으로 원만히 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방법으로 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집체적지도가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정식화되고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중앙집권적인 요구와 당원대중의 민주주의적의사를 옳게 결합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위원회의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한 당위원회부서들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 한편 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자기 직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기초우에서 부서들사이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수행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발전의 새로운 리정표가 제시되게 되였으며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불멸의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당건설의 기본내용으로,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독창적으로 정식화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바로 여기에 당건설위업수행에서 당과 수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의 전로정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온 로정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당건설의 기본내용으로,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혁명적 당건설의 중요원칙

우 달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 관한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과 유리되고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공중루각과 같으며 그러한 당은 자기의 [illegible]를 유지할수도 없다.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당만이 튼튼한 군중적지반우에서 굳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적당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며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57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 정치적조직이며 인민대중은 당의 군중적지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향도자이며 인민대중은 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과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당이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당건설의 합법칙적인 요구로, 당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기때문이다.

당의 위력을 강화하는것은 당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으로 건설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당의 공고성에 의하여 규정되고 담보된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바로 튼튼한 군중적지반우에서 당을 굳임

없이 공고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 의하여 튼튼히 다져진 당의 군중적지반은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게 하는 원천이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는 당은 인민대중속에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우수한 핵심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여 그들로 자기 대렬을 확대하고 공고화해나갈수 있다.

당의 위력은 당이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벌려나가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당으로 하여금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는 위력한 당으로 될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당이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할 때 당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새것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자기의 로선과 정책에 제때에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게 된다.

인민대중은 새것을 지향할뿐만아니라 전진을 방해하는 낡고 보수적인것, 침체하고 반동적인것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당은 바로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에 튼튼히 의거하여야만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하여야 강위력한 당으로 될수 있다.

당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위력한 당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이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당은 자주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없다.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당만이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자기 주견과 신념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그것을 관철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당이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할 때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같은 잡사상에 물젖지 않게 된다. 사대주의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데로부터 남의 힘을 빌어서 혁명을 해보려는 비굴한 사상관점과 태도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으면 자주성을 지킬수 없게 되고 아무러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당은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감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게 된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이룩하였기때문에 그처럼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울수 있었으며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튼튼한 군중적지반에 의거하여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대오로 끊임없이 확대공고화하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당활동을 생기발랄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

는것이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적당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당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도록 당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혁명대오로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만들수 있게 한다.

혁명의 승패는 주체적혁명력량 특히 정치사상적힘을 얼마나 튼튼히 마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치사상적힘의 원천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에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은 주체적인 혁명력량에서 기본을 이루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는 필승불패의 위력한 력량으로 된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또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결정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이다.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는것이며 그 관철에로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할 때 당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에 기초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다. 이렇게 세워진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추동력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이 그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한다. 대중에 대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인민대중은 조직적인 력량으로 될수 없고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할수 없으며 혁명투쟁에서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수 없다. 국제혁명운동과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주의운동 그리고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은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에서 심한 우여곡절과 쓰라린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을 때만이 인민대중은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거쳐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사명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 혁명투쟁을 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에 기초하여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이다.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쳐야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

장할수 있고 그들이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나가게 할수 있으며 따라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우리 당은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데 대한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데 대한 당건설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문제를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당을 창건하고 령도하시는 전기간 여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오랜 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실로 귀중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이룩된 경험에는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여 당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선봉대로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게 한 경험, 계급별, 계층별로 통일적인 근로단체를 조직하고 여기에 해당한 계급과 계층을 망라시켜 대중운동의 분렬을 막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경험, 당이 독자성을 유지하고 주도적역할을 하는 원칙과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넓은 포옹력으로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당의 사회적지반을 확대하고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린 경험,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경험 등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여기에는 당이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이룩한 그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 관한 로동계급의 당 건설리론의 새로운 분야를 독창적으로 개척하고 완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필승불패의 당으로 건설하는데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았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훌륭히 실현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위대한 통일단결이며 불패의 힘을 가진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어떻게 결속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당과 인민들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또한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서 중요한것은 사상의지적인 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만이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실무적인 단합으로써는 공고한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는 다름아닌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뭉쳐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공고하고 불패인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또한 그것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데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혁명투쟁속에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공고화되게 된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은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장구한 기간의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난관과 시련을 함께 뚫고나가는 력사적행정에서 이룩되고 공고화된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이러한 공고한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위력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준다.

우리 혁명의 끊임없는 전진과정에 혈연적인 뉴대로 굳게 결속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을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전진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인민대중과의 불패의 통일단결, 이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동체로 된 통일단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강위력한 추동력으로,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매려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는 위대한 힘으로 된다.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이 이룩한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용감히 뚫고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실현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반석같이 더욱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

리 돈 원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 특히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수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가질 때에만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하시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력사적과정에 창조하신 당의 령도예술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준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며 특히 집권당의 령도예술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령도예술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광범한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예술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이 땅우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마련한 위대한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이 조직과 대중을 활발히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찬란한 현실을 마련하고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는것은 주체의 령도예술이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93페지)

령도예술은 당의 지도사상과 그에 기초한 당활동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세워지며 당의 령도예술의 성격과 본질, 그 특징과 위력은 당의 지도사상과 당활동의 원칙이 어떠한가에 따라 규정된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혁명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인민대중의 활동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따라서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령도예술은 마땅히 인민대중중심의 지도사상에 기

초하고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시키는 당활동의 원칙을 구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지도사상을 구현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당의 령도예술을 창시하심으로써 비로소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이라는것은 그것이 주체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령도예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는 근로인민대중중심의 령도예술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인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중심의 혁명학설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에는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해관계가 반영되여있으며 사람들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그에 복종시키며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가장 과학적인 일반적 방법론이 담겨져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으로부터 대중령도는 어디까지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에 부합되고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대중령도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 요구가 흘러나온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가는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과 립장, 철학적원리와 명제들, 혁명적군중로선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근본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종시켜 풀어나간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이루고있는 체계와 내용들은 모두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게 전개되여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또한 주체적방법론에 따라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이끌어나가자면 그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여나갈수 있는 일정한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여야 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 품성이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나서는 모든 문제들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의 내용을 담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독창성과 본질적특성이 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인민적인 사업작풍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에서 중요한 내

용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 사업작풍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93페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는 주체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질서와 제도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이끌어나가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과 활동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일정한 규범과 질서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질서와 제도를 정연하게 세워야 전당이 통일적으로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떠나서는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이끌어나가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 당사업체계는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을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확립하여야 할 령도예술의 중요내용으로, 필수적구성부분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이며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장악지도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 체계인것으로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위력한 사업체계로 된다.

혁명적인 사업방법은 주체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서 의거하여야 할 수법이며 묘술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옳바른 사업방법에 의거하여야만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일군들이 그릇되게 일하면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집권당은 권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잘못하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일군들속에서 대중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주의적방법으로 사업하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과 인민대중과의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도 없게 된다. 이것은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이 로동계급의 당이 확립해야 할 령도예술의 중요내용으로 되며 따라서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 대중령도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 사업방법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고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며 대상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당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당사업을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방법이며 당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

동을 적극 벌려나가는 위력한 방법이다. 이러한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게 하는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주체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의 다른 하나는 인민적사업작풍이다. 당사업작풍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의 사업기풍이며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도덕적풍모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작풍을 옳바로 세워야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기풍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이다. 그것은 또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전투적으로 일하며 모든 일을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공산주의적혁명가적기풍이며 인민들이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느끼게 하는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이다. 또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며 청렴하고 결백하게 생활하는 고상한 품성이다. 이러한 사업작풍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대중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일관된것으로 하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온갖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참다운 인민적사업작풍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참다운 공산주의적령도예술이며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적령도예술이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근본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그것은 오직 광범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당의 령도에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사업체계로부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전 체계와 내용이 일관하게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에 맞게 처리할것을 근본요구로 내세우고있으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의논하여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방법, 묘술을 전면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주체의 령도예술은 공산주의위업완성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과학적인 령도예술로 된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또한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혁명적인 령도예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된 사회이다.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사람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을 비롯한 주체의 령도예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참다운 령도예술이다.」

령도예술의 완성정도와 위력은 그 내용의 과학성과 다방면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발전의 어느 한 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단계와 여러 분야의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령도예술일수록 위력한것으로 된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그 구성과 포괄범위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발전단계와 모든 분야에 대한 령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백과전서적인 령도예술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그 어떤 추상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창시된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과정에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조선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오늘에 이르는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여 빛나는 결실을 맺어온 자랑찬 행로이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당의 령도예술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고 그 위력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과시된 보람찬 나날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언제나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참신하게 보시고 풀어나가시는 혁신적인 안목과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시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시는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모든 부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결합시켜나가시는 능숙한 지휘력과 조직적수완, 왕성한 사업의욕과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력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주체의 령도예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며 그 모범을 보여주신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혁명적인 당건설과 당활동,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이며 그것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위력한 공산주의적령도예술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제시된 당의 령도예술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당건설과 당활동, 대중령도에서 리론실천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령도예술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하여금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에 의거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었다는데 있다.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의 령도예술을 확립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귀중한 재부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주체의 령도예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것이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

김 종 욱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의 각급 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각급 당위원회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위원회의 활동에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당위원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급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이며 당원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는 혁명적지도방법입니다.》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55페지)

각급 당위원회들은 행정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집체적지도기관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한다는것은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당조직앞에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처리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비롯하여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해당 당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토의결정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 조직동원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하는 각급 당위원회들은 집체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서 기본방식으로 된다.

당의 각급 위원회들은 당원대중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위원들의 협의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집체적지도기관이다. 당위원회들이 집체적지도를 하게 되는것은 당원대중의 힘과 지혜만이 당위원회의 활동을 옳게 보장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한두사람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총명하고 뛰여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대신할수 없다. 생동하고 창조적인 지혜는 대중속에서 나오기마련이다. 대중을 이루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지혜는 그 하나하나가 단편적이고 불충분한것이지만 그것들이 종합되고 체계화되면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도를 찾게 하는 귀중한것으로 된다. 대중의 이러한 지혜와 창발성을 제때에 포착하여 종합하며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아야 할 임무가 당위원회에 맡겨져있으며 그것은 집체적협의를 강화함으로써만 원만히 수행된다. 당위원회 위원들이 당원들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의 참된 목소리를 듣고 와서 모여앉으면 언제나

혼자서는 따를수 없는 새로운 좋은 의견이 나오며 그에 의거하여 옳은 집행대책이 설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간고하고 복잡하며 당조직들앞에는 방대한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결코 개인의 지혜나 힘만으로는 풀어나갈수 없다. 오직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이 내세운 과업의 정책적의도를 신속히 전달침투하고 그들의 지혜를 종합하여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 대중을 조직동원할 때 정확히 집행해나갈수 있다.

만일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당원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옳은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일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과 독단에 의하여 모든 사업을 처리하게 되면 당조직앞에 나선 과업들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풀려나갈수 없다.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은 한두사람의 지혜와 열성만으로는 옳게 보장할수 없고 오직 대중의 집체적지혜가 충분히 발양될 때에 높아질수 있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개별적일군들의 주관이나 독단을 철저히 없애고 집체적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자기 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이것은 집체적지도가 당의 본성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우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게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각급 당위원회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해당 부문과 단위에서 당의 결정, 지시가 철저히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위원회들이 자기 단위의 실태를 얼마나 환히 꿰들고 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얼마나 깊이 알며 그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내미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위원회들의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옳바로 수행하려면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가장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한다.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와 정확한 판단, 사업 설계와 방법론의 현실성은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능을 높이 발휘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의 지향과 요구,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때에만 확고히 담보된다. 그런데 당위원회들은 여러 부문의 우수한 일군들과 핵심적인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들로 구성된 위원들을 통하여 대중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으며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충분히 조직동원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각급 당위원회들은 집체적지도를 강화할 때 인민대중과 함께 살며 활동하는 위원들에 의거하여 대중의 요구와 리익, 그들의 힘과 지혜 그리고 혁명과업수행의 실태를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당의 의도에 맞는 현실성있는 집행대책을 세울수 있게 된다.

만일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능을 높이 발양하지 않는다면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지도를 할수 없게 되며 형식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등의 오유를 범하게 된다. 당위원회들은 집체적지도를 통하여 대중의 의사를 당위원회에 집중시키고 그에 따라 실정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가게 된다.

행정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 단위들에 합리적으로 조직되여있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이처럼 당의 령도를 현실에, 대중속에

접근시키고 지도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며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또한 국가, 경제 기관과 협동단체, 교육문화기관, 사회단체조직들을 장악하고 지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게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지도에서 유일성과 통일성이 보장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국가, 행정경제 기관들과 사회단체조직들이 당의 결정과 지시 관철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행동상 일치성을 보장하자면 당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것이 필요하게 된다.

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혁명조직들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그 정치적 령도자로서 경제건설, 문화건설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 대한 전반사업과 여러 혁명조직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따라서 모든 지역과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최고지도기관,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위원회들은 자기 단위안의 행정, 경제, 문화 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을 지도하고 그 모든 활동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게 되는것이다.

각급 당위원회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집체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만 원만히 실현된다.

혁명의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중요한 당정책적문제들을 당위원회에 집중시키고 당위원회의 분공에 따라 행정경제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하고 당일군들은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제기된 혁명과업이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훌륭히 수행되게 된다. 만일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가 없이 행정경제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이 제가다리로 일하거나 반대로 개별적인 당일군이 모든 사업을 가로타고 좌지우지한다면 해당 단위의 전반사업을 똑똑히 료해장악할수 없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할수 없게 된다.

오직 집체적지도에 의해서만 각급 당위원회들은 행정경제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위원들로부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수 있고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되고 분공된 제반 과업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다. 당위원회들은 집체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행정경제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을 적극 발동하고 그를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을 옳게 관철해나가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원만히 실현해나가게 된다.

이처럼 집체적지도는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주인이 되여 당의 로선과 정책, 그 부문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방향과 수행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옳게 조직전개하도록 하는 가장 우월하고 과학적인 지도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앙양을 이룩해나가도록 하는 혁명적인 지도방법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데서 기본고리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옳게 실현하도록 몸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

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온 당위원회들의 사업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개선강화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고 경제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는데 당위원회사업의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정확히 구현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사업이 철저히 경제건설을 잘하는데 이바지하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켜 생산자대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시였으며 행정대행과 주미주의를 없애고 모든 문제를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현시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과 도, 시, 군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는 여기에 우리 혁명발전에서 더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담보가 있다. 당위원회들은 자기 활동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집체적협의를 보장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위원회는 집체적령도기관인것만큼 모든 문제를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두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면 개인의 주관과 독단이 작용하게 되고 옳은 결정을 채택할수 없습니다.》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야 해당 단위의 전반사업을 똑똑히 료해장악할수 있고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울수 있으며 제기된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규약상 요구대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것과 함께 당위원회의 주인인 위원들의 지위를 옳게 보장할수 있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켜야 한다. 아무리 당위원회를 자주 진행하고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토의한다 하더라도 회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당위원회의 주인으로서의 위원들의 지위는 유명무실해진다. 당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놓을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그들이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할수 있으며 토의되는 문제에 대한 창발적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웃사람이건 아래사람이건 할것없이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문제토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집체적지도의 견지에서 볼 때 당비서는 당회의를 집행하는 의장과 같다. 당비서는 당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위원들이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옳게 토의결정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책임일군들이 당회의에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의견을 신중히 듣지 않을바에는

구태여 집체적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모든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위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회의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위원회의 주인은 해당 당위원회를 구성하고있는 위원들인것만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전적으로 위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아야 당위원회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집체적지도가 옳게 보장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충실한 당원들, 해당 부문 사업에 정통하고 기술있고 능력있는 핵심당원들을 망라하여 당위원회를 잘 꾸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원들이 위원회사업에 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는 위원들에게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제때에 침투하며 당위원회의 전반사업을 정상적으로 알려주고 위원회사업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는 위원들의 수준과 능력, 본신임무와 사업조건을 참작하여 그들이 자기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분공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총화하며 나타난 부족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당위원회의 활동을 옳게 조직하고 위원들의 당적분공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하며 당위원회결정을 집행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위원들이 언제나 당위원회앞에 자기 사업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일하며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되고 분공된 과업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김없이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위원들은 자기 역할을 높여 대중의 지혜와 건설적의견들이 당위원회사업에 적극 반영되게 하여야 한다.

원래 집체적지도란 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이다. 당위원회에 광범한 대중의 창발적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대중이 옳다고 인정하고 떨쳐나설때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는 훌륭히 실현되게 된다. 당위원회 위원들은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일하고 정치사업도 하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군중의 의사를 광범히 듣도록 하며 그들의 창발적의견에 기초하여 좋은 방법론을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원대중의 지혜가 남김없이 반영될수 있고 따라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집체적지도는 이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존중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 당원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는 혁명적지도방법으로서 각급 당위원회들의 활동에서 기본방식을 이룬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

최 찬 덕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야만 당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당생활은 조직생활과 사상생활로 이루어진다. 당원은 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단련되고 당원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갖추게 되며 정치활동가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을 잘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생활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당조직관념이란 당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당원의 숭고한 품성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당조직관념이란 당조직을 대하는 당원들의 관점과 태도를 말한다.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태도 문제는 당원들의 사상문제와 련관되여있다. 사상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사상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듯이 당원들이 당생활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사상, 다시말하여 당조직에 대한 당원의 관점과 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질 때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기 위하여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는것은 우선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게 한다.

당생활을 잘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다. 당원들이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당조직을 무한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게 된다.

당원은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며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보고하고 당조직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는 철저한 립장과 태도를 가질 때 당생활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성실히 해나갈수 있으며 그 과정에 혁명적수양을 쌓으면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 문제는 정치적생명을 옳게 간직하고 빛내여나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데서 기본은 우리 당은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며 수령님은 곧 우리 당이라는것을 똑똑하게 인식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당의 조직적의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며 위대한 수령님은 곧

우리 당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당을 수령님의 품으로 알고 그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중화군 삼석리의 한 평범한 당원의 당생활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 당이 창건된 첫시기부터 당생활을 하는 그는 민주건설시기와 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년간을 하루와 같이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왔다. 그는 70이 넘는 오늘에도 박하분조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당세포를 찾아가 분공을 받아 집행하고있다. 그는 당세포비서가 자기의 보증으로 입당한 젊은 동무이지만 그의 앞에서 당생활정형을 보고할 때의 로당원의 자세는 언제나 정중하고 성실하였다.

오늘 항일의 로투사로부터 우리 당에 갓 들어온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중앙기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당원으로부터 공장과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당조직앞에서는 한결같이 어깨를 낮추고 모든것을 의탁하는 이 고상한 조직관념의 밑바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성심, 당을 다름아닌 수령님의 품으로 여기는 우리 당원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이 흐르고있다.

이처럼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높여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질 때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의식적으로 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또한 당의 결정과 지시, 당적위임분공을 철저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당생활을 실속있게 해나가게 한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원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게 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의 혁명적본분은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것이며 그것은 당의 결정과 지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활동과정에서 나타난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당조직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전달되고 침투되며 당원들은 당의 결정지시를 집행하는 과정에 혁명의 선봉투사, 정치활동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수행해나가게 된다. 당조직을 떠나서는 당원들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조직으로부터 혁명과업을 맡아 수행하게 되며 당조직앞에서 그 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총화하게 된다. 때문에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당조직에 대한 태도와 립장이 어떠한가에 크게 달려있다.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는것은 당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당조직관념이 튼튼히 선 당원은 언제나 당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 여기에 당원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는 근본열쇠가 있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또한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스스로 받게 함으로써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나가게 한다.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이다.

당원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가들이다.

당원들은 마땅히 그 어떤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당생활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옳바른 조직관념을 가질 때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해나가게 된다. 당조직관념이 높은 당원은 자각성과 의식성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생활규범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는다. 그들은 언제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을 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에 참가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비판과 자기비판, 사상투쟁에 성실하게 참가하게 된다. 또한 당적분공을 자진하여 받고 맡은 혁명과업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집행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바쳐가면서 일해나간다.

특히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질 때 간부일수록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스스로 받아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나간다. 사업에서는 비록 책임일군이고 지도일군이지만 당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다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당규률과 당생활규범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중화군당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의 당생활은 당조직관념을 높일 때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군에서 세멘트공장과 벽돌공장을 비롯한 건재기지를 꾸리는 사업이 한창 벌어질 때였다. 군당의 한 책임일군은 자기는 언제나 지도하는 일군이고 당적분공을 조직하고 총화하는 일군이라고만 생각하던 낡은 관념을 버리고 공사에서 가장 긴요하게 제기되는 자재들을 해결할것을 자진하여 분공받고 그것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내 일군들속에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호령과 독촉으로만 사업하던 낡은 사업태도와 관점을 버리고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고 걸린 고리를 한몫씩 맡아 수행하는 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세멘트공장건설은 물론 지방공업토대와 상업봉사기지를 꾸리는데서도 일정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이것은 간부당원일수록 당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도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높은 당조직관념을 지니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조직의 위임과 분공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며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당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 발전과 건설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잘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높은 조직관념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높은 조직관념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높은 조직관념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되며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혁명조직을 무으시고 령도하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 모든 혁명가들이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할 높은 조직관념의 숭고한 모범을 몸소 보여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사업을 지도하실 때 먼곳에서 사업하시다가도 당생활총화날자가 되면 나도 세포에 소속된 당원의 한사람인데 당생활총화를 지어야지라고 하시며 꼭 당세포를 찾아주시였다. 또한 당세포가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조직할 때에도 자진하여 당원들에게 매일 정세와 당정책을 알려주는 분공을 받고 날마다 일과처럼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여주신 조직관념의 빛나는 모범을 철저히 본받고 구현하여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여나가야 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잘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잘 아는것이다.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에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을 해나가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에는 당원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이며 당생활에는 어떻게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은 어떻게 집행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당조직에 어떻게 보고하는가 등 당원이 당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해나가는데서 지켜야 할 모든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당원들은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똑똑히 알아야 당의 의도대로 사업하고 생활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규약학습을 실속있게 하고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규약의 조항들을 놓고 당조직사상생활을 스스로 검토하고 나타난 결함을 고쳐나가야 한다.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잘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잘하는것은 당조직들의 기본임무이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생활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그들의 자각성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가 안받침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전반을 장악지도하며 조직관념이 부족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여러가지 방법과 형식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당세포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된다. 당세포는 당원들이 일생동안 의탁하고 당생활을 해나가는 거점이며 당원들이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가지고 생활해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이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원활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당생활지도를 잘해야 모든 당원들이 옳바른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할수 있으며 전당에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이 당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당생활을 벌려나가도록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조직관념을 높일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당원들이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우리는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서의 고귀한 칭호와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인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자

리 봉 호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그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하여 그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은 어디까지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라는것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져 리론만 가지고 학습시키라는것이 아닙니다. 혁명실천과 동떨어진 교양은 소용없습니다.》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는 것은 당사상사업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사상사업은 실천에서 나서는 현실적문제를 풀기 위한 요구로부터 제기되며 그것은 실천의 요구에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실천에 복무하지 않고 실천과 동떨어진 교양사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양사업이 실천적성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반드시 실천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여 하나의 통일적과정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실천과 결부된 교양사업만이 실천의 요구에 복무할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사상은 바로 당사상사업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지식으로 체득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실천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실천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된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혁명의 준엄한 실천투쟁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사상은 주체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방법과 지도적원칙까지도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는 혁명실천의 위력한 무기이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리론을 위한 리론인것이 아니라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실천의 위력한 무기를 주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일관하게 벌려나가는것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사람들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 한몸바쳐 나서는 실천활동가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뿐아니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단련하여야 높이 형성되게 된다.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리론적으로 깊이 인식할수 있게 하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하게 함으로써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게 한다. 그것은 혁명실천이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식의 대상은 구체적현실에 있는 객관적사물현상이며 인식과정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체사상교양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에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와 그 정당성을 하나하나 인식해나가게 되며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것을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게 되는것이다.

강의한 의지를 지니는것은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강의한 의지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하여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없다.

사람들의 강의한 혁명적의지는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혁명의 준엄한 실천과정에 단련된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그것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사람들은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와 그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되며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특질인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게된다.

이것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상교양사업의 주되는 목적은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하는데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과업과 실천적방도들을 제기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과업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매우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인 동시에 전례없이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운 투쟁과업이다.

오늘 우리앞에 제기되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조성되고있는 첨예한 정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확고한 주체적립장,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게 하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리나가는것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는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되게 된다.

주체사상은 인류의 휘황한 미래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류가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미래에로 가는 멀고도 복잡한 길이 뚜렷이 명시되였다. 혁명의 미래를 밝혀주는 주체사상을 실천을 통하여 현실에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자연이 정복되고 사회가 발전하며 인간이 개조되게 됨으로써 결국 인류의 리상이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게 된다.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영원히 고수하고 끝까지 빛내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로 무장할뿐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 구체적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만 해결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리는것이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주체사상이 구현된 공산주의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당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든 당조직들이 그것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해방직후와 정전직후 사람들의 사상동향이 매우 복잡하였던 우리 도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줄기차게 벌려온 결과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심장깊이 체득하였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배천군 금산리의 새세대청년들은 적들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분계연선의 자기 마을을 주체사상이 활짝 꽃핀 공산주의지상락원으로 꾸리고 대를 이어 지켜갈 불타는 일념으로 63세대의 새 가정을 이루고 대지에 억세게 뿌리를 내렸으며 은천군 덕천협동농장의 한 뜨락또르운전수는 하천주변의 진펄과 웅뎅이를 메우고 6,700여평의 논을 풀어 여러해동안 생산한 벼

51톤 700키로그람을 애국미로 나라에 바쳤다. 금산리의 새세대청년들과 덕천협동농장 뜨락또르운전수의 이 아름다운 소행의 기저에 놓여있는것은 주체의 혁명적신념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다. 이것은 도안의 당조직들이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한데 대한 당의 사상을 구현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며 우리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고있는것은 도당위원회가 아래당조직들에서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비롯하여 당조직이 활동하는 모든곳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여 생산과 건설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특히 옹진편직바늘공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편직바늘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하였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제침철선을 국내산원료로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공장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린데 대한 우리 당 사상사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은 심화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의 실천적요구와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실속있게 진행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인식시키는 사업을 현실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과 옳게 결합시켜 진행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원리교양을 실천적문제들과 결합시켜 진행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있게 체득하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어렵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담보로 된다. 산 현실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생동하고 깊이있게 깨우쳐주며 그것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과 자기들의 삶과 생활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자기 단위의 산 자료들과 결부하여 주체사상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따라 나아갈 때 혁명의 밝은 미래가 반드시 온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

하여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 립장이며 태도이다.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가지고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혁명과 건설에서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당과 수령이 맡겨준 그 어떤 어려운 임무도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당의 결정지시라면 어려운것과 쉬운것을 가리지 않으며 조건이 좋은것과 나쁜것을 탓하지 않고 오직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정신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야 주인다운 립장을 가진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자기 단위에 맡겨진 구체적혁명임무와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가 없이 말만 하고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으며 조건만을 내세우면서 혁명과업을 제때에 수행하지 않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자기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자체의 힘으로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려는 혁명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며 그것은 정력적인 탐구와 피타는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단위에 있는 모든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자체의 연료, 원료조건에 맞는 기술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주체적립장에서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한 혁신적발기들과 창발적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며 그것이 생산과 건설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효과적인 방도는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다.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는 구체적조건이 서로 다르며 그들의 준비정도도 같지 않는 조건에서 사상교양사업은 반드시 그에 맞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실효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을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비롯하여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방법을 리용하여 다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인생관의 본질적내용

강 민 구

한생을 어떻게 보내는것이 가장 숭고한 삶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은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지니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생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의 삶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있으며 그 생명의 활동이 곧 생활이므로 인생관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해명된 주체의 인생관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인생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9폐지)

인생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며 그들의 생활과정, 운명을 개척하는 과정은 인간과 세계의 호상작용과정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를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으로부터 주체의 인생관이 흘러나온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를 가장 정확히 해명해주는 과학적세계관의 원리인 동시에 주체의 인생관의 출발적원리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문제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울수 있게 되였고 《하느님》이나 객관적환경의 힘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온갖 숙명론과 염세주의, 비관주의를 극복하며 혁명적락관주의와 확고한 신심,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갈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뿐아니라 사회적집단속에서 산다. 인생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집단과 매개 사람들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사회와 집단을 떠나서 살수 없다. 다른편으로 집단은 개인이 모여 형성되며 개별적인간을 떠난 집단이란 있을수 없다. 특히 삶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집단속에사는 매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인생관은 마땅히 개개의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가지도록 하며 개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집단인 인민대중, 인류의 근본리익에 맞게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겠는가에 대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이 문제에 해답하기 위하여서는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주체의 인생관은 집단의 리해관계와 개인의 리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하며 개개의 사람들의 삶은 사회집단의 생존과 발전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된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인간을 사회적집단과 동떨어진 존재로 보는 개인주의적인생관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집단주의적인생관을 확립한다.

이처럼 주체의 인생관은 세계에서 사

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람의 운명문제에 옳은 해답을 주는 사람중심의 인생관이며 사회집단속에서 매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누리는 근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집단주의적인생관이다. 여기에 주체의 인생관의 본질적특징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이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제일생명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인간생명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세우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396페지)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사활적인 관심을 돌리게 되며 이로부터 생명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이는것이 중요한가를 알려고 한다. 주체의 인생관은 사람들의 생명에는 육체적생명과 함께 그보다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다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의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영원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사람이 육체적죽음과 함께 영원히 죽는다면 인생은 일시적인것으로, 무의미한것으로 여겨지게 될것이다. 사람의 육체는 죽더라도 영생할수 있을가, 있다면 그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밝혀져야 자신의 무한한 존재와 발전을 요구하는 인간의 생의 참다운 의미가 주어지게 될것이다.

그러나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인류는 인간생명이 사람이 세상에 태여날 때 생겨나고 사람이 죽을 때 그 육체가 없어진다는것을 일상적으로 보아왔으므로 생명을 개인의 육체와만 결부시켜 고찬하고 육체적생명 하나만을 생각하였으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많은 경우에 생전에 육체적쾌락과 개인적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는것으로 보아왔다. 육체적생명만을 사람의 유일한 생명으로 여기는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사람과 다른 생물체사이의 본질적차이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활동을 일반생물체의 활동의 수준에 끌어내리는것으로 된다.

주체의 인생관은 사람이 육체적생명뿐아니라 사회적존재로서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본질적특징을 파악하게 하며 사람이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고있다.

육체적생명은 사람이 자기의 육체와 후대를 보존하기 위한 생물학적활동과 결부되여있는 생명이다. 그것은 인간유기체의 생리적기능인 신진대사에 의하여 유지되며 그 전과정이 생물학적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이러한 생리적활동, 생물학적법칙에 따르는 활동이 없이는 살수 없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활동의 전부가 아니다. 생물학적존재로서의 생명은 동물도 가지고있다. 그러나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동물이 오직 육체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물학적인 활동만을 하는것과는 달리 사회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정치활동을 하며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값있는 삶을 누리려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이나 사회정치적생명은 다 귀중하다. 그러나 이 두 생명가운데서 어느것을 더 귀중한 제일생명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첨예하게 제기된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삶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관점, 주체의 인생관의 본질적내용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길은 간고하며 예아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게 된다. 혁명가들은 집단과 동지들의 곁을 떠나 절해고도에서 홀로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을수도 있으며 간악한 원

쑤들과의 싸움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수도 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부닥쳤을 때에 그들앞에는 육체적으로 죽음으로써 사회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겠는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삶으로써 사회적으로 영원히 죽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영생하려는 무한대의 념원과 인간의 육체적생명의 유한성사이의 이 관계는 사회정치적생명이 육체적생명에 비할바없이 귀중하며 그것은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육체적생명보다 비할바 없이 귀중한것은 무엇보다도 이 생명을 가져야 사람이 참다운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지닐수 있는것과 관련된다. 사람의 참다운 가치와 존엄은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어떻게 몸바쳐싸우는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위업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육체적생명만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오래 보존하는데만 관심을 돌리고 육체적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면서 사회를 위하여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살아나간다 하여도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수 없으며 참다운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다. 이와는 달리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한생은 가치있고 영예로운것으로 평가된다.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것도 그것을 가지고 동물처럼 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육체적생명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육체적생명의 가치는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육체적수단으로 된다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은 자신의 육체적생명을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서 순간순간을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은 또한 영생하는 생명인것으로 하여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제일생명으로 된다.

육체적생명은 끝이 있지만 사회정치적생명에는 끝이 없다. 사람은 언제나 한번은 죽기마련이며 그들의 한생은 인류력사에서 극히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정치적생명은 육체가 없어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빛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끝이 없는것은 육체적생명이 개인의 육체에 체현되여있는것과는 달리 그것은 사회정치적집단에 체현되여있기때문이다.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생명체와 같은것이다. 사람들의 개개의 생명체는 사회적인 유기체의 한 구성부분이며 사람들은 사회적유기체를 떠나서는 개체로서 살아나갈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은 바로 매개의 생명체가 사회집단적인 생명체와 련계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생명이다.

부모가 남겨준 육체적생명이 한 세대에 끝나는것과는 달리 당과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집단의 운명, 조국과 인민, 혁명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되여있으므로 사회정치적집단, 인민들의 투쟁이 영원히 계승되는것처럼 대를 이어 빛나고 조국과 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 김혁, 차광수동지들을 비롯한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육체적생명을 서슴없이 바쳐싸움으로써 그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영생하고있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느냐 아니면 육체적생명을 건지

느냐 하는 갈림길에 선 김혁동지에게는 자신의 청춘도 귀중했으며 혁명투쟁속에서 꽃핀 사랑도 귀중하였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조선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장렬한 최후를 빛나게 마쳤던것이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최후의 결사전에로 나간 월미도영웅전사들의 투쟁과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육체적생명을 바치는 혁명전사에게는 죽음이란 있을수 없다는 고귀한 진리, 삶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는것은 주체의 인생관의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인간의 생명뿐아니라 참다운 생활, 값높은 삶의 보람과 행복 문제도 사람의 본질적특징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준다.

생명은 인생을 사람이라는 존재의 속성의 측면에서 고찰한것이라면 생활은 인생을 운동의 측면에서 고찰한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이란 생명체의 활동, 생명의 구체적발현과정이며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창조적힘에 의하여 실현해나가는 활동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주체의 인생관은 사람의 참다운 생활, 값높은 삶의 보람과 행복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맞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값높은 삶이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지닌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15폐지)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므로 사람의 값높은 삶의 보람과 행복은 마땅히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인간생활의 가장 값높은 리상과 보람, 행복은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자주성에 있는것만큼 자주적인 생활보다 더 리상적이고 보람있고 행복한 생이란 있을수 없다. 자주적인 생활이란 세계의 주인으로서 살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생활이다.

사람의 자주적생활은 무엇보다도 자연을 지배하여 물질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서 표현된다.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생활수준을 높여나가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한 투쟁, 다시말하여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유족한 물질생활은 부화방탕한 개인향락주의적인 생활과는 인연이 없다. 사람이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한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사람자신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하게 되면 그것은 벌써 물질적부의 주인으로서의 생활인것이 아니라 물욕의 포로, 물질적재부의 노예로서의 생활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알콜중독자나 수전노들의 생활은 이러한 노예의 생활인것이다.

사람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혁명투쟁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사람은 자연의 주인으로 살뿐아니라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고 한다. 사람은 각종 사회적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사회정치생활을 할것을 원한다. 사람들에게 식의주가 충분히 보장되여도 그 어떤 정치적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되고 박해를 받으면 결코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없다. 물질생활이 주로 사람의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라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생활은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생활

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면 자연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도 잘할수 없다.

이로부터 자연의 주인으로 되는것보다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것이 더 중요하며 따라서 사람은 값높은 삶을 누리기 위하여 사회정치조직의 성원으로서 정치생활을 하여야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하는것이다.

참다운 자주적생활은 또한 사람이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된 생활이다. 사람이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자기자신의 모든 활동을 스스로 주인답게 조절통제해나가는것이다. 물욕이나 육체적욕망에 사로잡혀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리기심, 출세욕, 명예욕의 낡은 사상 잔재에 물젖은 생활을 하는것은 자주적인 생활인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욕망에 얽매인 노예적생활인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것은 결국 자기자신의 참된 주인이 되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그 내용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의 주인으로 되는것과 육체적생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과 육체적생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은 높은 자주적사상의식과 함께 창조적인 능력을 전면적으로 다 가져야 자기의 모든 활동을 높은 수준에서 조절할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자기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생활을 할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기어이 완수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해나가는 생활이야말로 가장 자주적인 생활로 되는것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다음으로 사람들의 리상적이며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은 창조적인 생활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창조적생활은 인간의 본질적속성의 하나인 창조성에 맞는 참된 생활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근심걱정없이 살아나가는것만을 리상으로, 행복으로 여기는것이 아니라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데서도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창조적생활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면서 발전해나가는 생활이다. 사회적으로 억압이 없고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새로운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참된 삶의 보람을 느낄수 없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며 따라서 이 높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창조적힘을 다 발휘할뿐아니라 자신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창조적투쟁을 널리 벌려나가야 한다. 창조와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욕망의 충족이란 건전한것이 못되며 아무리 훌륭한 조건에서 같은 욕망을 반복하여 충족시킨다 해도 생활에서 전진과 발전이 없다면 아무런 긍지와 보람도 느낄수 없게 되고 오히려 권태감만 가지게 된다.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쁨만 알고 창조적활동에서 오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생활의 참된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창조적투쟁에 바쳐진 삶이 몇배나 더 귀중한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쟁이 행복이라고 하는것도 그 참된 뜻은 투쟁을 통해서만 창조적생활이 보장되고 사람들이 보다 힘있는 존재로 되며 더 높이 발전하려는 보람을 느낄수 있다는데 있다.

창조적생활은 전진이 없는 생활, 침체한 생활, 놀고먹는 생활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는 결코 놀고먹는 사회가 아니라 창조적로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꽃피워나가는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로동의 창조적성격은 비상히 증대되고

로동이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적요구로, 기쁨으로 되기때문에 사람들은 로동에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수많이 배출되고있는 로력혁신자들과 숨은 노력가들, 숨은 공로자들을 비롯하여 참다운 생활의 창조자들은 그 어떤 보수나 평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창조적로동의 생활자체에서 끝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기때문에 끊임없는 창조적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굳게 결합되여 화목하게 살아나가는 집단주의적생활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집단주의적생활은 인간이 사회적존재라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참된 생활이다. 집단주의적생활은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생활이다. 인간은 집단을 위해 일하고 집단속에서 사랑받으며 자기자신이 집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것을 자각할 때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생활할뿐아니라 집단의 한성원으로 되여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면서 살것을 바란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보다 더 고통스러운것은 없으며 고립감보다 더 불안스러운것은 없다. 리기주의자들은 오직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탓으로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자기의 생활을 비인간적인 동물의 수준에로 저락시킨다.

집단주의적생활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다.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적집단으로 결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뉴대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사상감정이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데서 자기 개인의 유한한 생명이 집단의 영원한 생명과 결부되어있다는것을 알며 여기에서 끝없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참다운 공고한 사랑으로 되자면 그것이 혁명적인 동지적사랑으로 되여야 한다. 집단주의적생활은 동지적사랑속에서 사는 생활이다.

혁명동지의 사랑은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 사랑이며 생사고락, 운명을 같이하는 고상한 사랑이다. 혁명적동지애는 단순한 우정이나 혈연적인 뉴대에 기초한 인간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참된 사랑이다.

혁명적동지애는 인간에 대한 사랑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처자의 곁을 떠나서 혁명을 할수 있지만 동지의 곁을 떠나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가에게 있어서 서로 동지적으로 사랑하면서 싸워나가는것이 가장 귀중하며 그렇게 하여야만 혁명을 끝까지 할수 있는것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혁명적수령관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인생관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혁명의 길에 나선 혁명가는 자기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일생을 가식과 변심이 없이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여야 한생을 참된 삶으로 빛내일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밝혀준다.

수령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며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는 은인이다. 육체적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이 준다. 수령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량식을 준다. 수령은 또한 혁명조직을 결성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준다. 수령을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수령께 충성다하는것은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응당한 도리이며 또 그렇게 했을 때에만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숭고한

사상관점과 태도는 조선혁명의 려명기부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혁명적인생관의 초석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선렬들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혈전만리, 총검의 숲을 헤치며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은것이나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서 이름떨친 로력혁신자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으로 싸워이긴 인민군용사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킨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들 그리고 오늘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떨친 숨은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은것은 혁명적수령관을 깊이 간직하였기때문이다.

주체의 인생관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혁명투쟁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주체의 인생관이 창시됨으로써 무엇보다먼저 철학에서 또하나의 새 경지가 빛나게 개척되게 되였다. 이때까지 철학의 대상과 구성내용이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여야 할 철학의 사명에 맞게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었으며 철학에서 세계관과 인생관이 통일적으로 고찰되지 못하였다.

어떤 철학가들은 철학을 《존재에 관한 학》 또는 《인식에 관한 학》으로만 여겼고 어떤 철학가들은 《인생에 관한 학》으로만 보려고 하였다. 세계관이 인생관과 떨어져서는 그자체로써 인간의 운명개척에 도움을 옳바로 줄수 없으며 인생관이 세계관과 유리되여서는 인간의 운명개척에 지침을 주는 옳바른 인생관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주체의 인생관이 창시됨으로써 세계와 인생에 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이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따라서 주체철학은 세계관, 사회력사관과 함께 인생관을 다 포괄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으로 되게 되였다.

주체의 인생관의 창시가 가지는 의의는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속에서 보람있게 사는 길을 뚜렷하게 밝혀주었다는데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는가에 의하여 크게 규정된다. 특히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에 와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는 인생관을 확립하는 문제는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의 인생관을 창시하시고 세계화하심으로써 이 시대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삶의 최상의 리상과 목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모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삶의 리상과 목표는 가장 숭고하고 자랑찬것이며 그보다 더 큰 빛나는 삶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주체의 인생관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당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봉사혁명의 근본요구

한 학 초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의 옹호자이며 그 대표자인 우리 당은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고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여러가지 생활상 편의를 적극 도모하기 위한 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봉사혁명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인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습니다.》(《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단행본, 26페지)

봉사혁명을 적극 벌리는것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이러한 행복한 생활은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과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인민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추진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강화되고 물질적부가 증대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해주자면 여러가지 소비품을 질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동시에 생산된 물질적부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충분히 향유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잘 보장하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봉사사업은 바로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봉사사업을 적극 개선해나갈 때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문제를 더 잘 풀어나갈수 있다.

당의 의도에 맞게 봉사혁명을 일으켜 봉사망들을 잘 꾸리고 상품공급과 사회급양, 편의봉사 사업을 개선해나가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필요한 상품들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받을수 있게 되며 자기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갈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품의 가공과 수리수선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제때에 더 잘 해결해줄수 있다.

이 모든것은 봉사혁명을 다그쳐 봉사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정서적인 생활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주며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봉사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은 이 부문 일군들이 높은 당성, 인민성을 가지고 투쟁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으며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509페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혁명정신이며 사상정신적풍모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당과 인민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간주하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높은 당성, 인민성을 지녀야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높은 당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봉사부문 일군들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봉사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당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이 봉사혁명의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봉사혁명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관련되여 있다.

봉사혁명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당의 일관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과 그들의 생활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풀어나가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며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고있다.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사업을 설계하는데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지향과 념원을 철저히 반영하고 그것을 더 잘 풀어나가겠는가 하는것을 출발점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진리로,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기에서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과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그러므로 봉사부문 일군들은 당의 이 숭고한 사명을 심장으로 받들고 당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봉사혁명에서 끊임없는 전환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당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일군들이 당이 제시한 봉사혁명방침을 힘있게 관철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봉사부문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봉사사업이 공업이나 농업 등 다른 부문에서 생산된 소비품들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켜주는 사업이라는 특성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봉사일군들은 사회의 물질적부의 직접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생산된 소비품을 보장받아 주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고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 인민의 봉사자들이다.

봉사사업은 상품공급과 사회급양, 편의봉사망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모든 문제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잘 꾸리고 봉사조직과 봉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면 근로자들은 질높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보장받게 되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보

람과 궁지를 더욱 가슴뜨겁게 간직하게 된다.

봉사사업은 이처럼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일군들에게 특별히 높은 당적책임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요구한다. 당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이와 같이 봉사사업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요구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이와 함께 봉사일군들속에서 당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힘을 넣어 봉사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봉사혁명을 적극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이 부문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성, 인민성이 높은 일군들만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풀어나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다.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이 높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이미 마련된 생활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지 않으며 봉사사업을 책임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없다. 경험은 일군들이 높은 당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사업에서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봉사부문 일군들은 높은 당성, 인민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봉사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봉사부문 일군들의 당성,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봉사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헌신적인 립장과 태도에서 표현된다.

봉사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가 하는것은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이 부문 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당의 봉사혁명방침을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봉사부문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전천군상업관리소의 경험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일념을 안고 당의 봉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얼마나 큰일을 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각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꽃피우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실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들은 당의 봉사혁명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건평 3,100평방메터의 2층짜리 해리서우리 6동을 건설하고 읍에서 15리나 떨어진 산등판에 100여정보의 먹이기지를 조성하여놓았다. 지난해에는 정보마다에 70여톤의 거름을 내여 정보당 10톤이상의 강냉이를 수확하였고 2,000여매의 해리서털가죽과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이곳 상업관리소의 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근 30톤의 나무당액을 채취하여 그것으로 단묵과 단물, 과자를 만들어 군안의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과 렬차려행자들에게 공급하였으며 수백톤의 산나물을 뜯고 유휴자재를 재생리용하여 인민생활에 큰 보탬을 주었다.

높은 당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의 봉사혁명방침을 근기있게 관철하여 인민

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실례는 그밖에도 신의주시상업관리소 방직상점, 평양시 보통강구역급양관리소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일군들의 사업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봉사부문 일군들의 당성, 인민성은 또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일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투쟁해나가는것은 높은 당성, 인민성과 창조적기백을 지닌 일군들의 일본새이다. 일군들은 이러한 일본새를 가져야 사업을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있으며 난관을 뚫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일군은 당에서 하나를 포치하면 그에 기초하여 모든 예비를 동원하여 열가지, 스무가지 일을 펼쳐나가며 일을 모가 나게 해제낀다.

특히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것은 봉사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되며 그것은 이 부문 일군들의 당성, 인민성의 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된다. 당성, 인민성이 높고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일군들은 지방의 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있다.

봉사부문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며 지방의 온갖 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때 얼마나 보람있는 일을 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성천군 음식료품상점과 개천군상업관리소 탄광설비보수사업소 상점일군들의 경험에서 찾아볼수 있다.

성천군 음식료품상점일군들은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함으로써 1984년에 자체로 19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알뜰히 가꾸어 1년 내내 80여종의 식료가공품을 만들어팔았으며 지난해에는 부업반을 조직하여 원료기지를 52정보로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이렇게 되여 이 식료품상점은 식료가공품을 자체로 80여종이나 년중 계속 만들어파는 상점으로 이름이 났다.

개천군상업관리소 탄광설비보수사업소 상점일군들 역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지방의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수백평방메터의 면적을 가진 집짐승우리와 그에 따르는 건물들을 건설하였으며 거기에서 400여마리의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길러 주민들에게 많은 량의 젖과 고기를 생산공급하였다. 그들은 이밖에도 200평방메터의 면적을 가진 온실을 짓고 수백점에 달하는 가구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수백톤의 감자와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과 많은 량의 백도라지를 가공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봉사부문 일군들의 당성, 인민성은 이와 함께 봉사조직과 봉사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여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서 표현된다.

봉사의 질을 높이는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봉사사업은 근로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사업인것으로 하여 그 어느 부문보다도 높은 봉사성과 봉사의 질을 전제로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이며 봉사사업자체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봉사부문 일군들에게 있어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당성, 인민성의 고결한 발현으로 된다. 봉사부문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성, 인민성이 높은 봉사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하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봉

사성을 다하고 편의를 적극 보장해주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본분으로 간주하고 모든것을 다하여 봉사활동을 벌려나간다.

봉사부문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적극 본받아 봉사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봉사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에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봉사망들이 갖추어져 근로자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봉사조직과 봉사방법이 개선되고 봉사업종도 현저히 늘어났으며 거리와 마을, 공원 등 생활환경이 문화적으로 알뜰하게 꾸려졌다. 뿐만아니라 봉사일군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당의 봉사혁명방침을 끝까지 성실하게 관철하려는 일념을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봉사일군들이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환경에 맞게 우리는 봉사혁명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모든 봉사일군들이 높은 당성, 인민성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이다.

봉사혁명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우 복잡하며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봉사일군들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일할 때만이 봉사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으며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당앞에서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당적자각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지고 투쟁한다면 실천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는 더 많은 방대한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여 당의 봉사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다.

봉사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인민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안의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호주이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봉사혁명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높은 당성, 인민성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갈 때 봉사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봉사부문 일군들은 당의 봉사혁명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남포갑문은 당의 원대한 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건설된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

송 억 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서해의 20리 날바다우에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남포갑문을 일떠세웠다.

세계적인 대갑문인 남포갑문의 준공은 우리 당과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위력을 자랑떨치며 빛내이는 대경사이며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포갑문 건설공사는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웅대한 공사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마련하는 보람있는 공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59페지)

자연개조는 사회개조, 인간개조와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으며 국토를 풍요하고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꾸려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은 일찌기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왔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정책의 기초는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연개조사업의 총적 목표와 방향, 방도를 밝혀주며 자연을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도록 튼튼히 담보해준다.

우리 나라에서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 삽을 뜨신 때로부터 시작되여 혁명과 건설의 여러 단계에 걸쳐 힘있게 벌어져왔다.

이번에 건설한 남포갑문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그 위력을 발양하여 일떠세운 대기념비적창조물로서 그 준공은 주체사상의 자랑찬 승리이며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고귀한 결실이다.

갑문건설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남포갑문의 준공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남포갑문의 건설은 우선 서해안지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동강하류지대를 비롯한 그 주변의 서해안일대는 우리 나라의 곡지의 농업지대인 동시에 대규모의 금속, 기계 공장들이 배치되어있는 중요한 공업지구이다. 더우기 이 지내에서는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의 하나인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간석지물문제를 비롯한 서해안일대의 관개용수와 공업용수, 음료수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은 이 지내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남포갑문이 건설된 결과 대동강과 재령강 류역의 농업지대와 공업지대들이 하나의 대운하로 련결되고 대동강이 큰 인공호수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서해안지구의 농경지들과 앞으로 개간할 간석지논들에 물을 충분히 대주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남포시 일대의 논밭들에서 농사를 더욱 안전하게 지으며 이 지대에서 공업용수와 음료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남포갑문의 건설은 나라의 교통운수발전에 새로운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대동강하구에 남포갑문이 건설됨에 따라 대동강과 재령강의 수심이 깊어져 내륙지대의 깊이까지 크고작은 배들이 드나들고 갑문언제우의 철길과 자동차길로 남포시와 황해남도가 대륜환선으로 련결되게 되였다. 이것은 대외무역과 수상운수, 철도와 자동차 운수를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남포갑문의 건설은 대동강에 언제나 맑은 물이 차있어 강연안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대동강류역에서 한재와 홍수의 피해를 영원히 막을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을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개조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다.

실로 남포갑문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변모시킨 위대한 본보기로서 그것을 건설한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자연개조정책의 정당성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남포갑문 건설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갈대만 무성하고 파도소리만 들리던 20리 날바다우에 현대적인 대구조물을 일떠세우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그것은 단순히 강을 막는것이 아니라 강물과 바다물이 잇닿아지는 큰 만을 막아서 갑문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공사였다.

갑문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수십만평방메터의 바다를 둘러막는 류례없이 어려운 가물막이공사를 하고 한 축선상에 수천, 수만톤급의 배들이 통과할수 있는 여러개의 갑실과 수십개의 수문을 가진 대언제를 쌓아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콩크리트를 타입하며 많은 량의 돌과 골재를 채취운반해야 하였다.

뿐만아니라 각종 수리시설과 수천대의 기계설비를 설치하며 그것들을 자동조종지휘할수 있는 원격조종체계를 세워야 할 과업이 나섰다. 이 어렵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 그리하여 수천만년 흐르던 대동강을 수십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대인공호수로 전변시키는 천지개벽을 이룩하였다.

남포갑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예지와 무비의 담력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이다.

20리 날바다를 막는다는것은 환상으로나 생각할수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세찬 파도와 태풍, 해일과 싸우면서 수십메터 깊이의 20리 날바다를 막자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량의 공사를 해야 한다.

이처럼 어렵고 방대한 갑문공사는 인구가 많아서 되는것도 아니며 돈이 많고 자재와 설비가 많아서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사상과 신념, 탁월한 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대기념비적창조물인 남포갑문을 몇해사이에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자연개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대동강을 따라 동서해안을 련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할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일찌기 남포갑문 건설을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파도사나운 배길을 헤치시며 현지에 나오시여 갑문의 위치까지 정해주시였으며 이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건설력사가 알지못하는 독창적인 공법들을 창시하시고 공사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건설전기간 필요한 설비와 자재의 보장대책을 세워주시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남포갑문 건설장을 실무지도하시여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주체의 신념과 담력을 키워주시였으며 갑문을 우리 식의 자랑찬 창조물로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포갑문건설의 시공주가 되시고 건설주가 되시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전당, 전국, 전민이 갑문건설을 강력히 지원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세계적규모의 대갑문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갑문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남포갑문의 건설은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 우리 당의 위력의 불패성에 대한 또하나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남포갑문의 건설은 또한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군인들의 끝없는 충성심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옹호관철하는것은 인민군군인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제일생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과 당이 준 과업이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해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바쳐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철석같은 신념이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자신들에게 어렵고 방대한 남포갑문 건설을 맡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당의 은덕에 끝까지 보답하려는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대자연개조를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남포갑문 건설의 지난 5년간은 중첩되는 난관을 맞받아 몰격전, 결사전을 벌린 총포소리없는 전투의 련속이였으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시위한 나날이였다.

남포갑문 건설에서 발양된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중요한 특질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과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다.

인민군군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병사의 자세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여 맡겨진 갑문건설과업을 제때에 무조건 끝내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데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였으며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 불굴의 투지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인민군군인들이였기에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피해로 가물막이언제의 한쪽에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가슴으로 막아나섰으며 령하 수십도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수작업을 하는것과 같은 어려운 투쟁에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남포갑문 건설과정에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당이 키워준 담력과 불굴의 의지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갔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

로 여러가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150톤급 기중기배를 비롯한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고 하루 최고 2만 1천립방메터의 콩크리트를 친것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함으로써 80년대건설속도, 새로운 《남포갑문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살며 싸웠으며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만을 알았다.

참으로 남포갑문은 총포소리없는 전투에서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이 1211고지, 351고지에서와 같이 간고한 투쟁을 벌려 일떠세운 영웅적기념비이다.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빛나는 남포갑문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건설할수 있는 것이다.

남포갑문은 또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튼튼히 마련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낳은 빛나는 창조물이다.

20리 날바다를 점령하는 남포갑문 건설은 말그대로 세멘트와 철강재로 바다를 가로막는 방대한 공사였으며 수많은 설비와 자재를 요구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였다.

남포갑문 건설자들은 세계적인 대건설공사를 100%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완공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괴뢰도당의 항시적인 침략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회주의건설전투장에 지장을 줌이 없이 수십억딸라에 달하는 자금과 자재, 설비들을 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대갑문을 건설한 이 자랑찬 승리는 우리 당의 자연개조정책의 인민적성격과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일떠세운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제낄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의 튼튼한 사회주의자립경제는 가장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경제이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륭성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담보인것이다.

남포갑문은 또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과 군대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인민과 군대의 통일단결은 혁명군대의 전통적미풍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그들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군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여왔다. 인민들과의 통일단결된 불패의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처럼 어렵던 남포갑문 건설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남포갑문 건설의 전기간 인민들은 군대를 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우며 군인들은 인민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남포갑문 건설을 지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여러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이 갑문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였으며 인민군대의 각급 부대들과 전국의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해외교포들도 갑문을 건설하는 군인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량강도 삼지연군에서 세 자식을 갑문건설장에 보낸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환갑이 넘은 부모들까지 건설장에 와서 몇년을 하루같이 건설자들의 뒤바라지를 해준 이야기며 수십마리의 돼지를 정성들여 길러 남포갑문 건설자들에게 보내준 평안남도 평원군의 한 녀성에 대한 이야기, 17톤의 달래를 캐여 보내준 함경북도안의 주민들의 미거는 인민군군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격동시켰다.

남포갑문 건설과정에 군대와 인민사이에 오고간 군민일치의 정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 속에서만 발양될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였다.

군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성심껏 도와주는 우리 인민의 지성어린 사랑의 손길은 인민군군인들의 가슴속에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 투쟁하는 보람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창조와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육친의 정으로 자신들을 그토록 따뜻이 보살펴주는 인민들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건설의 영웅, 창조의 영웅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참으로 남포갑문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위대한 인민과 군대, 튼튼한 자립경제가 있음으로 하여 일떠세울수 있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지난 기간 평양시 건설을 비롯한 도시건설과 2.8비날론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2.8세멘트공장 등 여러 산업건설을 말아 빛나게 완공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남포갑문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으며 그들로부터 더욱 두터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에 따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실현하며 경제발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다그쳐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야 한다.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계속 힘있게 도와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전선을 한몫 맡아하고 있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조국보위는 우리 인민군대의 기본임무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인민군대앞에는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는것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인민군군인들은 혁명군대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함으로써 적들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킬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언제나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조국보위의 기본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남포갑문을 건설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우리 당의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간석지건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금강산발전소 건설, 소금밭건설, 사리원카리비료공장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중요한 대상건설을 말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당의 군대인 인민군대의 생명이다.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며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방패가 되고 성새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당의 명령, 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인민군대앞에 나선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것이다.

기술혁명은 경공업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김 숙 정

경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이다.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5~6폐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이며 경공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소비품의 기술경제적특성과 그 수요구조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인민소비품은 근로자들의 필수적생활수단으로서 가지수가 많고 량적수요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있다. 소비품의 가지수는 용도와 형태, 색갈, 문양, 맛, 재질 등에 의하여 수많은 종류로 나눌수 있으며 그 수요는 계층과 년령, 지역, 계절에 따라 각이하게 제기된다. 소비품의 리용범위는 모든 지역, 모든 주민들을 포괄하고있으며 그것에 대한 소비적수요는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품의 기술경제적특성과 수요구조의 다양성으로 하여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생산능력을 계속 조성하면서 현존 경공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이미 있는 생산시설과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원료와 연료, 동력의 보장조건을 개선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인민소비품은 가지수와 량적수요가 많을뿐아니라 그 질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다.

인민소비품은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 리용되는 수단이므로 그 질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높은 질이 보장된 소비품이라야 근로자들의 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인민소비품의 질적수준은 제품의 유용성정도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속성들에 의하여 규제되며 이러한 질적특성은 생산공정의 기술수준과 완비정도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인민소비품생산공정이 기술공정으로 전환된 조건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생산

공정의 기술장비수준을 제고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능력을 높이고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할뿐아니라 생산공정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의 경제적특성을 옳게 살려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자면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 경공업발전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요구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경공업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건설되고 많은 난관을 헤치며 발전하여왔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해방전 우리 나라 경공업은 그 토대가 매우 미약하였으며 거의 수공업적생산에 의거했다.

해방후에야 비로소 자체의 경공업을 창설하는데 착수하였으나 그나마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우리는 정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빈터우에서 령으로부터 현대적경공업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경공업이 수백년을 헤아리는 현대적경공업발전력사에 비해볼 때 너무도 짧은 력사적과정을 거쳐왔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현대적경공업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였으나 원래 발전력사가 짧은 우리의 경공업을 새로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기술혁명은 현시기 지방공업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공업정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는 방대한 규모의 소비품생산능력이 마련되여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와 1962년 8월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1970년 2월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가 있은 이후 시기에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우리 나라의 군마다에 평균 18개 이상의 지방산업공장이 일떠섰으며 그것은 전반적인민소비품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건설된 지방산업공장들의 기계설비들을 보다 현대화하고 생산기술공정을 더욱 완비하여 그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한다면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오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경공업을 새로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며 날로 높아가는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기술혁명방침을 힘있게 관철하여옴으로써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비상히 강화하고 인민소비품생산수준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릴수 있었다. 최근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는 비날론으로 고급양복천을 짤수 있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체의 섬유원료에 의거하여 질좋은 천을 많이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평양종합방직공장과 함흥모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가 적극 다그쳐져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다. 지방들에 전개되여있는 직물공장과 편직공장, 식료가공공장들과 철제일용품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 시설과 설비들이 더욱더 현대적으로 개조되고 생산

의 전후처리가공공정들이 개선됨으로써 그 기술장비수준과 생산성이 현저히 높아졌다.

경공업부문의 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경공업부문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회기적전환을 가져와야 할 보람찬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기술혁명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6폐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경공업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는것은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기술혁명과업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원료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은 경공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천과 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야 경공업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소비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비날론을 비롯한 우리 나라 섬유원료에 의거하여 고급양복천과 와이샤쯔천, 내의류와 같은 질좋은 천들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자체의 원료로 사탕과 기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효소생산기지를 꾸려 원료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힘을 넣는 한편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강냉이변성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강냉이식료가공품의 질을 한계단 더 높여나가야 한다. 일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일용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우리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원만히 해결하며 가소제를 비롯한 수입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염화비닐을 개질하여 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서 적극 발전시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계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것이 중요하다.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여야 생산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고 경공업제품의 질적수준을 개선할수 있으며 물자소비기준과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어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최근 개성방직공장에서는 방직설비를 현대화, 고속도화하여 직기의 회전수를 높이고 정방기의 가락회전수를 그전에 비해 3,000회전이나 더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지난 기간 방직설비들을 현대화, 고속도화하는데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정방기와 생산설비들의 회전수를 계속 높이면서 현대적추세에 맞게 공기정방기와 철편직기 등을 적극 받아들이며 현대적인 식료가공설비들과 포장설비들을 더 많이 갖추는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이와 함께 신발과 일용품 생산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정밀화, 자동화, 로보트화

하는 사업도 적극 다그쳐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현대화된 기술수단이 자기 능력을 다 내게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기술공학을 발전시켜 방직공정을 비롯한 전반적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산업텔레비죤화, 원격조종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적용하고있는 생산방법을 현대 과학과 기술이 이룩한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검토분석하고 새로운 최량화된 가공방법을 확정하여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생산공정과 기술준비에 현대적인 계산수단과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 생산에서 계량계측제도를 강화하며 경영활동전반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경공업부문앞에 나선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이 부문 일군들이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는 일군들자신이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일수 있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과학기술발전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할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기술혁명이 우리 당의 중요한 전략적로선이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현시기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여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며 기술혁명에 제동기를 거는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에 대해서는 제때에 타격을 가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앞에 나선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낡은 기술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일군들의 주관적욕망과 열성만으로써는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더우기 생산의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특정된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 풀수는 없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 그러한것처럼 기술혁명도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고 광범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동원할때 원만히 수행될수 있는것이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기술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며 기술혁신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과학기술행정사업전반에 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과 함께 대중속에서 제기되는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지지해주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높은 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양하

여 기술혁신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으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경공업부문앞에 나선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명수행에서 핵심적위치에 있는 나라의 귀중한 인재들이다. 기술혁명의 성과여부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지금 우리 경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크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훌륭한 과학기술적성과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오직 한마음을 안고 경공업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경공업발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라면 어떤 난관과 애로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풀어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과학기술간부양성기관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경공업부문앞에 나선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생산에 전자계산기와 산업로보트를 비롯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이 널리 도입되고있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고 최신과학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줄 아는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더 잘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낼 임무를 지니고있는 과학기술간부양성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경공업발전에서 제기되는 기술인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그들이 기술혁명수행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공업대학을 비롯한 과학기술간부양성기관들에서는 정치사상교육과 함께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강령과 교육내용을 잘 편성하고 우리 나라 현실과 세계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며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잘 키워내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은 기술혁명수행에서 지닌 자기의 숭고한 의무와 책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경공업을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은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의 힘있는 수단

리 태 수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사람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잇닿아있다. 조국이 있어야 사람의 운명이 개척될수 있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 꽃펴날수 있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유명, 무명의 문사들이 붓끝을 모아 조국을 노래하였고 영용무쌍한 무사들이 총칼을 비껴들고 조국의 촌토를 지켜 피흘려싸웠던것이다.

조국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조국에 대한 사람들의 그토록 강렬한 사랑의 감정은 저절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조국을 알고 조국의 귀중함을 절감할 때라야만 더욱 높이 지니게 되는것이다. 애국심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이다. 애국심은 인간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중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되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이다.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여나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우리 인민이 지녀야 할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바로 이 참다운 어머니조국,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며 그것은 조국에 대한 교양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사람들속에서 조국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담보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마련되였는가를 인식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조국을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할수 있다.

우리 당은 조국에 대한 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제기하고 이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우리 당은 특히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에 대한 교양을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많이 하여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싸워나가게 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조국에 대한 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진행하는데서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이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문학예술의 미학적특성과 관련되여있다.

문학예술은 추상적인 론리가 아니라

생활 그대로의 형식,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듯이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현실에서 보는바와같이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구체적이고 생동한 개성으로서의 산 인간의 모습과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생활이 그대로 펼쳐지는것이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바로 생동하게 그려진 다양하고도 풍부한 생활속에서 조국과 관련되여있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며 그러한 생활과정에 인간들이 체험하게 되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공감과 반감 등 다양하고 섬세한 인간의 감정과 정서, 풍부한 내면세계를 심오하게 밝혀내는것이다. 이러한 형상적특성으로 하여 조국에 대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에 강렬하게 작용하며 사람들을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한 조국에 대한 깨끗하고 고상한 감정세계에로 이끌어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한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을 지니고 조국을 사랑하며 그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한다. 이리하여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의 정신생활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특별히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보급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13도자랑》, 《사향가》를 비롯한 혁명적작품들에 깃든 감명깊은 이야기들은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애국주의교양에서 얼마나 위력한 감화력을 발휘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원들에게 자주 들려주신 《사향가》는 그들로 하여금 그윽한 정서속에서 조국과 고향산천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사랑하는 조국과 부모처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광복성전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하였다.

조국을 칭송한 시와 노래, 문학예술작품들은 해방후 우리 인민을 새 조국건설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찬가를 높이 부르면서 새조선건설에 떨쳐나섰고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조국의 촌토를 지켜싸웠으며 전후 파괴된 공장과 농촌을 복구하고 천리마진군을 벌려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에 대한 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일찍부터 조국에 대한 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돌리도록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지난 시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작가, 예술인들은 노래《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서정시《나의 조국》등 조국에 대한 주제의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시창작리론을 구현하여 창작된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을 주제로 한 대표작의 하나이다. 시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광범한 근로자들을 감동시켰으며 오늘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하게 하는 혁명정신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찌릿이 젖어드는것이냐
…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오랜 세월 망국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우리 인민은 조국의 귀중함을 잘 알고있으며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며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주체의 조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심장깊이 체득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곡절많던 지난날의 생활을 끝장내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사는 과정을 통하여 조국이란 곧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라는 개념이 생활적으로 공고히 형성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자랑높은 민족적긍지와 철석같은 신념의 정신적원천을 이루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과 하나로 융합되여있으며 생활에서 가장 크고 가치있는 주도적감정으로 되고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를 지켜싸운 인민군용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통하여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한몸바쳐나서는것보다 더 값높고 빛나는 삶은 없다는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이와 함께 영화는 오늘의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 인민의 락원이 어떤 비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졌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있다. 이리하여 영화는 근로자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워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한다.

이밖에도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등 혁명적가요들도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애국적감정을 뜨겁게 울려주고 그들을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이렇듯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은 자체의 미학정서적특성으로 하여 사람들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킬뿐아니라 그들을 오늘의 행복은 물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담보하여주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보람차게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오늘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주체의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앞으로도 조국에 대한 시와 노래, 소설, 영화를 많이 창작하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 목적도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부강발전시켜나가도록 하자는데 있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며 조국에 이바지한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어머니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말할수 없다.

조국을 사랑하고 빛내여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조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는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수없이 많다. 우리 나라는 경치도 아름답고 땅속에 자원도 많아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세상에 이름높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는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으며 조국땅 이르는곳마다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 더욱 살기좋고 문명하고 아름다운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 그러므로 조국을 칭송하는 문학예술작품들에서 근로자들이 조국을 잘 알고 열렬히 사랑하도록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자원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깊이있게 그려내며 조국의 우수한 모든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문학예술작품이라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울줄 알뿐아니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을 키워나가게 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성은 우리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조국에 대한 교양에서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하였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본받아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참된 교과서로 된다.

조국에 대한 작품에서 또한 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조국강토에 꽃피우기 위하여 한생을 말없이 바치고있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문학예술은 마땅히 우리 시대의 이러한 애국자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명예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보건 말건 오직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싸워나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열렬한 애국자가 아닌 작가, 예술인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국에 대한 참된 작품을 쓸수 없다. 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적감정을 가진 작가만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충만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는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아는것만큼 표현한다. 그렇기때문에 작품의 철학적깊이도 작가가 얼마만큼 준비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이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며 조국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준비되여있어야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적경향과 부르죠아반동문화조류의 침습을 막아내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수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그것을 뿌리로 하여 창건되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류 재 명

오늘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개선하며 빨리 발전하는 경공업에 원료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다 고기를 먹을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27페지)

축산업은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부문이다. 알곡생산과 함께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여러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근로자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으며 경공업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축산업발전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매 시기 정확한 축산정책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축산업발전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책적요구의 하나는 국영축산업과 농업협동경리의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장원들의 부업축산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다.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배합할데 대한 당의 이 방침은 축산업을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축산물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지난 기간 증산군당위원회는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적극 이끌어왔다. 특히 우리는 군중적운동으로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관철하는데 큰 힘을 넣음으로써 축산업발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에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는 합리적인 종축체계가 서있으며 비알곡먹이에 의거하여 축산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우리 군에서는 또한 집짐승을 기르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서뿐아니라 농촌세대들에서 집짐승을 많이 길러 고기생산을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군소재지로부터 리에 이르는 모든 식료상점과 직매점들에 랭장시설을 갖추어놓고 군안의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고기를 공급해줄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 당의 축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축산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였다.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조직들이 축산에 관심을 돌리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을 다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는 당조직들은 마땅히 축산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조직들이 축산업발전에 낯을 돌리며 축산문제를 책임지는

립장에서 풀어나갈 때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군중적으로 집짐승을 많이 길러 고기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기 시작한 때였다. 우리는 군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협동농장 작업반과 농민세대들에서 집짐승을 많이 길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벌방지대인 증산군에서는 알곡생산만 잘하면 맡은 임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집짐승을 기르는 일에 별로 큰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었다. 이렇게 축산문제해결에 관심이 적은 단위들에서는 자체로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한 투쟁을 의도적으로 짜고들지 못한것은 물론 이미 있는 축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내밀지 못하였다.

우리는 축산문제를 성과적으로 푸는 기본고리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지게 하는데 있다는것을 포착하고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집짐승기르기에서 앞서나가고있는 문동리와 립성리, 청산리의 당조직들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적극 소개선전하였다. 우리는 이와 함께 책임일군으로부터 지도원에 이르는 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의 가정에서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이것은 군중적운동으로 축산을 추켜세워나가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며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우리는 매 단위의 집짐승기르기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당적으로 엄격히 총화하였으며 조직부와 선전부가 힘을 합쳐 아래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축산정책 관철정형과 결부하여 조직생활지도와 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직부와 선전부의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면 의례히 축산문제를 알아보고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함께 해결방도를 찾았으며 정치사업방법으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군당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한 결과 모든 당일군들이 축산을 자신들이 주인이 되여 수행해야 할 책임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게 되였으며 온 군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집짐승을 기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당조직들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축산업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줄 때 당의 축산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집짐승기르는 사업을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지도하는데 모를 박았다.

무슨 일이나 일반적인 강조와 호소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한 사업이라도 일반적인 포치에 구체적인 방법론적지도를 따라세우지 않게 되면 대중을 납득시키고 동원할수 없으며 알찬 열매를 거둘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종축체계를 세우고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도해나가는 과정에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군중적으로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선 문제는 종축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이였다. 그러나 군에서 가지고있던 종축토대만으로써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새끼집짐승을 보장하는것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만 생각하면서 집짐승기르기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였다.

군당위원회는 종축문제를 풀기 위하여 협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도 하였지만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회의나 강조만으로는 새끼집짐승을 생산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는 교훈을 찾은 군당위원회는 종축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갔다. 우리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동하여 협동농장들의 새끼집짐승생산과 그 공급정형을 따져보도록 하였다. 료해한데 의하면 협동농장종축작업반에서 생산한 새끼집짐승으로는 농가들에 평균 한마리 정도밖에 줄수 없다는것이 명백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무턱대고 새끼집짐승을 내여 농가마다 기르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일이 제대로 될수는 없었다. 문제해결의 중요한 고리는 대중을 실제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쥐는데 있었다.

우리는 새끼집짐승을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 군중들과 의논한 결과 종축작업반과 작업반 비육분조에서뿐아니라 농장원 7~10세대당 한집씩 종축을 기르게 하는 식으로 종축체계를 세워놓으면 한해에 농가마다 두세마리의 집짐승을 키울수 있다는 타산을 가지고 먼저 청산협동농장 살막산부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방식상학을 조직하여 일군들에게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는 협동농장관리위원회들에서 새끼집짐승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어미집짐승을 맡아 기르는 농민세대들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농민세대들로 하여금 높은 의욕을 가지고 새끼집짐승생산을 적극 늘여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읍가두인민반들에서도 가내종축반을 꾸리고 기관, 기업소들에도 일정한 마리수의 종축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로동자, 사무원 7~10세대가운데서 한집씩 종축을 두고 새끼집짐승을 생산하여 다른 세대들에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종축체계를 세우고 새끼집짐승생산을 늘임으로써 개인세대들에서 생산하는 새끼집짐승만 하여도 군적으로 한해에 수천마리가 넘게 되였다.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기된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그 성과가 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실천적으로는 많은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것은 오직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때만이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도록 적극 이끌었다. 사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과정에 우리는 이러한 투쟁기풍을 세워나감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처음 지방에 흔한 풀로 집짐승먹이를 해결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신심을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없지 않았다.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이러한 현상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부족하고 알곡먹이에 의존하여 돼지를 기르던 낡은 방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서 나온것이라는것을 알게 된 군당위원회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지시를 해설침투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이와 함께 우리는 강냉이짚, 콩짚, 호박은 물론 독풀을 제외한 모든 풀을 먹이로 리용하여 많은 집짐승을 길러낸 문동리의 한 농장원세대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먹이가 걸려 집짐승기르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자연먹이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돼지를 많이 기를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사료문제를 풀려는 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 읍가두인민반을 동원하여 집주변과 집짐승우리주변, 길섶과 물길뚝, 산기슭 등에 호박굴, 호박산을 조성하고 빈땅을 찾아 단백질먹이작물들을 대대적으로 심도록 하였으며 논밭 앞뒤그루로 보리, 뚝감자, 무우를 비롯한 여러가지 작물들을 가꾸도록 하였다. 우리는 자체의 먹이기지를 마련하는 한편 풀절임을 하는 방법, 마른풀을 가루내여 먹이는 방법, 벼겨를 볶아서 풀사료와 섞어먹이는 방법 등 합리적인 먹이가공방법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행정경제기관들을 발동하여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 공기식사료분쇄기를 만들어 설치하게 하였다.

이렇게 군당위원회가 자체의 힘으로 먹이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적으로 떠밀어줌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군사업을 책임진 일군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훌륭하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더욱 깊이 체득한 문제의 하나이다.

칡산을 조성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었을 때 사람들은 증산군의 벌방지대 협동농장들에는 칡산을 만들만한 적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군당의 책임일군들은 칡산 적지가 없다는 사천리에서 먼저 본보기를 창조한 다음 그것을 온 군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사천협동농장마을의 뒤산을 밟아도보고 기술자들과 만나 의논도 하면서 해결방도를 찾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함종협동농장 매압산골짜기에 들어가 캐온 수십개의 칡뿌리를 사천리에 가지고나가 그곳 일군들과 함께 농장림에 심었다. 군당책임일군들의 이러한 행동은 적지가 없다고 하는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고 칡산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사천땅에 6정보의 칡산이 생겨나게 되였고 그것은 군적으로 100정보에 이르게 되였다.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할 군의 책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머리를 쓰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들은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주민세대들에 고기를 계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월별, 세대별 고기공급일람표도 만들어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소한 추위때의 얼음으로 7～8월 무더위에서도 고기를 저장해놓고 정상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랭장시설도 갖추게 하였다. 어느 리에서나 인민들이 편리하게 리용하고있는 농장직매점들도 모든 협동농장마다에 규모있게 꾸려져있는 양어장들도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를 쓰는 남다른 노력이 없이는 마련될수 없다. 경험은 일군들의 이신작칙하는 사업작풍이야말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며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의 의도에 맞게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군당위원회가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에 이루된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축산업발전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김 종 순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것은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모든 활동을 벌리며 그 활동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합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2페지)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며 생산발전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가운데서 규제적역할을 한다. 생산에 대한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구체적으로 생산의욕에서 나타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생산의욕에는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물질적부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반영되여있다. 근로자들은 생산의욕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같은 자재와 설비를 가지고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

평양시 지방공업총국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로 하여금 당조직정치사업을 하거나 행정실무적인 사업을 하거나 후방조건을 보장할 때 언제나 생산에서 근로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로 지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총국이 련합기업소형태로 새로 개편된 이후 수도시민들의 소비품생산을 위한 기술적토대를 꾸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수도시민들의 생활향상에 필요한 식료품들과 갖가지 일용필수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수 있었다.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총국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생산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정치적자각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착취와 압박이 청산되고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합법칙적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라 하여 근로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산에서 높은 열의를 끊임없이 다 발휘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과도적성격에 맞게 나라와 자신의 살림살이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총국당위원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도록 하였다. 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얼마나 높였는가에 따라 그들의 사업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든 당일군들로 하여금 한두개 단위를 고정담당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 경험과 시범을 창조하도록 하면서 정치사

업이 잘되고있는 단위의 경험들을 총국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일반화하였다.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당정치사업에서 중요한 경험은 재일녀성애국어린이편직선물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공장 초급당비서를 비롯하여 당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서 어린이들의 입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혁명적열의를 금임없이 높이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벌리였다. 그들은 주체사상학습이나 당정책학습, 혁명전통학습을 언제나 생산에서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으며 당의 은덕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사상사업을 벌릴때마다 이 사업을 생산과제수행에서 혁명적열의를 높이도록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상급당에서 내려온 정치사상교양자료들도 자체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종업원들속에 침투시켰다. 그리고 학습경연과 예술써클, 혁명영화실효모임, 사회주의경쟁총화나 《8월3일인민소비품》현상모집사업, 생산실적통보사업, 여러가지 표창사업 등을 종업원들로 하여금 온갖 잡념을 없애고 더 좋은 옷감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해서만 늘 생각하도록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언제나 생산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갈수 있었으며 지난 12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매해 초과수행할수 있었다.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정치사업형태의 하나는 경제선동이다. 대중은 당의 방침을 론리적인 방법으로 그 진리성을 파악할수 있고 생동한 사실을 통한 직관적방법에 의하여 공감되고 감동된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감동시켜 행동에로 일떠세우기 위한 힘있는 경제선동을 들이대야 한다.

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경제선동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것을 일시적인 깜빠니야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는 경제선동에서 형식주의를 깨고 그것이 환경과 조건, 대중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참신하고 실속있는 것으로 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총국아래 많은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요구대로 경제선동을 감화력있게 할수 있었다.

평양영예군인원주필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영예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와 결부시켜 경제선동을 출근길환영과 작업현장선동을 비롯하여 온갖 방법과 계기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집단안에 높은 생산적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혁명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원주필생산에 필요한 화학원료와 자재를 생산할수 있게 하는 화학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원료의 50% 이상을 자체로 해결한 이 공장 종업원들의 로력적위훈은 어머니당의 은덕에 대한 교양사업을 힘있는 경제선동의 형식으로 꾸준히 진행한 결과이다.

당조직들이 생산성과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내세워주는것은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였다는 정치적평가보다 더 큰 영예는 없으며 그것은 그 어떤 자극에도 비길수 없이 강유력한 정치도덕적자극으로 된다.

총국당위원회는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발휘한 긍정적모범을 찾아내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로력혁신자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는 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돌리고 힘을 넣은것은 그 어떤 공명도 바람이 없이 누가 보건 말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나가는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이였다. 평양맛내기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이에 대한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는데서 사람들의 행동을 깊이 분석연구하여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순간적인 흥분이나 공명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일해나가는 사람들을 옳게 찾아내고 응당하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중들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싹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제때에 내세워주고 그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갔다. 초급당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20여년간 맛내기공업을 주체화하는데 모든 정열을 바친 녀성기술자와 장공업의 자동화를 실현하며 저열탄을 쓸수 있도록 보이라를 개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고급기능공들, 2~3년동안에 혼자서 10여건씩이나 창의고안을 한 기술자 등 수많은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낳게 하고 그것을 일반화할수 있었다.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총국당위원회는 또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로동이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 근로자들이 물질적관심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정치사업 하나만으로는 그들의 생산의욕을 끊임없이 높일수 없다.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는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실현하는 기본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로동의 기능수준과 강도에 차이가 있고 사람들의 의식도 공산주의적수준에 이르지 못한것만큼 로동에 의한 분배를 하여야만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있으며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157페지)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를 통하여 사회의 공동재부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자기의 분배몫도 커진다는것을 자각하고 생산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지난 기간 총국당위원회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총국당위원회는 아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독립채산제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그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키는 한편 총국산하 공장, 기업소들이 번것만큼 분배몫이 차례지도록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매개 기업소들이 총국적인 계획실행에 리해관계를 가지도록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을 잘 만들고 그것을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총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양곡산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에 대한 광범한 토론을 여러번 벌리면서 공장의 모든 부문의 실정에 맞게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을 구체적으로 세밀히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산점수속산표, 로동생산능률속산표, 자재절약점수속산표를 만들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일한 정형을 손쉽게 계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당일군들로부터 행정경제일군, 작업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 그것을 실시하는데서 알아야 할 속산표들을 통달하게 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이 공장 종업원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겠는가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총국당위원회는 독립채산제실시에서 이룩된 이러한 긍정적경험들을 일반화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오늘 총국안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독립채산제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총국당위원회는 또한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실제적인 창조적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사람들의 요구는 그들에게 힘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는것처럼 생산을 늘이려는 열의는 창조적힘이 있어야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생산자대중에게서 창조적힘이란 육체적힘과 함께 생산에 대한 지식의 힘, 과학기술의 힘이다.

총국당위원회는 종업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현실적인 생산적힘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전공부문에 대한 기술학습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벌리였다. 당위원회는 대중속에서 창의고안에 대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당면한 생산에만 치우치면서 기술혁신을 홀시하는 현상과 투쟁함으로써 창의고안을 활발히 벌리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특히 우리는 기술자들이 창의고안, 기술혁신에 대한 높은 열의를 가지도록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모든 당일군들이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없다는 옳은 관점을 가지고 기술자들과 오랜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큰 당적관심을 돌리였다.

특히 우리는 기술자들에게서 맺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어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실히 일해온 기술자들과 오랜 기능공들을 장악하여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당의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총국당위원회가 기술자, 기능공들로 하여금 발명과 창의고안, 기술혁신에 대한 높은 의욕을 가지며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최근 6개월동안에만 해도 새로운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이 수백건이나 나오게 되여 올해 상반년에 발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창의고안은 1.5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든 평양맥주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그들의 창조적 의욕과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 기술혁신을 이룩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주관적욕망만으로써는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할수 없으며 높은 생산의욕과 창조적능력이 결합되여야 한다는 옳은 관점을 세우고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분야의 기술을 깊이 연구하며 창의고안과제, 기술혁신과제에 전심전력하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100여명에 달하는 모든 기술자들에게 기술혁신과제를 주고 그들이 그 과제수행을 위하여 인민대학습당과 대학도서관들에 다니며 기술서적과 과학기술통보자료들을 광범히 연구하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세포비서들과 선동원들이 기술학습과 기술혁신에서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기계기사인 초급당비서 자신도 《4.15기술혁신돌격대》대원들과 함께 기술혁신문제에 대하여 늘 사색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현대적인 수관식증유보이라를 창안하는데 직접 참가하여 그것을 제작완성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연유와 로력을 절약하게 하였다.

총국당위원회는 또한 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행정경제사업을 짜고들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앙양된 생산의욕을 실제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는데서 매우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것은 결코 생산력의 다른 구성요소의 역할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재, 원료와 같은 로동대상과 기계, 설비와 같은 생산수단이 보장되여야만 사람들의 생산의욕이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총국당위원회는 행정경제일군들로 하여금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주는것은 대중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옳은 관점을 가지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공장, 기업소 호상간에 맞물려줄것은 빈틈없이 맞물려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그들의 생산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간 경험은 평양도자기공장 사업에서 찾아볼수 있다. 한때 이 공장에서는 도자기생산의 기본원료인 백토보장에서 긴장성이 조성된적이 있었다. 우리는 이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먼 지방에서 날라오던 백토를 자체원료기지에 의거하여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고 앙양된 종업원들의 생산의욕을 계속 견지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자체원료기지를 조성할데 대하여 호소하였고 생산자대중을 원료탐구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 종업원들은 종전보다 거리가 가깝고 중앙에서 공급받은 원료보다 그 품위도 훨씬 높은 새로운 원료원천지를 탐구할수 있게 되였으며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가져다줄수 있었다.

100%의 기본원료를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지난 15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매해 초과수행한 평양학용품공장의 경험도 근로자들의 높은 생산의욕에 생산조건을 따라세워야만 생산에서 큰 은을 나타낼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평양광학유리생산협동조합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풀어주는것이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생산자들의 원료, 자재, 설비 조건들을 풀어주는것과 함께 그들의 문화생활과 휴식, 휴가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거나 생산에서 핵심적역할을 담당하는 일군들과 고급기능공들의 병치료대책을 세워주는 등 그들이 생활상 아무런 불편없이 생산과제수행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당적관심을 돌림으로써 올해 상반년계획을 108%로 초과수행할수 있었다.

지난 기간 총국당위원회가 종업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수도시민들을 위한 소비품생산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갈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총국아래 공장, 기업소에 대한 당적지도를 생산과 밀착시킬수 있도록 총국당위원회를 무어준 당의 조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당의 조치에 의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국당위원회가 구성되여 아래 공장, 기업소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됨으로써 총국 당조직이 정무원들의 당생활만을 책임질뿐아니라 총국아래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형까지 당적으로 책임지고 당사업을 생산과 더욱 밀착시킬수 있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에서 이룩된 우리의 성과는 당의 높은 기대에 비해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시민들을 위한 소비품생산을 책임진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앞에 나선 임무는 매우 무거우며 영예롭다. 우리는 생산자대중을 발동시키는데서 이룩한 긍정적경험들을 총국안의 당조직들에 일반화함으로써 련합기업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수도시민들의 소비품생산을 한계단 높이시려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시며 많은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겠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것은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업

김 수 천

오늘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변된 남조선은 핵전쟁의 위험한 발원지로 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거기에 현대적인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모험적인 새 전쟁, 열핵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다.

미국호전광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매우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날로 커가고있는 핵전쟁위험을 막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켜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무력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철폐시켜야 미제가 이곳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고 군사적침략행위를 감행할수 있는 온갖 요인들을 제거하게 되며 조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과 세계평화위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 *

오늘 지구우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핵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열핵전쟁의 위협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표방하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핵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우위로 대방을 제압하고 세계를 전설하는것》을 미국정책의 《총정치강령》으로 내세우고있는 미제는 방대한 《5대전략무기개발》을 떠들면서 각종 새로운 핵탄두와 운반수단들의 생산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군비경쟁을 우주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그리고 미제는 세계 여러 지역에 그물처럼 늘어놓은 군사기지들을 더욱 늘이고 그것들을 핵기지화하며 여기에 배치된 무력을 핵전쟁을 치를수 있도록 준비시키기에 광분하고있다. 그리하여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려는 인류의 머리우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세계도처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핵전쟁정책에 의하여 온 세계가 평화냐 열핵전쟁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오늘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것은 조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선반도가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가 들어찬 하나의 화약고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여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342페지)

오늘 조선반도는 가장 위험한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정전이래 최고수준에 달하는 방대한 무력을 배치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핵폭탄과 핵포탄, 중성자무기를 비롯한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반입배치되였다. 현재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의 총폭발력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0배에 이르고있다. 핵무기 배비밀도에 있어서도 남조선은 《나토》지역에 비하여 4배나 더 높은 세계 제1의 핵기지로 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에 미국의 악명높은 중성자탄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배비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중성자탄은 세계도처에서 《20세기 악마의 무기》로 소문난 핵무기이다. 지금 미제는 수많은 중성자탄을 남조선에 배치하고 그 발사체계를 완비해나가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전개한 핵폭탄과 핵포탄 등의 운반 및 발사 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있다. 남조선에 있는 미군사기지들에는 《에프—4팬톰》핵적재전투폭격기를 비롯하여 《에프—15》, 《에프—16》기들이 반입되여 상시적인 출동태세를 취하고있으며 155미리곡사포 등 신형포들이 언제든지 핵포탄을 발사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있다.

미제는 또한 핵전쟁도발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각종 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핵전쟁로선에 따라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사용을 위한 《5일전쟁계획》, 《9일단기맹타격전략》, 《3일핵전쟁비상계획》 등 악명높은 핵전쟁계획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핵전쟁계획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완성되고있다. 1976년부터 시작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계단식으로 확대되여 오늘에 와서는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특히 레간행정부는 종전의 《전선방위전략》을 《핵선제타격전략》으로 바꾸고 그것을 심화시키고있다. 올해에 놈들이 감행한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감행한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에는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21만명의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참가하였으며 여기에 《미드웨이》호를 비롯하여 미태평양함대의 핵항공모함들과 핵잠수함, 《비—52》전략폭격기와 《에프—16》, 《에프—111》전투폭격기 그리고 방대한 핵미싸일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였으며 지어 핵폭탄배낭으로 무장한 《푸른베레모》부대까지 참가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년례행사처럼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기습공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라는것은 론박할여지가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는 핵무력증강책동과 핵전쟁연습을 벌리는것과 함께 핵전쟁도발에 대한 폭언들을 로골적으로 하고있다.

1950년에 조선을 세계제패를 위한 《결전의 시험장》으로 정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던 미제는 오늘은 조선반도를 1980년대의 《힘의 대결의 시험장》이라고 하면서 《유사시 조선반도에서의 핵무기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줴치고있다. 그리고 놈들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우세》에 의거하여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오늘 남조선이 미제의 핵폭탄창고로 완전히 전변되였으며 전쟁광신자들이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책

동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일촉즉발의 불씨를 안고있는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할수 없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켜 남조선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과 대량살륙무기들을 철수시키고 남조선이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부터 벗어나야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조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것이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미제가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핵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지역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1권, 52페지)

세계제패를 위한 미제의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핵무기를 휘둘러 세계를 저들의 지배밑에 두려는것이다.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데서 남조선에 큰 군사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핵전략을 실현할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리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괴뢰들은 상전의 그 어떤 강도적요구도 고스란히 받아물고 집행하는 주구이다. 그런것만큼 미제는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남조선에 마음대로 끌어들일수 있다. 그리고 놈들은 10여개 국가와 협의를 거쳐야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는 《나토》의 경우와는 달리 남조선에서는 그 누구의 승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남조선에 배비된 핵무기단추를 누를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가지고있는 이러한 《특권》들은 《핵수행전략》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 《핵선제타격전략》수행의 가장 본질적인 군사적요구를 충족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새세계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은 그 위치로 보아 미제의 주요한 군사전략적거점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은 아세아대륙과 잇닿아있는 미국의 최전방군사기지이며 미제는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남조선을 《미국전략의 제1선》이라고 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새로운 전략핵무기들을 증강배치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단거리핵미싸일뿐아니라 준중거리와 중거리 미싸일 그리고 하나의 미싸일에 여러개의 핵탄두를 설치한 장거리핵미싸일들을 배치하고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는 구실밑에 해마다 여러차례씩 일정한 기간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에 있는 군사기지들로부터 핵무기와 핵장비들을 끌어들이고있다. 한편 미제는 《유사시》 남조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핵적재함선들과 전투폭격기들을 조선반도 주변의 미군기지들에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고있다.

이처럼 미제는 남조선을 주축으로 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전략미싸일들을 대대적으로 배비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중앙아세아지역까지 사정권안에 넣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새세계전쟁으로 확대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저들의 세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거점으로 틀어쥐고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

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긴장상태가 전례없이 격화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오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정당한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평화적제안들을 수많이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부당한 립장과 태도로 하여 우리가 내놓은 평화제안들은 그 어느 하나도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을 완화하고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고있다.

최근에 조선반도에서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는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우리가 내놓은 군사당국자회담제안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직접적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해결할 실권을 가지고있는 당사자들이 모여앉아 긴장상태와 대결상태를 풀기 위한 군사분야의 완화조치를 취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핵전쟁위험을 가실뿐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세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위업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가며 우리가 제기한 평화제안을 거부하고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연히 격화시키는데로 나아가고있다. 놈들의 립장은 우리 나라에서 완화와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정책을 계속 추구해나가겠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지금 우리의 평화제안을 거부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 도처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온 남조선땅을 대결과 전쟁의 살벌한 분위기속에 몰아넣고있다. 그리고 놈들은 남조선에 새로 36개의 핵무기특수저장고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시키고있다. 이것은 놈들이 우리 나라에서 일관하게 추구하고있는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의 연장이다.

현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며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남조선이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핵전쟁을 위한 근원을 청산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다.

정전협정은 말그대로 전쟁을 중지할데 대한 협정이며 전쟁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법적담보로는 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을 가지고서는 남조선에서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근본요인들을 제거할수 없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지대로 만들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가 내놓은 3자회담,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한 평화제안들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가 내놓은 평화제안들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선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을 외면할 하등의 리유와 근거란 있을수 없다. 문제는 그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방대한 핵무기들을 전개해놓고 일본까지 끌어들여 핵전쟁도발을 위한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남침위협》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제의한 일련의 평화제안들을 받아들일수 없고 평화협정을 체결할수 없다고 하는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생억지를 더는 쓰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북과 남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거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막는것은 조선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선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할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조선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당할 사람도 우리 조선사람들이며 황폐화될 땅도 우리의 3천리강토이다. 핵전쟁의 참화는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가리지 않을것이며 북과 남도 가리지 않을것이다. 핵전쟁의 화염이 휩쓴 폐허우에서는 사상과 제도를 론할 사람도 없고 소속과 당파를 가를 사람도 없을것이며 그것을 론했댔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것이다. 핵전쟁을 막기 위한 투쟁에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가 문제시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생사와 장래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소속을 가리지 말고 과거와 현재에 관계없이 모두다 일치단결하여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반핵평화운동에 결연히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단순히 40여년간의 분렬의 고통과 재난을 겪을대로 겪어오는 조선민족의 불행을 덜어주고 조선반도에만 한정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며 세계평화위업과 진보적인류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인류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전, 반핵, 평화옹호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핵무력증강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투쟁으로 세계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전쟁을 방지할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쁠럭불가담운동

한 시 해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25년이 된다.

이 기간에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의 거세찬 시대적흐름과 함께 빨리 발전하였으며 멀리 전진하여왔다.

쁠럭불가담운동이 걸어온 지난 25년간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온 승리적인 전진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운동이며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유고슬라비아신문 〈오슬로보제니에〉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2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전진하는 과정에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이 출현한 첫날부터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인류력사발전에서 노는 진보적운동의 역할은 그것이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운동만이 세계의 변혁적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힘있는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운동으로 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반제자주의 시대이다.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기본추세를 이루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발전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인류력사발전을 힘있게 떠미는 요인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반제자주를 자기의 투쟁리념으로 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립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국제적으로 협조해나가는것을 중요한 활동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근본리익, 공통된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25개의 신생독립국가들로 첫 진군을 시작한 쁠럭불가담운동이 오늘은 100여개의 나라와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을 망라한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였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위력한 운동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적범위를 포괄하는 폭넓은 운동으로 되였을뿐아니라 조직화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라났다.

쁠럭불가담운동에는 정기적인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외무상회의, 일부 성원국들로 무어진 조정위원회가 조직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이 운동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7차례의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여러차례의 외무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이 운동의 리념과 활동원칙을 명백히 하고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이처럼 세계적범위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서 반제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과 국제정치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반제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임무의 하나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를 군사쁠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흉계를 단호히 배격하고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이 운동의 여러 회의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전횡을 반대하고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정치선언과 경제선언,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데 대한 원칙적인 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이 감행될 때마다 그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폭로규탄하고 그를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집단적인 공동투쟁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철폐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넓혀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또한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제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성원과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반제자주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앞으로의 방향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제5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외국의 침략, 외국의 강점, 인종차별정책과 인종격리정책,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기타 형태의 의존과 예속을 없애고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 지배 및 착취를 제거하는것이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히였다. 그후 여러 회의들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짐바브웨 인민들앞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적극적인 발기와 활동으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였고 인종격리반대세계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이 소집되여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는 선언과 행동강령들이 발표되였다. 1979년초에 열렸던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비상회의에서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적자결권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한것도 바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쁠럭불가담운동의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적극적인 활동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는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또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인류력사를 전진시켜왔다.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긴 후과를 가시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요구이다.

이로부터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 략탈과 착취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정치적자주권과 경제적권리를 옹호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유엔총회 제6차 특별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이, 제7차 특별회의에서는 《개발 및 경제협조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것이 그 뚜렷한 실례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민족적 및 집단적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서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호상협조 및 단결에 관한 리마강령》을 비롯하여 단결과 협조를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경제적협조를 위한 부문별 회의들과 대륙적, 지역적 성격을 띠는 모임들을 수많이 조직함으로써 새 사회, 새 세계 건설을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 하였다.

이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새 사회, 새 세계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작용을 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으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인류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성격과 본질, 사명과 역할 그리고 이 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언제나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들에 충실하였으며 이 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왔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 그리고 최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에서 토의된 원칙적문제들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 조성된 정세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하며 그 위력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이 시대와 인류 앞에서 지닌 무거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370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며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이 운동의 리념과 근본원칙에 충실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을 고수하는것은 이 운동의 강화발전과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력량의 집결체이며 자주성은 곧 이 운동의 진보성과 위력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되고있다. 이것은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때 쁠럭불가담운동이 더욱 위력해질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만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쁠럭불가담운동을 약화시키게 될것이며 이 운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고 자기의 신념과 주견에 따라 자기 나라와 인민의 리익, 전반적쁠럭불가담운동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립장에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자주권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고 남의 내정에 간섭하며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시켜 그 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뿐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기의 근본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에서 리탈하면 이 운동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없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칠수 없으며 따라서 쁠럭불가담운동이 제국주의렬강들의 희생물, 롱락물로 되는것을 방지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다 하여도 언제나 쁠럭불가담나라로 남아있어야 하며 운동을 본래의 원칙과 목적으로부터 리탈시키려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할 때 쁠럭불가담운동은 더욱 확대강화될것이며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의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단결은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단결을 떠나서 쁠럭불가담운동은 존재할수 없으며 그 위력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은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이 강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국제무대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이 강화되고있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이 운동을 분렬, 와해시켜보려고 온갖 교활한 술책을 다 꾸미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일부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는 분쟁이 지속되고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에로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는 어디까지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단결의 원칙에서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당사자들끼리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지난 25년동안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감으로써 이 운동의 힘을 배가하고 반제자주의 공동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좋은 전통을 가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이러한 좋은 전통을 계속 살려 서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은 뒤로 미루면서 오직 단결에 리로운 일만을 한다면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호상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령토완정,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며 반제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그래야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단결은 진실로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은 전일적인 력량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적협조를 강화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제적협조의 강화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정치적독립을 공고화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의 매개 고리들을 튼튼히 하게 하며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인 낡은 국제경제관계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리득을 가져다주고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경제건설에는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며 경제적난관을 극복하려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정한 금융통화제도를 세우며 낡은 경제관계를 개편함으로써 국제적착취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특히 국내 자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지키며 불공평한 무역질서와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데 선차성을 부여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조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며 국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제도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제도와 체계를 세워나갈 때 쁠럭불가담나라의 자주적발전은 다그쳐지게 될것이며 따라서 쁠럭불가담운동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확대강화되게 될것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에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반제자주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승승장구할것이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3차대회보고

(1986년 6월 25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위도예 자르꼬위츠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위도예 자르꼬위츠동지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3차대회에서 《사회주의적이고 자치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유고슬라비아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의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된 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올해는 찌또동지를 선두로 하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1941년 7월 4일 무장봉기를 일으킨 때로부터 45돐이 되는 해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전체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지난 45년동안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의 사상정치적령도밑에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우리는 파쑈강점자들을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을 벌려 나라를 해방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강력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통일단결된 사회주의련방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경제적 발전과 민족들의 평등을 실현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47년부터 1985년기간에 사회적생산액은 7배로 늘어났으며 공업생산은 17배, 취업률은 5배로 장성하였다. 도처에 학교, 병원, 과학연구기관들이 창설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곳에서 물질, 문화적 변혁들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는 쁠럭불가담정책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들중의 하나로서 지난 25년동안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공정한 국제협조관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이 모든 훌륭한 성과들은 전쟁의 폐허우에서, 락후한 경제적관계의 조건에서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성과물을 경제의 물질적구조에서의 후과와 많은 대외적부채, 국내원료의 불합리한 리용, 나라의 물질적가능성을 초월하여 소비하는 결함들을 부단히 반복하는 과정에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3차대회는 위대한 전취물들과 훌륭한 성과들만을 가지고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아직도 경제적문제와 사회적모순을 가진채 진행된다.

제12차와 제13차 당대회기간 사업정형에 대한 보고에서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의 원인을 찾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응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에 우리는 공산주의자동맹의 사상정치적인 단결을 이룩하고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특히 경제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제13차대회의 과업은 현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혁명활동을 강화하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되며 우리 사회의 성과적개조를 위한 조건으로 된다. 제13차대회는 사회주의적자치제를 강화하는 대회로, 나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대회로 되여야 한다.

제13차대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고 그것이 나라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분야에서 힘으로 나타나도록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나라의 물질적 및 정신적 발전을 이룩하며 사회재산을 합리적으로, 집약적으로 리용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널리 도입하는데 있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은 련방건설에서 민족적자유와 그들사이의 평등과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유고슬라비아련방은 그 어떤 특수한 존재가 아니며 그것은 민족해방투쟁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유고슬라비아인민들의 요구와 념원에 맞게 형성된것이다. 따라서 련방은 로동계급의 민족적리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그들의 민족적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자기 사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에서, 우리의 협동체와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전민방위체계와 사회적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는 두 대회사이에 경제적난관을 비롯한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인민군은 우리의 방위체계에서 헌법에 규정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유고슬라비아인민군은 우리의 모든 인민들과 민족들의 공동의 무력이며 련방방위군과 함께 전민방위체계에서 골격을 이루고있다.

인민군대내의 공산주의자동맹조직은 우리 군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우리의 방위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달성된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국제적, 내부적 요인들이 끊임없이 작용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장기경제안정강령은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 안정된 기초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총적활동목표이다.

공산주의자동맹은 이 강령을 철저히 집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집행하며 그 집행을 지연시키는것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모든 직업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에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특히 중요한것은 모든 사회주의적력량이 생산에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것이다. 1986년에 사회적생산을 안정시키고 현 5개년계획기간에 그 장성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들, 통화팽창을 막고 상품수출을 늘이며 실업을 없애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들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도 해결할수 없다.

물적, 인적 자원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한데로부터 방대한 예비가 있으며 이것은 생산을 늘이고 전반적인 경영활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 된다.

우리는 생산능력을 더 높은 수준에서 잘 리용하며 경영활동에서 소비를 더 많이 줄이고 자금회전을 높이며 나라의 외화를 생산에 더 많이 돌리고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빨리 높여야 한다.

합리적인 경제적토대우에서 생산의 장성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출을 확대하고 국제적분업에

더 빨리 참가하는것이다.

전반적인 외화수입을 늘이는것은 대외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대외채무의 지불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들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국제적분업에 참가하기 위한 유고슬라비아의 통일적전략을 세움으로써 국제적경제교류에 가장 합리적으로 참가할수 있는것들을 수출하고 우리의 기술적진보에 리용할수 있는것들을 수입하여야 한다.

수출을 늘이려면 생산과 수출 계획을 작성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들 즉 공업합작, 공동투자를 급속히 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외경제관계구조를 변경시키며 특히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에서 관광업에 의한 외화수입이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관광업을 발전시켜 외화를 벌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농업에서 방대한 예비를 가지고있다.

농업에서의 락후성을 하루빨리 퇴치한다면 전반적생산을 높일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통화팽창을 줄이며 생활수준을 높이고 지불바란스를 개선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에네르기를 더 잘 리용하며 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생산을 급속히 늘이기 위한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발전은 현재의 방법으로써는 이룩할수 없다. 동력공업발전에서 핵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네르기원천들을 리용하여야 한다.

급속하고 합리적인 경제발전은 과학기술혁명에 우리가 지체없이 적극 참가하며 과학과 교육,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을 더 잘하고 연구조건을 보장해주며 우리 사회에서 과학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자면 과학발전의 담당자이며 기술이전의 주인인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회성원들에 대한 교육에 힘을 넣어야 한다.

통화팽창률은 우리가 부닥친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의 체계를 흔들어놓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있으며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애하고 로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있으며 경제적안정을 위한 투쟁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그러므로 통화팽창을 억제하는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정책의 목적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통화팽창을 막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로 지향되여야 한다. 통화팽창을 막기 위한 활동은 련합로동기층조직으로부터 련방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동맹은 통화팽창을 막기 위한 투쟁에서 경제정책과 경제체계의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하며 모든 사회력량을 동원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방대한 실업은 우리앞에 나선 가장 어려운 사회정치적문제들중의 하나이다. 그것으로 하여 자기의 지식으로 나라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기술인재들이 취업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수 있는 물질적 및 기타 가능성들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벌려야 한다.

현 난관들을 극복하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혁명의 목적과 과업을 실현하는것은 공산주의자동맹을 선두로 하는 모든 조직들의 광범하고도 통일적인 노력이 없이는 해결될수 없다.

공산주의자동맹의 성과적인 활동은

그 지위를 개변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공산주의자동맹은 국가기관안의 관료주의적명에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지상공문이나 무의미한 호소가 아니라 진실한 계획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벌려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유일한 방도는 공산주의자동맹이 로동자들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이다.

공산주의자동맹의 권위와 영향력은 로동계급의 현실생활에 얼마나 깊이 침투하고 자기의 사상정치적활동으로써 로동계급의 리해관계를 얼마나 실현하며 사회의 발전방향을 얼마나 바로잡고 혁명적변혁을 얼마나 추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공산주의자동맹이 자기의 대오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간부정책의 민주화를 계속 실시하며 동맹내부와 사회의 책임적인 지위에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감당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진 간부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동맹에 대한 가입조건도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동맹대렬에는 동맹의 혁명적역할과 로선을 진정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할수 있는 사람들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동맹은 혁명투쟁의 현단계에서 동맹의 사상정치적 및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고 동맹내에 그 어떤 분파적조류나 중립주의적이며 다원적인 사상정치적요소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할데 대한 제도의 요구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일단결은 공산주의자동맹이 동맹의 로선을 반대하며 동맹안에 국가관료주의적, 소부르죠아적의식과 기회주의, 교조주의, 관료주의, 민족주의, 권세욕과 리기주의적경향을 주입하고 복귀하려는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공산주의자동맹은 대오의 통일단결을 우리 혁명의 목적과 과업을 실현하도록 동맹원들에 대하여 인내성있고 완강한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2차대회로부터 제13차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국제정세는 계속 악화되였다.

최근 몇달사이에 특별히 나타난 그러한 부정적추세는 국제관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지속되고있다.

위험한 대결과 힘의 정책이 계속됨으로써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전쟁과 위기의 근원이 증대되고있다.

군비경쟁은 무서운 범위에까지 확대되였다. 무기생산을 위하여 년간에 약 1조딸라가 소비되고있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국제경제위기가 심화되고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은 더욱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기아와 빈궁은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현실로 되고있다.

국제관계의 현 상태를 개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력들 즉 평화와 진보, 민주주의와 인민들과 국가들사이의 평등한 협조를 위하여 투쟁하는 력량들과 사회적진보를 멈춰세우고 예속과 착취, 지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들사이의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사회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은 전세계를 휩쓸고있다. 세계적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는 계속 발전하고있으며 각이한 조건에서 사회적진보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정치적요인들의 범위는 확대되고있다.

현세계에서 호상의존이 커지는 반면에 그 분렬도 더욱 심화되고있다.

비식민지화가 력사적과정으로 되고있으나 신식민주의의 위협이 늘어나고있으며 새로운 예속과 복종의 형태들도 나타나고있다.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보다 심각해지고있는 모순은 세계발전의 전망에 문제거리를 야기시키고 국제경제관계에 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일관하게 지향하고있는 평화적이며 평등한 국제적협조와 국제정치경제관계의 민주화를 념원하는 인민들은 힘의 정책과 지배주의와 패권

주의적 경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자주적인 세력으로 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은 현 세계의 위대한 정치도덕적력량으로서 세계의 진보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시대의 모든 관건적인 문제들가운데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것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며 핵전쟁을 막는것이다. 세계평화와 평등한 국제적협조를 위한 투쟁은 인류의 진보적발전과 인류의 존재자체를 위한 기본전제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핵전쟁의 후과가 전체 인류에게 치명적인것으로 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미국과 일부 서구라파나라 집권층들과 군수복합체들이 주장해나서고있는 우주무기의 개발을 통한 군비경쟁은 더욱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로선과 실천을 견결히 규탄하며 군비증강을 막고 핵무기를 금지하며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철폐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조치들을 취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와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은 지난 수십년간 국제적인 통제밑에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며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외국군사기지를 철폐하고 군대를 철수하며 핵시험을 금지하고 비핵지대를 창설하며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핵참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최근에 일련의 주체적이며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다른 나라 및 정치세력들이 내놓은 모든 긍정적인 발기들을 지지하였다.

세계공동체가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로 갈라지는 과정이 더욱 심화되여가는것을 막지 못한다면 발전된 나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불공평한 국제경제관계로 해서 발생하는 식량, 채무, 원료가격, 기술이전조건 등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서의 비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못할것이며 공고하고 안정된 평화를 보장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평등과 호혜, 국제적교류의 정당하고 안정된 조건 그리고 매개 인민들이 자기의 자연부원을 자주적으로 리용하는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국제경제관계의 이러한 체계가 발전된 나라들을 포함한 전체 국제공동체의 리익에도 부합되리라고 확신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걸머진 방대한 채무는 현 세계의 가장 큰 정치경제적문제로 되고있다. 이 문제의 정당하고 장기적인 해결은 오직 채무국과 채권국사이의 해당한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다. 이 합의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의 모든 빚을 면제시켜주며 상환년불금을 낮추고 기한을 연장시켜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외화수입이 일정하게 늘어나는데 따라 지불하게 하며 이 나라들의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는것 등을 예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화폐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 및 화폐 문제에 관한 세계회의를 시급히 소집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하라레에서 있게 될 회의가 현 세계의 어려운 경제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해결하는데서 새로운 진일보를 내디디리라고 확신한다.

세계 여러곳에 존재하고있는 위기의 발원지는 보다 광범하고 전면적인 충돌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의 항시적인 근원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진보적인 사회개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평화와 새로운 국제관계의 수립을 위한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주권의 원칙, 자유롭고 자주적인 발전의 권리, 국경불가침과 내정불간섭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광범히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며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허용하지 않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진보적세력들의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실현하며 이러한 인식을 확고히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은 쩌또의 대외정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평등한 협조를 유지해나갈것이며 공고한 세계평화를 이룩하고 모든 문제들과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진보적정당들과 각이한 부류의 운동들에 적극적인 지지를 줄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내에서 세계평화와 안전, 발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항시적이며 적극적인 사업과 유엔, 기타 국제기구회의들에서의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은 이러한 로선에 기초하고있다.

우리는 유엔헌장과 구라파의 안전과 협조에 관한 헬싱키회의 최종문건의 원칙과 우리가 조인하고 채택한 모든 국제적 및 쌍무적 협정들과 합의들을 칠저히 지키고 적용하면서 모든 나라들과의 전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쌍무적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특히 이 나라들과의 경제교류와 과학기술협조를 늘이며 아세아, 중근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과 해방운동들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이미 풍부한 전통으로 된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신뢰관계를 강화하여나갈것이다.

모든 민주주의적사회세력들은 정치와 사상,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민주주의적 국제경제 및 정치관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은 앞으로도 공산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기타 로동당, 진보적 및 민주주의적 정당 및 운동들과의 국제적련계와 전면적인 평등한 협조를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최대한의 주목을 돌릴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와 사회적진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심중한 난관에 부닥치고있고 수행하여야 할 과업도 방대하지만 유고슬라비아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리용하지 않은 방대한 물질적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과 정책을 굴함없이 관철해나가고있는 로동자, 농민, 과학문화일군들과 기타 창조적일군들을 비롯한 수백만의 자치제참가자대군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로동과 창조의 성과로 물질적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경제적난관과 기타 난관을 급속히 극복해나가고 쩌또의 사회주의적자치제와 공고한 우의와 통일의 길에서 이룩한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있다.

우리 제도와 우리 협동체의 창조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한다면 모순을 극복하고 우리 혁명의 현단계의 모든 본질적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실행할수 있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은 이 과업을 수행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력량이다.

뽈스까통일로동당 제10차 대회보고

(1986년 6월 29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보이쩨흐 야루젤스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보이쩨흐 야루젤스끼동지는 뽈스까통일로동당 제10차대회에서 《뽈스까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발전 및 공고화에서 나서는 당의 과업》이라는 제목으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년전 비상대회가 열렸던 이자리에서 오늘은 일반대회사업이 시작되였다.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극도의 위험에 직면했던 얼마전의 나날을 기억하고있다.

1970년대 전략의 오유가 빚어낸 파란곡절과 사회적으로 일어난 불만의 파도 그리고 그 불만에 기생한 반혁명세력의 공세, 이 모든것은 국제정세의 심각한 첨예화, 력사의 흐름을 뒤로 돌려놓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책동과 때를 같이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을 희생시키고 우리 인민의 손을 빌어 구라파에서의 력량관계를 파괴하며 구라파의 평화적인 구조를 교란시키는데 뽈스까를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정세는 극히 어려웠다. 그러나 당은 로동계급의 리성, 우리 인민의 애국적 책임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다. 당은 언제나 극단분자들, 그들의 고무자들과 우두머리들 그리고 위험한 놀음에 많은 경우 무의식적으로 끌려들어간 수백만의 량심적인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갈라보아야 한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당은 광범한 사회계에 시간을 주어 그들이 반사회주의적주장들의 본질을 깨닫고 악선전과 결별할수 있게 하였으며 뽈스까에 해를 주는 행동과 기도를 폭로해나서도록 하였다. 당과 국가가 비상조치를 취한것은 국가를 와해로부터 수호하며 경제를 파탄으로부터 건져내고 사회를 동족상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것이였다. 우리는 《낡은것》을 복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금후 사회주의적발전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그 비상조치를 리용하였다.

뽈스까통일로동당은 이미 해놓은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결함을 일상적으로 자각하고있다. 우리는 아직도 일상생활에서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지난 시기가 남겨놓은 모욕감, 환멸, 불신이 아직도 작용하고있다.

당은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으며 패배주의, 사상적혼란, 조직적약화를 극복하였다.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리 사회제도의 원칙들을 모독하고 제동을 걸면서 뒤로 잡아당기는 모든것에 대하여 당은 선전포고를 하였다.

당앞에 나서고있는 과업들은 특별히 어렵고 복잡한것들이다. 지난 기간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속도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고 국민소득을 늘이고있을 때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당하였으며 많은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모든 방해현상들에 대해 잘 알고있다. 또한 우리가 이 현상을 극복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계속 대책을 강구할수 있게 하기 위한 충분한 힘을 가

지고있다.

당은 로동계급의 신임을 쟁취하였으며 로동계급과의 뉴대를 발전시키고있다.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사상과 함께 있었다. 로동계급의 지향은 사회적평등의 원칙을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 국가사업에 현실적인 참여들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것이다. 10차당대회는 이 념원에 대하여 명백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로농동맹의 위력과 그 공고성에서 락관주의를 가지게 된다. 뽈스까의 농민들은 인민뽈스까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의 최상의 임무는 식료품문제에서 자급자족하는것이며 목적은 농촌에서 사회적, 물질적,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것이다. 당은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당의 락관주의는 뽈스까인테리들에 대한 믿음에서 나타나고있다. 인테리들은 전쟁시기 강점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학살되였고 현실에 대하여 각이한 경향들을 가지고있었지만 해방후 사회주의조국건설에 참가하였다. 그들의 최상의 임무는 과학기술혁명을 수행하여 문명하고도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것이다. 당은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어야 한다.

락관주의의 원천은 조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며 조국이 사회주의나라들과 구라파 그리고 세계에서 존엄있는 지위를 차지하기를 념원하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주의와 창조적힘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뽈스까사회주의 발전강령을 채택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들이다.

우리의 주되는 과업은 발전과정을 공고히 하며 잃어버린 시간만큼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뽈스까와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을 갈라놓고있는 간격을 줄이는데 있다. 나라의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현존예비를 동원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과업이다.

위기로 말미암아 수요와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준사이의 간격이 커졌다. 이 간격을 좁히자면 경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보다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야 한다. 촉진은 력사적필연성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촉진은 량적지표만을 추구하자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의 모든 분야와 사회적의식에서 심각한 질적변화를 일으키는 복잡한 과정이다.

가까운 년간의 과업은 경제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균형을 회복하며 가장 첨예한 불균형을 완화하는것이다. 이것은 촉진의 첫째 단계이다. 5개년계획초안은 전반적발전의 규모를 규정하고있다. 동시에 초안은 현대적경제부문들을 다른 부문들보다 빨리 발전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례컨대 전자공업, 전기기계공업, 기계제작공업은 공업부문전반보다 1.5～2배 더 빨리 장성하여야 한다.

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토의를 총화한데 기초하여 당은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더 잘 보장하고 주택사정을 개선하며 교육체계를 현대화하고 그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며 보건사업의 발전과 환경보호에서 전진을 이룩하고 공정한 분배를 실시하며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라는 원칙을 지키는것을 당면한 주요과업으로 간주하고있다.

식생활개선 정도와 속도는 농업과 농업에 봉사하는 공업, 농산물가공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 당은 나라의 발전전략에서 식생활개선계획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당이 뽈스까통일농민당과 함께 실시하고있는 안정된 농업정책은 실천에서 검증될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관철될것이다. 《농업에 통과신호를!》라는 구호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있다. 농업은 경제전반에서 튼튼한 고리로 되여야 한다. 현대적인 농촌이 없으면 현대적인 뽈스까가 존재할수 없다.

자기의 살림집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은 수많은 뽈스까사람들이 겪고있는 첨예한 문제이다. 사회발전계획은 살림집

건설을 거의 20% 늘이며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를 50%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그리하여 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에 일정한 개선이 이룩되게 될것이며 90년초에 살림집건설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좋은 출로가 열리게 될것이다.

새세대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발전을 다방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은 선차적인 문제이며 사회도덕적의무이다. 5년동안에 매해 3,500개의 교실을 건설하게 될것이다. 동시에 학교들을 현대과학의 기구들과 전자계산기들로 더 잘 장비하여야 한다. 또한 탁아소, 유치원, 오락휴식시설, 야영소, 관광 및 체육 기지들을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정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보건이다. 우리는 최근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보건부문의 물질적기지를 확장하였다. 지난 5개년계획들가운데서 제일 많은 수의 병원침대가 보장되였다. 현 5개년계획기간에는 더 많은 침대가 보장될것이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구공급이 훨씬 개선될것이다. 예방,치료, 건강회복, 사회보장 등 보건분야의 모든 부문들이 발전될것이다. 가장 절박한 과업은 어머니들과 어린이들, 로인들과 불구자들에 대한 건강보호강령을 실현하며 알콜중독과 마약중독 병을 없애는것이다.

문명발전의 후과인 자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대하고도 어려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개년계획기간에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출을 약 80% 늘이게 된다. 1980년에 비하여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몫은 3배로 장성되게 될것이다. 현재의 환경상태에 대하여, 미래의 그 상태에 대하여 우리모두가 책임을 지고있다. 여기에서 투자만이 결정적인것은 아니다. 법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일상적으로 자연을 보호하여야 한다.

경제를 집약화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적진보를 다그치고 구조변화를 이룩하며 랑비를 없애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당의 령도적역할은 우리 사회구조의 기초의 기초이며 그것은 불패의 력사적, 계급적, 사상적 및 도덕적 기초우에서 발생하였다.

당은 뽈스까로동운동의 가장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있다. 당은 사회와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영광스러운 장을 기록하였다.

당은 대다수 민족의 리익을 대표하여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공장을 국유화하였으며 교육과 문화를 보급하였고 나라의 복구와 공업화위업을 실현하게 한 혁명을 령도하였다.

바로 당이 로동계급을 그들의 력사적 사명인 사회주의의 건설과 수호에로 동원하고있다. 바로 당이 과오와 외곡을 적발극복하여 모든 진리를 말할 충분한 대담성을 가지고있었다. 바로 당이 뽈스까발전의 장기전망을 규정하는 현실적인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실현을 령도할수 있는 능력을 확증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업은 초급당조직을 강화하는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장으로부터 성기관까지 울려야 한다. 만일 비당원들의 지지가 있으면 그것은 2배로 보아야 할것이다. 초급당조직은 곧 당의 힘이다. 초급당조직은 점차적으로 현실속에서 신임을 받는 적극적인 조직으로 되고있다.

지금 뽈스까통일로동당안에는 212만 6천명의 당원들과 후보당원들이 있다. 뽈스까통일로동당은 대중적당으로 되고있으며 도시와 농촌, 모든 사회계층들속에서 활동하고있다. 우리는 당대렬을 훨씬 줄이기 위한 장기간의 어려운 시기를 1년전에 끝냈다. 그 이후 당대렬이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이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당은 새로운 당원들 특히 로동자, 청년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당은 당원수나 채우고 《출세의 길》이나 찾는 사람들을 더는 당대렬에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

요없다. 간단히 말하여 우리는 당이 참다운 뿔스까공산주의자들의 당으로 되기를 바란다.

대회준비기간에 진행된 개별담화들은 당사업에서 이 방법의 커다란 가치를 확증하였다. 사람들과 담화하는 당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는 앞으로 전국대표자회의전과 당 제11차대회전의 두기에 걸쳐 이 사업을 진행할것을 제의한다.

당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지도부가 더 잘 일하여야 한다.

정치국전원회의와 도위원회 집행기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당중앙위원회는 매달 제정된 날자에 한번 열리는 전원회의에 중앙 및 도당 위원들을 의무적으로 아래에 내려보내여 기층당조직들의 회의에 참가시키며 당원들과 비당원들을 만나는 원칙을 세울것을 제기한다. 이것은 그곳에서 토의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근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무엇을 희망하는가를 정상적으로 알수 있게 한다.

중앙 및 도 당위원회들과 정치일군들이 기층당조직, 무엇보다먼저 로동자조직에 의거하는 제도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당일군들을 현실생활과 더 가까이하고 《1선》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게 하여준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최근년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준엄하고도 교훈적인 학교로 되였다. 우리는 여러해에 걸쳐 리론을 홀시한 결과에 초래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레닌의 사상적유산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독창적인 창작물과 사고방법 그리고 사회현실에 대한 연구방법을 파악하여야 한다.

레닌의 모든 저작들을 재편찬하고 당양성기관들에서 그것들을 연구하며 고등학교들과 대중보도수단, 민족교육체계에서 사회과목교육강령을 보급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결정은 이에 이바지한다.

뿔스까통일로동당 사회과학연구소의 창설은 뿔스까의 모든 사회과학계에 영향을 주며 당간부들을 양성하는 맑스-레닌주의연구의 강력한 중심을 형성하였다.

또한 도이상급 및 도급 학교망을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사상사업을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모든 뿔스까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의의를 가지는 그런 귀중한것들이 있다. 그것은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이며 그 령토완정, 안정과 평화이다. 당이 작성한 대외정책은 변함없이 이에 복무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체계는 세계에 강력히 뿌리를 내렸다. 현실적인 사회주의나라들은 그 골간을 이루고있다.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은 많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축적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자기의 성과로 기여하였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주의정책은 동서간의 관계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

제국주의는 혁명적인 개혁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있으며 진보적력량과 민족해방력량을 억제하며 사회주의발전의 촉진과정을 봉쇄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쇠약해질것과 저들이 군사적우세를 달성할것을 타산하고있다.

이러한 타산은 실현불가능한것이다. 사회주의에 일시적으로 손실을 입힐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승할수는 없다. 사회주의는 원자공갈과 금수조치, 제재와 도발을 이겨냈다. 장차 사회주의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화될것이며 앞으로 전진할것이다.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선차적인 과업은 핵에 의한 소멸의 위협을 제거하는것이다.

우리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간의 평화적공존을 주장한다.

구라파의 두 부분인 동구라파와 서구라파는 전례없는 군비의 부담을 지고있

다. 군비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라파에서 정치적분위기를 개선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사적대치수준을 낮추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얼마전에 부다페슈뜨에서 진행된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의 결과가 이 측면에서 새로운 현실적인 가능성들을 열어놓았다.

상용무력의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뽈스까인민공화국은 회담에 적극 참가하며 다무적인 원칙에서 군축분야에서 균형잡힌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합의를 달성하는데 해당한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 뽈스까인민공화국은 헬싱키최종문건의 원칙을 존중하는데 기초하여 전구라파적인 협조에 복무하는 모든 건설적인 발기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것은 또한 쌍무적인 관계에도 해당된다. 지난 시기 우리는 이 분야에서 많은 쓰라린 체험들을 겪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서방나라들의 태도의 돌변은 자본주의공업국들의 실지 지향을 잘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 주로 서방나라들은 뽈스까를 피고석에 끌어내려고 책동하였다. 전례없는 선전전이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의 내부문제에 대한 이 범죄적이며 파렴치한 간섭책동은 랭전의 현대판의 하나로 되였다.

서로 결합해주는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리용하는것, 다시말하여 분렬시키는것이 아니라 결합시켜주는것을 찾고 리용하는것은 뽈스까대외정책의 본질이다.

중립국가들과 쁠럭불가담국가들, 서구라파의 대다수 나라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응당한 방향에서 발전하고있다. 다른 서방나라들과도 접촉과 협조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건들이 마련되였다.

우리는 독일련방공화국과의 관계를 옳게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이 나라의 일부 정계 및 경제계의 현실적인 립장을 주의깊이 살피고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때때로 이와는 다른 복수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해지고있다. 우리가 겪고있는 난관을 계기로 뽈스까의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침해하려는 시도들이 눈에 띄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을 설교하는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특별한 문제는 뽈스까—미국관계의 실태이다. 워싱톤은 뽈스까에 손실을 주는 결정의 고무자로, 주되는 집행자로 되였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5년간 계속되는 난국이 그 무엇인가 유익한것을 가져다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지어 크지 않은 긍정적인 제스츄아조치도 눈여겨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을 놓고 평가한다.

지난 70년대에 존재한 뽈스까와 서방과의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경우 현상적인 평가를 하는 밑천으로 되였었다.

국제정세의 현 발전단계와 우리의 최근 경험들은 미래를 위한 심도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와 국제무대에서 나타나고있는 현상들에 대한 계급적 및 원칙적인 해명이 당적 및 전사회적 교양에서 특히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뽈스까는 쁠럭불가담운동과의 협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우리는 독립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위협과 적대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인종주의와 인종격리, 온갖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반대하는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에서 날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정치국의 발기에 따라 호상 유익한 협조를 발전시키고 그에 보다 다방면적인 질적으로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기 위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우리는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 무엇보다먼저 새로운 국제경

제질서수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지향을 지지한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구라파와 세계의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의 협조를 확대할것을 주장한다. 전략과 전술에서의 차이와 가는 길이 서로 다른데 관계없이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통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화를 수호하는것, 이것은 선차적인 과업이다.

뽈스까의 목소리가 이제는 약하지 않다. 그러나 그를 더욱 높여야 한다. 나라의 내부상태 즉 민족의 통일과 경제의 효과성, 인민들의 사회적자각성이 매개 나라들의 국제적지위를 결정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방위력은 우리 조국의 안전의 기초로 된다. 현존하는 위협앞에서 우리는 민족적 및 합동무력의 전투적준비태세와 그들의 긴밀한 협조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뽈스까통일로동당은 쏘련공산당과 기타 형제당들과의 다방면적인 협조와 공동행동을 강화하는데 자기의 노력을 다할것이라는것을 확언한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구라파, 아세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이것이 당중앙위원회가 국제정치분야에서 대회에 제출하는 원칙적인 제의이다.

현 국제정세, 특히 구라파대륙정세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구라파의 안전과 협조 문제에 관한 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의를 제10차대회에 제출한다.

이번 당대회는 일반대회이지만 비상대회라고 할수 있다. 당과 국가 생활에서 비할바없이 어려운 단계가 끝나고 우리의 강령이 전망을 밝힌 새로운 단계가 펼쳐졌다. 당원들과 로동계급, 근로자들은 10차대회에서 오늘과 래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리라고 기대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몇해전에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떤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였다. 오늘도 이러한 질문을 들을수 있다.

당에 대한 믿음의 많은 요인들속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성과이다. 당은 대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므로 성과적으로 실현되는 로선, 사회주의를 일관하게 관철하여나가는 로선, 이것이 10차대회의 총적인 로선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어려운 력사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에는 승리와 실패도 있었으나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앞에는 어려운 길이 놓여있으며 높은 목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끝까지 갈것이다. 이 대회장에서 채택되는 모든 결정들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날로 번영하는 벌가리아

현 명 준

지난 3월초 우리 근로자사대표단은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리론잡지 《노보 브레메》사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3월초의 벌가리아, 구라파의 동남쪽 발칸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는 벌가리아의 날씨는 우리 나라의 기후와도 비슷하여 퍼그나 포근한 감을 주었다. 발칸의 산야에는 생명이 움트고 희망이 넘치는 계절이 찾아오고있었다.

비행기편으로 오후 늦게 쏘피아에 도착한 우리는 호텔에 려장을 풀고 거리에 나섰다. 봄기운이 짙게 안겨오는 쏘피아의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과 달리는 자동차들로 몹시 붐비였다. 전진의 기상과 활기가 넘치고있었다.

하나의 물방울에도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활기에 넘치는 쏘피아에서 받은 첫 인상만으로도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벌가리아의 현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념은 벌가리아땅에서 빛나게 구현되여 아름답게 꽃펴나고있으며 사회주의벌가리아는 오늘 자기 발전의 새로운 령마루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재능있는 벌가리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당 제12차대회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벌가리아에서는 공업과 농업,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날 벌가리아는 구라파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공업이 매우 락후한 상태에 있었다. 5세기(1396～1878년)에 걸치는 오스만제국의 노예통치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처참하였으며 경제발전은 심히 억제당하였다. 오스만제국의 통치가 끝장이 난 1878년 당시 벌가리아에는 극히 보잘것없는 약간의 수공업이 있었을뿐이다. 그후 자본주의벌가리아에서도 공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878년부터 1944년 9월까지 66년동안에 벌가리아의 통치자들은 민족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별로 해놓은것이 없었다.

벌가리아는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후 비로소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현대적인 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를 만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인상적인 지표들을 들어가면서 생동하게 이야기하였다.

1956년에 있은 4월전원회의이후 지난 30년동안 벌가리아에서 인민경제의 고정폰드는 10배,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은 8.4배, 국민소득은 8배 늘어났다.

벌가리아에서 공업은 경제의 기본분야를 이루고있으며 공업제품구조자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나라의 경제에서 금속, 기계제작, 화학, 동력, 고무 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전자공업, 로보트공업이 매우 빨리 발전하고있다.

지난 30년동안에 벌가리아의 대외무역상품류통액은 29배로 늘어났으며 수출은 33배로 장성하였다. 대외총수출에서 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몫은 97%이상에 이르고있다.

이 몇가지 사실만으로도 사회주의벌가리아가 얼마나 착실한 발전을 이룩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벌가리아인민이 락후한 처지

로부터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이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축원하였다.

우리가 벌가리아를 방문하는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또한 이 나라 인민들이 반파쑈투쟁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커다란 민족적긍지로 간직하고있는것이였다.

게오르기 지미뜨로브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을 참관하는 과정에 우리는 벌가리아인민의 반파쑈투쟁력사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질수 있었다. 해설원의 말에 의하면 벌가리아에서는 1923년에 벌써 반파쑈폭동이 일어났으며 그후에도 자본의 지배와 파쑈전제정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줄기차게 계속되였다. 1941년 벌가리아의 반동정부가 파쑈국가들의 쁠럭에 가담하였던 당시 벌가리아공산당이 령도하는 반파쑈운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1942년에 벌가리아에서의 빨찌산운동은 급격히 확대되고 적극화되였다.

1943년부터 벌가리아빨찌산운동은 인민해방봉기군 총사령부의 지도밑에 진행되였다. 인민해방봉기군은 히틀러도당과 반동적인 파쑈정부를 반대하여 용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1944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1,589차례의 군사작전이 벌어졌으며 빨찌산부대들의 활동은 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였다. 1944년 9월 9일 봉기전야에 인민해방봉기군은 한개의 사단, 10개의 려단, 7개의 대대를 비롯하여 수백개의 전투그루빠와 수만명의 빨찌산협력자들로 구성되였다. 벌가리아인민해방봉기군은 발칸 및 구라파 반파쑈투쟁전선의 강력한 부대의 하나로 알려지고있었다.

우리는 벌가리아의 북부지방인 쁠레벤주와 웰리꼬떠리노보주를 참관하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반파쑈투쟁력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3월 6일 오전 9시 우리는 지방참관을 위하여 쏘피아를 떠났다. 북쪽방향으로 3시간 남짓하게 달려 드디여 쁠레벤주에 이르렀다. 주당위원회 선전비서의 말에 의하면 쁠레벤주는 지난 시기 로동운동, 공산주의운동이 많이 벌어진 지역이며 여기에서 많은 이름있는 혁명가들이 활동하였다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명한 녀성반파쑈투사의 이름을 가진 싸냐편직물공장을 참관하였다. 녀성투사 싸냐는 파쑈전제정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였으며 그의 투쟁업적은 벌가리아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고 한다.

다음날 저녁무렵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 웰리꼬떠리노보를 방문하였다. 도시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기묘하게 생긴 독특한 지형에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깊은 골짜기를 흐르는 강의 량켠의 깎아지른듯한 바위에 층을 이루며 크고작은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앉은 도시의 정경은 참으로 매혹적이였다. 옛날의 구라파양식의 건물이 많고 절벽을 이룬 높은 산마루에 고대의 성새가 자리잡고있는것으로 보아 오랜 력사를 가진 도시라는것을 인차 알수 있었다.

웰리꼬떠리노보시는 1300년대까지, 즉 오스만제국의 통치이전시기까지 벌가리아의 수도였다. 여기에서 벌가리아공산당이 창건되고 당보가 발간되였으며 사회주의사상이 급속히 파급되였다.

공산당의 지도밑에 반파쑈투쟁이 발전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히틀러도당과 파쑈괴뢰집단을 반대하는 빨찌산부대들의 무장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벌가리아인민들은 자기 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남긴 귀중한 투쟁사적에 대하여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었으며 투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영원히 기념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었다.

우리는 벌가리아에 머무르는 기간 참다운 동지적친선과 우정을 심장깊이 체험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우리가 만난 모든 벌가리아동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4년 6월에 벌가리아를 친선방문하시였을 때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상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쏘피아에 있는 한 연구소의 녀성학자인 연구사는 벌가리아와 조선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두터운 친선협조관계는 두 나라 지도자들의 극진한 친분관계에 의하여 마련되고 발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만난 벌가리아동지들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성과들, 특히 찬란히 발전하는 예술에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면서 그러한 위대한 성과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의 산물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고 감탄하여 말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는 동지들은 폐허속에서 현대적도시로 일떠선 평양의 위용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거창한 남포갑문건설장에서 받은 깊은 인상에 대하여 회상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변 역시 탁월한 지도자의 현명한 령도와 전진하는 혁명적인 당의 세련된 지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또한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벌가리아동지들과 계급적형제로서의 친선의 정을 나누면서 공동의 리념과 목적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영원히 변함없이 숭고한 높이에서 꽃펴나갈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친형제의 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우리에게 편의를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한 《노보 브레메》사동지들과 여러 방문지에서 알게 된 벌가리아동지들의 따뜻한 친선의 우정을 잊을수 없다. 방문의 나날에 있었던 인상깊은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조선과 벌가리아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활짝 꽃펴나고 보다 주렁진 풍만한 열매를 맺게 될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축원하여마지않는다.

근 로 자 1986년 제9호(루계 533호)

편 집 위 원 회

번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6년 9월 1일 발 행•1986년 9월 3일

ㄱ—658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第10号(534)

차 례

〔당건설론설〕

〔경제건설론설〕

〔문화건설론설〕

〔경험론설〕

〔남조선문제〕

〔방문기〕

《ㅌ.ㄷ》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

강 성 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힘있게 이끌어나갈 원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60돐이 된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은 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ㅌ.ㄷ》의 기치따라 가장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개척하여왔으며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억센 뿌리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은 오늘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있으며 그 앞길에는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조선혁명의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ㅌ.ㄷ》의 기치밑에 시작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의 전위조직을 결성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혁명의 전위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실태와 당시 국제국내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 주체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이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구현해나가는 투쟁의 무기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새로운 길,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참다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ㅌ.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이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의 최

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한 민족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는 혁명의 수령을 내세웠는가 내세우지 못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혁명승리의 곧바른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옳은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내세우지 못하였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분노한 인민대중은 도처에서 투쟁에 떨쳐나 의병운동과 독립군운동도 벌리고 파업과 소작쟁의도 벌렸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혹한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만을 가져왔다.

당시 혁명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이끌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말공부만 하면서 파벌싸움을 일삼았다. 그들은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저마다 자파세력확장과 《령도권》쟁탈을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뜀으로써 공산주의운동을 사분오렬시켰으며 혁명을 일대 혼란상태에 빠뜨려넣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시기에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 없었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뭉칠래야 뭉칠 중심이 없었으며 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투쟁을 벌려나갈수 없었다. 우리 인민은 영명한 수령의 출현을 일일천추로 기다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새로 자라난 새세대공산주의자들로써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망국의 비운속에서 혁명의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은 비로소 위대한 수령을 모시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하며 전진하는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로정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혁명의 령도자를 내세우고 높이 추대하여온 영광스러운 투쟁행로였다. 이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ㅌ.ㄷ》의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에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ㅌ.ㄷ》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혁명의 첫 세대들이다. 《ㅌ.ㄷ》성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아직 혁명투쟁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수 없는 혁명의 려명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차례지게 될 명예나 공명도 바람이 없이 생명까지 바쳐 혁명의 령도자를 내세우고 받들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투철한 관점을 세운 혁명가만이 할수 있는 숭고한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ㅌ.ㄷ》성원들의 충실성, 그것은 혁명적의리감과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결한것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초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20살 안팎의 젊으신분이시였다. 그러나 그때에 벌써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정치적식견과 비범한 예지, 세련된 령도력과 고매한 인품을 다 겸비한 절출한 령도자로서의 풍모를 지니고계시였다. 《ㅌ.ㄷ》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한 조국은 반드시 광복되고 조선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한다는것을 누구보다 굳게 확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의탁한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을 위대한 태양에 비기여 지어드리였고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하여 널리 보급하

였다.

《ㅌ.ㄷ》성원들과 같은 충직한 혁명전사들이 령도자의 두리에 뭉쳐있었기에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수호되고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들이 타개될수 있었다. 준엄한 계급투쟁에서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나간 그처럼 충직한 혁명가들이 자라난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다.

이처럼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해나가는 조선혁명의 새기원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첫 대오가 출현하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또한 조선혁명이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ㅌ.ㄷ》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힘차게 전개되게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5페지)

자기 나라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을 수행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근본립장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따라서 혁명의 주인인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당시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이였으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더우기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안에는 사대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고있었다. 지난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대주의와 파벌싸움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망상하였다. 이자들은 제가끔 국제당에 자파세력을 인정받으러 다녔으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현실을 떠나서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의 극단한 사대주의적책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었으며 걸음마다 쓰라린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민족주의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ㅌ.ㄷ》의 결성과 함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원칙을 밝히시였다.

《ㅌ.ㄷ》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자주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세웠으며 혁명투쟁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ㅌ.ㄷ》의 성원들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자주적의식을 높여줌으로써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자기 주견과 신념이 없이 남만 쳐다보면서 파벌싸움만 일삼던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실패를 거듭해온 조선혁명의 수

난의 력사는 끝장나고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새시대가 열리지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또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가장 정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전진하는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혁명운동은 투쟁목표가 바로세워지고 옳은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될 때 승리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조직이 참다운 전위조직으로 되고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다해나가자면 반드시 옳은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중앞에 뚜렷한 투쟁목표를 내세우지 못하고 옳바른 전략전술을 제시하지 못하는 조직은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갈수 없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시기에 존재하였던 당과나 조직들은 어느 하나도 똑똑한 투쟁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없었으며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마치지 않을수 없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투쟁 목적과 과업, 전략전술에 있어서 초기공산주의운동시기의 조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형의 참다운 전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적인 《ㅌ.ㄷ》의 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 강령의 원형을 창조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당면한 투쟁과업과 최종목적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ㅌ.ㄷ》의 강령에서 조선혁명의 당면한 투쟁과업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데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선포하시였다.

《ㅌ.ㄷ》가 내세운 투쟁강령은 당시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특성과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처음으로 정확히 규정한 혁명적 대강이다.

《ㅌ.ㄷ》의 강령이 제시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의 반제민족해방혁명의 투쟁과업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명백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제시한후 1930년 카륜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을 위한 방침 등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임무와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음으로써 항일혁명투쟁을 계속 앙양의 길로 이끄시였다. 《ㅌ.ㄷ》가 내세운 강령과 전략전술은 해방후 우리 당 강령에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ㅌ.ㄷ》가 내세운 투쟁 목표와 과업은 오늘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은 《ㅌ.ㄷ》의 강령에서 밝혀진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 강령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으며 그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일찌기 영광스러운 《ㅌ.ㄷ》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ㅌ.ㄷ》의 기치밑에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8페지)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ㅌ.ㄷ》가 내세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조선혁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온 사회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강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기본전략적목표와 근본방도가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ㅌ.ㄷ》가 내세운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항일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이 그 억센 뿌리에 토대하여 끊임없는 생기와 자양분을 받으면서 확고히 전진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혁명전통교양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것은 《ㅌ.ㄷ》에서 시작된 주체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그것을 철통같이 다지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왔으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철통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전과정에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당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

욱 강성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계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있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뢰는 당과 함께 주체위업의 실현을 위한 준엄한 길을 헤쳐온 행정에서 형성되고 산 체험을 통하여 굳세여진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며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면서 우리 당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무겁고도 중대한 혁명과업이 남아있다. 우리는 아직도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에 새겨넣었던 최종목적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혁명의 길에서 물러설수 없다.

《ㅌ.ㄷ》의 기치밑에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충성으로 우러러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향도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그 종국적완성을 위한 참다운 길이 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셨던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20년대, 30년대에 싸운 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모두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구호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결정적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이 제시하는 경제과업들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구호를 제기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진군속도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것을 호소하고있다.

우리 당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 건설에 이어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사리원카리비료공장과 금강산발전소, 간석지와 소금밭 건설, 광복거리 건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계단 확장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건설대상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투쟁에서 또다시 큰걸음을 내디디게 되는 매우 거창한 전투과업이다. 우리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중요대상건설전투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서 우리 혁명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고있으며《ㅌ.ㄷ》에서 시작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굳게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ㅌ.ㄷ》는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

림 춘 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은 빛나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 ㄷ》를 결성하신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ㅌ. ㄷ》의 결성으로 우리 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숭고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ㅌ. ㄷ》의 결성으로 억센 뿌리가 내린 조선혁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ㅌ. ㄷ》가 결성된 때로부터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이며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였으며 그 종국적승리가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ㅌ. ㄷ》의 기치밑에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신념으로 충만되여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으로서 우리 당 건설력사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1926년에 조직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이였습니다.》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폐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수령은 그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 혁명적전위조직을 내오게 된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적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1926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성하신 《ㅌ. ㄷ》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이였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영광스러운 주체의 위업은 바로 《ㅌ. ㄷ》의 결성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ㅌ. ㄷ》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조직하신 혁명조직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우리 나라 민족해

방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비판적으로 총화하고 초기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였으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모색하시였다.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과 리탈되여 령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고 있었으며 대중을 단결시킬 대신 파벌싸움으로 분렬시키고있었다.

또한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 안에는 사대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대주의와 파벌싸움의 악습을 답습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다. 그때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파가 《정통파》이며 진짜 《맑스주의자》라고 하면서 국제당의 승인이나 받으러 돌아다니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였으며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은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마침내 해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당시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실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와 철저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위대한 진리에 기초하여 새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곡절많은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로운 길,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길만이 강대한 일제를 대상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하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였다.

《ㅌ.ㄷ》는 바로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무으신 혁명조직이다. 《ㅌ.ㄷ》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으로서 우리 당 건설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그처럼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ㅌ.ㄷ》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신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조직된 혁명조직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전위조직은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조직이다.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혁명조직이라야 수령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으며 수령의 위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혁명적전위조직으로 될수 있다.

혁명조직이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혁명적전위조직으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 조직성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들로 꾸리는것이다. 그래야 혁명조직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통일이 확고히 보장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참다운 혁명조직으로 될수 있다.

《ㅌ. ㄷ》는 선행한 모든 조직들과 달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양육성하신 새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로 결성된 혁명조직이다. 《ㅌ. ㄷ》의 성원들은 지난 시기의 혁명운동의 악폐에 물들지 않은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찌기 《화성의숙》에 모인 청년들가운데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할 청년들을 선발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당시 《화성의숙》에는 새로운 사조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들은 대부분 낡은 사상에 물들지 않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이였고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울분을 품고 모여온 열혈청년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가운데서 우수한 청년들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ㅌ. ㄷ》조직에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ㅌ. ㄷ》성원들은 혁명적수령관이 철저히 선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실지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였다. 그리하여 《ㅌ. ㄷ》의 결성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전투적인 혁명조직, 수령님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 훌륭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참다운 전위조직의 향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올바른 궤도를 따라 나아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ㅌ. ㄷ》는 주체혁명위업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강령을 내세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이다.

혁명조직의 투쟁강령은 그 조직의 성격을 특징지으며 사명과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수령의 혁명위업 실현을 위한 옳바른 투쟁강령을 제시하는 혁명조직이라야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전위조직으로 될수 있다.

《ㅌ. ㄷ》가 내세운 강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으로서의 그 면모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ㅌ. ㄷ》의 강령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당면과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요구를 내세우고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은 일본제국주의침략세력이였다. 일제는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활적인 요구였으며 우리 혁명의 선차적인 과업이였다. 일제를 타도하여야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실현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ㅌ. ㄷ》의 강령은 또한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점으로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사회주의, 공

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우리 인민의 투쟁목표를 뚜렷이 명시한 《ㅌ. ㄷ》의 강령은 주체혁명위업실현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ㅌ. ㄷ》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으로서의 력사적사명을 지니고 탄생한 공산주의혁명조직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하여준다.

《ㅌ. ㄷ》의 결성은 우리 인민의 력사와 우리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ㅌ. ㄷ》의 결성으로 조선혁명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그 엄혹한 시기 우리 혁명을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고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몸소 수많이 키워내시였으며 그들을 핵심으로 무장대오를 무으시고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매우 뒤떨어진 처지에서 그것도 나라가 북남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서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ㅌ. ㄷ》의 전통에 토대하여 제때에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빈터우에서 파괴된 경제를 짧은 기간에 복구하고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위대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벌려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우리 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가까이 바라보는 높은 령마루에로 멀리 전진하였다.

참으로 《ㅌ. ㄷ》가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이 걸어온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자랑찬 년대기이다.

《ㅌ. ㄷ》에 의하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주체위업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가 더욱 훌륭히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 계신다.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더욱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게 되였다.

주체위업은 당의 향도밑에서만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의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도록 함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굽임없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우리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경제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솟아나게 되였으며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활짝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ㅌ. ㄷ〉의 기치따라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힘차게 전진하여온 주체위업수행의 승리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여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ㅌ. ㄷ〉의 기치밑에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신것처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후대들이 대를 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4페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모시는 여기에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주체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혁명의 승리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와 그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혁명가들의 충실성에 의하여 이룩되게 된다. 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서 심장으로 체험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변심을 모르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할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지니였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셔야 험난한 혁명의 앞길이 개척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순간을 살아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살며 싸웠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던 그 자세로 변함없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령도자를 받들어나가는데서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한다. 여러 세대에 걸치는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는 수령의 위업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령도자에 의하여 고수되고 계승된다. 수령의 위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것과 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도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훌륭히 해결되였다.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더없는 긍지이며 크나큰 자랑이다.

주체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확고한 정치적신념을 가져야 한다.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오직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정치적신념이 투철하여야 당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가는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고수하고 그것을 위해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수령, 자기의 령도자를 높이 받들며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확고한 신념, 이것이 참다운 혁명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고상한 풍모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정치적신념을 굽히지 말며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의 향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단결된 불패의 위력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혁명승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인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야 앞으로도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용감히 뚫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철석같이 뭉침으로써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서 나타난다.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성으로 수놓아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오늘의 80년대에 살며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인 우리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가장 옳바른 자세와 립장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은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당

김 환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한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창건된지는 40여년을 헤아리지만 그 력사적뿌리가 내린 때로부터는 60년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해나가시던 첫시기에 새형의 혁명적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으로 혁명의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ㅌ. ㄷ〉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으며 참다운 당창건위업의 길을 개척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ㅌ. ㄷ〉의 결성으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뿌리가 내리고 당창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은 당창건위업수행에서 이룩한 〈ㅌ. ㄷ〉의 업적을 계승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열어놓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새형의 혁명적당건설력사는 조선로동당이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나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스러운 년대기이다.

(1)

조선로동당은 〈ㅌ. ㄷ〉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계승성은 그 창건자, 령도자인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이루어진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귀중한 혁명적재보이며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통을 계승해나갈 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대를 이어가며 수령의 당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에 원천을 두고 창건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자기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가며 당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은 〈ㅌ. ㄷ〉에서부터 형성되였고 우리 당은 〈ㅌ. ㄷ〉에 뿌리를 두고있다.

우리 당이 〈ㅌ. ㄷ〉에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은 당건설의 출발점이 〈ㅌ. ㄷ〉에 있다는것이며 또한 〈ㅌ. ㄷ〉가 이룩한 업적을 계승하고있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ㅌ. ㄷ〉의 강령은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 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 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다름아닌 〈ㅌ. 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결성된 우리 나라의 첫 공산주의혁명조직인 《ㅌ. ㄷ》는 앞으로 창건될 당의 강령의 기초와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을 마련하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을 키워내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당 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당이 영원히 반석같은 기초우에서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는 참다운 본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만년터전을 준 여기에 《ㅌ. ㄷ》가 이룩한 업적의 위대성이 있고 영원불변성이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ㅌ. ㄷ》가 내세웠던 주체혁명위업강령을 자기의 혁명강령에 철저히 구현한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지는것은 당건설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강령을 내세워야만 당은 혁명투쟁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옳바른 투쟁강령을 들고나가지 못하는 당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끄는 정치적령도자로 될수 없고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 자주시대 혁명운동의 특징을 깊이 헤아리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ㅌ. ㄷ》의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ㅌ. ㄷ》의 강령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을 밝힌 새로운 혁명강령이였다. 이 강령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목표와 전략전술이 확립되고 주체혁명위업의 력사적진군길이 열리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ㅌ. ㄷ》의 강령을 당의 강령에 구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창건을 선포하면서 나라의 해방으로 《ㅌ. ㄷ》의 당면목적이 해결된 력사적조건에 맞게 《ㅌ. ㄷ》의 강령을 원형으로 하여 해방된 조국의 사회계급적관계와 혁명발전에 상응한 당강령을 내세우고 《ㅌ. ㄷ》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은 자기의 옳바른 혁명강령에 기초하여 간고하고 복잡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안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오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ㅌ. ㄷ》가 내세웠던 투쟁강령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것을 당의 당면목적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당의 최종목적으로 선포하고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을 빛나게 향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령도자로서뿐아니라 세계혁명위업수행에서도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면서 《ㅌ. ㄷ》가 추켜든 반제자주의 기치, 공산주의건설의 기치를 계속 빛내여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건설력사는 이와 같이 《ㅌ. ㄷ》의 강령을 자기 강령의 기초로 삼고 그것을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에 부합되게 계승발전시켜 《ㅌ. ㄷ》가 개척한 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하나로 이어온 영광의 로정이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ㅌ. 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존엄있는 혁명적당이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옳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려명기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ㅌ. ㄷ>의 활동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ㅌ. ㄷ>는 자주적인 혁명적당건설방침에 기초하여 탄생한 자주적인 혁명조직이였으며 자주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이였다. <ㅌ. ㄷ>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혁명을 하려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령도해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어나갔다. 그리하여 사대와 교조에 빠져있던 초기공산주의운동과 영원히 결별하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체의 힘으로 당을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바로 <ㅌ. ㄷ>가 쌓아올리기 시작한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창건되였으며 <ㅌ. ㄷ>가 일관하게 견지하였던 자주성의 원칙을 자기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주체적인 당건설위업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왔다.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기성경험과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되여왔다. 그 어떤 정황이 조성되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모든 활동은 창건 첫날부터 당조직들과 당대렬을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자주적으로 편향없이 실현해나가는데로 철저히 바쳐졌다. 당의 이러한 령도밑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주체적으로 빨리 발전하여왔으며 인민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비상히 높아지고 조선은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주체의 조국으로 빛나게 되였다.

이처럼 <ㅌ. ㄷ>의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였던 자주성의 원칙을 지키고 자주성을 실현하고있는 여기에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존엄있고 권위있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이 튼튼히 담보되고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ㅌ.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위력한 당이다.

당의 조직적골간은 당을 로동계급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당은 튼튼한 조직적골간력량을 가지게 됨으로써 혁명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생명력을 보존하며 반석같은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실현하게 된다.

우리 당 창건의 골간은 <ㅌ. ㄷ>에서부터 키워지기 시작하였다.

<ㅌ. ㄷ>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혁명대오의 빛나는 전형이였으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사상의지적통일체였다. 이 대오에서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어떤 난관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으며 혁명과업을 자립적으로 훌륭히 수행하는 공산주의핵심들이 자라났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ㅌ.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공산주의핵심들은 더 많이 육성되고 단련되였으며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은 <ㅌ. ㄷ>의 전통을 빛내

이며 단결의 중심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옹성같이 옹호보위해왔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삼고 활동하고있으며 이 성스러운 길에서 혁명의 배신자들의 온갖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당대렬의 조직적단합과 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시련의 년대들을 과감히 헤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왔다.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을 우리 당 창건의 골간으로 이어받고 이 충성의 대오가 끊임없이 확대되여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필승불패의것으로 강화되여올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로동당은 《ㅌ.ㄷ》의 전통을 이어받고 자라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ㅌ.ㄷ》가 이룩하여놓은 업적을 계승함으로써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가는 위력한 당이다.

(2)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당건설위업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안에는 지금 《ㅌ.ㄷ》가 높이 받들었던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 당은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폐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속에서 이룩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의 축성,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가장 빛나게 계승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우리 당 건설의 커다란 성과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의 계승성을 끊임없이 보장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본태의 성격을 지키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고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당과 혁명 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열어놓으신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제시된 전당의 주체사상화에 관한 사상은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향도적력량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며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총적방향을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행정에서 당의 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승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불패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우리 당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당의 주체적성격이 철저히 계승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당의 성격을 계승하는것은 곧 당의 혈통을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혈통을 계승하는것은 당의 본성을 고수하고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하는 가

장 중대하고 원칙적인 문제이다. 당은 자기의 창건자인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통을 고수할 때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을 당건설위업계승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시고 혁통계승의 본질과 내용, 혁통계승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으며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의 혁통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는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일관한 원칙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이 위대한 령도에 의하여 <ㅌ. ㄷ>의 지도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오늘도 우리 당의 지도사상과 리론으로 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은 우리 당의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투쟁경험은 당건설과 정권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등 우리 당과 인민의 모든 투쟁의 지침으로, 승리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주체의 혁통의 빛나는 계승, 바로 이것으로 하여 <ㅌ. ㄷ>가 이룩하여놓은 업적은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과 위력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불패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우리 당의 위력은 또한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빛나게 실현하고있는데 있다.

당은 당원들이 뭉친 조직적부대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당이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는 우선 당의 골간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간부의 중요한 표징으로 하고 로, 중, 청을 배합하여 간부대렬을 꾸리는 간부사업원칙과 정연한 간부양성체계를 세워준것들은 우리 당이 간부들을 당의 핵심부대로 만들수 있게 한 획기적조치들이다. 우리 당은 가장 옳바른 간부사업원칙과 간부양성체계를 세우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간부대렬을 <ㅌ. ㄷ>가 개척하기 시작한 당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가장 견실한 핵심력량으로 튼튼히 꾸려놓았다.

당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당원들속에 정연한 당생활체계를 세워주고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으며 당세포핵심대렬의 육성과 당장성사업을 바로해나가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우리 당은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형식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 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심어주었다.

특히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정력적지도밑에 <ㅌ. ㄷ>의 성원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는 그대로 이어지고있으며 이 과정에 당원들은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혁명의 정수분자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1920년대의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 투쟁방법이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원들의 투쟁과 생활에 이어지고있는것은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면모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에 의하여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대

를 이어 변함없이 지켜지고 계승되고있으며 당의 위력은 날로 백배해지고있는것이다.

불패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우리 당의 위력은 또한 당과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실현한데 있다.

당의 위력은 무궁무진한 힘을 지닌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는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룩하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적극 투쟁하여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공적의 하나이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당의 인민적인 정책과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당은 하나의 로선과 정책, 하나의 결정을 채택하고 실시하여도 먼저 인민의 요구를 고려하고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한데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또한 우리 당은 인민을 훌륭한 선생으로 불러주고 내세워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것을 해결하는것을 하나의 철칙으로 여기고 활동하고있다.

<ㄷ. ㄷ>가 그러하였던것처럼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을 발동하는것을 혁명준칙으로 삼고 활동하는 우리 당의 령도적풍모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신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시대적 조건과 환경은 달라졌어도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한별동지를 우러르며 투쟁에 일떠섰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지는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뉴대에는 그 뿌리를 마련한 <ㄷ. ㄷ>의 업적의 빛나는 계승이 있고 조선로동당의 모든 승리의 원천이 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은 <ㄷ. ㄷ>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진 전도양양한 당으로,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면모는 <ㄷ. ㄷ>가 개척하기 시작한 주체의 당건설위업의 위대한 승리이며 <ㄷ. ㄷ>가 이룩한 고귀한 전통의 생활력에 대한 새로운 력사적총화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높이 들었던 <ㄷ. ㄷ>의 기발은 주체위업계승의 기치, 완성의 기치이다.

<ㄷ. ㄷ>의 기발을 변함없이 추켜들고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당건설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ㄷ. ㄷ>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굳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이 이끄는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영광스러운 <ㄷ. ㄷ>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며 그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ㅌ.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난 우리 당은 세계혁명위업에 충실한 위대한 당

황 장 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영광스러운 《ㅌ. ㄷ》의 뿌리에서 자라난 우리 당은 오늘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불패의 위력을 가진 위대한 당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이 그처럼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은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된 비결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을 주체사상화하며 우리 당이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충실한 옳바른 로선과 대내외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데 있다.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세계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가장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통일단결되고 주체적립장에 서서 모든 활동을 잘해나감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위대한 당으로서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게 되였다.

(1)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서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주체적립장에 서서 잘해나가면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7페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민족과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는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나라마다 사회력사적조건과 구체적인 혁명임무가 다르다. 매개 나라 당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잘해나가야 한다. 자기 나라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어야 할 당면한 투쟁과업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막연하게 세계혁명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지 못할뿐아니라 세계혁명에도 충실치 못한 태도이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력량이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야 세계혁명력량도 강화되고 세계혁명도 빨리 촉진될수 있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은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감으로써만 세계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는것은 민족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민족주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자기 나라

혁명까지 배반하게 한다.

세계인민들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공동의 요구와 리익으로 하여 하나의 공통적인 운명으로 련결되여 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할뿐아니라 국제적범위에서 민족에 의한 민족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한 사람이 자기 인민의 원쑤를 반대하는 혁명적립장을 지킬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오직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한 사람만이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도 충실할수 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지키고있다. 나라가 분렬되고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이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잘 건설하는것은 그자체가 세계혁명에 충실하고 기여하는것으로 된다. 더우기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남조선에 숱한 핵무기를 끌어들여 그곳을 아세아에서 최대의 침략기지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옹근 하나의 현대전을 치를수 있는 수십만의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투입하여 대규모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인 자기 나라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는것보다 더 중요한 혁명과업은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담보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지만 오직 하나의 지도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단결되고 옳은 전략전술에 의하여 령도될 때에만 혁명의 주체로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내에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사상, 봉건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원칙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켰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한다. 력사의 주체는 언제나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이 사회발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사상적인 통일과 조직적인 령도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되여야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 수령, 대중의 통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보장하는 근본담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동지적인 결합체인것만큼 당, 수령, 대중은 철저한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의 원칙에 의하여 혈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우리 당이 당, 수령, 대중을 서로 대치시키면서 그 통일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비당적인 사상을 반대하고 시종일관 당의 사상적유일성, 당의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여 당, 수령, 대중의 통일을 강화하는것을 당건설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견지하여온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개선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돌림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었

다. 전당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확립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발양되게 되였으며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청산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지난 기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예견할수도 상상할수도 없었던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면서 세계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옳바른 당건설로선에 따라 당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였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구현된 자주적인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모두가 물질적으로나, 사상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또 대외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방대한 무력과 대치하고있는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모두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우리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미제와 직접 맞서있고 나라가 분렬되여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나라를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평화와 사회주의의 불패의 요새로 전변시킨것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며 우리 당이 세계혁명에 기여한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2)

조선로동당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해나가는것으로써 세계혁명에 충실히 이바지하고있을뿐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함으로써 세계혁명에 대한 자기의 충실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와 인류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고 있으며 자주성의 거세찬 조류가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 동시에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이 세계혁명의 기본방향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세계의 자주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반동이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혁명의 대상은 침략과 전쟁을 추구하며 인민들에게 예속과 불평등을 강요하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제국주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압도적인 지배적지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독점자본을 핵으로 하는 다국적회사들에 의하여 세계자본은 하나의 국제적인 독점체로 련합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련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원료공급지로 만들고 여기에 기초하여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소생시킬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사회주의체계의 형성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의 압력밑에 저들의 착취와 략탈의 방법도 더욱 세련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은 자국내외 근로대중의 요구에 조금 양보하는것으로써 대중의 투쟁을 무마시키는 한편 《원조》를 미끼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략탈하는 신식민주의적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략탈적본성이 변할수 없는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을 해결할수는 없는것이다.

자본의 국제적련합은 결코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내부모순을 해결할수 없으며 자본주의독점체들과 신식민주의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모순을 해결할수 없다. 특히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더욱더 빈궁화되여 제국주의나라들의 상품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됨으로써 이러한 모순은 격화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의 방법으로써도 상품시장을 더는 넓힐수 없게 되였으며 헤여날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의 경제적위기에서의 출로를 신식민주의정책에 기초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편 경제를 군사화하고 자국내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무모한 새 전쟁을 도발하는데서 찾으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력량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화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세계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본력량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과 평화옹호력량이다.

우리 당은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에 따라 사회주의력량 및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과 위력을 강화하며 쁠럭불가담운동과 세계평화옹호력량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대외정책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력량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수호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사회주의력량이 노는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대외정책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은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위하여 부채질은 하여도 분렬에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당과 세계 여러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의 형제적친선과 협조는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는것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당은 팔레스티나인민과 나미비아인민, 남아프리카인민을 비롯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다.

우리 당은 세계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이 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자주성과 평등,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서로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맞서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분렬와해책동을 짓부시고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이 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을 고수하고 힘있게 전진하여나갈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자주, 평등, 호혜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남남협조를 반대하고 신식민주의에 기초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튼튼히 쌓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쁠럭불가담나라들 및 발전도상나라들과 정치적단결을 강화하는 한편 남남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증강과 핵군비경쟁으로 말미암아 날로 커가는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세계의 모든 반제, 반전, 반핵, 평화애호력량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열핵전쟁도발책동, 우주의 군사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은 우리 나라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것은 국제긴장상태의 완화와 세계평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조선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일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반대하고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과 미제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기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혁명위업에 충실한 혁명적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 *

우리 당이 《ㅌ. ㄷ》를 뿌리로 하여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지구상에서는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는 세계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는 불패의 력량으로 자라났으며 그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제국주의식민지멍에에서 벗어나 새 사회를 건설하고있으며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오래고도 간고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조선혁명을 더 잘 수행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반미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모든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우리 당은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

—《근로자》창간 40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 《근로자》가 창간된 때로부터 마흔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5일에 잡지 《근로자》 첫호가 발행되였다.

정치리론잡지 《근로자》의 창간으로 우리 당은 자기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수단을 틀어쥐게 되였다.

잡지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출판물이며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 리론선전의 위력한 무기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석선전하며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당의 리론적대변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잡지 《근로자》는 우리 혁명의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로정에서 언제나 당과 함께 숨쉬며 전진하여왔다. 지난 40년동안 《근로자》가 걸어온 승리적로정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가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리론수준이 높아지고있는 커다란 성과에는 당리론선전의 일익을 맡고있는 《근로자》의 업적이 깃들어있다.

실로 잡지 《근로자》의 40년 력사는 당과 수령의 절대적인 리론적권위를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누리에 빛내인 영광스러운 력사이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권위있는 정치리론기관지로 강화발전하여온 자랑스러운 로정이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근로자》가 걸어온 력사적과정은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이 심화발전하여온 빛나는 로정의 중요한 일환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당리론선전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이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당 리론선전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모든 리론선전일군들은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리론선전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림으로써 자기가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 *

리론선전사업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당은 리론선전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당과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일색화하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 과업을 해결

하는데서 리론선전사업앞에는 매우 무거운 임무가 부과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리론선전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상리론을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85페지)

당리론선전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형식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상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파악하게 된다. 그들은 인식발전과정의 특성으로하여 직감적으로 느끼는 방법으로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도 있고 론리적방법으로 사상리론의 진리성을 파악할수도 있다.

당리론선전은 당의 사상리론의 본질과 정당성을 사람들의 론리적사유를 계발시키는 방법으로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사업으로서 강한 호소성을 띤 선동사업과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사람들은 사상리론의 진리성을 론리적방법으로 깊이 인식하여야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며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할수 있게 된다.

우리 당 리론선전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상리론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하고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킨다. 그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리론을 끝없이 신봉하고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며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게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과 리론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집행자로 만드는데서 리론선전사업이 노는 역할은 실로 큰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뿌리를 두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당사상사업의 일익을 영예롭게 담당수행해온 리론선전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문명의 보물고를 더없이 풍부하게 하는 귀중한 재부를 마련함으로써 리론선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었으며 이 사업발전을 위한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리론선전사업을 진행하며 정연한 리론강연체계를 세우고 과학토론회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는 문제, 리론선전의 깊이와 무게, 품위를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리론선전사업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문제들까지도 밝혀주고 그것을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리론선전사업은 철두철미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완성하는데 집중되게 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는데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되였다. 당리론선전에서 그 순결성이 확고히 담보되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이 부각되고 깊이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당사상사업, 리론선전사업이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어짐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더욱 심도있고 실속있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그들속에서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각과 기풍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사

상사업, 당리론선전사업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앞세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결과에 이룩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한 결실이다.

당사상사업, 리론선전사업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성과와 업적은 주체의 혁명위업,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심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 우리 당리론선전사업앞에는 오늘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시대가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발전하며 따라서 리론선전사업도 그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되여야 한다. 당리론선전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야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자질을 가진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키울수 있으며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은 지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공산주의적인간 육성사업을 심화시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 기술실무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하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리론선전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벌릴것을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한다.

당리론선전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은 심오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수 있는 고귀한 사상리론들을 마련하였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시기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지도적지침이며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창조적인 사상리론활동의 위대성, 그 과정에 이룩된 업적의 숭고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함께 우리 당 문헌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심도있게 해석선전하여야 한다.

우리 당 문헌에는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구현하여야 할 귀중한 사상리론적 재부들이 밝혀져있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대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제시되여있다. 따라서 당문헌에 대한 연구선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뿐아니라 그들이 당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당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당 문헌에 대한 해석선전사업은 문헌의 진수를 철저히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으면서 문헌에서 밝혀진 사상리론의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특히 그 계승성을 똑똑히 알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고 당문헌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해석선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이 이룩한 사상리론적업적들에 대한 선전사업을 널리 벌리는것이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령도적권위는 당이 쌓은 혁명업적 무엇보다도 사상리론적업적의 위대성으로부터 오는 권위이다.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조선혁명의 전진과정을 힘있게 다그치고 조국땅우에 룽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주는 사상정신적재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위력은 날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깊이 체득할 때 당의 위대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 당을 받들어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닐수 있다.

당이 이룩한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 높이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인식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사상리론적업적선전을 위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마련하는것이다. 그래야 한없이 폭넓고 깊은 우리 당의 사상리론적업적의 내용에 맞게 리론선전사업을 심화시킬수 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당리론선전이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그리고 당의 사상리론을 혁명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한 성과들을 자료로 하여 사상리론적업적,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체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리론선전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주체사상선전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앞세워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3~84페지)

주체사상선전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체득하게 하는 사상사업이다.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적원칙,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상리론들을 깊이 인식하여야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선전은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세상에 발표된 이후 주체사상선전은 더욱 체계성을 띠고 깊이있게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으로 무장시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발전하는 현실, 조성된 정세는 주체사상선전사업이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앞에 보다 방대하고 무거운 혁명과업이 제기되고 따라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더욱더 책임적으로 일하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오늘 주체사상선전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의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고 사업과 생활을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선전을 심화시키자면 우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비롯한 모든 원리들을 깊이있게 체득시키기 위한 리론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원리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

리, 지도적원칙들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 세계관과 수령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고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곧건히 이어나가기 위하여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리론선전일군들은 주체의 사상리론에 대한 해석선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과 인생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대한 리론선전사업을 심화시켜 인류선진사상을 상징하는 주체사상의 보편성을 더욱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한다.

과학리론일군들과 출판보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들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주체사상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며 품위있는 책과 글들을 많이 써서 출판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선전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폭넓게 하자면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선전의 일환으로 보고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 방향에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당정책, 당경제정책에 대한 리론선전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당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우리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당정책선전, 당경제정책선전을 잘하면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이 실지로 어떻게 구현되고있으며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당정책은 대중에게 파악되여야 현실에 구현될수 있다. 우리 당 경제정책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부터 매개 부문의 구체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다 밝혀져있다.

리론선전일군들은 경제정책집행을 조직지휘하는 일군들로부터 그 직접적담당자인 생산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과 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건설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그리고 일군들에게 자기 부문의 당정책뿐아니라 경제관리와 경영활동전반에 대한 당정책을 폭넓게 체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선전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실천에서 은을 나타낼수 있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혁명실천을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한것이며 사상사업의 성과도 여기에서 나타나야 한다. 주체사상선전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사상수양의 량식으로, 혁명실천의 무기로 받아들일수 있는 산 사상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실천행동에 구현해나가기 위한 선전사업에서 현시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사상사업을 벌리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원리에 따라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며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남에 대한 의존심도 생기지 않으며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지니고 자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발적으로 일할수 있다.

리론선전일군들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의 본질과 정당성을 설득력있게 해석선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며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선전이 혁명실천에서 은을

내게 하자면 그것이 주인다운 기풍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도록 진행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고야말겠다는 높은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일하여야만 현시기 우리 혁명이 제기하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리론선전일군들은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주인답게 마력을 내서 일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리론선전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리론선전사업의 기본사명의 하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이다. 사상리론의 순결성은 온갖 반동적사상조류와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튼튼히 고수될수 있다. 주체사상의 정당성, 위대성도 반동적사상요소와의 첨예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빛나게 된다. 경험은 리론선전사업이 자기의 전투적 역할을 똑똑히 놀지 못하여 내부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약화시키거나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사상독소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사상생활은 물론 생활양식과 사회적분위기에서까지도 엄중한 후과가 생기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낡은 사상은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것도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올수도 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궁지로부터 헤여나보려고 모험적인 침략책동, 새 전쟁 도발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그 어느때보다도 발광적으로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반동적인 부르죠아철학사상과 각종 반동적리론,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류포시킴으로써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 민족적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러한 정세는 리론선전사업에서 당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세워 주체사상과 대치되는 온갖 적대적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리론선전일군들은 자본주의사상과 봉건유교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모조리 없애도록 하는 한편 반동적사상독소가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특히 리론선전일군들은 부르죠아사상조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폭로비판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리며 자그마한 비계급적, 비혁명적 사상요소라도 제때에 제거해버림으로써 사상적으로는 주체사상과 적대되는 그 어떤 사상경향도 발붙일 여지를 주지 않으며 생활적으로는 비혁명적인 안일해이한 현상, 날라리풍이 나타날수 있는 틈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어떠한 사상요소도, 우리 식과 어긋나는 어떠한 생활기풍, 사업기풍도 우리 혁명대오안에 자리잡을수 없게 하며 온 사회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움직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리론선전사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자면 이 부문 일군들의 과학리론적자질을 높이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모든 선전일군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리론선전일군들은 특히 진지한 탐구력과 열정을 가지고 남보다 몇배, 몇십배로 노력하여 과학리론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리론선전은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상리론을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부문 일군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폭넓고 깊이 정통하고있어야 한다. 그러사면 그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높은 과학리론적자질은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저절로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분초를 아껴가며 학습을 꾸준히 하는 정열가, 독학가만이 높은 자질을 소유할수 있는것이다.

리론선전일군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자, 문필활동가로서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학습을 착실하게 하며 발전하는 현실에 자기 능력을 끊임없이 따라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은 능력이 높아야 모든 사업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개해나갈수 있다. 과학리론적자질과 능력이 높지 않고서는 복잡한 리론선전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없다. 이 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학습토론회, 연구토론회들을 널리 조직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상리론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들을 폭넓게 체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과학리론일군들과 출판보도일군들이 만들어낸 리론선전물들이 온 사회에 널리 퍼져 광범한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여야 한다.

리론선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이 부문앞에 나선 무거운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리론선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이다. 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다루는 사업인것만큼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그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기간 당사상사업에서 얻은 심각한 교훈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정책과 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리론선전사업을 조직진행하는 혁명적규률과 당의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당리론선전사업이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조직전개될수 있으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리론선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리론선전일군들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일하며 남을 교양하는 위치에 있는것만큼 누구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야 하며 당정책관철에서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자면 당조직들이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며 높은 사업열의를 가지고 늘 긴장하게 일해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 리론선전사업앞에 나선 임무는 매우 무거우며 당리론선전일군들에 대한 당중앙의 기대는 크다.

모든 리론선전일군들은 당의 의도와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역할을 높이는 위력한 혁명리론

손 영 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조선혁명은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혁명이 험난한 길을 헤치고 승승장구하여온 자랑찬 행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의 혁명리론이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하여온 자랑찬 로정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혁명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주체시대의 현실적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여있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확립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시대와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새로운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거대한 견인력과 변혁적역할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 떠밀어나가는 주체의 혁명리론의 위력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혁명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인것만큼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8~79페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주체의 혁명리론의 근본특성이다.

일반적으로 혁명리론이란 혁명운동의 본질,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말한다. 혁명리론의 근본특성은 바로 혁명운동의 본질과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 혁명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밝히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리익을 최대한으로 옹호하고 역할을 높이는 견지에서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 전략과 전술을 밝힌 가장 위력한 혁명리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가장 가치있는 혁명리론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어떻게 옹호하는가에 따라 리론의 가치가 규정된다.

부르죠아어용리론가들은 이른바 《리론》의 가치를 《리윤획득》, 《리윤증대》를 척도로 하여 평가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수 착취계급과 특권층의 리익에 맞고 자본을 늘이는데 리로운 《리론》이라야 가치있는 리론으로 되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리론의 객관적진리성과 참다운 가치를 말살하고 모든 과학과 리론을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

와 억압의 수단으로 되게 하려는 반동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부르죠아적견해와는 달리 혁명리론은 언제나 객관적진리성을 가지며 정당한 리론의 참다운 가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 진리의 기준은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며 인민대중은 실천의 담당자인것만큼 그들의 리익을 떠나서는 리론의 진리성과 쓸모에 대하여 결코 말할수 없다. 결국 인민대중의 리익이 객관적합법칙성을 반영한 리론에 대한 가치평가의 척도로 되며 그들의 리익을 어떻게 반영하고 옹호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모든 리론의 가치가 규정된다.

혁명리론의 가치는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평가된다.

원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기 위한것이다. 세계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는것은 혁명리론의 근본사명이다. 혁명리론은 오직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히고 그들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옳바른 지침을 줄 때에만 참다운 가치를 가지게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혁명의 본질과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해명해준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과 요구로 표현되며 그것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리론은 혁명운동의 본질과 그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히는데서 마땅히 그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의 본질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위주로 하여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구속하는 사회적, 자연적 요인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적 및 자연적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나감으로써만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은 결국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된다. 혁명은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일정한 단계에서 고조되여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변혁이다. 그러므로 사회제도의 교체만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속하는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변혁도 혁명으로 된다. 여기에 바로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혁명의 참다운 본질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의 원인과 혁명투쟁발전과정도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 그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와 관련시켜 새롭게 밝혀준다. 낡은 생산관계가 보다 새로운 생산관계로 교체되여야 할 필연성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구속하기때문에 생기는것이며 따라서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가 구속당하는데로부터 일어난다. 혁명투쟁의 발전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력사적행정이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가 높아지고 그들의 창조적활동이 강화되는데 맞게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투쟁의 발전과정에 대한 주체의 혁명리론의 독창적인 리해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위주로 하여 혁명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견지에서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리론으로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다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가장 위력한 혁명리론이다.

모든 리론의 위력은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옳바른 리론은 인민대중의 실천활동에서 얻어진 경험의 개괄과 일반화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데서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환될수 있다.

인류가 지나온 력사적행정은 리론이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게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데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억제하고 소수 착취계급의 통치수단으로 리용된 《리론》은 례외없이 사회발전에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리론은 언제나 사회발전과정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혁명리론이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리론으로 되려면 혁명을 떠밀고나가는 근로인민대중의 힘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의 방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리론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그들자신의 힘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전략전술로 될수 있다. 이것은 혁명리론발전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객관적진리이다.

물론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공상적으로나마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론한 리론이 있었다. 이 공상적사회주의리론은 착취계급과 착취관계를 없애야 한다는 면에서는 진보적이였지만 그 방도를 환상적이며 신비적인것에서 찾음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접수될수 없었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해방투쟁의 무기로 되지 못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일정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벌어지는것만큼 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객관적,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객관적, 물질적 조건의 작용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밝힘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게 과학적인 투쟁방도를 제시해줄수 있었으며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모든 혁명리론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혁명투쟁의 객관적, 물질적 조건을 중요하게 타산하면서도 근로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밝혔다.

주체의 전략전술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방법으로 혁명력량을 편성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그들의 준비정도를 기본으로 하여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선택하는 전략전술이다. 이 전략전술은 또한 대중의 혁명적각오와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혁명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는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그들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 전략과 전술을 밝힘으로써 가장 가치있고 위력한 혁명리론으로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주체의 혁명리론의 세계관적기초는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주체시대의 혁명리론을 전개하기 위한 옳바른 기초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전개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밝힌다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78페지)

과학적인 혁명리론은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밝혀지며 그 모든 원리와 내용은 시대가 제기한 철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한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해방투쟁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해명한데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주며 그로부터 혁명리론전개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 과학적인 방법론적원칙을 제시해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일정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실현되며 혁명투쟁의 객관적행정에는 주체적요인과 객관적 환경과 조건이 결합되여 작용한다. 혁명리론이 과학적인것으로 되려면 혁명투쟁에 대한 고찰의 중심에 주체적요인인 인민대중을 내세워야 한다. 물론 혁명투쟁에서는 객관적 환경과 조건도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것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능동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 것은 혁명리론전개의 과학적인 방법론적원칙이며 주체의 혁명리론은 바로 주체사상이 밝혀준 방법론적원칙에 의거하여 혁명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전개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중심의 방법론적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혁명리론은 철두철미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모든 내용을 밝히고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리론으로 될수 있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은 그들의 본질적속성으로 체현되여있다.

혁명리론이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지향과 요구를 옳게 구현할수 있다. 혁명리론이 자주성으로부터 출발할 때 혁명운동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리해관계를 옹호고수할수 있게 되며 창조성과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할 때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으로 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고있음으로 하여 그들의 본질적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가치를 가지게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또한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전략전술로 되였다.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참다운 힘은 자주적인 혁명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있으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자주적인 혁명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어떻게 발양하는가에 달려있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혁명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가 그들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원천을 이룬다는데로부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게 하는것을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칫공정으로 삼는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은 자주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게 하는 방도를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인 혁명의식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한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 혁명과 건설의 기본동력으로 된다는데로부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도를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의식성에 의하여 규제된다는데로부터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원리와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가장 가치있고 위력한 혁명리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모든 단계와 모든 형태의 혁명실천에 구현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자기 운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옴으로써 우리 인민은 포악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위업을 수행하였으며 민주주의개혁과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으며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혁명의 승리적전진과정에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지난날 나라잃고 갖은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은 주체의 혁명리론의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위대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혀준 혁명투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우리 당이 이끄는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인 3대혁명리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혀주고있는 공산주의건설의 휘황한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손 기 학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선진투사들이며 새 사회 건설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주체시대, 로동당시대에 태여나 우리 조국의 찬란한 새 력사를 창조하는 피끓는 청년사회주의 건설자들이다.

오늘 우리 당은 청년들이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사회주의건설의 앞장에 서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운동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청년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며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며 그들을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우시려는 원대한 구상과 높으신 뜻이 담겨져있다.

청년들은 우리 당 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는것은 우선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된다.

청년들은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력부대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산도 통채로 떠옮기고 광란하는 날바다도 가로막으면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도시와 농촌, 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면모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하는 거창한 창조사업이다. 이러한 건설사업은 사람들의 혁명가적인 투쟁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튼튼한 육체적준비를 요구한다.

청년들은 그들만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징과 자질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사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피곤과 두려움을 모르는것은 청년들의 고유한 특징이다. 청년들은 또한 큰 담력과 투쟁력,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가지고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튼튼한 육체적준비와 훌륭한 기질, 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개조의 선구자, 가장 적극적인 담당자로 되고있으며 혁명력량가운데서 생기있고 전투력있는 부대로 그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건장하고 생기발랄하며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청년들이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커다란 앙양이 일어나게 될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오른 오늘의 현실은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 간고분투, 자력갱생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놓았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물론 크지만 앞으로 할 일은 더 방대하고 어려운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우리 당은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할것을 기대하고있다.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최근 우리 당은 중요한 건설대상들과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건설사업을 청년들에게 맡겨주었으며 거기에서 충성의 위훈을 떨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지난 기간 당이 부르는 영예로운 초소에서 언제나 무비의 영웅성과 청춘의 열정을 바쳐 조선청년의 기개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떨쳐왔다.

우리 나라의 도처에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발전소들과 탄광과 광산, 공장 기업소들, 철도역들에는 우리 나라 수백만 남녀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노력이 깃들어있으며 이 땅우에 마련된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들은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청년들의 위훈을 말해주고있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맡아 충성의 위훈을 떨치는것은 영웅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당과 수령의 은덕으로 세상에 부러운것을 모르고 끝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강령실현에 앞장서는것보다 더 성스러운 사업은 없으며 바로 여기에 청춘의 보람과 자랑이 있다.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용약 맡아 나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장에 적극 진출하며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맡아나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이란 주로는 일량이 많고 조건이 불리한 환경에서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부문들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부문들에서 대담성과 용감성, 새것에 대한 민감성과 그 무엇을 해보려는 뜨거운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간다면 막힌 고리들이 쭉쭉 풀리고 승리의 개가를 더 빨리 울릴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점령을 위한 새로운 탄광과 광산의 개발, 발전소건설과 철도건설, 간석지개간과 같은 건설장들에서는 혈기왕성한 청장년로력을 계속 많이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전투장들은 청년들이 젊음을 자랑하며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보람찬 활무대이다.

청년들은 오직 당에 대한 충성의 일념을 안고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당이 부르는 중요한 건설대상들과 탄광과 광산, 림업과 수산, 농촌경리부문에 계속 진출하며 경로동부문의 건장한 청년들이 중로동부문에, 비생산부문과 간

접부문 청년들이 생산부문과 직접부문에 들어가 그곳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돌격대운동을 적극화하는것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게 하는 위력한 방도이다.

청년돌격대운동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기꺼이 바쳐 주체시대, 로동당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의 영광스러운 충성의 운동이며 청년들이 젊어서 한번 해볼만한 일이다. 이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긴요한 모퉁이를 맡아 청춘의 힘과 창조적로동으로써 조국땅우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며 로동과 건설, 난관과의 투쟁 속에서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데 있다.

청년들의 기백과 열정이 넘치는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그 면모에 있어서나 활동방식에서 청년돌격대운동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돌격대이다. 군대와 같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정규화된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충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는 위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돌격부대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워내는 정치적부대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긴요한 부문과 대상들에 청년돌격대를 조직파견하고 그 활동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전투장마다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 《수도건설청년돌격대》, 《김혁청년돌격대》, 《차광수청년돌격대》의 기발을 높이 들고 위훈의 탑을 더 높이 쌓아나가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청년들이 앞장서는것이 중요합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전략적로선이다.

청년들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주요내용이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은 사실상 거의나 청년들이 담당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지하자원 개발의 척후병들인 지질탐사대원들도 거의나 청년들이며 그 개발자도 주로 청년들이다. 그리고 지하와 산중, 바다의 무진장한 보물을 캐내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것은 청년들이 맡아하여야 할 장쾌한 일이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것만큼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높아야 한다. 특히 채취공업부문 청년들의 역할을 높여 당이 제시한 광물과 석탄 고지점령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청년들이 기술혁명수행의 앞장에 서는것이 중요하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이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기술혁명을 다그치는 여기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족적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청년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역할을 한다. 청년들은 과학과 기술발전의 선구자, 담당자들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과학과 기술발전에 앞장서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수백만 근로청년들과 학생청년들, 청년과학자들이 모두가 가치있는 과학적발명이나 기술혁신안을 한가지씩만 내놓아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다. 청년들은 기술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기술수단을 현대화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며 모든 부문의 생산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기술혁명의 선구자가 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하자면 현대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투쟁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현대과학과 기술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할수 없다. 청년들은 현대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강하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미지의 과학세계를 개척해보려는 커다란 리상과 꿈, 20대, 30대에 세계적인 발명을 해보겠다는 희망과 포부, 끝없는 창조적 열정과 사색, 과학적환상을 가지고 새 기술, 새 기준, 새기록의 창조자, 발기자, 재창자, 보급자가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등 낡은 사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청년작업반운동, 청년분조운동,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혁신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대중동원방법이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경제활동방식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 대렬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강화하고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것이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 생활력을 과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속에서 설비관리사업과 경제절약투쟁을 강화하고 향토꾸리기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훌륭한 혁신적발기들이 수많이 제기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군들은 청년인테리들과 청년들 속에서 제기되는 혁신적발기들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작고 당장 은을 낼수 없는것이라 하더라도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것이라면 지지해주고 성공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커다란 포부와 담력을 가지고 가치있는 천가지, 만가지의 혁신적발기들을 대담하게 들고나와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사로청과 청년들 앞에는 《서해갑문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금강산발전소와 사리원카리비료공장 건설, 간석지와 소금밭 건설, 광복거리 건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계단 확장공사 등 중요대상들에 대한 건설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이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그 정신과 기백, 투쟁방식을 따라 전격적으로 해제끼는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선봉대가 되고 돌격대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사로청조직들과 청년건설자들은 서해갑문 건설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중요대상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차고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북부철길공사는 청년들의 힘과 슬기, 사로청조직들의 전투력을 시위하는 보람찬 전투이다.

청년들의 위력한 힘을 크게 믿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사로청과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고 빠른 기간안에 완공할데 대한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북부철길은 1980년대에 사로청과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드리는 또하나의 충성의 선물이며 북부철길공사는 보람찬 혁명실천속에서 청년들을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혁명화의 대학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건설자들속에서 건설속도를 높여 빠른 기간에 철길공사를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림으로써 다시 한번 조선청년들의 기개와 용맹을 만천하에 떨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사로청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전투적 조직으로서 당의 정치적후비대,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강령실현에서의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은 사로청조직들의 활동에 크게 달려있다.

사로청조직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정치적후비대로서, 당정책의 제일 옹호자, 제일 관철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사회주의건설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 주체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선전선동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들속에서 당의 경제정책 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일터가 창조와 투쟁, 건설과 혁신의 분위기로 들끓도록 경제선동을 박력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전투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당의 방침대로 사로청사업을 본때있게, 특색있게 조직하고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청년들은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안고 우리 당의 령도밑에 1980년대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력사를 창조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나게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유한 풍모

로 달 준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이것은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주인다운 태도의 발현이며 대중속에서 사회주의근로자의 고유한 풍모가 철저히 확립되고있는 자랑찬 현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유한 풍모는 중요하게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에서 나타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풍모입니다.》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근로자들의 고상한 풍모이다.

공동로동은 말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로동을 의미한다. 공동로동에 대응하는 개념은 개인로동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공동로동은 인류사회의 시초로부터 적용되여왔으며 그 형태도 단순협업으로부터 고도로 세분화된 분업에 기초한 협업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여왔다. 그것은 공동로동이 개인로동에 비하여 훨씬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내며 개인로동으로써는 전혀 할수 없거나 불안전하게밖에 할수 없는 작업도 쉽게 할수 있게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공동로동의 우월성은 결코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높이 발양되는것이 아니며 또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그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것도 아니다.

착취사회에서의 공동로동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는 과정으로 되여있다. 로동과정에 창조된 재부를 극소수의 착취자들이 독차지하는 적대적계급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강제와 기아에 못이겨 마지못해 공동로동에 참가하게 되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동로동의 우월성이 제대로 발양될수 없는것이다.

공동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는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 와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공동로동의 우월성도 바로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발양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동로동을 진행한다. 물론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기전까지는 개인농민경리에서의 로동과 개인수공업자들의 로동같은 개인로동이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로동을 하는 사람들속에는 공동로동이 제기되여도 그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으며 자기의 개인경리만을 소중히 여기면서 개인의 리익을 추구하는데만 신경을 쓰는것과 같은 경향이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에서 개인경리의 협동화가 실현되면 로동계급은 물론 지난날 개인로동을 하던 농민들과 수공업자들도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되여 집단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공동로동에 참가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와 더불어 전사회적범위에서 개인로동으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동로동으로의

력사적인 전환이 실현되며 이때로부터 개인로동은 오직 개인부업경리의 좁은 울타리안에서만 남아있게 된다.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로동과정에서로 긴밀하게 도와주는 동지적관계를 맺는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이 공동로동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공동로동이 착취사회에서의 공동로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착취사회에서의 공동로동은 극소수 착취자들의 치부에 리용되는 천하고 고통스러운것으로 되여있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공동로동은 집단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로동으로 되여있다. 로동과정이 전사회적범위에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동로동으로 전환되고 개인로동이 극히 보잘것없는 범위로 국한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동로동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빨리 향상되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밑천이 튼튼히 마련되며 공동로동에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광범한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보람찬 삶을 누린다. 바로 이것을 자각하고있기에 사회주의근로자들은 공동로동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며 공동로동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공동로동에서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그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로동활동을 벌려나간다는것, 다시말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활동을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동로동에서의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주인다운 태도는 로동과정에서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의 발현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이 공동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공동로동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공동로동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데서 나타난다.

그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자신이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동지적으로 협조하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동로동의 우월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며 생산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유한 풍모로 된다. 이것은 곧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형성되고 높이 발양되는 근로자들의 고상한 품성인 동시에 사회주의근로자로서는 마땅히 소유해야 할 정신도덕적기풍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유한 풍모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공동로동과정의 주인으로 되여있기때문에 그들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고상한 정치사상의식이 형성되며 나아가서 그것이 체질화된 기질로 되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공동로동과정에서도 주인으로 되고있다. 공동로동에 리용되는 모든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과정이 그 주인인 근로자들의 공동의 리익과 요구에 따라 조직진행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공동로동은 생산의 모든 물적요소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있는 근로자들자신이 그것을 자기들의 자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복무시키는 활동과정으로 되여있다.

공동로동과정에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없어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주인으로 되여있기에 그들속에서는 공동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고상한 정치사상의식이 생겨나게 되며 실천활동에서 점차 그것이 체질화된 기질로, 사회주의근로자로서는 마땅히

지니게 되는 고상한 품성으로 되게 된다. 이처럼 그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자신이 직접 공동로동과정의 주인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는것으로 하여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유한 풍모로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유한 풍모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공동로동에서 창조된 생산물의 주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로동과정에 날로 높이 발양되는 혁명적기풍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은 공동로동과정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일뿐아니라 로동의 결과로 창조되는 모든 재부의 주인이며 그 향유자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동로동과정에 창조된 물질문화적재부들이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리익에 맞게 분배되며 그들의 복리증진에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자기를 위한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은 물론 사회를 위한 로동에 의하여 생산된 재부도 결국은 그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빨리 높이는데 돌려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동로동과정에 더 많은 재부가 창조될수록 나라가 부강해지고 근로자들자신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사회의 부가운데 자신의 몫이 있고 공동로동의 생산능률을 높여 사회적부를 빨리 늘일수록 자신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는데 따라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는 공동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 주인다운 태도가 형성되며 집단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공동로동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된다.

실천을 통하여 날로 높이 발휘되는 이러한 혁명적기풍은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형성되는 근로자들의 고유한 풍모로 되며 사회주의근로자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도 바로 이런 주인다운 태도에서 중요하게 발현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일신시키고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직후 전국적범위에서 세차게 벌어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도 고용살이근성을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들을 뿌리뽑고 인민의 소유로 된 공장, 기업소들을 알뜰히 관리운영하며 공동로동을 주인답게 해나가는 새로운 기풍을 확립하는것이였다.

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을 주인답게 하는 고상한 풍모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계기로 하여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공산주의교양에서는 언제나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지난날 개인로동을 하던 사람들 특히 농민들속에서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는데 큰 힘을 넣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는 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생산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속도와 군중적운동으로 일떠선 자랑찬 창조물들은 모두 공동로동에서의 우리 근로자들의 헌신

성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공동로동을 주인답게 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상한 풍모는 오늘 숨은 공로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오로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숨은 공로자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대동군안의 근로자들속에서도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누가 보건말건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숨은 공로자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우리 대동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수십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여주신 영광의 땅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대동군에서 사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높은 향토애를 가지고 공동로동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기풍이 계속 높이 발양되고있다. 군안의 숨은 공로자들가운데는 력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에 참가하던 때로부터 칠순이 가까운 오늘까지 40년 세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의 사적이 깃든 향토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섬으로써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평가를 받은 팔청리의 오랜 당세포비서도 있으며 불도젤로만 토지정리를 할수 있다는 신비성을 깨뜨리고 대담하게 천리마호뜨락또르에 의한 토지정리방법을 받아들여 자체의 힘으로 개인농경리의 산물인 1,270여뙈기의 논을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30여정보의 새땅을 찾아내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반석리의 평범한 농산분조장도 있다.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풍모는 군안의 공업부문과 봉사부문, 교육부문과 과학연구부문 일군들속에서도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오랜 당원들속에서뿐아니라 해방후 자라난 새세대들속에서도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는 숨은 공로자들이 계속 배출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확증해주며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이 개인의 리익이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분배몫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다 바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동로동을 주인답게 하는 고상한 풍모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질적으로 알뜰하게 만들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인민생활이 날로 유족해지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근로자들과 새세대들 속에서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수 있는 사회경제적기초를 마련하여놓지만 여기에서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결코 저절로 확립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로동이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 로

동의 차이가 남아있으며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착취계급의 사상과 공동로동보다 개인부업경리에 신경을 쓰는 소소유자적근성, 개인리기주의 같은 낡은 사상 잔재들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는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뿐아니라 생활이 유족해짐에 따라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못한 근로자들과 로동에서 단련되지 못한 새세대들속에서 되살아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지 않는다면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거나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지 않는 그릇된 경향을 뿌리뽑을수 없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발전속도를 높일수 없게 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을 주인답게 하는 고상한 풍모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공동로동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는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의 발현이다. 이러한 자각성은 오직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서만 배양될수 있으며 실천에서 높이 발양될수 있다.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다같이 힘있게 벌려야 하지만 특히 농촌경리부문의 근로자들속에서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난날 그 어느 부문보다도 오래동안 개인로동이 지배적이였을뿐아니라 오늘도 그 생산기술적특성으로 하여 공동로동 조직과 평가가 힘들게 되여있다. 농업로동은 포전들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 결과도 인차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생물체인 동식물을 재배사육하는것과 관련하여 적기를 보장하며 질적으로 일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바로 이런 요인들로 하여 농촌경리부문 근로자들속에서는 공동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고상한 풍모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맡은바 혁명임무수행에서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공동로동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줄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주체사상교양의 생활력이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공동로동에서 높이 발양되도록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하며 공동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로동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정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고상한 풍모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숨은 공로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교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숨은 공로자들은 오로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온 우리 시대 참다운 애국자의 빛나는 구감이며 그들의 모범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인답게 일해나가도록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공로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선전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근로자들이 누가 보건말건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지니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공동로동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고상한 풍모를 지니게 할수 있다.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심화시켜 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고상한 풍모를 확립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로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평가를 잘하는것이다. 로동의 결과에 대한 옳바른 정치적평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훌륭한 방도로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근로자들을 제때에 정치적으로 평가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명예칭호와 국가수훈을 받는 영광을 지니도록 계속 이끌어주어야 하며 모두가 집단적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 새로운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내세워주는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를 더욱 높이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로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평가를 잘하는것과 함께 물질적평가를 옳게 안받침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서 주인답게 일하는 고상한 풍모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과도적특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공동로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평가를 잘하는 한편 물질적평가를 옳게 안받침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을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로동규률도 강화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로 하여금 공업부문에서의 독립채산제와 농촌경리부문에서의 분조관리제를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의 결과를 제때에 정확히 평가계산하고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잘 지도함으로써 적게 일하고도 많은것을 받으려는것과 같은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계속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모든 일군들 특히 초급일군들이 공동로동에서 이신작칙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고나가게 해야 하며 로동에서 성실치 못한 현상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고상한 풍모를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 대동군당위원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를 철저히 지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더욱 일신하고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당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근본요구

박 수 옥

당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은 당대렬의 조직적공고화를 위한 혁명적당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대렬을 정예화하여야 당의 계급적성격을 고수하고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당건설의 총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것을 우리 당 건설의 근본요구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에 과학적해명을 준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며 우리 당을 그 구성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 *

당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근본요구이며 당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근본요구의 하나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1폐지)

당대렬을 정예화한다는것은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을 구성하고있는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을 말한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이다.

혁명가의 가치와 존엄은 그 사상정신적풍모에 의하여 평가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녀야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설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지니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높은 자질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으로 된다.

우리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은 그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높은 실무적자질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를 구현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견결히 싸워나가는 인간,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혁명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실무적으로 준비된 혁명가로 키우는 여기에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사상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을 강력한 조직적부대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봉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각오가 되여있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가장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무어진 정치조직이다.

당을 강위력한 조직적부대로, 정치조직으로 만들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하고 견실하며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는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자기 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 참다운 정치조직으로 될수 없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다할수 없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력사가 남긴 귀중한 교훈이다. 력사적경험은 당안에 동상이몽하는자들, 불순이색분자들과 우연분자들이 있게 되면 당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해독을 끼쳤으며 당대렬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던 종파의 오물을 제때에 쓸어버리고 당대렬의 조직적단결을 강화할수 있은것도, 온갖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은것도 당의 핵심진지를 강화하고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워 우리 당을 불패의 전위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린데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로 여기고 언제나 그것을 해결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은 또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당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5페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그 구성에 있어서뿐아니라 활동방식에 있어서까지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만들기 위한 당건설의 총적목표이다.

전당주체사상화는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건설, 당활동을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 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거창한 당건설위업이다.

전당주체사상화위업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하는것은 당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사업을 얼마나 힘있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당대렬을 정예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무엇보다도먼저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 우리 당을 그 구성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할데 대한 전당주체사상화의 전략적과업도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당건설, 당활동을 철두철미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활동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오직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건설하고 모

든 활동을 벌려야만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할수 있고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것만큼 마땅히 당건설, 당활동을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적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를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것은 당사업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며 당건설, 당활동을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건설과 당활동의 담당자, 주인은 다름아닌 당원대중이다.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당원들을 통하여 수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없애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요구들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위대한 사상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대렬은 계급가운데서 높은 정치사상적풍모를 가진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대렬이 저절로 혁명적신념이 확고하고 자질이 높은 완성된 혁명가,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려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가 이끄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높은 사상적각오와 고결한 풍모를 체현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더욱 공고화되게 된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이 력사적행로는 우리 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된 로정인 동시에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 보람찬 로정이였다.

해방직후에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투쟁, 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반대하고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등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원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하고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 투쟁속에서 우리 당원들은 당과 혁명의 령도자인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혁명이 보위되고 당의 혁명적성격이 고수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체득하게 되였다.

실로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투쟁은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우리 당 건설위업은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인 투쟁을 계속 수행하며 그것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당대렬을 정예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된것은 전당의 주체사상화구호가 제시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개시된 시기였다. 우리 당의 력사에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시기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렬을 정예화하는 사

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 있는 보람찬 시기로 빛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으로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혁명적방침들을 제시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특질과 기본품성을 비롯하여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우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신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실로 귀중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하였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그리고 먼저 준비된 당원들로 당세포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을 정수분자로 키워나갔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당장성사업을 바로하는데 언제나 큰 힘을 넣었다. 당장성사업을 잘하는것은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확대하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기 위한 당건설의 원칙적문제이다. 당장성사업을 옳게 하여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여 당대렬을 질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다. 또한 당안에 불순이색분자들이 기여들수 있는 틈을 없애고 당대렬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여 우리 당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려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장성사업을 그 계급적성격과 혁명적원칙에 맞게 하며 당장성사업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대렬을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당장성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당력량이 골고루 포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따라 당대렬의 정예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함께 오늘 우리 황해북도안의 당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불꽃튀는 용광로앞에서 강철생산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나가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원들을 비롯하여 오늘 도안의 모든 당원들은 경력과 당년한도 다르고 지식정도와 직위, 맡겨진 혁명초소도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열망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험한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드팀없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 맡은 초소에서 전위투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데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대렬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뭉친 위력한 전투대오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대렬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고 따르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진 바로 여기에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크나큰 업적의 하나가 있으며 그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고귀한 재부로 되고있다.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고 당사업을 적극 벌려나갈 때 당대렬의 조직적공고화를 위한 혁명적당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

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제시된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그 위대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혁명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당대렬의 조직적공고화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였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각급 당조직들로 하여금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었다는데 있다.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당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또한 그 의의가 있다. 우리 당원들은 조선에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책임지고 완성하여야 할 전위투사들이다. 우리 당원들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어떻게 훌륭히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이 그들을 높은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어떻게 튼튼히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어려운 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제힘으로 무조건 수행하는 불굴의 전사가 되여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참으로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당 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 당 건설에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자기 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전당을 하나의 공고한 조직적통일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멸의 공적의 하나이며 당의 주체적성격을 끝까지 고수할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대렬을 정예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당건설의 근본요구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을 명실공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혁명위업을 그 어떠한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대를 이어 우리 식대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대렬을 정예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우리 당 대렬을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자

리 동 춘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은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견결히 투쟁하여온 충실한 혁명전사들의 위훈으로 빛나고있다.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사수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워온 불굴의 혁명전사들의 빛나는 모범은 우리 혁명의 전진과 함께 끊임없이 계승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는것이다.

* *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당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과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혁명전사들의 첫째가는 의무입니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것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과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수령의 권위와 당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견결히 투쟁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적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의 마당에서는 혁명의 령도자를 보위하기 위하여 목숨바쳐투쟁하며 창조와 건설이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 정당성을 확증하고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는것으로서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는것은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그것이 개척되는 때로부터 그 발전과 완성의 전력사적과정이 혁명의 뇌수이며 최고령도자인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 그 실현방도를 집대성한 혁명의 지도사상과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강력한 혁명력량이 마련되여야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발생발전과 그 완성과정을 담보하는 혁명의 지도사상과 혁명력량을 마련하는 사업은 수령에 의하여 실현된다.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 그것을 집대성한 혁명사상을 창시하며 근로인민대중을 묶어세우고 혁명전사들을 교양육성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또한 그것이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자면 반드시 혁명에 대한 옳바른 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수령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

력으로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 조성된 정세를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바른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세련된 령도예술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은 력사적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승리하고 완성된다.

때문에 수령의 령도는 혁명위업의 개척과 승리적인 전진만이 아니라 종국적완성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하며 혁명의 세대교체와 함께 줄기차게 이어져나가야 한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투쟁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실현된다.

수령의 후계자는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한 수령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며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후계자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수령으로 된다.

수령이 없이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떠나서 혁명위업의 완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혁명의 승패와 전도는 전적으로 수령과 후계자에게 달려있으며 수령과 후계자의 역할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불멸의 력사이며 혁명투쟁의 승리는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한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는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혁명위업은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후계자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여야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한 불멸의 력사이다.

이로부터 당과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며 옹호보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서게 된다.

우리 인민은 반세기가 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당과 수령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변함없이 충실하였다. 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자기의 수령을 옹호보위하지 못하여 곡절과 시련을 겪은 실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아무런 동요와 곡절도 없이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이것은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것이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는것은 혁명전사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이다.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전사는 떼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최고령도자이며 전사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몸바쳐나선 자각적인 투사이다. 혁명전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을 때 숭고한 리상과 목적을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의 령도자는 충실한 전사들이 많아야 자기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수령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전사들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이다. 혁명전사들은 누구나 다 수령의 손길밑에서 혁명의 진리를 배우고 투사로 자라나게 되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전사는 자기 운명을 전져주고 인생을 키워주었으며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마땅한 혁명

적본분으로, 최대의 사명으로 여기며 혁명의 령도자를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게 된다.

충실한 전사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은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를 언제나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의리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는데 있다. 인간이 아름답고 고상한것은 바로 의리를 알고 의리를 지킬줄 알기때문이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령도자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며 비록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기를 안아키워준 령도자에 대한 의리를 버릴수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당과 수령을 보위하기 위하여 날아오는 적탄도 막아나서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될수 있다.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고 온 마음이 그대로 성새가 되여 당과 수령을 철옹성같이 옹호보위하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최대의 의무로 삼고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전사의 도리를 지키고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는 참된 길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충성의 일편단심으로 령도자를 받들고 희생적인 투쟁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것은 혁명전사의 첫째가는 의무로 되며 혁명적본분으로 된다.

우리 혁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오는 과정에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만이 충직한 전사를 가질수 있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한 전사만이 당과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목숨으로 보위해나갈수 있다.

조선혁명이 개척되던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그들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목숨으로 헤쳐나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그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창조한 빛나는 모범은 우리 혁명의 각이한 단계들에서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실한 전사들을 수많이 낳게 한 참다운 본보기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15성상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굴함없이 싸웠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조선혁명의 승리가 있고 광복된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자기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로부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에 뜻하지 않은 위험이 닥쳐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혁명의 사령부를 지키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령관동지의 신변은 언제나 튼튼히 호위되고 조선혁명의 기치는 견결히 고수될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창조되고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높이 발휘된 수령을 옹호보위한 빛나는 모범은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나날 영웅적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불타는 고지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전사들이 그러하였으며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나섰던 어려운 시기에 강철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한 강선의 로동계급과 위대한 수령님만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당과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옹호보위한 충직한 우리 인민이 바로

그러하였다.

혁명의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당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모두가 우리 당을 높이 받들고 옹호보위하는 하나의 흐름에 충성의 마음을 합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항일혁명의 불길속을 헤쳐온 로투사들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불타는 락동강을 건느면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도 다같이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옹호보위하고 받드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있으며 로동당시대에 태여난 새세대들도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중앙을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실로 우리 혁명의 승리가 이룩된 성스러운 그 길에는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한 지휘관도 있었고 사령부의 안전과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혀까지 끊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투사도 있었다. 그 길에는 가렬처절한 격전장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바라고 만수무강을 축원하면서 결사전에로 나간 영웅전사들도 있었으며 가장 준엄한 시기에 신념의 웨침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한 소박한 인민들도 있었다. 그 길에는 20리 날바다우에 최상의 서해갑문을 건설하여 수령의 구상을 실현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한 영웅건설자들도 있었다.

참으로 그것은 혁명의 령도자와 전사, 수령과 인민과의 참다운 관계를 보여준 빛나는 모범이였으며 혁명승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증한 자랑찬 력사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모두가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당과 수령을 더욱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정세가 조성되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변함없이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이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려는 각오와 결심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수령관은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특징짓는 기본척도이며 참다운 혁명가와 우연분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만 혁명적수령관이 서지 못한 사람은 자그마한 난관이 제기되여도 동요하며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 승리의 신심을 잃고 변절자로 굴러떨어질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고있는 하나의 진리이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가들과 한생을 혁명의 길에서 꿋꿋이 살아온 사람들은 다 혁명적수령관이 선 사람들이였다. 반대로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 변절타락한자들은 례외없이 수령관이 바로서지 못한자들이였다.

이것은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것이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선차적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이 당과 수령을 모시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지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그들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사수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는것은 당과 수령을 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것은 곧 우리 혁명을 보위하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지키며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사수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력사적으로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기여들었던 배신자, 음모가들은 당과 혁명의 령도권을 탈취하려는 야심으로부터 수령과 그 후계자의 결정적역할을 거부하고 그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지난날 우리 혁명대오안에 잠입하였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도 례외없이 당과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헐뜯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반대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교훈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가 크고 당과 수령의 령도적 권위와 위신이 높아질수록 혁명의 원쑤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진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혁명의 령도자의 권위와 위신을 옹호보위하는 사업이야말로 혁명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위한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는것을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 온갖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당과 수령을 철저히 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권위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추호의 타협이나 사소한 양보도 모르는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들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수령과 그 위업에 충실한 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치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행정에 귀중한 투쟁경험과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과정에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하고 그 력사적지위를 명확히 밝히였으며 수많은 사상리론적재부들로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함으로써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경제문화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것도 우리 당의 커다란 업적으로 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이 이룩한 모든 사상리론적재부들, 당의 강화발전과 통일단결의 업적, 경제문화건설에서 이룩된 업적들이 얼마나 귀중하며 그것이 어떤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마련된것인가를 잘 알아야 하며 그것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령도자의 신변안전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업은 혁명의 령도자의 신변안전과 만년장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

령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최고의 념원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령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는데 바로 전사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무강하셔야 우리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번영,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과 수령의 신변안전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며 령도자의 건강과 장수에 가장 유익한 조건과 최상의 편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당을 받들고 수령을 모시는 사업에서는 자그마한 빈틈이나 사소한 실수도 있을수 없으며 모든것이 철저하고 완전무결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당과 수령의 안녕을 지켜야 하며 교대없는 보초병, 영원한 호위전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소원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며 혁명가의 보람도, 인생의 참된 행복도 오직 령도자의 안녕과 만년장수를 보장하는 충성의 한길에서 찾을줄 아는 80년대의 충신이 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혁명전사들의 충실성은 수령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말로만 당에 충실하겠다고 맹세하고 실지행동으로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지 않는것은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이며 충실하지 못한 행동이다. 가장 깨끗한 의리와 량심으로, 불굴의 의지와 철석의 신념으로 수령의 사상을 옹호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령도자의 은덕을 잊지 않고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충실한 혁명전사이며 진심으로 령도자를 받들고 실천행동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일군들이 수령이 바라고 당이 의도하는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진실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순간의 지체나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더없는 기쁨과 보람으로 되여야 하며 수령의 전사로서의 최대의 영예와 행복으로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이 의도하고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정책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관철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혁명의 길에는 영광도 있고 시련도 있으며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으며 탄탄한 대로도 있고 험한 진펄길과 불타는 강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오고 아무리 험한 산악과 진펄이 앞길을 막아나서도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간직되고있는 확고한 의지이며 철석같은 신념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중요과업

허 영 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총서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총화하시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과업은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은 경제건설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여야 경제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85페지)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인 경제이며 자기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경제이다. 이러한 경제는 자기 나라의 범위에서 생산소비적련계가 완결되여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경제로 된다.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하여야 자체의 온갖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오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오늘 우리앞에는 새로운 경제건설과업들이 련이어 나서고있으며 원료, 자재와 동력, 기계설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는 날로 증대되고있다.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될수록 식의주문제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수준도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우리 경제의 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 많은 나라들과의 경제적 련계와 교류가 확대되고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모든 내적자원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우리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인민의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킬수 있으며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경제의 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물질기술적으로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다그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을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일정한 순차적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되며 그 매개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과업들은 서로 같지 않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에는 경제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락후성, 경제기술적 예속과 의존을 없애는것이 주되는 목표였다면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되는 요구는 그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장비수준과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전면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많이 창설하고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여 부문구조를 보다 완비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수입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을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으로 점차 개편하는것도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이것은 바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면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자립성, 주체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다 새로운것으로 개선되게 된다.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있는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발전된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할때 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은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며 그 기술적자립성은 더욱 강화되게 된다.

현대화된 기술수단은 그에 상응하는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과 옳게 결합되여야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들을 자연법칙과 기술공학적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완성하며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비롯한 경영활동을 객관적경제법칙과 경제관리원칙의 요구대로 과학적으로 진행되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 생산이 과학적으로 진행되게 하며 자립적인 경제체계와 현대화된 기술수단들이 그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게 한다.

이처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경제발전속도를 높이는 요인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가운데서도 경제부문,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의 보장, 로동생산능률의 장성, 생산 및 경영활동의 효과성의 제고를 비롯한 경제기술적요인들은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경제발전속도에 영향을 주는 경제기술적요인들을 원만히 갖추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말그대로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인것만큼 경제발전속도에 작용하는 경제기술적요인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자기 힘에 의거하여 확신성있게 빨리 발전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자립적민족경제로서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경제발전속도에 영향을 주는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의 합리적인 보장, 로동생산능률의 장성, 생산 및 경영활동의 효과성의 제고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내세우고있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문구조를 완비하게 되면 생산의 물적요소들을 중단없이 보장해줄수 있으며 원료채취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생산순환의 모든 단계와 고리들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갖추고 완결할수 있다. 그리하여 다종다양한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 주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화롭게 련결시킬수 있다. 이것은 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와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여 확대재생산을 끊임없는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게 하는 조건의 하나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수단들을 보다 생산성이 높고 발전된 현대적인 것으로 개선하는것은 로동생산능률을 장성시켜 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고리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 로보트화를 실현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수록 근로자들이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단위시간에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할수 있다. 기계설비의 현대화는 결국 로동생산능률을 장성시켜 물질적부를 증대시키고 경제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생산 및 경영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것도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생산 및 경영활동의 효과성을 높이지 못하면 생산의 물적, 인적 요소들을 랑비하고 구경에는 경제발전속도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과학화의 요구대로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개선하여 로동대상과 로동수단, 로동력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때 생산 및 경영활동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빠른 속도를 더 잘 보장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목표들을 원만히 실현할 때 경제발전속도에 영향을 주는 경제기술적요인들을 더 잘 갖추어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를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세우고 그것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여기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리유가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인민경

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모든 경제사업을 여기에 철저히 복종시켜나가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 우리 인민은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온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있던 탄광, 광산들이 개건확장되고 새로운 탄광, 광산들이 대대적으로 개발되였으며 자체의 자원에 의거한 대규모발전소들과 중소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이 추진되였다.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공업을 건설하는 원칙에서 공업부문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함으로써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업의 부문구조가 보다 완비되였다. 특히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근에 서해갑문 건설과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계단 확장공사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날을 따라 더욱 공고화되고있으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전반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화학공업과 건재공업을 비롯하여 기간적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을 보다 능률적인 생산공정, 생산방법으로 개조하고 기업관리에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받아들이는데서 자랑찬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이처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로서의 면모를 더욱 튼튼히 갖추게 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현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으며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실증해주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47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자력갱생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수 있다. 그러므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는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인민경

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제힘으로 해낼수 있다는 신심과 각오를 가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남에 대한 의존심은 맡은 임무를 자기가 책임지고 제힘으로 수행해나가는 기풍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혁명적기풍으로 온갖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에 있다. 기술혁명을 떠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도 원만히 풀수 없으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없다. 원료, 연료, 동력 자원의 개발과 리용 분야의 기술을 혁신하며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널리 진행하며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방대한 규모의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오늘 그것을 잘만 리용하면 큰 투자를 들이지 않고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다 훌륭히 마련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기본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모든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원료,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맞물린대로 어김없이 주고받으며 협동생산규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현물지표별로 완수 및 초과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이 키워준 담력으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며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적극 이끌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특히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경제기술적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하며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자신의 정치실무수준과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야 할것이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는 기술혁명의 기본

김 병 규

오늘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나라의 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기술혁명방침을 관철하여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다그치는것이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는 기술혁명에서 기본이며 인민경제 기술장비의 강화와 현대화의 기본방도로 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사회적생산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며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는 기계설비들과 자동조종장치들이 생산공정에서 사람들의 로동기능을 전면적으로 대신하는 기술발전의 높은 단계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에서 기본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672페지)

기술혁명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기술혁명의 본질이 있다.

기술혁명은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하며 생산과정에 선진기술공정과 최신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기술혁명은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있으며 각이한 측면들을 가지고있지만 그가운데서도 기본으로 되는것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이다.

생산공정의 기계화는 근로자들의 손로동에 의하여 진행되던 생산공정을 기계들의 작업공정으로 바꾸는것을 의미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는 생산과정이 자동장치와 그에 의하여 조종되는 기계설비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하는것을 말한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가 기술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된다.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향이다. 사람들이 기술을 혁신하는 중요한 목적은 로동을 더 헐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만들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며 사회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자면 개별적인 로동수단들을 끊임없이 개조하며 그 기술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는 생산공정에서 제기되는 작업을 기계의 작업으로 바꾸거나 자동화된 기계장치들에 의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육체적로동을 기술수단들이 대신할수 있게 한다. 기계화, 자동화된 생산공정들에

서 사람들은 다만 기계들의 동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개별적기술수단들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나 전반적인 작업공정,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게 되면 보조작업으로부터 기본작업에 이르는 생산공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작업을 기계설비와 자동장치들에 의하여 진행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로동을 헐하고 흥겨운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처럼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는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데 대한 기술혁명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가 기술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빨리 높이는것은 기술혁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과 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로동생산능률을 장성시키며 적은 로력으로 생산을 늘이는 문제는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는 생산과정에 발전된 기계수단들, 자동화된 능률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 생산공정의 전반을 기계적힘에 의하여 움직이게 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면 로동의 기술장비도를 높이고 그에 기초하여 단위생산물에 대한 산 로동의 지출을 훨씬 줄이게 된다. 개별적인 기술수단들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경우에도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절약하며 생산을 빨리 증대시킬수 있다. 그러나 생산공정의 전반을 기계화, 자동화하면 개별적기계설비들사이의 능력상 불균형과 생산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공간들을 없애고 련속적으로, 흐름식으로 생산을 조직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비할바없이 높일수 있게 된다.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면 생산의 집약화수준이 높아지고 작업의 정확성, 신속성, 정밀성이 보장되며 제품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서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고 생산능력을 장성시키며 인민경제부문사이의 기술장비에서의 차이도 빨리 없애게 한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공업분야에서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 문제는 주로 공작기계공업, 자동화공업, 전자공업, 정밀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계공업과 그리고 여러가지 기초과학과 기계공학, 자동화공학의 발전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기계공업, 자동화공업, 전자공업, 정밀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한편 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생산공정들과 유해로동, 고열로동이 진행되는 부문부터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우리 당이 기간공업부문에 자동화의 본보기를 꾸리고 전국의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이 밝혀준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단순히 기술개조를 위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를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자동화를 실현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기술발전에 낮을 돌리고 기술혁신을 저애하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며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며 기술경제적조건보장과 기술지도를 잘하도록 힘있게 이끌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벌어진 결과 금속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부문들에서 산업텔레비죤화와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가 서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뿐아니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동화의 본보기가 창조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만 하여도 강철직장을 비롯한 전반적 생산공정들에 산업텔레비죤이 도입되고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가 섰으며 사별장, 5.14직장, 환원단광직장, 소결로직장, 규석직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장들과 생산공정이 종합적으로 원격화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타오른 전면적자동화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번져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많은 생산공정들이 기계화, 자동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벌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들과 건설, 운수, 체신 부문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다그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52페지)

우리는 지금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현대화를 다그쳐나가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당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아직 남아있는 채취공업부문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큰 힘을 넣으며 철도운수의 현대화와 체신부문의 자동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금속, 화학, 건재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서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현하며 긴요한 생산공정부터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를 세우고 개별적생산공정들에 공업로보트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우리 당은 농촌기술혁명에도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농산, 축산, 과수 작업을 기계화하며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쳐나가도록 하고있다.

기술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공정에 현대화된 기술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생산공정의 전반을 기계화, 자동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전반적인 경제의 기술장비를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뿐만아

니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이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다.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결정적수단은 기계이며 생산력의 발전도 기계의 도입과 개선으로 이룩된다. 기계혁명에 의하여 기계설비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기술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생산기술공정이 개선된다.

최근년간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설비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갱신되고 현대화되는것만큼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많이 생산하는것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1985년 6월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대형공작기계와 특수공작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작기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 기계공업의 기본을 이루는 공작기계가 있어야 필요한 기술수단을 마음대로 만들수 있으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폭넓게 진행해나갈수 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는 자동화된 기계들을 많이 생산하며 초정밀가공기술과 전기, 물리화학적 가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유압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그리고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고속도화, 대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작기계의 정밀도, 회전수, 절삭속도 등 기술적성능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대형기계들과 대형설비 생산을 늘이는것이 중요하다. 기계공업에서 형단조화, 프레스화비중을 높이며 주물과 용접, 절연물생산, 공구제작 등에서 혁신을 이룩할 때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다그쳐나갈수 있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의 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이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동화, 로보트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은 기계공업과 함께 기술혁명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 반도체소자와 집적회로, 자동화 요소와 기구, 계기류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빨리 실현할수 있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는 전자, 자동화 요소를 만드는데 절실히 필요한 전자재료생산기술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의 요구에 맞게 특수한 정밀정제기술을 비롯한 전자재료생산기술을 발전시켜야 집적회로와 반도체소자를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수 있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는 집적회로기술과 전자계산기제작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전자계산기와 그 주변장치의 생산기술을 개선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전자연산기구를 비롯한 전자장치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명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 담당자들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을 창안하고 제작하여 생산에 적극 받아들일수 있으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125만명에 이르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있다. 우리 당이 키워낸 이 과학기술일군대렬은 대단한 력량이며 그들모두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때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사업은 어려운 기술경제적사업인것만큼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에 대한 보장사업을 잘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계획화사업, 특히 기술발전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는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새 기술도입과제를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하여야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그리고 기술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여 여러가지 실험설비, 기구와 측정수단, 시약 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중간시험공장들과 과학연구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꾸려주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옳게 평가해주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기술을 당의 의도에 맞게 발전시키고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여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더욱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

박 용 순

사람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문제는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교육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발전시켜나가야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사회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우리 당은 교육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 *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374페지)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한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은 사람이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가장 포괄적인 풍모와 자질의 2대구성부분이다.

사람이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세계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갖출수 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없다. 사람은 오직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라야만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창조적이며 혁명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사람이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또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창조적능력은 힘있는 존재인 사회적인간의 필수적자질이다. 인간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와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창조적능력은 중요하게는 과학지식과 튼튼한 체력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으며 그것은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으로 표현된다. 사회적인간이 가져야 할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은 그가 소유하고있는

과학지식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풍부한 과학지식을 떠나서는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창조적능력을 대표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세계의 존재와 운동법칙을 파악한 과학지식이다. 과학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대상의 성질과 운동법칙에 맞게 의식적으로 행동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의 과학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사람은 아는것이 많을수록 현실을 더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하며 그만큼 실천활동을 벌리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아는것이 힘이라고 일러왔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보다 성과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선진사상을 넣어주고 그들이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지식과 건전한 체력을 가지게 한다.

물론 사람은 자연을 길들이고 사회를 변혁하는 실천활동과정에서도 많은것을 배우며 개조된다. 그러나 사람이 실천활동과정에서 배우는것만으로는 인류가 력사적으로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충분히 습득할수 없다. 특히 새세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로동할 나이가 되여도 사회적실천에 참가하여 제구실을 바로할수 없다. 사람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습득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된다.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고 하여 모든 사회의 교육이 다 그러한것은 아니다. 인류사회의 출현과 함께 사회현상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범주가 생겨나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이 진행되여왔으나 인간개조와 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와 역할이 어느 사회에서나 꼭 같은것은 아니였다.

착취사회에서 교육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략탈과 치부의 공간, 정치적지배의 도구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이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있는 자본주의교육은 금융자본의 치부수단으로 되고있으며 학교가 자본가들의 돈벌이마당으로 되고있다. 여기에서는 인격도 지식도 다 상품화되고있다.

부르죠아교육은 그자체가 개인의 탐욕과 권력, 출세와 질투, 부화와 퇴폐 그리고 온갖 비과학성으로 일관되여있다. 부르죠아교육에서는 인간의 전면적발전,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다만 사람들을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상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쓸모없는 기형아로 되게 할뿐이다. 이리하여 부르죠아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예속적처지를 숙명적인것으로 여기게 하며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을 억제한다.

오직 사회주의교육만이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입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3페지)

사회주의교육은 사상교양에 기본을 두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

시킨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는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튼튼히 가지게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학생들의 능동적사고활동을 적극 계발하고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조장발전시킬수 있는 교수교양방법을 적용하며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해나간다. 사회주의교육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그자체가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직접 이바지한다.

사회주의교육이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교육의 인식교양적특성과 관련된다.

사람들을 교육교양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과학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자연을 개조하자면 그 법칙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개조해나가야 하는것처럼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려면 인간의 육체 및 사상의식 발전법칙에 따르는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쳐야 한다.

사회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닐뿐아니라 단꺼번에 형성되는것도 아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사람들의 성장과정과 사회생활과정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배양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그들의 성장과정과 사회생활과정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단순한것으로부터 복잡한것에로,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점차 발전하며 공고화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데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적의식의 모든 형태들 그리고 혁명적실천 등 여러가지 수단과 공간들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 모든 형태와 수단들은 사람들의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발전시키는데서 그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대신할수 없다. 그것은 이 모든 형태와 수단들이 다 인간사유의 발전법칙에 따르는 목적지향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과정으로 될수 없기때문이다.

혁명적실천문제를 놓고보더라도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것을 배우지만 그것은 체계화된 지식으로 되지 못하고 단편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은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놀지 못한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두뇌는 물품을 무질서하게 쌓아놓은 창고와 같다.

사람들은 사회주의교육을 통해서만 사상의식발전과 지적능력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과학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수 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보다 완벽하게 갖출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목적과 합법칙성에 맞게 교육내용을 규정하며 사람들의 사상심리적, 육체적성장에 상응하게 순차성을 보장하면서 그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나간다.

사회주의교육은 혁명성으로 일관되고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울수 있도록 사람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지적발전수준에 맞게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결합하여 그 내용을 구성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교육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또한 인간개조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리론과 방법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그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하여 인간개조에 작용하는 학교적인 또는 사회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리용되며 인간육성사업자체가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교육은 자기의 고유한 인식교양적특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 작용하는 다른 모든 형태와 공간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킨다.

사회주의교육이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것은 그것이 의거하고있는 교육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도 관련된다.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개조하기 위한 교육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교육이 참말로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자면 전민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은 몇몇 사람들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일부 소수계층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다. 이것은 교육의 대상에 관한 문제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전면적으로 끊임없이 교육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의 기초로 되는 과학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의 학교교육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과학기술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그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사람은 일생동안 교육을 받아야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회발전에 상응하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력을 높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와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바로 전민교육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생동안 배울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게 하는 참으로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이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근거의 다른 하나가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교육사업전반에 확고히 보장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였으며 교육의 질적수준이 체계적으로 높아졌다.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민족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사회주의교육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한 결과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는 확고한것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며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히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혁명적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사회주의교육사업이 발전함으로써 또한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경제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125만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자라나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이것은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되여 이룩된 교육사업의 성과인것으로 하여 그토록 위대하고 귀중한것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교육사업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교양개조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있다.

오늘 우리 교육부문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교육사업, 인간개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기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단계는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준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세계관의 골격도 서게 되고 사고능력의 기초도 마련되게 된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회적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과 자질의 기초를 원만히 쌓을수 있다.

현시기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은 그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현대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기술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최신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혁명적인 인테리들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으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교육일군들과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교원들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교육의 질은 교원들의 자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교육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교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정세학습, 과학기술학습 등 모든 학습을 정력적으로 꾸준히 하여 자신을 사상리론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고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김 학 봉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빛나게 구현하여왔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전반사업을 추켜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의 력사, 그것은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자랑찬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한 단위에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견지하고계시는 특출한 령도예술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시범단위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산 현실을 통하여 검증하고 당정책관철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교훈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리는 본보기단위이다. 따라서 시범단위에는 당과 수령이 의도하는 문제가 전형적으로,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다른 모든 단위들에서 거울로 삼고 받아들여야 할 모범이 담겨져있다.

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통하여 모범을 창조하는것은 실물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실속있게 가르쳐주어 그들로 하여금 사업에서 신심을 가지게 하고 실지경험도 체득하게 함으로써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창조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자면 그들을 고무하는 참신한 실천적모범이 필요하다. 시범단위는 그 전형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주며 신심을 안겨준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이처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정책의 본질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고 전반적인 사업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그것을 가장 실속있게 수행할수 있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생동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도하는것만큼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지도에서 현실성과 구체성, 과학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일정한 단위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참다운 시범단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산 현실로 전변된 력사적단위이며 당사업을 개선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범단위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범단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체

득하게 되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해야 할 과업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시범단위를 내세우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빛내여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며 시범단위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그 어떤 행정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근본립장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시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해방후 당 및 국가 건설,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인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로부터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투쟁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는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령도방법이 빛나게 구현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을 구현하시는데서 언제나 우리 평안남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요한 당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그것을 먼저 평안남도에서 집행하여보게 한 다음 전국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8권, 394페지)

평안남도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남도가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언제나 우리 도를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당의 중요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평안남도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시였다.

해방직후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황금산의 력사를 펼쳐주신곳도 평안남도 양덕군 구지골이였으며 갓 조직된 당세포들이 쇠소리가 나게 일하도록 이끌어주신곳도 개천군 조양면 동림리 양참당세포였고 몸소 세포학습회를 지도하여주신곳도 순천군 사인면 삼화당세포였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농업협동화의 씨앗을 뿌려주신곳도 대동군 동암면 원화리였으며 전후에 바로 이고장에서부터 농업협동조합을 무으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심으로써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도 우리 도안의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시였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새 환경에 맞게 경제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사업도 바로 평안남도에서 시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탄광들에 본보기를 꾸리신곳도 우리 도 안주탄광이였으며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올 때에도 숙천군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처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평안남도의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도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앞장서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

례도에 창조된 시범단위들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끊임없이 확대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도당위원회 일군들에게 평안남도가 공업에서도 1위, 농업에서도 1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도 앞장서나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도안의 전반적인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주와 북창 지구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과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양덕, 성천의 두메산골로부터 문덕, 숙천, 평원의 열두삼천리벌과 증산, 온천의 간석지벌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방들을 실무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시범단위가 계속 본보기로 빛을 낼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또한 온천과 안주 군당위원회들에서 항일유격대식지도사업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문덕군 동림리, 순천시 금천리를 비롯하여 여러 시범단위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영원할 시범단위를 마련하시고 고귀한 현지지도사적들을 남기신것은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되며 우리 평안남도 일군들의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된다.

도당위원회와 도안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시범단위들을 빛내여나가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본분으로, 당활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에서 시범단위의 창조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거기에는 수령의 웅대한 구상과 숭고한 의도가 반영되여있고 사상리론활동과 실천활동의 결실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이 창조한 시범단위들을 내세우는것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 불멸의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으로 된다.

도당위원회와 우리 도안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시범단위가 본보기단위로서 계속 빛을 내도록 적극 떠밀어주면서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혁명사적이 깃든 시범단위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에 최근년간 군을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맹산군당위원회와 고기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개천, 증산 군당위원회 그리고 개천탄광설비보수사업소 상점의 경험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모든 부문들에서 새로운 시범단위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이 과정에 우리 도당위원회는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에서 일련의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옳은 인식과 관점,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지난 시기 도안의 일부 당조직들과 일군들 속에서는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바로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혁신이 일어날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지 못하는것과 같은 이러저러한 결함들이 발로되였다.

우리는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는 과정에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에 따라 이 사업의 성

과여부가 좌우되게 된다는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도당위원회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구일뿐아니라 당과 수령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옳게 알려주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남도사업을 몸소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이룩하신 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도당위원회는 각급 교양망들과 강연선전단위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진행하신 평안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사적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평성시삼화혁명사적관, 평원군원화혁명사적관과 숙천혁명사적관을 비롯한 도안의 수많은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광범하게 조직진행하였으며 도혁명사적관 강사들을 동원하여 도내 혁명사적지이동도록강의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혁명사적이 깃든 시범단위에서 사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가 조직한 이러한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시범단위를 빛내여나가는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비상한 열의와 적극성을 가지고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것은 각급 당조직들이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또한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일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며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군중은 지도일군들의 훌륭한 선생이다. 생산과 관리의 형편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것도 생산자대중이며 그 개선방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것도 생산자대중이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아래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도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도안의 지도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시범단위를 비롯한 중요한 시, 군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담당하여 지도하기 위한 분공을 조직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순천시와 덕천시, 개천군과 숙천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원화협동농장과 동림협동농장 등을 직접 담당한 지도일군들은 한 단위에 며칠씩 묵으면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것을 찾아내며 그것을 일반화하여 그 단위가 당사업으로부터 경제, 문화, 인민생활을 높이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지도방조하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아래일군

판, 기업소들에 갈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분공을 빠짐없이 조직하였으며 어느 단위에서나 갈생산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의례히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가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지구안에서 갈생산을 소홀히 하는 편향을 없애고 이 부문의 사업을 추켜세우는데 모든것이 복종되고 지향되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일군들의 실천행동은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움직이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지구급 책임일군들 특히 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갈생산부문을 추켜세우는데서 솔선 수범하여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우리 당의 사업작풍의 요구대로 늘 생산자들과 같이 갈발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으며 무릎까지 빠지는 갈판에도 남먼저 뛰여들고 터진 모죽을 막는 일에서도 먼저 팔을 걷고 나섰다. 이 과정에 우리는 일군들이 직접 낮을 돌리고 몸을 내대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대중이 적극적으로 받아물고 집행해나간다는것을 더욱 깊이 느낄수 있었다.

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지구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본생산부문을 추켜세우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우리 지구에서는 지난해에만 하여도 갈생산을 1966년에 비하여 약 3배로 장성시켰을뿐아니라 연 수백리에 이르는 갈발물길공사도, 해마다 수만톤을 거두어들여야하는 갈베기전투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제낄수 있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 조직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할 때 모든 력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또한 당조직정치사업을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한것이다.

당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정치사업은 응당 경제건설을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그 성과여부는 경제사업의 결과에 의하여 평가되여야 한다. 이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당활동원칙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우리는 주체적인 당활동원칙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정치사업을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함으로써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이것은 갈의 과학기술적재배공정을 완성하는 투쟁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고 목화가 잘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서해안에서 쓸모없이 자라 없어지던 갈을 인조섬유원료로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밝히시고 갈생산을 과학화하여 단위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위원회는 갈생산을 과학화하는데서 이룩한 초보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그것을 더욱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데 대한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이 목표를 실행해나가는 과정에 이미 실천에서 생활력을 나타낸 새로운 갈재배기술공정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지 않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고 실태를 알아보았다. 료해한데 의하면 새로운 갈재배기술공정은 일부 과학자, 기술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때문에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기술공정안을 발기하고 주장하여온 기술일군들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지 못하고있었다.

당위원회는 새로운 갈재배기술공정이 현실적의의와 과학리론적타당성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일것을 결심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맹산군은 산이 험하고 교통이 불편할뿐아니라 땅이 척박하여 예로부터 사람못살고장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던 맹산땅이 오늘 생산과 건설이 잘되고 사람들이 부러움없이 유족하게 사는 살기좋은고장으로 전변되였다.

맹산군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변은 도당위원회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책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제힘으로 자기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이끌어준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자기고장을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맹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를 쳐다보거나 남을 넘겨다볼것이 아니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지방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군을 꾸려나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였고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군을 꾸리는데서 제일 걸린 석탄문제를 풀기 위하여 앞장에 서서 직접 산발을 타면서 탐사를 하여 탄광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의 가지수와 그 량을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개건확장할 때에도 군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자체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맹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지난 몇해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군을 꾸리고 군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얼마전에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맹산군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의 힘에 의거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아래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킬때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도당위원회가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도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우리 도당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기본요구인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 각급 당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보장해나감으로써 평안남도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은 당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김 창 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비단섬지구를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스무해가 지나갔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단섬이 걸어온 지난 20년의 로정은 투쟁과 전진, 창조와 비약의 자랑찬 력사로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일찌기 압록강하구의 《무명평》으로부터 신도에 이르는 크고작은 여러개의 섬들을 련결하여 화학섬유공업의 튼튼한 원료기지, 비단섬을 건설할데 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8월 신도지구를 찾으시고 갈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섬에 오시여 하신 교시는 갈생산을 새로운 높은 토대우에서 발전시키며 우리 비단섬지구가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갈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비단섬인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풍랑사나운 바다길로 섬을 찾으시고 갈생산을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기도 하시였으며 륙지와 떨어져 사는 우리 지구의 주민들이 사소한 근심이라도 있을세라 은정깊은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향도 밑에 조국땅 서북변에 자리잡고있는 비단섬에서는 말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비단섬에서는 오래동안 야생식물로 되여있던 갈의 과학기술적재배공정이 완성되여 생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기계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갈베기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작업을 기계로 하고있다. 또한 비단섬에서는 륙지에서 보장받던 쌀과 고기를 지금은 자급자족하게 되였으며 수도화와 뻐스화가 실현되여 인민들은 생활상 불편을 모르게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꾸린 건재기지에 의거하여 섬의 면모를 더욱 개선할수 있는 밝은 전망도 열리고있다.

그 옛날 조국의 지도우에서 하나의 점으로밖에 표시되지 않았던 《무명평》과 신도지구, 무성한 야생갈대숲만이 설레이던 불모의 땅이 주체적인 대화학섬유원료기지, 비단섬으로 전환되게 된것은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지난 기간 비단섬갈종합농장지구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특히 우리는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음으로써 갈생산에서 쉼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농업과 지방공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부문에서 커다란 생산적앙양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와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경제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원칙적요구이며 각급 당위원회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다. 당위원회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지구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일련의 경험을 쌓게 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데 조직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경제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높은 뜻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앞당기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갈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 조직정치사업의 주되는 힘을 넣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갈생산을 차요시하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고 이 부문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도록 하는것이였다.

지난 시기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갈생산부문에서 일하는 긍지가 부족한데로부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갈생산부문의 특수하고 불리한 로동생활조건과도 관련되여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당조직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의도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당위원회는 지구안에 갈생산을 가장 중요하고 영예로운 사업으로 여기는 관점과 태도가 전면적으로 지배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꾸준하게 벌려나갔다.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한데 따라 선전부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갈생산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계획적으로 반복침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선전선동내용에서 일관하게 갈문제가 상정되고 강조되게 하였으며 가능한 여러 계기들과 수단들이 갈생산의 목적과 의의를 인식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였다. 조직부에서는 갈직장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짜고들어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갈생산부문의 당대렬을 늘이고 질적으로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당위원회는 이와 함께 갈생산부문의 근로자들속에서 발양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들에 대한 사회정치적평가를 잘해주도록 하였다.

당위원회가 벌린 이러한 사업과정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갈생산을 힘들고 보람이 적은 일로 여기던 그릇된 관점과 태도가 점차 없어지고 갈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을 바로잡는 한편 기본생산부문의 초급일군대렬을 우수한 사람들로 꾸리고 갈생산의 경제기술적특성에 맞게 로력 배치와 조절 사업을 잘하여 청장년로력의 비중을 높이도록 옳게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께 지구안의 모든 기

판, 기업소들에 갈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분공을 빠짐없이 조직하였으며 어느 단위에서나 갈생산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의례히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가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지구안에서 갈생산을 소홀히 하는 편향을 없애고 이 부문의 사업을 추켜세우는데 모든것이 복종되고 지향되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일군들의 실천행동은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움직이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지구급 책임일군들 특히 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갈생산부문을 추켜세우는데서 솔선 수범하여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우리 당의 사업작풍의 요구대로 늘 생산자들과 같이 갈발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으며 무릎까지 빠지는 갈판에도 남먼저 뛰여들고 터진 모둑을 막는 일에서도 먼저 팔을 걷고 나섰다. 이 과정에 우리는 일군들이 직접 낯을 돌리고 몸을 내대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대중이 적극적으로 받아물고 집행해나간다는것을 더욱 깊이 느낄수 있었다.

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지구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본생산부문을 추켜세우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우리 지구에서는 지난해에만 하여도 갈생산을 1966년에 비하여 약 3배로 장성시켰을 뿐아니라 연 수백리에 이르는 갈발물길공사도, 해마다 수만톤을 거두어들여야 하는 갈베기전투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제낄수 있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 조직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할 때 모든 력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또한 당조직정치사업을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한것이다.

당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정치사업은 응당 경제건설을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그 성과여부는 경제사업의 결과에 의하여 평가되여야 한다. 이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당활동원칙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우리는 주체적인 당활동원칙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정치사업을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함으로써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이것은 갈의 과학기술적재배공정을 완성하는 투쟁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고 목화가 잘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서해안에서 쓸모없이 자라 없어지던 갈을 인조섬유원료로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밝히시고 갈생산을 과학화하여 단위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위원회는 갈생산을 과학화하는데서 이룩한 초보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그것을 더욱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데 대한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이 목표를 실행해나가는 과정에 이미 실천에서 생활력을 나타낸 새로운 갈재배기술공정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지 않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고 실태를 알아보았다. 료해한데 의하면 새로운 갈재배기술공정은 일부 과학자, 기술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때문에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기술공정안을 발기하고 주장하여온 기술일군들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지 못하고있었다.

당위원회는 새로운 갈재배기술공정이 현실적의의와 과학리론적타당성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일것을 결심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교훈에 비추어 갈생산의 과학화를 당위원회가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할 중요한 사업대상으로 내세우고 모든 당일군들이 그것을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기술일군들이 실천을 통하여 파악한 새로운 갈재배기술공정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실현해나가도록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사업과정에 제기되는 애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었다. 특히 당위원회는 기술일군들의 사업상 권위를 세우는데 힘을 넣으면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갈재배기술공정을 완성하는데서 지혜와 재능을 합치도록 교양사업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사업은 여러해동안 론의되여오던 갈생산의 과학화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갈의 과학기술적재배공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육성 기간과 단계, 시기별 물대기방법과 시비체계를 원만히 확정할수 있게 하였다.

과학기술적성과는 직접적인 생산자들을 통하여 생산에 도입되게 되며 실제적인 은을 내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갈육성기술공정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포전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리였다.

당위원회는 포전관리공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실정에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그들의 자각성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사상전을 벌리도록 하였으며 경제기술일군들 특히 생산단위의 초급일군들이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그 실적을 현지확인한데 기초하여 엄격히 총화하는것을 제도화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당위원회의 일군들이 모든 포전, 모든 필지의 실태를 환히 꿰들고 아래단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생활비와 상금을 비롯한 일련의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포전관리공들을 자극하는 사업도 옳게 이끌어주었다. 이것은 포전관리공들과 생산현장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포전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해나가도록 적극 작용하였다.

당위원회가 이처럼 조직정치사업을 경제사업을 보장하고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함으로써 우리 지구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갈생산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진행하게 되였으며 갈의 정보당 수확고를 체계적으로 장성시키게 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당조직정치사업을 아래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한것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넣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당은 조직사업이나 사상사업에서 부려먹는 단위가 될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단위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지구당위원회는 당정책을 직접 군중속에서 집행할 의무를 지니고있는 집행단위이다. 지구당위원회는 결코 지도단위로 될수 없으며 아래단위의 당조직들과 같이 직접 정치사업도 하고 제기된 과업을 집행하면서 자기 손으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단위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지구당위원회의 위치와 임무로부터 조직정치사업을 언제나 아래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갈베는 작업을 기계화하는데서 거둔 성과는 당위원회가 벌린 조직정치사업의 생활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갈베는 작업은 기계화수준이 낮아 많은 경우에 손로동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

여 가을할 시기에는 자체의 로력으로도 모자라 숱한 지원로력이 갈베기에 동원되군하였다.

지구당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당의 요구대로 갈베는 작업을 기계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며 단계별 목표에 따르는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하였다.

당위원회가 내세운 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우리는 갈베는 작업의 기계화가 처음에 의도한것보다 매우 완만하게 진척되고있는것을 알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원인은 당위원회가 사업을 해당 단위에 포치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자의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밀어주지 않은데 있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당위원회는 기계화를 위한 사업을 아래단위에만 말기지 않고 직접 풀어쥐고 내밀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우리는 먼저 당위원회의 조직부와 선전부의 일군들에게 기계화직장과 공무직장의 작업반들을 하나씩 말기고 그 단위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이끌어나갈데 대한 분공을 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고리를 제때에 정확히 찾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기계화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면 갈수확기의 질을 높이고 그 작업폭을 넓히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풀어야 할 걸린 고리를 찾아쥔 다음 그것을 해결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벌려나갔다. 우리는 기계화직장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본보기단위로 선정하고 이 단위를 추켜세우는 과정에 기술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기계화직장에 내려간 당위원회의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갈수확기를 개조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해설해주었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 목표를 갱신하는 사업도 도와주었다. 특히 우리는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과정을 풀어쥐고 젤뿐아니라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당위원회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갈베는 작업을 기계화하는데서 아래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고 기술혁신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기계화직장과 공무직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어느 기술문헌에도 없는 성능높은 갈수확기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내는 혁신을 일으킬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련이어 갈상차기와 갈낟가리쌓는 기계를 만들어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당조직정치사업이 경제사업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15억메터의 천고지점령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채무지대

손 종 철

오늘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채무지대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여온 남조선경제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예속화정책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남조선괴뢰도당은 외래독점자본의 빚더미우에 올라앉아 허우적거리면서도 경제분야에서 우리와 맞서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단행본, 2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밑뿌리채 뒤흔들리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1960년대초부터 《무상원조》정책을 교활한 《신외원》에 의한 《유상원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제는 독점자본가들을 남조선에 침투시켜 공장, 기업소들을 설치하게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게 함으로써 외형상 남조선경제가 《성장》하는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획책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각본에 따라 방대한 외국독점자본들을 마구 끌어들여 그것이 남조선경제에서 판을 치게 하였다.

아무런 상환능력도 없는 남조선경제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이 곧 대외채무를 늘이는것으로밖에 안된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리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성장》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독점자본의 침투에 넓은 길을 열어놓고 외견상의 《성장》으로 남조선경제의 파탄상을 가리우며 빚의 올가미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얽어맬것을 노렸다.

지난 25년동안 미제의 이러한 신식민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외국자본의 도입에 의하여서만 연명할수 있는 외자의존형구조로 고질화되였으며 대외채무가 루적되여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위험계선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1960년이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형상 성장》을 하여온 남조선경제는 1980년대에 이르러 구조상 모순이 극도에 이르고 《국민총생산액》의 년평균증가률이 1970년대 후반기에 비하여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80년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경제성장률이 —6.2%라는 절대적감소를 보임으로써 이른바 《고도성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것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인것이다.

밑뿌리채 뒤흔들리는 식민지통치지반을 유지하려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두환역도를 《정권》에 들여앉히고 파국상태에 이른 남조선경제를 연명해보려고 더 많은 독점자본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남조선경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빚더미에 눌려 전면적인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지난해에는 1980년 이후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였다.

남조선의 대외채무가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은 이미 1983년초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남조선경제가 대외채무상환부담률이 위험계선을 이미 넘어섰기때문에 자본투자를 삼가할데 대하여 공개적으로 통고한 사실과 지난해 12월에 뉴욕에 본부를 두고있는 세계적인 경제정보회사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이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경제위험지역》조사에서 남조선을 첫자리에 지목한 사실로 하여 더욱 세계에 공인되게 되였다. 이 조사자료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계점에 달하

여 《매우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남조선을 첫자리에 놓았는데 그 리유를 《경제의 제조건이 악화되여있고 《정부》가 인기없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라고 밝히였다.

남조선이 세계최악의 채무지대로 전변되였다는것은 무엇보다도 대외채무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방대하여졌고 그것이 위험계선을 넘어선데서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남조선경제를 외국자본에 의한 수출주도형의 기형적이며 예속적인 구조를 가진 식민지경제로 전환시키고 해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의 방대한 액수의 자본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1960년이래 25년동안 남조선괴뢰도당은 600억딸라를 넘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였으며 이에 따라 대외채무도 급속히 늘어났다. 지난 10년동안만 보더라도 외국자본이 년평균 25%이상의 속도로 늘어나 10배이상이나 증대되였다. 특히 전두환역도가 《집권》한 이후 시기에 그것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리하여 지난해말현재 남조선경제는 527억딸라(해외현지금융잔액 60억딸라포함)의 방대한 대외채무를 걸머진 대외채무경제로 전락되였다. 이 방대한 대외채무의 60%는 전두환역도가 《집권》한 이후 5년사이에 늘어난것이다. 이것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 이미 파국상태에 이른 남조선경제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넣기 위하여 더 많은 외국자본을 마구 끌어들인 전두환역도의 매국배족행위의 결과인것이다.

남조선대외채무는 크기에 있어서 브라질, 메히꼬 다음가는 순위에 있으며 채무부담면에서는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대외채무의 부담정도는 《국민총생산액》에 비한 대외채무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남조선의 경우 이 비중은 64%로서 브라질, 메히꼬 등의 30% 선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이것은 괴뢰들이 걸머진 대외채무의 부담이 매우 무거우며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또한 남조선괴뢰도당은 대외채무상환부담면에서도 이미 정상한계를 넘어섰다. 당해년도의 수출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비률로 표시되는 외채상환부담률은 위험계선인 20%선을 1982년에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말에는 그것이 26.4%에 이름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의 대외채무가 한계점에 다달았다는것은 외자도입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따라 이를 보상할만큼 남조선경제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축소생산이 진행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1985년 한해동안에 갚아야 할 원리금상환액이 80억딸라인데 남조선경제는 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있는 형편에 있다. 이것은 이미 남조선괴뢰들이 걸머진 대외채무의 규모가 현남조선경제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으며 잉여생산물 전체를 당해년도 대외채무를 갚는데 밀어넣고도 엄청나게 모자라 원자본에서 떼여내여 물어야 할 한계점에 다달았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경제는 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또 더 많은 새로운 외자를 끌어들여야 하며 《구채무 갚기 위한 신채무의 악순환》이 계속되여 외채의 올가미에 더욱 더 결박당하고있다.

남조선이 세계최악의 채무지대로 전변되였다는것은 다음으로 채무가운데서 악성채무의 비중이 높아가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괴뢰들의 대외채무에서는 금융차관과 단기차관 등 대부기간이 짧고 리자률이 높은 악성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괴뢰도당이 걸머지고있는 대외채무가운데서 외국금융기관에서 꿔온 외채비중이 1970년대 후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나 1976년에는 24%이던것이 현재는 48%이상에 달하고있으며 단기

외채의 비중도 1973년에 20%선이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30%선에 가까와져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다. 이밖에도 괴뢰도당의 대외차관에서는 공공차관보다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의 비률이 54%라는 엄청난 수준에 있으며 금리조건이 불리한 변동금리의 비중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 급격히 증가되여 68.8%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이 대채무지대로 전락된것으로 하여 리자부담이 많은 악성차관을 끌어들이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금은 국제금융시장이 1970년대와는 달리 위기상태에 놓여있으므로 자본의 차입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이로부터 전두환괴뢰도당은 악성차관에 많이 의거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연명할수 없게 되여있다.

괴뢰도당은 지금의 엔시세의 상승과 딸라시세의 하락 현상을 제놈들의 일본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고 떠들고있으나 차관의 11%가 엔화에 의한 차관인 조건에서 올해에만도 엔시세의 상승으로 무려 17억딸라의 채무를 더 걸머지게 된다.

국제금융기구들과 국제실업정보기관들이 남조선경제를 외채의 한계점에 이른 위험한 경제로 선포한것으로 하여 괴뢰들의 국제금융시장의 차입조건은 더욱 악화되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도 남조선경제가 빚더미우에 올라앉아 허우적거리는 《외채경제》라는데 대하여 《우리 경제는 외채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외채경제〉라는 구조적특징을 갖게 되였다. 지난 25년동안 600억딸라가 넘는 외자를 도입한 결과는 외채만 누적되였고 경제구조는 기형성과 대외의존성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자립경제구조의 기반구축은 료원해져버리고말았다.》고 실토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한 꾸어주는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여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은 규모로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될뿐이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과 같이 《국민총생산액》의 64%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차관을 끌어들이는것은 벌써 이상현상이며 그것은 경제가 완전히 외자의존의 예속경제로 전락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상환능력이 없는 남조선경제가 방대한 외자를 끌어들임으로써 날을 따라 그 채무가 늘어나고있으며 남조선은 세계적인 《부채왕국》으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주민들은 매 사람당 1,300딸라이상, 세대당으로는 6,500딸라의 빚을 걸머지고있는것으로 되며 그것은 세대주인 로동자가 3년동안 벌어서 한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바쳐야 할 큰 규모에 이르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괴뢰들이 걸머지고있는 부채의 규모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을 끌어들이고 꾸어주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엄청난것이며 그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예속적인 경제관계를 뚜렷이 보여줄따름이다.

남조선출판물도 괴뢰들의 무분별한 외자도입책동에 대하여 《이처럼 무분별한 외자도입을 계속한다면 후손들에게 외채상환의 큰 멍에를 유산으로 넘겨줄것이며 이렇게 빚이 많아지고서야 외국의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막아낼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개탄한것은 괴뢰들이 걸머지고있는 부채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이 세계최악의 채무지대로 전변되였다는것은 또한 괴뢰도당이 차관으로부터 직접투자에 매달리기 시작한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괴뢰도당이 1980년대에 들어와 독점자본의 직접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고있는것은 놈들의 대외채무가 막다른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두환역도는 차관은 《채무성외자》이므로 악성차관으로 되지만 외국자본가의 직접투자는 《비채무성외자》이기때

문에 채무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채무가 아니기때문에 차관보다 낫다는것은 사실을 완전히 외곡한 거짓말이다. 직접투자야말로 외채중에서도 최악의 외채인것이다.

차관은 대부자본으로서 리자를 착취하지만 직접투자는 기능자본으로서 리윤을 착취하는 자본침투가운데서 가장 략탈성이 강한 침투형태이다. 더우기 남조선과 같이 세계적으로 로동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차관의 리자에 비할바없는 많은 리윤을 착취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침투는 일반적으로 《원조》단계—차관단계—직접투자단계의 순서로 실현된다. 말하자면 직접투자는 가장 략탈적이고 로골적인 자본침투형태로서 독점자본가들이 바라는 마지막단계인것이다.

독점자본의 직접투자가 강화되면 그것이 해당 나라 또는 지역의 투자방향까지 좌우지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 나라 경제를 직접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남조선출판물들도 이에 대하여 《오늘날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직접투자를 하는것은 리윤의 획득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국내 시장확장을 위하여 투자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비유하자면 〈극약〉으로 생각해야 한다. 직접투자의 허용으로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미국, 일본 등 외국인의 〈사적소유권〉, 〈재산권〉 발생을 허용하는것은 〈한국〉경제의 일부가 그들에게 넘어가는것이며 〈한국〉을 위하여 참으로 위험한것이고 치명적독약임을 우리들은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라고 신랄히 비판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1962년부터 1983년까지 20여년사이에 차관 450억딸라에 대한 리자액은 최소한 115억딸라였는데 직접투자 22억딸라에 대한 리윤액은 무려 250억딸라를 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괴뢰도당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가장 략탈적인 자본침투형태인 직접투자를 적극 끌어들이는것은 대외채무가 한계점에 도달한 조건에서 남조선경제를 잠시라도 연명하기 위하여 매달리고있는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무상원조》, 차관 등을 통해 제놈들의 사독점자본들이 침투할수 있는 길을 닦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에 대한 직접투자를 본격화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국독점자본들의 직접투자액은 지금까지는 년평균 1억딸라수준(인가기준)이던것이 1983년에는 2억 6,800만딸라, 1984년에는 4억 1,900만딸라, 1985년에는 5억 3,200만딸라로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이리하여 1962년 이후 24년사이에 직접투자총액은 26억 5,500만딸라에 달하였다. 이가운데서 직접투자총액의 46%에 해당하는 12억 1,900만딸라가 최근 3년사이에 투자된것이다. 이것은 괴뢰들이 한계점에 달한 차관으로부터 직접투자에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격화된 외국독점자본의 직접투자로 남조선에는 1,667개의 외국독점기업들이 경제의 중요부문들에 들어와 남조선경제를 좌지우지하고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독점자본의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올해만 하여도 《듀퐁》, 《포드》, 《제네럴모터스》, 《유니온카바이드》 등 미국의 거대독점체들이 추가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고있다. 그리고 《제네럴엘렉트릭》사와 굴지의 생명보험회사인 《메트로폴리탄》회사도 남조선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독점자본의 직접투자도 결코 한계점에 이른 남조선괴뢰들의 대외채무를 줄일수 없으며 오히려 남조선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미제의 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더욱더 강화할따름이다.

오늘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채무지배

로 전변됨으로써 심한 자금난이 조성되여 경제전반을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자금난은 기업을 파산시키고 실업자대렬을 급격히 증가시키고있다.

자금난의 엄중성은 기업체들은 물론 괴뢰들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까지도 방대한 적자를 내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사이에 《한국은행》의 적자는 5,660억원에 이르렀는데 현재도 경영적자를 막을 전망이 없는 형편에 있다.

심한 자금난으로 하여 중소기업들은 말할것도 없고 10대재벌의 하나인 3만 8,8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있는 《국제그룹》과 같은 매판대기업들도 파산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의 파산기업체수는 그 전해의 2배인 2,300여개에 달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15만명이상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였다. 그리고 36만명이상에 달하는 취업자들이 림시 또는 일고용으로 밀려나 반실업자로 전락되였다. 새로 생겨나는 로동력의 취업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지난해에만도 40만명에 달하는 로동력이 새로 생겨났으나 그가운데서 취업한 로동력은 20만명밖에 되지 못하였으며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할수 없어서 도시에 밀려든 40여만의 리농민들도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도시빈민으로 전락되였다. 뿐만아니라 오늘 남조선에서는 대학졸업생, 고등학교졸업생들도 심한 취업난을 겪고있다. 올해 6월에 괴뢰경제기획원이 괴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수는 1980년의 6만명으로부터 올해 4월현재 14만 2,000명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실업자수는 같은 기간에 28만명으로부터 31만 2,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실업자구성에서 세대주실업자수가 40%를 차지하고있다.

취업난이 심하고 실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데 대하여 괴뢰들도 어쩔수 없이 실업자총수가 지난해말보다 올해 1.4분기말에 16%나 더 증가되였다고 실토하였다.

해고선풍, 실업의 증대, 그가운데서도 세대주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는 오늘 남조선주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있다.

지금 남조선 농촌과 어촌에서는 세대당 평균채무가 200만～310만원, 도시에서는 세대당 평균 200만원이상에 달하고있으며 사회의 밑바닥에서 항시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있는 빈민층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세대당 한달수입이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5만원이하 수준인 빈민층은 도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늘어나고 도시의 주민구성에서 빈민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2배로 대폭 늘어나 수백만을 헤아리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예속적인 식민지경제정책이 강행되는 이상 남조선경제는 외자의존적이며 예속적인 구조를 개선할수 없으며 대외채무는 더욱 빨리 늘어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그 예속에서 벗어날 때만이 남조선경제는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진정한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길로 나갈수 있다.

쏘련방문의 나날에

최 정 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4년에 진행하신 쏘련방문을 통하여 조쏘친선이 날로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때에 근로자사대표단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 꼼무니스뜨사의 초청으로 쏘련을 방문하였다.

넓고넓은 쏘련을 돌아보기에는 한주일이란 너무도 짧은 기간이였으나 이 나날에도 대표단은 광활한 쏘련땅우에서 일어나고있는 커다란 전환과 전투적인 조쏘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온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쏘련인민의 친선의 정이였다.

조쏘친선은 뿌리깊은 력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쏘 두 나라 인민들은 공통된 리상과 목적을 위하여 오랜 기간 함께 투쟁하여온 계급적형제이며 친근한 전우입니다.》(《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4폐지)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튼튼히 맺는 법이다. 쏘련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잇닿아있는 우리 나라의 형제적린방이다. 조쏘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공동투쟁에서 불패의 친선을 맺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에서 서로 적극 지지협조하는 동지적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이 과정에 굽을래야 굽을수 없는 계급적동맹과 혁명전우로서 굳게 결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제의 무분별한 침략행위로 말미암아 쏘련인민들에게 위협이 조성될 때마다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라는 구호밑에 쏘련을 반대하는 일제무력에 대한 배후타격전을 벌리였다. 이 간고한 싸움에서 조선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피를 흘렸다.

쏘련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대일전쟁에 참가하여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광복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피로써 도왔으며 수많은 붉은군대장병들이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쏘련인민은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 인민의 편에 서있었고 조선인민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물심량면으로 협조하여주었으며 오늘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다.

조국해방을 맞이한 때로부터 우리 당과 쏘련공산당, 우리 인민과 쏘련인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1984년 5월 쏘련방문은 조쏘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주었다.

우리 대표단은 쏘련방문기간 쏘련동지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쏘련방문과 두 나라 지도자들간의 상봉으로 강화발전된 조쏘친선을 더욱 꽃피우려는 념원에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친형제와 같이 대해준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날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 《꼼무니스뜨》 책임주필을 만났다.

그는 근로자사대표단의 쏘련방문을 열

렬히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쏘련과 조선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쏘련과 조선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뉴대속에서 꼼무니스뜨사와 근로자사의 관계도 날로 밀접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두 잡지사가 자기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는데서 큰 의의가 있을뿐아니라 조쏘친선을 강화하는데서도 기여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쏘련에 체류하는 기간 쏘련의 지도일군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한결같이 기뻐하며 우리의 통일위업을 열렬히 지지하고있다는것도 명백히 알수 있었으며 그들의 말을 통하여 비록 언어는 서로 다르고 처음으로 만나는 사이들이지만 깊은 뿌리에서 자라나고 튼튼한 계급적뉴대와 동지적우애에 기초하고있는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대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발전될것이며 력사의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변치 않으리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우리가 쏘련에서 느낀 인상가운데서 중요한것은 쏘련의 벗들이 레닌의 업적을 훌륭히 계승하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상은 우리 대표단이 레닌묘를 참관하는 과정에 더욱 강하게 받았다. 우리가 아침식사후 레닌묘를 참관하기 위하여 붉은광장에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이미 새벽일찍부터 모여든 수많은 쏘련사람들의 대렬이 장사진을 이루고있었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레닌의 묘를 참관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일찍부터 수많은 참관자들이 크레물리광장에 모여든다는것이였다. 모스크바에 오는 사람이면 쏘련사람이건 외국사람이건 할것없이 레닌묘를 참관하려 한다. 그리고 레닌묘를 참관하면서 레닌에 대한 생각을 깊이있게 하게 되는것이다. 특히 대표단은 레닌의 령구가 안치된 방에 들어섰을 때 이곳을 찾은 쏘련사람들의 숭엄한 얼굴마다에 레닌의 위업을 계승하려는 결의가 가득차있는것을 엿볼수 있었다.

대표단은 크레물리궁전안에 있는 레닌의 사무실과 숙소도 돌아보았다. 1918년 3월에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쏘베트정부가 뻬쩨르부르그로부터 모스크바의 크레물리로 옮겨왔을 때 레닌은 혁명전에 크레물리재판기관이 자리잡고있었던 청사에서 살게 되였다. 레닌의 사무실과 숙소는 매우 검소하게 꾸려져있었다. 레닌은 수도가 모스크바에 옮겨온 최초부터 5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이 사무실과 숙소에서 보냈다. 숙소는 네개 방으로 되여있는데 제일 큰 방에는 레닌의 누이 마리야 일리이치나 울리야노바가 살았고 좀 작은 방에는 그의 안해 나제쥬다 꼰쓰딴찌노브나 크룹쓰까야가 살았으며 제일 작은 방은 레닌이 차지하고있었다. 첫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한 시기 쏘베트정권앞에 온갖 난관이 수많이 겹쳐있던 때 레닌이 사색하고 창작하고 투쟁한 흔적이 깃들어있는 사무실과 숙소, 회의실 그리고 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대표단은 레닌의 위업이 쏘련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쏘련기행에서 우리 대표단의 중요한 일정의 하나는 레닌의 고향땅을 찾는것이였다.

그전에 씸비르스크라고 부르던 레닌의 고향도시는 1924년부터 레닌의 본래의 성을 따서 울리야놉스크시로 부르게 되였다.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 중부볼가강류역에 아직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때에 생겨났다. 당시 모스크바공국은 유목민들의 부단한 침습으로 촌락들이 끊임없이 파괴되는 남쪽국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씸비르스크를 요새도시로 세웠던것이다. 씸비르스크에서 레닌은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혁명적신념을 굳게 가지게 되였고 인민들을 위한 투쟁에 자신을 바칠것을 결의다지였다.

시에서는 레닌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모든 구역들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있으며 레닌과 관련된 귀중한 사적물들을 영원히 보존하고 후대들에게 길이 전할 대책을 세우고있다. 1970년에 레닌탄생 100돐을 맞으면서 시중앙에 웅장한 레닌기념관을 세웠다. 기념관에 진렬되여있는 수많은 문헌들과 조각품, 미술작품, 문헌자료들은 레닌의 혁명활동과 레닌의 유언이 현실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이 도시의 많은 명칭들이 레닌의 이름과 결부되여있다. 우리는 레닌탄생 100돐광장, 레닌기념관, 레닌의 고향집, 레닌명칭도서관, 레닌명칭 1중학교, 레닌박물관, 레닌거리, 레닌의 부친공원, 레닌의 부친묘, 레닌부친기념비 그리고 레닌가족들과 련관된 장소들을 돌아보았다.

오늘의 울리야놉스크의 근로자들은 레닌과 그 일가들의 고향에서 사는 긍지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레닌의 고향시민으로서의 이름을 값있게 간직하기 위하여 레닌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고있다. 우리는 울리야놉스크시를 돌아보면서 이 도시가 쏘베트청년들을 레닌의 혁명활동과 생활의 모범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장소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레닌기념관에서는 울리야놉스크의 청소년들이 레닌의 유언에 충실할것을 맹세다지는 행사가 벌어지군한다. 특히 우리 대표단의 주목을 끈것은 레닌 기념관과 사적관들에 청소년학생들이 위병을 서고있는것이였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공청조직은 모범학생들만을 선발하여 영예의 근무로 위병을 세운다는것이였다. 언제 보나 부동자세로 엄숙하게 위병을 서고있는 이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은 레닌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려는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대표단은 울리야놉스크시에 머무르는 기간 주당위원회 기관지 《울리야놉스까야 쁘라우다》신문사도 방문하였다.

혁명의 폭풍이 온 로씨야땅을 휩쓸던 1917년 11월에 창간된 이 신문은 레닌의 필적을 제호에 달고있으며 레닌의 생애와 활동 자료를 신문에 많이 냄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신문에는 《사람들은 일리이치를 따라 배운다》는 고정표제를 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레닌의 위업을 계승하여 레닌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싣고있다. 신문은 당사업을 개선하고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을 추진시키는 문제, 주민교양문제, 국제정세문제들도 많이 취급하고있다.

우리는 레닌의 고향땅에서 대를 이어 일하고있는 울리야놉스크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고장을 떠나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왔다.

대표단은 모스크바시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쏘베트정권하에서 이룩된 쏘련의 발전모습과 특히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쏘련인민의 투쟁정형을 직접 볼수 있었다.

넓은 령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지난날 짜리전제제도하에서 자본주의발전의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했던 로씨야는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세계공업에서 4%의 몫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면 1980년에 이르러서는 20%의 몫을 차지하게 되였다. 전반적경제발전수준에서 쏘련은 이미 오래전에 구라파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강철, 원유, 세멘트를 비롯하여 30여개의 중요공업제품생산에서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20세기말까지 남은 15년간에 쏘련은 경제적잠재력을 배로, 국민소득도 거의 배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 과학기술발전 면모는 인민경제성과전람관이 잘 보여주고있다.

대표단은 현대적인 새 건물과 력사적인 낡은 건물들이 유기적인 조화를 잘 이룬 모스크바시내를 돌아보며 시의 북

동쪽에 있는 인민경제성과전람관을 찾았다. 2평방키로메터 정도의 넓은 부지에 약 300개의 건물들이 아름다운 나무와 유보도, 화단과 함께 배치되여있는 이 전람관은 쏘련의 경제와 과학성과의 전시장인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장소이기도 하다.

전람관의 여러 전시관들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깊게 본것은 과학기술전시관이였다. 1954년에 세계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시켰고 1957년에 맨먼저 자기의 인공지구위성이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서 우주의 무한대한 공간을 날게 한 때로부터 쏘련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지금 쏘련공산당과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발전문제에 가장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인민경제 집약화를 빨리 실현하는것이 쏘련 당과 정부의 중요목표의 하나이다. 《과학, 기술, 생산—86》이라고 쓴 전평 1만 2천평방메터의 전시관에는 근 2천여개의 전시품들이 진렬되여있다. 여기에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의 협력으로 창조된 쏘련의 선진과학기술, 공학발전 정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품종들, 80개 성들과 국들, 과학연구기관, 생산기업소, 건설사업소, 교육문화기관에서 발명하고 창의고안한 전시품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품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쏘련의 벗들이 과학발전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기계화, 자동화, 전자계산기화, 로보트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집약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모습을 잘 알수 있었다.

쏘련의 벗들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결정에는 농업부문에서 제12차5개년계획기간에 식량공급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해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되고있다. 쏘련인민은 당대회결정을 받들고 새 전망계획 기간에 농업생산의 장성속도를 2배이상으로 높이며 고기, 우유, 남새, 과일의 인구 1인당 소비량을 현저히 높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쏘련의 근로자들은 2000년까지 매 가정에 개별적인 살림집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우리가 방문한 모스크바시 붉은근위대구역당 제1비서는 자기 구역에서 최근 15년간 인구가 수배로 늘었지만 주택건설이 활발히 벌어져 구역안의 90%이상의 세대들이 훌륭한 가구류들을 종합적으로 갖춘 최신식살림집들에서 살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살림집들에 필요되는 가구들의 생산정형을 료해하기 위하여 그의 안내를 받아 붉은기로력훈장을 수여받은 전련맹《중앙가구》련합기업소를 방문하였다.

1963년에 발족된 이 기업소에서는 각종 부엌세간과 가구류, 가구장식품과 가구유리제품, 목삭판, 합판 등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50%가 녀성로력으로 구성된 이 기업소는 지난 15년간에 거의 모든 생산공정을 대부분 기계화하고 생산을 4.2배로 늘임으로써 현재 년간 10만세대분의 부엌세간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1인당 생산액은 3만 7천루블에 이르게 하고있다.

쏘련에 체류하는 기간 대표단은 최근시기 쏘련에서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이 더한층 공고화되고 당조직들의 역할이 강화되였으며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직성과 규률성, 인적요인의 역할이 높아진데 대하여 목격하였다.

전련맹《중앙가구》련합기업소에서 10년간 당비서로 일하고있는 마리야 표도로브나의 말에 의하면 기업소의 15%가 공산당원으로서 기업소에서는 당 제27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역할이 더욱더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이 기업소의 당원들은 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공산주의토요로동에서도 핵심적역할을 놀았으며 생산자대중속에 당대회결정에 대한 선전선동을 광범히 벌리며 당대회결정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붉은근위대구역당 제1비서는 물리공학대학 신문 《인제네르—피지끄》를 내놓으면서 구역당일군들이 제27차당대회결정실행을 위하여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 과학교육문화기관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어떻게 강화하고있는가에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준 신문을 펼쳐보았다. 신문 1면 우단에는 구역당 제1비서 폴또브와 선전부장 꼬소브가 대학당위원회 비서, 부비서, 지도원, 사상교양담당 부학장, 신문편집원들, 사회편집위원들, 공청통신원들과 만나 출판활동을 통하여 부정적인 현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대학생들이 학습을 잘할뿐아니라 당결정집행을 위한 구역근로자들의 투쟁도 잘 알며 대학당위원회가 편집위원회활동을 적극 도와줄데 대한 문제 등을 가지고 협의한데 대하여 보도되고있다. 구역당 제1비서의 이야기와 신문보도자료는 쏘련에서 당조직들이 대중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인상깊게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우리가 쏘련에 머무르는 기간은 매우 짧았으나 그동안 대표단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적극 지지해주고있는 쏘련인민의 뜨거운 형제적 친선의 감정을 심장깊이 느낄수 있었으며 쏘련인민이 레닌의 위업을 계승하여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는 쏘련방문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전통적인 조쏘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의를 더더욱 굳게 다지게 되였다.

근 로 자 1986년 제10호(루계 534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6년 10월 1일 발 행 • 1986년 10월 3일

ㄱ—65094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평 양 근로자사 1986

제11호(53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정치사상론설〕

〔혁명전통 및 당건설 론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장 성 택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력사무대에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인류사회의 흐름속에 생겨난 온갖 질곡들을 청산할 사명을 지닌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여러가지 혁명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착취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질곡을 남겨놓았으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그것을 단꺼번에 없앨수 없었으며 혁명발전이 성숙됨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극복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이 여러가지 사회적질곡가운데서 어떠한것들을 없애는것이 긴급하게 제기되는가에 따라 매개 혁명발전단계의 기본전략로선을 세워야했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혁명을 낡은 사회의 청산으로만 보았고 당의 기본전략로선도 이런 립장에서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의 생명인 자주성을 지키는것이 혁명투쟁의 본질이라는것을 밝히고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는것만이 혁명이 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낡은것을 없애는것도 혁명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혁명의 기본내용으로 되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실천이 제기하는 혁명문제가 새롭게 해명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불멸의 업적이 이룩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3대혁명에 관한 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3대혁명을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시종일관 견지해야 할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전당, 전국, 전민을 현명하게 령도해나가신다.

위대한 3대혁명의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3대혁명의 기치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간 빛나는 결실이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전략로선이며 그것을 항구적인 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 혁명이 전진할수록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주체위업을 완수하여 공산주의리상사회의 미래를 앞당기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당의 의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1)

혁명투쟁을 자연발생성에 맡기지 않고 주동적으로 조직하며 사회가 전진하는데 상응하게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고유한 혁명적 기풍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의 기본혁명임무인 3대혁명도 사회주

의, 공산주의 건설이 추진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는것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40페지)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이다.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류형의 혁명투쟁에서 공통적인 본질적속성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는데 혁명의 목적이 있고 이러한 요구와 그것을 억제하는 요인이 서로 상반되는데 혁명의 원인이 있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모든 요인들을 청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것을 최종목표로 삼고있는 투쟁강령이다. 이 최종목표는 옳바른 투쟁방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회생활의 기본령역은 사상생활, 로동생활, 문화생활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도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다. 바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사람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임무를 밝혀주는 당의 전투적강령이라면 3대혁명로선은 이 총적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당의 총로선으로 되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 길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차이와 유물을 없애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고지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문제가 당면한 일정에 오르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해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낡은 유물이 있게 되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과 관련된다. 낡은 사회의 이러한 유물은 자본주의가 복구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저애를 주는 사회적요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은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자주성의 실현정도는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제도에 의해서뿐아니라 그들의 사상, 기술, 문화수준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인민대중에게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사회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새 사회제도의 주인인 그들자신의 사상의식수준이 낮아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지 못하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할수 없으며 기술수준과 문화수준이 낮으면 그들이 물질문화적재부창조에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담당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을 높여야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등 온갖 차이를 청산할수 있으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

를 마련하는 사업을 다그칠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할수 있다. 현시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바로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로 가는 전인미답의 길을 빛나게 열어나가기 위한것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또한 1980년대를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자랑차고 영광스러운 년대로 빛내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1980년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매우 의의깊은 년대이다. 우리는 이 년대에 전반적인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언제나 주타격방향을 옳게 규정하고 요진통에 화력을 총집중하여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혁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여 80년대진군을 다그쳐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경제건설작전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있는 중요대상건설, 대기념비적창조물건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재부를 마련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며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내밀어 80년대를 우리 당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위대한 년대로 되게 하는 영예로운 투쟁이다.

언제나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끊임없는 혁신과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사업전개원칙이다. 상승과 하강, 전진과 답보, 고조와 침체의 부단한 교체와 순환이 지난날의 력사의 흐름이였지만 주체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조해나가는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닌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높은 속도를 창조하는데로 우리 인민을 이끌고있다. 말그대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벌려야 할 80년대진군은 지금보다 몇배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이러한 80년대진군을 보장하는 기본고리는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의 불길을 높이는데 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또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나라는 혁명의 길에서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행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금 혁명의 원쑤들은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가로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분렬영구화책동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의 위험이 짙어가고있으며 우리 나라 정세는 엄중한 국면에 이르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나라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는것과 함께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원쑤들은 바로 우리가 3대혁명을 다그쳐 공화국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는데 대하여 제일 겁을 먹고있다.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주체적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꾸리는데서 기본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

치는데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꾸리는것이나, 나라의 경제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나 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 직접 잇닿아있으며 그 성과는 3대혁명을 어떻게 힘있게 밀고나가는가에 따라 좌우되는것이다.

이처럼 현시기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나 80년대진군속도를 다그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2)

3대혁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다.

사상혁명은 3대혁명의 선행관이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여기에서 사람을 개조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상개조를 앞세워야 인간개조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합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2페지)

사람들은 생활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구를 가지며 그 요구에 따라 객관대상에 대한 각이한 리해관계, 다시말하여 그 대상이 자기 요구를 실현하는데 리로운가 해로운가를 파악하게 된다.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과 사람과 객관적대상의 실태 그 자체를 반영한 지식은 구별된다.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의 활동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고 지식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한다. 사람들의 활동은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며 그러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에 의하여 모든 활동이 규제되고 조절된다. 그러므로 인간을 개조하는데서는 사람들의 과학지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나 육체를 단련하기 위한 체육, 보건 사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나선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며 여기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것이다. 주체사상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며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이 현시기 사상혁명수행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이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과 수령의 사상리론과 업적에 대한 교양,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 등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는 기술혁명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현시기 기술혁명수행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기술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지난 시기와는 대비할수 없는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기술혁명과업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이 과학과 기

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큰 힘을 넣고있는 참뜻을 깊이 명심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심을 두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기술혁명수행에서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로써 당과 혁명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앞에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 최신과학기술과 그 발전추세를 깊이 파악하며 과학기술발전에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나가야 한다.

문화혁명은 3대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과학지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에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깊고 다방면적인 지식, 과학, 문화 지식에 의하여 표현된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변혁해나가려는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높은 창조적힘을 가지고있지 못한다면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다.

오늘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는것이다. 사람들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려면 사람들의 문화수준면에서도 서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육체로동에 참가하는 로동자, 농민들도 인테리들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착취사회가 문화분야에 남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사회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 비문화적이고 비위생적인것을 없애고 문화생활분야에서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기본전략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혁명투쟁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을 창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할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방법문제를 해결하였다.

3대혁명에 대한 지도는 정치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가 옳게 결합되여야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특히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이 고도로 조직화, 현대화, 과학화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긴절한 문제로 제기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 소조의 구성으로 보나 활동원칙자체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해나가도록 되여있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특히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력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확고히 보장된데로부터 생기는 위력이며 청산리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데로부터 나오는 위력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의 직접적담당자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친위대, 돌격대이며 3대혁명의 전위들이며 투쟁의 기수들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가 되여야 하며 해당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은 혁명의 전위답게 당정책관철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당정책을 절대성, 무

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지 않는 표현들과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고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 모든 부문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인간개조사업에 모를 박고 사상혁명수행에서 앞장서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난날 천리마기수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궁정감화의 방법으로 뒤떨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달라붙어 교양개조하여 자기 작업반안에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게 만들었고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집단적혁신을 이룩한것처럼 인간개조사업을 직심스럽게 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여 온 집단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상개조사업은 혁명실천과 결부되여야 커다란 실효를 거둘수 있다. 3대혁명소조들은 사상혁명을 일반적강조나 호소로써가 아니라 해당 단위앞에 나선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이 실제적인 생산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3대혁명소조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3대혁명소조원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안과 발명품을 보아주시고 3대혁명소조원들이 앞으로 인민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더 많은 기술혁신안과 발명품을 만들어 내놓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기술혁신의 봉화를 계속 추켜들고나가며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과 합심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발명품을 더 많이 내놓으며 일단 새로운 기술을 착상하면 그것을 끝까지 연구하고 완성하여 생산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문화혁명수행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반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특히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에서 본보기 단위를 부문별, 지역별로 꾸리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3대혁명소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혁명지도방법이므로 이 운동은 그 자체가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모든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 운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워 낡고 침체적인것과 강한 투쟁을 벌리면서도 해당 단위의 일군들의 사업을 성의껏 도와주어 3대혁명소조원들이 파견된 단위마다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해당 단위의 당조직들과 늘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계획도 세우며 해당 단위 당조직과 언제나 합심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대중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고 그에 관한 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진행되는 혁명의 기본내용, 로동계급의 당의 기본전략로선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을 창조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강령을 직접 투쟁구호로 제기하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지난날의 그 어느 대중운동에 비하여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며 대중적기술문화개조운동이다. 우리는 이 운동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당사업의 중

요구성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당사업과 밀착시켜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당이 발기하고 당이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는 운동인것만큼 당조직들은 응당 이 운동을 책임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투쟁 목표와 단계를 바로 정하고 매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목표와 단계, 과업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하며 《80년대속도》창조의 요구에 맞게 결의목표를 대담하게 그리고 굽임없이 갱신해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그에 대한 총화와 평가, 판정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총화와 평가, 판정 사업에서는 그 기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이미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의 사업에 대한 총화와 재판정사업도 수시로 조직하여 이 단위들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굽임없이 투쟁하고 전진하며 언제나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3대혁명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강력한 정치적령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당적지도를 떠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인 3대혁명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상혁명을 비롯하여 3대혁명의 내용자체에 당사업을 통해서만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은것이다.

3대혁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체계를 똑바로 세우며 3대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키고 당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하여 3대혁명수행을 위하여 전개되는 모든 운동들과 사업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적흐름속에서 조직전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당사업의 중요구성부분으로,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당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3대혁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대혁명수행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3대혁명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주관부서인 도, 시, 군 당위원회 3대혁명소조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3대혁명소조부들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전반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하여야 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3대혁명소조부의 힘만으로는 3대혁명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해나갈수 없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어느 한두부서나 몇몇 일군들에게만 내맡길것이 아니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며 여기에서 당내 부서들이 배합 및 협동 작전을 잘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수행에서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영광스러운 3대혁명위업, 이것은 당의 위업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가장 정확한 당의 기본전략로선, 총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당이 안겨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가장 우월한 주체적인 정권

리 용 익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깊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선거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정치행사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들은 주권의 주인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공화국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훌륭히 행사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선거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화국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되며 세계의 수많은 우리의 벗들을 기쁘게 하는 공동의 경사로 된다.

전체 인민의 높은 신임과 지지를 받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적인 정권으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이다.

* *

우리의 인민정권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적인 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혁명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자신이 선택하고 우리자신이 세우고 우리자신이 운영하는 주체적인 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정권이며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고 그들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77페지)

우리 인민정권의 근본특징은 주체적인 정권이라는데 있다. 주체적인 정권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새형의 정권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자기의 진정한 정권을 세우는것이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어떤 정권을 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인민대중은 주권을 자기손에 틀어쥐여야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워왔으며 이 과정에 피도 많이 흘리였다.

주권전취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종래의 착취계급들의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들이 창조되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비할바없이 확대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전례없이 강화된 력사적시대에 창조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새로운 정권형태이다.

정권의 성격과 사명은 그 사회계급적기초와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정권은 주로 도시로동자들의 대표만을 참가시켰거나 로동자와 빈농, 병사들만 참가시킨 지난날의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들과는 달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정치적권력의 담당자로 내세우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정권이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여기에 우리의 인민정권이 로동계급의 새형의 정권으로, 주체적인 정권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우리 인민정권의 지도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과 지향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인류해방의 전투적기치이다.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정권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있으며 언제나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주체적인 정권인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은 실천을 통하여 높이 발휘되고 있다.

주체의 정권인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주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국가정권의 기본특징은 정치적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는데 있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정치는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언제나 있게 되며 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정치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 될 때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정치조직에 마음껏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정권을 통하여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가장 훌륭히 보장된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며 자유와 행복의 진정한 옹호자이다.

인민정권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직업과 재산, 지식정도, 당별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나라의 정사에 떳떳이 참가하여 정치적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다.

그러나 정치적권력이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의 손에 장악되여있는 남조선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아무런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가지고있지 못하며 초보적인 정치적의사를 표현하는것마저 여지없이 탄압당하고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떠드는 《자유》와 《권리》는 극도로 부패한 식민지사회인 남조선의 현실을

온폐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북과 남의 판이한 현실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인민정권이야말로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훌륭히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주체적인 정권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정권인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은 또한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가장 높이 발휘시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해당 국가정권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사람, 인민대중은 창조적인 활동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징의 하나인 창조성의 발현이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의 구현과정이다. 사람의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된다. 인민대중은 창조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의 주체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된다. 이러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정권만이 사회발전을 다그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우월한 정권으로, 력사와 시대의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진보적인 정권으로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인민정권하에서 가장 높이 발휘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통일과 단결에 있다. 통일과 단결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키는데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통일과 단결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국가조직에 망라하고 교육교양하여 그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운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의 힘을 비상히 증대시키고 그들을 위대한 창조력을 가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만든다.

인민정권은 이와 함께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보장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여준다. 인민정권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있으며 우월한 교육제도에 의하여 마음껏 배우고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굳게 뭉쳐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높이 발휘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이처럼 전체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줄뿐아니라 그들의 창조력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원만히 마련하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가장 우월한 주체적인 정권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의 정권인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은 또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국가정권의 성격과 우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물질문화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정치생활에서뿐아니라 물질문화생활에서도 참다운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을 때에만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답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릴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권만이 진정한 인민의 정권, 가장 우월한 정권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

진 호주이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이다. 인민정권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본다.

우리 사회에서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비롯한 나라살림살이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다름아닌 인민정권이다. 인민정권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생산이 발전하는데 따라 더욱 유족한 생활을 누리며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국가로부터 책임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자들에게 로동과 휴식의 권리는 물론 무료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와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고 침해하는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튼튼히 보호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면서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인민정권이야말로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가장 우월한 주체적인 정권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통하여 강유력한 주체적인 정권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으며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7폐지)

우리 인민정권이 창건되던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한 정권건설의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주체적인 정권이 더욱 공고발전되여온 영광의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유격구들에서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주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해방직후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우리 조국의 분렬과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은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때 우경투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떠벌였으며 좌경분자들은 당장 우리 나라에 쏘베트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으신 인민정권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제때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 주체적인 정권을 세우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주권문제를 해결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인민정권을 몸소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주체적인 정권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인민정권을 강력한 주체적인 정권으로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정책작성에서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것이다.

주체적인 정권의 기본징표의 하나는 정책작성에서 독자성을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데 있다.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정권이라야 참다운 주체적인 정권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공업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대외정책 등 모든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갔다. 인민정권이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짧은 기간에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고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을 주체적인 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정권이 혁명과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것이다.

주체적인 정권의 커다란 위력은 대중의 힘을 적극 발동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발동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인민정권의 중요한 활동방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활동방식에 맞게 모든 정권기관들이 언제나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혁명적군중로선은 정권기관들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그에 맞게 풀어나가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확고히 담보해준다.

정권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우리의 인민정권은 대중을 발동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를 제때에 극복하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었다.

정권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는 중요하게 일군들이 어떤 사업 방법과 작풍을 소유하고 실천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정권이 창건된 때로부터 그 사업체계와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새 환경에 맞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중앙이 도를, 도가 군을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 체계와 질서가 서게 되였으며 정권기관 일군들은 옳은 군중관점을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칠저히 옹호고수되고있으며 당의 지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전투적강령으로 제시하시고 그에 맞게 인민정권

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인민정권기관들의 활동과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기관들이 하나의 사상과 명령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서게 되였다. 이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인민정권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며 국가기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심으로써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공화국정권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공화국정권앞에 나서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나가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다.

이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추진시켜나가면서 우리 인민정권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전적으로 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가장 우월하고 공고한 주체적인 정권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꽃피날 희망찬 래일을 확고히 내다보면서 억세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는 정권기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모든 정권활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조직진행하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는것이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과 수령께 충직해야 하며 당의 요구와 의도대로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정권활동에서 당의 령도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권기관 일군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인민의 충복답게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문제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특히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우리의 인민정권을 주체의 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

리 원 경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한다.

당의 현명한 령도는 인민대중을 력사의 위대한 창조자로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당이 위대하기에 인민이 위대한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에게 끝없는 믿음을 베풀어주고있다. 우리 당의 품은 어머니품이며 당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안겨주는 정신적바탕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걸음을 옮겨도 손잡아주고 한생을 걸어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당의 위대성에 매혹되여 그 품에 오늘의 생활과 미래까지도 고스란히 맡기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당과 대중사이의 전통화된 혈연적뉴대에 대한 송가들이 널리 퍼져있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참다운 혁명적풍모이다.

*　　*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면모와 풍모를 규제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혁명적풍모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혁명의 령도자와 사회성원들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이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풍모의 고결성으로 하여 수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한다. 따라서 당이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는것도 수령의 위대성,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관련된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부르죠아정당들과 달리 광범한 군중적지반우에서만 자기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기전이나 잡은 다음에나 언제나 대중과의 련계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과 대중의 련계문제는 당이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데 대한 당건설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57페지)

혁명의 운명은 누가 대중을 보다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정권을 잡기전에 로동계급의 당은 여러 정치세력과 대중쟁취를 위한 치렬한 투쟁을 벌린다. 여기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구현한 정치적강령을 내세우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완강히 싸우는 정치세력,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선봉부대인 로동계급의 당이 승리하는것은 력사적필연성으로 되고있다. 이 필연성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순조롭게 현실성으로 전환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가 저절로, 자연발생적으로 실현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부르죠아지와 그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투쟁단계에서 대중과의 련계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당도 정권을 잡은 다음 관료화되여 군중로선을 어기게 되면 주권전취시기에 마련해놓은 군중적지반을 잃어버리는 가슴아픈 결과를 낳을수 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로동계급의 집권당은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 담당자이다. 따라서 당이 실시하는 정치는 사회의 전체 성원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이 온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인것만큼 인민을 위한 정치를 실시하면 모든 사회성원들이 당을 굳게 믿고 따르게 된다. 이것은 군중과의 련계를 실현하는데서 집권당이 가지고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집권당이라는 조건을 잘 리용하지 못하면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 집권당은 권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잘못하면 일군들속에서 대중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주의적방법으로 사업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관료화는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주되는 장애물로 된다. 따라서 집권당인 경우 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자면 군중로선을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모든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실시하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오직 당안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 행정화의 경향을 철저히 막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활동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군중로선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대중과의 혈연적뉴대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던 시기에 벌써 우리 혁명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유명한 명제를 밝히시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명제는 군중로선의 본질과 요구를 집대성한 고전적명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이 있게 되는 사정을 헤아리시고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며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이 철저히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멀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는 행정에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었으며 그들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이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업적은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에 집약화되여 있다. 이 사회적풍모에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헌신성과 위대성,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대중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 당의 령도, 당의 정치가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될 때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깊어지며 또 대중의 신뢰에 기초해서만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뉴대를 이룰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치적령도를 통하여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감으로써 대중속에서 높은 령도적권위를 확립하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었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당의 인민적인 정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당이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인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대중의 신뢰를 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과 혈연적련계를 맺을수 없는것이다.

우리 당은 무슨 결정을 하나 채택하여도 먼저 인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였으며 어떤 공장을 하나 세워도 먼저 인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도 전후의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규정되였고 기술혁명도 단순한 기술실무적사업으로가 아니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치사업으로 추진되고있다.

우리 당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다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한것이였다.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며 앞날의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책임적으로 보살피며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껏 해결해주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 당은 오늘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대담한 작전을 련이어 펼치고있으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에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뿐아니라 활짝 꽃펴날 앞날의 더욱 유족한 생활에 대하여 가슴후덥게 그려본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값높은 삶을 안겨주고 믿음을 베풀어줌으로써 인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있다.

당과 수령의 믿음은 당과 수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당과 수령의 믿음이 있기에 사람들은 값높은 삶을 누리게 된다.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도, 만사람의 찬양을 받는 영웅도 당과 수령의

믿음속에서 꽃피난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믿음에 의하여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쥔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은 그 어떤 사나운 바람에도, 어떠한 잡균의 침습에도 끄떡하지 않는 가장 튼튼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속에서 키워진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오늘 가장 존엄있고 값있는 생명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이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와서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할뿐 아니라 더욱더 빛내여져야 하며 그 누구의 사회정치적생명에도 그늘비낀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는 고결한 믿음을 펼쳐놓았다.

인민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있음으로 하여 주민들의 사회적구성이 매우 복잡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도 각계각층의 모든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값높은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 당당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심지어 혁명앞에 엄중한 과오를 저지르고 정치적생명이 위험에 처하였던 사람들까지도 소생의 길에 들어서 보람찬 주체위업수행에 한생을 바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대를 이어 보살펴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평범한 한 인테리의 운명, 정치적생명에 금이 생기려고 할 때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우리 세대의 그 누구도 향유할수 없었던 최상, 최대의 믿음을 베풀어주시려고 짧지 않은 마가을밤을 지새우시였던것이다. 이렇듯 우리 당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탄탄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정치적생명, 운명도 밝은 빛을 받아안고 행복의 상상봉에서 찬연히 빛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정치적생명을 마련해주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믿음에 불타는 충성의 마음으로 보답하고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몸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심장속에 뿌리박힌 신념은 오직 하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신뢰감인것이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신뢰는 당과 대중의 혈연적뉴대를 상징하는 귀중한 사회적풍모의 하나로 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혁명적풍모는 수령의 고매한 풍격의 구현으로 된다. 혁명의 령도자의 고결한 성품에 매혹되여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인민대중의 충성심은 참으로 순결하고 의리적인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인품, 만민을 크나큰 한품에 안으시는 도량과 끝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모두를 혁명의 한길로 인도하신다.

위대한 령도자의 비범한 풍모는 사람들속에 순결한 사상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을 진심으로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품을 생각하며 따사로운 당의 품에 안겨사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당을 한없이 믿고 따르며 받들어나가는 인민

대중의 숭고한 사상감정은 혁명적 의리와 신념에 기초한 절대적인 신뢰심의 발현으로 된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는 당의 위대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랑으로 간직하고있으며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을 혁명적본분으로 삼고있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것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수호되고 계승될 영원한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에 대한 끝없는 신뢰심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당을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길로만 가려는 신념에 넘쳐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을 령도해나가시는 오늘처럼 우리 인민들이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뭉쳐 혁명의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는 때는 일찌기 없었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는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에 생애를 바친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의 계승이며 그것은 우리의 후대들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져야 할 영원한것이다.

이렇듯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고 우리 인민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과 대중사이에는 가장 공고한 뉴대가 이루어지게 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사이의 혈연적련계는 지금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고있으며 그것은 불패의 생활력을 지니고있다.

우리 사회의 면모와 풍모에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변화는 당과 대중사이에 맺어진 혈연적뉴대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풍모가 확립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조직적결속이 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공고한것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여기에서는 온 사회가 굳게 결속되고 모든 사회적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의 조직적결속을 실현하는것은 당의 임무이다. 당은 대중의 정치적 교양자, 조직자로서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의 사회적활동에 조직성을 부여하고 그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를 확고히 보장한다. 당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인민대중이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참말로 공고하고 불패의것으로 된다.

우리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당의 의지로 움직이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과 수령을 굳게 믿으며 한순간을 살고 한생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며 당과 수령을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변함없이 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적풍모로 하여 온 사회에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이 가리키는 길로만 전진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져있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풍모가 온 사회를 지

배하게 됨으로써 또한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가 옳게 해결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을 어떻게 령도하며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원칙적문제이다.

당이 인민을 믿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실시하는것은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그들을 력사의 위대한 창조자로 만들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지도가 철두철미 대중에게 복무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옳바른 령도로 될수 있다. 그리고 당과 수령의 령도는 인민대중이 그것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를 받음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새 사회 건설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었다. 우리 혁명 발전의 전행정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으며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인민대중만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준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풍모가 확립되게 됨으로써 또한 모든 사회성원들속에서 밝고 명랑한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온 사회를 지배하는 이 혁명적풍모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를 상징한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놓았다. 우리 당의 구상에 따라 당의 군중사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디에도 그늘진곳이 없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 경모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이 베풀어주는 믿음과 배려로 하여 젊은이나 늙은이나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칭송하면서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확신에 넘쳐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자기 전도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활기있게 일하며 보람찬 삶을 꽃피우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며 혁명적풍모이다.

은정에 보답하는것은 인간의 도리이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의리는 자기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혁명가로서 한생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데 있다.

우리는 마음의 기둥이며 힘의 원천인 당만을 믿고 따르는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더욱 헌신하여야 할것이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적극적인 참가자이다

김 덕 현

오늘 인민군대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맞서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면서 나라의 경제건설에도 적극 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다. 특히 인민군대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하고있다. 이것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풍모로 되며 우리 군대의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이러한 참다운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당과 수령의 웅대한 구상이 훌륭히 실현되고 조국의 위력이 강대해지며 혁명과 건설이 더 빨리 다그쳐지고있다.

원쑤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며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위력하고 믿음직한 인민군대를 자기의 혁명무력으로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 ⁂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인민군대의 혁명적본분이며 중요한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사업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 단행본, 4페지)

조선인민군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영광스러운 혁명무력이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을 통하여 당과 수령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지켜냄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인민군대는 평화적건설시기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을 내외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장병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사수하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일당백으로 자라난 인민군대는 전후시기에도 적들의 끊임없는 침략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영웅적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조국보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을뿐아니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있다.

원래 조국보위와 경제건설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인것만큼 그것을 맡아하는 사회적력량도 다르게 된다. 조국보위의 담당자는 군대이고 경제건설의 담당자는 근로자들이다.

인민군대의 본신임무는 조국을 보위하는것이지만 이 임무를 수행하는것으로 인민군대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경제건설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되는것도 인민군대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군대의 사명과 임무와 관련된다.

인민군대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이다. 인민군대에 있어서는 당의 위업, 인민의 위업이 곧 자기자신의 위업으로 되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된다. 우리 인민군대는 당이 내세운 혁명임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 우리 당의 혁명위업, 우리 인민의 리익과 행복과 떨어져서 인민군대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제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기본혁명과업이며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가는 보람찬 사업이다. 그러므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면서 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인민의 군대인 우리 군대의 본분으로 된다.

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요구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우리 나라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절반땅을 강점당하고있으며 놈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 있는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원쑤들이 덤벼들면 지체없이 떨쳐나서 철저히 쳐부실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이다. 혁명의 요구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들이 불의의 침공을 주되는 침략수법으로 삼고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형편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켜낼수 없다.

우리는 나라를 튼튼히 보위하면서 경제건설도 잘해야 한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제건설을 잘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앞당길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에서 큰 역할을 하여야 할 끌끌한 청년들이 군대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방대한 건설에 필요한 많은 로력을 군대에서 보장받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로 하여금 자기앞에 맡겨진 군사적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원래 군사적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면서 사회주의건설위업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전통적투쟁기풍으로 되고있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은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면서 일제침략자들과 끊임없이 피어린 투쟁을 벌리는속에서도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유격근거지건설과 근거지인민들을 돕는 사업에 몸바쳐나섰다.

우리 군대는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조국보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경제건설에도 적극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본분과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왔다.

해방후 건국위업을 수행하는 복잡한 시기와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인민군대는 인민들의 창조적로력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으며 특히 전후 재더미를 가시고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장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다. 인민군대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대한 진군길에서 끊임없는 로력투쟁으로 당의 위업을 받들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2.8》의 명칭을 가진 비날론공장과 세멘트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 새로운 모습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혁명의 수도 평양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 나라의 동서를 련결하는 현대적인 도로와 청천강, 대동강에 건설된 갑문들과 다리들, 협동전야에 높이 쌓아올린 황금로적가리들에는 인민군군인들의 고귀한 땀이 스며있다.

특히 인민군대는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세계적인 대갑문 서해갑문을 기적적인 속도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였으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인민군대는 오늘도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하고 거창한 건설대상들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전투장들에서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다.

참으로 나라의 경제건설에 참가하여 이룩한 인민군대의 거대한 업적과 빛나는 공적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한길에서 인민과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하며 전진하는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찬란한 위훈의 서사시이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커다란 성과와 빛나는 공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인민군군인들은 무장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킬뿐아니라 헌신적인 로동으로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있습니다.》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이룩한 가장 큰 성과와 공적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혁명을 빨리 전진시키며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인데 있다.

경제는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물질적기초이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유족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인민군대가 건설한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 수많은 갑문과 도로를 비롯한 창조물들은 나라의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여 우리 혁명을 빨리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그것은 앞으로도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서 주체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것이며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군대가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표현된다.

당이 준 명령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여나갈 때만이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의 건설사업은 당의 령도밑에 조직되고 전개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는것은 곧 당의 위력을 과시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으로 되며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인민군대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이 결심하고 내놓은 거창한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위력과 위대성을 내외에 더욱 크게 떨치게 하였으며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당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였다. 이것은 경제건설전투에서 인민군대가 이룩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공적으로 된다.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여 이룩한 성과와 공적은 또한 자체의 위력을 더욱 강화한것이다.

군대의 전투력은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에 크게 의존된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자체의 물질기술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할수 있게 되였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인민들과 어깨겯고 투쟁하는 과정에 그들과의 혈연적뉴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여 인민들의 일손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맡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인민들은 이러한 인민군대를 자기의 친혈육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지원하였다.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건설장으로부터 협동벌의 모내기전투장에 이르기까지 인민군대가 일하는 그 어데서나 군민일치의 미풍이 활짝 꽃피였다.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에서 이루어진 군민일치의 미풍은 싸움의 나날에는 한전호속에서 싸우는 가장 친근한 혁명전우의 관계로 피여나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천백배로 높여줄것이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에 우리 당이 이끄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위력을 깊이 체득하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용감성, 대담성, 불굴의 의지 등 고상한 품성을 키워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육체적으로도 억세게 단련되여 자기의 전투력을 더한층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여 커다란 위훈을 세웠을뿐아니라 그 벅찬 투쟁의 나날에 당이 내세운 과업을 충성으로 받들고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숭고한 투쟁정신과 기풍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건설전투에서 인민군대가 보여준 투쟁 정신과 기풍에서 중요한것은 당이 제시한 과업을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이다.

당의 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혁명군대에 있어서 당의 요구를 실현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준엄한 전화의 날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과 명령을 목숨바쳐 수행한 인민군군인들은 사회주의건설전투장에서도 당이 절박하게 해결하려는 문제를 자기들의 지상의 투쟁임무로 접수하고 한몸바쳐 수행하였다. 그들은 작업량을 기존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이 요구하는 완공기일을 법으로 여기고 그에 맞추어 정하였으며 그것을 무조건 해나갔다.

그들은 방대한 공사과제를 놓고서도 조건타발을 몰랐으며 당의 요구를 집행하는데서 빈말이 없었다. 그들에게서는 언제나 결의와 실천,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속에 차넘친것은 천만산악도 만리대해도 넘고 헤치며 당의 요구를 드팀없이 수행하려는 충성의 신념이였다. 당이 준 과업을 수행하기전에는 설 권리가 없다는 불같은 마음을 안고 돌격전에 선 병사의 자세로 낮에 밤을 이어 공사를 다그치며 부닥친 위기와 난국을 한몸바쳐 헤치고 전진의 넓은 길을 열어나간 우리 군인들의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투쟁, 이것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키려는 그들의 철석같은 신념의 뚜렷한 발현이였으며 당이 맡겨준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당이 제시한 과업이 아무리 방대하고 조건이 어려워도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하나의 대답으로 받아들이고 어김없이 관철하여 절대성, 무조건성이란 어떤것인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여기에 경제건설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이 보여준 가장 귀중한 모범이 있다.

사회주의건설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은 또한 어떤 난관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도 진할줄 모르고 계속 내달아나가는 굽임없는 전진과 혁신적기풍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인민군대가 맡아한 경제건설과업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어려운것들이였으며 방대한 공사들이였다.

이 아름찬 경제건설과업들을 수행해나가는 길우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 하나하나의 난관들은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투지가 약한 사람으로서는 걸음마다 주저앉을수 있고 고비마다 망설일수 있는 어려운것들이였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닥쳐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전설투쟁이 오래 계속되여도 침체와 답보를 몰랐다. 그들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당과 수령, 조국을 보위하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이기는 참다운 군인정신의 소유자들이였다. 이 정신은 항일의 피바다를 헤쳐온 조선인민혁명군의 숭고한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의 발현이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불타는 강을 건느고 험한 진펄길을 걷는 투쟁정신의 구현이였다.

우리 군인들은 이 정신으로 진펄을 메워 대규모의 공장들을 세웠으며 산을 허물고 천길나락을 메우며 고속도도로를 건설하고 사나운 20리 날바다를 막아 세계적인 대갑문을 일떠세웠다.

사회주의건설전투에서 인민군군인들은 또한 당이 안겨준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투쟁기풍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인민군군인들은 경제건설전투장마다에서 언제나 대담하게 착상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여 일을 팡팡 밀고나갔다. 그들은 산을 허물어도 대담한 작전으로 단꺼번에 수십만산을 허물어내렸으며 날바다를 막아도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구조물을 만들어 조립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설비조립도 부분품을 하나하나 가져다 무어낸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톤짜리를 통채로 끌어다 조립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였으며 당이 제시한 과업을 빠른 속도로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모든 일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것은 우리 당이 밝혀준 속도전의 기본요구이다.

원쑤와의 판가리격전장에서 적을 불이 번쩍 나게 답새겨 무리죽음을 안기고 빠른 속도로 진격하는것을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하는 우리의 군인들은 경제건설전투에서도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였다.

대규모의 비날론공장을 불과 한해 남

짓한 사이에 웅장화려하게 건설한 《비날론속도》, 세계적인 대갑문을 5년동안에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운 《서해갑문 건설속도》를 비롯하여 우리 군인들은 류례없는 높은 속도를 창조하여 당이 준 모든 경제건설과업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하였다.

사회주의건설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의 모범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건설전투에서 인민군대가 보여준 혁명적인 투쟁 정신과 기풍, 그것은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와 담력을 그대로 구현한것이며 80년대가 요구하는 투쟁 정신이며 기풍이다. 그것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받들고 어떤 기풍으로 실현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감으로 된다.

인민군군인들이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에서 보여준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일할 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굽임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 당의 경제건설구상은 철저히 관철되게 될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면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인민군대앞에 일관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인민군군인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도당의 날로 격화되는 전쟁도발책동을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전투정치훈련을 힘있게 내밀고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단의 전투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원쑤놈들이 감히 덤벼들면 놈들을 단매에 쳐부심으로써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조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만전을 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더 큰 로력적위훈을 세워야 한다.

지난 9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운동에 보조를 맞추어 15만여명의 군인들을 평화적건설에 돌릴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하루빨리 앞당겨점령하고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한 현명한 조치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평화애호적립장의 표시로서 나라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당의 부름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선에 진출한 우리의 군인들은 자기들의 단련된 힘과 불굴의 영웅적기상을 과시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높은 속도와 함께 최상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설계도를 어김없이 실현하려는 우리 군인들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인민군군인들은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공장, 금강산발전소, 광대한 간석지와 소금밭 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움으로써 당과 수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철학에서 인간문제

리 성 준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주체철학에서 인간문제가 차지하는 지위와 그 내용에 대하여 올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이다.

원래 인간에 관한 문제는 고대로부터 모든 철학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여온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간문제가 철학적사유의 주체인 사람자신에 관한 문제이며 철학자체가 사람의 운명문제의 해결을 사명으로 하는 과학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서로 다른 사회계급적요구와 리론적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인간문제를 각이하게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종래에는 인간문제가 세계관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내용을 중심에 놓고 풀지 못하였다.

인간문제가 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바로 규정하고 그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력사적과제는 불멸의 주체철학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주체철학은 인간문제에 대한 선행철학적견해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새로운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인간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 이것은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위대성, 그 근본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주체철학에서 인간문제는 무엇보다도 철학적세계관의 기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는데 그 특성이 있다.

인간문제를 철학적세계관에서 어떤 위치에 놓는가 하는것은 철학상의 모든 문제를 전개하고 체계화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철학의 모든 내용과 체계, 사명이 좌우되게 된다.

주체철학은 바로 인간문제를 기초적인 위치에 놓고 철학적세계관을 전개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사람의 본질적특징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고 인간문제에 해답을 준데 기초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준다.

지난 시기의 철학적세계관들에서는 주로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운동변화하는가, 진리를 인식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들이 론의되고 인간문제는 철학적세계관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의 철학들에서 인간문제는 주로 사회력사관에서 취급되였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을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심리학적 또는 륜리도덕적 면에서만 고찰하였다. 지난 시기 인간문제를 주로 론한 철학들은 사람을 세계와 분리시켜 순수 인간문제만을 론한 하나의 인생철학이지 인간문제를 기초적인 위치에 놓는

철학적세계관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주체철학에서 인간문제가 기초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것은 그것이 사람중심의 철학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주체철학은 우선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 사람중심의 철학인것으로 하여 인간문제를 기초적인 위치에 놓는다.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것은 인생철학과 같이 순수 인간문제만을 론한다거나 반동적인 《인간중심주의철학》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명하는 철학적방법론에 의거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것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려는 사람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고찰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방법론에 의거한다는것이다.

철학이 이와 같이 사람중심의 철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세계관을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본질적속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인간문제를 철학의 출발적, 기초적 위치에 놓고 해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체철학은 바로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세계를 해석하고 그 변화발전에 대하는 방법론을 확립함으로써 인간문제를 철학의 기초적위치에 올려놓았다.

주체철학은 또한 그것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철학인것으로 하여 인간문제를 기초적인 위치에 놓는다.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라는것은 단순히 인간의 운명문제를 론한다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올바른 방도를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주는 철학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운명문제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이므로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존재한 모든 철학들은 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에 대하여 론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철학들은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히는것을 근본사명으로 내세우지 못하였으며 세계의 시원이 무엇이고 세계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는것을 밝히는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하여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게 되고 물질이나 의식에 대한 견해를 출발적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지난 시기의 철학들은 사람의 운명문제를 론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세계의 시원이나 운동 문제에 종속시켜 고찰하였다.

관념론자들은 세계와 사람의 운명이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를 설교하였으며 형이상학자들은 세계의 모든것이 고정불변하며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숙명론을 들고나왔다. 로동계급철학 이전의 유물론은 관념론을 반대하였으나 사람의 운명이 자연적필연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고정불변하다는 형이상학적견해에 머물러있었다.

사람의 운명문제에 대한 신비주의적견해와 숙명론적견해는 세계의 혁명적개조를 지향한 유물변증법에 의하여 부정되였다.

주체철학은 유물변증법적립장을 고수하면서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히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사람의 운명은 사람자신에 의하여 개척된다.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히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는것부터 해명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람의 본질적속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가 노는 역할을 밝혀야 한다.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철학은 마땅히 인간문제를 기초적인 위치에 놓고

그 해명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해명에 기초하여 밝혀진 철학적원리를 기본원리로 삼고 철학상의 모든 문제를 전개한다.

주체철학은 이처럼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문제를 철학적세계관의 기초적위치에 놓은 철학이다. 인간문제를 철학적세계관의 기초적위치에 놓은것은 주체철학이 인류의 철학적세계관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사람위주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확립할수 있게 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주체철학에서 인간문제는 다음으로 사람의 운명개척의 요구에 맞게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였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철학에서 인간문제를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떻게 제기하고 해명하는가 하는것은 철학의 전반 내용과 체계, 그 사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운명개척의 요구에 맞게 인간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우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로 제기하고 해명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는 철학이 반드시 선차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주되는 문제이다.

주체철학은 인간문제를 단순히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운명개척의 옳은 방도를 밝히기 위하여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제기한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세계의 관계문제이다. 사람과 세계의 관계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람과 세계가 각각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을 사람을 위주로 하여 표현하면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로 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는 사람을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세계를 직접 대치시켜 설정한 문제이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사람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고 이 량자를 대립시켜 설정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은 정신, 의식을 가진 물질적존재로서 세계와 대립하여 존재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간다. 그러므로 철학이 자기의 사명에 맞게 사람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히기 위하여서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모든 문제를 고찰하여야 한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감으로써 개척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개척의 요구에 맞게 인간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로 된다.

주체철학은 인간문제를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로 제기하였을뿐아니라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그에 가장 옳바른 해명을 주었다.

다른 모든 생명물질들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사람은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한다. 객관세계에 의식적으로 맞서고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그것을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조해나가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유일한 개조자로 되는것이다. 사람이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개조자이라는것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운명개척의 요구에 맞게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인간문제

를 고찰함으로써 또한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사람의 본질적속성문제는 인류의 철학적사유가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돌려온 문제이다. 사람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과 활동을 하는만큼 수많은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 본질적속성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시기에는 사람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여러가지 면에서 제기되고 고찰되였으나 그것들은 다같이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여 해명하려한데서는 공통성을 가지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의 철학들은 사람의 본질, 본성 문제를 사람이 물질발전의 산물인가, 의식, 정신의 산물인가 하는 견지에서 고찰하였으며 사람을 초자연적인 정신적실체의 구현 또는 주관적자아의 발현으로 보거나 기계나 생명유기체일반과 같은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도 리성과 의지와 같은 정신적인것에서 찾거나 자기 보존의 욕망이나 리기심과 같은 본능적인것에서 찾았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사람의 개별적인, 부차적인 속성을 본질, 본성으로 그릇되게 규정한것이거나 사람에게 고유한 특성이 아닌 속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외곡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들이였다.

사람의 본질문제는 유물변증법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토대우에서 해명되게 되였다. 유물변증법적철학은 사람의 본성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규정하고 인간의 활동에서 물질적생산과 사회경제관계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해명에서 커다란 전진이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유물변증법적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혔다.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존재나 정신적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가진 물질적존재이며 다만 자연과 사회에 의하여 제약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관계를 맺고 주위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면서 사는 사회적존재이다. 주체철학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혔다.

이 견해에 의하여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히 밝혀지고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견해가 확립되였다. 주체철학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힘으로써 인류는 지구우에 출현한 이래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도 알지 못하였던 자기자신의 참다운 본질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생활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운명개척의 요구에 맞게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인간문제를 고찰함으로써 다음으로 그것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회적인간의 가치문제로 제기하고 해명한다.

삶의 가치에 관한 문제는 삶의 의미를 해명하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사람은 삶의 가치에 관한 옳바른 견해를 가져야 의의있는 생활을 할수 있으며 인간적존엄을 지킬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적지 않은 철학들이 인간의 가치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론하는 경우에도 일부철학들은 사람을 사회와 동떨어진 고립적인 개인으로 보고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 관한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개인적인 정신적요구와 물질적요구가 원만히 충족되는 삶을 가치있는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는 달리 주체철학은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를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로 제기한다.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적욕망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자주성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투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삶의 가치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와 동떨어진 순수 개인의 삶이나 개인적행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회적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고 해명하여야 한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사람의 가장 값높은 삶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그것은 곧 사회정치적생명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져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정치생활을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가지게 되는 생명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은 삶으로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값높은 삶에 대한 리해가 확립됨으로써 인생에 관한 근본원리가 해명되게 되였으며 사람은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이와 같이 인간문제를 사람의 운명개척의 요구에 맞게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제기하고 해명함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 사람의 본질적속성과 삶의 가치 문제 등 인간문제의 모든 내용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었다. 이리하여 인간문제는 인류철학적사유발전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체계화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에서 인간문제의 옳바른 해명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철학에서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리론적문제일뿐아니라 철학의 진보성과 보수성, 혁명성과 반동성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지난 시기 반동적철학들은 례외없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외곡부인하였다. 반동적착취계급의 철학에서는 사람을 초자연적인 힘에 예속된 무기력한 존재로, 생물학적, 야수적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규정하고 사람을 모독하였으며 극소수 착취계급의 존엄과 가치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의 지배를 인간의 《본성》에 맞는것이라고 합리화하고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반동적역할을 하였다.

진보적인 철학, 혁명적인 철학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람의 힘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서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의 가치를 긍정하고 사람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것을 주장하였지만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였다.

주체철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특징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물질적존재가 가지고있는 수많은 속성들가운데서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같은 사회적속성보다 더 발전되고 위력하며 고귀한 속성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은 바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 가장 존엄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된다.

세계에는 모든것의 지배자, 주인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가 없으며 개조자로서의 역할, 모든것을 결정하는 역할보다 더 큰 역할, 위력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은 바로 세계의 주인이며 개조자임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된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높은 수준에 올려놓았을뿐아니라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로 사람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주체철학이 밝힌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견해와 값높은 삶에 대한 견해, 세계에서 사람

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원리는 사람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이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한다. 여기에 주체철학이 인간문제를 해결한것이 가지는 독창성과 혁명성, 그 특성이 있는것이다.

주체철학이 인간문제를 기초적위치에 놓고 그에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해명을 준것은 인류철학사발전에서 위대한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주체철학에 의한 인간문제의 위치와 내용의 새로운 해명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는 인간문제에 대한 철학적리해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한데 있을뿐아니라 철학의 전반내용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는데 있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특징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견해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세계에 대한 인류의 철학적견해는 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의 법칙을 밝힌 견해로부터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견해로 전환되게 되였으며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물질과 의식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던 관점, 립장대신에 사람의 리익과 그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와 그 변화발전을 대하는 관점, 립장이 확립되게 되였다.

또한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새로운 사회력사관을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인류의 사회력사관은 물질중심이나 정신중심의 사회력사관으로부터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원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주체사관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인간문제를 해명하고 값높은 삶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힘으로써 인생관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를 확립하였으며 인생관을 주체의 세계관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지닌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가장 값높은 삶이라는 견해에 의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인간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이 확립되였다. 그리고 이 인생관은 바로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가 가져야 할 인생관임으로 하여 사람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주체철학의 구성부분으로 되게 되였다.

이처럼 주체철학은 인간문제가 철학적세계관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내용을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람,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철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람중심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인간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명을 주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주는 주체철학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요구대로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

량 경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이룩되고 발전풍부화된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사람들을 무장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잇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줴버리거나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당의 력사적뿌리, 혁명의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고 혁명성이 마비되여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되게 되며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이 심화될수록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당과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의 기본사명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 기본임무수행에 복종하게 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그 위업의 담당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은 우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변함없이 그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기간에

이룩되고 축적된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계승성과 일관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혁명의 초석으로, 근본원천으로, 혁명의 전진을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직 당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고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새로운 세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으나 세대는 바뀌여져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기본력량으로 등장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로 튼튼히 틀어쥐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없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없다.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그것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드팀없이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찬란히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조선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일뿐아니라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귀중한 혁명적량식이다.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자면 그들을 혁명의 지도 사상과 리론, 지도방법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로 키워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필요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전면적으로 담고있으며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숭고한 풍모를 생동한 모범으로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거기에 담겨져있는 사상,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세계관,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고 온 사회에 건전한 혁명적기풍을 확립하게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로 틀어쥐고나가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백두밀림에서 추켜든 혁명의 붉은 기발을 계속 높이 들고 주체위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킬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앞에 나선 과업은 매우 방대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 또다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풀데 대한 목표를 내놓으시고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민경제사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방대한 과업을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가장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풍부화되여온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굽임없이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혁명정신이 구현되여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으며 우리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자신의 힘으로 능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민군용사들과 건설자들이 서해갑문과 같은 거창한 규모의 대자연개조사업을 불과 5년동안에 수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인민군용사들과 건설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투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그토록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쑤들의 겹겹한 포위속에서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20성상 일제와 싸워 승리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과 그 투지로 일한다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도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 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다. 그래야 또한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60성상에 걸쳐 다져진 우리 당과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우리 식의 고유한 일본새로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빠른 시일안에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은 우리 당의 주체혈통을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명맥을 튼튼히 이어나가기 위한 사상사업이며 당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이며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상사업이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로 전면에 내세우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8페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고 풍부화시키신 혁명전통에 대한 교양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리면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승발전시키신 혁명전통의 내용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우선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혁명전통의 형성과 그 계승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계승발전되는가 하는것을 옳게 인식하는것은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이 혁명전통의 형성과 그 계승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할 때라야만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에 대하여 옳바른 태도를 가질수 있고 혁명전통을 계승하는데서 그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과 혁명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의 형성과 계승발전의 합법칙성이란 혁명전통이 수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수령과 후계자에 의하여 혁명투쟁의 전력사적행정에서 계승발전된다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수령이 개척하고 령도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되고 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굽임없이 발전풍부화

되여나가게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그 후계자에 의하여 이어지고 발전한다. 수령의 후계자는 혁명의 피줄을 이어나가는 과정에 새롭게 나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원리와 방도들을 제시하고 혁명의 새로운 업적과 경험들을 창조해나간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고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더욱 풍부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드팀없이 구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령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활동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는것을 출발점으로 삼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 속도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 등 모든 사상리론과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업적과 투쟁경험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의 계승이며 발전풍부화이다.

이처럼 혁명전통이 수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수령과 후계자에 의하여 혁명투쟁의 전력사적과정에 계승발전되는것은 그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전통의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을 원리적으로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무궁무진한 사상적원동력인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조선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원형으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걸출한 령도풍모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구현하고있는 항일의 혁명전통은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고있으며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준엄한 항일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을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게 할수 있다. 그래야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싸워나가는 진짜배기혁명가,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창시된 혁명전통의 내용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전통이 발전풍부화된 내용을 가지고 폭넓게 진행하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진행한다는것은 항일의 혁명전통과 함께 해방후 새조국 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

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것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그리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포함시켜 폭넓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쌓아올리신 업적신전을 계속 밀고나가면서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3대혁명을 힘있게 이끄시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밖에도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심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사상리론적재부와 투쟁 업적과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이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고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방법을 더욱 개선하는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것처럼 혁명전통교양을 옳은 방법론에 의거하여 진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한것은 혁명전통교양을 원리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생동한 사실적자료를 배합하여 진행하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사업의 주되는 목적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켜 누구나다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우리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자는데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업적의 위대성을 원리적으로, 자료적으로 깊이 파악시키는데 모를 박고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리론적으로 개괄하는 사업을 앞세우고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료를 안받침하는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대상별 특성에 맞게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

이다.

혁명전통교양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은 조직별, 계층별 구성과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사상생활 및 혁명과업수행과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전통교양을 대상별 특성에 맞게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을 진실로 사상생활과 실천투쟁의 량식으로 만들며 그것을 따라배워 사상수양에서 전진을 가져오고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천편일률식으로가 아니라 대상별 특성에 맞게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혁명전통이 진실로 사람들의 사상생활과 실천의 본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을 거점으로 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은 혁명전통교양의 학교이며 거점이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들을 잘 꾸리고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체현하고있는 생동한 사실과 사적물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보다 실감있게 인식시킬수 있다.

우리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답사, 참관 사업을 조직화, 계획화하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을 통한 교양의 수준을 한계단 높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영화문헌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을 체득시키는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항일혁명투쟁의 연고자 그리고 접견자들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신문, 방송, 출판물과 문학예술작품 등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며 혁명전통을 따라배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세워야 한다.

혁명전통교양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또한 형식주의를 없애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의 사상을 다루는 사업인것만큼 형식주의를 하면 그 후과가 크며 사람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없고 그것을 실지 사업과 생활에서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없게 된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에서 형식에 치중하거나 회수나 채우려는 현상을 없애고 그것을 목적지향성있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그 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사업이 그러한바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사업에서도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해나가야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짜고들어 진행하며 혁명전통교양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잘해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참으로 무겁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한 대중운동

—건국사상총동원운동개시 40돐에 즈음하여—

고 송 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개시된 때로부터 40년 세월이 지나갔다.

강도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로부터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전개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전체 인민을 열렬한 애국정신과 참다운 건국사상으로 무장시켜 민주조선건설의 새 력사를 펼친 애국적대중운동이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해방후에 시작된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과 함께 전국적범위에서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폭넓게 진행되게 하였다. 해방후 첫시기에 대중적투쟁으로 새 조국 건설의 진군길을 열어놓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시작을 마련한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대중운동을 적극 벌려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창건 첫날부터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인 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혁명적지향,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적극 추진하여왔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02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바른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밀고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군중동원방법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굽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인민대중을 하나의 목적 실현에로 이끌어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당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올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힘을 조직하고 그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려면 바로 대중동원의 위력한 방법인 대중운동을 옳게 조직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대중의 기세를 늦춤이 없이 계속 높이 발양시켜 그들을 창조와 위훈에로 불러일으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벌써 대중운동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인민적운동으로 민주조선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전군중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새 조국 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해방후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조직동원하여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한 대중운동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한것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일제가 남겨놓은 퇴페적인 유습과 생활태도를 없애고 새로운 민주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도덕, 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기 위한 사상혁명이였으며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민족적기풍을 창조하기 위한 거대한 사상개조운동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인민들의 애국심을 높여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새 조국 건설사업에 총동원되도록 하는 애국적인 대중운동이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당시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나왔다.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해방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신앙의 자유를 얻고 모든 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를 숙청하면서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나갔다.

정치적권리를 장악한 우리 인민은 도처에서 자기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였으며 그 지도밑에 치안을 유지하고 공장, 기업소, 교통운수기관들을 보위, 운영하면서 민주과업들을 수행해나갔다.

당의 령도밑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애국적인민들을 불러일으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기초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변혁은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힘있게 촉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새 민주조선 건설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의 구체적현실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는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탐오랑비하며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멀리 뒤떨어져 건달을 부리는것과 같은 낡은 생활 태도와 인습이 발로되고있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한 결과 북반부에서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람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봉건적 사상잔재와 악습들은 새 사회, 새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을 저애하고있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초래된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태도를 뿌리빼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민족적기풍을 세우지 않고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할수 없었으며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야 할 력사적과제를 깊이 헤아리시고 인민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상개조사업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6년 11월 2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확대위원회에서 일대 사상혁명으로서 사상개조사업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새로운 민주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풍모, 도덕과 전투력을 기르기 위한 사상혁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고 간 모든 타락적이고 퇴페적인 유습과 생활태도를 없애고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새로운 민주조선의 민족적 기풍을 창조하는 거대한 사상개조사업

을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554~55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봉건적 사상 잔재와 악습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자기의 힘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는 민족자주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국가사회재산을 애호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인민적도덕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국사상총동원운동방침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력을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새 조국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국사상총동원운동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널리 벌리도록 하였다.

각급 당단체들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확대위원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에 대한 연구반을 조직운영하고 수많은 선전원들을 군중강연사업에 동원하여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의 기본사명과 그 정당성을 군중속에 깊이 체득시켜나갔다. 학습회와 강연회뿐아니라 각급 당단체들은 문학예술활동과 출판활동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전국사상으로 무장시켜나갔으며 시, 군을 단위로 하여 《전국사상총동원공작대》와 같은 선전대들을 조직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건국열의를 비상히 높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국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가 높아짐에 따라 사상개조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을 단련하고 개조하며 낡은 생활기풍을 철저히 근절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비판의 예리한 무기로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 남아있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청산하기 위한 날카로운 사상투쟁이 당 및 국가경제기관, 사법안전기관, 각 사회단체, 공장, 기업소, 가두 등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이 과정에 개인향락주의, 안일과 해이, 사기와 횡령 등 불건전한 사상과 행동이 배겨날수 없게 되고 불순분자, 전달군들이 적발제거되였다. 또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관료주의, 형식주의적 사업 태도와 작풍이 타격을 받고 근절되여갔으며 새 조선의 참다운 민족적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이와 같이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이 발기되고 사상의식개변을 위한 사업이 조직화, 적극화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사상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는 민족자주정신과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존중하는 애국사상과 민주조선의 새로운 인민적도덕이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로 튼튼히 자리잡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민주주의 새 조선의 인민으로서 응당 소유하여야 할 민족적 기풍과 생활태도, 사업태도를 지님으로써 해방된 조선은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을 가지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서는 력사적사변을 맞이할수 있었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새 조국 건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더욱 심화

발전되고 새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사상개조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사상개조사업의 목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을 따라세움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힘을 키우는데 있다. 사상개조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 구현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능숙히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하여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대중적애국운동들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새 조국 건설을 적극 추동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들의 애국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 힘있게 벌어졌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나라와 공장의 주인된 자각과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당면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애국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특히 정주기관구 로동자들이 건국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애국운동의 모범은 증산경쟁운동의 불길을 전국에 확대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시 철도운수부문앞에는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었다. 일제놈들이 도망가면서 파괴한 철도운수 수단과 시설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연료가 모자랐고 기술도 부족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연료문제해결이 가장 곤난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정주기관구 로동계급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그때까지만 하여도 기관차연료로는 전혀 쓸수 없다던 안주탄으로 기차를 움직이는데 성공하였으며 채탄돌격대를 뭇고 안주탄광에 들어가 석탄증산에 이바지하였다. 이 애국적발기는 나라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새 나라 건설에 바쳐나가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건국정신, 건국자세의 본보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창발적애국운동을 귀중히 여기시고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이에 고무된 전국의 로동계급은 할론의 강재, 한푼의 자금이 새롭던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1946년말까지 우리 나라 북반부전역에 철처철도가 복구되였으며 이 한해동안에 822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조업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그리고 자금과 물자를 애호절약하며 기계를 알뜰히 다루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투쟁이 급속히 확대되였다. 증산경쟁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은 비상히 높아지고 인민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농민들의 애국미헌납운동과 결합되여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건국사상을 구현해나가는 농민들의 애국운동은 해방후 나라의 어려운 식량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였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실시로 자기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고 해방후 첫해 농사에서 풍작을 이룩한 우리의 농민들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전개되자 그에 적극 호응하여 애국미헌납운동의 봉화를 들었다.

토지개혁으로 분여받은 땅에서 정성들여 가꾸어거둔 낟알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올릴 충성의 마음으로 가슴불태워오던 김제원농민이 제일먼저 나라에 쌀을 바친것을 계기로 시작된 애국미헌납운동은 대중적성격을 띠고 급속히 확대되였다.

농민들은 《김제원농민을 본받아 애국미헌납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자》는 구호를 들고 현물세를 제때에 바치는 한편

자원하여 많은 쌀을 애국미로 나라에 바치였다. 이 애국적지성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고 보람찬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려는 우리 나라 농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애국열의 상징이였으며 하루빨리 새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열렬한 건국사상의 발현이였다.

건국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중적인 애국투쟁은 기업가, 상인들, 문화예술인들 속에서도 줄기차게 전개되여나갔다. 애국적인 기업가, 상인들은 애국헌납운동으로 학교를 비롯한 문화기관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노력을 바치였으며 문화예술인들은 《문사강연대》를 뭇고 공장과 농촌, 어촌에 나가 근로자들의 건국열의를 북돋아주면서 자신을 민주주의적문화인으로 준비해나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렇듯 활발히 전개된 증산경쟁운동과 애국미헌납운동을 비롯한 대중적애국운동들은 우리 인민이 지닌 열렬한 애국정신과 참다운 건국사상의 뚜렷한 반영이였으며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중적애국운동들뿐만아니라 문맹퇴치운동과 밀접히 결합하여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더욱 폭넓게 조직령도하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 문맹을 퇴치하는것은 낡은 사상 잔재와 유습을 청산하고 새 조선의 민족적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놈들이 감행한 민족우매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80%이상이 문맹자로 되였으며 이것은 인민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민주주의적인 문화생활을 꾸려나가는데서 커다란 장애의 하나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만도 230만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문맹자의 처지에 놓여있었던만큼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온갖 반혁명적사상의 영향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사상적해방을 실현할수 없었으며 나라의 기술과 경제도 발전시켜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문맹퇴치사업을 문화건설의 선차적과업으로, 사상개조사업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고리의 하나로 내세우고 문맹퇴치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문화향상은 문맹퇴치로부터!》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중앙과 도, 시, 군에는 문맹퇴치지도위원회, 리들에는 문맹퇴치반을 내오게 하시였으며 곳곳에 한글학교와 성인학교, 성인중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우리 글을 배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서 문맹퇴치사업에 당조직들과 사회단체들이 동원되고 각급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문맹퇴치사업은 새 사회 건설자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문화수준을 가지게 하는데 중심을 두고 전국적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졌으며 1949년 3월에 이르러 드디여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근로자들의 문맹이 퇴치됨으로써 새 조국 건설은 정치와 경제에서뿐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통하여 튼튼히 담보되였다.

실로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그와 밀접히 결합되여 힘있게 벌어진 증산경쟁운동과 문맹퇴치운동 등 대중운동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 잔재와 기술문화적락후성을 극복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우리 당은 해방후 첫시기에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옳게 조직령도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의 길을 개척하고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능숙히 이끌어나가는 귀중한 대중령

도경험을 쌓아올리였다.

대중운동을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어느 한 단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혁명앞에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대중운동을 더 잘 조직전개해나가야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으로 선포하고 이 높은 혁명단계의 요구에 맞는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대중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대중운동의 업적과 경험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위대한 진군을 승리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끌어나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높이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기술혁명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할수 있는 담보를 확고히 마련해놓았다. 우리 당의 이 빛나는 공적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도처에서 배출되고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의 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중운동을 옳게 조직령도하고있는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혁명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개되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그 목표가 높고 포괄범위도 넓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만 대중적투쟁으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현 단계의 요구에 맞게 뚜렷한 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옳게 내세우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기 단위, 자기 부문의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운동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 모범기대창조운동과 같은 여러가지 대중적운동들에 깊은 관심을 돌려 대중의 혁명적기세를 높이고 그들의 단결과 협조의 기풍을 발휘시킴으로써 실제적인 생산적앙양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중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보다 더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어깨를 들이밀고 일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일본새

방 남 섭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 혁명적인 일본새를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립장과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사업에서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어떤 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떻게 전개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앞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간다는것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몸을 적시고 투신하며 모든 사업을 잡도리가 크게 조직하고 포치하며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완강하게 밀고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 일본새를 지니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는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그런것만큼 혁명과 건설이 승리하고 전진하여나가는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이 있게 된다.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닥치게 되는 난관은 어디까지나 전진도상에서 생기는 일시적인것이며 승리는 항구적이고 필연적인것이다. 난관은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으며 사업에서의 성과도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지도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는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의 승리와 성과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지도일군들이 어떤 일본새와 투쟁기풍을 가지고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승리와 성과는 결국 탁월한 수령의 령도와 그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전사들, 지도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룩된다.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지도일군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원래 군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조

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것은 지도일군들의 기본활동방식으로 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결정적력량이다.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들을 발동하고 조직동원하면 바다도 막고 산도 떠옮길수 있다. 문제는 일군들이 인민대중의 거대한 창조력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있다.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일군들이 어려운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조직전개하는것이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지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게 된다. 무슨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면 대중은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되며 일에서 성수를 내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일군들은 늘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 군중은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치면 지도일군들의 얼굴부터 쳐다보게 되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것을 지켜보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면 대중은 거기에 고무되여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며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참다운 일본새로 된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나라의 중요한 혁명초소를 맡고있으며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실현해나가야 할 책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모든 사업이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대로 조직전개되게 하고 당과 수령이 맡겨주는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다괄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것이 일군들의 본분이다.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하자면 수령이 바라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앞장서는 참다운 일본새를 지녀야 한다. 말로만 당에 충실하겠다고 맹세하고 실천투쟁으로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지 않는것은 결과속이 다른 표현이며 충실하지 못한 행동이다. 말만으로는 전사의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고 지도일군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말은 적게 하여도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적인 실천투쟁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당과 수령의 은덕을 잊지 않고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몸을 적시면서 뛰고 또 뛰는 사람이 진짜 의리와 신념이 있고 사상적으로 순결한 일군이며 진심으로 령도자를 받들고 실천행동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혁명전사이다. 당과 수령이 맡겨주는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여도 어깨를 들이밀고 대담한 전개력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빛나게 관철하여 그 정당성을 확증하고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바로 우리 일군들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으며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도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

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함남도당위원회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에 도당위원회는 1만톤프레스를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룡성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이 우리 당이 안겨준 무비의 담력과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일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 한편 책임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을 조직동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룡성의 로동계급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와 자재로 1만톤프레스를 훌륭히 만들어 우리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였다. 올해에도 우리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도의 책임일군들이 사업을 대담하게 조직전개하고 실천적모범으로 생산자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참으로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정치적신임에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하려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이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면서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조직전개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참된 길이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 일본새를 지니는 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전례없이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승리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우리 당은 지금 식의주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대자연개조사업과 기념비적창조물건설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당과 수령의 원대한 경제건설구상에 따라 전례없는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거창한 건설사업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수행하여야 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다.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앞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간부들, 지도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장엄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이야말로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본때있게 일할 때이다. 오물쪼물 앞뒤를 재면서 기백있게 전진하지 못하는것은 우리 시대 일군들의 참다운 일본새가 아니다. 이러한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없으며 오늘의 방대한 건설사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갈수 없다. 방대한 과업이 련이어 나서고 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거창한 진군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일군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 혁명적 일본새를 가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성스러운 사업

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내밀어 80년대를 우리 당의 력사에서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되게 하는 영예로운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돌격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실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불꽃튀는 전투장에 달려가 착암기도 잡고 선반도 돌리며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막아나서면서 군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야 하겠습니다.》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 일본새를 지니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혁명성은 혁명과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다. 혁명투쟁과정에서 발현되는 사람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그들이 지닌 혁명성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성이 높고 투쟁력이 강한 사람만이 난관을 맞받아 돌진할수 있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밀수 있다. 난관앞에서 주저하거나 책임이 두려워 동요하는것은 신념이 없는 행동이며 혁명성이 약한 표현이다. 전개력이 있고 혁명성이 강한 일군은 조건을 탓하지 않으며 난관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며 공산주의자의 완강한 기백으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는것은 참다운 일본새를 지니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혁명적투쟁기풍과 전투적일본새는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의 직접적발현이다.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않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주인답게 일하는것은 일군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풍모이며 일본새로 된다. 일군들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명예와 공명을 바라거나 보수와 대가에 대한 타산을 앞세우고 리해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보수와 대가를 바라거나 리해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는것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혁명전사의 자세가 아니며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우리 일군들은 그 어떤 명예와 대가도 바람이 없이 언제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을 가지고 진실하게 일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 확고히 설 때 그 수행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되며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할수 있다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맡겨진 혁명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당적자각이 높고 결심이 확고한 일군에게는 반드시 기발한 착상이 나오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뚫고나갈 길이 열리게 되지만 하루살이식으로 욕이나 먹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일하면서 자리지킴이나 하는 무책임한 일군은 열려진 문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

일편단심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당앞에서 진심을 감추고 거짓을 꾸미지 않으며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우유부단하게

앞뒤를 재기만 하거나 우국지사식으로 걱정만 하는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은 일하는 과정에 결함을 범하고 과오를 저지를수도 있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책임이 두려워 허물을 감추고 잘 보이기 위하여 요술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과오를 범하고 비판을 받을가봐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눈치놀음을 하거나 일이 잘되지 않는 책임을 우에 밀고 아래에 밀면서 빠질 구멍만 찾는 요령주의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일본새가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어려운 때에 책임이 두려워 발뺌을 하고 살구멍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당과 수령을 실천행동으로 옹호보위하는 충실한 일군이 될수 없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나가는 그러한 일군이 바로 충실한 혁명전사이다.

모든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포치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참다운 실천가가 되여야 하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고 뛰고 또 뛰는 정력적인 노력가가 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전투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어떠한 애로와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이 무슨 일이 제기되면 이것이 없소, 저것이 걸렸소 하면서 제기된 과업을 제 힘으로 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우만 쳐다보거나 남을 넘겨다보면서 어깨를 들이밀지 않는것은 혁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조건타발을 하면서 앉아뭉개는것은 80년대에 살며 투쟁하는 일군들의 일본새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짚신과 《도로기》를 신고 북만원정을 거쳐 고난의 행군을 이어온 불굴의 투쟁정신, 떼목을 타고 총포탄이 우박치는 불타는 강을 건느던 그 용맹과 투지, 맨주먹으로 전후의 폐허를 헤치고 복구와 건설을 다그치던 그 신념과 의지로, 1970년대 사회주의대건설의 나날에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던 그 열정과 패기로,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그 정신과 기백으로 분발하여 떨쳐나선다면 오늘의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에게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모든 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걸린 문제를 어깨를 들이밀고 풀어나가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은 참다운 일본새를 지니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래사람들을 보고 하라고 지시나 하고 결과를 놓고 평가만 하며 의견이나 주고 독촉만 하면서 요구만 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참다운 일본새가 아니다. 한쪽은 내리먹이고 다른 한쪽은 받아무는 식으로 되면 일이 제대로 될수 없으며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충실한 일군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당정책을 관철하고 혁명임무를 수행한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말만 하여서는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치울수 없고 가벼운 종이장 하나도 들어올릴수 없다. 우리에게는 말보다 실천으로 이신작칙하면서 몸을 적시고 투신하는 일군이 필요하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의 영예는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지니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 이악하고도 헌신적인 투쟁속에서 빛나게 된다.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그 어떤 일시적인 충동이나 공명, 영웅심에 의한것이 되여서는 안되며 그것은 철저히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려는 뜨거운 마음의 발현으로, 사업과 생활에 일관된 지도작풍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이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될수 있다.

비료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고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도당위원회일군들이 보여준 실천적모범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고원탄광에서 석탄을 많이 생산하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넉넉히 대주는것은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결정적고리였다. 석탄문제를 풀기 위하여 도당책임일군들이 고원탄광에 나가 현지에서 이동집행위원회를 열고 도안의 기관, 기업소들에 필요한 당적분공을 주었다. 사업을 포치하고 분공을 조직하는것만으로는 책임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였으며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이 필요하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분공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속에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책임일군들이 직접 착암기도 돌리고 탄도 캐면서 실천적모범으로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도당일군들의 실천적모범에 고무되여 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도급 기관일군모두가 따라나섰고 련관된 기관, 기업소 종업원전체가 떨쳐나섰다. 탄부들이 궐기하였고 광범한 대중이 분발해나섰다.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리하여 우리는 고원탄광에서 석탄생산을 훨썬 늘이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석탄을 넉넉히 대줄수 있었으며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경험은 조건이 불리하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책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여기에 당정책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 일본새를 지니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일군들이 확고한 주견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자면 수준이 높아야 한다. 사업에서 일군들의 주견과 전개력은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실력에 기초하고있다.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며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일군이란 바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사상적각오가 높고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능숙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실력과 자질을 갖춘 지휘관을 말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도 더 많이, 더 잘 알고 경제관리지식과 현대과학기술도 더 깊이 알아야 모든 사업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으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거침없이 해제낄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학습하여 높은 정치적식견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변시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온 당과 수령의 령도풍모를 그대로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지워진 책임과 임무는 참으로 무거우며 일군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신임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사업을 대담하게 조직전개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의 절실한 요구

조 철 준

지금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당이 제시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하는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를 따라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들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

* *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기본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중요건설대상들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181페지)

기본건설은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본건설은 생산적 및 비생산적 고정재산을 새로 조성하며 이미 있는 고정재산을 개건확장하는 물질적생산부문이다. 기본건설에 의하여 생산확대를 위한 물질적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며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자면 당이 제시한 정치경제적과업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힘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건설의 집중화는 기본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건설의 선후차와 경중을 가려 중요건설대상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균형을 보장할수 있으며 주어진 로력과 자재,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건설기간을 줄이고 조업기일을 앞당길수 있다.

건설을 집중화하는데서는 당과 수령의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며 해당 시기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심고리로 되는 중요건설대상을 옳게 정하고 거기에 로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하나씩하나

써 중점적으로 건설하는것이 원칙적요구로 나선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시기 제기되는 정치경제적과업에 맞게 기본건설투자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대상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었으며 현대적인 도시들과 문화농촌을 건설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발전소건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계단확장공사와 마그네샤크링카생산능력확장공사,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확장공사, 철도건설, 간석지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공장 건설, 소금밭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의 건설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당의 이 정책적요구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실태와 전망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경제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이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생산장성의 비상히 높은 속도와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예견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수행하자면 이미 마련된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계속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당이 밝힌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화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건설대상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다. 이 중요대상들의 건설을 어떻게 다그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전력고지, 석탄고지, 강철고지, 화학비료고지, 천고지, 알곡고지들과 간석지개간목표점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야 인민경제의 선행공정들을 발전시키고 물질적생산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전반적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이처럼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또한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들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은 오늘 식의주문제를 더욱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원래 식의주문제를 완전히 푸는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

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여야 우리 인민의 평생소원을 풀어줄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건설을 다그쳐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이 제시한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식의주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여야 부침땅면적을 늘이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식량과 고기를 더 잘 공급해줄수 있다.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할 때 또한 더 많은 천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들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이와 함께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강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이것은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공사를 빨리 끝낼 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보다 훌륭히 마련할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것은 또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민족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하는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밝혀준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것이 원칙적인 요구로 나선다.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나라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그래야 또한 중공업과 경공업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드놀지 않는 믿음직한 경제토대를 확고히 마련할수 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추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중요대상건설이 빨리 끝날수록 국토의 면모가 일신되고 우리 조국은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며 나라의 생산력배치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중요대상건설이 완공되면 새로운 공장과 대규모의 발전소, 새로운 철도와 간석지, 소금밭이 생겨나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재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된다.

이처럼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알곡생산과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을 훨씬 늘임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중요대상건설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기본건설부문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대상들과 건설방향,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여 우리들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요건설대상별로 건설력량을 헤아리시고 서해갑문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인민군건설자들과 수많은 제대군인들, 크

고작은 공업기업소들을 건설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건설자들을 보내주시고 자동차, 굴착기, 불도젤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설기계와 설비,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해주시고 건설대상별로 시공공정계획까지 료해하시며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요대상건설에 전당, 전국, 전민이 힘을 집중하도록 혁명적조치를 취하여주시고 건설사업을 언제나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우리에게는 서해갑문과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건설자들의 믿음직한 대부대가 있으며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 하더라도 서해갑문을 건설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인민군전사들과 건설자들의 그 투지와 기백으로 억세게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중요대상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만년대계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이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64페지)

중요대상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당의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당의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풍모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녀야 당이 제시한 중요대상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다.

당의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사업기풍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서해의 20리 날바다우에 세계적인 갑문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연개조전투를 대담하게, 혁명적으로 벌리였다. 그들은 어떤 난관과 애로가 가로막아나서도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혁명적립장에 서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적투쟁기풍을 발휘한다면 중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특히 일군들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원래 건설이 방대하고 그것을 다그쳐나가는 과정에 난관이 있다고 하여 조건타발을 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지 않으며 제기된 과업을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고 집행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것과 같은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일군들은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고 중요대상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중요대상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하며 걸린 문제를 푸는데서 언제나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 일군들은 이와 함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함으로써 중요대상건설에서 요구하는 로력과 설비,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이다.

경제조직사업은 경제지도일군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이 사업을 잘하는것은 일군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은 우리 일군들을 믿고 나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중요한 사업을 맡기였다. 경제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중요대상건설은 수많은 인원과 물자를 움직이고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방대한 공사들을 빈틈없이 맞물려 수행하며 끊임없이 변동되는 자연기후적조건의 영향을 이겨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중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의 모든 측면들을 틀어쥐고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중요대상건설에서 요구되는 로력, 자재, 기계설비, 자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제기되는 공사들을 제때에 끝낼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건설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한편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동행정사업 등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은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해당부문의 경제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는 사업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계획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계약을 잘 맺어주어야 한다. 특히 생산주기가 오랜 대상설비의 계획화사업을 잘하여 건설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설계를 앞세우고 보장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설계부문에서는 설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중요건설대상설계와 대상설비설계를 시공과 생산에 결정적으로 앞세우며 설계의 질을 높이고 앞선 설계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자재공급부문에서는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대상설비를 시공에 앞세워 품종과 규격, 재질별로 무조건 보장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특히 《인해전술》로 건설을 하려는 낡은 사고방식과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고치고 건설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적은 로력과 자금, 자재로 더 많은 공사를 진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진두지휘를 잘하는것은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이 준 혁명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공사지휘를 패기있게, 능숙하게 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당의 요구대로 중요대상건설을 위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매 단계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제껴야 한다. 특히 과학적으로 세워진 시공조직계획에 엄격히 립각

하여 전투를 조직하고 강한 계획규률을 세우며 끊임없이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기동적인 대책을 세워 공사를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동력공사와 물공사, 철도와 도로 공사, 생산가설공사와 후방기지건설을 비롯한 준비건설을 앞세우며 자연기후적조건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나가는것은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중요대상건설을 위한 전투를 지휘해나가는데서 건설의 속도와 함께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건설하는 중요대상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설의 질을 높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 당이 제시한 중요대상들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 속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검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 일떠서는 중요대상들이 준공되는 차제로 자기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그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중요대상건설은 자연을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결코 건설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하기 힘들며 오직 전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전사회적인 지원을 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더우기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것이 나라의 전반적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사업인것만큼 모든 부문에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것은 마땅한 의무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어야 한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능률적인 굴진설비와 운반설비, 굴착설비를 비롯한 건설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며 질좋은 대상설비들을 설비조립작업에 지장없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과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철강재와 세멘트, 목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중요대상건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실어나르는것은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무원 위원회, 부와 각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한 당의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지원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벌려나가야 한다.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적과업이며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풀어야 할 절실한 문제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펼쳐진 중요대상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박 영 식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기술혁명과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여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7폐지)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에서 리용하는 필수적인 투쟁수단이다. 사람들의 중요한 실천분야의 하나인 경제건설은 폭넓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며 그 발전법칙을 밝혀내고 리용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다. 자연의 여러가지 법칙을 해명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유리하게 리용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행정사업이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은 과학연구와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것으로부터 그 집행대책을 세우고 수행정형에 대한 장악과 총화를 진행하는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지도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과학기술행정사업은 당의 기술혁명 로선과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옳게 제시하고 그 해결을 위한 투쟁에로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하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보장대책을 잘 세우고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지체없이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행정조직지도사업을 의미한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조직화, 계획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우월한 사회이다.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통일적 지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생활을 바로 진행할수 없으며 기술혁명을 벌려 과학과 기술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는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 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사업, 과학연구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계획화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보장과 연구성과의 도입과정을 옳게 조직지도하여야 기술발전에서의 분산성과 산만성을 없애고 기술혁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기

술혁명을 짧은 기간에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도 된다.

기술혁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장기적인 사업이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은 여러 분야의 과학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만큼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는 련관된 과학연구기관들과 경제부문들, 그 산하의 수많은 기관, 기업소들이 참가하게 되며 방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고 여러가지 기술수단들과 각이한 전공과 직종의 기능을 가진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이 동원되게 된다.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기일도 많이 요구되게 된다. 과학연구부문의 개별적인 분야나 인민경제의 개별적인 부문, 단위에서 비교적 단순한 기술적문제들을 푸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로력과 자재, 자금이 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 모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술혁명은 오직 옳은 조직지도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여 과학연구와 기술발전을 위한 인적 및 물적 력량을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혹은 해당 부문, 해당 단위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직편성하고 거기에 힘을 넣을 때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양시켜 과학기술발전의 복잡성과 장기성으로부터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제한성을 극복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기술혁명을 짧은 기간에 순조롭게 수행할수 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오늘 우리앞에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뒤떨어진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인것으로 개조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더욱 과학화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도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며 육종사업과 채종사업, 농작물의 재배방법과 집짐승사양관리방법을 더욱 과학화하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할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새롭게 풀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은 수많이 제기되고있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제기된 기술혁명과업들은 매우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125만명에 달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와 위력한 경제토대, 거대한 과학기술적잠재력이 마련되여있다.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는 오늘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적극 개선하여야 기술혁명수행의 방향과 목표 및 보장대책을 잘 세우고 과학연구기관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할수 있다. 그리고 과학연구부문들사이, 과학연구부문들과 인민경제 부문, 단위들 사이의 련계를 강화하여 최신과학기술이 이룩한 성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수 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이 기술혁명수행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이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을데 대한 정책적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할데 대한 당

의 정책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의 현실태와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현시기 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정당한 정책으로 된다. 여기에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안에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우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가 구현되여있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을 더욱더 조직화하고 적극 추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에로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현명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보장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폐지)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이다.

낡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바뀌고 새 기술이 보다 더 현대적인 기술로 교체되는것은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이다.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부터 잘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워야 과학과 기술을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기술혁명의 성과적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는데서 가장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그래야 과학기술발전계획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 실속있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계획으로 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발전계획화 체계와 방법론을 옳게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계획화체계를 튼튼히 확립하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과학기술발전계획화사업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울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자면 또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사이의 관계를 옳게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응용과학의 직접적인 생산적기능만을 절대화하면서 기초과학연구를 소홀히 하면 나라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을 늘이지 못하고 기초리론과학분야를 발전시킬수 없게 된다. 반대로 기초과학연구를 앞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응용과학연구를 홀시할때에는 나라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게 되고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일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그것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더 잘 이바지하게 할뿐아니라 응용과학을 발전시켜 그 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도입할수 있도록 량자를 옳게 결합시켜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려면 이와 함께 로동대상, 로동수단, 생산과정의 보다 기술적인 완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 등을 정확한 경제계산에 기초하여 규정하며 적은 지출로 될수록 큰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경제적효과성을 옳게 타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는데서

기본은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을 다같이 잘 세우는것이다. 전망계획을 잘 세워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해나갈수 있으며 당면계획을 잘 세워야 생산을 힘있게 내밀면서도 해당시기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은 현시기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 수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의 새 기술도입정도,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 등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세우며 전망기간에 과학기술분야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와 단계별 과업,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당면계획은 전망계획에 의거하여 세우며 경제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안받침할수 있도록 지나치게 벌려놓지 말고 해당 시기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보장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어디까지나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견이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타산되고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행을 위한 보장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세워진 계획을 현실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없으며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돌려야 했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안전한 후방에서 비날론연구를 계속할수 있도록 자재와 자금, 실험용 설비와 기구를 비롯한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야 했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도 중간시험공장에서 비날론을 계속 연구완성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비날론연구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빨리 완성될수 있었고 비날론공업은 주체공업의 본보기로 자랑떨칠수 있었다. 우리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보장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든다면 오늘의 유리한 조건에서 풀지 못할 과학기술적문제란 있을수 없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보장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연구사업에 필요한 온갖 물질적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다.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그 도입과정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는 생산량에서 일정한 몫을 먼저 떼내여 계획대로 대주는것을 제도화하며 자금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달성한 연구성과를 공고화하는데는 마땅히 중간시험공정을 거치게 되는것만큼 중간시험공장의 규모는 앞으로 건설하려는 공장규모의 일정한 비률로 제정하며 공장 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연구사업과 시험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사이의 비률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보장사업에서 과학기술통보사업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통보사업은 국내외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과 기술혁신자료들을 수집분류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잘하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과학자, 기술자들의 시야를 빨리 넓혀주고 그들의 과학연구사업을 도와줄수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제때에 받아들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다. 특히 전인민경제적으로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여러가지 과학기술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가공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제때에 통보해주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반복연구를 피하고 문헌작업과 연구사업에 소비되는 많은 시간과 로력, 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선진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과학기술통보사업체계를 보다 정연하게 세우고 그 단위들을 튼튼히 꾸리며 국내외의 과학연구자료와 기술혁신자료들을 더 많이 수집분류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널리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은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의 사명은 자연의 발전법칙을 밝혀내고 그 변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과학과 기술은 원래 실천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실천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비록 가치있는 연구성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실천에 빨리 옮겨놓지 않으면 애써 연구해낸 보람이 적어지게 되며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없게 된다. 과학연구성과는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그 진리성을 검증하고 생산과 건설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할수 있으며 보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추동할수 있다.

과학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자면 그것을 정확히 심의평가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심의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판정하며 심의할 때에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여야 한다. 특히 실천적으로 의의가 큰 새로운 기술적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제정된 제도와 질서의 요구대로 기술합평을 심중하게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거치지 않아 기술혁신안이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거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도입되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줄수 있다.

과학기술연구성과를 도입하는데서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지키는 문제는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이는데서도 철저히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대하며 정확한 경제타산과 엄격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진행한 다음 받아들여야 한다.

가치있는것으로 확증된 과학기술성과들은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그 위력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수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하며 새 기술을 받아들인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실무적인 대책도 취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야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도입하도록 공장, 기업소들을 추동하고 자극할수 있다.

과학연구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이자면 새 기술도입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단위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연구성과를 도입하는데는 많은 자금과 과학기술력량이 요구되게 된다. 새 기술도입비는 과학연구비의 몇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새 기술도입의 특성으로 하여 전문도입기관들을 잘 꾸리고 많은 자금을 요구하거나 여러 부문의 과학기술력량을 인입하여야 할 복잡한 대상들을 담당하도록 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기술관리를 잘하는것도 중요하다.

현대적생산은 발전된 기계설비와 기술수단들이 참가하고 여러가지 기술공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복잡

한 과정으로 되여있다. 기술관리사업을 떠나서는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를 비롯한 물질적요소들과 생산공정을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관리할수 없으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없다. 기술을 새롭게 혁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술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게 되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지 못하게 된다.

기술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행정부서들의 역할을 높여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잘 만들고 모든 설비들이 공칭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며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당면한 생산일면에만 치중하면서 기술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며 기술경제적지표들을 정상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이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여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려는 목적은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기술혁명에 대한 당의 의도와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을 적극 동원할 때 기술혁명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는것이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잘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특히 형식주의, 요령주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의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특별히 힘을 넣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바로 틀어 그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장악과 통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이 사업을 잘하여야 과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과학기술발전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직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인민경제계획과 같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려면 일군들자신이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기술혁명수행에서 기수가 되는것이 중요하다. 경험은 기술혁명수행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과학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있는 유능한 지도일군들이 서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신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이고 직접 발명가, 실천가가 되여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기술혁명수행에서 솔선 앞장에 서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는것은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기술혁명이 심화발전하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과학기술지도일군들은 과학기술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중심적인 사업

강 영 수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며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행정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여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선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로동행정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긴장하게 일하도록 하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로동정량을 바로 제정적용하고 사회주의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로동 및 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과 같은 사업을 의미한다.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이며 그것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361폐지)

로동행정사업을 어떤 위치에 놓고 조직진행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경제관리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과의 사업을 본질로 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이 관리의 대상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오직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된 광범한 근로자들의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고나가야 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할수 있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마련되여있고 생산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조건에서도 생산자대중이 발동되지 않으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로동행정사업은 단순히 로력자대렬을 보충하고 직업이나 알선해주는것과 같은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로동행정사업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

적태도를 키울 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이 이처럼 사람과의 사업을 본질로 하고있는것만큼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된다.

로동행정사업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의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인 로동력을 리용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경제관리는 생산의 제요소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별적측면들이 차지하는 지위는 생산의 요소들이 생산에서 노는 역할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로동행정사업은 생산에서 가장 능동적인 요소를 이루는 로동력을 리용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사람은 생산의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사상의식과 일정한 기술숙련 그리고 생산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로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데서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며 생산의 다른 요소들을 움직이고 결합하는데서 주동적이며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행정사업은 바로 이러한 로동력을 리용하고 관리하는 사업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며 로력배치와 로동정량제정사업을 바로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실시할 때 그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내여 맡은 혁명임무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성실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되면 경제관리도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로동행정사업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로동행정사업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관리의 다른 측면들을 개선강화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자면 계획화사업,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생산지도, 재정관리, 후방사업 등 경제관리의 모든 측면들을 다같이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의 개별적측면들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밀접한 련관속에서 호상작용하면서 개선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관리의 내용을 이루는 매개 측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꼭 같은 역할을 논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전반적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의 성과여부는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며 그 담당자인 근로대중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로동행정사업을 얼마나 잘해나가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로동행정사업을 떠나서 경제관리의 어느 측면에서도 성과를 바랄수 없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로력관리사업에서는 물론 계획화사업, 설비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 등 전반적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해야 계획작성의 중요한 기술경제적기준의 하나인 로동정량, 로력배치기준을 정확히 제정하여 계획화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세부계획화를 더 잘 실현할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고 성별과 능력, 체질과 소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기계설비들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알뜰히 관리하고 자재도 아끼고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수 있다. 이와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적은 지출로 보다 많은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인 독립채산제를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로동행정사업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매우 절실한 문제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앞에는 전례없이 거창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올해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뜻깊은 다음해에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우리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발전소 건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계단확장공사와 마그네샤크링카생산능력확장공사,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확장공사, 철도건설, 간석지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공장 건설, 소금밭건설을 비롯하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게 될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끝냄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해나가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방대한 과업은 비상히 빠른 경제발전속도와 큰 규모의 건설을 예견한것으로서 그것은 어느때보다도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열성을 발양시키고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제기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로동행정사업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된다는 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의 주인은 근로대중이며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것도 다름아닌 근로대중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경제관리는 모든 사업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며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로동행정사업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은 바로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고있다.

참으로 로동행정사업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로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다그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당이 펼쳐준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구상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에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의 성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208페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원대한 경제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에 맞게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비생산부문 로력과 보조생산부문, 간접부문의 로력을 줄이고 기본생산부문 특히 직접부문의 로력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기본생산부문 로력, 직접부문 로력은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생산부문 로력은 해당 공장, 기업소의 기본생산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참가하는 로력이며 직접부문 로력은 기본생산부문 로력가운데서도 로동대상에 변형을 가하면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로력이다. 이러한 로력은 해당 공장, 기업소에 부과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생산부문안에서도 기본생산부문 로력 특히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이 높아야 있는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보다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수 있으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도 더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보조생산부문, 간접부문의 로력을 대폭 줄이고 기본생산부문 특히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높이는것은 로동행정사업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기본생산부문 로력 특히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새로 받는 청장년로력을 이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생산부문 특히 보조생산부문과 간접부문에서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합리적인 로력조직형태들을 적극 리용하고 생산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로력을 극력 줄여 기본생산부문, 직접부문에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정량을 제때에 재사정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 제정하는것이다.

로동정량을 제때에 재사정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이며 그것은 로동정량사업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정도 등 로동정량수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이 빨리 변화발전하는것은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객관적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생산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여 로동생산능률을 장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시할수 있다.

만일 로동정량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제때에 갱신하지 않으면 생산을 빨리 늘이지 못하면서도 로동정량을 넘쳐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생활비자금이 무근거하게 초과지출될수 있다. 그리고 로동계획화에서 실지 필요한 로력수보다 더 많은 로력을 계획에 포함시키게 되며 로동조직에서도 필요이상의 로력을 배치하여 놀게 하는 등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가져오게 된다.

낡고 뒤떨어진 로동정량을 새로운 선진적인것으로 갱신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

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것은 사람이 결정하는것만큼 로동정량을 갱신하는 사업도 결국 근로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성을 발휘하여야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낡은 로동정량을 선진적인것으로 갱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상태와 기술문화수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자재의 보장정형,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 정도,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의 개선, 자연조건 등 로동정량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그래야 로동정량을 변화된 새로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바로 제정할수 있다.

로동정량을 갱신하는데서는 이와 함께 기관본위주의, 개인리기주의, 공명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된다. 로동정량을 갱신하는 사업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혁신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할 때에는 언제나 낡은 사상 잔재가 제동기를 걸며 방해하기마련이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로동정량을 갱신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시하는것은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실시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은 근로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하여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총생산물가운데서 근로자들의 소비에 돌려지는 로동생산물부분을 근로자들이 사회에 제공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그들사이에 분배하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시하여야 로동에 대한 자극을 높이고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적극 추동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부문 일군들은 사회주의사회의 객관적법칙의 요구에 맞게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실시하는데서는 특히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활비는 로동에 의한 분배의 기본수단이며 그것을 정확히 지불하는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시할수 있게 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생활비를 옳게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생활비등급제를 잘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대로 일을 많이 한 사람과 한사람당 공업생산액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차례지도록 근로자들의 생활비등급을 바로 정하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여 한사람당 공업생산액을 높일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추가적인 보수가 제때에 정확히 차례지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생산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일관한 정책적요구이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은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전체에 대하여 계산된 로동생산능률지표로서 그것은 생산자들의 로동생산능률과 기업소로력자원의 리용정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종업

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여야 국민소득과 국가축적을 늘여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면서도 인민소비를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는것을 로동행정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거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은 생산의 기계화, 현대화 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보다 새롭고 완성된 로동도구와 기술공정 및 생산방법을 창안도입하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력배치를 짜고들고 합리적인 로력조직형태들을 널리 받아들여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술을 혁신하고 자재를 절약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는 것과 같은 로력적성과를 이룩한 근로자들에게 정치적평가를 잘해주는것과 함께 상금, 장려금 등 추가적인 보수가 차례지도록 하는것은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해나가는데서 로동행정사업실태를 정기적으로 료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가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우리 당의 로동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려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옳게 찾아내여 제때에 풀어나가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당의 로동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그리고 일군들의 수준이 각이하고 당의 로동정책이 관철되는 구체적조건도 같지 않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아직도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로동행정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따라서 로동행정사업의 구체적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로동행정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가적으로 로동행정사업정형을 인민경제부문별 혹은 로동행정사업내용별로 정기적으로 검열하며 정무원 위원회, 부들에서는 산하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행정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풂으로써 당의 로동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행정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로동행정부문 일군들은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반대하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닌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는것은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로동행정사업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확고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감으로써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의 빛나는 생활력

김 영 익

보건사업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튼튼한 체력과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에 의하여 마련된다.

사람들의 건강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건설의 기초이며 창조적활동을 위한 육체적담보이다. 아무리 사상적으로 준비되여있고 주관적으로는 혁명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건강하지 못하면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원만히 해낼수 없다.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튼튼한 체력을 가져야 왕성한 창조적열의와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람들이 창조적활동을 마음껏 벌리며 행복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보건사업, 특히 예방의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은 사회주의의학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인민보건사업의 기본방침입니다.》(《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5폐지)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다. 사람들이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이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이다.

보건사업에서 예방과 치료는 그 기본내용을 이룬다. 예방과 치료를 떠나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치료사업이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면 예방사업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사업이다.

보건사업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예방과 치료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디에 기본을 두는가 하는것은 인민보건사업발전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보건사업에서 예방에 기본을 두는것은 인민대중의 건강증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도이며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것은 착취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인것이다.

부르죠아의학은 돈벌이를 기본목적으로 하는것만큼 예방의학에 응당한 관심을 돌릴수 없다. 그것은 예방이 자본가들의 리해관계와는 맞지 않기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약을 팔아먹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기때문에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것을 바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병마에 신음하여도 그것은 완전히 사회적관심밖에 놓여있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근로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가 수립되여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학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학에서 예방의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독창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예방의학적방침을 일

민보건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예방의학적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침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제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물질문화적재부가 근로대중의 복리를 위하여 돌려지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며 사회가 전진하는데 따라 그들의 물질문화적복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인민들의 복리,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의 건강한 체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병없이 건강한 몸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념원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은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그대로 반영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보건정책의 기본사명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예방의학적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이 훌륭히 실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력사적문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인민보건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관철하여야 할 강령적과업을 밝히시고 그 관철에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보건사업전반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전반적위생상태는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병에 대한 예방대책이 철저히 세워진 위생문화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몸으로 자기의 창조적활동을 벌리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계통적으로 늘어나고 그들의 체력이 더욱더 증진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당이 제시한 예방의학적방침이야말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우월한 방침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예방의학적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전염병이 없는 문명한 나라로 전변시킨데서 표현되고있다.

전염병은 비문명의 표현이며 자본의 착취와 압박의 산물이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철따라 퍼지는 갖가지 전염병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문명한 나라로 전변되였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전염병이 종국적으로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오늘의 보람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국초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리고 전후의 재더미우에서도 인민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투쟁이 국가적으로,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졌으며 전체 인민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방역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지난날 무서운 전염병들이

퍼져 무시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당의 주체적인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구현되여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의 생활력은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지고 우리 나라가 공해를 모르는 나라로 전변된데서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의 도시와 농촌은 사람마다 무병장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락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가장 깨끗하고 문명한 나라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은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며 공해를 철저히 방지하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주었다. 우리 당은 하나의 공장과 살림집을 짓고 거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언제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인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돌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에서 나오는 폐수와 유해가스를 무해화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국가적인 자금이 아낌없이 돌려지고있으며 특히 새로 건설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에 유해로운 조건을 최대한으로 없애며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공정을 미리 철저히 갖추도록 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예방위생검열을 엄격히 실시하고있다.

이와 함께 도시와 산업지구들에 온갖 위생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여 인민들의 생활환경이 위생문화적으로 개선되고 공해가 철저히 방지되고있다.

당과 수령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도시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온갖 위생조건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록화사업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우리 나라를 찾은 외국의 많은 벗들이 평양은 공원속의 도시라고 하면서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공기는 신선하다고 감탄하여마지않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강하천의 위생보호에 특별한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페수가 나오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정화시설이 철저히 갖추어지고 생활오수의 정화체계가 바로세워짐으로써 강하천에 대한 위생보호사업이 강화되고 오염현상이 철저히 방지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공업화의 력사는 강하천오염의 력사》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강물이 어지러워지는것이 하나의 피할수 없는 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공업이 발전하여 특히 수많은 화학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나 공해현상이 철저히 방지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산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있다.

도시뿐아니라 농촌의 위생문화상태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여 도시와 농촌의 위생문화수준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있다. 지난날 침체하고 어지럽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새롭게 변모되였다. 우리 농촌에서는 빈궁과 락후를 말해주는 오막살이들이 말끔히 자취를 감추고 수도, 목욕탕 등 필요한 위생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문화주택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앉아 농촌이 말그대로 도시를 닮아가고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예방의학적방침의 커다란 생활력은 또한 근로자들의 로동환경이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져 로동이 근로자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로동은 사회의 물질문화적부의 증대와 사람들의 행복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고역과 병마에 시달리며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근로자들

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로동환경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이 말그대로 행복과 건강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온갖 위생공학적조건과 로동안전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진 조건에서 흥겹게 일하고있으며 그들에 대한 로동보호물자와 영양제공급이 직종과 작업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로동자들의 위생문화적인 생활이 훌륭히 보장되고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문화도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특히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리기 위한 군중적인 투쟁을 통하여 공장안팎이 문화위생적으로 훌륭히 꾸려졌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리고있는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유해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낡은 사회의 유물인 유해로동이 무해로동으로 되였다.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공업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가 실시됨으로써 근로자들이 고열로동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가스와 먼지를 비롯한 유독성물질을 없애기 위한 기술적개조가 적극 추진된 결과 로동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로운 요소들이 없어지고 유해로동이 무해로동으로 전변되여 근로자들의 로동은 흥겹고 문화적인것으로, 건강과 장수를 담보하는 로동으로 되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의 커다란 생활력은 또한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 예방적의료봉사가 강화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이 보건일군들의 책임적인 보호밑에서 철저히 보호증진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인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보호증진시키고있으며 의사들이 주민들을 담당하여 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보며 해당한 예방적의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검진과 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고 예방에 중심을 두면서 과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에서 질병발생의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여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건강은 확고히 담보되고있으며 사람들은 고질적인 질병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의 생활력은 이밖에도 어린이들을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고있으며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몸단련이 대중화, 생활화되여 그들의 체력이 더욱 증진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살며 일하는 환경조건이 건강보호증진에 유리하게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지고 의료봉사사업이 예방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온갖 예방의료봉사혜택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사람마다 질병을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인민보건사업에서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은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6페지)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생방역사업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위생방역사업을 틀어쥐고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전염병이 생기지 못할뿐아니라 전염병이 생긴다 하여도 더 퍼지지 못하게 할수 있다.

보건일군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거두며 문화위생시설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들에서 소독과 예방접종사업을 짜고들며 검역사업을 강화하여 밖으로부터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위생예방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예방원식의료봉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공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공해는 무서운 질병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근원이다. 공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보건부문에서는 공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공해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공기와 물, 토양에 대한 분석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며 공해요소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없애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에서 해로운 물질을 망탕 내보내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생선전사업은 대중을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이다.

보건부문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의 보건정책을 똑똑히 인식하고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깨끗이 꾸리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자면 이 사업에 광범한 사회적력량을 망라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보건부문에서는 위생선전사업에 자체의 위생선전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는것과 함께 사회적인 위생선전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위생선전자료들을 만들어주어 그들이 과외활동을 널리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예방의학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보건부문에서는 생산단위와 거주단위를 유기적으로 배합하는 원칙에서 의사담당구역단위를 바로 정하고 그에 대한 분담을 잘 조직함으로써 구역안의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옳은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그 담당자들인 보건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모든 보건일군들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행복하게 사는 락원으로 건설하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

박 재 범

이신작칙은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지도일군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 기풍이다. 지도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여야 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기수이며 대중의 교양자인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이신작칙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의 기수이며 대중의 교양자인것만큼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08페지)

이신작칙이란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신작칙은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서 큰 힘을 가지고있다. 몇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행동이 더 큰 효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이신작칙하는것은 하나의 힘있는 대중교양방법이다.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지 않고서는 대중을 교양할수 없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모범적으로 행동하여야 자식들도 그것을 본받아 옳게 행동하게 되는것처럼 일군들이 모범이 되는가 못되는가에 따라 대중교양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어렵고 힘든 일에서 앞장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사업과 생활, 로동과 학습의 모든 면에서 대중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우리 평양시 력포구역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구역당과 구역급 행정경제기관일군들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와 리의 초급일군들에 이르기까지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도록 함으로써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구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일군들과 군중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전례없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되였다.

우리는 최근년간 늘어나는 공업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수행하였으며 올해 상반년 기간에도 그 계획과제를 훨씬 초과수행하였다.

우리는 토지개량, 토지정리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고 새땅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땅의 지력을 높이고 부침땅면적을 늘이는 한편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도 끊임없이 장성시켰다. 농업생산에서 늘 뒤자리를 차지하던 우리 구역이 지금에 와서는 당당하게 앞자리에 나서게 되였으며 지난해에는 근위1급의 칭호를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지방산업공장, 특히 식료공장을 잘 꾸리고 기름과 두부,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그리고 예비를 적극 탐구하여 구역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8월3일인민소비품》을 많이 만들어내여 직매점이 늘 흥성거리게 하고있으며 올해 상반년기간에는 그 품종과 생산액을 2배이상이나 늘이였다. 우리는 구역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건재기지에 의거하여 구역소재지와 농촌리들에 해마다 많은 살림집을 지어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시적으로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구역으로 알려지고있던 우리 구역에서 이와 같은 전변이 일어나게 된것은 전적으로 언제나 우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소유하도록 손잡아이끌어주고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소유하고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서서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갈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를 얼마든지 높일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높은 자각에 기초하여 발휘되는 혁명가적기풍이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그들에게는 자기 맡은 단위에서 당정책관철을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맡겨져있다. 일군들이 자기의 이러한 책임적인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깊이 자각할 때라야 누구보다도 혁명투쟁에 몸바치게 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만일 그들이 당이 세워준 초소에서 맡겨진 사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확고한 립장에 서지 못할 때에는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낡은 사업작풍에 매달리게 되며 사업과정에서 자그마한 난관에 부닥쳐도 용기를 잃고 주저앉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속에서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될수 없다. 오직 일군들이 자기 위치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사업에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그들속에서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이신작칙의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한 귀중한 경험의 하나이다.

한때 구역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하고 사업에서의 책임성이 결여된데로부터 투쟁의 기수가 되고 대중의 모범이 될 대신 요령주의를 부리고 말공부나 하면서 그들의 뒤꼬리를 따라다니는 현상이 발로되였다. 이러한 현상이 협동농장들의 관리일군들속에서는 제정된 의무로력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있는데서 나타났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이 로동에 참가하는것은 실천적모범으로 농장원들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의 관리일군들이 로동에서 이신작칙하도록 하는 것은 농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우리 구역의 실정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실천행동보다 말만 앞세우고 사업에 투신하지 않는것과 같은 지휘성원답지 못하고 무책임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부문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비등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지 못하였다.

독불장군이라고 몇몇 일군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구역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었다. 구역당과 구역급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을 비롯하여 구역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구역의 전반사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하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 주되는 원인을 그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데서 찾은 우리는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고있는 주체사상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바로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깊이 자각하고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속에서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는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소유하게 하는 문제도 원만히 풀수 있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가지고 일군들속에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를 체득시키기 위한 학습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는 주체사상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심화시켰다.

교양과 함께 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한 단련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는 일군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발로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한 현상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갔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당정책과 당의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강하게 장악통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혁명적으로 단련시켰다. 이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위원회 부서들사이의 배합작전을 벌리고 위원회의 력량을 총동원하였으며 한개 단위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 긍정적모범을 여러 단위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구역당위원회의 이러한 대책은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바로잡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일군들속에서는 해당 단위와 초소를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모든 면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농촌리의 일군들속에서 사업작풍이 몰라보게 개선되게 되였다. 올해 우리 구역안의 협동농장들앞에는 변덕스러운 봄날씨로 하여 늦어진 모내기를 단시일내에 와닥닥 해제껴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진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소신, 양음, 력포, 소삼정 등 구역안의 거의 모든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들과 리당비서들이 논판에 남먼저 뛰여들어 모내는 기계를 직접 운전하면서 농장원들을 모내기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합심하고 힘을 합쳐 례년보다 늦어 시작한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리의 일군들은 영농 시기별, 공정별에 따라 제기되는 주체농법관철과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실천적모범을 보임으로써 농장원들의 투쟁열의를 더한층 돋구어주었다. 이렇게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으로 농장원들을 발동하여 농사를 착실하게 지은 결과 올해 우리 구역에서는 알곡생산에서 지난해보다 정보당 한톤이상의 증수를 내다보는 풍년작황을 이룩하게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지휘성원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줄 때 그들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앞선 모범이 되게 되고 군중은 그 뒤를 따르게 되며 서로 합심하고 한덩어리가 되여 사업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나

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힘있는 조직정치사업과 옳게 결합될 때 군중을 발동하는 위력한 방도로 될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한 또하나의 귀중한 경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당의 의도와 정책을 해설하는 경제선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28페지)

당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담당자는 광범한 군중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깊이 파악되여야 성과적으로 집행될수 있다.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그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신작칙의 은이 경제사업지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게 할수 있다.

원래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한다는것은 대중과 꼭같이 로동에 참가하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군들은 자기 직능에 맞게 지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일군인 경우에는 사람과의 사업, 그들을 교양하고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군중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일군들의 기본직능이며 그것을 떠나서 이신작칙한다는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당일군들은 어디까지나 이신작칙하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 방법,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제기된 과업을 정책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구역의 어느 한 목장에 나가 늪가스를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면서 깊이 체험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농목장들에서 늪가스를 생산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나 이 과업은 구역당위원회가 힘있게 밀어주지 못하고 해당부문 일군들이 당면한 생산과제에만 치중한 결과 제때에 수행되지 못하고있었다.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그 관철에 군중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있는데 걸려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포착한 우리는 집행위원회에서 구역당의 한 위원에게 소살정분장에 력량을 집중하여 늪가스생산설비를 시범적으로 빨리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고 위원회적으로 적극 밀어주기로 토의결정하였다. 한편 우리는 분장에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해설침투하면서 당조직을 움직이고 군중을 발동하였다. 그리고 자주 건설현장에 찾아가 그곳 일군들과 일을 같이하면서 사업정형을 수시로 료해장악하였으며 걸린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는 풀어주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난관앞에 주저앉았을 때는 그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지혜를 모아 일떠서도록 고무하였다. 결과 그렇게 어렵게만 여기던 늪가스생산설비가 이곳 분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의 힘과 기술에 의하여 훌륭히 완성되게 되였다. 지금 이 분장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늪가스를 가지고 보이라와 사료조리 등의 연료로 효과있게 리용하고있으며 이제까지 국가에서 받아쓰던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많이 절약하게 되였다. 그리고 고기생산량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실천적모범으로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감화시키면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들이대여 그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구역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하나하나 수행해나갔다.

올해농사를 잘 짓는것은 구역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뜨락또르운전

수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을 옳게 발동하여 그들이 밭갈이와 써레질을 질적으로 잘하도록 하여야 정당수확고를 높여 늘어난 알곡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할수 있었다. 우리는 리에 내려가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협의회를 열고 옳해농사를 잘 짓는데서 그들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켰다. 그리고 뜨락또르를 타고 밭을 직접 갈면서 운전수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실천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정치사업을 짜고든 결과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전례없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구역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밭갈이와 써레질을 질적으로 하고 씨붙임과 모내기를 제철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든다면 그들의 지혜와 힘을 남김없이 발동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얻은 또하나의 경험은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아래일군들과 군중에게 과업을 제시할뿐아니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가르쳐주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이며 그 어떤 사업에서나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담보로 된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어 아래일군들과 군중이 사업을 편향없이 잘해나가도록 하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그들에게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묘술,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우리는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서 이러한 방법대로 일하였다.

우리는 우선 한개 단위에 들어가 모범을 창조하고 모든 일군들이 그것을 본받도록 하였다.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본받게 하는것은 실천적모범으로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아래일군들과 군중은 창조된 모범적인 사실에서 스스로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찾게 되며 사업에서 신심을 얻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일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 일군들에게 과업만 주고 요구만 한것이 아니라 한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거기에서 일군들이 문제해결의 구체적방법론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농기계부속품공장에 압연기지를 꾸린 경험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우리 구역의 경우 《8월3일인민소비품》에서 수요가 높고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철재일용품이며 그 생산을 늘이자면 박판을 구역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하였다. 우리는 주강로를 가지고있는 농기계부속품공장에 나가 그곳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고 박판을 밀어낼수 있는 압연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는 한편 당조직이 그 사업을 적극 밀어주도록 하였다. 이 공장일군들과 기술자와 로동자들은 지혜를 모으고 예비를 동원하여 짧은 시일내에 훌륭한 압연기를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철재일용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구역적인 박판수요가 기본적으로 풀리게 되였다. 우리는 농기계부속품공장에서 압연기를 만든 경험을 일군들에게 실물로 보여주고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예비를 찾아내게 하였다. 결과 구역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 마다에는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기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구역에서 앞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생활을 한층 더 높일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

로 된다.

지도일군들은 제기된 과업을 자신이 직접 수행해보면서 방법론을 찾아내여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지도일군자신이 제기된 과업을 먼저 수행해보아야 그 과정에 실정에 맞는 가장 옳바른 방법론을 찾아낼수 있으며 아래일군들에게 요구성도 높일수 있다.

지난 봄 협동농장들에서 영농기전으로 질좋은 거름을 충분히 마련해놓을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의 일부 일군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거름원천이 이제는 더는 없고 이미 마련해놓은 거름만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지 않고서는 농사차비를 착실히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할수 없었다.

우리는 류현리에 나가 아래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초목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거름원천을 직접 탐구해냈다. 이렇게 한 다음 우리는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구역당위원회의 간부들과 리일군들을 데리고가서 거름원천을 탐구한 경험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일부 일군들이 가지고있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그뿐만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거름원천은 찾아내면 얼마든지 있다는것을 확인한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간부들은 담당한 리에 내려가 그곳 일군들과 함께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결과 구역적으로 며칠사이에 근 1,000톤에 달하는 질좋은 거름을 더 장만하게 되였다. 올해 구역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풍작을 이룩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논밭에 거름을 넉넉히 낸데도 있었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은 일판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데서도 보여주어야 한다.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이 창조한 사업방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우리는 실천적모범으로 어떤 일에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도록 일군들을 교양하였다. 구역안의 주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풀기 위한 건재기지를 꾸리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도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그들이 사업을 통이 크게 궁리하고 일판을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결과 1~2년사이에 세멘트공장생산능력을 2배로 늘이였으며 하루 벽돌생산량을 몇배로 끌어올리였다. 6메터다공판을 비롯한 여러가지 큰 부재도 자체로 만들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구역당위원회로 하여금 앞으로 가까운 앞날에 구역안의 주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는 전망을 확신있게 내다볼수 있게 한다.

우리는 지난 기간의 사업경험을 통하여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기만 하면 앞으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과업이 나서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당의 의도와 요구에 비해볼 때 사업작풍을 바로잡는데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점이 많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의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당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소유함으로써 구역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한층 더 높이고 당과 수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겠다.

《남침위협》설은 전쟁과 파쑈 정책의 산물

박 제 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전쟁위험이 더욱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최근 남조선에서는 이른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한 선전깜빠니야가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앞으로 2~3년이 안보상 최악의 위기시기》라느니, 《북의 기습공격이 림박했다》느니 하면서 남조선전역에서 전쟁과 파쑈, 대결 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객관적현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있는 《남침위협》이 완전한 허구이며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놈들이 들고나오는 허황한 모략선전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고 남조선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해도 거기에 무력으로 개입할 의도가 없으며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데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명백히 천명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침〉하려 하지 않으며 또 〈남침〉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그 어떤 불의의 사변이 생기는 경우에도 남조선을 내칠 생각이 없으며 긴장상태를 조성하지 않을뿐아니라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일본사회당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10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를 철두철미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며 비록 우리 나라가 외세에 의하여 갈라져있고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는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고 인정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첫날부터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이룩하는것을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로 내세우고있다.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국가를 형성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는 최근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청산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1984년 1월에 내놓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

택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3자회담제안과 지난해 4월에 제기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국회회담제안 그리고 지난 6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발기한 군사당국자회담제안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쟁준비가 아니라 평화적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최근 몇해동안에만 하여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건설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이미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건설되였다.

특히 인민군군인들은 세계1등급의 서해갑문을 건설한데 이어 지금은 최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취한 조치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여러 부문들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례로 된다.

우리가 《남침》하지 않는다는것은 또한 지나간 력사가 증명해주고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은 60년대에는 《70년대 남침》설을, 70년대에는 《80년대 남침》설을 내돌렸고 그리고 봄철에는 《여름철 남침》설, 가을철에는 《겨울철 남침》설을 떠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남침》은 어느 한번도 없었다.

사실 지난 시기 남조선에는 우리가 《남침》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내칠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여러번 조성되였었다.

1960년 4.19인민봉기때와 1979년 10월 유신독재자가 종말을 고하였을 때 그리고 1980년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가 그러했다.

이러한 때로 말하면 남조선에는 완전한 정치적공백이 생기고 식민지파쑈통치체제는 혼란상태에 처하여있던 시기로서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통일문제를 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력행사에 의거하려는 생각을 한것이 아니라 합작, 단결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남측에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을 제기하였으며 대화와 협상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것을 성사시켜나갔던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론박할수 없는 객관적사실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사람들이나 조선반도의 정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있는 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떠벌이고있는 《남침위협》의 기만성을 폭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지난 8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사회당소속 중의원의원인 야스이 요시노리는 기자회견에서 조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달성을 위해 대규모의 건설이 진행되고있는데로부터 느끼는바가 컸다고 하였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오닐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북조선이 전쟁도발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더우기 흥미있는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 자신이 겉으로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굉장히 떠들고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자체도 우리가 남조선을 공격하는 일이 없을것이라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는것이다.

1983년 11월 레간과 함께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미국무장관 슐츠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신속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킬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한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남침위협》이란 애당초 존재한적이 없었고 그것은 현재도 앞으로도 없을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그것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려는데 그 진의도가 있는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무엇보다도 《남침위협》의 기만적구호밑에 저들의 범죄적인 전쟁정책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전쟁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반동세력들의 항시적인 동반물이며 놈들은 저들의 전쟁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력사적으로 전쟁광신자들은 있지도 않는 사건을 날조하여 저들의 전쟁정책을 합리화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남침위협》의 간판밑에 전쟁정책을 강화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사실 오늘 미제는 남조선에서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미제는 최근 3~4년동안에만 하여도 수천명의 미군과 그 무장장비를 대폭 늘이였다. 놈들은 이미 남조선에 58기의 스팅거미싸일을 배치하였으며 금년안으로 156기를 더 배치하려 하고있다. 그리고 남조선에 신형전투폭격기를 비롯하여 각종 비행기 수십대를 이미 반입하였으며 신형포들도 현저히 늘이고있다. 미제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때마다 끌고왔던 숱한 무장장비가운데서 남조선에 그대로 떨구어놓은것만해도 막대한 량에 달하고있다.

미제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저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 있다.

미제는 1982~1986년 괴뢰군《전력증강 5개년계획》기간에 32억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량의 군사장비를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이미 수많은 무장장비를 넘겨주었으며 또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기간에는 80억딸라의 군사장비를 더 넘겨주기로 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도 더욱 증강하고있다. 미제는 1,000여개의 핵무기와 70여개의 중성자탄 등 방대한 핵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기지로 전변시킨것도 부족하여 최근에 와서는 남조선에 대규모의 핵무기저장고까지 여러개 건설하고있으며 《비—52》전략폭격기부대까지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에 핵폭탄을 싣고 24시간 비상대기상태에 있는 전투기부대를 비밀리에 배치해놓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지까지도 《아세아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이 전투기부대는 명령이 떨어지면 15분 이내에 출격할수 있는 〈신속대응경계〉태세를 취하고있다》고 한것은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함께 북침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들의 재편성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그들은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특공대》작전을 위하여 수만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편성하였으며 미군과 괴뢰군무력의 80~90% 이상을 군사분계선가까이에 전진배치하고있다. 그리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기갑부대, 땅크부대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공격작전속도를 높이고 전쟁지속능력을 현재의 20일에서 60일로 늘이기 위한 전쟁물자비축량을 더욱 증가시키고있다.

《남침위협》의 기만적구호밑에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킨 미제는 새 전쟁도발을 위한 각종 군사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매년 벌리고있는 대규모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침략전쟁준비를 완성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전형적인 전쟁소동이다.

놈들이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에는 인원수만 하여도 무려 20만 9,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함선들과 최신전투폭격기 《에프―16》, 미싸일들, 지어는 핵무기까지 동원하였다. 그리고 훈련내용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륙작전훈련과 도하훈련 등 공격훈련으로 일관되였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쉽사리 새 전쟁이 터질수 있는 조선반도에서 옹근 하나의 현대전을 치를수 있게 완전무장한 대병력을 동원하여 공격적인 실전연습을 벌린다는것 자체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입버릇처럼 떠들고있는 《방어》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선제공격을 위한 계획적인 전쟁도발행위라는것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미제와 전두환괴뢰들은 괴뢰군과 경찰, 지어 민간무력까지 총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땅벌》, 《비호》, 《을지》 등 전시총동원훈련을 수시로 벌려놓고있으며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른바 《민방위의 날》까지 정해놓고 매달 주기적으로 반공과 전쟁분위기를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다. 지어 놈들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우리의 평화적어선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격침시키고 어민들을 살상하는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와 같은 광란적인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책동은 미제와 전두환일당이야말로 호전분자, 전쟁방화자이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하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파렴치하게도 그 무슨 《남침》타령을 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전쟁도발책동을 조금이나마 합리화하고 앞으로 전쟁을 저들이 도발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가소로운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남침위협》을 대대적으로 떠드는것은 또한 남조선사회를 극도로 파쑈화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만적인 구호를 정면에 내걸고 사회를 파쑈화하는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저들의 식민지파쑈통치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인민들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그 무슨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해내거나 기만적인 구호를 내들고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오늘 남조선괴뢰들이 《남침위협》을 떠드는것도 바로 놈들이 이 기만적인 구호밑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뒤흔들리고있는 파쑈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식민지파쑈통치는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탄압하에서도 《미제축출》, 《독재타도》,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자》 등 지난 기간에는 볼수 없었던 적극적인 투쟁구호를 정면에 제기하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광범한 대중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에서 자주와 매국, 민주와 파쑈, 통일과 분렬 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로 말미암아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체제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으며 전두환도당은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아이띠의 듀발리에의 운명에 처하여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에 의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놈들은 단말마적발악으로써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남침위협》의 기만적구호밑에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놈들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이 남조선의 《〈안보〉를 해치고 사회를 혼란상태에 빠뜨린다》고 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남침》할수 있기때문에 《안보》를 《유지》하고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해야 한다고 하고있다.

이처럼 놈들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위기에 처한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그 어떤 기만술책으로써도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미 기울어진 식민지파쑈통치위기를 수습할수 없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또한 《남침위협》의 간판밑에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기지로 전변시키고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제는 해방직후 무력으로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남조선에 대한 미군강점의 부당성이 날날이 드러나고 남조선에서 전횡을 부리는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내외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놈들은 이른바 《남침위협》이라는 허황한 구호를 내들게 되였다. 말하자면 남조선에 있는 미군은 침략군이 아니라 《남침》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것이다.

이처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호밑에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영원히 붙들어두려 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떠드는 《남침위협》설은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뒤집어놓은 전쟁책동이며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고 사회를 극도로 파쑈화하기 위한 구실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기 위한 매국반역의 책동이다.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은 북으로부터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오고있으며 위협을 받고있는것은 미국과 남조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국북반부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것이 아니라 전쟁위협을 가시고 북남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군사당국자회담제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범죄적인 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들이 《남침위협》을 《만능처방》으로 광고하고 그 밑에서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과 파쑈화책동을 강화하고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실현할수 없는 망상이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내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배치되게 계속 《남침위협》을 구실로 전쟁과 파쑈정책에 매여달린다면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범죄적인 미제의 세균 및 화학 전쟁책동

정 남 용

오늘 국제정세는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긴장되여가고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수습하며 세계제패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목적밑에 인류를 반대하는 열핵전쟁책동과 함께 세균 및 화학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미제의 발광적인 세균 및 화학 전쟁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머리우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세균 및 화학 전쟁의 위협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제패의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과 〈핵전쟁〉에 대하여 공공연히 떠들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다그치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군사기지를 늘이고 침략무력을 증강하고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죽어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며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무모한 전쟁책동에 매여달린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핵전쟁과 함께 세균, 화학 전쟁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있다.

세균 및 화학 전쟁은 세균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지고 진행하는 가장 살인적인 전쟁방법의 하나이다.

세균무기는 사람, 집짐승 등을 대량적으로 살해하며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염성세균을 넣어서 만든 무기이며 화학무기는 독해물의 강력한 해독적작용을 리용하는 무기이다.

세균, 화학 무기는 그 생화학적특성으로 하여 다른 화력무기들과 같이 파괴적효능이 일시에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사용한 때로부터 시일이 흐름에 따라 그 파괴력이 끊임없이 확대되며 사람들을 비롯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주는 극히 잔인한 살륙무기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잔인한 세균, 화학무기의 사용으로 고통을 당하여온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균무기와 유독성화학무기를 야만적인 대량살륙무기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 살인무기를 사용하는자들에게 형사적처벌을 가할것을 요구하였다.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하여 1889년과 1907년 헤그에서 열렸던 제1차,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독가스사용을 금지할데 대한 선언과 협약, 1925년에는 질식성, 독성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금지할데 대한 제네바의정서 그리고 1972년 4월에는 《세균무기와 유독성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및 저장을 금지하며 그를 파괴할데 대한 협약》이 체결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와 국제적협약들을 무시하고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부터 세균, 화학 무기의 개발을 다그치기 시작하였다.

미제가 세균, 화학 무기에 커다란 관심을 돌린것은 적은 자금과 자재, 단순

한 기술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쉽게 생산할수 있으며 또 사용방법이 간단하면서도 핵무기에 못지않는 파괴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세균, 화학 무기를 핵무기와 함께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수행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쟁수단의 하나로 여기게 되였다.

세균, 화학 무기를 가장 효과적인 전쟁수단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부여한 미제는 1940년대부터 미국본토와 세계도처에 세균, 화학무기연구소와 시험장, 생산공장들을 설치하고 이 살인무기의 개발을 다그쳤다.

미제는 1943년 미국의 메릴랜드주 프레데리크시에 근 4,000여명의 민간 및 군사 전문가들로 《포트데트리크연구소》라는 세균, 화학 무기연구소를 만들어놓았다.

미제가 세계 최대의 세균, 화학 연구소인 《포트데트리크연구소》를 설치하여놓은것은 저들의 직접적인 주최하에 진행한 워싱톤국제회의 합의사항과 저들도 참가하여 서명한 1925년 독가스 및 세균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행위였으며 세균, 화학 무기를 엄격히 금지할데 대한 공정한 세계여론에 대한 도전행위였다.

《포트데트리크연구소》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회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에 열이 오른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세균화학전이기때문에 그에 대비할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를 연구》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세균, 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후 미제는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록키산연구소》, 《에지우드의학화학전연구소》등을 더 꾸렸으며 미씨씨피주와 유다주에 세균,화학 무기야외시험장을, 인디아나주에 대규모의 세균, 독가스공장을 세워놓고 세균, 화학 무기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미제는 미국본토뿐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도 세균, 화학 전쟁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균, 화학 무기연구소를 설치하여놓았다. 실례로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있는 《재일미륙군의료본부 제406의학연구소》, 오끼나와의 생화학연구소, 대만의 대북에 설치되여있는 제2의학연구소,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미륙군병원, 타이의 방코크에 있는 방역부대 등이 바로 그러한것들이다.

미제는 세균, 화학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세균, 화학 무기연구집단이 가지고있던 경험과 기술을 리용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특히 아세아에 대한 《제패권》을 노리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아세아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온 일제의 세균, 독가스 실험자료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였던것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이 결속되여가던 시기에 벌써 한편으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세균, 화학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주요 세균, 화학 전범자들을 빼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다.

일본의 한 평론가가 《일본의 검은 안개》라는 책에서 《패전직후 전쟁전범자로서 사형의 운명에 처해있던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가 미점령군 총사령부의 힘에 의하여 살아났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폭로한것은 바로 그것을 똑똑히 실증해준다.

일제의 세균전범자의 두목인 이시이 시로로 말하면 《일본은 무기제조에 필요한 금속 및 기타 원료의 매장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일본은 신형무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균무기야말로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쇠로 만든 폭탄은 한번 쓰면 다시 못쓰며 살상력도 한정되여있으나 세균전은 헐값으로 무수한 〈적〉을 죽일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세균무기 연구개발, 사용을 직접 지휘한 특급전범자로서 제2차세계대전후 마땅히 처형하여야 할 첫째가는 대상이였다.

미제는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일제의 특급세균화학전범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생명을 담보해준 대가로 그들로부터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약 9년사이에 일제가 무려 300여만명의 조선사람과 중국사람, 로씨야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8,000여건의 세균, 독가스 실험자료들과 사진자료, 각종 참고자료와 환등자료, 세균폭탄설계도면을 넘겨받았다. 이때로부터 미제의 세균, 화학 무기개발책동은 더욱 본격적으로 감행되였다. 이것은 미제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적인 세균, 화학 전쟁준비를 얼마나 악랄하게 다그쳐왔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범죄적인 세균, 화학 무기를 연구개발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침략전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인간도살자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미제는 인류를 반대하여 세균,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극악한 살인마이며 전범자이다.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것이 바로 미제의 습성이다.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감행하여온 침략전쟁들에서 세균,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한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전쟁진행에 관한 공인된 국제법과 관례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온갖 야수적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50년말 공화국북반부지역들에 천연두전염성병균을 마구뿌려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으며 1951년 5월에는 전선과 후방의 여러 지역에 화학폭탄을 투하하고 독가스를 산포하였다. 그리고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두달동안에만 하여도 40여개의 지점에 700여차례에 걸쳐 세균탄과 독가스탄을 퍼부어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대량적으로 살해하는 야만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은 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한 세균, 화학 무기사용만행을 조사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서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북조선일반주민들가운데 죽음의 질병을 만연시킬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킨 파리와 기타 곤충을 고의적으로 산포함으로써 미국군대는 1907년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조문에 위반되며 1925년 제네바의정서에서 다시 규정한 세균전을 금지할데 대한 법률에 위반되는 가장 엄중한 전률적인 범죄를 조선에서 범하였다.》고 폭로하였던것이다.

미제는 오늘 남조선을 이미 저들의 핵무기저장고로, 핵시험전쟁마당으로 전변시켰을뿐아니라 전면적인 세균, 화학 전쟁터로 만들데 대한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오늘 미제는 조선의 고유한 쥐와 곤충, 대륙성기후에 적응된 조류들을 통한 세균전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실험하고있다. 놈들은 1970년부터 남조선의 농촌지역들에 류행성출혈열병균을 대량산포하여 20여만명의 주민들을 살해하였으며 죽은 사람들의 내장을 가져다 그 효능을 검사하고 보다 새로운 효력을 가지고있는 세균을 연구하였다. 1970~1976년사이에는 무려 1만 2,000여명의 태아에서 각종 장기를 뜯어내여 미국으로 실어갔으며 그것을 조선인민을 살해하기 위한 새로운 혼합비루스를 만드는데 리용하였다. 최근에는 강한 독성을 가진 《아르에취—787》을 쥐약으로 속여가지고 남조선에 들이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범죄적인 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류행성출혈열을 비

못하여 이름모를 전염병들과 피부병들이 나돌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주변에 세균, 화학무기저장고들과 세균, 화학전부대들을 수많이 배치하여놓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제가 조선에서 《엔, 비, 씨》(핵, 세균, 독가스)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끼나와에 《엔, 비, 씨작전사령부》까지 설치하여놓은것이다. 이 작전사령부는 차기산하에 수많은 부대들을 가지고있으며 오끼나와에 있는 핵, 세균, 독가스 저장고인 《하이고노》를 직접 통솔하고있다. 그리고 대조선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핵, 세균, 독가스 전쟁연습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미제는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서도 세균, 화학 전쟁연습을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세균, 화학 전쟁책동을 얼마나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조선뿐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여 세균,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있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미제는 웰남을 비롯한 동남아세아나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감행하였던 1961～1967년기간에만 하여도 《고엽제》를 비롯한 10여만톤에 달하는 독해물을 산과 들에 마구 뿌려 200여만명에 달하는 이 지역 인민들을 살해하였으며 많은 지역을 죽음의 고장으로, 황량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입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통을 겪고있으며 유기체의 기능을 파괴하는 여러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을 반대하여 1960년대부터 《만구스타》라는 살인적인 비밀계획을 세워놓고 세균, 화학 무기를 끊임없이 사용하여왔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뎅그열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나돌아 사람은 물론 집짐승과 농작물도 커다란 피해를 받고있다.

그레네이더침략때에도 미제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브라질의 아마존강상류의 밀림지대에 세균, 화학무기비밀시험장을 꾸려놓고 세균, 화학무기의 시험을 감행하여 이 지대에서 살고있던 두 인디안종족을 완전히 멸종시켰고 토착민 7,000여명을 살해하였다.

이밖에도 미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세균, 화학 전쟁을 벌려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자연환경을 마구 파괴하는 범죄적만행을 꺼리낌없이 저지르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인 인간도살자이며 지구우에서 쓸어버려야 할 전범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균, 화학 전쟁준비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으며 그것은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인류력사는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이 력사무대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며 최후발악을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 역시 선행과쑈분자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파멸로부터의 출로를 열핵전쟁, 세균, 화학 전쟁과 같은 극히 야만적인 전쟁에서 찾아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저들의 침략군대를 90여종에 달하는 각종 세균무기와 화학무기로 무장시켰으며 미국본토와 세계 여러곳에 있는 비밀저장고들에 10여만톤의 독성물질, 15만톤의 화학탄약, 300여만발의 화학포탄, 수십만발의 화학폭탄, 수십만개의 화학지뢰와 화학기뢰들을 저장해놓고있다.

극악한 호전광 레간은 이것도 부족하여 《모든 강국들이 앞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경우 훌륭한 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능을 갖춘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압도적힘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세균탄과 신경가스탄이 특히 중요하다.》고 줴치면

서 세균, 화학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다.

미제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 부딪쳐 1969년에 형식상으로나마 중지하였던 생화학무기의 생산을 다시 재개한다고 공공연히 선포하였으며 《화학무기재무장 5개년계획》까지 작성하여놓았다. 놈들은 최근 《화학전쟁조사위원회》라는 또하나의 전쟁모략기구를 조작함으로써 세균, 화학 전쟁책동을 공개적으로, 로골적으로 감행하기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려고 책동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에 대하여 외신들도 이 기구가 《미국의 화학무기고를 근본적으로 현대화하고 더욱 늘이기 위한것》이라고 폭로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세균, 화학 전쟁모략을 실현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다. 미제가 세균, 화학 전쟁준비에 탕진하고있는 자금은 1944년에 비하여 1984년에는 무려 116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5년간에는 그것을 100억딸라로 늘이려고 획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균, 화학 전쟁준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것과 함께 《미국의 화학잠재력을 쾌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새로운 세균, 화학 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더욱 다그치고있으며 세균, 화학 전쟁을 위한 전쟁기지까지 건설하고있다.

미제는 사람의 피부에 한두방울만 떨어져도 심한 경련과 죽음을 가져오는 신경가스와 강력한 독성을 가진 《비그아이》라는 이원성화학무기를 연구개발하였으며 그것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미국 아칸소주의 파인 불라프시에 대규모의 화학무기공장을 건설하고있다. 앞으로 이 살인무기공장에서는 년간 7만여발의 이원화학탄을 생산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미국회는 앞으로 태평양상에서 벌어지게 될 세균, 화학 전쟁의 지탱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와이섬으로부터 1,100키로메터 떨어진 죤스톤산호섬에 세균, 화학 전쟁기지를 꾸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여기에 2,000만딸라나 지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도처에 수많이 배치되여있는 미제의 세균, 화학 무기저장고들과 세균, 화학 전쟁을 위한 기지들이 더욱더 보강확대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인류를 핵전쟁과 세균, 화학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력사상 가장 흉악무도한 전쟁미치광이며 인류공동의 원쑤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진보적인류앞에는 미제의 핵전쟁과 세균, 화학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구상에서 핵전쟁, 세균, 화학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인류공동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핵전쟁과 세균, 화학 전쟁의 위험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지만 그것은 결코 불가피한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미제의 세균, 화학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그 위험을 능히 막을수 있다.

세균, 화학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균, 화학 전쟁준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세균, 화학 무기의 증강은 세균, 화학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기본고리이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세균, 화학 전쟁책동을 날날이 폭로하여야 하며 세균, 화학 무기를 더는 증강하지 못하도록 강한 집단적인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세균, 화학 무기의 연구와 개발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세균, 화학 전쟁의 위험을 가시자면 또한 지구우에서 세균, 화학 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것이 중요하다. 지구상에 세균, 화학 무기가 존재하는 한 인

류가 세균, 화학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세균, 화학 무기의 개발과 그 생산을 중지시키고 지금 있는 세균, 화학 무기를 대폭 축감하며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야 지구우에서 세균, 화학 전쟁의 위협이 가셔졌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세균, 화학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세계의 각국 정부들과 정당들, 사회단체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세균, 화학 전쟁의 위협을 가시기 위한 단호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세균,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넘겨주거나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치하지 말도록 하며 또 이미 배치되여있는 세균, 화학 무기들은 빠른 시일안으로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세균, 화학 무기의 완전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룩하고 세균, 화학 무기사용의 완전금지조약을 체결하며 그 리행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시찰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도처에서 진보적인류가 단결하여 미제에게 압력을 가하며 세균, 화학 무기를 철폐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할 때 미제는 세균, 화학전쟁도발책동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없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세균, 화학 전쟁의 위협도 없어지게 될것이다.

핵무기와 세균, 화학 무기를 가지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제의 책동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미제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끝끝내 핵전쟁과 세균, 화학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히틀러나 도죠와 같은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세계는 미제의 광란적인 핵전쟁과 세균, 화학 전쟁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으며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면밀히 주시하고있다.

미제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할것이다.

친선의 정 넘치는 중국방문의 길에서

김 기 반

조선과 중국은 산과 강이 하나로 련결되여있고 오랜 력사의 시련을 함께 이겨온 가까운 이웃이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일찌기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한대오에 서서 싸워왔다. 세월의 풍상을 다 이겨내면서 왕성한 생활력을 가지고 꿋꿋이 성장하여온 위대한 조중친선은 오늘 더욱 청청한 기상을 안고 날을 따라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결코 우리 두 나라 땅이 가까와서만이 아니라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이 친근한 우의로 결합되여있고 우리들의 오가는 신뢰의 감정이 진실한데 있다.

우리 근로자사대표단은 바로 중국인민에 대한 깊은 신뢰의 감정을 가지고 조중 두 나라의 친선과 협조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는 때에 형제의 나라 중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국동지들로부터 친형제와 같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베이징, 광주, 항주, 상해, 남경 등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친선의 정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방문의 길에서 우선 중국의 형제들이 조중친선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있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기간 일제침략자들과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렸으며 그 과정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피로써 맺어진 혁명전우로서의 우정과 계급적형제로서의 의리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여왔으며 그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국가방문》, 4페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기간 어깨 겯고 함께 싸워온 혁명전우이며 계급적형제이다.

특히 최근년간에 있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과 존경하는 호요방동지, 등소평동지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지도자들의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오늘 형제적중국인민들은 조중친선의 화원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그것을 진심으로 느낄수 있었다.

중국동지들은 우리 대표단의 참관일정을 준비하는데서도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참관하도록 조직하였으며 우리가 들려본 공장이나 기업소, 농촌마을 마다에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기들을 찾아주신 사적부터 먼저 소개하였다.

우리 대표단이 남경약전기계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이 공장은 해방전에는 간단한 통신설비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자그마한 공장이였는데 해방후 종합적인 전자공업기업소로 확대발전하였다. 특히 이 공장은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이후 현대화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오늘은 라지오와 방송설비, 록음기와 록화기, 전자측정계기류와 통신설비들을 만들어내는 현대적인 전자설비생산기지로 되였다.

우리 일행이 공장의 정문에 들어서자 공장의 책임일군은 우리에게 《남경약전기계공장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동지께서 1975년 4월에 방문하시였고 1983년 6월에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찾아주신 영광스러운 공장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공장을 긍지높이 소개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공장의 현대화된 여러 직장을 돌아보고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진렬되여있는 제품진렬실에 들어섰다. 제품진렬실에는 남경약전기계공장에서 첫 시제품이 생산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공장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전자기구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특히 제품진렬실에는 이 공장의 자랑찬 발전력사와 함께 빛나는 한페지를 차지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곳을 방문하시고 남기신 력사적인 사적물이 정중히 보관되여있었는데 거기에는 정성들여 만든 빨간 족자에 《잊을수 없는 시각, 진귀한 선물》이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우리는 이 글발을 보면서 중국동지들이 조중친선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있는가 하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우리 대표단의 중국방문의 나날에는 항주시내에서 멀지 않은 교외에 있는 쌍봉차잎생산대대를 방문한 뜻깊은 날도 있었다.

서호변두리의 남쪽에는 남고봉, 북쪽에는 북고봉이라고 하는 두 봉우리가 있는데 그사이에 위치하고있다고 하여 쌍봉촌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중국에서도 이름난 룡정차의 생산지이다.

원래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차물을 마시는 풍습이 보편화되여있었고 그만큼 차 생산과 가공에서도 매우 발전하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280여종의 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은 200여종의 차를 생산하고있다. 특히 서호지방에서만 생산되는 룡정차는 그 맛이 독특하며 색갈이 고운것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바로 이 유명한 룡정차가 생산되는 쌍봉마을을 찾았다.

우리를 반겨맞이한 쌍봉촌의 녀성부촌장은 생산대대의 실태와 연혁에 대해 말하면서 1983년 6월 김정일동지께서 자기 마을을 방문하신것은 큰 경사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감격적인 그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마을을 찾으시였을 때는 우리들의 기쁜 마음처럼 아주 맑게 개인 날씨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에 접한 쌍봉마을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그이께서 오실 길량옆에 오색테프와 갖가지 기발을 띄우고 생산대대 정문앞 넓은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과 징을 울리고 춤을 추며 들끓었습니다. 정말 쌍봉마을의 대경사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부촌장의 안내를 받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차잎가공직장과 차밭을 돌아보고 유치원에 들리였다.

우리 일행을 본 어린이들은 마주 뛰여나오면서 쟁쟁한 조선말로 우리 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유치원어린이들은 차잎을 따는 모습을 형상한 춤을 추어 우리들을 즐겁게 하여주었다.

유치원교양원의 말에 의하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곳을 방문하시였을 때에도 어린이들은 차잎따는

무용을 하였는데 그이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였으며 즐겁게 웃으시기도 하고 박수도 여러번 보내주시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벽에 크게 확대하여 모신 기념사진을 가리켰다.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중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속에 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는 조중친선의 화원이 대를 이어 더욱 만발해지리라는 굳은 확신을 간직하고 쌍봉차잎생산대대를 떠났다.

우리 대표단은 친선의 정 넘치는 중국방문의 길에서 현대화된 사회주의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국인민들의 힘찬 투쟁을 볼수 있었다.

오늘 중국인민은 공산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4개 현대화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신심과 열정에 넘쳐 먼앞날을 내다보면서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중국인민들의 활기떤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끈것은 중국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기술을 개조하고 생산을 부단히 늘여나가는 것이였다.

우리 일행은 항주 제2중약공장을 참관하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알뜰한 일솜씨로 자기 공장을 꾸려나가는것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을 처음 방문하였지만 벌써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첫눈에도 근면한 이 공장 주인들이 최근년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았는가를 알수 있었다. 넓지 않은 부지에 고층으로 일떠세운 공장건물은 마치나 그 어떤 연구기관과 같았고 공장구내는 갖가지 꽃들과 휴식터를 갖춘 공원과 같았다.

우리 대표단을 안내한 공장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이 공장이 처음 발족할 당시에는 수십명의 종업원으로 불과 한두가지의 약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공장이였다고 한다. 그때에는 아직 공장이름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도 이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은 1,500여명의 종업원을 가진 현대적인 중약생산기지로 발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중약생산에서 모범단위로 널리 알려져있다고 한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당이 제시한 4개 현대화정책을 받들고 공장을 현대적 설비와 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적지 않은 생산공정들이 산업텔레비존화되였고 품이 많이 들고 사람들의 건강에 유해로운 공정들이 기계화되였다고 한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중국의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는 각종 약초와 약재들을 리용하여 100여가지 중약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 수출하고있다고 한다.

우리는 공장지배인의 이런 말을 들으며 생산현장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약재를 선별하고 분석하며 합성하고 검사하는 모든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한것을 볼수 있었다. 공장지배인은 합성직장에 이르러 《우리들이 자체로 만든 기대입니다.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만든 기계들의 동음소리를 들으면서 중국의 형제들이 나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얼마나 이악하게 벌려나가고있는가를 알수 있었다.

사회주의현대화의 넓은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중국의 모습을 우리는 마교향의 향진기업을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주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는것이 당면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중국공산당은 농촌의 유휴로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농촌에 공업을 건설하는 향진기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중국사람들이 향진기업이 비교적 발전된 단위로 보고있는 마교공사는 상해시내에서 서남쪽으로 25키로메터 떨어진 황포강기슭에 20여개의 크고작은 촌으

로 구성되여있다.

마교공사의 판공실주임의 말에 의하면 이 공사는 창설초기에는 농업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현대화로선이 있은 이후부터는 당의 방침에 따라 공업과 상업을 다같이 경영하는 향진기업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이 공사에서는 지금 농산물과 함께 농기구, 가구, 전기제품, 수지제품, 식료기계, 옷, 화장품 등 생활도구와 기계제품들을 생산하고있으며 동시에 그것들을 상업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판공실주임은 기쁨에 넘쳐 당이 제시한 향진기업의 방침을 받들고 농업도 하고 공업도 하고 상업도 하는 식으로 다각적인 경영활동을 벌린 결과 생산에서 빠른 발전이 이룩되고 많은 리윤이 조성되게 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서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그는 공사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마교공사의 젖소목장과 척삼작업대를 돌아보았다.

오늘 광활한 중국땅의 이르는곳마다에서는 전진하는 기상이 약동하고있으며 당이 제시한 현대화의 과업은 훌륭히 수행되여가고있다.

우리 대표단은 친선의 정 넘치는 중국방문의 길에서 정신문명분야에서 중국인민이 거둔 성과를 볼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사업중심을 현대화된 중국을 건설하는데로 옮긴 다음 물질문명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높은 사회주의정신문명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고있다. 그리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도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이 사업은 날을 따라 대중화되고 조직화되고있다.

우리 대표단일행은 정신문명건설사업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광주시 예만구에 있는 금화가를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이곳 사무처주임은 지난 기간 자기들이 벌려온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 제11기 제3차전원회의가 있기전에는 이곳의 거리도 사람도 지금같지는 않았다고 한다. 원래 자본주의상업도시로 발전한 광주시내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대부분이 생산에는 참가하지 않고 소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조그마한 가게방을 차려놓고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현상들도 이모저모에서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은 당의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 정책을 받들고 자기들의 일터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생활질서를 확립한 결과 사람도 거리도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였다. 집에서 놀고있던 사람들과 정해진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여 공장을 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일하고있으며 젊은 청년들속에서는 로동을 사랑하고 집단을 위해서 일하려는 열망이 높아지고있다는것이다. 또한 가정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기 위한 투쟁을 벌린 결과 얼마전에 있은 판정에서 79%의 가정이 위생모범세대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우리를 안내한 사무처주임은 기쁜 얼굴로 벽에 걸려있는 기발을 보라고 하였다. 그 기발은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에서 선진적인 단위들에 수여하는 기발이였다. 금화가는 광동성과 광주시정부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모범기발을 수여받았다. 그 기발만 보아도 금화가주민들이 지난 기간 자기 가정과 가두를 위해서,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에서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었다.

우리는 가두의 실정을 료해하고 이곳 일군들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거리는 모두가 하나와 같이 길량옆에는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고 벽체는 고운 채색을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산뜻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가두에서 운영하는 가정용품과 완구를 생산하는 공장을 돌아보았고 탁아소와 유치원, 양로원과 병원에 들리였다. 그리고 자체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도 보았다. 가두는 마치 하나의 생활단위와 같았다.

금화가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큰 인상을 받은것은 이곳 사람들이 어린이 보육과 교양에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였다.

바로 우리가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구락부에서는 《어린이검정》을 실시하고있었다. 검정날에는 유치원원아들을 기본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교양있게 키웠는가를 알아보고 아이들을 잘 키워낸 교양원과 부모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는것이였다. 《어린이검정》에는 우선 건강하게 키웠는가를 알기 위해 키와 체중, 건강검진을 하고 교양있게 키웠는가를 알기 위해 그들의 수준에 맞는 수학과 한문자, 례의도덕 문제를 제기하고 시험을 친다는것이다. 《어린이검정》을 책임진 한 녀성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건강하고 문명한 어린이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야 대를 이어 사회주의현대화과업을 잘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렇게 애써 일하는것도 결국은 후대들을 위한것이며 번영하는 중국의 래일을 위한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화가를 떠났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이 내놓은 4개현대화를 실현하며 특색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정책은 경제에서뿐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문명에서도 몰라보게 달라지게 하였다.

우리 근로자사대표단은 중국에 머무르는동안 형제적중국인민들의 친선의 정이 뜨겁게 넘치는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나날들을 보냈으며 어디서나 안정되고 단결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중국인민의 투쟁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볼수 있었다.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을것이다.

근로자 1986년 제11호(루계 533호)

편집위원회

편집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6년 11월 3일 발 행 · 1986년 11월 5일

ㄱ—65102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 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12호(536)

차 례

김 정 일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9일)

최근 우리 인민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며 체육사업이 활기를 띠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체육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체육방침과 체육부문 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난 기간 체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당의 체육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체육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극복되고 주체가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체육을 대중화하는 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인대렬이 확대강화되고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체육기술이 발전하여 우리의 체육인들이 국제무대에 나가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에 나가 축구와 탁구, 레스링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와 우리 인민의 기개를 떨쳤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령으로부터 출발하여 체육을 오늘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킨데 대하여 긍지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할 근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체육사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는 오늘 체육부문 일군들과 만난 기회에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체육은 사람들이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지지 못하면 창조적활동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될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체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사람의 육체적활동은 더 말할것도 없고 정신활동도 건장한 체력에 의하여 담보될 때에만 원만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장한 체력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표징의 하나로 되는것입니다. 체육은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킬뿐아니라 사람들에게 강한 의지와 용감성을 키워줍니다.

체육을 발전시켜 인민들을 건장한 체력과 강의한 의지, 용감성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인민들이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고 강한 의지력과 용감성을 가지지 못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으며 조국을 튼튼히 보위할수도 없습니다. 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체육사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것은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려면 운동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체육은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담보하는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결국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건강과 민족의 륭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체육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체육사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국제적으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범위에서 체육활동과 체육교류가 널리 진행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에 많이 나가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고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면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슬기를 세계에 떨칠수 있습니다.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체육교류를 널리 하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체육부문 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체육이 하나의 유흥거리로, 돈벌이수단으로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체육이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합니다.

체육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으로 되게 하려면 체육을 대중화, 생활

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나타의 체육기술도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으며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학생시절은 육체적으로 한창 성장발육하는 때이므로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모두 키가 크고 몸이 조화롭게 발달된 건장한 사람으로 키울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우수한 선수후비도 많이 키워낼수 있습니다.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일정한 체육기술을 배워주면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군중체육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학교체육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며 그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며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기초로 되는 체육종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륙상과 철봉운동, 평행봉운동을 비롯한 기계체조는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을 촉진시키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륙상과 기계체조를 많이 하여 키를 크게 하고 몸을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축구, 배구, 롱구, 탁구를 비롯한 구기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알맞는 운동입니다. 학생들이 구기를 많이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키가 클뿐아니라 조직성과 규률성, 용감성과 대담성, 강의성과 민활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여러가지 구기를 많이 하여 그들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영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영은 사람의 몸을 단련시키고 의지를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학교들에서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학생들속에서 수영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할뿐아니라 어려서부터 헤염을 잘 치고 바다와 강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들에서 체육무용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무용은 녀학생들의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여줍니다.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녀자고등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이 체육무용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이런 좋은 경험을 살려 모든 학교들에서 녀학생들에게 체육무용을 많이 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집단체조에 널리 참가시켜야 합니다. 집단체조는 체육기교와 사상예술성이 배합된 종합적이며 대중적인 체육형식입니다. 집단체조를 많이 하면 학생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도 좋고 그들의 체력을 단련하며 예술적기량을 높이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체조를 많이 하면 근로자들을 교

양하며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학교들에서는 또한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한두가지 체육종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모두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할수 있으며 어려서부터 체육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재능있는 선수후비를 많이 키워낼수 있습니다.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한두가지 체육종목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였습니다. 학교들에서는 한두가지 체육종목을 특별히 발전시키고 그것을 전통화함으로써 체육사업에서 학교의 특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체육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체육수업의 질을 높이는것입니다. 체육수업의 질을 높여야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자립적으로 할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고 일상적으로 체육을 하는 버릇을 붙여줄수 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에게 체육의 기초지식을 습득시키고 운동기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성장발육을 촉진할수 있도록 과정안을 잘 만들고 체육수업을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잘하여야 합니다.

학교들에서 체육수업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과외체육활동을 널리 벌려야 합니다.

과외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소질과 취미에 맞게 조직하여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종목별 체육소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과외체육활동은 또한 계절조건과 지대의 특성에 맞게 조직하여야 합니다. 학교마다 수영장과 빙상장을 원만하게 다 꾸려놓지 못한 조건에서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스케트타기와 스키타기를 많이 하고 봄과 가을에는 등산을 많이 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려면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교원들은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을 직접 맡아하고있습니다. 교원들은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체육수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며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특히 체육교원과 소년단지도원, 사로청지도원들이 체육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체육기술을 가지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잘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모범체육학교쟁취운동은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학교들에서는 모범체육학교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목표를 단계별로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교원, 학생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에서뿐아니라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도 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체육시간을 정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아침체조와 업간체조, 걷기와 달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쉬는 날이나 명절날 같은 때 배구, 탁구, 국방체육 경기를 비롯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체육경기와 체육유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조직하는 체육활동에는 간부들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정들에서도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을 널리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즘 아침 일찌기 거리에 나가면 남녀청년들이 달리기를 하는것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좋은 사회적풍치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평양시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가지 운동을 하는 기풍을 살려 전국의 모든 가정들에서 운동을 널리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정들에서는 아침체조와 걷기, 달리기, 랭수마찰을 비롯하여 몸을 단련하며 건강을 증진하는데 좋은 운동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서는 체육월간사업과 모범체육군창조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있는 인민체력검정사업은 광범한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입니다. 체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해마다 진행되는 인민체력검정월간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모든 대상자들이 인민체력검정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합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양체육월간사업과 겨울철체육월간사업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체육지도기관들과 근로단체들에서는 모든 시, 군들에서 모범체육군을 창조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바로세우고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실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단체들이 체육사업을 틀어쥐고나가면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체육활동에 참가시킬수 있습니다.

사로청, 직맹, 농근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동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의 체육정책을 해설하고 체육에 대한 선전사업을 널리 하여 그들이 군중체육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육대회와 종목별 체육경기를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체육소조를 활발히 운영하여야 합니다. 근로단체조직들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에 일상적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체육기자재를 갖추어주고 여러가지 조건을 보장해주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체육종목들의 기록이 끊임없이 갱신되고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그 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은 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라마다 사람들의 체질도 다르고 체육발전의 력사와 전통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육기술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체육기술을 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다른 나라의 앞선 체육기술을 받아들이는것도 이런 원칙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체육이 우리 인민과 우리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체육으로 되게 하여야 하며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 식의 체육훈련방법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 체육기술발전의 기본방향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고 파악이 있는 종목들의 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모든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여기에 따라세우는것입니다.

체육부문 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고 파악이 있는 체육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륙상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륙상은 체육에서 기본이며 다른 모든 체육종목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종목입니다. 체육운동에서 선수들의 높은 속도와 주력은 성공의 기본담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높은 속도와 주력은 다름아닌 륙상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음악에서 피아노가 중요한것처럼 체육에서는 륙상이 중요합니다.

륙상에서 특히 힘을 넣어야 할 종목은 마라손입니다.

마라손은 체육에서 상징적인 종목이며 올림픽경기의 기본종목입니다. 우리 나라는 마라손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인내력과 강기가 있기때문에 마라손을 발전시키면 패권을 잡을수 있습니다. 마라손을 적극 장려하고 빨리 발전시켜 세계적인 패권을 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진행된 제9차 아세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마라손선수가 처음에 제일 앞서 달리다가 도중에 쓰러졌는데 그것은 경기전에 몸상태를 잘 조절하지 못한것과 관련됩니다.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수들의 몸상태가 나쁠 때가 있으므로 경기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마라손이나 축구경기 같이 육체적부담이 큰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몸상태를 잘 조절하는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축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구기종목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체육경기에서 가장 인기있는것은 축구입니다. 축구는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체육종목입니다. 축구기술이 높으면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빛내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축구는 파악이 있고 전망이 있는 체육종목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축구를 즐겨하여왔으며 축구에서 일정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축구기술수준이 남미주나 구라파의 일부 나라들보다는 못

하지만 1966년 영국에서 진행된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에 비하여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축구선수들은 우승후보팀으로 지목되였던 이딸리아팀을 이겨 체육계에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다음 뽀르뚜갈팀과의 대전에서 경기를 전술적으로 잘 운영하지 못하여 패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 나라 팀이 경기를 전술적으로 잘 운영하여 뽀르뚜갈팀을 이겼더라면 세계적으로 더 큰 파문을 일으켰을것입니다.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있은 다음에 축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었더라면 우리 나라가 축구에서 승승장구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강자로 되였을것입니다. 그런데 체육부문 일군들이 축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응당한 힘을 넣지 않다보니 축구기술이 그때보다 별로 더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부문에서는 축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 축구선수들이 먼저 아세아에서 패권을 쥐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패권을 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배구기술도 빨리 추켜세워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들은 여러차례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년간에 배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고 선수후비를 바로 키우지 못하다보니 녀자배구수준이 그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체육부문에서는 어떻게 하나 녀자배구를 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권투와 레스링, 력기 같은 중경기종목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방체육을 결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선수들이 사격과 권투 경기에서 이겼을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사격과 권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우리 민족의 기개를 보여주는 체육종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 사격선수들의 사격술이 빨리 발전하고있습니다. 압록강국방체육선수단의 날치기사격선수는 지난해에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세계날치기사격선수권대회에서 2등을 하고 얼마전에 있은 제3차 아세아날치기사격선수권대회에서는 1등을 하였습니다. 압록강국방체육선수단은 4.25국방체육선수단보다 늦게 나왔지만 날치기사격술에서 앞섰습니다. 우리 나라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싸우는 나라인것만큼 사격술에서 단연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활쏘기에서도 세계의 패권을 잡아야 합니다. 얼마전에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국제활쏘기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가 1등을 하였는데 옛날부터 활쏘기는 구라파나라들보다 아세아나라들이 더 잘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쏘기선수들에게 필요한 기재와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활쏘기기술을 높이도록 하면 우리 나라가 활쏘기에서 세계의 패권을 잡을수 있습니다.

락하산기술과 모형항공기기술, 무선통신기술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예술체조수준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괜찮은편입니다. 그러나

세계패권을 잡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술체조수준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이밖에 다른 체육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체육의 모든 종목들에서 먼저 아세아의 패권을 쥐고 나아가서 세계의 패권을 잡으로써 우리 나라를 《체육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선수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체육선수는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입니다. 나라의 체육기술수준은 선수들의 기술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육선수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려면 훈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체육경기의 성과는 선수들의 육체적준비와 기술, 전술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그러므로 체육훈련은 선수들을 육체적으로 단련시키고 그들의 기술을 련마하며 전술체계를 완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이런 원칙에서 훈련강령을 바로 만들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체육훈련은 우리 식으로, 과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선수들의 체질도 다른것만큼 체육훈련방법에서 고정격식화된 틀이 있을수 없습니다. 체육부문에서는 고정격식화된 틀에 매달리지 말고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선수들의 특성에 맞는 기술과 훈련방법을 완성하고 훈련을 창발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훈련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으며 선수들의 구체적특성에 맞는 기술동작과 전술체계를 완성할수 있습니다. 체육부문에서는 모든 훈련공정을 과학화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기재들을 리용하여 훈련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수들의 훈련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것처럼 체육선수들이 평상시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세계패권을 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은 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체육선수들은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겠다는 포부와 세계패권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훈련을 정열적으로 완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체육훈련의 성과는 지도원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지도원들은 훈련강령에 따라 훈련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우고 훈련내용에 정통한 기초우에서 훈련을 지도하여야 하며 훈련에서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도원들이 자기의 체육과학리론수준과 기술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체육훈련에서 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선수들의 훈련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체육 시설과 기재, 숙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체육선수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려면 그들이 경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선수들은 국내경기도 많이 해보고 국제경기도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경험을 쌓을수 있고 경기담을 키울수 있으며 세계체육기술발전추세도 알수 있습니다.

체육부문에서는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와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국내경기를 많이 조직하는 한편 우리 나라에서 국제경기도 자주 조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선수들을 다른 나라에서 조직하는 국제경기에도 많이 내보내고 원정경기에도 자주 내보내야 합니다. 륙상을 비롯하여 파악이 있는 체육종목들의 선수들을 정상적으로 원정경기에 내보내야 합니다. 특히 축구선수들을 원정경기에 많이 내보내야 합니다.

체육선수들은 경기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은 우리 식의 체육경기원칙이며 우월한 체육경기방법입니다. 선수들의 사상정신상태와 투지, 민첩성과 기술은 체육경기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재치있는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체육선수들은 당의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겠다는 굳은 각오,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경기에서 평시에 련마한 기술과 전술을 능란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에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전망과 선수에 대한 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가지고 선수후비육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잘하여야 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종목별로 선수선발기준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선수를 선발하여야 합니다. 선수후비로는 될수록 지혜가 있고 키가 크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선발하여야 합니다. 체육선수후비를 선발한 다음에는 훈련목표를 높이 세우고 목적지향성있게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그들을 유능한 선수로 키워야 합니다.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체육도 과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체육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여야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체육부문에서는 관록이요, 전적이요 하면서 낡은 경험에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과학적기초우에서 체육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과학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과학연구부문에서는 체육종목별 기술을 발전시키며 특히 상징적인 체육종목들인 축구와 마라손을 비롯하여 파악있고 전망성있는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선수들의 체질에 맞게 경기와 훈련을 과학화하며 영양공급을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체육

운동과정에 일어나는 인체의 생리적변화와 그 조절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잘하여 선수들의 몸상태가 경기를 할 때 최고수준에 이르게 하도록 과학적으로 안받침하여야 합니다. 체육기재를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체육과학을 빨리 발전시키려면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과학기술 교류사업과 통보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체육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들에 체육과학자들을 보내여 배워오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체육전문가들을 초청하여다가 선진체육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도 하여야 합니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체육일군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체육일군양성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능력있는 체육지도원과 체육교원을 많이 키워내는것입니다. 체육지도원들과 체육교원들은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육부문과 교육부문에서는 능력있는 체육지도원과 체육교원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현직 체육일군들에 대한 재교육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지금 체육일군들가운데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하던 사람도 있고 정규교육을 받았지만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육부문에서는 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현직일군들을 평양체육대학을 비롯한 체육부문 양성기관들에 계획적으로 보내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들의 기술수준과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일군양성사업을 잘하려면 체육부문 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평양체육대학은 체육일군양성을 위한 중요한 기지입니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는 평양체육대학을 체육부문 양성기관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체육간부양성소를 비롯한 체육일군양성기관들과 사범대학 체육학부와 교원대학 체육학과를 잘 꾸리고 능력있는 체육일군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부문 양성기관들에서는 체육교수와 체육훈련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체육부문 양성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체육교수내용의 과학리론수준과 당정책화수준을 높이고 교수방법과 훈련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체육시설을 많이 건설하고 체육기자재생산보장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고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려면 누구나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체육을 할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꾸려놓아야 하며 체육기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중앙과 지방에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많이 건설하여놓았습니다. 평양시에 김일성경기장과 평양체육관, 빙상관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체육시

설이 많이 건설되고 도, 시, 군 소재지들에도 종합체육관과 종목별 체육관, 경기장이 건설되여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에 리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설하여놓은 체육시설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나라의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평양시에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만경대지구에 체육촌을 형성하고 경기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갖추며 릉라도와 양각도에는 경기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릉라도에 건설하는 경기장의 주석단천양높이를 김일성경기장보다 높게 설계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김일성경기장에는 집단체조를 하기 위하여 인공잔디를 깔았지만 릉라도경기장에는 잔디를 심어야 합니다. 릉라도경기장에 잔디를 심으면 거기에서는 집단체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 시, 군 소재지들에도 체육시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도소재지들에는 종합체육관과 수영관, 체육인숙소를 건설하고 시, 군 소재지들에는 체육관과 수영관, 수영장, 체육구락부숙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체육선수단들에는 현대적인 체육종합훈련관과 경기장을 건설하며 학교들에는 체육관과 수영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들과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체육기자재생산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체육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적지 않지만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여 체육기자재를 얼마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체육기재는 가지수도 많지 못하고 질도 높지 못합니다. 체육기자재공장들에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대주어 여러가지 체육기자재생산을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체육기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체육훈련을 강화하고 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려면 체육선수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선수들을 잘먹여야 그들이 훈련도 잘하고 경기도 잘할수 있습니다. 오늘 체육인들을 직접 만나보니 체육선수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체육선수들에 대한 영양공급은 과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체육종목별로 공급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공급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체육선수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평균주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키가 큰 선수들과 중량급 선수들에게는 공급기준을 따로 만들고 특별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종합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도 공급기준을 따로 정하고 공급을 특별히 잘해주어야 합니다.

체육선수들에게는 식량을 많이 공급하는것보다 고기와 기름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육선수들에게 고기와 알, 기름을 많이 공급하며 요구르트도 공급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양시에 있는 중앙급 체육선수단 선수들의 부식물공급기준을 높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체육선수들의 부식물공급기준을 높여도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 같은데서는 자기 산하 체육선수단들의 공급사업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을것입니다. 평양시에서도 평양시체육선수단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자체로 보장할수 있을것입니다.

체육선수들에 대한 공급사업은 체육선수단을 가지고있는 단위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에서는 자기 산하에 있는 체육선수단에 대한 공급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하여야 합니다. 평양시체육선수단에 대한 공급사업은 평양시당위원회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에 있는 체육선수단들에 대한 공급사업은 해당 도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문에서 공급사업을 자체로 하기 곤난한 체육선수단들에 대해서는 따로 공급대책을 세워주어야 하겠습니다.

체육선수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 어느 닭공장을 하나 넘겨줄수도 있습니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수 있으며 체육선수들의 긍지와 영예감도 높일수 있고 체육기술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려면 체육선전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체육에 대한 선전사업을 텔레비죤방송으로 많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죤방송으로 체육경기실황도 내보내고 체육선수들과 좌담회를 하는것도 내보내며 당의 체육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도 소개선전하고 체육상식에 대한 해설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연히 체육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누구나 다 체육을 하려고 할것입니다.

텔레비죤방송으로 체육선수들을 많이 소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국제국내경기에서 이름을 떨친 체육선수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사람들이 어느 체육선수단의 몇번선수라고 하면 그의 이름과 얼굴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판물들에도 세계체육과학기술발전추세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체육선수들에 대한 자료, 경기종목과 그 유래 같은 체육자료를 흥미있게 편집하여 내보내야 합니다. 신문과 잡지에 이름있는 체육선수들의 사진을 크게 내여 그들을 소개선전하는 사업도 하여야 합니다.

체육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영화, 기록영화, 예술영화도 많이 만들어 보급하여야 합니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려면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평가해주고 우대하여주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최근 당에서는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평가해주고 우대하여주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인들에게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명예칭호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여러가지 표창도 하고 고급승용차도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에 나가 세운 공로에 따라 그들을 여러가지로 우대하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인들에 대한 당의 커다란 믿음의 표시입니다.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당의 믿음을 받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앞으로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해주고 우대하여주는 사업을 더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체육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체육부문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옳게 하여야 체육을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각급 체육지도기관들과 당조직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려면 체육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는 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국가행정기관입니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체육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체육부문 기관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여야 합니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체육사업과 련관이 있는 다른 중앙기관들과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동작전도 잘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 체육지도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도, 시, 군 체육지도위원회들에서는 해당 지역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며 도체육선수단과 공장, 기업소 체육선수단, 시, 군 체육구락부들에서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합니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각급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것처럼 체육사업도 당조직들의 옳바른 지도를 떠나서는 잘될수 없습니다. 체육부문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체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의 체육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의 체육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그것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체육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체육부문 일군대렬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높은 기술실무적 자질을 가지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체육부문 당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체육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체육인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진수로 하는 유일사상교양과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높은 공산주의도덕품성을 가진 당과 인민의 참된 체육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육인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개인영웅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개인의 리익을 조직과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경기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체육부문 일군들과 체육인들 속에서 당생활과 사로청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당의 체육방침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무겁고도 영예로우며 체육부문 일군들과 체육인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나는 체육부문 일군들과 모든 체육인들이 당의 체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축 하 문

《근로자》편집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근로자》창간 40돐에 즈음하여 잡지의 편집발행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기자, 편집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 《근로자》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옹호보위하고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리론선전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출판물들의 전통에 기초하여 1946년 10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 《근로자》를 창간하시였다.

잡지 《근로자》의 창간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잡지 《근로자》가 창간됨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 정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예리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근로자》는 창간후 오늘에 이르는 4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잡지 《근로자》는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언제나 당과 함께 숨쉬면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당리론선전의 전초선에 서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지도체계를 확립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근로자》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사상,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널리 선전하여 조

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오늘 《근로자》는 당과 혁명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권위있는 잡지로 되였으며 편집집단은 당과 수령에게 충직하고 정치리론적으로 준비된 문필전사들의 대오로 자라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근로자》편집일군들이 지난 40년동안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리론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잡지 《근로자》는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당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 이것이 오늘 당사상사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과업입니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내용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사상교양의 수단과 방법도 이것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잡지 《근로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리론선전사업을 심화시켜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잡지 《근로자》는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을 원리적으로 해설하는 무게있는 론설들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을 리론적으로 전개하는 품위있는 글들을 더 많이 편집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의 정치적량식을 끊임없이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해설선전하며 당경제정책선전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선전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잡지 《근로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편집발행사업에서 당이 제시한 출판보도활동의 근본원칙을 견지하며 출판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편집출판활동에서 주체의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하며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잡지편집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하는 참다운 문필전사로 더 잘 준비하여야 한다.

편집일군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집단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워 잡지발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편집일군들은 혁명적학풍을 세우고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문필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편집출판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며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열정에 넘쳐 참신하게 착상하고 전개함으로써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글을 더 많이 편집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당 리론선전의 전초선에서 일하는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집필편집사업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침으로써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훌륭한 사업성과로 보답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근로자>편집일군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잡지의 편집발행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감으로써 당리론선전일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리라고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6년 10월 21일

천리마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내이자

—천리마운동 발단 3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운동이 발단된 때로부터 30년이 된다.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는 락후와 빈궁의 흔적을 털어버리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에로의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온 누리에 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창조하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마련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고귀한 업적이다.

우리 당은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총로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에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 인민을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고 당당한 자주적존재로 되게 하였다.

천리마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데 있으며 이 운동의 추동력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다. 이러한 목적과 추동력으로 하여 천리마운동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모두가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주체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에로의 전진과정을 힘있게 앞당기게 하는 위대한 진군운동으로 되였다.

천리마운동의 위력과 생활력의 원천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당과 인민의 튼튼한 통일단결 그리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의,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밑바닥에 놓여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197페지)

사회주의혁명의 결정적승리,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의 축성과 같은 객관적요인도 천리마운동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지만 그보다도 결정적의의를 가진것은 당의 현명한 령도,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로 표현되는 주체적요인, 정치사상적요인이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하나로 굳게 결합된 여기에 천리마운동을 적극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 있다.

천리마운동의 발생발전과정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과시한 위대한 력사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이 문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운동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천리마운동의 발생발전력사를 통하여서도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 이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시기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당시 우리에게는 자금도 자재도 부족하였으며 인민생활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거기에다 안팎의 정세 역시 긴장하고 복잡하였다.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으며 극복하여야 할 장애물도 또한 수없이 많았다. 실로 조성된 난국은 엄혹하였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주권과 인민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밑에 인민과 로동계급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어려운 난국을 뚫고나가기로 결심하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으며 그들을 강재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분괴압연기에서 당이 요구한 9만톤이 아니라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과 불굴의 강의성을 지니시고 강선땅에 대한 현지지도에 뒤이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을 정력적으로 진두지휘해나가심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에게 강요되였던 화는 복으로 전변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이 시작되게 되였다.

천리마운동이 발단됨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다그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천리마운동의 발단,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수령님께서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군중로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자랑찬 승리였다.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대중운동이 끊임없이 심화되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칙적현상이 저절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길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발생발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재증산투쟁행정에 강선제강소의 어느 한 작업반에서 제기된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시고 그곳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씨를 심어주시였으며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심화발전된 형태로서 인민경제발전의 강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경제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였다. 동시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대중적교양의 방법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기수들은 시대의 영웅으로서 생산혁신자들이면서 재능있는 관리일군들로, 능숙한 조직자들인 동시에 참다운 공산주의교양자들로 되였으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공업, 농업, 운수, 건설, 과학, 교육, 문화, 보건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참다운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실로 천리마운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생하고 심화발전하였으며 그 전과정은 당의 령도의 위대성으로 하여 빛나고있다.

천리마운동의 력사는 다음으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시위한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광범한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면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 한다. 당과 인민들의 통일단결은 대중운동의 발생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에서 당에 도전하여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을 청산하는 당내투쟁을 힘있게 벌리시는 한편 모든 힘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도록 하심으로써 종파분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의 반동성을 낱낱이 폭로분쇄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하시였다.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고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이 확고부동한것으로 됨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천리마적비약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지속될수 있었다.

천리마운동의 력사는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빨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세와 기백으로 일관된 빛나는 력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중운동의 위력의 원천은 그것이 당의 령도밑에 대중자신이 벌리는 운동이라는데 있다. 이 운동의 생명력은 대중의 준비정도,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우리 인민이 지니였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앞에 가로놓였던 수많은 난관을 밀어제끼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혁명적 투지와 기백이였다.

우리 인민은 우선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보여주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천리마대고조와 같은 위대한 변혁을 이룩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자신의 사활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체혁명위업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 각오를 지니였기에 우리 근로자들은 모든것이 모자라고 부족하였던 전후의 어려운 조건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해나가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었다.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은 또한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기개를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졌던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왔던것만큼 자기 조국을 하루빨리 앞선 나라의 대렬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빨리 달려나가려는 강렬한 지향을 가지고있었다. 남보다 빨리 나가려는 열망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령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였던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남들이 한세기 또는 수세기에 걸쳐 하였던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단 14년동안에 수행하는 놀라운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이렇듯 천리마대고조의 영광스러운 년대기는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로 하여, 남보다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과 혁명적기개로 하여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되였던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세는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재부로,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사상정신적밑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선행단계에서 이룩된 경험과 업적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간다. 특히 혁명투쟁력사에서 간고한 시거 결쌀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 이룩된 경험과 업적, 인민대중속에서 높이 발양된 투쟁 정신과 기풍은 혁명의 전진을 위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천리마운동의 자랑찬 력사, 천리마의 혁명정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

는 새로운 력사적전군렬에서 확고히 이어지고 더욱더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우리 인민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천리마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을 속도전에로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심으로써 새로운 천리마속도, 속도전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으로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쳐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대중운동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우리 인민이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과정에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고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전성기가 펼쳐졌으며 주체조선의 영예가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되였다. 이것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리도록 이끌어온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한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혁명적 기세와 기백을 그대로 계승하고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업적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함께 천리마정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혁명이 심화되고 그앞에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달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모든 전선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우리 당의 이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은 혁명실천에서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천리마정신을 사상정신적원천으로 하여 일어나고 전개되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불과 1년동안에 일떠세우고 1만톤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와 같은 현대적대형설비들을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냈으며 거창한 서해갑문 건설을 5년동안에 완공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끌어나가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내여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으며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어떤 난관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민들과 같이 그것을 뚫고나가는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정신을 가지고 당에서 내놓은 구호대로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천리마정신은 결코 지난날에만 빛을 뿌린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그리고 먼 앞날에도 우리 인민이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혁명정신이다. 천리마정신을 대를 이어 튼튼히 고수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혁명업적을 빛내이는 참된 길이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점령하여야 할 투쟁목표가 방대하고 해결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복잡하게 제기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의 진군속도는 더욱더 다그쳐져야 한다.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을 앞당겨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서해갑문은 강철의 의지와 혁명적담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굽임없이 빨리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찬 창조물이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은 오직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투쟁함으로써 8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하여야 할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의 산 모범을 보여주었다.

당이 제시한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발휘한 투쟁 정신과 기풍에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의 명령, 지시를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어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모든것을 제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모든 일을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는 속도전의 기풍이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은 이러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지니였기에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구체적사실을 통하여 서해갑문 건설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깊이 체득하도록 노력하며 그것을 혁명실천과정에서 반드시 구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림으로써 서해갑문 건설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광범한 대중속에서 널리 일반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전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일본새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특히 해결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복잡하게 제기되는 조건에서 진군속도를 다그치자면 해당 단위, 해당 부문의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있는 지도일군들이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지도일군들이 어떠한 일본새로 어떻게 사업을 조직지휘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진군속도가 다그쳐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일군들이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의 모범을 본받아 혁명적일본새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모든 사업을 깐지게 하고들 때 비록 제기된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 하여도 훌륭한 결실을 볼수 있는것이다.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자면 일군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하는 일본새를 지녀야 한다.

책임성이 높은 일군들은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일하는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서 한다. 그러므로 자각적으로, 책임적으로 일하는 사업태도를 가지려면 필요한 사업조건과 환경을 자체로 마련하며 사업을 주동적으로 포치하고 지도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자기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가는것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 일군들의 중요한 활동방식이며 일본새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 사업을 해나가려는것은 지도일군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며 주인된 립장을 저버리는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을 철저히 제힘으로 해제끼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일군들의 일본새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자면 온갖 낡은 일본새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보수주의와 소극성, 요령주의와 책임회피, 하루살이식일본새들은 주인다운 사업태도와 량립될수 없는 낡은 일본새의 표현형태들이다. 낡은 사상, 낡은 일본새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침습된것이고 매우 집요한것이기때문에 한두차례의 비판이나 사상투쟁만으로써는 그 뿌리를 뽑을수 없다.

온갖 대중적혁신운동이 그러한바와 같이 천리마운동이나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다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 발생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의 발양을 저애하는 낡은 일본새를 반대하는 투쟁을 꾸준히 줄기차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대중운동은 로동계급의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서만 발생발전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천리마운동이나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발단을 열어놓고 그 강화발전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그 어떤 대중적혁신운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조직들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조직화, 적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지 않으면 대중적혁신운동은 실속있게 전개될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은 대중적혁신운동에 대한 지도를 당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그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적혁신운동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정치사업은 사람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며 그들이 당적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늘 토해하고 지도하는 사업이다. 당조직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대중적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참가하며 그것을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주인답게 추진시켜나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대중운동을 조직전개해나가는데서 나타날수 있는 형식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이 운동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일관성있게 벌려나가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천리마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초소마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야 할것이다.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자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앞에 절실하게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있는 혁명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는것이다. 교육혁명을 일으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이고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교육부문 일군들은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교육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 일반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할것없이 모든 교육부문에서 다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423페지)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는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교육에 의하여 키워진다. 사람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습득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며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에 모든것을 복종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하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울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는것은 교육혁명을 일으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 일반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할것없이 교육사업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혁을 일으켜 새세대들을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홍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할수 없으며 결국은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게 된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게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과학지식, 건장한 체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울수 있으며 교육이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참다운 혁명사업으로 되게 할수 있다. 이것은 곧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 사회주의교육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오늘 우리의 혁명이 제기하고있는 절실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 건장한 체력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려면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에서의 성과는 중요하게 교육의 질적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회주의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개조사업의 요구에 맞게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키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장기성을 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키워야 한다.

우리의 새세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떠메고나갈 담당자들이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장래운명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새세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여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계속 짜고들어야 그들을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경제건설에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하자면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

며 생산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날로 커지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계속 개척되고있으며 생산에서 자동화, 로보트화가 널리 보급되고 경영활동에서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많이 리용하는것은 하나의 시대적추세를 이룬다.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경제건설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있는 현실은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것은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인재들이며 능력있는 일군들이다.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내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시킬수 없으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해내자면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수준은 교육의 질적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실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낼수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다. 이것은 현시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가 교육의 질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으며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오늘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현 실태와 관련하여 절실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해방후 빈터에서 맨으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전후에는 잿더미우에서 자기 발전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사업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으며 오늘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초등의무교육이 선포된 때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에 중등의무교육과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거쳐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지금 우리의 새세대들은 국가부담에 의하여 누구나 다 완성된 중등의무교육을 받고있다. 지난날 자체의 민족간부가 없어 그처럼 곤난을 겪던 우리 나라에서 125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남으로써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이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2백수십여개의 대학이 있으며 리마다 고등중학교가 있고 전민이 다 공부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이다. 현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온 우리의 교육이 량적수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비하여볼 때 그 질적수준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 일반교육이나 기술교육 할것없이 교육사업전반에서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시위할수 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있는 공

산주의적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우리의 교육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이렇듯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 교육의 현실태로부터 제기되는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며 교육사업전반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고리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하고 그 질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심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몸소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수준이 높은 본보기단위들이 꾸려지고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8～9페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교원들의 책임성과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적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인 새세대들의 질적상태가 규정된다. 교원들은 후대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능력있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직업적혁명가이라는 높은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교원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교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 문헌들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문제를 옳게 결부하여 교수준비를 잘하며 강의와 학과토론, 실험실습을 비롯하여 과정안에 예견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곧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나타나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오늘 교육사업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도 교원들의 자질이 낮은데 있다.

모든 교원들은 자질을 높이는것이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알아야 한다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학습을 정력적으로 꾸준히 함으로써 과학리론수준과 교육실무적자질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교원들은 누구나 다 전공분야의 학위학직을 가져야 하며 보통교육부문의 교원들은 모두 자격교원이 되여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빨리 높이려면 교원양성기관들의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현직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롭게 개편되는 교육내용에 맞게 교육수준을 한계단 높여 사범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들이 교원으로서의 높은 교육실무적자질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들에서 연구원, 박사원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나라의 교육자, 과학자 후비들인 20대, 30대의 젊은 준박사, 박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며 현직교원들을 재교육하여 그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더욱 개선하는데 있다.

교육의 질은 무엇보다도 교육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교육내용을 옳게 구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교육을 줄수 있으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육의 높은 질적수준을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여기에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서의 사회주의교육의 역할을 높여 청소년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고상한 품격을 갖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당의 참된 혁명전사로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과학기술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게 된다.

고등중학교들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둠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단계에서 기술자, 전문가로 발전할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키우고 마른 나라 서적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기술교육에 힘을 넣어 모두가 현대적생산과 결부된 기초기술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가지게 하고 자동차나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생산과 건설에 널리 쓰이는 기계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룰줄 알게 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기술기초교육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전문기술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과학의 기초원리와 기술공학적원리들을 깊이 체득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 원자에네르기와 태양에네르기, 레이자와 플라즈마 등 최신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교육방법이다. 교육방법을 개선하여야 교육에서 낡은 잔재를 뿌리뽑고 사회주의교육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학교들에서는 들이먹이는 방법, 베껴주는 방법과 같은 낡은 교수방법을 없애고 깨우쳐주는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특히 실험실습과 련습에 많은 시간을 돌리고 그 질을 끊임없이 높여 고등중학교시기에 학생들이 집적회로, 전자계산기와 같은 현대화된 과학기술수단들을 직접 다루어보고 거기에 익숙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들에서는 전공실습을 공장의 기술혁신과제와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실천에서 적용할수 있는 높은 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여러가지 교수형태를 옳게 적용하는 한편 배운 내용을 그대로 외워바치는 낡은 시험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배운 내용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그 응용능력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시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적인 보장사업을 개선하는데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교육으로 하여금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당조직들은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학교들에서 교육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교원, 학생들을 교수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망탕 동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잘 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교원대렬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고 높은 과학리론적자질을 소유한 좋은 사람들로 튼튼히 꾸리며 대학 및 전문학교들에서 학생선발을 당적, 국가적 립장에 철저히 서서 책임적으로 하고 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강하게 세우며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하며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관건적인 고리의 하나로 된다. 오늘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교육시설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하루빨리 보통교육부문에서는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비롯한 본보기단위의 수준으로 교육조건을 더 잘 보장하여주어야 하며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요대학들을 잘 꾸리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대학들의 교육조건을 계속 개선해나가야 한다.

당 및 국가경제 기관들에서는 또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원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한몫씩 맡아 해제끼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더욱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숨은 공로자들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조 원 일

지금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는 숨은 공로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그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의 선구자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끄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해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우리 당이 찾아내고 키워낸 숨은 공로자들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숨은 공로자들은 직위와 명예를 바라지 않고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조국땅우에 꽃피우기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치고있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입니다.》

참다운 애국자, 그것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상징이다. 참다운 애국자라야 주체가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국경이 있고 나라와 민족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자기 조국과 인민을 떠나서 그 어떤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진정한 조국, 사회주의조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주고 정치생활, 경제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여주는 위대한 품이다. 사회주의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그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충실한 진정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조국건설의 빛나는 력사의 년대기들에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친 수많은 애국자들의 영웅적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조국건설사에 영원히 살아 빛을 뿌리는 참된 혁명가, 애국자의 전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에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한 항일혁명투사들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애국주의적정신을 본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바쳐싸운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도 참된 조국의 아들딸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오늘 참다운 애국자는 로력으로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사회주의제도를 굳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쳐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야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로력적위훈으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몸바쳐투쟁하는 사람이 오늘의 진정한 혁명가이며 참다운 애국자인것이다.

숨은 공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

을 조국땅우에 꽃피우기 위하여 한생을 바치고있는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란 숨은 공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일로 여기고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며 거기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고있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가장 기본적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부강한 조국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치는 애국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결합되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는 길에서만 가장 높이 발휘되고 가장 숭고한것으로 되게 된다.

숨은 공로자들의 애국적사상감정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고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다. 숨은 공로자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어떤 돌발적이고 우연적인것이 아니라 생활화되고 체질화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애국적소행은 모두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이한 생활이 아니라 평상시의 평범한 생활로 되고있다. 숨은 공로자들의 애국적소행이 그처럼 값높고 만사람들의 심장을 감동시키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숨은 공로자들의 아름다운 애국적소행은 무엇보다도 직위와 명예를 바라지 않고 자기 맡은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데서 발현되고있다.

당과 수령이 세워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는것은 조국앞에 지닌 사회성원들의 애국적의무이다.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조국땅우에 꽃피우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매개 성원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맡겨진 임무를 다하게 될 때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혁명초소의 경중과 직업의 귀천을 가리는것은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며 애국자의 사상정신적풍모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당이 세워준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고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조국앞에 지닌 애국적의무를 다하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숨은 공로자들은 자기 초소에서 그 어떤 명예도 직위도 공명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로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수십년세월 하루와 같이 당과 수령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고있는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이다.

자기 맡은 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뜨거운 애착심을 가지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당이 요구하는 혁명초소에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쳐 당을 받들어 나가는 깨끗한 량심을 가진 숨은 공로자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숨은 공로자들의 숭고한 애국적소행은 또한 남보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나라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데서 발현되고있다.

사람들이 사회와 조국앞에 지닌 의무의 하나는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의 이 숭고한 의무를 다할 때 혁명이 전진하게 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며 조국의 륭성번영이 이룩되게 된다. 나라에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고 남의 덕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벌써 혁명가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못가지게 된다. 남의 덕에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배기혁명가이며 진정한 애국자이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수많은 숨은 공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에 더 많은 보탬을 주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충성의 한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숭고한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다.

송전선건설사업소에서 일하는 한 작업반장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젊은 나이에 송전선건설공이 되였으며 그때로부터 그는 오늘까지 30년의 기나긴 세월 온 나라 방방곡곡의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수천수백기의 철탑을 세우고 수천리에 달하는 고압송전선을 늘여 나라의 전력구조망을 완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송전선건설을 기계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기술혁신을 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

검덕광업종합기업소 1건설갱 소대장은 제대되여 검덕땅에 배낭을 풀어놓은 후 지난 22년간 1수직갱을 포함한 13개의 수직갱과 5개의 사갱을 비롯한 많은 갱건설에 참가하여 지하척후병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채취공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남들보다 힘든 일을 자진하여 맡아가지고 성실한 로동으로 조국의 끝없는 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치고있는 이들과 같은 숨은 공로자들이 우리 당과 조국을 진실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애국자의 본보기이다.

당과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 숨은 공로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애국적소행은 또한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것이라면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도 그것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국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공산주의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은 순탄하지 않으며 그 앞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막아나서게 된다. 조국건설앞에 가로놓이게 되는 난관은 그 누가 대신하여 해결해줄수 없으며 오직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바로 이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이 주체가 튼튼히 선 참다운 혁명가이며 조국땅우에 인민들이 살기 좋은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숨은 공로자들은 철두철미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사고하고 실천하였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당과 수령이 바라는것이라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적이 없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것을 누가 보장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굴함없이 이겨내여 자신이 일단 세운 목표를 기어이 수행해내고야말았다.

부윤광산의 한 실장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서 제시된 과업을 필생의 목표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과학탐구에 바치였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마침내 수십건의 가치있는 발명을 함으로써 새로운 선광법과 미광처리방법을 완성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성진제강소의 한 설계원동무도 강철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흑색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였고 과학원 함흥분원 무기화학연구소의 한 연구사와 그의

연구집단은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을 공업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경공업과학원 방직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연구집단에서는 주체섬유로 여러가지 고급옷감을 짤수 있는 기술적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당과 수령이 바라고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것을 필생의 목표로, 과학탐구의 유일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으로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불사조마냥 헌신적으로 투쟁한 그들의 고결한 풍모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의 정신세계의 숭고한 높이를 보여주는 구감으로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참다운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끄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거대한 견인력과 위대한 생활력의 일대 시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던 때 몸소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참다운 혁명가들인 숨은 영웅들을 찾아내시여 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과학기술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 모범을 널리 일반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본질과 요구, 그것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도 하고 지상토론과 실효투쟁도 적극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생활력이 발휘됨에 따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을 더욱 조직화하여 이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전당적, 전사회적 규모에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는 새로운 개선을 가져왔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오늘 숨은 공로자들의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각오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어렵고 힘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가고 새로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쏟아져나오고있다.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본받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실생활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로 만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새로 찾아낸 숨은 공로자들을 접견하고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앞으로 숨은 공로자들을 계속 찾아내고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대렬을 늘여나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조직들은 이 운동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숨은 공로자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평가해주며 그들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일하는 숨은 공로자, 참다운 애국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긍정감화교양방법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구현한 대중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다른 대중운동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배출되는 숨은 공로자들, 긍정적인 새싹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당적원칙에서 정확히 평가해주며 모든 선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그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다.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그들이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본받아 혁명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계속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당위원회들은 이 운동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하며 그 진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숨은 공로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잊지 않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이 찾아주고 내세워준 모든 숨은 공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영광스러운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80년대의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길에서 당과 수령을 일편단심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과 그들을 따라배우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대오가 날마다 늘어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더욱더 강대해지고 우리 당은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되고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이끄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천수만의 숨은 공로자들이 나오고 온 사회가 혁명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의 실천활동

김 윤 권

사람의 실천활동에 관한 옳은 견해를 확립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의 운명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개척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이 진행하는 실천활동의 기본형태이다. 실천활동의 본질과 특성을 옳게 리해하여야 그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벌리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과학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실천활동의 본질과 특성, 실천의 역할 문제를 새롭게 해명하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물질적존재가 가지고있는 속성의 발현이며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사람의 활동도 그의 본질적속성의 발현인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은 인간활동의 본질과 특성을 원리적으로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들의 활동을 통하여 발현되며 인간활동의 본질과 근본특성을 규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것은 그에 맞게 개변하며 낡고 반동적인것은 새롭고 진보적인것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나갑니다. 이것이 세계를 더욱더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계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사람의 활동이며 투쟁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사람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벌리는 활동, 다시말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현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으로 된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려는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적능력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자주적요구는 의식에 의하여 자각된 요구이고 창조적능력은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창조적능력을 발휘하여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실천활동은 의식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사람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여 새로운 물질문화적재부와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하는 실천활동이다.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실천활동은 객관적법칙에 의하여 운동변화하는 사물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대상의 특성과 운동법칙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며 옳은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인식과 리론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사람의 실천활

동을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먼저 사람을 중심으로 실천활동의 본질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실천활동의 본질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와의 련관을 맺으면서 활동한다. 세계는 자연과 사회, 사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람은 자연과 사회에서 살며 활동한다. 사람의 실천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사람과 객관적대상, 물질기술적수단은 실천활동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며 여기서 가장 능동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사람이다.

실천활동의 대상은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사물현상이며 실천활동에 쓰이는 수단은 기계설비를 비롯한 물질기술적장비이다. 객관적사물현상은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이 가해져서 사람을 위한것으로 개조되여야 할 대상물이며 물질기술적장비는 사람의 조정하에서 대상을 개조하는데 쓰이는 수단이다. 실천활동의 대상은 사람에 의하여 선정되며 물질기술적수단도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객관적대상을 개조변혁하는 실천활동의 직접적담당자는 사람이다.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이 없이 객관적대상이 저절로 사람을 위한것으로 전환될수 없는것이며 아무리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기계설비도 사람의 조정이 없이는 대상을 개조변혁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없다. 결국 실천활동은 사람이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객관적대상을 사람을 위한것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인것이다. 세계는 사람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서만 사람을 위한것으로 개조되고 변혁된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과 객관적대상, 물질기술적수단들의 호상관계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실천활동의 본질을 해명하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실천활동의 근본목적과 성격, 추동력을 새롭게 밝혀준다.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실천활동을 벌리는 근본목적은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려는 자주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실천활동을 벌린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명으로 되는 근본속성이며 그 무엇에 예속되거나 구속당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로부터 낡은 사회관계를 변혁하는 혁명적실천활동을 전개하며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행복한 물질생활을 누리려는 요구로부터 자연을 정복하는 실천활동을 벌리는것이다.

실천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개조하고 변혁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물론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실천활동은 주위세계의 객관적조건을 전제로 하며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주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주동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리용하고 불리한 조건은 극복하면서 세계를 개조하는 실천활동을 벌려나간다.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들의 실천활동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자주적요구가 높아질수록 실천활동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나라 속담에 말타면 경마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한가지 욕망이 실현되면 보다 높은 새로운 욕망

이 생기며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의 생활적요구는 계속 커지는것이 합법칙적이다.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생활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정복하는 실천활동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생산과 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사람의 실천활동은 창조적인 성격을 띤다. 실천활동의 창조적성격은 그것이 기성의 형태로 주어져있지 않는 새로운 사물현상을 만들어내는데서 나타난다.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실천활동의 결과로 기성의 사물현상대신에 사람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물현상이 창조된다.

지난날 로동계급의 철학사상이 나오기 전의 어느 한 철학자는 리론활동만이 참으로 인간적인 활동이고 실천활동은 《더러운 유태인적》리기주의의 발현이라고 말하였지만 그자신도 근로인민대중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창조된 물질적향리품이 없이는 생존자체와 리론활동이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인류사회의 전력사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여온 력사이다. 인류력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재부를 만들어왔으며 낡은 사회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실천활동으로 사회적진보를 이룩하여왔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실천활동과정에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또한 장성강화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강화되는데 따라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실천활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인류사회의 초시기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실천활동은 돌로 만든 유치한 로동도구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생산물을 얻어내는 정도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은 점점 증대되였으며 오늘 인류는 들에서 비날론솜을 생산하고 유전자공학, 세포공학적방법으로 시험관안에서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내며 우주비행선을 만들어 달나라를 려행하고 사람의 육체적동작과 일부 지능을 대신하는 자동기계인 로보트까지 만들어 리용하는 수준으로 창조활동이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우리의 영웅적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당이 안겨준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또하나의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군인들은 또한 서북쪽으로 흐르는 대령강물줄기를 반대방향으로 돌려 새로운 형의 태천발전소를 건설하고 서해간석지를 개간하여 조국의 지도를 변경시키는 거창한 규모의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려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사람의 실천활동이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자연의 사물현상들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여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전환시키는 창조적성격을 띤다는것을 보여준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실천활동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된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적기관가운데서도 가장 발전된 기관인 뇌수의 고급한 기능이며 정신적작용이다. 사람은 사물현상의 속성과 운동법칙에 대한 지식과 특히는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을 전제로 하며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현상을 보거나 대할 때 자기의 일정한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대하며 이러한 사상의식에 의하여 추동되고 조절

통제되면서 실천활동을 벌린다.

본능에 의하여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의 활동과는 달리 사람은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한다. 사람은 행동하기전에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의 실천활동은 미리 세워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실천활동의 모든 계기들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이루어진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실천활동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실천활동의 목표와 계획을 달리 세우고 행동하게 된다.

실천활동에서 발휘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활동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며 여기에는 예상치 않았던 복잡한 정황과 여러가지 난관이 있게 되는것이다. 사람은 자기 활동을 의지적으로 조절통제하면서 복잡한 정황속에서 앞길을 개척하고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해나가며 세워진 목적을 실현해나간다. 세계를 개조하는 실천활동이 의지력으로 조절통제되게 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 어떠한 정황속에서도 사태의 본질을 옳게 분석판단하고 자기가 나아갈 앞길을 찾아내며 난관앞에 굴하지 않고 창조적적극성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그것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간다.

이와 같이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들의 실천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고 추동된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들의 실천활동, 실천투쟁이 노는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실천은 지식의 가치를 규정하는 척도이다. 사물현상의 본질과 합법칙성에 대한 지식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의 요구에 대답을 주기 위한것이다. 인식의 결과인 리론은 실천의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답을 줌으로써 실천의 성과적수행에 이바지한다. 실천의 요구가 없으면 인식이 있을수 없으며 실천에 복무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의의가 없는것이다. 지식의 참다운 의의는 그것이 자연과 사회의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있으며 실천에서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규정된다. 비록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운명개척을 위한 실천적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하는 지식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실천은 지식의 가치를 규정하는 척도일뿐아니라 인간개조의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난다.》(《영화예술론》, 단행본, 347페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뿐아니라 사람들자체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자연개조, 사회개조가 아무리 거창한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인간의 개조로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도 인간의 개조에 귀착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이 사람인것만큼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수 없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것은 사상이며 따라서 사람을 개조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을 개조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은 혁명적실천이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튼튼히 공고화되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것이다.

사람들은 가장 첨예한 혁명투쟁인 계급투쟁의 실천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고 적아를 옳게 가릴줄 알게 되며 계급적원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을 키우게 된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착취사회를 뒤집어엎는 혁명투쟁이나 제국주의침략자를 쳐부시는 혁명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만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로동과정에서도 이루어지는것이다. 사회적실천의 중요한 형태인 생산로동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생산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정신, 혁명적기풍을 지닐수 있다.

혁명적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실천과 행동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검증할수 없다. 사람의 사상의식은 눈으로 볼수도 없고 자로 잴수도 없다. 오직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사상적 립장과 태도, 견해를 전반적으로 판단할수 있다.

이렇듯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실천활동의 근본특성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사람의 실천활동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확립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힘있게 벌려 주체위업의 승리와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력사는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활동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 때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실천활동의 근본특성과 역할이 해명된것은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실천활동의 요인을 그 어떤 외부적인것에서 찾으며 인간활동의 본질을 외곡하던 온갖 그릇된 견해와 인간활동의 본질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지 못한 종래의 제한성을 극복되게 하였으며 인간활동에 대한 주체적리해가 하나의 체계를 갖춘 정연한 철학리론으로 전개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중심의 실천활동의 근본특성과 역할이 밝혀짐으로써 그 의의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는데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의 실천활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실천활동은 중요하게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태천발전소 건설, 간석지개간과 소금밭건설, 웅장한 광복거리 건설 등 방대한 경제건설을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우리 당의 탁월한 경제

건설작전에 따라 진행되는 이 방대한 건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 잘 풀고 로동당시대의 오늘과 함께 래일의 재부를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다시한번 떨쳐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실천활동의 담당자인 사람들을 높은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자연을 정복하는 실천활동에서나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의식이며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실천활동의 성과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지식과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지식과 혁명리론은 옳바른 목표와 방향,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게 함으로써 실천활동을 이끌어주는 지침으로 된다. 과학리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는 실천활동은 옳은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하고 암중모색하게 되며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려면 자연과학기술리론에 의거하여야 하며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실천에서 성과를 이룩하려면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실천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또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마련하며 객관적환경조건을 옳게 조성하고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실천활동은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일정한 자연적 및 사회력사적 환경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물질기술적수단이나 환경을 주동적으로 예견성있게 마련하는것은 실천활동의 필수적요구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사람의 힘을 적게 들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고속도화, 자동화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실천투쟁과 결부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하여야 한다.

실천투쟁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사람들이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고 집단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투쟁,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성스럽고 영예로운 투쟁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완성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쳐나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이 밝힌 실천활동의 본질과 특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것은 일군들의 중요한 혁명적사업기풍

염 기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서 당사업작풍을 바로세울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작풍을 옳바로 세워야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04페지)

당사업작풍을 옳바로 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일군들이 혁명적사업기풍을 가지고 주인답게 일하는것이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기풍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해야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기풍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발휘되는 사람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로서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상과 방법의 집중적표현이다. 일군들이 어떠한 사업기풍을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것이다.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한다는것은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면서 련이어 제기되는 새로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을수 있는 조건과 정황을 미리 타산한 기초우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책임적으로 집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것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세계관에서뿐아니라 투쟁기풍에서도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투쟁기풍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세계관과 함께 투쟁목적과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것은 혁명가들의 투쟁목적과 사명이 그들의 풍모와 활동방식을 특징짓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투쟁목적으로, 사명으로 하고있는 혁명가들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실현해나가는 창조와 변혁의 과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만족하는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싸워나간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설계하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관철해나가는것을 중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게 된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복잡하고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며 그것은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동반하는 어려운 투쟁이다.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쥐고있는 일군들이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확한 투쟁 방향과 목표, 그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옳게 찾아낼수 있으며 전진도상에 있을수 있는 곡절과 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한다. 혁명의 발전과 사회의 전진은 일군들앞에 새로운 방대한 혁명과업을 련이어 제기하며 그 수행의 조건과 환경도 시시각각으로 달라진다. 혁명은 일군들이 이러한 새로운 높은 요구를 끊임없이 수행해나가야 하는 련속적인 투쟁과정이다. 심화발전하는 혁명의 새로운 높은 요구를 실현하고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자면 일군들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데 만족해서는 안되며 보다 높은 목표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여야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련이어 제기되는 새로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관철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야 또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투쟁목표와 수행방도를 정확히 제시해줄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게 할수 있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은 바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예견성있게 모든 사업을 짜고들어 주인답게 일하는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책임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한다.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조직자이며 집행자이다. 만일 일군들이 당정책이 제시되면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워 관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렵고 쉬운것을 가리면서 되받아넘기는 식으로 일하여서는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아무리 당정책이 정당하여도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지 않는다면 있을수 있는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할수 없으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도 그것을 옳게 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없다. 오직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사업기풍을 가진 일군이라야 모든 문제를 기발하게 착상하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내여 불리한 조건과 환경도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으며 조성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근기있게 관철해나갈수 있게 한다.

일군들이 일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만

약 일군들이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지 않고 《5분열도》식으로 처음에는 바글바글 끓다가 새로운 다른 과업이 제기되면 하던 일을 중도에서 줴버린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일군들이 이것을 하라면 저것을 줴버리고 저것을 하라면 이것을 줴버리며 이쪽을 밀면 저쪽이 비뚤어지고 저쪽을 밀면 이쪽이 비뚤어지는것과 같은 식으로 일하여서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일관하게 관철할수 없다.

일군들은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여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 련이어 제기되여도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는것은 특히 현시기 중요대상건설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중요대상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1980년대경제건설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보람차고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우리는 중요대상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한편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다그쳐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점령해야 할 투쟁목표가 방대하고 해결해야 할 혁명과업이 복잡하게 제기되는 조건에서 모든 단위,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과 건설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할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리용하여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일군들이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통찰력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언제나 혁명의 현재와 가까운 장래뿐아니라 여러 단계의 혁명실천을 거쳐야만 가닿을수 있는 먼 장래까지도 투철하게 내다보시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였으며 그것을 주체적립장에서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조선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장래발전전망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가장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밝히신 로선과 정책들은 그 모두가 사회력사발전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내놓으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한단계의 혁명임무를 제시하면서도 다음단계의 혁명임무를 미리 구상하시고 그 준비를 예견성있게 최대한으로 성숙시켜나가시였다. 해방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제시하고 그 성과적수행을 조직령도하심에 있어서도 수령님께서는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시였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그 승리를 확고히 예견하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시는 대담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앞날에 대한 확고한 전망과 필승의 신념, 뚜렷한 목표와 투쟁방도를 가지고 열정과 신심에 넘쳐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로선과 방침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발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규정하고 그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전반을 령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의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비결이 혁명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여 가장 정확한 투쟁구호와 방침을 제시하고 관철하는데 있다는데로부터 하나의 혁명과업을 제시하고 령도하면서도 보다 높은 단계의 혁명과업을 설계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절대적진리로 접수되여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예견성으로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음으로 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우리 혁명은 무수한 기적과 위대한 창조물들을 낳으면서 높은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업을 조직하는데서 언제나 심중하며 과학적 예견성과 계획성, 구체적타산력을 가지고 일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하고 통원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5페지)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심장깊이 간직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닐 때 일군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투쟁하게 되며 거기에서 삶과 투쟁의 참된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지휘관이였던 오중흡동지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모든 전투와 생활을 예견성있게 조직진행함으로써 아무리 불리한 조건과 정황이 조성되여도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을 어김없이 관철하였으며 사령부의 안전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오중흡동지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성장하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터운 신임속에서 살며 일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정치실무수준을 굽임없이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은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기 위한 실제적담보이다.

아는것은 힘이며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아는것이 많고 실력이 있어야 당에 실제적으로 충실할수 있다. 일군들이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실력이 딸리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못하면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할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말로는 충실성에 대하여 웨칠수는 있어도 실천적으로는 당에 충실한 일군으로 될수 없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면 일군들이 무엇이나 환히 꿰뚫어보고 사업을 예견성있게 조직진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혁명임무를 손금보듯이 알고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것만큼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쥐고있는 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을 모르고서는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예견성있게 짜고들수 없으며 그 수행을 위한 옳바른 방도를 찾아낼수 없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전당이 학습할데 대한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기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사업을 정확히 예견하고 빈틈없이 조직하며 어김없이 집행할줄 아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모가 나게 집행하는것이다.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모가 나게 집행하는것은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집행해나가야 련이어 제기되는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만약 일군들이 사업에서 선후차를 옳게 가리지 못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오늘은 이것을 하고 래일은 저것을 하는것과 같은 주먹구구식방법으로 일한다면 복잡하게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어느 하나도 똑똑히 수행할수 없다. 지도일군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수록 사업을 깊이 연구하여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모가 나게 집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이 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은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불타는 열정의 산물이다. 일군들은 언제나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책임성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이 안겨준 높은 정치적신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일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과 혁명전통계승문제

리 수 근

혁명전통의 계승문제는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인 위업입니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8권, 408페지)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전진하도록 그 명맥을 이어주는 력사적원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자라나며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혁명전통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가지고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전진하게 되며 종국적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대를 순결하게 이어나가게 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우선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위업이 전진하고 완성되여간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시기에 수령에 의하여 형성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며 그에 기초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한다. 수령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참답게 개척되고 혁명의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투쟁방침이 혁명실천에 구현되는 과정에 불멸의 혁명업적과 귀중한 투쟁경험들이 쌓아지게 된다. 수령이 창시한 사상리론적재부와 혁명업적들은 그 혁명성과 과학성, 불멸의 생활력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깊고 억센 뿌리인 혁명전통을 이루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수행되는 력사적과정은 곧 혁명전통이 구현되는 과정이다. 혁명전통에는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풍부한 재부들이 담겨져있다. 거기에는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혁명발전의 고귀한 밑천으로 되는 혁명업적과 경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비롯하여 혁명투쟁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재부들이 담겨져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행정에서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혁명적재부들이 구현되여 열매를 맺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혁명이 심화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혁명전통이 노는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더 커진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과정에 혁명실천에 구현되여 더욱 풍부화되며 심화된다. 발전풍부화된 혁명전통을 튼튼한 밑천으로, 힘있는 추동력으로 하여 혁명위업은 새로운 보다 더 높은 단계에로 힘차게 전진하게 된다. 혁명위업이 전진하는 과정에 혁명전통이 발전풍부화되고 발전풍부화된 혁명전통을 밑천으로 하여 혁명위업이 더 빨리, 더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되는것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위업의 계승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최종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는데 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정복하며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과 물질적조건,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이 방대한 과업은 한 세대나 한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으로 끝낼수 없으며 여러 세대, 여러 혁명단계를 거쳐서만 완성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장기성으로 하여 그 수행에서는 계승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완성되기까지 거치게 되는 모든 혁명단계들은 서로 련관되여있다.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업적과 경험은 다음 단계의 혁명발전을 위한 밑천으로 된다. 혁명의 다음 단계에서는 선행단계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의 전진을 이룩하게 된다. 그리하여 혁명발전의 선행단계와 다음 단계 사이에는 계승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혁명단계들 사이에 계승성을 가지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일관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위업은 세대가 바뀌고 여러 혁명단계를 거쳐도 하나의 련속된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바로 혁명위업의 계승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시원으로 하여 전진하며 혁명전통을 혈통으로 하여 혁명의 세대와 세대, 혁명발전의 단계와 단계를 하나로 련결시켜준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오직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그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내세

을 사상과 목표, 업적이 변함없이 고수되고 확고히 견지될수 있다. 그리하여 아무리 장기성을 띠고 여러 차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혁명단계가 바뀌여도 혁명위업은 그 완성에 이르는 전력사적과정에 계승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된다. 이렇듯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사회의 민주주의적변혁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구현하고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를 우리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주체의 혁명전통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하신 당건설위업과 공산주의위업의 계속이며 그 완성을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혁명강령이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주되는 내용을 이룬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가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인식할수 있게 되며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옳게 체득할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며 자기의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활동하게 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준엄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게 된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또한 당건설과 당활동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건설과 당활동을 주체의 사상, 리

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과 함께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혁명대오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워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키우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밑천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또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자주적으로 세우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경험,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당건설과 당 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재부들이 풍부히 담겨져 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귀중한 재부들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때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담보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은 주체사상이 창시되여 우리 혁명에 구현되는 과정이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된 그때에 벌써 우리 혁명은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게 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확고히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당면한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사상을 확고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이 밝힌 목표와 방향에 따라 옳바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성스러운 임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습니다.》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이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힘의 력사적원천으로 되며 만대를 두고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할 혁명적유산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으로 계승해나가는 것이다.

주체의 혁명전통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된 매우 심오하고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 위대한 전통이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형성된 생활력있는 전통이다. 주체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주체의 사상체계를 비롯하여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모든 혁명적재부들은 어느 하나의 혁명단계에서만 의의를 가지는것이 아니라 주체위업의 완성에 이르는 전행정에서 영원한 생활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주체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다방면적인 혁명적재부들을 그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계승해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항구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그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주체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해야 우리 당과 혁명은 주체의 혈통만을 이어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에는 오직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전진시켜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사상과 업적,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사상과 업적만이 포함된다. 우리 당과 혁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마련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를 이어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역으로 등장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하였던 그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된다.

현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진행하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진행한다는것은 항일의 혁명전통뿐아니라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가지고 교양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진행하는것은 혁명의 끊임없는 전진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진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과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업적과 경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과정에 쌓아올리신 업적과 경험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그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은 실천활동에 구현되지 않고서는 계승발전될수 없다.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은 그것에 담겨져있는 혁명적재부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항일유격대의 사업기풍, 생활기풍, 학습기풍대로 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억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전통을 계속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불굴의 혁명정신

리 춘 상

우리 당은 자기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때로부터 6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조선혁명의 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다. 이 빛나는 로정우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실현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마련되고 계승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시는 충성심이 영원불변의 것으로 억세게 뿌리내리였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대오는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관계로 굳게 결합된 불패의 대오로 다져졌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간고한 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조선혁명은 우리들에게 혁명의 개척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불굴의 혁명정신을 금임없이 계승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정신은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며 령도자의 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다.

공산주의혁명가는 자기 령도자의 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령도자가 개척한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혁명투사이다. 혁명가들의 투쟁과 생활 과정에는 수령과 전사사이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혁명정신, 불굴의 혁명정신이 나오게 된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그들이 지닌 혁명정신에서 근본을 이룬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님으로써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혁명의 진두에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이였다. 령도자와 혁명전사사이의 혼연일체의 관계속에서 발휘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 불굴의 혁명정신은 강도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수난당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혁명을 오직 주체의 한길로 전진시킬수 있게 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수령의 유일적령도에 대한 충실성의 높은 발현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의 실현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며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이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로부터 로동계급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자기의 계급적 요구와 리익을 자각하고 낡은 제도와 반혁명세력을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상 수령의 위업이다.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길이 곧 수령에

게 충성다하는 길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이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바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확신한데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된것은 령도자를 모시려는 피타는 갈망과 념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은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처럼 하여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페지)

1920년대중엽 우리 민족의 처지는 헤아릴수 없이 참담하였다. 온 나라는 피바다에 잠기고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본질적약점으로 하여 실패와 교훈만을 남기며 쓰라린 진통을 겪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찾은 심각한 교훈은 바로 진정한 령도자를 모시고 령도자의 두리에 뭉쳐싸울때 혁명의 앞길을 개척할수 있고 도탄에 빠진 나라의 운명을 건질수 있다는것이였다. 령도자를 모시려는것은 조선의 젊은 세대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피타는 갈망과 념원으로 굳어졌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암흑과 절망이 무겁게 드리웠던 이 땅에 조국광복의 서광이 비끼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고 따르게 된것은 우선 그들이 혁명의 출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조선이 나아갈 진로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기때문이다.

화성의숙에서 활동하던 당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1926년 10월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으며 주체적인 《ㅌ.ㄷ》의 강령을 선포하시여 새로운 혁명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이 력사의 새벽길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참답게 이끌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고 따르게 된것은 또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에 의하여 혁명가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인간의 존엄과 참된 삶을 지닐수 있게 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에 큰뜻을 품고 찾아오는 동지들을 한품에 안아 그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였으며 조국광복의 길에서 혁명가의 삶을 빛내이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지난날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품은 진정한 혁명의 품이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주는 따사로운 품이였다. 이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에 안긴 순간부터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가슴속에는 령도자의 은덕과 배려에 보답하려는 혁명적의리의 정신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투쟁의 불길속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없는 공산주의자의 가장 깨끗하고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낳게 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준엄한 투쟁의 실천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깊이 간직하고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혁명의 혁명기를 찬란히 빛내인 조선의 참다운 첫 혁명가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된 혁명가의 전형은 김혁, 차광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혹암밑에서 신음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향도성으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령도자,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러러모시고 충성으로 받드는 혁명전사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혁명의 령도자를 모시고 받드는것은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을 보장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개척과 그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간고한 항일혁명은 혁명의 령도자를 모시는 문제를 조국과 민족,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로 제기하였다.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유일한 령도자로 받들어모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훌륭히 실현하였다.

20대의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맞이한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신념과 의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추대하였던것이다.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해방의 구성으로 얼마나 높이 존경하며 신뢰하였는가 하는것은 수령님의 존함을 민족의 밝은 태양이라는 뜻이 담긴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고 령도자를 칭송하는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보급한데서 여실히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유일한 령도자로 모시기 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서 령도자를 옹호보위하는데 혁명전사의 빛나는 삶이 있고 혁명의 밝은 미래가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권위와 위신을 철벽으로 지키며 억세게 싸워왔다.

시위투쟁의 거리마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육탄의 호위진을 치고 수령님께서 가시는곳마다에 신변호위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였으며 혁명조직의 비밀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지켜낸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여 높이 받들어모신 그들의 투철한 자세와 립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의 투쟁과 생활에서는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자!》라는 구호가 시종일관하게 견지되였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보장하려는 충성의 일편단심이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신 여기에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이 있으며 그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의 위대성과 영원불멸성이 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또한 혁명의 령도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옹호고수하는것을 혁명적본분으로 삼고 그 실현의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나가는 혁명전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령도자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고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혁명하는 전사들에게 있어서 령도자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으로, 혁명적의무로 된다.

력사의 갈림길에서 향방없이 헤매던 조선의 열혈청년들과 인민들은 시대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창시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력사적사변을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실현하는것을 떠나서 조선혁명의 발전과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대로만 살며 투쟁하는것, 이것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신념이고 의지였으며 기풍이였다.

그들은 걸음마다 사선과 혈로를 헤쳐야 하는 그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체득하는것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여기였고 광범한 군중속에 침투시키는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고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상을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도 바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동족에게 총질도 서슴없이 하며 폭행을 감행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도 정면대결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는데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그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속에서 우리 혁명의 자주적인 진군길이 열릴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이 정당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불굴의 투쟁기풍이 주체형의 첫 혁명대오에 차넘치고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한별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이라면 그 어떤 험한 산악과 진펄도 넘고 헤치며 백색테로와 단두대 앞에서도 한별동지께 다진 맹세를 지키는것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변함을 모르는 신조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과 명령, 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두려움을 모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해나가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영웅적투쟁이 벌어짐으로써 조직을 확대하고 대중을 혁명화하며 무장을 획득하고 혁명대오의 핵심을 키우는 등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이 철저히 실현되여나갔다. 이 절대적인 충실성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더욱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우리 혁명에서 백전백승해나가는 고귀한 전통이 세워지게 되였다.

참으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자기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혁명전사의 참다운 구감을 창조하였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남으로 하여 이 땅우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진하며 승리하는 위대한 령도의 력사가 펼쳐지고 령도자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영생불멸의 전통이 창조되였다.

이것으로 하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위훈이 그처럼 빛나고 그들의 혁명정신이 만년재부로 길이 전해지고있는것이다.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불굴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변함없이 계승발전되여왔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찬란한 빛을 뿌리였다.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60성상이 지나갔으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간 참다운 청년전위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이다. 이것은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당의 위력은 곧 혈통의 위력이며 당의 전도도 혈통의 계승에 의하여 담보된다. 혁명적당을 건설하며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옳바른 혈통을 가지며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당중앙의 옳바른 방침과 령도밑에 혈통을 계승하는 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위업 계승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천수만의 혁명가들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밑에 령도자를 받드는 하나의 대오속에 굳게 결속된것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그대로 상징하고있다.

시대는 달라지고 혁명의 세대는 바뀌였으나 향도자의 위대한 령도속에서 1920년대에 형성된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 변함없이 고수되고 계승되고 있으며 수령의 유일적령도의 고귀한 전통이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구현되여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데서 기본의 기본을 쟁취한 가장 큰 전취물이며 끝없이 귀중한 재부이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는것은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들앞에 나서는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령도자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변함없이 싸운것처럼 우리는 산악과 진펄길을 걷고 그 어떤 발랍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우리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드는것을 철석의 의지로 삼고 투쟁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혁명전사들이 지닌 불굴의 혁명정신의 숭고한 높이가 있고 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혁명가들의 투철한 자세가 있다.

우리 당이 이끄는 혁명의 길은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한별동지를 따라 《ㅌ.ㄷ》의 기발을 높이 들고 헤쳐나아간 그 진군길의 계속이다.

우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높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오직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 당이 이끄는 혁명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나갈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기치따라 백두령봉에서 시작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의 혁명전사들이 지닌 혁명정신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유 시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스물다섯해가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확립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혁명적변혁이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 결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으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다그칠수 있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우리 당의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 *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며 그것을 옳게 해결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립한 다음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85페지)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 당앞에 나서는 주되는 혁명과업이 주권문제를 해결하고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제반 사회경제적개혁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는데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생산과 관리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낡은 생산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것이 보다 전면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앞에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경제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

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관리체계와 함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와 과학적인 계획화체계를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정확한 지도관리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여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 따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며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과학적해명을 주시고 경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관리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이룩한 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수행에 탁월한 기여를 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길을 새롭게 개척한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경제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를 실현하여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실천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명을 요구하는 원칙적문제이다. 지난날에는 사회주의경제관리사업이 행정실무적, 경제기술적인 사업이라는 견해와 관점이 지배적인것으로 되여있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실천에도 그대로 반영되여 행정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체계를 세우고 행정적인 방법, 경제기술적인 방법을 위주로 하여 경제를 지도하며 관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은 경제관리에서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개인리기주의와 같은 자본주의적요소를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없었으며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없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깊이 분석하시고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원칙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주며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리론과 실천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사상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을 대중령도분야에 구현하는 령도원칙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게 되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여 그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이 제시된 결과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를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정확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 이바지한 불멸의 사상리론적 업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원리에 새로운 과학적해답을 주시였을뿐아니라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문제를 실천적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선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관리체계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을 이루며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군중로선을 관철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위원회가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장악통제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허용하지 않으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기업을 관리운영해나간다.

이처럼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통하여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널리 참가하게 하므로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와 함께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인것으로 하여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다. 이것은 대중을 의식화하여 그들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생산과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참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업적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업적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하는 원칙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힌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홀시하고 공산주의적성격만 보거나 반대로 공산주의적성격을 홀시하고 과도적성격만 보고 정책을 세운다면 좌우경적오유를 범할수 있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3페지)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가지고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확립된 사회주의제도

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에 맞게 경제를 지도관리하는 옳바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우리 당이 밝힌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고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에 맞는 정당한 경제지도관리원칙이며 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경제지도관리원칙이다.

우리 당이 새롭게 밝힌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우선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들을 다같이 고려하고 그것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으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집체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고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으로부터 행정적, 경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실현하며 기업소들에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주고 경제공간을 옳바로 리용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나서는 문제들도 정확히 풀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밝힌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이와 함께 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동하여야 한다. 그래야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고수하고 혁명의 근본리익을 옹호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경제관리에서 당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영활동을 진행하여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행정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의거하여 행정지휘관의 통일적지휘를 보장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함으로써 전반적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 교양과 통제 등을 옳게 배합하여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이처럼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을 새롭게 밝히고 그에 맞게 경제를 지도하며 관리하는 옳바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사회주의적원칙과 객관적경제법칙에 따라 훌륭히 관리운영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업적은 또한 집단주

의적, 공산주의적 원칙을 구현한 경제관리형태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발전완성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를 성과적으로 푼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해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반영한 경제관리제도가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 과도적성격을 반영한 경제관리제도가 점차 극복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합법칙적과정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발전완성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이 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반영한 경제관리형태를 창조하는것이다.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의 창조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그것이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면서 공산주의적경제관리에로의 이행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공산주의적원칙을 많이 체현하고있는 독창적인 기업관리형태이다.

공산주의적경제관리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널리 참가시켜 집체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며 사람들을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는 경제관리체계를 세움으로써 공산주의적경제관리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이것으로 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같이 대표하는 훌륭한 경제관리형태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의 길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전적으로 맞으며 확립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리론과 체계에 의거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틀어쥐여야 할 중요한 고리는 련합기업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이다. 그것은 경제규모가 커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계획화사업과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련합기업소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더욱 빛내여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중소규모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은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과업

리 충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력공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력공업건설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동력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되고있는 오늘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와 그 발전전망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면서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대규모의 발전소건설과 함께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력공업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는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512페지)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하는것은 전력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원래 전력공업을 건설하는데서 발전소의 규모를 규정하는 객관적요인으로는 전력에 대한 수요의 크기와 동력원천의 규모, 전력생산의 기술장비수준과 설비의 능력, 부하소요지의 배치상태 등이 작용하게 된다.

대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은 단위능력당 건설비와 단위당 원가가 낮고 새 기술 도입과 생산조직, 동력공급조직을 개선하는데서 매우 유리하다. 그러므로 대규모발전소는 전력에 대한 국가적수요의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전력공업이 의거해야 할 기본적인 전력생산조직형태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오늘 늘어나는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더 빨리,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발전소건설과 함께 수력, 화력, 풍력, 조수력 등 온갖 동력원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도처에 중소규모의 전력생산기지를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하밀도가 적고 도중 손실이 많은 지방과 농촌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하소요지에 있는 동력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은 적은 자금으로 짧은 기간에 지방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기술경제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지방마다에서 유휴자재를 비롯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고 광범한 군중을 적극 발동하면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자체의 힘으로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 더우기 관개공사와 강하천정리, 큰물피해방지 등 종합적인 수리경제건설사업과 결부하여 진행할수 있으므로 자금과 자재, 로력과 설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빨리 건설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많이 건설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 강하천과 저수지가 많고 관개수로가 모든 지방에 뻗어있는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는 수력자원이 있다. 또한 중소발전설비를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고 도처에 기계공장, 전재공장들이 꾸려져있으므로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능히 생산보장할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여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을 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한다면 동력원천지와 소비지에 전력생산을 더욱더 접근시키고 전력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며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의 전력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칠뿐아니라 지방의 전반적발전,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이르는곳마다에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되여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받들고 온 나라의 모든 지방에 새로운 중소규모발전소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다. 특히 량강도에서만 하여도 수력자원이 풍부한 도안의 실정에 맞게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다그쳐 수십개의 대상을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관철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동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계속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력공업건설정책을 확고히 틀어쥐고 전력생산능력을 다른 부문의 공업생산능력에 확고히 선행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과 장성하는 동력수요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여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중앙에서도 하고 도, 시, 군에서도 하며 기업소단위로도 하고 몇개 공장, 기업소가 힘을 합쳐서도 하며 협동농장들에서도 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지방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 방법으로 늘어나는 동력수요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전력공업건설정책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는 지방마다에 자체의 동력생산기지

를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지금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상건설이 착공되여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그중 많은 중소형발전소는 언제, 수로, 발전기실 등 구조물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나 준공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중소형발전소건설은 량강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량강도에서는 올해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책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이 신작취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이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중적운동으로 중소형발전소를 광범히 건설한다면 여기에서만도 막대한 전력을 얻어내여 나날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지방의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 진행하는 중소형발전소건설은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만이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지방의 기관, 기업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 대상과 과제를 옳바로 주며 로력과 자재, 기술수단 동원대책을 바로세워야 짧은 기간에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진행할수 있다. 특히 매개 단위들이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다그칠수 있도록 자재보장사업을 선행하고 로력조직을 짜고드는 등 경제실무적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전력자원을 조사장악하고 발전소위치를 선택하는데로부터 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앞선 단위들의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경험과 운영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옳바로 적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설비생산을 앞세우는것이다. 수차와 발전기, 변압기와 같은 설비생산을 앞세워야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빨리 추진시킬수 있으며 시공이 끝나는 차제로 인차 전력생산을 보장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를 생산보장하는 전문적인 설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수차와 발전기, 변압기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할수 있다.

이와 함께 설계를 앞세우고 시공지도를 강화하며 건설과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매개 지방의 지대적특성과 기후적조건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건을 잘 타산하여 건설 형식과 방법을 잘 적용하며 건설사업을 책임성있게 보장해야 한다. 하나의 작은 발전소를 건설하여도 나라에 보탬이 되고 인민생활에 도움이 되게 실속있게 똑똑히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은 지방정권기관들이 책임지고 조직집행해야 할 사업이다. 지방정권기관들이 인민생활과 지방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는 일군들자신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은 강하천이 많은 산간지대에서만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중소규모발전소는 산간지대는 물론 중간지대와 평야지대 그 어디에서나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로력, 자재,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걸린 고리를 어께를 들이밀어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전력자원을 많이 가지고있는 지대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은 될수록 국가에서 전기를 받지 않고 자기 지방의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한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발전소건설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운영하고있는 량강도 보천군의 경험은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발전소건설사업을 짜고들며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 그 어디에서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천군안의 지도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발전소건설사업을 힘있게 내미는 한편 지방의 예비를 널리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린 결과 짧은 기간에 여러개의 발전소를 건설완공하여 전력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다. 보천군 일군들처럼 중소형발전소건설에 대한 옳은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한다면 이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앙공업의 기술적지원과 사회적로력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중앙공업의 기술적지원과 사회적로력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 로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건설된 중소규모발전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중소규모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비록 신비한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과학기술이 요구되며 발전기와 변압기, 수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전기설비들과 기자재들이 있어야 한다.

중소규모발전소를 건설하는 단위들 특히 농촌들에서 전기설비를 자체로 해결한다는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발전소의 건설뿐아니라 그 관리운영에서도 기술적지도를 안받침하여야 건설된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중소동력기지를 사회주의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것은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위한 지방의 창발성을 물질기술적으로 안받침하고 건설된 발전소들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며 비교적 공사가 크고 자금이 들어야 하는 중소전력자원개발을 국가가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중소형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를 비롯한 설비, 자재들과 발전소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문제들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권기관들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더 잘 보장하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서야 한다

로 상 호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전례없이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발전하는 현실과 제기된 혁명임무는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교양자이고 기수입니다. 그런것만큼 당일군들은 마땅히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선다는것은 전진하는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모범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한다는것을 말한다.

기발을 들고 대오의 앞장에 서는것은 당일군들이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사업기풍이며 일본새이다.

당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 관한 문제는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가 아니면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자리지킴이나 하는가 하는 문제로 된다.

당일군들은 해당 지역, 해당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투쟁의 기수이다. 당은 당일군들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을 움직여나가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실현해나간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당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때문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나가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야 그 어디에서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단위이며 군안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집행단위이다. 군당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상 특성과 임무의 중요성으로부터 군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서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군중을 이끌어나가야 군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라의 200분의 1 지역에

서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는 당과 수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서서 패기와 정열에 넘쳐 투쟁함으로써 당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금야군당위원회도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일정한 경험을 체득하였다.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서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대중이 고도의 자각성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준것이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교양자이며 정치사업은 당일군들의 본분이다.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떠밀어주어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투쟁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은 어떤 사업을 조직전개하든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인식시켜 그들로 하여금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군당위원회는 당일군들에게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나가는것이 대중동원에서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해설선전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우리는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서는것이 대중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며 말겨진 혁명초소에서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는것을 칠저히 인식시키였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사업을 잘하고있는 당일군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힘있게 벌리였다. 이러한 정치사업은 당일군들로 하여금 기발을 들고 앞장서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게 하는데서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주인인 사람부터 움직이고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며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모든것은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상이 힘을 낳고 기적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지방예산수입으로 군자체의 살림살이를 해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많이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청량음료와 기름을 판매실현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높이는데서 걸리고있는것은 유리병수요를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로동자, 기술자들 속으로 들어갔다.

군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청량음료와 기름을 다량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며 그것을 상업적으로 실현하여 예산수입을 높이자니 절린것은 유리병이다. 많이 요구되는 유리병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만들어쓸 방도가 없겠는가, 우리는 협의를 계속하고 토론을 거듭하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발성을 적극 계발시켰다.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것은 당조직의 믿음이다. 특히 그것은 오랜 기술자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줄 때 그들은 어머니당의 손길을 뜨겁게 느끼며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헌신성과 고도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어느 한 기술자와의 사업과정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는 그 기술자에게 당적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고 필요한 조건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군안에 있는 원료를 가지고 유리병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 지난 시기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그가 이룩한 성과도 공정하게 평가해주었으며 당원의 영예를 지닐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

군당위원회가 믿어주고 군당책임일군이 이끌어주는데서 고무를 받고 힘을 얻은 그는 고심어린 탐구와 이악한 노력으로 마침내 우리 군의 백산지구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돌을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낼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되였다. 참으로 그것은 기발한 착상이였으며 혁신적인 발기였다. 군당위원회는 그의 착상과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완성하며 생산공정을 꾸리는 사업도 힘있게 밀어주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방원료를 가지고 자체로 유리병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방예산수입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현실은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제기된 사업의 중요성과 목적을 옳게 인식시키고 광범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킬 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에 바로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서는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당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주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도록 한것이다.

명확한 과업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포치하고 전개하며 대중을 발동하는것은 당일군들이 어떤 일에서나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하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당일군들이 똑똑한 과업과 수행방도도 대주지 않고 덮어놓고 하라고 내리먹이기만 하거나 방법론을 세워주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추궁만 하여서는 일이 제대로 될수 없다. 명백한 과업과 함께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워주면서 사업을 포치하고 조직전개해나가야 어떤 사업에서나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군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제기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겠는가 하는 옳은 방법론을 주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전에 벌써 금야군은 벌도 넓고 땅도 비옥한데 농사를 잘 지어야 하겠다고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응당한 높이에 끌어올리지 못하고있었다.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다. 그런것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여야 긍정적결과를 얻을수 있다. 정보당 수확고가 오르지 못하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우리는 전문일군들과 함께 토양분석

도 해보고 기술자들도 만났으며 실농군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야강, 덕지강 류역과 해안연선에 형성된 금야벌은 해하성충적지로서 땅속에 많은 량의 류화수소가스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벼뿌리썩음병이 심하게 생겨 초기생육은 좋다가도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보당 수확고가 떨어진다는것을 알아내였다. 땅속의 류화수소가스를 배출시켜 벼뿌리썩음병을 막자면 흙갈이를 하여 땅을 개량하여야 하였다.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 흙갈이를 무슨 수단에 의거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아득하게 펼쳐진 허허벌판에는 원토장으로 될만한 땅이 없었고 따라서 수십리, 지어는 수백리밖에서 자동차나 뜨락또르로 흙을 실어다 흙갈이를 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가능성이 있는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사색하는것은 제기된 과업을 제때에 실속있게 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당정책에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사색하여야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법론을 찾아낼수 있다. 꾸준하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사색하면 반드시 기발한 착상이 나오고 좋은 방도가 탐구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연구를 거듭하고 사색에 사색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는 당이 밝혀준 삼화수송방침을 농촌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삭도를 설치하면 흙운반문제를 풀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였다.

삭도에 의한 흙깔이의 타당성을 체험으로 느끼게 된 모든 일군들이 해야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작업량이 하도 방대하고 조건이 불리하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조건은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된다. 사람들의 활동은 항상 구체적인 조건의 제약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려면 자체의 힘으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삭도를 설치하여 흙갈이를 한다는것은 막연하였으며 걸린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였다.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서 방도를 찾고 조건을 조성하며 방법론을 세워야 하였다.

방도는 과학적이여야 하며 실천적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과학적이며 실천적가능성이 있는 방도를 찾자면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독불장군이라고 당일군혼자서는 용빼는 재간이 없다.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의견에 기초하고 집체적협의를 강화할 때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고 정확한 방법론을 찾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갔다. 우리는 관리일군들과 협의도 하고 당원들과 사로청원들도 만났으며 마을의 로인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다. 방도를 찾고 예비를 동원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였다.

어떻게 하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하여 당과 수령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아글타글 애쓰며 이악하게 뛰여다니는 당일군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였다.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다. 삭도줄은 수산사업소들에서 폐기한 쇠바줄을 쓰면 될것 같다는 일군도 있었고 겨울동안에 놀고있는 탈곡장의 전동기로 원동소를 돌리자는 분조장도 있었으며 파철을 모아 농장의 수리분조에서 로라를 깎아쓰자는 사로청원도 있었다. 삭도탑은 통나무를 세우면 될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였으며 감속기, 권양기도 자체로 만들겠다는 결의도 나왔다. 토론과정에 사무실에 앉아서는 도저히 찾을수 없는 방도가

세기되였고 예비들이 쏟아져나왔다. 실로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고 힘은 군중에게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뚜렷한 방도를 가지고 삭도건설을 확신성있게 내밀수 있었다.

전형적인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해놓고 방법론을 가르쳐주며 그것을 일반화하여 전반적단위들을 추켜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군당위원회는 삭도설치의 시범으로 될 전형적인 단위를 바로 정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가장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우며 그러면서도 그것을 해야 할 가장 절박한 요구가 나서는 그런 단위가 바로 전형적인 단위로 되여야 하였다. 이러한 단위에 본보기를 창조하여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자기들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줄수 있었다.

그러한 단위로서는 벼의 뿌리썩음병이 제일 심하고 흙갈이면적이 가장 많은 성재리가 적합하였다.

우리는 성재리에 나가 이미 세워지고 탐구된 방도와 예비에 기초하여 그곳 일군들, 농장원들과 함께 덕지강을 '횡단하는 2천여메터의 삭도를 설치하고 군적인 시범방식상학을 조직진행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방식상학은 구체적인 방도를 배워주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체득시키는데서 효과가 컸으며 반영도 좋았다.

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납득시키고 할수 있다는 신심도 안겨주었으며 방도도 명백하고 방법론도 선것만큼 군안의 전반적리들에서 삭도를 설치하여 흙갈이를 하는데는 크게 걸릴것이 없었다. 이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군당집행위원회에서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고 사업을 포치하였으며 논농사를 위주로 하는 모든 리들에서 삭도공사에 달라붙도록 과업을 주었다. 전반적농장들에서 삭도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성재리, 진수리, 구룡리, 룡산리를 비롯한 20여개의 농장에 총 연장길이 200여리에 달하는 삭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흙갈이작업을 할수 있었다. 결과 토양의 물리화학적조성은 개량되고 땅의 지력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정보당 1.5톤~2톤이상의 벼를 증수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600여정보의 재배원료기지도 개간하였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원료를 지방산업공장들에 넉넉히 대주어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과업을 주고 지시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방도와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주는것이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였으며 당의 방침대로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다는것을 체험하게 되였다.

실천적경험은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서서 방법론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을 불러일으킬 때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서 앞장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사업과 생활, 로동과 학습의 모든 면에서 대중의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08페지)

당일군들은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불러일으키는 대중의 조직동원자이다.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조

직동원하는데서 당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게 된다. 당일군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거나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지시나 하고 요구만 하여서는 사업권위를 세울수 없고 발언권도 가질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일군의 말이 씨가 먹지 않고 날이 서지 않아 광범한 대중은 고사하고 한사람도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불러일으키자면 당일군자신이 먼저 기발을 들고 앞장에 나서야 하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늘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 군중은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치면 당일군들의 얼굴부터 쳐다보게 되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게 된다. 당일군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길에 불타는 강이 막아나서고 산악과 진펄이 가로놓여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내달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여야 군중도 더욱 용기를 내여 떨쳐나서게 된다.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당일군의 실천적모범은 그 어떤 일시적인 충동이나 공명, 영웅심에 의한것이 되여서는 안되며 그것은 오직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려는 뜨거운 마음의 발현으로, 사업과 생활에 일관된 지도작풍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군당위원회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기발을 들고나가는 당일군의 이신작칙이 일시적인것이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 일관된 확고한 지도작풍으로 되게 하는데 심중한 당적주목을 돌리였다. 우리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서는 허세를 부리면서 먼저 뛰여들다가도 누가 보지 않거나 대가가 없는 일에서는 몸을 아끼고 사리는 낯내기를 위한 《이신작칙》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였다. 그러면서 책임일군들이 아무리 바빠도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되거나 어렵고 힘든 과업이 나서면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모범을 보이는것을 철칙으로 삼도록 하였다.

당일군들은 앉아서 말공부나 하고 남들을 보고 하라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업을 잘하고 일을 본때있게 해제끼는 당일군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활동으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며 실지행동으로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옛날부터 일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 투신하고 모범을 보여야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당일군의 호소에 광범한 대중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군소재지와 비단리를 비롯한 농촌마을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여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보여준 실천적모범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면서도 조건이 절리고 경험이 없다는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고있었다.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 한두번의 포치나 조직사업만 하여서는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였으며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군당일군들로 건설력량을 묶고 책임일군들의 지도밑에 6층아빠트 한동을 먼저 건설하기로 하였다. 책임일군들이 블로크를 등에 지고 아침저녁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군당일군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이악한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지방자재로 살림집 한동을 건설하였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였다. 군당일군들의 실천적모범에 고무되여 군급기관 일군모두가 따라나섰고 기관, 기업소 종업원전체가 떨쳐나섰다. 사로

청원들이 궐기하였고 가두인민반원들이 분발해나섰다. 온 군이 살림집건설로 들끓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미 600여동에 800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였으며 더 많은 살림집을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실로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사람들이 당일군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호소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그것은 여러번의 조직사업보다 더 큰 은을 나타낸 힘있는 선동이였으며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실효를 나타낸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우리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을 가르치고 이끌어나갈 때 안되는 일이란 없으며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에 비할바없는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경험은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몸을 적시면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곳에서는 언제나 커다란 혁신과 거대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어떤 사업에서나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신임과 기대에 비해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군당위원회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서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발전시키고 새로운 성과를 부단히 이룩해나감으로써 우리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려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기발을 들고 나아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여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그 정당성을 확증하고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는 바로 여기에 당일군들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으며 실천행동으로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고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전사,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생산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

정 기 훈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침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주권을 잡은 첫시기부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혁명임무로, 당의 전략적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힘을 넣음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게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중대한 력사적과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인민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도,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5폐지)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과학과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이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고 경제건설의 그 어떤 목표도 점령할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높일수 없다. 최단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생산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옳게 인식하고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할 것이다.

(1)

과학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의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알아야 하며 이 법칙에 의거하여 객관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인류는 태고로부터 자연을 변화시키는 생산활동, 사회생활 과정에 자연과 사회현상들의 본질적속성과 운동법칙을 인식하게 되였고 그것을 개조하는 방법과 기능을 체득하게 되였으며 로동도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단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게 되였다.

과학은 바로 사물현상의 본질적속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지식의 체계이며 기술은 객관세계를 인간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구체적방법을 밝힌 지식과 사람의 기능, 로동수단들의 체계이다.

생산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자대중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그들

의 로동이 더욱더 능률적인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생산발전을 크게 다그친다는데 있다.

과학기술지식은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높아질 때 그들의 로동은 더욱더 힘있는것으로 될뿐아니라 생산자들이 기계설비를 더욱 능숙하게 다루고 모든 생산공정들을 더 잘 움직여나갈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로동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며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은 또한 원료, 연료, 동력 자원의 원천을 늘이고 그 새로운 개발과 리용 분야의 기술을 혁신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원료, 연료는 생산의 중요한 요소이다.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있는 오늘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푸는것은 생산발전에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현대 과학과 기술은 시초원료와 가공원료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품위낮은 광석을 비롯하여 이전에는 개발리용되지 못하던 광물자원들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리용할수 있게 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화학이 급속히 발전되고 합성수지를 비롯한 합성원료생산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생산력은 원료자원의 제한성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연료원천을 찾아내게 하며 태양열, 지열, 조수력, 풍력, 원자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동력자원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동력생산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다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에 의하여 종전에는 내버려두던 초무연탄을 연료로 널리 개발리용하고있으며 해양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동력자원을 인민경제에 널리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있다.

과학기술은 또한 기계설비들을 비롯하여 기술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생산발전에서 큰 역할을 한다. 생산의 발전은 로동도구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손로동이 기계로동으로 바뀌고 기계로동이 고도로 자동화된 로동으로 바뀌여지는것이 생산발전의 력사적로정이였으며 이러한 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 자동화, 로보트화할수 없으며 형단조화, 프레스화, 주물혁명, 용접혁명, 공구혁명을 실현할수 없다. 기계설비의 현대화는 바로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도입함으로써만 가능한것이다.

현시기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는데서 주목되는것은 전자계산기가 급속히 발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널리 리용되여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것이다. 전자계산기는 사람들의 정신로동을 대신할수 있는 기술수단으로서 그 개발리용은 20세기의 가장 큰 과학기술적발명의 하나로 된다. 전자계산기가 과학기술계산에 널리 리용됨으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일련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짧은 시간에 정확히 풀릴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되였다.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보트기술이다. 로보트는 사람과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높은 형태의 자동기계로서 적용범위가 실로 다양하고 넓다. 최초에 로보트는 주로 고열작업과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리용되였지만 지금은 제품의 설치와 해체, 이동, 조립, 용접, 프레스 등 여러가지 작업에 쓰이고있다.

특히 최근시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새로운 과학기술분야가 개척되여 생산발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인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은 실험실에서 수확고가 높은 새 품종의 농작물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특성의 생물체를

만들수 있는 높은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초고압물리학은 초고압에서 인조금강석과 같은 새로운 물질을 얻어내게 하며 극저온물리학은 극저온현상을 생산실천에 응용하게 함으로써 전기기계, 전자계산기 생산, 철도수송 등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리고 레이자와 플라즈마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레이자탐지기와 레이자통신장치가 새로 개발되고 재료절단, 특수용접, 야금 등에서 혁신이 이룩될수 있었다.

과학기술은 경영활동, 생산방법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게 함으로써 생산발전에서 거대한 역할을 한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기술에 토대하고있는 현대적생산을 관리운영하는 경영활동은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수단에 의거함이 없이는 옳게 전개될수 없다.

특히 경영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하여서는 기업관리에 전자계산기, 산업텔레비존, 무선전화기 등 현대적기술수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관리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수단들을 받아들여야만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고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 그 생산능률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생산실태를 제때에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종합하여 처리할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해서만 현대적인 경제를 보다 능률적으로 움직여나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2)

생산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날로 높아가고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생산을 더욱더 힘있게 추동하는 필수적구성부분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이 풀어야 할 어렵고 방대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생산잠재력이 매우 커진 조건에서 그것이 은을 내게 하자면 과학기술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은 대단하며 그것은 경제발전의 커다란 밑천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는 사업은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더 건설하지 않고서도 생산을 훨씬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며 이 사업은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야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우리가 기계공학과 전자, 자동화 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여 앞뒤처리공정을 비롯한 이빠진 공정을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기만 하여도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은 더 큰 은을 낼수 있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부문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과학이 요구되며 우리의 혁명과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는 과학이 요구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474페지)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지킨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기 인민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당의 의도,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현시기 과학기술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연구사업과 새 기술 탐구사업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과학, 기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그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적위력과 발전에 기초하여 작성된 당의 전략적로선이다.

우리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자원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결코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약화시킨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은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도 널리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새로운 과학과 기술은 사람들의 과학적사색과 탐구를 통해서 개발되므로 과학기술발전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주공을 담당한 핵심부대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의 성과가 좌우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로써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간다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깊은 사색과 창조적인 탐구정신으로 과학연구와 새 기술 탐구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은 인간의 지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 할 창조적사업이며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비상한 열정을 가지고 과학연구와 새 기술 탐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실천적성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와 새 기술 탐구사업의 성과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에 많이 관계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모두가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전공분야의 지식과 외국어, 최신과학기술을 깊이 소유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막히는데가 없는 유능한 과학기술일군이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발기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은 과학과 생산실천을 결합시키며 과학연구사업에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다. 우리는 4.15기술혁신돌격대, 2월17일과학자돌격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역할을 더욱 높여고 과학자들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간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사이의 창조적협조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과학과 기술을 원만히 발전시킬수 없다.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분위

기가 서고 군중이 기술혁신과 발명사업에 떨쳐나서야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우기 위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모든 생산자들이 한가지이상의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제기하고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현시기 대학을 비롯한 모든 기술인재양성기관과 과학연구기관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최신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과학기술핵심들을 빨리 키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현대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초과학의 성과에 토대하고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자립성도 기초과학분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초과학부문들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있으며 과학기술을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기술공학을 발전시키며 최신 과학과 기술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을 발전시키며 레이자와 플라즈마 기술, 원자에네르기와 태양에네르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원자에네르기리용과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들과 극초소형전자계산기를 계렬생산하며 공업로보트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과학기술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유능한 과학기술간부대렬을 늘이고 20대, 30대의 박사, 준박사들을 더 많이 키우며 나라의 경제발전의 전반적수준에 맞게 재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경제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현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의 높은 봉우리에 올려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구상이며 의도이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조직들이 얼마나 높은 당적관심을 가지고 과학기술사업을 힘있게 내미는가에 따라 과학기술사업에서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며 과학기술행정사업, 기술혁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발전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과학과 기술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앞으로 최단기간안에 과학기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확고한 전망이 열려져있다.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있으며 우리 당이 키워낸 125만의 인테리대군이 있다. 우리에게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그 어떤 과학기술의 요새도 능히 점령할수 있다.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당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의 더욱 높은 령마루에 올라설 때 우리 조국의 위력은 더한층 강화될것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더 힘있게 과시되게 될것이다.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량속

박 순 재

오늘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에 맞게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도덕은 사회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풍모의 하나이며 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인이다.

사람들의 인격과 풍모는 그가 가지고있는 세계관의 높이와 함께 도덕적완성정도에 의하여 규제되며 참다운 사회관계의 공고발전은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할 때 확고히 담보된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사상교양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일관한 방침이며 이 사업을 어떻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과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도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 *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을 살리고 새로운 공산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인간으로 키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도덕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집단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그것을 잘 준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문명정도와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참된 도덕을 귀중히 여기고 지켜온 문명하고 례절이 밝은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존중히 여기는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계승하여 내려오고있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89페지)

일반적으로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미풍량속은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권세와 재물을 탐내고 착취와 압박을 일삼는 착취계급은 미풍량속을 창조할수도 이어나갈수도 없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만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실천투쟁과정에 그 정당성이 확증된 진리에 의거하여 사람들사이의 참다운 관계를 맺고 자연과 사회를 자기들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간다. 그러나 착취계급, 지배계급은 언제나 력사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계급으로서 진리를 가리우고 허위와 기만으로 사람들사이에 서로 반목질시하게 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억제한다. 참된 도덕은 오직 사람들사이에 고상한

인간관계를 맺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근로인민대중만이 창조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 도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살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계급사회에서 도덕은 계급적성격을 띠며 누구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가에 따라 착취계급의 《도덕》과 근로인민의 도덕으로 나누어진다. 착취계급의 《도덕》은 《신의 의사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허황한 《리론》에 기초를 두고있다. 착취계급의 《도덕》은 또한 개인의 권세와 안일만을 추구하는 《도덕》으로서 사람들 호상간의 자각성에 의하여 지켜지는것이 아니라 강압과 재물에 의하여 유지된다. 그러므로 착취계급의 《도덕》은 도덕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회발전에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 아름다운 도덕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깨끗한 량심에 기초하여 지켜지게 된다.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사이에 의리를 잘 지키며 웃사람을 존경하고 언제나 생활을 검박하고 깨끗하게 하는데서 나타났다. 우리 인민은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아왔다.

이것은 력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지켜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미풍량속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 미풍량속은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온 사회에 화목하고 동지적인 분위기를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심으로써 더욱 개화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미풍량속은 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된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착취사회에서 생겨난것으로 하여 착취계급의 계급적영향과 당시의 시대적제약성을 받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미풍량속의 내용과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미풍량속의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측면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적극 살리도록 하시였으며 새로운 공산주의도덕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숭고한 도덕의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시대 참다운 인간들이 지녀야 할 공산주의도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지고 높이 발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대원들에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항일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과 풍습을 잘 알고 그를 존중하며 언제나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에 기초한 고상한 공산주의도덕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오안에는 혁명적인 도덕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새로운 공산주의도덕의 뿌리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고상한 도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도덕이며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고있는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의 민족적기상이 나래치는 시기에 봉건적인 유습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린 퇴폐적인 생활풍조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실

으로써 착취사회의 낡은 도덕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미풍량속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와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온 사회에 공산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공산주의도덕은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도덕이다.

도덕의 진보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어느 사회, 어느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는가 하는것과 어떤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게 된다.

공산주의도덕은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고있는 가장 숭고한 도덕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나간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준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빛내일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끝없이 경모하고 우러러받들며 수령께 영원히 충성다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도덕품성으로 된다.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들은 오늘 자기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어엿한 혁명가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주시고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의 발현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공산주의도덕은 또한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참다운 도덕이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있다. 공산주의도덕은 집단주의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개인의 향락과 안일보다도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귀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가장 신성한 도덕적규범으로 삼는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언제나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며 생활에서 검박하고 예절바르게 행동하는것을 숭고한 도덕적리념으로 여기고있다.

참으로 공산주의도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형성발전된 높은 형태의 도덕이며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고상한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도덕이다.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혁명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도덕과 사람들의 도덕풍모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고 조절통제되며 사상의식이 구체적인 품성과 행동으로 발현된것이다. 고상하고 진보적인 도덕은 사람들에게 높은 정신세계와 건전한 사상을 가지게 하며 부르조아도덕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 사상의식발전에 해독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자들속에서 부패타락하고 반동적인 낡은 도덕관념을 없애고 혁명적이며 아름다운 도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

다. 그래야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이 확립될 때 또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으로 전환될수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여 혁명위업이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된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을 살리고 새로운 공산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이 확립되여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소문없이 큰일을 해나가는 숨은 애국자, 공로자들이 수많이 나오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공산주의적미거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참된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미풍량속이 개화발전하고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과 풍습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있다. 부모를 존경하고 동지들간의 의리를 지키는 미풍량속만 보아도 그 내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날 《효성》, 《효도》라는 봉건유교도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부모와 아들딸간의 관계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그 내용이 새롭게 이루어지고있다. 오늘 부모와 아들딸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관계로 더욱 굳게 련결되여있다. 동지호상간의 관계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도덕관계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공산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관점에 의하여 생긴 필연적인 결과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미풍량속이 개화발전하고 고상한 공산주의도덕기풍이 확립되여가고있지만 오늘 남조선에서는 외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세기적인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사회생활에서 건전한 모든것을 좀먹고있다. 돈과 권력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되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는 인간의 고상한 도덕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으며 온갖 패륜과 패덕이 성행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고결한 량심이 무참히 짓밟히고 권력과 재물이 판을 치며 개인리기주의사상에 물젖어 온갖 권모술수, 사기협잡, 살인과 강도 행위가 꼬리를 물고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범죄행위와 사기협잡도 꺼리낌없이 감행하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의리와 도덕, 량심까지도 저버리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지어는 돈을 탐내여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몇푼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부부간에 살해하는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전두환괴뢰도당이 말끝마다 《복지사회》라고 자랑하는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는 착취계급의 사상, 개인리기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는 썩어빠진 부르죠아도덕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고 참된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살리며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금임없이 강화하여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날을 따라 생활이 윤족해지고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교대자로 많이 등장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썩어빠진 부르죠아 도덕과 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청소년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20페지)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을 살리고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의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혁명적의리, 서로 믿고 도와주며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지적의리를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사람들이다. 혁명적의리는 공산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풍모이며 따라서 도덕교양에서는 혁명적의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도덕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킬 때 가장 문명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공산주의적도덕생활기풍을 온 사회에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다. 우리는 교통질서와 극장, 영화관, 역기다림칸 등 공중장소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며 공원, 유원지들에 설치된 공동시설물들을 무질서하게 다루고 되는대로 관리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하는 도덕품성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지난날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미풍량속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것은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새것을 창조한다고 하면서 지난날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미풍량속과 생활양식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는 그릇된 경향과 그리고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고 찬미하는 복고주의적경향을 다같이 없애고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에 서서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낡은 도덕관념에 기초한 건전하지 못한 생활인습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운동으로 새로운 도덕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하여 점차 공산주의도덕규범들을 완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참된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을 살리고 공산주의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고상한 도덕풍모를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제자주화투쟁과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

서 치 렬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벌어져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를 심화시키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각성이 높아감에 따라 그들속에서는 반미기운이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반미진출도 더욱 적극화되고있습니다.》

지난날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퍼뜨린 숭미공미사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그들에 대한 환상을 적지 않게 가지고있었다. 이로부터 남조선사람들속에서는 미국을 《우방》과 《벗》으로, 미제침략군을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해주는 《평화의 사도》로 잘못 인식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괴뢰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은 벌어졌으나 미제를 직접 반대하는 투쟁은 활발히 벌어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생활과 투쟁과정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고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민지통치의 원흉인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특히 1980년에 있은 영웅적광주인민봉기때 미제가 남조선괴뢰군무력을 내몰아 애국적인 봉기자들을 닥치는대로 무참히 학살케 한 사실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가 《보호자》, 《원조자》가 아니라 바로 침략자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영웅적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남조선도처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오늘에 와서는 막을수 없는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놈들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있다.

침략과 전쟁 정책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고 직접적인 군사행동지대로 전변시킨 목적은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 나아가서 전아세아대륙을 침략하려는데 있다. 미제는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40년이 넘도록 항시적으로 배치해놓고있으며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량살륙무기들을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조밀하게 배치해놓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남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비롯하여 모든것을 전쟁정책수행에 총동원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서 침략적인 전쟁정책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는것은 곧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전반핵운동은 1983년말 호전광 레간의 남조선행각을 전후하여 대중적운동으로 표면화되였으며 최근에는 이 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핵무기가 공공연히 배치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직접 거론되는 마당에 있는 우리는 반전, 반핵 평화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반전반핵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반도가 핵전쟁과 핵무기시험장이 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날로 증대되는 핵전쟁의 위험을 경계하며 반핵투쟁결의를 다지는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적극적인 구호를 제기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최근 2년 남짓한 기간에 남조선인민들이 반전반핵구호를 정면에 제기하고 투쟁한것은 알려진것만도 210여건이나 된다.

남조선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전반핵운동에서는 청년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그들은 《양키놈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제 나라로 돌아가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라는 구호를 웨치며 반미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을 때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놈들이 강요하는 《전방부대입소훈련》을 미제의 고용병교육으로 락인하고 《양키의 고용병교육과 전방부대입소결사반대》, 《팀 스피리트반대》, 《몰아내자 양키놈》, 《미제를 타도하자》라는 격렬한 반미구호밑에 폭력적인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반전반핵운동은 재야정계인들과 종교인들, 각계층 녀성들 속에서도 널리 벌어지고있다.

1983년 레간의 남조선행각과 때를 같이하여 재야민주인사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그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나라가 《핵전쟁터가 될 위험을 지니고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리유로도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로동자복지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련합》 녀성부, 《카톨릭녀성농민회》 등 13개의 단체들은 《과다한 군사비의 부담》과 《핵무기배치》를 반대하고 《외세에 의해 강요되는 민족분단의 고착화와 조선반도의 핵기지화를 결사반대》한다고 하면서 미제의 전쟁책동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여기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광범히 참가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전쟁정책을 추구하고있는 미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남조선에 있는 미제의 현지지배기구들에 대한 점거, 습격, 방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현지지배기구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남조선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중앙정보부 남조선지부 《국제개발처》, 《문화원》, 《군사령부》 등 현지지배기구들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활동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고있으며 그 모든것들이 저들의 지령과 류동하는 정세추이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배후조종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미국《대사관》과 《련합군사령부》는 무제한한 권한을 틀어쥐

고 모든것을 쥐락펴락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있는 현지지배기구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유지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현지지배기구들을 타격하는것은 곧 미제의 식민지통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남조선에 있는 미제의 현지지배기구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집회, 시위, 롱성, 격문과 삐라살포, 점거, 습격, 방화와 같은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도 반파쑈민주화투쟁이 기본으로 되던 때의 반미투쟁은 집회와 시위, 격문과 삐라살포 등 인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투쟁이 위주로 되였었다.

이 시기 투쟁의 선각자들은 더욱더 많은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반미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죄악상을 폭로하는 격문과 삐라살포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1982년 부산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른 투쟁참가자들이 시민의 래왕이 가장 많은 낮2시에 고층건물에서 수백장의 반미삐라를 뿌린것은 그들이 인민들을 각성시켜 반미투쟁에로 불러일으키려는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 이후에도 반미투쟁참가자들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떨쳐나선 애국적청년학생들을 《망나니》라고 하면서 모욕하고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사령관 위컴이란자가 남조선인민들이 《들쥐와 같아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를 따라갈것》이라고 발언을 한것을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한것 등은 다 인민들의 민족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켜 반미투쟁대렬을 늘이려는데 있는것이였다.

반미자주화의 구호밑에 미제를 주되는 타격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전두환파쑈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결합시키고 있는 현단계에서 반미투쟁선각자들은 미제의 현지지배기구들을 주되는 타격대상으로 하여 점거, 습격, 방화와 같은 적극적인 투쟁형태를 취하고있다.

지난해 5월에 있은 청년학생들의 서울미국문화원점거투쟁은 남조선에 있는 미제의 현지지배기구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은 대낮에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학살책임규명위원회》의 명의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에게 텔레비죤앞에 나와 광주봉기때 미제가 남조선인민들을 학살한 잘못을 공개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현상이다.

사실 지난 기간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많이 벌렸지만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과 같이 중요한 미제의 현지지배기구를 많은 청년학생들이 일시에 점거하고 놈들의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과감한 투쟁을 벌린적은 일찌기 없었던것이다.

이 투쟁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에 있는 미제의 현지지배기구에 대한 습격, 방화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리였다.

지난 5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부산에 있는 미국문화원을 점거하였으며 6월에는 미국아메리칸은행 남조선 원효지점과 성동지점, 중구지점들을 습격하고 인화병세례를 안겼다. 그리고 용감한 청년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까지 점거하기 위한 투쟁을 무차별나 벌렸다.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에 커다란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미제의 현지지배기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습격, 점거, 방화와 같은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은 남조선에서 반미자주세력과 미제침략자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매우 첨예화되였다는것과 미제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이 매우 강렬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조직의 지도밑에 목적의식적이며 계획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이 승리하자면 반드시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고 행동에서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래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탄압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싸워 승리할수 있다. 이것은 지난날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 반미 투쟁이 남긴 귀중한 교훈이다. 바로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들의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지도밑에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을 벌리는 투쟁단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미자주화반파쑈민주화투쟁위원회》와 《반제반파쑈민족민주투쟁위원회》이다.

이 조직들은 《삼민투쟁위원회》의 후신조직이다.

1985년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삼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삼민리념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을 점거하는 투쟁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반미, 반독재 투쟁을 벌렸다.

그후 《삼민투쟁위원회》 성원들은 자기들의 조직을 반미적성격을 띤 조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미자주화반파쑈민주화투쟁위원회》와 《반제반파쑈민족민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들은 《민족민주혁명론》을 내놓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족민중련합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이 조직의 지도밑에 미제를 《침략자》, 《군부파쑈통치의 조종자》, 《민족분단의 원흉》으로 락인찍고 《양키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적인 반미투쟁조직들이 광범히 조직되고 그 지도밑에 인민대중의 반미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된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반미자주의식과 선진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선각자들의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투쟁의 핵심들은 광주봉기 이후 인민대중의 투쟁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그 경험과 교훈을 찾는 수많은 책들을 썼다.

한편 운동의 지도핵심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진보적인 사상을 서술한 수많은 책들을 비합법, 반합법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자신들이 먼저 읽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투쟁의 핵심들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각계층을 의식화하는데 리용한 진보적서적들은 1천 800여종에 달하며 그중 청년학생들속에 읽히운것만도 850여종에 달한다.

투쟁의 핵심들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들을 의식화하기 위하여 출판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출판물들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그리고 그들은 진보적서적들을 출판하기 위해 《금요회》라는 조직을 뭇고 여기에 《거름》, 《돌베개》라는 명칭을 가진 출판사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출판사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로동계급의 수령들의 저작들과 대중운동의 선각자들이 쓴 서적들을 대량적으로 번역출판하였다.

번역물중에는 공산주의리론과 혁명운동의 원리, 사회혁명의 전략전술, 진보적 사상리론과 문예리론을 취급한 책들이 대부분이며 창작물은 남조선 최하층 인민들의 빈곤한 생활처지와 집권층의

부정부패행위를 폭로한 글들과 민족해방운동과 대중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취급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민대중을 사회운동의 주체, 담당자로 규정짓고 그들의 활동에서는 사상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그리고 투쟁에서 지조를 끝까지 지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세계관, 혁명관, 인생관 문제를 다양한 주제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출판물을 투쟁의 량식으로 삼고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두환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나고있다.

투쟁은 사회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으로부터 일어나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핵심들이 자라나고 단련된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철폐되지 않고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가 계속되는 한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세차게 벌어질것이다.

모든 사실은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반미자주화투쟁이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계속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을 가로막고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의 자주적발전과 참다운 인간의 존엄을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일시적인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정의의 위업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추켜든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올림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86년 제12호(루계 536호)

편집위원회

낸곳●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6년 12월 1일 발행●1986년 12월 3일

ㄱ—6514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1986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수 페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편집국론설

혁명전통론설

당건설론설

정치사상론설

경제건설론설

과학문화론설

경 험 론 설

조국통일 및 남조선 론설

국 제 론 설

자료 및 반동리론비판 론설

방 문 기

형제당들에서